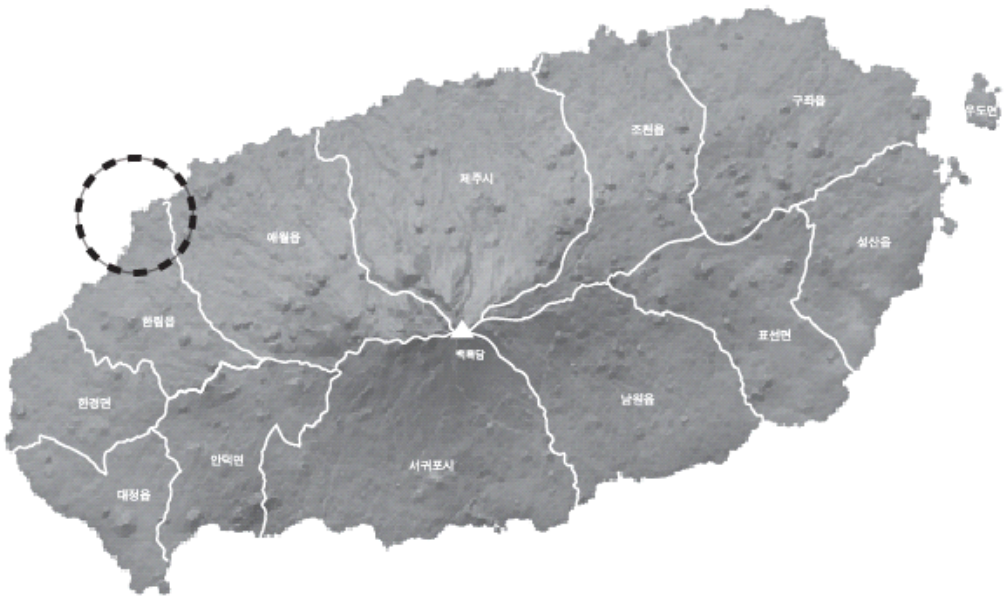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18-01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0

–한림읍 월령리

구술: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전사·표준어 대역: 안민희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1-1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0

-한림읍 월령리

목 차

.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44
3. 밭일 ····· 97
4. 들일 ····· 168
5. 바다일 ····· 190
6. 의생활 ····· 223
7. 식생활 ····· 239
8. 주생활 ····· 253
9. 신앙 ····· 256
10. 세시풍속 ····· 262
11. 놀이 ····· 265
12. 통과의례 ····· 268
13. 민간요법 ····· 288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301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른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친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이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이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배당함으로써 표준어 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원만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소속과 전공, 연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과 구술 제보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비고(담당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5. 사업 추진 과정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래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 통일하였다. 매달 모임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를 거치며 통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불능인 경우는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기로 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의 띄어쓰기를 같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하고, ‘허는구나, 헷구나’ 등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술자료의 @는 조사사, #은 구술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며, 첫 줄은 ‘들여쓰기’ 하기로 한다.

-장 구분을 할 때는 enter를 2회 치기로 한다.

한편 월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사된 모든 구술 자료는 표준어 대역을 한다.
- 조사된 내용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를 번갈아 가며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경우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 ’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힌다.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인 경우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안민희, #1: 강춘랑, #2: 고상춘, #3: 양창부, #4: 문국자)

1. 조사 마을

101001 #1 열매 타 먹고 제일 처음에 월령서 태어나서 엿날 할망덜 말이 가문질[1] 무사산디 무신 따문인진 몰라도 월령 어디던지.(열매 따서 먹고 제일 처음에 월령에서 태어나서 옛날 할머니들 말이 '가문질', 왜인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월령 어디든지.)

101001 @ 이 마을은 어떵 생겨신고예?(이 마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01001 #1 어떵 생긴 것이 무신거라?(어떻게 생겼다는 말이 뭐야?)

101001 @ 마을 자체가 월령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신고예?(마을 자체가 월령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101001 #1 건 몰라. 이름 무신 거 지은 거.(건 몰라. 이름 무슨 거 지은 거)

101001 @ 달하고 관곈 어신가예?(달하고 관곈 없나요?)

101001 #1 달? 몰라. 무신 관계가 싯는 거라?(달? 몰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101001 @ 달 월자를 쓰거든예.(달 월자를 쓰거든요.)

101001 #1 몰라. 아 월령이렌 허난, 걸 어떵 생각 남구나이. 가문질, 엿날 할망덜 말이 가문질이엔도 허곡, 가문질이엔 허여. 무사산디.(몰라. 아, 월령이라고 하니까, 걸 어떻게 생각났구나. '가문질', 옛날 할머니들 말이 '가문질'이라고도 하고, '가문질'이라고 해. 왜인지.)

101001 @ 가문, 가문질?(가문, '가문질'?)

101001 #1 응. 그 엿날 할망덜 곤단 말이고, 월령은 이제 누구나가 이제 다 새로 나온 사람덜이영 월령.(응. 그 옛날 할머니들 말하던 말이고, 월령은 이제 누구나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하고 월령.)

101001 @ 원래 지명이 잇덴마씨. 원래 이름이 정말 중요헌 거라예?(원래 지명이 있대요. 원래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지요?)

101001 #1 우린 가문질이엔 허주기. 옛날 사람덜은 무신 따문산디 모른디 옛날 사람덜은 가문질이엔 허는디, 요새 난 사람덜은 월령이엔 ᄒᆞ민 어디던지 다 알아.(우리는 '가문질'이라고 하지. 옛날 사람들은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가문질'이라고 했는데, 요새 난 사람들은 월령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다 알아.)

---

1) '가문질'은 월령리의 옛 지명이다.

101001 @ 월령이란 이름은 무사 월령이렌 헤신고예.(월령이라는 이름은 왜 월령이라고 했을까요?)

101001 #2 월령은 다 아븐질[2]이렌 헤낫어, 곶왓이라낫주기게. 낭이 많이 나니까 곶자왈, 아븐질, 경허다가 이름이 월령으로 이제 그 뒈서.(월령은 다 '아븐질'이라고 했었어. 곶자왈이었지. 나무가 많이 나니까 곶자왈, '아븐질', 그렇게 하다가 이름이 월령으로 이제 그 되었어.)

101001 @ 달허고 관계엇고예?(달하고 관계없고요?)

101001 #2 엇고, 건 아니고, 어떤 디, 리사무소에서 보난 금능리에서 여기 오젠 허믄 지름길이 이섯덴. 곶자왈로 동산만 넘으민 월령리로 오랏덴. 경허니까 아븐질 허다가 월령리로 뒈엇주기.(없고, 건 아니고, 어떤 데, 리사무소에서 보니까 금능리에서 여기 오려고 하면 지름길이 있었다고. 곶자왈로 동산만 넘으면 월령리로 왔었다고. 그러니까 '아븐질' 하다가 월령리로 되었지.)

101001 @ 원래 금능리에 붙엇수과?(원래 금능리에 붙었습니까?)

101001 #2 아니, 아니. 그전인 판포에 많이 머시기 헤낫주기.(아니, 아니. 그전엔 판포에 많이 뭐 했었지.)

101001 #3 이 월령리옌 허는 부락이 엿날엔 아문질이여 아문질. 막 곶자왈로 어우러진 부락이주기. 게난 우리 하르방 조상덜이 치우멍 치우멍 헤연 그 저 잣담을, 이디 잣담, 우알담 있지이? 저 잣 영 보믄 딱 둘렁 싯지 않으냐? 잣, 곶자왈 치우멍 그 이넉 츠지헌 거 아니가? 경 허멍 네우멍 헌 부락이여. 이 부락이. 우리 할아버지 멧 대 할아버지 때부터 경 헌 부락인디, 이디가 지금은 월령이, 첨 뭐헤연 변경뒈어 가지곡 다 월령. 기와집도 짓고 뭐허곡, 옛날은 초가집이여. 케케묵은 초가집.(이 월령리라고 하는 부락이 옛날에는 '아문질'이야 '아문질'. 막 곶자왈로 어우러진 부락이었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이 치우면서 치우면서 해서 그 저 '잣담'을, 여기 '잣담', 위 아랫담 있지? 저 잣 이렇게 보면 딱 둘러 있지 않니? 잣, 곶자왈 치우며 그 이넉 차지한 거 아니니? 그렇게 하며 내우면서 한 부락이야. 이 부락이. 우리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부락인데, 여기가 지금은 월령이, 참 뭐해서 변경되어 가지고 다 월령, 기와집도 짓고, 뭐하고, 옛날은 초가집이야. 케케묵은 초가집.)

101001 @ 게난 아문질이옌 헷다는 거지예?(그러니까 '아문질'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101001 #3 어. 아문질, 아문질 헤낫저.(어. '아문질', '아문질' 했었지.)

101001 @ 아문질의 뜻은 뭐?('아문질'의 뜻은 뭐?)

101001 #3 막 곶자왈로 어우러지니까 아문질로 헤난 모양이라.(막 곶자왈로 어우러지니까 '아문질'로 했던 모양이야.)

101002 @ 강씨 성도 많고 성씨가 이 마을은 무신 성이 만헙네까?(강씨 성도 많고 성씨가 이 마을은 무슨 성이 많습니까?)

---

2) '아문질'은 월령리의 옛 지명으로 '가문질'이라고도 불렀다.

101002 #1 월령 강씨도 두 가지, 양씨도 싯고, 무신 성씨가 한디 걸 알앗저게?(월령 강씨도 두 가지, 양씨도 있고, 무슨 성씨가 많은지 걸 알 수 있어?)

101002 @ 겐 이 마을은 삼촌은 강씨잖아예? 아부지가 강씨로 헨 대대로 계신 거 아니예?(그래서 이 마을은 삼촌은 강씨잖아요? 아버지가 강씨로 해서 대대로 계신 거 아니요?)

101002 #1 아부지 성 우리가 허난게.(아버지 성 우리가 하니까.)

101002 @ 강씨 성도 많고, 무신 성이 많으꽈?(강씨 성도 많고, 무슨 성이 많습니까?)

101002 #1 월령 강씨도 두 가지일 거라. 쉐뿔 강, 이 두 가지옌 허여.(월령 강씨도 두 가지일 거야. 소뿔 강, 이 두 가지라고 해.)

101002 @ 강씨도 있고, 김씨 뭐 성씨가 제일 많은 성씨가 무신 거 닮수과? 양씨도 많지양?(강씨도 있고, 김씨 뭐 성씨가 제일 많은 성씨가 무슨 거 같습니까? 양씨도 많지요?)

101002 #1 몰라. 뭣사 하신지. 양씨도 싯고, 무신 성씨가 한디 알앗저게? 월령 강씨도 두 가질 거라. 쉐뿔 강 두 가지옌 허여.(몰라. 뭐가 많은지. 양씨도 있고, 무슨 성씨가 많은지 알 수 있어? 월령 강씨도 두 가질 거야. 소뿔 강 두 가지라고 해.)

101002 @ 이 마을엔 무신 성씨가 많이 잇수과?(이 마을에는 무슨 성씨가 많이 있습니까?)

101002 #2 고씨보다도 이씨가 많허여. 이씨에, 강씨도 잇고, 양씨도 잇고, 다 있지 뭐. 강씨, 고씨보다도 저 이씨가 많허고, 강씨가 많허고, 양씨, 그 다음은 벨반.(고씨보다도 이씨가 많아. 이씨에, 강씨도 있고, 양씨도 있고, 다 있지 뭐. 강씨, 고씨보다도 저 이씨가 많고, 강씨도 많고, 양씨, 그 다음은 별반.)

101002 @ 삼촌네 원래 제주도 고씨 멧 대꽈?(삼촌네 원래 제주도 고씨 몇 대입니까?)

101002 #2 오십팔 댄가?(오십팔 댄가?)

101002 @ 이 마을에 주로 성씨, 강씨여, 이씨여, 어떤 씨가 많아마씨?(이 마을에 주로 성씨는 강씨다, 이씨다, 어떤 씨가 많아요?)

101002 #3 나 양씬디 양씨, 고씨, 부씨, 에 아이구, 또 이씨, 이칩이 만헌다. 또 김씨, 김씨도 많고, 또 에, 옛날엔 이 호수가 이, 벡호 미만이라낫저.(나 양씬데 양씨, 고씨, 부씨, 에 아이고, 또 이씨, 이씨 집이 많다. 또 김씨, 김씨도 많고, 또 에, 옛날엔 이 호수가, 백 호 미만이었었어.)

101002 @ 백 호 미만예? 월령 작은?(백 호 미만요? 월령 작은?)

101002 #3 구십칠 혼가 기여. 옛날은, 이제는 이거 뭐 막 부락이 불어난 이제 뭐 헷주만은 엿날인 구십구 백 호가 못 뒈언.(구십칠 혼가 그래. 옛날은, 이제는 이거 뭐 아주 부락이 불어나서 이제 뭐 했지만 옛날엔 구십구, 백 호가 못 되었어.)

101002 @ 구십칠 호, 작은 ᄆᆞ을이라는 거지예?(구십칠 호, 작은 마을이라는 거

지요?)

101002 #3 작은 ᄆᆞ을이라낫저.(작은 마을이었지.)

101002 #2 작은 마을이난 인정도 잇고.(작은 마을이니까 인정도 있고.)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허여마씨?(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101003 #1 선인장, 제일 문저 나온디난이, 이제 직금, 선인장 타민 돈이니까 열매 타민.(선인장, 제일 먼저 나온 데니까, 이제 지금, 선인장 따면 돈이니까 열매를 따면.)

101003 @ 선인장예? 밧디, 근디 선인장이 지금 따는 철이우꽈? 벌겅ᄒᆞ연.(선인장이요? 밭에, 그런데 선인장이 지금 따는 철입니까? 빨강해서.)

101003 #1 벌겅ᄒᆞ민 따사. 거 따민 일 년에 ᄒᆞᆫ 번 올아이. 땃당 ᄀᆞ만이 놔두민 또 이제 ᄀᆞ장 피언 이제 또.(벌거면 따야. 거 따면 일 년에 한 번 열어. 땄다가 가만히 놔두면 또 이제는 꽃 피어서 이제 또.)

101003 @ 한 동안엔 수지가 좋덴 헨게.(한 동안은 수지가 좋다고 하던데.)

101003 #1 무시거?(뭐라고?)

101003 @ 수지가 좋덴, 수입이 좋덴 헨게. 이젠 또 안 헤불민?(수지가 좋다고, 수입이 좋다고 하던데, 이제 또 안 해버리면?)

101003 #1 ᄒᆞᆫ 콘테나에 오만 원씩, 올히 작년, 올히가 지일 비싸.(한 컨테이너에 오만 원씩, 올해 작년, 올해가 제일 비싸.)

101003 @ 아, 그난 이젠 버리진 않겠다예?(아, 그러니까 이제는 버리진 않겠네요?)

101003 #1 아니 버려. 먹어 보멍덜이. 다 먹을 수 엇이니까.(아니 버려. 먹어 보면서들. 다 먹을 수 없으니까.)

101003 @ 작년 올히가 무사 비싼고예? 저 비누여 뭐여 어디서 생산허는 셍이우다예?(작년 올해가 왜 비싼가요? 저 비누다 뭐다 어디서 생산하는 모양이네요?)

101003 #1 몰라. 그ᄁᆞ장도 모르고.(몰라. 그까지도 모르고.)

101003 @ 한동안 중간에 막 저 가시도 그렇고 이거 저 돈 안 뒈엄저 해가지고 밧디 네불엄저 허는 소문도 나낫수다게. 한 번 경헤도 영 수입이 뒈난 다행인게. 게난 밧디 오당 보난 뻘겅 헌 게 그대로 이시난 아이고 이거.(한동안 중간에 막 저 가시도 그렇고 이거 저 돈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밭에 내버린다 하는 소문도 났었습니다. 한 번 그래도 이렇게 수입이 되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밭에 오다 보니까 빨강 한 게 그대로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101003 #1 어디서 타ᄃᆞ렌 헤사 타이. 탕 놔두민 썩어비는 따문이. 어디서 요청이 들어와사 그자, 올린 몰라. 어디서 들어왐신디 말암신디, 난 아이덜 다 줘부난 나도 하영 헷주만은이, 저 산전에도 이천 평 나도 싱근 거, 이제 늙어 부난 난 아이덜 다 줘불어서이. 느네덜 알앙 타던지 말던지 허렌.(어디서 따달라고 해야 따. 따서 놔두면 썩어버리는 때문에. 어디서 요청이 들어와야 그저, 올핸 몰라. 어디서 들

어오는지 마는지, 난 아이들 다 줘 버리니까 나도 많이 했지만, 저 중 산간에도 이천 평, 나도 심은 거, 이제 늙으니까 난 아이들 다 줘 버렸어. 너희들 알아서 따든지 말든지 하라고.)

101003 @ 아, 아이덜이 그믄 아덜이 영 타레 옵니까?(아, 아이들이,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따러 옵니까?)

101003 #1 게난 아덜이 못 왕 바쁘민 그디서 담앙 보냄이라도 허곡이, 아덜 두 개, 뚤 네 개라노난이.(그러니까 아들이 못 와서 바쁘면 거기서 담아서 보내기라도 하고, 아들 둘, 딸 넷이니까.)

101003 @ 이천 평예? 멧 년 간 이천 평 농사를 지은 거마씨? 삼촌?(이천 평요? 몇 년간 이천 평 농사를 지예요? 삼촌?)

101003 #1 누게? 시상 나난 이렇게 농사지으단 선인장 싱그난 선인장 헴주기게. 뭣을 허여.(누구? 세상 나니까 이렇게 농사짓다가 선인장 심으니까 선인장 하지. 뭣을 해.)

101003 @ 농사 콩이여, 풑이여. 저 보리여. 다 헤낫다는 거지예? 옛날 해난 일들이 제일 중요허난예.(농사 콩이다, 팥이다. 저 보리다. 다 했었다는 거지요? 옛날 했었던 일들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101003 #1 게. 물에도 들어나고, 바닷가에 강, 육지도 가나고, 일본도 가나곡, 안 뎅긴 디 어시 쳐 뎅기멍, 잘 댕겨서. 일본은 돈 벌레, 물질허레 간 것이 아니곡 일본가민 식당에서 그릇 씻어이. 경허민 돈 줘. 일본은 가민 그릇 씻고 그 식당에이, 육진 가민 이제 저 물질 해나서이. 우리 젊은 때.(그래. 물에도 들었었고, 바닷가에 가서, 육지도 갔었고, 일본에도 갔었고, 안 다닌 데 없이 쳐 다니면서, 잘 다녔지. 일본은 돈 벌러, 물질하러 간 것이 아니고 일본가면 식당에서 그릇 씻어. 그러면 돈을 줘. 일본은 가면 그릇 씻고 그 식당에, 육지는 가면 이제 저 물질 했었어. 우리 젊은 때.)

101003 @ 아, 출가 물질?(아, 출가 물질?)

101003 #1 우리도 물질은 헤낫주기. 젊을 때 이제 늙으난 안 헌다.(우리도 물질은 했었지. 젊을 때, 이제는 늙으니까 안 한다.)

101003 @ 아이구야,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여자는 물질?(아이구야,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여자는 물질?)

101003 #1 응. 물질 다 헤여이.(응. 물질 다 하지.)

101003 @ 거의 여자덜은 물질을 허곡 농사도 짓고 그믄 농사는 무슨 농살 옛날엔 지어낫수과?(거의 여자들은 물질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 농사는 무슨 농살 옛날엔 지었었습니까?)

101003 #1 응. 옛날덜 보리도 허곡 감제도 허곡이, 이젠 다 선인장 싱경 선인장 탐주만은 옛날은 그런 것덜 헹게.(응. 옛날들 보리도 하고 고구마도 하고, 이젠 다 선인장 심어서 선인장 따지만 옛날은 그런 것들 했지.)

101003 @ 보리, 감제 특히 잘 뒈는 농사가 무슨 농사엿수과?(보리, 고구마, 특

히 잘 되는 농사가 무슨 농사였습니까?)

101003 #1 그거 제일 중으로 하영 헤낫주기게. 이젠 선인장 싱그난 그것이 돈이 하기 따문에 펜안허곡게.(그거 제일 중하게 많이 했었지. 이젠 선인장 심으니까 그것이 돈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고.)

101003 @ 보리, 감제 고구마 그 주정 공장이 어디 이서신디 뺏데기만 올리고 이런 거 헤낫잖아예?(보리, 감자 고구마 그 주정 공장이 어디 있었는지 절간고구마만 올리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101003 #1 뺏떼기도 받앙 허여 나고이, 보리도 허여나고, 바당에도.(절간고구마도 받아서 했었고, 보리도 했었고, 바다에도.)

101003 @ 용수나 이런 디 허곡 가까우난 마농 그런 거?(용수나 이런 데 하고 가까우니까 마늘 그런 거?)

101003 #1 마농도 뭐 허주게. 쪼금 해근에 그것도 풀고, 땅에 싱경 ᄒᆞ는 건 다 해나서.(마늘도 뭐 하지. 조금 해서 그것도 팔고, 땅에 심어서 하는 건 다 했었어.)

101003 @ 콩, 뭐 조, 산듸?(콩, 뭐, 조, 밭벼?)

101003 #1 다 해난게. 산듸 이디도 된다. 밧디 허는 거라노난이. 나룩은 물 신디 허는 거고, 산뒨 이제 그냥 밧디 허는 거난이. 산듸허민 뭐 씰 때도 콩밥이라고이 쓰고, 보리밥은 안 뒈지. 뭐 씰 땐 게민 집이.(다 했었지. 밭벼는 여기도 된다. 밭에서 하는 거니까. 벼는 물 있는데 하는 거고, 밭변 이제 그냥 밭에 하는 거니까. 밭벼하면 뭐 쓸 때도 콩밥이라고 쓰고, 보리밥은 안 되지. 뭐 쓸 땐 그러면 집에.)

101003 @ 식게 때도 쓰고예? 그믄 거기 산듸에서 나오는 뭣꽈, 그거? 찍, 찍이렌 헙니까? 뭐 줄기?(제사 때도 쓰고요? 그러면 거기 밭벼에서 나오는 뭡니까, 그거? 짚, 짚이라고 합니까? 뭐 줄기?)

101003 #1 거 무신 말? 산듸 뭐?(거 무슨 말? 밭벼 뭐?)

101003 @ 산듸에서 나오는 그으거.(밭벼에서 나오는 그거.)

101003 #1 뭣이라?(뭐라?)

101003 @ 산듸로 짚신도 삼고.(밭벼로 짚신도 삼고.)

101003 #1 아 찍, 찍, ᄋᆞ 찍, 그거.(아 짚, 짚, 오 짚, 그거.)

101003 @ 그것도 중요하잖아마씨예?(그것도 중요하잖아요?)

101003 #1 아이고, 다 써났주기게. 전인게.(아이고, 다 썼었지. 전에는.)

101003 @ 멍석도 그걸로?(멍석도 그것으로?)

101003 #1 ᄋᆞ게. 걸로 허곡, 노도 꼬고 신도 삼고.(응. 걸로 하고, 새끼도 꼬고, 신도 삼고.)

101003 @ 노도 꼬고예?(새끼도 꼬고요?)

101003 #1 게. 찍으로, 찍도 안 내물어낫주기게.(그래. 짚으로, 짚도 안 나무랐었지.)

101003 @ 물질도 다 여자들은 헷고예?(물질도 여자들은 다 했고요?)

101003 #1 여자덜 이 해각에 사는 사람은 물질도 ᄒᆞ곡, 또 실피 많이 베왕, 어

디 ᄒᆞ꼼 산전덜에 사는 사람덜은 또 못 헤여. 제주도에도, 우리 그때 육지도 가나고이, 물질허연 일본은 가민 식당에 그릇도 씻으멍, 일본도 가나곡이, 젊을 때게, 돈 나는 디믄 어디라도 가주기게.(여자들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물질도 하고, 또 실컷 많이 배워서, 어디 조금 산전들에 사는 사람들은 또 못 해. 제주도에도, 우리 그때 육지도 갔었고, 물질해서 일본은 가면 식당에 그릇도 씻으면서, 일본도 갔었고, 젊을 때, 돈 나는 데면 어디라도 가지.)

101003 @ 이 마을 사람은 무신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은?(이 마을 사람은 무슨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은?)

101003 #2 무신 일을 허여? 농사짓주. 농사도 지금은 옛날엔 보리허고, 그저 보리만 허다가 그루후제 이제 선인장 난 게, 선인장 그 뭣이 한다고.(무슨 일을 해? 농사짓지. 농사도 지금은 옛날엔 보리하고, 그저 보리만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선인장 난 것이, 선인장 그 뭐 한다고.)

101003 @ 선인장 헌 거는 오래 안 뒀지예?(선인장 한 거는 오래 안 되었지요?)

101003 #2 오래 안 둬서. 지금이야 이거 멧 해 뒌 거뿐이주.(오래 안 되었지. 지금이야 몇 해 된 거뿐이지.)

101003 @ 옛날에는 무슨 일을 허멍 농사, 보리, 조, 모멀, 고구마, 감제, 콩, 산듸, 담배, 유채?(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면서 농사, 보리, 조, 메밀, 고구마, 감자, 콩, 밭벼, 담배, 유채?)

101003 #2 그자 그건디 조, 모멀은 벨로 안 허고 그자 고구마, 콩도 벨반 안 헷주. 산듸도 별반 안 헤서. 유채도 베랑 안 허다가 중간에 허다가 그만 때려 치와 불곡 보리는 그저 죽장 게도 식량이 모자라 가지고.(그저 그건데 조, 메밀은 별로 안 하고 그저 고구마, 콩도 별로 안 했지. 밭벼도 별로 안 했어. 유채도 별로 안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그만 때려 쳐 버리고 보리는 그저 계속 그래도 식량이 모자라 가지고.)

101004 @ 그믄 주변에 오름, 내, 바위, 굴 이런 데 있수과 오름은 여기 없잖아예? 금능 여기.(그럼 주변에 오름, 내, 바위, 굴 등 이런 데가 있습니까? 오름은 여기 없잖아요? 금능 여기.)

101004 #1 이 알러렌 엇어. ᄒᆞᆷ 영 요 산간더레 가사 오름 싯주.(이 아래에는 없어. 조금 이렇게 요 산간으로 가야 오름이 있지.)

101004 @ 내창은 이름이 무신 내창?(내는 이름이 무슨 내?)

101004 #1 냇창이 ᄀᆞ만 시라. ᄒᆞ꼼 어딜로 내 ᄂᆞ리는디 월령도 내 내린다만은이. 이 밧으로 ᄂᆞ린다게. 물은 막을 수가 엇지. 바당ᄁᆞ지 ᄂᆞ려가사 되니까.(내가 가만 있어 봐. 조금 어디로 내 내리는데 월령도 내 내린다만. 이 밭으로 내린다. 물은 막을 수가 없지. 바다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101004 @ 도근내[3]니 무슨 외도에도 경 ᄀᆞ릅데다만은.('도근내'니 무슨 외도에도 그렇게 말합디다만.)

3) '도근내'는 제주시 내도에 있는 내 이름이다.

101004 #1 게. 그런 디 일름을 지왕 실거여만은 물 터진 때 월령으로 영 내려온다. 가운데로 허여졍 바당더레 가야 뒈니까 막을 수가 엇지.(그래. 그런 곳에 이름이 지어져 있겠지만 물 터진 때 월령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가운데로 해서 바다로 가야 되니까 막을 수가 없지.)

101004 @ 무슨 내렌 헌지 기억 안남수과 무슨 내? 내 이름?(무슨 내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납니까? 무슨 내?, 내 이름?)

101004 #1 아, 월령은 몰라. 무슨 월령산디도 몰라이. 월령이고 이제 그자 가문질, 엿날이. 가문질이옌 흔다. 엿날 사람덜. 무사 가문질이옌사 허연디 말제라 가난 월령.(아, 월령은 몰라. 무슨 월령인지도 몰라. 월령이고 이제 그저 '가문질', 옛날에. '가문질'이라고 한다. 옛날 사람들. 왜 '가문질'이라고 했는지 나중에 가니까 월령.)

101004 @ 바위 덩어리 뭐 고넹이바위[4]여, 무신 바위 이름덜 고레소[5]여 바당 이름도 다 이십데다.(바위 덩어리 뭐 '고양이바위'며 무슨 바위 이름들 '고레소'며 바다 이름도 다 있습디다.)

101004 #1 바당 이름 이디도 납닥이[6], ᄌᆞ룩코지[7], 버렝이알[8] 바당에 이레 요디 나간 딘 ᄌᆞ룩코지, 막 나간 디가 ᄌᆞ룩코지. ᄒᆞ꼼 남은 딘 납딱해. 이제 물싸도 납딱허게 나오난 납딱이. 또 저펜이 또 질딱ᄒᆞ연 진여[9], ᄒᆞ꼼 넘어가민 검은여[10], 또 무신 것사 신디 몰라. 그 넘어가민 ᄌᆞ작여[11], 월령선 ᄌᆞ작여 허민 어디 지방이로구나. 또 ᄌᆞ룩ᄏᆞ지 ᄒᆞ민 요디로구나 뭐 다 알지. 월령선.(바다 이름 여기도 '납닥이', 'ᄌᆞ룩코지', '버렝이알', 바다에 이렇게 여기에 나간 덴 'ᄌᆞ룩코지', 아주 나간 데가 'ᄌᆞ룩코지', 조금 남은 덴 납작해. 이제 물써도 납짝하게 나오니까 '납딱이'. 또 저편에 또 길쭉해서 '진여', 좀 넘어가면 '검은여', 또 무슨 것이 있는지 몰라. 그 넘어가면 'ᄌᆞ작여', 월령에선 'ᄌᆞ작여' 하면 어디 지방이로구나. 또 'ᄌᆞ룩코지' 하면 여기로구나 뭐 다 알지. 월령선.)

101004 @ 물질허는 분이예? 이름을 다 그걸 알아야.(물질하는 분이요? 이름을 다 그걸 알아야.)

101004 #1 어딜로 가게 허민 이녁 물질허는 사람은 다 알지. 아니 들어난 사름은 몰라도.(어디로 가자 하면 자기가 물질하는 사람은 다 알지. 아니 들었던 사람은 몰라도.)

101004 @ 이름이 옛날 그대로 오고셍이[12] 남으난 이 이름조차도 중요한 거라

---

4) 'ᄀᆞ넹이 바위'는 월령리에 있는 바위로 고양이 모양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5) '고레소'는 월령리에 있는 맷돌모양의 바위를 말한다.
6) '납닥이'는 월령리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7) 'ᄌᆞ룩코지'는 월령리 해안의 한 지명으로 모양이 낫자루 같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8) '버렝이알'은 금능의 옛 지명이다. '버렝이(벌레)'에서 나온 말로 금능리 아래쪽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9) '진여'는 월령리에 있는 여 중 하나로 길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10) '검은여'는 월령리에 있는 여 중 하나로 검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11) 'ᄌᆞ작여'는 월령에 있는 여 중 하나다.
12) '오고셍이'는 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 있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예.(이름이 옛날 그대로 '오고셍이' 남으니까 이 이름조차도 중요한 거지요.)

101004 #1 맞아. 우리 ᄀᆞ튼 우리 낫솔 한 사람은 어디 감저 허민 훤하게 알지. 새로 온 사람은 몰라도.(맞아. 우리 같은 우리 낫살 많은 사람은 어디 간다 하면 훤하게 알지. 새로 온 사람은 몰라도.)

101004 @ 누가 나중에 그것이 이름이 있었던 걸 알쿠과?(누가 나중에 그것이 이름이 있었던 걸 알겠습니까?)

101004 #1 밀어져가지. 아니 불르민 밀어지는 거. 우리 낫솔엔 다 알주만은이 새로 난 사람덜 알 만한 사람은 다.(잊혀져가지. 안 부르면 잊혀지는 거. 우리 낫살에는 다 알지만 새로 난 사람들 알 만한 사람은 다.)

101004 @ 이것도 역사 기록 안 허민 안 뒈여. 엇어져 부는 거. 경허난 이런 작업을 헴수다.(이것도 역사 기록 안 하면 안 돼.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합니다.)

101004 #1 맞아 맞아.(맞아 맞아.)

101004 @ 굴, 무슨 동굴 잇수과?(굴, 무슨 동굴 있습니까?)

101004 #1 엇어. 동굴은 엇고.(없어. 동굴은 없고.)

101004 @ 동굴은 엇고예. 바당에도 막 굴덜, 일본 사람덜.(동굴은 없고요. 바다에도 막 굴들, 일본 사람들.)

101004 #1 굴은 아니고 나 ᄀᆞᆺ사 ᄀᆞᆯ았지이. ᄌᆞ룩코지, 뭐 납닥, 버렝이알, 진여, 요것덜 그냥 영 요레 검은 ᄃᆞᆨᄆᆞ리[13], 검은 ᄃᆞᆨᄆᆞ리엔 허여. 요렌 뭣산디 무사산디 몰라이. 또 바로 우리 이 바론디 개창[14], 이 배 메는 디난 개창, ᄒᆞ꼼 더 가민 나 ᄀᆞᆺ사 ᄀᆞᆯ았지, ᄌᆞ룩코지. 또 ᄒᆞ꼼 가민 납닥헌 여 시난 납닥이, 또 ᄒᆞ꼼 더 가민 진여, 저펜더레 검은여. 글로더렌 금능 ᄆᆞ을이난이 ᄂᆞᆷ이 ᄆᆞ을ᄁᆞ지 알 필요가 엇주기. 경허민 아무 디 감저, 물질허레 가게 허민 훤허게 알지. 월령 사람은 바당 이름을 지우니까, 게난 거 바당 이름도 잘 지와서 어디 개것이여만 허민 모를 건디 어딘 어디고, 어딘 어디고, 훤허게 ᄀᆞᆯ으민 이디 사람덜 다 알아. 우리 낫솔엔이 아니 들어난 아이덜은 커도 모르주만게, 물에 들멍 아무디 감저 허민 그레덜 와이. 물에 들레이.(굴은 아니고 나 아까 말했지. '주룩코지', 뭐 '납닥', '버렝이알', '진여', 요것들 그냥 이렇게 요기 '검은 ᄃᆞᆨᄆᆞ리', '검은 ᄃᆞᆨᄆᆞ리'라고 해. 요린 뭐인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 또 바로 우리 이 바론데 '개창', 이 배 메는 데니까 '개창', 조금 더 가면 내가 아까 말했지, '주룩코지'. 또 조금 가면 납작한 여 있으니까 '납닥이', 또 조금 더 가면 '진여', 저쪽으로 '검은여'. 거기로는 금능 마을이니까 남의 마을까지 알 필요가 없지. 그러면 아무 데 간다. 물질하러 가자 하면 훤하게 알지. 월령 사람은 바다 이름을 지으니까, 그래서 거 바다 이름도 잘 지어서 어디 바닷가야만 하면 모를 건데 어딘 어디고, 어딘 어디고, 훤하게 말하면 여기 사람들 다 알아. 우리 낫살에는, 아니 들었던 아이들은 커도 모르지만, 물에 들면서 아무데 간다 하면 그리로 와. 물에

13) '검은 ᄃᆞᆨ모리'는 월령리에 있는 검은 바위 이름이다.
14) '개창'은 배 매는 곳을 말한다.

들러.)

101004 @ 이 마을에 내창?(이 마을에 내?)

101004 #2 내창 이것도 냇창인디 우로 막아불엇어. 이젠 내창 엇어.(내 이것도 내인데 위로 막아버렸어. 이젠 내 없어.)

101004 @ 그믄 이 ᄆᆞ실 주변에 오름, 내창, 바위,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그럼 이 마을 주변에 오름, 내, 바위,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101004 #3 오름이옌 헌 건 월령 우이 오름 정월이 오름[15]벳긔 엇다.(오름이라고 한 건 월령 위에 오름, 정월이 오름밖에 없다.)

101004 @ 정월이 오름, 그믄 이 정월이 오름은 어느 마을에 위치해 잇수과?('정월이 오름', 그러면 이 '정월이 오름'은 어느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까?)

101004 #3 우리 헤당뒌 거여. 그 저 지경이.(우리 해당된 거야. 그 저 지경이.)

101004 @ 옛날에 지경이 가믄 거기에 삭다리도 허레도 가고 솔잎도 긁으레 가고.(옛날에 지경에 가면 거기에 삭정이도 하러 가고 솔잎도 그러모으러 가고.)

101004 #3 삭다리도 헤 왔고, 그 머 옛날 집 일젠 새도 허레 그디 가곡게. 모든 거 다 헤세.(삭정이도 해 왔고, 그 뭐 옛날 집 일려고 띠도 하러 거기 가고. 모든 거 다 했지.)

101004 @ 무사 이름이 정월이 오름이꽈?(왜 이름이 '정월이 오름'입니까?)

101004 #3 거 모르지게.(거 모르지.)

101004 @ 그냥 정월이오름 막 높이도 높아마씨? 높으지 안허여?(그냥 '정월이오름' 막 높이도 높아요? 높지 않아요?)

101004 #3 경 높으지 안허여. 판포오름[16]만이 헌다.(그렇게 높지 않아. 판포오름만큼 한다.)

101004 @ 판포오름만이예. 지금은 정월이 오름이렌 지금도 헙니까?('판포오름'만큼요. 지금은 '정월이오름'이라고 지금도 합니까?)

101004 #3 ᄋᆞ, 지금도 정월이, 정월이 경 흔다.(응, 지금도 정월이, 정월이 그렇게 한다.)

101004 @ 걸엉 멧 분 정도 걸립니까?(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101004 #3 걸어서 우리 그 웃대 할아버지 그디.(걸어서 우리 그 윗대 할아버지 거기.)

101004 @ 벌초 헴구나예?(벌초 하는군요?)

101004 #3 아니, 모시고 있주기. 묘제 때 1년에 한 번 그 묘제 헌다. 하르부지가 그 하르부지, 옛날엔 새 확 실런 강 허주만 엿날은 몬딱 졍 댕겨낫저. 음식을 졍 댕겨나서. 지민 흔 사십분, 오십분 걸린다. 거짐 한 시간 잡아야 뒈.(아니, 모시고 있지. 묘제 때 1년에 한 번 그 묘제 한다.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옛날엔 띠 확 실어 가서 하지만 옛날은 모두 져서 다녔었지. 음식을 지고 다녔어. 지면 한 사십

15) '정월이오름'은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남동쪽에 있는 오름이다. 표고 106미터다.
16) '판포오름'은 한경면 판포리에 있는 오름이다. '널개 오름', '판포악(板浦岳)'이라고도 한다.

분, 오십분 걸린다. 거의 한 시간 잡아야 돼.)

101004 @ 내창은 무신 내창 이섯수과?(내는 무슨 내가 있었습니까?)

101004 #3 내창은 이디 옛날, 이디 내창 엇어낫저. 게난 이디 새로 멘들안덜 절로 물 네려 온 디 싯지이. 올레길 빤 디 싯지 않는냐? 그 옆으로 이제 냇창은 멘들아 잇는디 옛날엔 그 업엇거든.(내는 여기 옛날, 여기 내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 새로 만들어서들 저리로 물이 내려온 데 있지. '올레길' 뺀 데 있지 않니? 그 옆으로 이제 내는 만들어 있는데 옛날엔 그 없었거든.)

101004 @ 멘든 내창이로구나예?(만든 내로군요?)

101004 #3 응.(응.)

101004 @ 아주 옛날에.(아주 옛날에.)

101004 #3 어, 옛날엔 엇엇저.(어, 옛날엔 없었지.)

101004 @ 내가 어섯수과? 옛날에는 내창이 어섯수과? 아 예?(내가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없었습니까? 아 예?)

101004 #3 아니 그 무사 내창 어서게? 내창허믄 이디 막 물 영 집덜도 끗어가고 막 헤낫저.(아니, 그 왜 내가 없어? 내하면 여기 마구 물이 이렇게 집들도 끌어가고 마구 했었지.)

101004 @ 그 내창 이름을 기억해졈수과?(그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101004 #3 내창 이름 그냥 무끗딜[17]로 내려온 내창이옌 경만 헤낫주기.(내 이름 그냥 '무끗딜'로 내려온 내라고 그렇게만 했었지.)

101004 @ 무끗딜로 내려온 내창예?('무끗딜'로 내려온 내요?)

101004 #3 응.(응.)

101004 @ 게난 그 물이 막 바당으로 막 내려왓수과?(그러니까 그 물이 마구 바다로 막 내려왔습니까?)

101004 #3 응, 바당더레. 이 집 앞으로, 다리 앞이 싯지이. 글로 밋밋[18] 내려간다.(응, 바다로. 이 집 앞으로, 다리 앞에 있지. 거기로 '밋밋' 흘러 내려간다.)

101004 @ 아아, 그게 내창이엇수과? 바다슈퍼 앞에예?(아아, 그게 내였나요? 바다슈퍼 앞에요?)

101004 #3 으. 바다슈퍼 이디 시네. 가게.(어. 바다슈퍼 여기 있네. 가게.)

101004 @ 앞에가 내창에 그 뚫어진디엿구나예?(앞으로 내에 그 뚫어진 곳이었군요?)

101004 #3 으. 그거 물이 무진장 ᄂᆞ려간다.(어. 그거 물이 무진장 내려간다.)

101004 @ 경ᄒᆞ난 동산 집들이 다 동산 우이 잇구나예?(그러니까 동산 집들이 다 동산 위에 있군요?)

101004 #3 으.(어.)

101004 @ 거기가 내창 자리엿구나예. 그믄 바위, 멋진 바위라든가.(거기가 내

17) '무끗'은 월령리에 있는 연못으로 옛날 식수, 또는 소 물 먹이는 곳으로 이용했었다. 지금도 '무끗물'이 있다.

18) '밋밋'은 거침새 없이 넘어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자리였군요. 그럼 바위, 멋진 바위라든가.)

101004 #3 바위? 이 바닷가에 가민 멋진 디 싯저. 그디덜 왕 구경덜 해. 올레[19] 질 사람덜.(바위? 이 바닷가에 가면 멋진 데가 있어. 거기들 와서 구경들 해. 올레길 사람들.)

101004 @ 바위 이름 멋진 바위 잇수과?(바위 이름, 멋진 바위는 있습니까?)

101004 #3 안덕 상코지가 잇고 판포, 월령 경계가, 판포 경계가 저 뭐시옌 혼다. 이 경계허고 조끔 지나오민 시리여[20], 시리여옌 헌 건 시리 모냥으로 똥그랑허니까 시리여여. 옛날 하르방덜이 헤난 모냥이라.('안덕 상코지'가 있고, 판포, 월령 경계가, 판포 경계가 저 뭐라고 한다, 이 경계하고 조금 지나면 '시리여', '시리여'라고 한 건 시루 모양으로 동그라니까 '시리여'야. 옛날 할아버지들이 했던 모양이라.)

101004 @ 예. 이게 바위꽈? 이게, 지금도 잇수과?(예. 이게 바위입니까? 이게. 지금도 있습니까?)

101004 #3 응, 그냥 물싸민 멋진 똑 시리 닮나.(응, 그냥 물써면 멋진 꼭 시루 닮았지.)

101004 @ 아, 물싸믄예. 판포허고 월령 경계예.(아, 물써면요. 판포하고 월령 경계에 있나요?)

101004 #3 바로 이디, 바로 이 아래여.(바로 여기, 바로 이 아래야.)

101004 @ 아, 월령 아래예. 월령 아래 시리여가 잇고.(아, 월령 아래요. 월령 아래 '시리여'가 있고.)

101004 #3 응. 시리여가.(응. '시리여'가.)

101004 #4 월령 아래 이장님네 집 아래게.(월령 아래 이장님네 집 아래.)

101004 @ 이장님 집 아래.(이장님 집 아래.)

101004 #3 도리소[21]가 잇저. 도로소, 도로소옌 헌 건 바당물인디 동그랑허게이, 영 동그랑허게 바우로 뒈 가지고 영 강 보믄 참 멋져.('도리소'가 있지. '도로소', '도로소'라고 한 건 바닷물인데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바위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면 참 멋져.)

101004 @ 아아, 도로소예?(아아, '도로소'요?)

101004 #3 도로소옌 헌다.('도로소'라고 한다.)

101004 @ 원담은 아니고.(원담은 아니고.)

101004 #1 어, 도로소옌 헌다.(어, '도로소'라고 한다.)

101004 @ 바위에 바당물이 들어오민.(바위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101004 #3 어, 멋져. 아주 첨.(어, 멋져, 아주 참.)

101004 @ 멋져마씨.(멋져요.)

101004 #3 어.(어.)

101004 @ 도로소 이름은 무사 도로소꽈?('도로소' 이름은 왜 '도로소'입니까?)

---

19) '올레'는 거리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을 말한다.
20) '시리여'는 월령리에 있는 여 이름으로 시루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1) '도리소' 월령리에 있는 바위 이름이다. 제보자를 이를 '도로소'라고도 불렀다.

101004 #3 ᄃᆞ로 동그랑허니까 도르소렌 생각이 들어 동그랑허게.(‘ᄃᆞ로’ 동그라니까 ‘도르소’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동그랗게.)

101004 @ 가 봐야 뒈켜예.(가 봐야 되겠네요.)

101004 #3 어, 강 보라게.(어, 가서 봐라.)

101004 @ 상코지[22], 시리여, 도로소 또?(‘상코지’, ‘시리여’, ‘도로소’ 또?)

101004 #3 이디 여옌 헌 거 삼형제가 잇엇저. 삼형제가 싯당 큰형은 오ᄁᆞᆺ 파도에 씰어가불언. 이제 형제벳긔 엇어.(여기 여라고 한 거 삼형제가 있었지. 삼형제가 있다가 큰형은 그만 파도에 쓸려가버렸어. 이제 형제밖에 없어.)

101004 @ 아아, 큰형은 파도에 씰어가불언.(아아, 큰형은 파도에 쓸어가버렸어.)

101004 #3 그거 삼형제렌 늘 해왔거든.(그거 삼형제라고 늘 해왔거든.)

101004 @ 언제 씰어가불언신고예?(언제 쓸어가버렸을까요?)

101004 #3 태풍에게.(태풍에.)

101004 @ 무슨 태풍? 사라호 태풍?(무슨 태풍? 사라호 태풍?)

101004 #3 ᄋᆞ.(응.)

101004 @ 아이고, 세상에, 것도 이름이 잇어실 건디예.(아이고, 세상에, 것도 이름이 있었을 건데요.)

101004 #3 저 그 그 그때 삼형제, 삼형제 저건 큰성, 이건 샛성, 이건 족은 성, 경 막 늘 영 헤낫주게.(저 그 그 그때 삼형제, 삼형제 저건 큰형, 이건 둘째형, 이것은 작은 형, 그렇게 막 항상 이렇게 했었지.)

101004 @ 큰성은 물러가도 아쉬와도 어쩔 수가 엇다예.(큰형은 물러가도 아쉬워도 어쩔 수가 없군요.)

101004 #3 부딪쳥 도망쳐 부난.(부딪쳐서 도망쳐 버리니까.)

101004 @ 샛성이여, 족은성은 이름은 엇수과?(둘째형이야, 작은형은 이름은 없습니까.)

101004 #3 싯저.(있지.)

101004 @ 이름은 엇수과?(이름은 없습니까?)

101004 #3 이름은 엇어삼형제여[23], 삼형제여는 이제 두 개벳긔 엇다.(따로 이름은 없어. ‘삼형제여’, ‘삼형제여’는 이제 두 개밖에 없다.)

101004 @ 또 다른 바위는마씨?(또 다른 바위는요?)

101004 #3 이제 글로 이레 가당 보민 저레 코지 있지. 코지 이디서 아장 보민 질게 나가지 안헤샤? 저건?(이제 그리로 이리로 가다 보면 저기 코지 있지. 코지 여기서 앉아서 보면 길게 나가지 않았니? 저건?)

101004 @ 아, 이름이 뭐과?(아, 이름이 뭡니까?)

101004 #3 저 월령 ᄌᆞ룩ᄏᆞ지엔 ᄒᆞᆫ다. ᄌᆞ룩ᄏᆞ지 가민 나 생각엔 호미ᄌᆞ룩이 질지 않으냐? 게난 호미ᄌᆞ룩ᄀᆞ치룩 길게 해서 ᄌᆞ룩코지, ᄌᆞ룩코지해난 모냥이라.(저 월령

22) ‘상코지’는 월령리 해안의 한 지명이다. 상 모양으로 돌출한 바위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3) ‘삼형제여’는 월령리에 있는 여 이름이다. 세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여라 해서 삼형제 여라 이름 붙여졌다. 세 개의 바위 중 하나는 현재 소실되었다고 한다.

‘ᄌᆞ룩ᄏᆞ지’라고 한다. ‘ᄌᆞ룩ᄏᆞ지’ 가면 내 생각엔 낫자루가 길지 않니? 그러니까 낫자루같이 길게 해서 ‘ᄌᆞ룩코지’, ‘ᄌᆞ룩코지’했던 모양이라.)

101004 @ 아아, 게믄 ᄌᆞ룩코지가 지금도 잇고?(아아, 그럼 ‘ᄌᆞ룩코지’가 지금도 있고?)

101004 #3 지금 강 보라. 그디 강 관광 손님덜도 다 그디덜 올라. 그레 갓당은에 나온다. 막 경치 좋은 디여.(지금 가서 봐라. 거기 가서 관광 손님들도 다 거기들 올라. 그리 갔다가 나온다. 아주 경치 좋은 데야.)

101004 @ 예. 경치가 아주 좋구나예? 게믄 굴은 엇고예?(예. 경치가 아주 좋군요? 그러면 굴은 없고요?)

101004 #3 굴은 엇다. 동굴은 하나 싯저.(굴은 없다. 동굴은 하나 있지.)

101004 #4 잘 헤영 가라. 공연 잘 올려사.(잘 해서 가라. 공연 잘 올려야.)

101004 @ 책 나올 거, 마을 책이.(책 나올 거, 마을 책이.)

101004 #3 건디 그 굴이 우리 월령에 굴이 하나, 월령경에 굴이 잇어는디 그거 강 월령 수신덜 파보니까 힘들엉 허질 못허연, 그냥 싯저. 이제. 굴이 장손 그냥 잇어. 파 봐시민 어떤 굴인지 알 수가 있는디 힘이 들언 돈도 많이 들 거고 허난 그냥.(그런데 그 굴이 우리 ‘월령경’에 굴이 하나, 월령에 굴이 있었는데 그거 가서 월령 수신들 파보니까 힘들어서 하질 못해서, 그냥 있지. 이제. 굴이 장소는 그냥 있어. 파 봤으면 어떤 굴인지 알 수가 있는데 힘이 들어서 돈도 많이 들 거고 하니까 그냥.)

101004 @ 월령 굴이 하나가 잇어마씨?(월령 굴이 하나가 있어요?)

101004 #3 ᄋᆞ. 이 우에 월령경에, 이 우에 하나 싯저. 굴이.(응. 이 위에 ‘월령경’에, 이 위에 하나 있지. 굴이.)

101004 @ 바당에 말고.(바다에 말고.)

101004 #3 아니 저 육상에.(아니 저 육상에.)

101004 @ 육상에, 육상에 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꽈? 곶자왈이난.(육상에, 육상에 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굴입니까? 곶자왈이니까.)

101004 #3 ᄋᆞ. ᄌᆞ연적으로 생긴 거.(어. 자연적으로 생긴 거.)

101004 @ 근데 그 구멍은 알아마씨?(그런데 그 구멍은 알아요?)

101004 #3 아이크, 알주 모르느냐게. 응? 게난 원체 경비가 하영 들거난 이제 안 헹덜 ᄀᆞ만이 시네.(아이쿠, 알지 모르니? 응? 그러니까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안 해서들 가만히 있네.)

101004 @ 그 굴의 이름은 뭔지 모르고마씨? 어릴 때부터 하르부지가 이건 굴인디.(그 굴의 이름은 뭔지 모르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이건 굴인데.)

101004 #3 이거 월령경 바로 월령경이여. 월령 지경, 지경을 말하는 거주기.(이거 ‘월령경’ 바로 ‘월령경’이야. 월령 지경, 지경을 말하는 거지.)

101004 @ 월령 지경에 동굴은 하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팔 생각

을 안 헌다. 근데 어느 쪽 위치해 잇수과?(월령 지경에 동굴은 하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팔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어느 쪽 위치해 있습니까?)

101004 #3 이거 바로 요거여.(이거 바로 요거야.)

101004 @ 사람 사는 이 저 집 잇는 디 동굴이 구멍이 이서마씨?(사람 사는 이 집 저 집 있는데 동굴이 구멍이 있어요?)

101004 #3 아이 저 한참 올라가야 뒈긴 뒌다. 이제 그레덜 집덜 다 짓엄서라 덜.(아이 저, 한참 올라가야 되긴 된다. 이제 그리들 집들 다 짓고 있더라.)

101004 @ 그쪽에 집덜도 짓어불엄수과?(그쪽에 집들도 지어버리나요?)

101004 #3 으. 이제 영 뎅기멍 밧디 뎅기멍 보믄 집덜 다 짓언 셔.(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밭에 다니면서 보면 집들이 다 지어 있어.)

101004 @ 동굴 잇는 것도 다 몰람구나 다들.(동굴 있는 것도 다 모르는구나 다들.)

101004 #3 몰람실 거여.(모르고 있을 거야.)

101004 @ 응. 어디로 뻗어 있는지도 모르고예?(응. 어디로 뻗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101005 @ 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101005 @ 옛날에예? 무슨 여기에 향사당이라든가 이런 무슨 옛날 건물덜은 엇수과? 학자덜 공부했던 사당덜이라든가 이런 것도 엇고?(옛날에요? 무슨 여기에 향사당이라든가 이런 무슨 옛날 건물들은 없습니까? 학자들 공부했던 사당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101005 #1 사당이옌 ᄒᆞ끔 ᄀᆞᆫ는 것이 그냥 이제 사람덜 허여근에 뭣엥 ᄀᆞᆯ으민 뒐 철이고? 사당이옌 허믄 그 무신거렌 ᄀᆞᆯ으민 뒐 철이고? 그런 디 셔난디, 이 옛날 사람덜 이젠 엇어게 이제.(사당이라고 조금 말하는 것이 그냥 이제 사람들 해서 뭐라고 말하면 될 것인가? 사당이라고 하면 그 뭐라고 말하면 될 것인가? 그런 데 있었는데, 이 옛날 사람들 이젠 없어. 이제.)

101005 @ 월령에 마을 잔치도 합니까? 경로당엔 사람이 어십데다.(월령에 마을 잔치도 합니까? 경로당엔 사람이 없던데요.)

101005 #1 그런 거 다 싯지. 회장은 안 해보곡. 그자 월령에.(그런 거 다 있지. 회장은 안 해보고. 그저 월령에.)

101005 @ 월령은 마을 잔치 그런 것도 헙니까? 경로당엔 사람이 어십데다예 똔 마을엔 막.(월령은 마을 잔치 그런 것도 합니까? 경로당엔 사람이 없던데요. 딴 마을에는 막.)

101005 #1 엇어. 모이렌 헐 때 가끔 싯나. 어디서 오랑은에 부녀회에서 무시거 멕인다. 뭣 헌다. 게민 방송 헤여. 멧 시에 나오라 혜영.(없어. 모이라고 할 때 가끔 있어. 어디서 와서 부녀회에서 뭐 먹인다. 뭣 한다. 그러면 방송 해. 몇 시에 나오라 해서.)

101005 @ 경헤도 어떤 마을은 매일 심심헌 노인들 아침부터 나왕 밥 먹고 허는디 아무도 어신 거라.(그래도 어떤 마을은 매일 심심한 노인들 아침부터 나와서 밥 먹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라.)

101005 #1 월령 어시니까. 영 모이게 되언. 어디서이. 그런 거 영 멕이렌 허는 거 아니민, 아니 나온덴 허멍 흔 둘에 두 번인디 흔 번인디 가끔.(월령 없으니까.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 어디서. 그런 거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아니 나온다고 하면서 한 달에 두 번인지 한 번인지 가끔.)

101005 @ 일허레 간다는 거 아니예?(일하러 간다는 거 아니요?)

101005 #1 일허레가 아니고 그디 강 먹으믄 아무 시간으로 밥 멕인다 헹 멕여준다. 그거 아니민 아니 나온덴.(일하러가 아니고 거기 가서 먹으면 아무 시간으로 밥 먹인다 해서 먹여준다. 그거 아니면 안 나온다고.)

101005 @ 게난 집이서 펜안허난 경헴신가? 딴 마을엔예. 뚯뚯허게 경로당 막 희사 들어온 것들도 많고, 점심에 밥도 해 먹고예. 화토치기도 허곡 경 허는디 여긴 엇어.(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딴 마을에는요. 따뜻하게 경로당 막 희사 들어온 것들도 많고, 점심에 밥도 해 먹고요. 화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긴 없어.)

101005 #1 안 가. 아니, 어디서 영 나오는 거 가끔 신 셍이라. 부녀회에서나 어디나 허민 가끔 모여이. 월령서. 똑 흔 둘에 두 번은 모이렌 해도 흔 번이라도 모여이. 아니민 아니 나온덴 허멍덜, 게도 가끔 모일 때 싯나. 흔 번썩.(안 가. 아니,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가끔 있는 모양이라. 부녀회에서나 어디나 하면 가끔 모여. 월령에서. 꼭 한 달에 두 번은 모이라고 해도 한 번이라도 모여. 아니면 안 나온다고 하면서들, 그래도 가끔 모일 때도 있다. 한 번씩.)

101005 @ 옛날에는 이 월령에 무슨 기관이 잇엇수과? 노인당, 무신 리사무소 이런 거 이섯수과? 부녀회, 어천계, 청년회 다 잇언마씨? 옛날에도 리사무소도 잇엇고?(옛날에는 이 월령에 무슨 기관이 있었습니까? 노인당, 무슨 리사무소 이런 거 있었습니까? 부녀회, 어촌계, 청년회 다 있었어요? 옛날에도 리사무소도 있었고?)

101005 #3 응. 옛날엔 우리 리사무소 멋지게 신 게 아니고, 옛날은 초가집이여.(응. 옛날엔 우리 리사무소가 멋지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은 초가집이야.)

101006 @ 이 마을에는 어떤 계들이 있습니까?(이 마을에는 어떤 계들이 있습니까?)

101006 #1 어?(어?)

101006 @ 옛날에 무슨 계, 접, 마을 접, 이런 것들 저 해녀 어촌계렌 허지예? 어촌계 당연이 잇지예?(옛날에 무슨 계, 접, 마을 접, 이런 것들 저 해녀 어촌계라고 하지요? 어촌계 당연히 있지요?)

101006 #1 게. 어촌계 싯주게. 그거 집도 짓어지고.(그래. 어촌계 있지. 그거 집도 지을 수 있고.)

101006 @ 계도 많이 잇고?(계도 많이 있고?)

101006 #1 계가 뭣고?(계가 뭐니?)

101006 @ 어촌계 이런 식으로 계.(어촌계 이런 식으로 계.)

101006 #1 아, 그것이 ᄀᆞ치 붙은 거난.(아, 그것이 같이 붙은 거니까)

101006 @ 접, 무슨 접, 상여, 무슨 계, 무슨 여자들끼리(접, 어떤 접, 상여, 어떤 계, 무슨 여자들끼리.).

101006 #1 안 들어봣저. 어촌계 정도 ᄀᆞ치 붙엉 거 말을 ᄀᆞᆫ는 거난 알아지는디 다른 건 몰라.(안 들어봤어, 어촌계 정도 같이 붙어서 그 말을 하는 거니까 알아지는데 다른 건 몰라.)

101006 @ 부녀회, 부녀회도 잇고예. 청년회.(부녀회, 부녀회도 있고요. 청년회.)

101006 #1 그런 건 다 싯지. 저디 ᄆᆞ을회관에 가민 청년회.(그런 건 다 있지. 저기 마을회관에 가면 청년회.)

101006 @ 삼촌은 부녀회장이나 이런 것도 해봣수과?(삼촌은 부녀회장이나 이런 것도 해봤습니까?)

101006 #1 회장은 안 해보고 그자 그디 월령에서.(회장은 안 해보고 그저 거기 월령에서.)

101006 @ 이 마을에는 어떤 계가 있습니까?(이 마을에는 어떤 계가 있습니까?)

101006 #3 계옌 헌 건.(계라고 하는 건.)

101006 @ 접, 옛날 옛날엔 무신 상여계여 무슨?(접, 옛날 옛날에는 무슨 상여계여 무슨?)

101006 #3 옛날 그 저 사름이 돌아가믄이 그런 거 셧저.(옛날 그 저 사람이 돌아가면 그런 것이 있었지.)

101006 @ 그런 걸 뭐렌 헙니까? 상여계?(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여계?)

101006 #3 응. 저 우리 사람 들어와 가민 사람을 거 뽑앙 젊은 사람덜 뽑앙은에 이제 ᄀᆞᆮ으민 저 차로 싣거당 다 뭐 헴저만은 엿날엔 저 뭐 헤낫저. 상여로 이제 그거 다 싯저.(응. 저 우리 사람 들어와 가면 사람을 거 뽑아서 젊은 사람들 뽑아서 이제 같으면 저 차로 실어서 다 뭐 했지만 옛날엔 저 뭐 했었지. 상여로 이제 그거 다 있지.)

101006 @ 아, 어디 셔마씨?(아, 어디 있어요?)

101006 #3 부락에게.(부락에.)

101006 @ 아, 부락에 그 상여가 잇구나예. 옛날 상여 그대로.(아, 부락에 그 상여가 있었네요. 옛날 상여 그대로.)

101006 #3 ᄋᆞ게. 거 이제 안 썽 내부난 삭암실 거여만은 다 이서.(그래. 거 이제 안 써서 내버리니까 삭아버렸을 거지만 다 있어.)

101006 @ 리사무소에 잇수과?(리사무소에 있습니까?)

101006 #3 아, 이서. 뚠 디 집 짓엉 다 보관해 놔뒷저.(아, 있어. 딴 데 집 지어서 다 보관해 놔두었지.)

101006 @ 아, 그 집 이름을 뭐렌 헙니까?(아, 그 집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101006 #3 아이, 이게 상여집이옌 허여. 그거 뭐 그거 알앙 뭐 헐티? 내불라.(아이, 이게 상여집이라고 해. 그거 뭐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내버려라.)

101006 @ 아니 이걸 마을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책이 나와야 뒈마씨.(아니 이걸 마을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책이 나와야 돼요.)

101006 #3 으, 싯저.(어, 있지.)

101006 @ 상여집, 이게 언제부터 이서낫수과? 멧 백 년 뒌 거지예?(상여집,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몇 백 년 된 거지요?)

101006 #3 으게.(그래.)

101006 @ 삼춘 어릴 적에도 그 집이 ᄀᆞ만이 그데로 이선?(삼춘 어릴 적에도 그 집에 가만히 그대로 있었나요?)

101006 #3 아아, 저 집은 흔 요만이 멘들아 보관해 놔뒷저.(아아, 저 집은 한 요만큼 만들어 보관해 놔뒀지.)

101006 @ 건 언제 멘들언마씨?(건 언제 만들었나요?)

101006 #3 그거 멘든 지 우리 읔안 멘드난 한 칠 팔십년 뒛지.(그거 만든 지 우리 철들어서 만드니까 한 칠 팔십년 되었지.)

101006 @ 아아, 칠 팔십년 뒈언. 초가집은 아니고 좀.(아아, 칠 팔십년 되었어. 초가집은 아니고 좀.)

101006 #3 으게. 영 저 멘들안 놔 뒨, 보관 창고지게.(그래. 이렇게 저 만들어 놔두었지, 보관 창고지.)

101006 @ 옛날엔 어떵허엿수과? 그거 누구안테 보관허연? 아주 옛날엔, 어렷을 때.(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누구한테 보관했어? 아주 옛날엔, 어렸을 때.)

101006 #3 아, 저 부락, 그 소미라고이. 그 잇저. 그 맡아근에.(아 저 부락, 그 '소미'라고. 그 있지. 그 맡아서.)

101006 @ 부락 뭐마씨?(부락 뭐요?)

101006 #3 소미라고 저 이 부락에 일 보는 사람 잇다.('소미'라고 저 이 부락에 일보는 사람 있다.)

101006 @ 아 부락 일 보는 사람? 그 사람네 집에 놔뒨마씨? 마을 창고 그러면?(아 부락 일보는 사람? 그 사람네 집에 놔뒀나요? 마을 창고 그러면?)

101006 #3 으으. 마을 창고 그런 디 강 창고 멘글안 그거 장사 나가게 되민 그 양반덜이 다 꺼내영 집 앞더레 다 ᄀᆞ져다 놓곡 헌다.(응 응. 마을 창고 그런 데 가서 창고 만들어서. 그거 장사 나가게 되면 그 양반들이 다 꺼내서 집 앞에 다 가져다 놓고 한다.)

101006 @ 아, 그 옛날에는 상여 소리, 잘 하는 사람 이서낫수과?(아, 그 옛날에는 상여소리, 잘 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101006 #3 나 잘 헤낫저. 나벳긔 엇다.(나 잘 했었지. 나밖에 없다.)

101006 @ 삼촌, 상여 소리도 해마씨?(삼촌, 상여 소리도 해요?)

101006 #3 응. 나 인정도 많이 들영 젊은 아기덜 돈덜 다 헤 뒁근에 여행시켱

헹 놔두난 돈이 멧 천은 뒈신가부덴 헤보난 다덜 훔쳐 먹언. 에이, 나쁜 녀석덜, 나 욕 많이 해 뒁.(응. 나 인정도 많이 들여서 젊은 아이들 돈들 다 해 둬서 여행시켜서 해 놔뒀더니 돈이 몇 천은 되었을까 해보니까 다들 훔쳐 먹었어. 에이, 나쁜 녀석들, 내가 욕 많이 해 두고.)

101006 #3 삼촌, 언제 낮에 좀 몸 풀어지민 어디 밖에서라도 불러줍서예. 그거 녹음허면 큰 자료가 뒈마씨. 이제는 아무도.(삼촌, 언제 낮에 좀 몸 풀어지면 어디 밖에서라도 불러주세요. 그거 녹음하면 큰 자료가 돼요. 이제는 아무도.)

101006 #4 이 하르방벳긔 엇어. 월령도 믄.(이 할아버지밖에 없어. 월령도 모두.)

101006 #3 상제덜이 눈물이 질질 나게시리 막 뎅겨시녜.(상제들이 눈물이 질질 나게끔 막 다녔었지.)

101006 @ 상여계가 이섯다는 거지예.(상여계가 있었다는 거지요.)

101006 #3 으. 거 부락 동골, 섯골 혼다.(어. 거 부락 '동골', '섯골' 했지.)

101006 @ 동골, 섯골 다 합쳐근에?('동골', '섯골' 다 합쳐서요?)

101006 #3 경허믄 이 동골에서 죽으믄, 동골사람이 책임이곡, 섯골에서 죽으믄 섯골사람 책임 아니가게?(그러면 이 '동골'에서 죽으면, '동골' 사람이 책임이고, '섯골'에서 죽으면 '섯골' 사람 책임 아니니?)

101006 @ 이 족은 마을에서도 참, 세상에 책임이곡예? 섯골사람 돌아가시믄 섯골사람, 게도 상여계의 상여는 같이 쓰는 거고.(이 작은 마을에서도 참, 세상에 책임이고요? '섯골' 사람 돌아가시면 '섯골' 사람, 그래도 상여계의 상여는 같이 쓰는 거고.)

101006 #3 으, 부락 내에서 ᄀᆞ치 쓰는 거.(응, 부락 내에서 같이 쓰는 거.)

101006 @ 계는 또 이거 말고 무슨 계가 ᄯᅩ 잇수과? 그릇계?(계는 또 이거 말고 무슨 계가 또 있습니까? 그릇계?)

101006 #3 으. 그릇제도 싯지. 월령 이젠 하영덜 안 허는 모냥이라라. 옛날 그릇제 헹은에 큰일 때이 다 젯그릇 ᄀᆞ져당 헤낫주기. 이젠 식당으로 간 뭣덜 해 노난 그릇도 사용도 안 허곡 그릇덜 어디 다 실 거여. 보관헤영 실 거여.(어. 그릇계도 있지. 월령 이젠 많이들 안 하는 모양이더라. 옛날 그릇제 해서 큰일 때 다 젯그릇 가져다가 했었지. 이젠 식당으로 가서 뭔들 하니까 그릇도 사용도 안하고 그릇들 어디 다 있을 거야. 보관해서 있을 거야.)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101007 @ 할머니덜 당 구덕 정 돌레떡[24] 가정은예. 당 그런 데도 이섯수과?(할머니들 당 바구니 져서 '돌레떡' 가져서요. 당 그런 데도 있었습니까?)

101007 #1 엇어. 경 헌 것덜 잇어낫구나. 다른 ᄆᆞ을엔 구덕 정 어떵 돌레떡 풀레 뎅견? 어떵 헤연?(없어. 그런 것들 있었구나. 다른 마을엔 바구니 져서 어떻게

24)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을 말한다.

‘돌레떡’ 팔러 다녔어? 어떻게 해서?)

101007 @ 돌레떡, 돌레떡.(‘돌레떡’, ‘돌레떡’.)

101007 #1 게메, 돌레떡은 알아지는디.(글쎄, ‘돌레떡’은 알겠는데.)

101007 @ 돌레떡 솖앙은에 마을 할망당[25]에 강.(‘돌레떡’ 삶아서 마을 ‘할망당’에 가서.)

101007 #1 할망당, 할망당이옌 헌 디, 들어낫저. 그런 디 강은에 할망당에 강 뭐 올령 절허는가?(‘할망당’, ‘할망당’이라고 하는 데, 들었었지. 그런 데 가서 ‘할망당’에 가서 뭐 올려서 절하는가?)

101007 @ 옥돔 하나 저 이런 과일도 하나 놓고 겡 강 비는 거주기게. 우리 집에 ᄌᆞ손덜 잘 뒈게.(옥돔 하나 저 이런 과일도 하나 놓고 그래서 가서 비는 거지. 우리 집에 자손들 잘 되게.)

101007 #1 할망당이옌 들어낫저. 우리 어멍네덜 잘 뎅겨낫저. 우린 안 뎅겨낫저.(‘할망당’이라고 들었었지. 우리 어머니들 잘 다녔었지. 우린 안 다녔어.)

101007 @ 어딘지도 모르고예?(어딘지도 모르고요?)

101007 #1 어디 영 판포펜더레 길 건디 안 뎅겨나난 몰라이.(어디 이렇게 판포 편으로 맞을 건데 안 다녔어서 몰라.)

101007 @ 판포쪽으로 갔구나예?(판포쪽으로 갔군요?)

101007 #1 ᄋᆞ. 할망당이옌이. 우린 안 뎅겨나난 잘 몰라. 우리 어멍넨 ‘할망디’ 가노렌 헌다. ‘할망디[26]’, ‘할망디’옌 허멍 간다. 이것저것 헤영 간다. 춤게, 경 헤낫저.(응. ‘할망당’이라고 우린 안 다녔으니까 잘 몰라. 우리 어머니네는 ‘할망디’ 간다고 한다. ‘할망디’, ‘할망디’라고 하면서 간다. 이것저것 해서 간다. 참, 그렇게 했었지.)

101007 @ 예게. 게믄 떡도 먹고게, 갔다 오민 아침 동새벡이 갓다 오잖아예.(예. 그럼 떡도 먹고, 갔다 오면 아침 동새벽에 갔다 오잖아요.)

101007 #1 인칙거니게. 경 헨 가난.(일찍이. 그렇게 해서 갔었지.)

101007 @ 인칙이, 가지 갈라 온 당이 월령엔 어신가? 어디 가지 갈라 온덴 헙니다게. 판포에 할망당이 멀어뵈민 이쪽으로 영 헹 하나 팽나무 폭낭 아레 영 모시거나 경 허는 디 월령은 분명 이실 건디예? 본향당이렌 헨.(일찍, 가지 나눠 온 당이 월령엔 없는가? 어디 가지 나눠 온다고 합니다. 판포에 ‘할망당’이 멀어 보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팽나무 팽나무 아래 이렇게 모시거나 그렇게 하는 데 월령은 분명 있을 건데요? 본향당이라고 해서.)

101007 #1 몰라. 월령당 엇다. 요 판포 댕겨나세. ᄌᆞ끗디난 이 다음 마을이난.(몰라. 월령당 없다. 요 판포 다녔었어. 곁이니까 이 다음 마을이니까.)

101007 @ 아, 판포가 다음 마을이난.(아, 판포가 다음 마을이니까.)

101007 #1 이 다음 마을이난 그디 댕겨난. 할망듸라고이. 얼른 ᄀᆞᆫ기 좋게 ᄀᆞᆯ으

25) ‘할망당’은 마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을 모신 곳을 말한다. ‘할망듸’라고도 한다.

26) ‘할망듸’는 마을의 수호신이며 아이들의 피부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는 여신이 사는 곳을 ‘할망당’ 또는 ‘할망듸’라고도 한다.

민 할망당이렌도 ᄒᆞ곡 할망듸옌도 ᄒᆞ곡, 우리 어멍넨 잘 뎅겨서. 우린 커가난 잘 안 댕기곡 우리 어멍넨 잘 뎅겨서. 그디 강 빌민 어떵 ᄒᆞ꼼 애기덜이영 펜안허난 댕겨실거라.(이 다음 마을이니까 거기 다녔었어. '할망듸'라고. 얼른 말하기 좋게 말하면 '할망당'이라고도 하고 '할망듸'라고도 하고, 우리 어머니넨 잘 다녔지. 우린 커가니까 잘 안다니고 우리 어머니넨 잘 다녔지. 거기 가서 빌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기들이랑 편안하니까 다녔을 거야.)

101007 @ 이 마을 풍습이 있습니까? 마을에 옛날에 포제[27]도 헤낫덴 헙디다. 지금은 엇어져 불엇수과? 마을 '포제'.(이 마을 풍습이 있습니까? 마을에 옛날에 '포제'도 했었다고 합디다.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까? 마을 '포제'.)

101007 #1 ᄋᆞ. 허다가 거 끊어져서.(어. 하다가 거 끊어져서.)

101007 @ 무사마씨?(왜요?)

101007 #2 몰라. 거 어떵 헹 끊어져 불엇단 말이여.(몰라. 거 어떻게 해서 끊어져 버렸어.)

101007 @ 어릴 때까지 헤낫수과?(어릴 때까지 했었습니까?)

101007 #2 우리 ᄋᆞᆨ은 때ᄁᆞ지 헷어. 허다가 뭐 끊어져 불언.(우리 철들 때까지 했어. 하다가 뭐 끊어져 버렸어.)

101007 @ 포젯당은 잇수과? 어디? 지금도 모양새도?('포젯당'은 있나요? 어디? 지금도 모양새도?)

101007 #2 포젯당은 요 아레 저디 모양새도 엇고, 다 사라져 불언. 그디 다 메꽈불언.('포젯당'은 요 아래 저기 모양새도 없고, 다 사라져 버렸어. 거기 다 메워버렸어.)

101007 @ 멧 살 때쯤 엇어진 거 닮수과?(몇 살 때쯤 없어진 거 같습니까?)

101007 #2 우리 ᄒᆞᆫ 일고ᄋᆞ듭 술에 떨어져 실거여.(우리 한 일고여덟 살에 떨어졌을 거야.)

101007 @ 당도 어섯수과? 당, 어렷을 적에 할머니랑 쫓앙 어디 판포당이라도 영 가고 판포당 어머니 뎅겨낫수과?(당도 없었습니까? 당, 어렸을 적에 할머니랑 쫓아서 어디 '판포당'이라도 이렇게 가고 '판포당' 어머니 다녔었나요?)

101007 #2 ᄋᆞ. 판포당에 월령 사람덜은 판포당 다.(응. '판포당'에 월령 사람들은 '판포당' 다.)

101007 @ 쫓아가 본 적 업지예?(쫓아가 본 적 없죠?)

101007 #2 당에 가 본적은 엇고.(당에 가 본적은 없고.)

101007 @ 떡 가졍왕, 돌래떡 그런 거 먹어 난 기억은 엇수과? 옥돔이영.(떡 가져와서, '돌래떡' 그런 거 먹었던 기억은 없습니까? 옥돔이랑)

101007 #2 거 그디 가젠 허민 무싱거 가졍 가 가지고, 헤 나민 그디 다 바쳐 뒁 오곡.(거 거기 가려고 하면 무엇 가지고 가서, 하고 나면 거기 다 바쳐 두고 오고.)

101007 @ 게도 먹을 거 가져서 옵디다. 월령엔 당이 엇고.(그래도 먹을 것을 가

27) '포제(酺祭)'는 마을의 번영이나 건강을 위해 지내는 마을제를 말한다.

져서 옵디다. 월령엔 당이 없고.)

101007 #2 엇어. 월령엔 당이 엇고.(없어. 월령엔 당이 없고.)

101007 @ 사모님도 당에 뎅겨낫수과?(사모님도 당에 다녔었습니까?)

101007 #2 안 뎅겨봣저. 어머니대만 뎅기고 안 뎅견.(안 다녀봤지. 어머니대만 다니고 안 다녔어.)

101007 @ 마을제 포제가 있엇덴 헙디다예?(마을제 '포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101007 #3 포제, ᄆᆞ을제가 셔낫저. 우리 어린 때 집터가 바로 이 밑엔 디 근디 우리 욕은 때ᄁᆞ장은 제를 지내온디 이제 우리 욕은후제는 그 하르방덜 다 돌아가부니까 이젠 다 끈어불언. 이젠 끈언. 제 안 헌다.('포제', 마을제가 있었지. 우리 어린 때 집터가 바로 이 밑엔 데 그런데 우리 철 들 때까지는 제를 지내왔는데 이제 우리 철든 후에는 그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버리니까 이젠 다 끊어버렸어. 이젠 끊었어, 제 안 한다.)

101007 @ 욕은 후제면 몃 살쯤이꽈?(철 든 후면 몇 살쯤입니까?)

101007 #3 그때 나 일곱 술, ᄋᆞ솟 술쯤 뒌 때여.(그때 나 일곱 살, 요섯 살쯤 된 때야.)

101007 @ 일곱 술, 요솟 살쯤 된 때에 포제가 엇어졋다는 거다예? 멧 년에 없어진 건 모르고? 게난 ᄋᆞᄉᆞ 일곱 살에.(일곱 살, 여섯 살쯤 된 때에 포제가 없어졌다는 거지요. 몇 년에 없어진 건 모르고? 그러니까 여서 일곱 살에.)

101007 #3 나 ᄋᆞ솟 술, 일곱 술에 일본에 가부렀거든. 일본, 벌언 살젠 일본 강 오란 보난 다 엇어져 불엇어라. 해방 후에 들어왕 보난.(내가 여섯 살, 일곱 살에 일본에 가버렸거든. 일본, 벌어서 살려고 일본 가서 와 보니 다 없어져 버렸더라. 해방 후에 들어와 보니.)

101007 @ 해방 후에 엇어진 거마씨? 스물 ᄋᆞ솟, 스물일곱 일본 갓당 왕 보난.(해방 후에 없어진 건가요? 스물여섯, 스물일곱 일본 갔다 와서 보니까.)

101007 #3 다 엇어젼.(다 없어졌어.)

101007 @ 와 보니가 엇어졋다. 사삼 전에는 잇어다는 거지예?(와보니까 없어졌다. 사삼 전에는 있었다는 거지요?)

101007 #3 ᄋᆞ게 잇엇저.(응. 있었지.)

101007 @ 사삼사건 때 못헷고.(사삼사건 때 못했고.)

101007 #3 사삼사건 때 시끄러와근에 그 큰 일 날라고 그 때 중지뒈곡 헤낫저.(사삼 사건 때 시끄러워서 그 큰 일 날라고 그 때 중지되고 했었지.)

101007 @사삼사건 이후엔 허당.(사삼사건 이후엔 하다가.)

101007 #3 그 전엔 헤낫저. 제도 지내젠 늘 몸에 한 일주일 이녁 할망신디 할망네 ᄀᆞ치 자지도 안허곡 ᄯᅳ로 강 자멍덜 일주일 정성들여근에 제 지내는 날은 다 옷덜 관복 입엉 나왕 제덜 지냇저.(그 전엔 했었지. 제도 지내려고 늘 몸에 한 일주일 이녁 할머니에게, 할머니네 같이 자지도 안하고 따로 가서 자면서 일주일 정성들여

서 제 지내는 날은 다 옷들 관복 입어서 나와서 제를 지냈지.)

101007 @ 아, 보기만 헌것과? 삼촌은 거기에?(아, 보기만 한 건가요? 삼촌은 거기에서)

101007 #3 으. 봄만, 우리 어떵 헹 그딜 가질 거꼬?(응. 보기만, 우리 어떻게 해서 거길 갈 수 있을 거니?)

101007 @ 남자덜만 가고.(남자들만 가고.)

101007 #3 으. 젊은 사람덜.(응. 젊은 사람들.)

101007 @ 남자만 가고 거기엔 어떤 음식을 올렸는지 봐난 기억이 잇수과?(남자만 가고 거기엔 어떤 음식을 올렸는지 봤던 기억이 있습니까?)

101007 #3 아, 저 제 지내는 거, 돼지 숢는 디도 다 있고, 지 벌이는 집터도 다 싯저. 이제.(아, 저 제 지내는 거, 돼지 삶는 데도 다 있고, 제 벌이는 집터도 다 있지. 이제.)

101007 @ 지 벌이는 터도 지금 잇고예. 돼지 숢는 디도 거기서 숢아? 생으로 헙디다. 포제, 보통 저 소고기는?(제 벌이는 터도 지금 있고요. 돼지 삶는 데도 거기서 삶아? 생으로 합디다. '포제', 보통 저 소고기는?)

101007 #3 저 우린 저 그 땐 숢앙덜 해라.(저 우린 저 그 때는 삶아서들 하더라.)

101007 @ 숢앙 헙디가? 숢앙 뭐 뭐 올립디가?(삶아서 합디까? 삶아서 뭐 뭐 올립디까?)

101007 #3 돼지 올리곡, 무신 뭐 뭐, 빵, 떡덜 헹은에 올리고 다 헌다.(돼지 올리고, 무슨 뭐 뭐, 빵, 떡들 해서 올리고 다 한다.)

101007 @ 떡은 무신 떡 올립디가? 흰떡?(떡은 무슨 떡을 올립디까? 흰떡?)

101007 #3 으게. 흰 거 좁쌀떡 무신 떡, 그거 다.(그래. 흰 거, 좁쌀떡, 무슨 떡, 그거 다.)

101007 @ 밥이영 과일이영 옥돔이영 돼지고기도 올리고예?(밥이랑 과일이랑 옥돔이랑 돼지고기도 올리고요?)

101007 #3 으. 돼지고기도 온채 다, 딱 온채 올린다. 칼로 그치지도 안 허영.(응. 돼지고기도 통째 다, 딱 통째 올린다. 칼로 자르지도 안 해서.)

101007 @ 온채로 올리고, 여자덜은 뒤에서 저 음식 만들고 남자덜이 강.(통째로 올리고, 여자들은 뒤에서 저 음식 만들고 남자들이 가서.)

101007 #3 여자덜 잘 못 봐. 제 끝나민 제 끝낫젠 허민 여제덜 강은에 뭐 설르고.(여자들 잘 못 봐. 제 끝나면 제 끝났다고 하면 여자들 가서 뭐 치우고.)

101007 @ 여자들이 강 설르고예?(여자들이 가서 치우고요?)

101007 #3 으.(그래.)

101008 @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1008 @ 이 월령이라는 마을 이름이라던가? 무사 선인장은 옛날부터 경?(이

월령이라는 마을 이름이라든가? 왜 선인장은 옛날부터 그렇게?)

101008 #1 지일 처음 낫젠허여.(제일 처음 나왔다고 해.)

101008 @ 태어나서 보면 월령이 선인장이 경 하영 이십디가?(태어나서 보면 월령이 선인장이 그렇게 많이 이십디까?)

101008 #1 경ᄒᆞ난 엿날 처음에 월령 바당에 선인장 이파리 ᄒᆞ나 터 왓젠 바당에서. 겡 그걸 싱금 시작ᄒᆞ난 막 번졋젠 경 ᄀᆞᆯ아이. 그거 터 와난 거 우리가 당추 몰라이, 전설ᄀᆞ치 엿날 처음에 선인장이 뭔 철인지 모른디 이파리 ᄒᆞ나 바당에서 터 오난 어디서 와신디 그걸 싱건 이제 막 번짐 시작허난 그디 욜매 젼 욜매 타먹고이. 우린 몰라. 그런 거, 우리. 나도 욜매 먹으메. 빨강헌 거. 가시영 헤영 헤여도 먹으민 먹어져. 경 허메. 제일 처음에 월령서 선인장 태어났덴 허주기게. 옛날 번젼. 오만 디 다 번졋주만은 선인장이.(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월령 바다에 선인장 잎 하나가 떠 왔다고 바다에서. 그래서 그걸 심기 시작하니까 막 번졌다고 그렇게 말해. 그거 떠 왔던 거 우리가 전혀 몰라, 전설같이 옛날 처음에 선인장이 뭔지 몰랐는데 잎 하나 바다에서 떠 오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걸 심어서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하니까 거기 열매 맺혀서 열매 따먹고. 우린 몰라. 그런 거, 우리. 나도 열매 먹어. 빨간 거. 가시랑 해서 해 먹으면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해. 제일 처음에 월령서 선인장 태어났다고 하지. 옛날 번졌어. 오만 데 다 번졌지만 선인장이.)

101008 @ 이 마을에는 특산물로는 옛날에 무싱건고? 지금은.(이 마을에는 특산물로는 옛날에 무엇인가? 지금은.)

101008 #2 특산물로는 옛날에는 엇지. 금능이나 한림에 비해 떨어져. 지금은 선인장으로 좀 부락마을이 관찮아.(특산물로는 옛날에는 없지. 금능이나 한림에 비해 떨어져. 지금은 선인장으로 좀 부락마을이 괜찮아.)

101008 @ 그믄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잇습니까? 선인장.(그럼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인장.)

101008 #3 선인장 특산물이지. 겡 이제 우리 하르버지덜이 이젠 살아오멍 이 선인장덜 헌 지가 이거 멧 해 안 뒛저. 나, 나 ᄋᆞᆨ은 후제사 시작을 했거든. 옛날 이 옛날 당동하르방이렌 헌 하르방이 이섯서. 게난 바당에 강 보니까 이상헌 물건이 올라 왔거든. 아 이거 뭐인고, 허연 이 하르방이 봔 가시도 싯곡 헤연 그걸 바당에 올라 온 걸 ᄀᆞ져다 놩 그걸 올레 담우에 잣 우에이. 그거 세왕 놔둔 모냥이라. 세왕 놔두니까 그거 자란 장성허영 막 컨 이젠 월령이 그런 선인장부락이라고 지금 허고 잇주기.(선인장 특산물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젠 살아오면서 이 선인장들 한 지가 이거 몇 해 안 되었지. 나, 나 철든 후에야 시작을 했거든. 옛날 이 옛날 당동할아버지라고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래서 바다에 가 보니까 이상한 물건이 올라 왔거든. 아 이거 뭐인가, 해서 이 할아버지가 봐서 가시도 있고 해서 그걸 바다에 올라 온 걸 가져다 놔서 그걸 '올레' 담 위에 잣 위에. 그것을 세워서 놔둔 모양이라. 세워서 놔두니까 그것이 자라서 장성해서 막 커서 이젠 월령이 그런 선인장부락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101008 @ 백 멧 십년 뒈긴 뒛주만은 칠팔십년 벳긔 안 뒈.(백 몇 십 년 되긴 됐지만 칠팔십년 밖에 안 돼.)

101008 #3 응. 선인장 특산물이지.(어. 선인장 특산물이지.)

101008 @ 아까 그 말한 선인장이 들어온 내력이 그렇다는 거지예? 음 그 아까 음 선인장이 들어온 일이 당동 하르방.(아까 그 말한 선인장이 들어온 내력이 그렇다는 거지요? 음 그 아까 음 선인장이 들어온 일이 당동 할아버지.)

101008 #3 당동 하르방이 저 바당에 갔당 그거 봉가당 심엉와세. 거, 게 그 하르방이 심엉왕, 불리 등이 이상허거든. 그거 웽겨, 웽겨 흐멍 이렇게 컹 이제 다덜 돈덜 벌엄세.(당동 할아버지가 저 바다에 갔다가 그거 주워다가 갖고 왔지. 거, 그게, 그 할아버지가 심어 와서, 뿌리 등이 이상하거든. 그거 옮겨, 옮겨 하면서 이렇게 커서 이제 다들 돈들 벌고 있지.)

101008 @ 들어온 얘기가 당동 하르방이고 당동 하르방을 볼 수는 없엇잖아예? 옛날이야기로 들은 거 아니예?(들어온 얘기가 당동 할아버지이고 당동 할아버지를 볼 수는 없었잖아요? 옛날이야기로 들은 거 아닌가요?)

101008 #3 아니여. 그 하르방 나 욕은 후제 돌아갓저.(아니야. 그 할아버지 나 철든 후에야 돌아가셨지.)

101008 @ 기꽈? 무사 당동 하르방이렌마씨?(그래요? 왜 당동 할아버지라고 했나요?)

101008 그거 몰라. 어떵 당동 당동헷저.(그건 몰라. 어떻게 당동 당동했지.)

101008 @ 욱은 후제 멧 살 때 돌아가션마씨?(철든 후에 몇 살 때 돌아가셨나요?)

101008 #3 해방 후에 들어오난 왕 보난 그 하르방 살앙셔라.(해방 후에 들어와서 와 보니까 그 할아버지 살아 계셔라.)

101008 @ 나이 드시난 돌아가신 거예?(나이 드시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101008 #3 나이 드난 돌아간.(나이 드니까 돌아갔어.)

101008 @ 게믄 선인장이 들어 온 게 막 오래뒈진 않았다예? 언제?(그러면 선인장이 들어 온 것이 막 오래되진 않았네요? 언제?)

101008 #3 한 이 백 멧 십 년 뒈긴 뒛지만은, 우리가 이제 밧디 심엉 수확 보는 건 한 칠 팔십년벳긔 안뒈여.(한 이 백 몇 십 년 되긴 됐지만은, 우리가 이제 밭에 심어서 수확 보는 건 한 칠팔 십 년밖에 안 돼.)

101008 @ 칠 팔십년예? 수확 보는 건예? 그믄 그냥 마을에 처음 난 거는 백 멧 십년?(칠팔 십년이요? 수확 보는 것요? 그러면 그냥 마을에 처음 난 거는 백 몇 십년?)

101008 #3 응. 그자 한 이백년 가까이 뒌 거지.(응. 그저 한 이백년 가까이 된 거지.)

101008 @ 그 할아버지가 본 시점에서 그 할아버지도 욱아실 때 발견헌 거난 예.(그 할아버지가 본 시점에서 그 할아버지도 컸을 때 발견한 거니까요.)

101008 #4 그 하르방이.(그 할아버지가.)

101008 @ 바당물에 강.(바닷물에 가서.)

101008 #4 ᄋᆞ. 바당물에 쌀 시치레 강 보난에 경 ᄀᆞᆫ는 사름도 싯고 ᄋᆞ라 가지라. 경헤연 이젠 아이고 뭣을 이렇게 둥갈둥갈 이게 이만헌 선인장 낭 허연 트난 아이고 뭣이 영 터왐신곤 허난 그 선장 당동하르방이 ᄉᆞᆯ 바가진 영 놔두고 간 보난 빨강허게시리 올매 저 열매치름 빨강헌 것도 싯곡 까시도 막 국적국적허게 싯곡 허난에 또 이상허덴 이 가시가 어떵헌 일로 난. 이젠 그 하르방이 ᄉᆞᆯ ᄋᆞ젼 올라완 ᄋᆞ져완 이젠 집의 밥허는디 놔두언 헴시난 ᄄᆞ루 연날 그 하르방이 구덕 ᄀᆞᆯ아나서. 이제 구덕하르방 구덕하르방, 구덕도 대구덕. 느네 어멍이영 허믄 대구덕 ᄋᆞᄋᆞ. 허난 대밧디 강 그 댈 허여당 허믄 구덕을 곱겔 아녀. 음썩음썩 막 ᄒᆞᆫ 댄 이만이 튀어나곡 ᄒᆞᆫ 댄 이만이 튀어나곡 허난 구덕 사례 가는 디가 없어. 그 하르방신디. 할망은 양지 쪼꼬만허고 넙작허고 허난 하르방은 앚앙은에 구덕을 막 이제 ᄀᆞᆯ아가넹아 아이고, 하르방 구덕도 곱게 좁서. 구덕 미완 사레도 아니 오켄 헴수게. 내불라. 영 허멍 허난 이제 그 하르방신디 그 당동 하르방이옌 헌 하르방이 아시 시어? 허난 아이고, 성님 이거 어떵헌 일이꽈? 허난 구덕은 영 헨에 대바구리에 영 헨 좁젼 헨 이 아래에 강 봐. 막 멋진 낭이 간 보난 뭣인곤 헨 보난 빨강헌 올매도 싯곡, 까시가 막. 거 믄지지랑 마라. 허난 까시도 막 왕상허곡 헌 거 시여. 어디꽈? 허난에 와 봐 허멍 허난 인젠 하르방 걸음이 경 투드락 투드락 투드락 연날 초신 삼을 때난 초신 허여 심언 이젠 내려가서. 그 상쿠지옌 헌 디 내려간. 아이 이거 안 봐난 낭이 우다. 이거 올매가. 이거 어디서 와신고? 허난에 그 이젠 그 구덕 하르방이 이 당동 하르방양 그 ᄀᆞ찌 선장 열맬 그거 까실 ᄃᆞᆼ겻젠 헴시네. 우트레. 올련 영 헨 잡아뎅견 뭐 노끈애기 강 저디 강, 저 무시거 봉가와 경 ᄒᆞᆸ서. ᄒᆞ연 인젠 ᄄᆞ루 투드락 투드락 베포기엔 하르방 구덕 하르방이난 연날 감동 그저 밧디 두르 비연 준등이 무껀 영해연 제천 시꾸난 아이구 베포기광 허멍 그 하르방이 경헨. 당가노난 이젠 여자 할망이 왁 집에 할망도 죽어비엿주마는 하이구, 저 검덩머리엔 저 당동하르방 무신 낭사덜 몰란 저 구덕하르방이영 그 아덜 일름이 달천이, 달천이 허나난 하르방 이름은 달천이 하르방 달천이 하르방 허나난 간 보난 이젠 그 가시, 강 호미 강 ᄋᆞ져와. 헤영 이레 돌팡 우레 싱거보게. 올앙 이제 잘 올믄 아시랑 저쪽에 싱그고 날랑 요레 영 낭 당동하르방 싱근 건 포기가 영 허난 그 돌 의염에 간 좁젼 영 허난 가시가 ᄉᆞ뭇 손에 막 젭져지그렌. 막 씰어도 그거 털어지질 안 헌다게. 돌러레 막. 에이구 성님만 헙서, 난 못허쿠다. ᄒᆞ난 허지 마라, 내비염시난 여ᄌᆞ들이 막 모여 갓젠. 모여 가난 나도 ᄒᆞᆫ 가지 줍서. ᄒᆞ연 허난 그 상쿠지, 쳇째 상쿠질 싱것젠. 그 선장 열매가. 가지가. 싱그난 퍼렁케시리 막 퍼렁허게시리 ᄉᆞ뭇 홈도 선장 열 철이 나가믄 봄 나가믄 막 ᄉᆞ뭇 다닥다닥다닥 허게 시리 막 굼벗 부뜨듯 막 그냥 부떠그네 막 피짝허게 올아오지 안허멘? 아 영 넘어가거당 그거 심은 사름덜 직허레 자꾸 강 보믄 요만이 올라왕 또 요만이 올라오곡 허난 욜매가 이제 올안 거ᄀᆞ치룩 막 벌거렁허게시리 더덕, 막 첫 열매난 게 막 훌거가지 안해여. 말젠 그 가시덜이

만딱 그 검덩머리 믄 싱것젠 햄시예. 당쿠지. 거 싱건 이젠, 말젠 돈 나가가난에 거 싱거당 무신 밧 의염에도 싱것저. 밧디가믄 머들 이서. 영헌 밧디 머들 영 곡석 아니 되는 디, 그디도 싱건 놔두난 낭이 이만썩 헤연 이만썩 헷젠 허멍 허난 아 흔동안은 그자 하영은 안 받아도 그때가 오백원이라 나실거라. 신구 아방 받을 때가 오백원. 삼백 원이란가? 삼백 원일거라, 삼백 원. 삼천 원도 아닌 삼백 원썩덜 헤도 그걸 단 우리도 이제 밀어볏주마는 서울 사름네 밧 영 영 산 밧디 강 웅텡이 싱그난 이만썩 헌게 막 욜안이. 경헨 삼백 원썩 행 풀아낫져게. 겐 풀아난. 경헨 나도 아이구, 나도 우리 밧디 강 헤당은에 머들에 강 싱경 놔두켜 싱경 놔난. 거 처음 발견허는 건 그 당동하르방이 발견허연 이 월령 마을에 막 그자 만석 퍼졋주기게. 뚠 마을사 어디 경 시느냐게. 또 이젠 막 밧덜 좋은 디덜 흔 콘테나에 낭 싀 개 걸치믄 흔 콘테나 아니? 오만 원썩, 오만 원썩 주멍은에 좋은 밧디덜 강 막 싱거노난 말젠 선장 안 받아가켄 행 선장 받은 사람은 한림 어디옌 허난 이 하르방네 권당 양봉희옌 헌 사름 이젠 막 전문으로 이젠 이 반장 반으로 ᄒᆞ영으네 멧 콘테나썩 멧 통썩 ᄒᆞ난 그 사름은 홀딱 망허여 볏지. 간 놔두난 만딱 썩언 창고에서 막 무락무락 막 ᄉᆞ뭇 뚝 저 사름 피 닮나게. 거 벌겅허영. 벌러도 속 벌겅허여. 거난 믄 썩어나난. 아이구, 양봉흰 망헷저. 망헷저. 허난 춤 병나다실피 헨 집도 놀아가 재산도 몬딱 놀아각 어멍도 죽억 해가난 이젠 집 산 살암젠 헙디다. 이젠.(응. 바닷물에 쌀 씻으러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야. 그렇게 해서 이젠 아이고 뭣을 이렇게 '둥갈둥갈' 이게 이만큼한 선인장 나무 해서 뜨니까 아이고 뭣이 이렇게 떠오는가 하니까 그 선장 당동할아버지가 쌀 바가진 이렇게 놔두고 가서 보니까 빨갛게끔 열매 저 열매처럼 빨간 것도 있고 가시도 아주 '국적국적'하게 있고 하니까 또 이상하다고 이 가시가 어떻게 이리로 났어. 이젠 그 할아버지가 쌀 가져서 올라왔어. 가지고 와서 이젠 집의 밥하는데 놔두고 하고 있으니까 따로 옛날 그 할아버지가 바구니 결었었어. 이제 바구니 할아버지, 바구니 할아버지, 바구니도 대바구니. 너의 어머니랑 하면 대바구니 응 응. 하니까 대밭에 가서 그 댈 해다가 하면 바구니를 곱겔 안 해. '음썩음썩' 막 한 댄 이만큼 튀어나고 한 댄 이만큼 튀어나고 하니까 바구니 사러 가는 데가 없어. 그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얼굴 조그마하고 넙적하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앉아서 바구니를 마구 이제 결어가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바구니도 곱게 결으세요. 바구니 미워서 사러도 안 오겠다고 합니다. 내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그 당동 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아우 있어? 하니까 아이고, 형님 이거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바구니는 이렇게 해서 대바구니에 이렇게 해서 끼어 넣어서 해서 이 아래에 가서 봐. 아주 멋진 나무가 가서 보니까 뭣인가 해서 보니까 빨간 열매도 있고, 가시가 마구. 거 만지지는 마. 하니까 가시도 아주 에푸수수 한 거 있어. 어딥니까? 하니까 와 봐 하면서 하니까 인젠 할아버지 걸음이 그렇게 '투드락 투드락 투드락' 옛날 초신 삼을 때난 초신 해서 심어 이젠 내려갔어. 그 '상쿠지'라고 한 데 내려갔어. 아이 이거 안 봤던 나뭅니다. 이거 열매가. 이거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그 이젠 그 바구니 할아

버지가 이 당동할아버지 있죠? 그 같이 선인장 열맬 그거 가실 당겼다고 하고 있지.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뭐 노끈 가서 저기 가서, 저 무엇 주워와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이젠 따로 '투드락 투드락' '베포기'라고 할아버지 바구니 할아버지니까 옛날 감동 그저 밭에 덜 베어서 허리 묶어서 이렇게 해서 제치고 꿈에 나타나니까, 아이구 '베포기'와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담가놓으니까 이젠 여자 할머니가 왁 집에 할머니도 죽어버렸지만 하이구, 저 검정머리라고 저 당동할아버지 무슨 나무인지 몰라서 저 바구니 할아버지랑 그 아들 이름이 달천이, 달천이 하니까 할아버지 이름은 달천이, 할아버지, 달천이 할아버지 하니까 가서 보니까 이젠 그 가시, 가서 호미 가서 가져와. 해서 이리로 돌 위에 심어보게. 열려서 이제 잘 열리면 아우랑 저쪽에 심고 나는 요리 이렇게 나무 당동할아버지 심은 건 포기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돌 옆에 간 끼워서 이렇게 하니까 가시가 사뭇 손에 막 끼어들어서. 막 쓸어도 그거 털어지질 안 한다. 돌에 마구. 에이구 형님만 하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지 마, 내버리니까 여자들이 막 모여 갔다고. 모여가니까 나도 한 가지 주십시오. 해서 하니까 그 '상코지', 첫째 '상코지'를 심었다고. 그 선인장 열매가. 가지가. 심으니까 파랗게끔 막 파랗게끔 사뭇 해도 선인장 열 철이 나면 봄 나면 아주 사뭇 다닥다닥다닥 하게 아주 '굼벗' 붙듯 아주 그냥 붙어서 아주 '피짝'하게 열지 않니? 아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거 심은 사람들 지키러 자꾸 가서 보면 요만큼 올라와서 또 요만큼 올라오고 하니까 열매가 이제 열어서 거처럼 아주 벌겋게 더덕, 아주 첫 열매니까 아주 굵지 않아. 나중엔 그 가시들이 모두 그 검정머리 모두 심었다고 하네. '당쿠지'. 거 심어서 이젠, 나중에 돈 되어가니까 거 심어다가 무슨 밭 구석에도 심었지. 밭에 가면 '머들'있어. 이런 밭에 '머들' 이렇게 곡식 안 되는 데, 거기도 심어서 놔두니까 나무가 이만큼씩 해서 이만큼씩 했다고 하면서 하니까, 아 한동안은 그저 많이는 안 받아도 그때가 오백 원이었을 거야. 신구 아버지 받을 때가 오백 원. 삼백 원이란가? 삼백 원일 거야, 삼백 원. 삼천 원도 아닌 삼백 원씩들 헤도 그걸 단 우리도 이제 밀어버렸지만 서울 사름네 밭 이렇게 이렇게 산 밭에 가서 웅덩이 심으니까 이만큼씩 한 게 막 열었어, 그래서 삼백 원씩 해서 팔았었지. 그래서 팔았었어. 그래서 나도 아이구, 나도 우리 밭에 가서 해다가 '머들'에 가서 심어 놔두겠다고 심어 놨었어. 거 처음 발견하는 건 그 당동할아버지가 발견해서 이 월령 마을에 아주 그저 퍼졌지. 딴 마을에야 어디 그렇게 있니? 또 이젠 막 밭들 좋은 데들 한 콘테이너에 나무 세 개 걸치면 한 콘테이너 아니? 오만 원씩, 오만 원씩 주면서 좋은 밭에들 가서 아주 심어놓으니까 나중에 선장 안 받아가겠다고 해서 선인장 받은 사람은 한림 어디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네 권당 양봉희라고 한 사람 이젠 아주 전문으로 이젠 이 반장 반으로 해서 몇 콘테이너씩 몇 통씩 하니까 그 사람은 홀딱 망해 버렸지. 간 놔두니까 모두 썩어서 창고에서 막 '무락무락' 아주 사뭇 꼭 저 사람 피 같아. 거 벌개서. 쪼개도 속 벌개. 그러니까 모두 썩었었어. 아이구, 양봉흰 망했다. 망했다 하니까 참 병나다시피 해서 집도 날아가 버리고 재산도 모두 날아가고 어머니도 죽어서 해가니까 이젠 집 산

살았다고 헙디다. 이젠.)

101008 #3 몰라.(몰라.)

101008 #4 그디 가십니다게. 그 무사 아방네 구경 우리 구경 가나지 안헷수과? 오라나난 한림 저 이제 선거허곡 허지 안헙니까? 그디 강 조합에 우리 선거덜 막 허곡 해나수다. 거 저 무싱거 즈꼿디. 보건소 즈꼿디.(거기 가십니다. 그 왜 아버지네 구경 갔었지 않았습니까? 오니까 한림 저 이제 선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조합에 우리 선거들 아주 하고 했었습니다. 거 저 무엇 근처. 보건소 근처.)

101008 #3 으응.(으응.)

101008 #4 게나난 그 사름을 봐지난 우리 난 몰란. 나 몰르쿠과 삼촌? 허난 나 선장 받안 망헌 사름이우다. 헤여난 아이구, 거 무신 말고 아이구 죽엇젠 허멍 헨 무사 나가 죽읍니껜 허난 아판에 이디 암튼 거시기 헨에 수술헨에 염장 저 거시기 심장 신장 거시기 헨에 죽엇젠 헹은에게 죽진 아니허니깐 수술헹 완에 살안 아기덜 이영 이젠 우리 잘 살암수다. 삼촌 경 허멍 허연 햇주기게. 경허난 그디 간 보멍 허난 이젠 누게 선장 받으켄 헌 사람 시냐게. 다 안 받아. 그런 이자 저 밧디덜 포크 령 빌엉 흔 번 허믄 삼십만원썩, 흔 번 들어가믄 오십만원썩 우리도 갈아낫져. 이제 마늘 싱근 디. 견 빌언에 문 밧디디레 질러레 막 기냥 막 허난 호꼼만 허민 자기 썩긴 썩어라. 갈안 뭣 헤노난 불라가멍 훅 훅 뒈주기, 거시기 이, 그 질 에염이 이 선장을 불령 바둑에서 뚠 ᄆᆞ을도 갓단 아이구 이 선장 이놈 찔르믄 나도 찔런 저 시에 가시나난 중앙로 안과에 싀 번 오헨 헨 싀 번 가 왓져. 간 빠고. 경 헤노난 이 무서운 거 저거. 문졋다만 허믄 이 똑 저 개터럭 닮아. 나 베리지도 못 허곡 영 ᄉᆞ 왁ᄉᆞ왁ᄉᆞ왁. 거 커부난. 나 넘은헨 또 이디 콱 들엉 문 다 ᄆᆞ차가는 중에 이만이 들언에 간 나젠 허난 좁지게 아졍 가시민 확 빨 건디 손으로만 빠젠 허난 노시 못 빤에 쿳가시 올안 쿳가시 꺼꺼단 막 허난 막 숙대겨 노난 손은 이만이 헤 가고 벵완에 강 사진 찍으난 사진 이거 이 선장 까시도 사진 찍엉 나옵니까 영 헨 막 이젠 그거 막 썩어가난 막 이만이 헤연 독 옮안. 이젠 허난 문병원에 간 채연. 채연 허난 이젠 말젠 이 간호ᄉᆞ 이만헌 거 뽑안 이 족집게로 뽑안. 아이구, 할망 이거 봅서. 허나난 아이구 살앗져기게. 간호사덜 땜에 살앗저 허난 이제도 어떵 이상해 뵌다게. 영 헹 줴여.(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 난 몰라. 나 모르겠습니까, 삼촌? 하니까 나 선인장 받아서 망한 사람입니다. 했었던 아이고, 거 무슨 말이고 아이고 죽었다고 하면서 해서 왜 내가 죽습니까, 하니까 아파서 여기 아무튼 거시기 해서 수술해서 염장 저 거시기 심장 신장 거시기 해서 죽었다고 해서 죽진 않으니까 수술해서 와서 살아서 아기들과 이젠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삼촌 그렇게 하면서 해서 했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서 하니까 이젠 누구 선인장 받겠다고 해서 사람 있느냐. 다 안 받아. 그런 이자 저 밭에 포크레인 빌려서 한 번 하면 삼십만 원씩, 한 번 들어가면 오십만 원씩 우리도 갈았었어. 이제 마늘 심은 데. 그렇게 빌려서 모두 밭으로 길로 마구 그냥 마구 하니까 조금만 하면 재게 썩긴 썩어. 갈아서 뭣 해놓

으니까 밟아가면서 흑 흑 되지. 거시기 이, 그 길 옆에 이 선인장을 갈아서 바둑에서 딴 마을도 갔다가 아이고 이 선인장 이놈 찔리면 나도 찔렸어. 저 가니까 중앙로 안과에 세 번 오라고 해서 세 번 갔다 왔어. 가서 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무서운 거 저거. 만졌다만 하면 이 꼭 저 개털 같아. 나 보지고 못 하고 이렇게 'ᄉᆞ왁ᄉᆞ왁ᄉᆞ왁'. 거 커버리니까. 내가 지난핸 또 여기 콱 들어서 모두 다 마쳐가는 중에 이만큼 들어서 가서 나려고 하니까 끼워서 가지고 갔으면 확 뺄 건데 손으로만 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빼서 꾸지뽕 열어서 꾸지뽕 꺾어다가 마구 하니까 마구 쑤셔 놓으니까 손은 이만큼 해 가고 병원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사진 이거 이 선인장 가시도 사진 찍어서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마구 이젠 그거 아구 썩어가니까 아주 이만큼 해서 독 옮았어. 이젠 하니까 문병원에 가서 쨌어. 째서 하니까 이젠, 나중엔 이 간호사 이만한 거 뽑아서 이 족집게로 뽑았어. 아이고,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하니까 아이고 살았어. 간호사들 때문에 살았어 하니까 이제도 어떻게 이상해 보여. 이렇게 해서 쥐어.)

101008 @ 아이구야!(아이구야!)

101008 #4 경해 가 이 손만게. 또 재작년엔 뚜루 이디산디 어디 찔런에 경 꽝 껏디 들어가믄 요놈의 가시가 이 쿳가시 ᄀᆞ트민 곪아가민 우트레 올라온다게. 이 술 파멍 물멍. 또 개 물어 댕기듯 이 술 안트레만 들어가. 아이구 썬썬헌다. 썬썬해여. 겨난 이 그 전인 이 난 두 번채 그 안과에 가왐저. 전엔 안경도 사단 놔뒨 안경 쪙 해지는 게. 경허멍이 이 선장이여 난 이 관광 손님덜은 월령에 왜 경 발강헴시 영허난 선장 열매 사진 찍으로 저 조름끄지 아니 퍼진 디가 시냐게. 저 조름끄지 밧마다 문딱 다 선장. 그 사진 찍으레 댕겸세게. 게난 그 ᄇᆞ름ᄃᆞ리 저 풍채에 픈 것도 그 선장에 풍채 구경허레 그 밤에 감세게. 뭐 월령에 무시 거 볼거 시니? 선인장 그거 하나. 선장 열매 하나고 그거는 이제 관광손님덜 막 퍼지난.(그래 가 이 손만. 또 재작년엔 따로 여기인지 어디 찔려서 그렇게 뼈 가까이 들어가면 요놈의 가시가 이 꾸지뽕 같으면 곪아가면 위로 올라온다. 이 살 파면서 물면서. 또 개 물어 당기듯 이 살 안으로만 들어가. 아이고, '썬썬'한다 '썬썬'해. 그러니까 이 그 전엔 이 난 두 번째 그 안과에 갔다 오고 있어. 전엔 안경도 사다가 놔뒀어. 안경 껴서 해지는 게. 그러면서 이 선인장이며 나서 이 관광 손님들은 월령에 왜 그렇게 발갛냐고 그러니까 선장 열매 사진 찍으러 저 꽁무니까지 아니 퍼진 데가 있니. 저 조름까지 밭마다 모두 다 선인장. 그 사진 찍으러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바람개비 저 풍차에 파는 것도 그 선인장에 풍차 구경하러 그 밤에 가고 있어. 뭐 월령에 무엇 볼 거 있니? 선인장 그거 하나. 선인장 열매 하나고 그거는 이제 관광 손님들 아주 퍼지니까.)

101008 @ 그거는 도움이 됌수과게?(그거는 도움이 됩니까?)

101008 #4 경허난 경. 이젠 이 연날은 저런 웃뜨르 시골에 시골더레는 무신 어디 베린 체 헴시야? 관광도 이 글로 걸엉덜 가고 걸엉. 오널 아칙이 보난에양, 제주시에서 밤새낭 걸언 양 밤새낭 걸엉 월령까정 왓어라. 완 이제도록 옷 벗언 또루

이젠 우틸로 서귀포더레 갈거옌. 아이구.(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젠 이 옛날은 저런 '웃뜨르' 시골에 시골에는 무슨 어디 보는 체 하니? 관광도 이 길로 걸어서들 가고 걸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깐, 제주시에서 밤새워 걸어서 밤새워 걸어서 월령까지 왔더라. 와서 이제도록 옷 벗어서 따로 이젠 위로 서귀포에 갈 거라고. 아이고,)

101008 @ 올렛질.('올렛질'.)

101008 #4 저 발창, 양 발창 고만 헴신가? 사진 이치룩 이거 기계에 담아서라. 사진 찍곡 기계에 담아십디다. 거 찍으레 뎅김 경허연. 거 보라 거 양, 거 시에 어디꽈. 연날사 걸엉 시예, 성안이렌 허주. 연날은 성안. 걸안 뎅겨낫주만은 이제사 어디 요디도 요 한림도 차 탕 요기도 섭지도 차 탕 가는디.(저 발창, 양 발창, 그만하는가? 사진 이처럼 이거 기계에 담았더라. 사진 찍고 기계에 담아십데다. 거 찍으러 다니기 그렇게 했어. 거 보라 거, 거 시에 어딥니까? 옛날에야 걸어서 시에, 성안이라고 하지. 옛날은 성안. 걸어서 다녔었지만 이제야 어디 요기도 요 한림도 차 타서 요기도 '섭지'도 차 타서 가는데.)

101008 @ 바당이 너무 고와노난. 걱정 맙서, 그 사람들은 서울서.(바다가 너무 고우니까. 걱정 마세요,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101008 #4 어, 만딱 질 아니가? 이거 믄 바당ᄀᆞ엔 몬딱 질.(어, 모두 길 아니가? 이거 모두 바닷가엔 모두 길.)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1009 #1 사삼 때 피해도 엇엇고.(사삼 때 피해도 없었고.)

101009 @ 선인장은 옛날에 이름을 뭐렌 헷수과?(선인장은 옛날에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101009 #1 그냥 선인장 월령, 나 ᄀᆞᆺ사 ᄀᆞᆯ아져냐?(그냥 선인장 월령, 나 금방 말했니?)

101009 @ 어릴 때부터.(어릴 때부터.)

101009 #1 제일 먼저 이파리 ᄒᆞ나 터 왕 싱그난 커가난 열매도 열고 월령 제일 먼저 선인장 태어낫젠 헌다게. 경 헹 그 열매 먹단 보난, 우린 모른다 그거 나올 시절에이, 막 그 열매도 하고 오족 번져시냐게. 선인장을.(제일 먼저 잎이 하나 떠 와서 심으니까 커가면서 열매도 열고 월령 제일 먼저 선인장 태어났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열매 먹다가 보니까, 우린 모른다 그거 나올 시절에, 막 그 열매도 많고 오죽 번졌니. 선인장을.)

101009 @ 여기 자랑거리도 선인장?(여기 자랑거리도 선인장?)

101009 #1 뭐 다른 건 모른다.(뭐 다른 건 모른다.)

101009 @ 자랑헐 수 잇는 것도.(자랑할 수 있는 것도)

101009 #1 몰라. 엇어. 자랑 헐 수 있는 게 뭣산디.(몰라. 없어. 자랑 할 수 있는 게 뭔지.)

101009 @ 바당이 멋잇다.(바당이 멋있다.)

101009 #1 거 무신 말? 바당이사 우리 물에 들곡 해나난 이.(그거 무슨 말? 바다야 우리 물에 들고 했었으니까.)

101009 @ 경치가 좋다.(경치가 좋다.)

101009 #1 모르켜. 그런 건 어떵사 허는디 우리 물에 들 땐 물에 드니까.(몰라.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물에 들 땐 물에 드니까.)

101009 @ 땅은 어떵헙니까? 토지 땅은 좋아?(땅은 어떻습니까? 토지 땅은 좋아?)

101009 #1 토진 우리 토지니까 나가 벌곡게. 살아나난 좋아 뵈지.(토진 우리 토지니까 내가 벌고, 살아나니까 좋아 보이지.)

101009 @ 아니, 게난 동쪽엔 돌멩이가 많안.(아니, 그러니까 동쪽엔 돌이 많아서.)

101009 #1 ᄋᆞ. 산전들에 작지 나고이. 월령 그런 것도 ᄒᆞ낌 싯저. 그런 지방에 쪼금, 요디도 작지라고 그만허민 뭐 이녁동네 지일 좋아불어. 놈의 동네.(그래. 중산간에 자갈 나고. 월령 그런 것도 조금 있지. 그런 지방에 조금, 여기도 자갈이라고 그만하면 뭐 이녁동네 제일 좋아. 남의 동네.)

101009 @ 거기는 금능이나 조끗디서 보민 그딘 협재해수욕장이 이시난 거기는 돈도 벌곡 거기에 비해선 월령은 또예, 우리도 여기도 모래가 이서시민 좋아실 걸 그런 건 엇잔아예?(거기는 금능이나 곁에서 보면 거긴 협재해수욕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돈도 벌고, 거기에 비해선 월령은 또, 우리도 여기도 모래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건 없잖아요?)

101009 #1 허허허허, 모래 꼭 싯는디 싯주기. 아무디나 셔게? 옛날 그 모래가 그 바당으로 올라왓젠 허여. 바당에서 밀령 밀령허는 것이 막 우트레ᄁᆡ지 ᄇᆞ름에 밀려왓젠 옛날 할망덜 ᄀᆞᆯ아이. 모래가 아무디나 안 올라오주기. 올라 오는 디로 올라 와. 경헌덴 허여이.(허허허허, 모래 꼭 있는데 있지. 아무데나 있나? 옛날 그 모래가 그 바다로 올라왔다고 해. 바다에서 밀려 밀려서 하던 것이 막 위에까지 바람에 밀려왔다고 옛날 할머니들이 말해. 모래가 아무데나 안 올라오지. 올라 오는 데로 올라 와. 그런다고 해.)

101009 @ 마을 자랑거리?(마을 자랑거리?)

101009 #2 뭐가 좋다허믄 춤 엇지. 좋다는 게 엇지. 월령 살기가 곤란헤노니까 그런 거 뭐 인심은 좋앗지. 부락이 영 즉아노니까 월령리엔 허민 모르는 일이 엇지. 학자도 많고 나쁜 사람이 엇어. 그것만은 월령이 상당히.(뭐가 좋다하면 참 없지. 좋다는 게 없지. 월령 살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거 뭐 인심은 좋았지. 부락이 이렇게 작으니까 월령리라고 하면 모르는 일이 없지. 학자도 많고 나쁜 사람이 없어. 그것만은 월령이 상당히.)

101009 @ 인심도 좋고 즉으난.(인심도 좋고 작으니까.)

101009 #3 인심 나쁘덴 안헌다. 널르지도 안허는 부락이주만은 다 뭉쳐근에 잘헹 살아온 부락이여.(인심 나쁘다고 안한다. 넓지도 않은 부락이지만 다 뭉쳐서 잘

해서 살아온 부락이야.)

101009 @ 인심도 좋고 또 이렇게 사삼때 피해도 없었고.(인심도 좋고 또 이렇게 사삼 때 피해도 없었고.)

101009 # 3 ᄋᆞ. 사삼 때 그 총으로 피해 안 봐세. 경 안해시민 역불로 몬딱 불 부쪄. 그놈덜 다 불 부쪄 불엇저.(어. 사삼 때 그 총으로 피해 안 봤어. 그렇게 안 했다면 일부로 모두 불 붙여. 그놈들 다 불 붙여 버렸지.)

101009 @ 즉아도예. 음 자랑거리?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났거나 이런 뭔 엇수과? 자랑거리 막 자랑헐 만헌.(작아도요. 음 자랑거리?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났거나 이런 뭔 없습니까? 자랑거리 막 자랑할 만한.)

101009 #3 우리 자랑거린 그 당시에 한청단장 우리 형 헤낫저.(우리 자랑거린 그 당시에 한청단장 우리 형 했었지.)

101009 @ 한청단장예?(한청단장이요?)

101009 #3 ᄋᆞ.(응.)

101009 @ 한청단장이믄 사삼때꽈?(한청단장이면 사삼 땝니까?)

101009 #3 ᄋᆞ. 사삼때 그때.(그래, 사삼 때 그때.)

101009 @ 형님이 양.(형님이요.)

101009 #3 창순.(창순.)

101009 @ 양 창순씨가 한청단장 허난 피해가 엇어수과? 한청단장이믄 경찰이꽈?뭐꽈?(양 창순씨가 한청단장 하니까 피해가 없었습니까? 한청단장이면 경찰입니까? 뭡니까?)

101009 #3 경찰은 아무것도 아니여. 그 한청 그냥 부락 내에서 첨 경찰 따위 경찰이 그 뭣고?(경찰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한청 그냥 부락에서 처음 경찰 따위 경찰이 그 뭐냐?)

101009 @ 아아, 청년단장이란 말 아니?(아아, 청년단장이란 말 아니?)

101009 #3 청년단장이주기.(청년단장이지.)

101009 @ 한청단장인디 월령에서는 한 분이 이섯구나예?(한청단장인데 월령에서는 한 분이 있었구나?)

101009 #3 ᄋᆞ게. 우리 형님 이섯저. 그 당시 전투헐 때 헨. 나 저.(그럼. 우리 형님 있었지. 그 당시 전투할 때 했어. 나 저.)

101009 @ ᄋᆞᆮ 명중에 아까 한 명이겠다예 그 저 담 쌓아 가지고 지키는.(여덟 명중에 아까 한 명이었네요? 그 저 담 쌓아 가지고 지키는.)

101009 #3 우리 사삼사건 당시에 우리 부락엔 도치가를 많이 쌓앗저 도치가엔 헌 건 이 부락 내에서 성을 둘렀주기. 만리성.(우리 사삼사건 당시에 우리 부락에는 도치가를 많이 쌓았지. 도치가라고 한 건 이 부락에서 성을 둘렀지. 만리성.)

101009 @ 만리성?(만리성?)

101009 #3 그 성을 둘런 헨. 폭도덜 들어오지 못허게 방지허게, 성을 둘런시난 이젠 부락들에 들어오젠 허믄 도치까엔 헌 건 영 싸고 영 싸고 이디에 강 영 경비

딱 사낫저.(그 성을 둘러서 핸. 폭도들 들어오지 못허게 방지하게, 성을 둘렀으니까 이젠 부락들에 들어오려고 하면 '도치까'라고 한 건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여기에 가서 이렇게 경비 떡 세웠었어.)

101009 @ 아아, 경비 섯었구나예.(아아, 경비 세웠었구나.)

101009 #3 으. 까딱어서. 어디 사람이라도 꼬딱 들어오지 못헤여.(그래. 꼬떡없어. 어디 사람이라도 전혀 들어오지 못했어.)

101009 @ 거기에 형님이 삼촌보다 멧 살 우이꽈?(거기에 형님이 삼촌보다 몇 살 위예요?)

101009 #3 나보다 아주 우이난 아홉 술이나 우이난.(나보다 아주 위니까 아홉 살이나 위니까.)

101009 @ 아, 열일곱에 아홉 더하면 스물여섯이난 아이 여기도 위험했겠다예. 스물여섯에 제일 대빵이다예. 형님과 그리고 삼촌하고 일고으둡명이 지켰덴 헷잖아예? 청년부락.(아, 열일곱에 아홉 더하면 스물여섯이니까 아이 여기도 위험했겠네요. 스물여섯에 제일 대장이었네요. 형님과 그리고 삼촌하고 일고여덟 명이 지켰다고 했잖아요? 청년부락.)

101009 #3 위용대라고.(의용대라고.)

101009 @ 위용대?(의용대?)

101009 #3 으. 위용대렌 헌다. 특기부대.(어. 의용대라고 한다. 특기부대.)

101009 @ 무슨 부대?(무슨 부대?)

101009 #3 특기부대.(특기부대.)

101009 @ 특기부대렌 형님이 군대 갔다 온 형님이꽈?(특기부대라고 형님이 군대 갔다 온 형님입니까?)

101009 #3 아니, 아니 못 가왓저. 겐 그루후제 우리는 군인 나가버리고 군인 가믄 그때 다 죽어 불엇거든 게난 성님이 날 보내멍 기가 찼주기. 보내지 말젠 허였쟈 이넉 동생이렌 헤근에 빼불민 뒈느냐게? 에이구.(아니, 아니 못 갔다 왔지.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군인 나가버리고 군인가면 그때 다 죽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형님이 날 보내면서 기가 찼지.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빼버리면 되냐? 에이고.)

101009 @ 그렇지. 게난 양 창순씨하고 삼촌하고 또 다섯 명이 또 또래덜이 있어겠네예? 마을청년?(그렇지. 그러니까 양 창순씨하고 삼촌하고 또 다섯 명이 또 또래들이 있었겠네요? 마을청년?)

101009 #3 부단장 이 춘반이.(부단장 이 춘반이.)

101009 @ 부단장 이 춘반, 또 삼촌 또 기억나는 사람들 있수과?(부단장 이 춘반, 또 삼촌 또 기억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101009 #3 기억나는 사람사 많이 싯주. 뭐 노력 많이 헌 사람.(기억나는 사람이야 많이 있지. 뭐 노력 많이 한 사람.)

101009 @ 다 모여라 헌 거 아니예?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다 모여라 한 거 아

니에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101009 #3 ᄋᆞ. ᄆᆞ을 지키는 청년도 참 하 부락은 즉아도이. 다 지키젠 사나난 청년이 그렇게 많허연.(그렇지. 마을 지키는 청년도 참 많아. 부락은 작아도. 다 지키려고 섰으니까 청년이 그렇게 많았지.)

101009 @ 그믄 월령은 월령 청년들이 지키고, 금능은 금능대로 다 지키고 마을마다 그런 위용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예? 아, 그믄 다른 금능이나 판포나 이런데 보다도 월령도 월령 청년들끼리 힘이 다.(그러면 월령은 월령 청년들이 지키고, 금능은 금능대로 다 지키고 마을마다 그런 위용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다른 금능이나 판포나 이런 데보다도 월령도 월령 청년들끼리 힘이 다.)

101009 #3 ᄋᆞ. 거, 우리 총 맹들안 그 아까 이방윤이 총 멩들앙 그걸로 헤영 우리 성공했젠 허지 안 헤냐?(응. 거, 우리 총 만들어서 그 아까 이방윤이 총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우리 성공했다고 하지 안 했니?)

101009 @ 양 창순 형님이 다른 데도 막 아울렁 대장노릇을 헌 거꽈? 한림이나 이런 데.(양 창순 형님이 다른 데도 막 아울러서 대장노릇을 한 겁니까? 한림이나 이런 데.)

101009 #3 한림 거기도 왕왕 허주만은 우리 부락내에 한청단장이옌 허믄 거 세어나서. 지금 ᄀᆞᆮ으믄 뭐 경찰관덜 아무것도 아니여.(한림 거기도 황황했지만 우리 부락에 한청단장이라고 하면 거 쎗지. 지금 같으면 뭐 경찰관들 아무것도 아니야.)

101009 @ 한청단장은 월령리 한청단장이꽈? 한림 다 합쳥은 아니고?(한청단장은 월령리 한청단장입니까? 한림 다 합쳐서는 아니고?)

101009 #3 어, 월령리.(응, 월령리.)

101009 @ 월령리 한청단장, 게믄 다른 마을에도 다 한청단장이 있다는 거다예?(월령리 한청단장, 그러면 다른 마을에도 다 한청단장이 있다는 거네요?)

101009 #3 ᄋᆞ.(응.)

101009 @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거네예?(마을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거네요?)

101009 #3 응.

101009 @ 겐 양 창순 형님은 여기서 살멍 다 오랫동안 살으셧수과?(그래서 양 창순 형님은 여기서 살면서 다 오랫동안 사셨습니까?)

101009 #3 ᄋᆞ게.(응.)

101009 @ 겐 여기서 결혼행 애기도 지금 다 잇다는 거다예?(그래서 여기서 결혼해서 애기도 지금 다 있다는 거네요?)

101009 #3 애기 엇어. 다 무위뒈불언.(애기 없어. 다 없어져버렸어.)

101009 @ 돌아가셔불언?(돌아가셨나요?)

101009 #3 게난 나가 우리 집이 아덜놈 큰아덜이 그 아방네 하르방네 물 걸여놤세.(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이 아들놈 큰아들이 그 아버지네 할아버지네 물 올려놓고 있지.)

101009 @ 형님이 두 번째꽈? 삼촌은? 그 양 창순 그 분이 큰아덜?(형님이 두 번째예요? 삼촌은? 그 양 창순 그 분이 큰아들?)

101009 #3 아니, 나하고 사춘ᄉᆞ이게.(아니, 나하고 사촌사이지.)

101009 @ 아, 사촌형님? 친형이 아니고?(아, 사촌형님? 친형이 아니고?)

101009 #3 ᄋᆞ, 사춘형.(응, 사촌형.)

101009 @ 큰아덜이 메 걸여 놓는다는 거지예.(큰아들이 메 떠 놓는다는 거지요.)

101009 #3 우리 집이 큰아덜이 그 아방네 하르방네 메 걸여 논다. 제사헌다 멩절이나 제사.(우리 집에 큰아들이 그 아버지네 할아버지네 메 떠 놓는다. 제사한다. 명절이나 제사.)

101009 @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뒛구나예. 음, 참 역사가 나왐수다예. 월령리 이거 삼촌 어시민 이거 어느 누가 얘기헐거꽈?(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됐군요. 음, 참 역사가 나옵니다. 월령리 이거 삼촌 없으면 이거 어느 누가 얘기할 겁니까?))

101009 #3 허허허, 무사 헐 사람덜 하영 싯주기.(허허허, 왜 할 사람들 많이 있지.)

101010 @ 이 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101010 @ 멩질은 똑같이 허고 이 월령에 마을 잔치 같은 것도 헙니까? 경로당엔 사람이 어십데다예?(명절은 똑같이 하고 이 월령에 마을 잔치 같은 것도 합니까? 경로당엔 사람이 없던데요?)

101009 #3 엇어. 모이렌 헌 때 가끔 싯나. 어디서 오랑은에 어디 부녀회에서 무싱거 멕인다. 뭣헌다. 게민 방송허여. 멧 시에 나오라 허영 아무 시간으로 허영 밥 멕인다.(없어. 모이라고 할 때 가끔 있나. 어디서 와서 어디 부녀회에서 뭐 먹인다, 뭐 한다. 그러면 방송해. 몇 시에 나오라 해서 아무 시간으로 해서 밥 먹인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월령에서 태어나고 월령서 계속 자란 어떵헹 게도 월령분허곡 만난마씨?(월령에서 태어나고 월령에서 계속 자라서 어떻게 해서 그래도 월령분하고 만났나요?)

102001 #1 뭐 이디서 알안 어떵 월령에서 태어나고, 월령서 시집가고, 연애, 연애가 아니고 하영 그냥 무싱 거 허여. 주문 허영이 뭐센허느니? 것 ᄀᆞᆯ아?(뭐 여기서 알아서 어떻게 월령에서 태어나고, 월령에서 시집가고, 연애, 연애가 아니고, 많이 그냥 뭔가 해. 주문해서 뭐라고 하니? 것 보고?)

102001 @ 중매.(중매.)

102001 #1 중매, 하하하하, 외방일은 몰라이. 월령이나 벳긔.(중매, 하하하하, 외방일은 몰라. 월령이나 밖에.)

102001 @ 성함부터예?(성함부터요?)

102001 #1 나 성함 골아줘?(내 성함 말해줘?)

102001 @ 예. 나 핸드폰에 적엇수다만은.(예. 내 핸드폰에 적었습니다만.)

102001 #1 강 춘랑이고, 어떵 허난 나 핸드폰 알아?(강 춘랑이고, 어떻게 해서 내 핸드폰 알아?)

102001 @ 그때 그 이사무소 직원이 경 헨.(그때 그 이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했어요.)

102001 #1 골아 줜?(말해 줬어?)

102001 @ 예. 성함은 입력을 헷고예. 강춘?(예. 성함은 입력을 했고요. 강춘?)

102001 # 강 춘랑.(강 춘랑.)

102001 @ 강 춘랑예. 응. 연세가예? 몃 년생?(강 춘랑요. 응. 연세가요? 몇 년생?)

102001 #1 나, 팔십 네 살이라. 몰라. 멧 년생인지, 그건 ᄀᆞ를 출 몰라.(나 팔십 네 살이라. 몰라. 몇 년생인지 그건 말할 줄 몰라.)

102001 @ 삼촌은 준나비 띠과?(삼촌은 잔나비 띠인가요?)

102001 # ᄋᆞ.(응.)

102001 @ 여든 네 살 올히 멩질 먹으믄예.(여든 네 살, 올해 명절 먹으면요.)

102001 #1 준나비 띠라.(잔나비 띠라.)

102001 @ 가족이 아들?(가족이 아들?)

102001 #1 아덜 두 개.(아들 두 개.)

102001 @ 아덜 둘, 딸?(아들 둘, 딸?)

102001 #1 네 개 다 살레 가불언 하나도 엇어.(네 개 다 살러 가버리니까 하나도 없어.)

102001 @ 제주도에 다 사시나요?(제주도에 다 사시나요?)

102001 #1 응. 제주시에들 다 살암서 부산도 ᄒᆞ나 살고 뚤.(응. 제주시에 다 살고 있어. 부산도 하나 살고 딸.)

102001 @ 뚤, 뚤은 가까운디?(딸, 딸은 가까운데?)

102001 #1 뚤 말젯 년 부산 ᄒᆞ나 살암서 그디.(딸, 셋째 딸 부산 하나 살고 있어.거기.)

102001 @ 말젯 뚤은 부산에 가부럿고나게.(셋째 딸은 부산에 가버렸구나.)

102001 #1 그디 그냥 알안덜 살아가난 지녁 살 디 살렌 네불주. 오라 가라 안 허주게.(거기 그냥 알아서 살아가니까 자기 살 데 살라고 놔두지. 오라 가라 안하지.)

102001 @ 게도 영 헨 제주도 ᄒᆞᆫ 번 놀레 올 땐 암만헤도예.(그래도 이렇게 해서 제주도 한 번 놀러 올 때는 아무리해도요.)

102001 #1 올 땐 오주기.(올 땐 오지.)

102001 @ 삼춘은 태어낭.(삼춘은 태어나서.)

102001 #1 학교도 안 뎅겻저게. 밤 야학 헨. 게도.(학교도 안 다녔지. 밤 야학 했어. 그래도.)

102001 @ 사삼 땐.(사삼 땐.)

102001 #1 으. 경허난이, 학끈 안 뎅기고 하이고야, 호적초분이영 그 어릴 때 강 문 헤어 와도 학교 아니 시켜줘라. 아기 둘렌, 우리 아시 못허게 헷저. 씨발놈의 새끼덜 뭐.(그래. 그렇게 해서, 학교는 안 다니고 하이고야, 호적초본이랑 그 어릴 때 가서 모두 해 와도 학교 안 시켜줘라. 아기 보라고, 우리 동생 못하게 했지. 시발놈의 새끼들 뭐.)

102001 @ 어머니, 아버지가 큰 뚤이고 일 시키젠도 허곡?(어머니, 아버지가 큰 딸이고, 일 시키려고도 하고?)

102001 #1 아기둘렌게 날ᄀᆞ라, 게난 우리 아시 못허게 헷저. 뚤은 아덜은 그냥 허는 양 내부난 고등학교 선생ᄁᆞ지 허영 공부 잘헷저만은 뚤은 못허게 헷저게. 나도 못 허는디 어디 버릇어시 아시 공부 못 헌덴 허난 아니 시겨줘라게. 게도이 옛날은 밤 야학 허영이 강 오는 이 운문은 다 안다게.(아기보라고. 날보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 못하게 했지. 딸은 아들은 그냥 하는 데로 내버리니까 고등학교선생까지 해서 공부 잘했지만 딸은 못하게 했지. 나도 못하는데 어디 버릇없이 아우 공부 못한다고 하니까 안 시켜줘라. 그래도 옛날은 밤 야학 해서 가서 오는 이 운문은 다 안다.)

102001 @ 딸 넷을 다 학교 안 보내붑데가?(딸 넷을 다 학교 안 보내 버렸습니까?)

102001 #1 부에뒈싸졍 아니 건 이 나가 낭건 보내주만은 나가 ᄀᆞᆫ는 건 우리 어머니 난 나 동기간은 못 ᄒᆞ게 헷저게. 게도 글은 다 안다게. 엿날덜은 그냥 밤야학덜 해서 이제 가서 오는 이 그런 건 끝이 이신 거니까 한문은 몰라도.(화가 나서 아니 건, 내가 낳은 건 보내지만 내가 말하는 건 우리 어머니 난 내 동기간은 못 하게 했지. 그래도 글은 다 안다. 옛날들은 그냥 밤 야학들 해서 이제 가서 오는 이 그런 건 끝이 있는 거니까 한문은 몰라도.)

102001 @ 원망스러웟겟다예? 원망스러우커라. 아덜은 무사 경 학교 보내고.(원망스러웠겠네요? 원망스러웠겠다. 아들은 왜 그렇게 학교 보내고.)

102001 #1 아이고 고등학교ᄁᆞ정 덜 다 가는디 그건 아덜이니까 ᄀᆞ치 놓지 말고 뚤은 못허게 헷저. 부애 난 사람, 나도 안 보내 주고, 경헤도 운문덜은 다 안다게. 밤이덜 다 튿엉이.(아이고 고등학교까지 다 가는데 그건 아들이니까 같이 놓지 말고, 딸은 못하게 했지. 부아 난 사람, 나도 안 보내 주고, 그래도 운문들은 다 안다. 밤에들 다 뜯어서.)

102001 @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건 원망스럽지 안협데가?(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건 원망스럽지 안합디까?)

102001 #1 아니, 경허난 나가 못허게 헷지. 나도 못허는디 호적초분ᄁᆞ지 그 어느 뜸에 헤 논 걸 무사 못허느니? 하영은 못허커라라. 곧 해방 뒈비난. 흔ᄃᆞᆯ이라도,

ᄒᆞ루라도 보내 줄 거 아니? 아기 ᄃᆞᆯ렌게, 날 ᄀᆞ라게 답답이라.(아니, 그러니까 내가 못하게 했지. 나도 못하는데 호적초본까지 그 어느 틈에 해 놓은 걸 왜 못하니? 많이는 못하겠더라. 곧 해방 되 버려서.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보내 줄 거 아니? 아기 돌보라고, 나보고 답답이라.)

102001 @ 애기는 멧이나 ᄃᆞᆯ앗수과? 그럼,(애기는 몇이나 돌봤습니까? 그럼.

102001 #1 아이 멧 개라?(아이 몇 개라?)

102001 @ 멧 살 밑에 터울이?(몇 살 밑에 터울이?)

102001 #1 난 지일 우이라노난이, 나 아래 아기라노난 난 아기만 ᄃᆞᆯ렌 원, 북부기 뒈싸젼, 아시도 ᄁᆞ딱 못허게 게난 아덜덜은 고등학교덜도 허곡, 대학교도 다 헷저만은 나 아시 못 허게 허난, 그자 옛날더렌 거 밤이 야학 허연 운문은 안다게. 끝이 신거난.(난 제일 위니까, 내 아래 아기라서 난 아기만 돌보라고 원, 허파가 뒤집어져서, 아우도 까딱 못허게 그러니까 아들들은 고등학교들도 하고, 대학교도 다 했지만 내 아우 못 허게 하니까, 그저 옛날에는 거 밤이 야학 해서 운문은 안다. 끝이 있는 거니까.)

102001 @ 남동생이고 아시고 다 돌아가셔불언?(남동생이고 여동생이고 다 돌아가셔버렸어요?)

102001 #1 아무도 엇다. 우이도 두 개, 아래도 둘, 다 죽언 나 ᄒᆞ나 살앗저.(아무도 없다. 위에도 둘, 아래도 둘, 다 죽어서 나 하나 살았지.)

102001 @ 우이가 둘은 아들들 오빠예요? 오빠가 고등학교를 다 나완마씨?(위가 둘은 아들들 오빠예요? 오빠가 고등학교를 다 나왔나요?)

102001 #1 나 아레 오누이, 나 우이 아덜 성제, 난 가운디 신디 나 ᄒᆞ나 살앗저. 몬딱 죽어불엇저. 다 아기덜도 싯고.(나 아래 오누이, 나 위에 아들 형제, 난 가운데 있는데 나 하나 살았지. 모두 죽어버렸어. 다 아기들도 있고.)

102001 @ 아덜성제 오빠가 둘.(아들형제, 오빠가 둘.)

102001 #1 나 우이 오빠 두개 큰 오라방 샛 오라방 나 아래 이제 오라비 ᄒᆞ나, 아시 하나, 나 가운디 거 ᄒᆞ나 살안. 몬딱 죽어불엇저. 우리 동기간이 아덜 셋에 뚤 둘, 나 금냥이, 오빠 둘에 큰 오라방, 샛 오라방, 아래가 우리 창주.(내 위에 오빠 둘, 큰 오빠, 둘째 오빠, 나 아래 이제 오빠 하나, 동생 하나, 나 가운데 그거 하나 살안. 모두 죽어버렸지. 우리 동기간이 아들 셋에 딸 둘, 나 금냥이, 오빠 둘에 큰 오빠, 둘째 오빠, 아래가 우리 창주.)

102001 @ 아우 동생덜 돌아가시고 헐 때 가슴 아팠겠다예?(아우 동생들 돌아가시고 할 때 가슴 아팠겠네요?)

102001 #1 게. 다 경허는가 헨. 경 살앗주이. 그때 못살암직 헤도 막 요디 누게넨 이젠 우리 아시 아덜은이 하도 성질도 너무 좋앙 살앗주게 지네 어멍은 아팡 죽엉 묻엇주만은 이제 이모가 큰일이렌 헤도 ᄀᆞ치 죽지도 못허는 거이. 나가 암만 앚앙 울어도 아시 경 아까운 아시 죽어도 나가 ᄀᆞ치 죽지도 못 허는 거라라게. 자, 놈도 다 영허멍 살암주기 허난 살안.(그래, 다 그러는가 했어. 그렇게 살았지. 그때 못

살 것 같아도 막 요기 누구넨 이젠 우리 아우 아들은 너무 정말 성질도 너무 좋아서 살았지. 자기네 어머니는 아파서 죽어서 묻었지만 이제 이모가 큰일이라고 해도 같이 죽지도 못하는 거라. 내가 아무리 앉아서 울어도 아우 그렇게 아까운 아우 죽어도 내가 같이 죽지도 못하는 거더라. 자, 남도 다 이렇게 하면서 살겠지 하니까 살았어.)

102001 @ 아시 하나가 벗이 뒈시커라?(동생 하나가 벗이 되었겠네요?)

102001 #1 아, 벗만 뒈샤게? ᄉᆞ믓 ᄒᆞ루헤원 전화를 헤도 마땅치 못헤영 꼭 만낭 덜이 허곡 헤연. 우리가 살아왓저. 하도 좋안게, 늠은 막 이제 우리 봔 막 불루와 낫저게. 그디 씨삼춘할망 잘도 쌉는거라. 어멍에, 뚤에, 아시에, 살멍 우리 보멍 불루왕 우리 성제라 요 금냥이네ᄀᆞ치 살라 헤도, 에, 게도 죽어도 살아지는 거.(아, 벗만 되었겠니? 사믓 하루 종일 전화를 해도 마땅치 못해서 꼭 만나서들 하고 했어. 우리가 살아왔지. 너무 좋아서, 남은 막 이제 우리 봐서 막 부러워했지. 거기 시삼촌할머니 잘 싸우는 거라. 어머니에, 딸에, 동생에, 살면서 우리 보면서 부러워서 우리 자매라. 요 금냥이네같이 살라고 해도, 에, 그래도 죽어도 살아지는 거.)

102001 @ 멧 살에 돌아가션는데마씨?(몇 살에 돌아가셨는데요?)

102001 #1 우리 아우 일흔 둘ᄁᆞ진 살았어. 이제 그 나머진 또 오십도 못 살아서. 오라비네영 다 죽어도이 멩이 메기민 헐 수 엇는거라라게. 나 질 오래 살암저 우로 두 개, 알로 두 개, 다 죽언.(우리 아우 일흔 둘까진 살았어. 이제 그 나머진 또 오십도 못 살았어. 오라비네랑 다 죽어도 명이 끝나면 할 수 없는 거더라. 나 젤 오래 살고 있지. 위로 두 개, 아래로 두 개 다 죽었어.)

102001 @ 칠십 이세난 멧 살차이꽈? 둘이.(칠십 이세니까 몇 살차입니까? 둘이.)

102001 @ 우리 아시 일곱 차이가 모르켜. 일곱 술 차이가.(우리 아우 일곱 차이가 모르겠네. 일곱 살 차이가.)

102001 @ 삼촌이 팔십넷이난 일곱 살 차이면 삼년 전에 돌아가셔신게. 게도 삼년전이믄 적적ᄒᆞ지 안 헹 잘도예.(삼촌이 팔십넷이니까 일곱 살 차이면 삼년 전에 돌아가셨네. 그래도 삼년 전에면 적적하지 않고 잘도요.)

102001 #1 오래 살았지.(오래 살았지.)

102001 @ 아이고야 많이 충격이었겟다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땐 몰란 뭐 헷덴 허드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멧,살 때 돌아가션마씨?(아이고 많이 충격이었겠네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땐 몰라서 뭐 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몇 살 때 돌아가셨나요?)

102001 #1 우리 아버지가 몃에 돌아갓다고 헷다만은 우리 어멍은 ᄒᆞ끔 오래 살고이. 마흔 싯에 돌아갓젠 허든가? 아긴 하영 봔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멍은 여든둘인가 멧 나도록 살고, 우리 아버진 경 자게 돌아가 불언게.(우리 아버지가 몇에 돌아갔다고 했지만 우리어머니는 조금 오래 살고. 마흔 셋에 돌아갔다고 하던가? 아긴 많이 봤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여든 둘인가 몇 나도록 살고, 우리

아버진 그렇게 빨리 돌아가 버렸어.)

102001 @ 삼촌 멧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거마씨?(삼촌 몇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102001 #1 거 몰르켜.(그거 몰라.)

102001 @ 결혼ᄒᆞ곡 한참.(결혼하고 한참.)

102001 #1 게 결혼.(그럼, 결혼.)

102001 @ 제일 슬펐던게 어쨌든 남편 바람 피고, 그런 건 어섯지예?(제일 슬펐던게 어쨌든 남편 바람 피고, 그런 건 없었지요?)

102001 #1 ᄇᆞ름 안 피완게. 고정헌 사람이라노난, 씨어멍 말 들언 ᄃᆞᆯ아나는 걸 심어당 문 ᄌᆞᆼ가놘 아이고 걷지 못헤영 닷세썩 눠낫저. 육지ᄁᆞ지 소문가렌, 아이고 답답이라. 아이고 시상.(바람 안 피웠어. 고정한 사람이라서, 씨어머니 말 들언 달아나는 걸 잡아다가 문 잠가고 아이고 걷지 못해서 닷새씩 누웠었지. 육지까지 소문났다고, 아이고 답답이라. 아이고 세상.)

102001 @ 스물아홉에 돌아와신 게예? 스물아홉에 돌아오난 어떵 뒌것꽈? 그때 애기도 하나뿐이고.(스물아홉에 돌아오신 거예요? 스물아홉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애기도 하나뿐이고.)

102001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허여마씨?(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나요?)

102001 @ 성함이 어떵 뒘수과?(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102001 #2 고 상춘 구십.(고 상춘 구십.)

102001 @ 몃 년생?(몇 년생?)

102001 #2 1926년생 구십이라.(1926년생 구십이라.)

102001 @ 여기 주소가 멧 번지꽈?(여기 주소가 몇 번지예요?)

102001 #2 주소 월령리 산길 28.(주소 월령리 산길 28.)

102001 @ 새 번지로구나예. 옛날 번호는 마씨?(새 번지네요. 옛날 번호는요?)

102001 #2 월령리 267번지.(월령리 267번지.)

102001 @ 그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시는 일은 농업이꽈? 어부꽈?(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시는 일은 농업입니까? 어부예요?)

102001 #2 아, 농업이지. 농업 바당에도 들어가고 저 괴기는 안 잡아보고 요디 육지서 배 타가지고 거의 6년 뎅겨나고.(아, 농업이지. 농업 바다에도 들어가고 저 고기는 안 잡아보고, 여기 육지서 배 타가지고 거의 6년 다녔었고.)

102001 @ 사삼사건 터져 부난 글공부는 어떵?(사삼사건 터져 버려서 글공부는 어떻게?)

102001 #2 서당에 멧 년 뎅기니까 이 한글 ᄀᆞᆮ은 건 잘 알지 한자.(서당에 몇 년 다니니까 이 한글 같은 건 잘 알지 한자.)

102001 @ 사삼 때가 멧 살 때엿수과?(사삼 때가 몇 살 때였나요?)

102001 #2 열일곱 술쯤에 사삼 터졋단 말이야.(17살쯤에 사삼 터졌단 말이야.)

102001 @ 병력은 군대 갔다 온 것꽈?(병력은 군대 갔다 온 건가요?)

102001 #2 군대갔다 왓지. 군대 가서 아파 가지고 멘제 받아왓어. 몸이 약헹 바로 그때 나왓어.(군대 갔다 왔지. 군대 가서 아파 가지고 면제 받아왔어. 몸이 약해서 바로 그때 나왔어.)

102001 @ 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수과?(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102001 #2 멧 개월 안뒈서. 흔 일년쯤 일년 ᄇᆞ듯 뒈서.(몇 개월 안 됐어. 한 일년쯤 일 년 빠듯 됐어.)

102001 @ 그믄 이천십삼 년에 돌아가션마씨? 아이고 세상에 사모님은 멧 살 차이?(그러면 2013년에 돌아가셨나요? 아이고 세상에 사모님은 몇 살 차이?)

102001 #2 나보다 흔 살 우이, 구십에 돌아가서.(나보다 한 살 위, 구십에 돌아가서.)

102001 @ 옛날 태어난 디도 이 집이엇수과?(옛날 태어난 데도 이 집이었습니까?)

102001 #2 이 집이라. 옛날 태어난 디도, 여기.(이 집이라. 옛날 태어난 데도, 여기.)

102001 @ 게난 삼촌이 1926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걸 골아줍서. 멧 번째 아덜로 태어났수과?(게난 삼촌이 1926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걸 말 해 주십시오.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102001 #2 큰 아덜로 태어낫지.(큰 아들로 태어났지.)

102001 @ 삼촌은 무슨 띠꽈?(삼촌은 무슨 띱니까?)

102001 #2 범띠고, 태어나면서 나가 몸이 약헤서.(범띠고, 태어나면서 내가 몸이 약해서.)

102001 @ 어린 시절 친구로는 양 창보 어르신?(어린 시절 친구로는 양 창부 어르신?)

102001 #2 응. 이디 양창보 씨영 둘벳긔 엇어. 또 우리 우에 사람도 엇고.(응. 여기 양창부 씨랑 둘밖에 없어. 또 우리 위에 사람도 없고.)

102001 @ 역사가 두 분안티서 책이 나오쿠다게 세상에, 게민 두 분이 살아온 세월이 좀 틀리기도 허켜예 같으기도 허곡.(역사가 두 분한테서 책이 나오겠네요 세상에, 그러면 두 분이 살아온 세월이 좀 틀리기도 하겠네요. 같기도 하고.)

102001 #2 세월이 틀리지. 같으기도 헌덴헤도, 양 창보씨는 일본 가가지고 흔 멧 헤 더 살앗주.(세월이 틀리지. 같기도 한다고 해도, 양 창부씨는 일본 가 가지고 한 몇 해 더 살았지.)

102001 @ 삼춘은 일본도 갓다 왓고, 멧 년 갓다 왓수과?(삼춘은 일본도 갔다 왔고, 몇 년 갔다 왔습니까?)

102001 #2 일본에 갔다 오건디 흔 두 어번 갔다오랏주. 1년 살았지. 공장도 아니고 첨, 그때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허레 나가 나서. 샛아버지가 거기 일본에 사니까 그저 공부허기 전이 어디 좀 뎅길라고. 그디 ᄉᆞ춘 성님이 일본에 살아낫주.

그 아방 졸음에 사니까 간 보니까 배 해가지고 바당에 짐 실러 뎅기고 이서게. 헤서. 그 배에, 이년 허다가 일본 망혜 가지고 무시거 헐 때 총 맞아지카부덴 경 헹이디 오라부럿지.(일본에 갔다 온 건 한 두 번 갔다 왔지. 일 년 살았지. 공장도 아니고 참, 그때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하러 나가 났어. 둘째아버지가 거기 일본에 사니까 그저 공부허기 전에 어디 좀 다닐라고. 거기 사촌 형님이 일본에 살았었지. 그 아버지 뒤 따라서 가서 보니까 배해서 바다에 짐 실러 다니고 있어. 했어. 그 배에, 이년 하다가 일본 망해 가지고 뭐 할 때 총 맞아질까봐 그렇게 해서 여기 와버렸지.)

102001 @ 역사에 증인인게마씨. 학교가 어섯겠다예? 한림초등학교 이서신가?(역사에 증인이네요. 학교가 없었겠네요?. 한림초등학교 있었는가?)

102001 #2 한림학교도 잇고, 금능 서당이라고 잇엇어. 금릉 서당, 서당에 나가 댕겨났주게. 그 때 나가 일곱 여덟술 열 살쯤 뎅겨서.(한림학교도 있고, 금릉 서당이라고 있었어. 금릉 서당, 서당에 내가 다녔었지. 그 때 내가 일곱 여덟 살 열 살쯤 다녔어.)

102001 @ 그믄 월령리에서 한명, 한림서도 오곡 금능이영 협재영.(그러면 월령리에서 한명, 한림에서도 오고 금릉이랑 협재랑.)

102001 #2 협재, 옹포꼬지도 서당에 오라낫주게.(협재, 옹포까지도 서당에 왔었지.)

102001 @ 서당 선생 이름은?(서당 선생 이름은?)

102001 #2 서당선생 양군철이 선생님.(서당선생 양군철 선생님.)

102001 @ 서당이름은?(서당선생 양 군철 선생님.)

102001 #2 금능서당.(금릉서당.)

102001 @ 자리는 뭐가 뒈불어신고예?(자리는 뭐가 되 버렸을까요?)

102001 #2 그 자리 지금도 잇어. 집도 이서. 요센 튿어불어신가? 하, 요센 그거 안보니까.(그 자리 지금도 있어 집도 있어. 요샌 뜯어 버렸는가? 하, 요샌 그거 안보니까.)

102001 @ 금능서당 자리 이것도 역산디예. 멧 살짜리들이 거기 갑니까?(금릉서당 자리 이것도 역산데요. 몇 살짜리들이 거기 갑니까?)

102001 #2 멧 살짜리보다도 그딘 연세 높은 사람도 가고 우에 사람도 가고 아렛 사람도 가고 길이가 업써. 그 뭣이.(몇 살짜리보다도 거긴 연세 높은 사람도 가고 위에 사람도 가고 아래 사람도 가고 길이가 없어. 그 뭣이.)

102001 @ 무사 일 년만 뎅겻수과? 좀 더 댕기지 안 허영.(왜 일 년만 다녔습니까? 좀 더 다니시지 않아서.)

102001 #2 나 그디 뎅기단 그 저 한림에 학교 그 뭐시 뒈어가니까 그 서당이 그만 그리 뒛어.(나 거기 다니다가 그 저 한림에 학교 그 뭐가 되어 가니까 그 서당이 그만 그렇게 됐어.)

102001 @ 서당에 사람덜이 다 학교 가부럿구나. 1년 다년 삼촌은 글은 배와신

디 학교는 안 보내줍디가? 아버지가 한림초등학교?(서당에 사람들이 다 학교 가버렸구나. 1년 다녀서 삼촌은 글은 배웠는데 학교는 안 보내줍디까? 아버지가 한림초등학교?)

102001 #2 ᄋᆞ 학교에 뎅길랴고 헷주만은 그땐 어떤디 나도 그런 것에 정신이 뭐시 헤 가지고 안 갓지.(응. 학교에 다닐려고 했지만 그땐 어쨌는지 나도 그런 것에 정신이 뭐 해 가지고 안 갔지.)

102001 @ 그문 여기 삼촌또래 학교 뎅겻던 친구덜 있지예?(그러면 여기 삼촌또래 학교 다녔던 친구들 있지요?)

102001 #2 없어. 어려와가지고 안 뎅견. 다 돌아 간.(없어. 어려워가지고 안 다녔어. 다 돌아갔어.)

102001 @ 겐 삼촌은 학교는 안갔지만 그문 여기서 뭘 허멍 지냇수과?(그래서 삼촌은 학교는 안 갔지만 그러면 여기서 뭘 하면서 지냈습니까?)

102001 #2 나 뭣을 허여게. 그자 농사나 짓주. 아버지 ᄯᆞ랑 뎅기다가.(나 뭣을 하나. 그저 농사나 짓지. 아버지 따라 다니다가.)

102001 @ 게믄 조팟 헐 때 워러러러러 허멍 소리도 헤보고?(그러면 조밭 할 때 '워러러러러' 하면서 소리도 해 보고?)

102001 #2 소리 허멍 밧도 ᄇᆞᆯ리고.(소리하면서 밭도 밟고.)

102001 @ 소리 그런 것도 헤마씨?(소리 그런 것도 해요?)

102001 #2 아, 소리? 밧디 거 ᄆᆞᆯ, ᄆᆞᆯ 헤가지고 쉐영 영 헷지.(아, 소리? 밭에 그거 말, 말 해가지고 소랑 이렇게 했지.)

102001 @ 헤봔마씨? 아버지 허는 거 기억 남수과?(해봤어요? 아버지 하는 거 기억납니까?)

102001 #2 기억나주기게.(기억나지.)

102001 @ 한 번만 헤 봅서.(한 번만 해 보세요.)

102001 #2 워워워워 헤가지고 그 저 돌아뎅기멍 소리허멍 헤낫주게.(워워워워 해가지고 그 저 돌아다니면서 소리하면서 했었지.)

102001 @ 쉐는 그믄 어릴 때부터 물 멕영 오라 허믄 멧 살떼부터 물멕영 오고.(소는 그럼 어릴 때부터 물 먹여서 오라 하면 몇 살 때부터 물 먹여서 오고.)

102001 #2 어린 땐 그거 뭐 그런 건 츰이 잘 했어. 쉐나 ᄆᆞᆯ이나.(어릴 땐 그거 뭐 그런 건 참 잘 했어. 소나 말이나.)

102001 @ ᄆᆞᆯ도 키와낫수과?(말도 키웠었습니까?)

102001 #2 ᄋᆞ. ᄆᆞᆯ도 키우고(그럼. 말도 키우고).

102001 @ 이 집이서 어디가 쉐왕이고 ᄆᆞᆯ?(이 집에서 어디가 외양간이고 말?)

102001 #2 쉐왕은 저디 셔난는디 튿어불엇주. 이문간 옆에 집 지섯다가 거 튿어뒨 이젠 일로 질이 그전인 일로 영 헤나지 안 허고 질이 일로 나나서. 경혼디 질 막아뒁 집 창고 지서뒁.(외양간은 저기 있었는데 뜯어버렸지. 대문 옆에 집 지었다가 그거 뜯어두고 이젠 여기로 길이 그전엔 여기로 이렇게 하지 안하고 길이 여기

로 났었어. 그런데 길 막아두고 집 창고 지어두고.)

102001 @ 한림초등학교는 안 가도게, 게난 어머니 아까왕 일 시겨졋수과?(한림초등학교는 안 가도, 그래도 어머니 아까워서 일 시켰습니까?)

102001 #2 게도 어떵 나가 보면서 아니 홀 수가 이서게. 이 저 농촌 일이란게.(그래도 어떻게 나가 보면서 안 할 수가 없었어. 이 저 농촌 일이란 것이.)

102001 @ 몸이 약허믄 맛있는 걸 허믄 뭘?(몸이 약하면 맛있는 걸 하면 뭘?)

102001 #2 내가 그 병이 위병, 위병. 먹어도 새기질 못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도 약을 먹고 이서 위장약.(내가 그 병이 위병, 위병. 먹어도 새기질 못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 위장약.)

102001 @ 잘 먹질 못헷구나. 게도 구십까지예. 공든 아들이니까예. 삼촌 하나 낳고 밑에도 아덜 잇지예? 살아 잇수과?(잘 먹질 못했구나. 그래도 구십까지는요. 공든 아들이니까요. 삼촌 하나 낳고 밑에도 아들 있지요? 살아 있습니까?)

102001 #2 시에 살아 잇어. 아덜 하나.(시에 살아 있어. 아들 하나.)

102001 @ 어째튼 월령이라는 곳에서 열 살 때 금능 걸엉 다녓수과?(어쨌든 월령이라는 곳에서 열 살 때 금릉 걸어서 다녔나요?)

102001 #2 걸엉 뎅기주 무슨 그 땐 차탐도 어려와.(걸어서 다녔지. 무슨 그 땐 차타기도 어려워.)

102001 @ 월령서 금능까지 지름길이 이섯덴 헙디다?(월령에서 금릉까지 지름길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102001 #1 곳디길로 영 가민 가까워.(가까운 길로 이렇게 가면 가까워.)

102001 @ 쉐 길리고 물 길리는 건 태어나서부터 쉐 물은 이십데가?(소 기르고 말 기르는 건 태어나서부터 소, 말은 있습디까?)

102001 #2 으. ᄀᆞ치 헤난 건 아버지네가 다 헤낫주.(응. 같이 해 난 건 아버지네가 다 했었지.)

102001 @ 그믄 쉐가 뭘 먹고 이런 거 다 알겟다예? 쉐촐, 눌도 이렇게 일고.(그러면 소가 뭘 먹고 이런 거 다 알겠네요? 소꼴, 가리도 이렇게 일고.)

102001 #2 다 알지. 나가 욕은 때 자꾸.(다 알지. 내가 철 든 때 자꾸.)

102001 @ 그믄 형제가 형제, 멧 살 밑에마씨?(그러면 형제가 형제, 몇 살 밑에에요?)

102001 #2 두 술.(두 살.)

102001 @ 두 살밑에 그믄 누나가 멧 살 우에 누나꽈?(두 살밑에 그러면 누나가 몇 살 위에 누납니까?)

102001 #2 누님은 에, 좀 더 위에라 나서.(누님은 에, 좀 더 위에였어.)

102001 @ 돌아가셧구나예.(돌아가셨군요.)

102001 #2 응 돌아가고.(응. 돌아가고.)

102001 @ 월령엔 아무도 안살아. 자손덜.(월령엔 아무도 안살아. 자손들.)

102001 #2 업써. 또 우리 누님도 아덜이 하나라신디 베에 이디서 괴기 잡으레

시에 간, 시에서 죽엇어. 시에 날씨가 돌아오다가.(없어. 또 우리 누님도 아들이 하나였는데 배에 여기서 고기 잡으러 시에 간, 시에서 죽었어. 시에 날씨가 돌아오다가.)

102001 @ 누나 완전 충격받앗겠다예?(누나 완전 충격 받았겠네요?)

102001 #2 다 돌아가부난 아무도 엇어. 집은 양재안티 주난, 먼 디 벌초허곡 서귀포 사난 서귀포에서 다 풀아가 불언.(다 돌아가버리니까 아무도 없어. 집은 양자한테 주니까, 먼 데 벌초하고 서귀포 사니까 서귀포에서 다 팔아가 버렸어.)

102001 @ 삼촌 밑에 여동생은 엇고 2남 1녀로 남동생은 잘 살암수과?(삼촌 밑에 여동생은 없고 2남 1녀로 남동생은 잘 삽니까?)

102001 #2 아, 시에 잘 살암서.(아, 시에 잘 살고 있어.)

102001 @ 게도 의지 뒀쿠다게. 형제 의는 좋아마씨?(그래도 의지 되겠네요. 형제 의는 좋아요?)

102001 #2 좋아. 여기 동생 밧이 하나 이서.(좋아. 여기 동생 밭이 하나 있어.)

102001 #2 얼 아이 날 때도 별반 엇어서. 내가 객지로 나가 가지곡 저 그때 나가 가지고 여러 반디 구경도 베 타멍 하근디 다 구경 헷주게.(어린 아이 날 때도 별반 없었어. 내가 객지로 나가 가지고 저 그때 나가 가지고 여러 곳에 구경도 배 타면서 온갖 데 다 구경 했지.)

102001 @ 배 탓수과? 몸도 약한데 원양어선? 거기는 아니고 그냥 육지 배, 고생 많이 하는데 배는 몸도 좋아야 뒈곡.(배 탔습니까? 몸도 약한데 원양어선? 거기는 아니고 그냥 육지 배, 고생 많이 하는데 배는 몸도 좋아야 되고.)

102001 #2 몸도 건강하게 좋아야 뒈는디 헐 수 어시 거기라도 뎅겨낫주. 객지로 많이 뎅가서. 육지 많이 가고.(몸도 건강하게 좋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거기라도 다녔지. 객지로 많이 다녔어. 육지 많이 가고.)

102001 @ 육지 멧 년 뎅겻수과? 그믄 여기서 사모님이랑 얘기 키왕 다?(육지 몇 년 다녔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모님이랑 얘기 키워서 다?)

102001 #2 집 사람은 여기 살멍 저 물질도 물질 혼 육지도 육지물질도 가고.(집사람은 여기 살면서 저 물질도 물질 한 육지도 육지물질도 가고.)

102001 @ 삼춘은 돈 벌믄 일로 보냇수과? 돈도 보내고.(삼촌은 돈 벌면 여기로 보냈습니까? 돈도 보내고.)

102001 #2 어. 경허니까 벳긔딜로 나간 뎅겻주 살젠ᄒᆞ니까(어. 그렇게 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다녔지. 살려고 하니까.)

102001 @ 집사람이 밧일이여, 물질이여, 시어무니 시아버지 다.(집사람이 밭일이다, 물질이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102001 #2 ᄀᆞ치 살았주.(같이 살았지.)

102001 @ 음, 겐 결혼헹 애기를 낳으는 동안 멧 살 때 군대는 갓당 일 년 허지도 못 헹 그냥 완 멧살이꽈? 스물 결혼 헨 다음 해.(음, 그래서 결혼해서 애기를 낳는 동안 몇 살 때 군대는 갔다가 일 년 하지도 못 해서 그냥 와서 몇 살입니까? 스

물 결혼해서 다음 해.)

102001 #2 결혼 해가지고 다음 해.(결혼 해가지고 다음 해.)

102001 @ 스물 흔 살에?(스물한 살에?)

102001 #2 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강 석돌 살아져신가? 두 돌 살아져신가? 훈련갔다가 몸이 약헨 훈련 받아가니까 뭣도 먹도 몬허곡 막 쏙허게 빠지데. 솔 빠지고 무싱거 허니까 저 빙원에 입원해 가지고 ᄒᆞ니까 힘이 어시니까 그냥 보내 버렷주. 집이 가라고 제대증 받앙.(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석 달 살아졌는가? 두 달 살아졌는가? 훈련 갔다가 몸이 약해서 훈련 받다가 뭐 먹지도 못하고 막 '쏙'하게 빠지대. 살 빠지고 뭐 하니까 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 버렸지. 집에 가라고 제대증 받아서.)

102001 @ 겐 제대증 받앙 와신디 또 살젠 허난 또 그때부터 육지로 강 배일을 헷구, 몸 좀 회복 헨.(그래서 제대증 받아서 왔는데 또 살려고 하니까 또 그때부터 육지로 가서 배일을 했고, 몸 좀 회복해서.)

102001 #2 몸이 이젠 오란 무싱 거 헤가니까 몸이 회복 뒈 가지곡 허니까 또 육지 올라가 가지고.(몸이 이젠 와서 뭐 해가니까 몸이 회복 되가지고 하니까 또 육지 올라가 가지고.)

102001 @ 육진 어디 갓수과?(육진 어디 갔습니까?)

102001 #2 부산 많이 갓주.(부산 많이 갔지.)

102001 @ 부산 간 멧 년?(부산 간 몇 년?)

102001 #2 부산서 부산에서 산 것이 아니고 부산 배를 탓는디 배에서 이레 갓닥 저레 갓닥 허면서 많이 돌아다녓주.(부산서 부산에서 산 것이 아니고 부산 배를 탔는데 배에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지.)

102001 @ 세계 각국을.(세계 각국을.)

102001 #2 세계 각국이 아니고 육지서 그레 많이 뎅겻지.(세계 각국이 아니고 육지에서 거기로 많이 다녔지.)

102001 @ 배 타레 강 무싱 거 낚앗수과?(배 타러 가서 무슨 거 낚았습니까?)

102001 #2 낚은 게 아니고 무신 짐 실렁은에 이디 가고 저디 가고.(낚은 게 아니고 무슨 짐 실러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102001 @ 아이구 몸도 약해도 살젠허난 그걸 멧 년 핸 마씨?(아이고 몸도 약해도 살려고 하니까 그걸 몇 년 했나요?)

102001 #2 그거 흔 오륙년 해서.(그거 한 오륙년 해서.)

102001 @ 오륙년예? 아이구 여기는 전화연락도 안 뒈곡, 펜지로 헌 거꽈?(오륙년이요? 아이고 여기는 전화연락도 안 되고, 편지로 한 겁니까?)

102001 #2 편지로 허주.(편지로 하지.)

102001 @ 편지로 허곡 일 년에 한 번은 못 오곡.(편지로 하고 일 년에 한 번은 못 오고.)

102001 #2 못 오고.(못 오고.)

102001 @ 세상에 겐 그 때가 애기 하나 낳고.(세상에 그래서 그 때가 애기 하나 낳고.)

102001 #2 하나 낳고 둘ᄁᆞ지.(하나 낳고 둘까지.)

102001 @ 경 헨 애기 둘 난 경 오륙년 잇당 다시 돌아 완. 그 때가 아직 서른이 안 뒐 때잖아예?(그렇게 해서 애기 둘 난 그렇게 오륙년 있다가 다시 돌아 와서 그 때가 아직 서른이 안 될 때잖아요?)

102001 #2 서른이 안 뒌 때 또 여기서 살다가 농사 좀 짓다가 또 나갓주기게.(서른이 안 된 때 또 여기서 살다가 농사 좀 짓다가 또 나갔지.)

102001 @ 또 부산으로 간. 또 거기서 멧 년 또 삼십대를 살다가.(또 부산으로 간. 또 거기서 몇 년 또 삼십대를 살다가.)

102001 #2 또 삼십대를 살다가 완. 그루후젠 안가고.(또 삼십대를 살다가 완. 그 후론 안 가고.)

102001 @ 거기서 한 오륙년 또 잇다가 다시 완예? 완 이제는 무슨 농사를 다 지엇겟네예? 그때는 아바지 어머니 살아계시고?(거기서 한 오륙년 또 있다가 다시 왔어요? 와서 이제는 무슨 농사를 다 지었겠네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102001 #2 아버지는 돌아가시곡.(아버지는 돌아가시고.)

102001 @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어릴 때?(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어릴 때?)

102001 #2 어린 때.(어린 때.)

102001 @ 아, 기억 남수과? 막 상여 설배[28] 메고 경 험니까 공동묘지가 잇수과?(아, 기억납니까? 막 상여 '설배' 메고 그렇게 합니까?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102001 #2 공동묘지 아니 그때 옛날 공동묘지가 뭐여?(공동묘지 아니 그때 옛날 공동묘지가 뭐야?)

102001 @ 문중묘도 엇고, 아버진 어디? 그믄 돌아가신.(문중묘도 없고. 아버진 어디? 그러면 돌아가신.)

102001 #2 여기 묻엇주. 지금도.(여기 묻었지. 지금도.)

102001 @ 여기도 공동묘지 있는 거 아니? 지금 어디 월령쪽에.(여기도 공동묘지 있는 거 아니? 지금 어디 월령쪽에.)

102001 #2 월령 쪽이 있는디, 자기 밧디.(월령 쪽에 있는데, 자기 밭에.)

102001 @ 자기 밧디 그때는 무덤 헨 지금도 그대로 이신거예? 봉분이 게믄 어머니도 그 옆에 자기 밧데 게믄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셧을 때가 막 울고 어머니 그런 거 기억남지예?(자기 밭에 그때는 무덤 해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지요? 봉분이 그러면 어머니도 그 옆에 자기 밭에 그러면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막 울고 어머니 그런 거 기억나지요?)

102001 @ 그 때가 멧 살마씨?(그 때가 몇 살입니까?)

102001 #2 아버지 돌아가셧을 때가 흔 열 멧에 돌아갔주.(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28) '설배'는 운상할 때 상여에 매여 앞으로 잡아당기는 참바를 말한다.

가 한 열 몇에 돌아갔지.)

102001 @ 좀 일찍 돌아가셨다예? 아부지가.(좀 일찍 돌아가셨네요? 아버지가.)

102001 #2 젊을 때 돌아간.(젊을 때 돌아갔어.)

102001 @ 사삼 때고 뭐고 어머니가 막 걱정 많이 걱정헷겟다예?(사삼 때고 뭐고 어머니가 막 걱정 많이 걱정했겠네요?)

102001 #2 어머니가 많이 걱정헷지.(어머니가 많이 걱정했지.)

102001 @ 육지 돌아다녀가난 그것도 걱정, 게난 아이덜 커가난 마음대로 안 뒈는 거다예? 큰아덜도 경 일본 가불고, 두 번째도 형 따랑 또 일본 가불고, 경허멍 살젠허난 살당보난 일본에서 살아 불곡 경 헌 거로구나예. 아이구.(육지 돌아다녀가니까 그것도 걱정, 그래서 아이들 커가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네요? 큰아들도 그렇게 일본 가버리고, 두 번째도 형 따라서 또 일본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살다보니 일본에서 살아 버리고 그렇게 한 거로군요. 아이고.)

102001 #2 경 뒈가지고.(그렇게 되어 가지고.)

102001 @ 게믄 삼촌은 제일 가심 아픈 게 그런 거겠다예?(그러면 삼촌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겠네요?)

102001 #2 가심 아픈 게 이제 아덜도 일본 간 소식이 읏지이. 그 버금 아덜도 일본 귀화해가지고 엇어부니까.(가슴 아픈 게 이제 아들도 일본 간 소식이 없지. 그 다음 아들도 일본 귀화해가지고 없으니까.)

102001 @ 선인장도 심어 보고.(선인장도 심어 보고.)

102001 #2 선인장도 싱경보고, 선인장 밧디 싱경 잇저 다 이젠 늙어 노난 싱거도 관리 못허난 뚤이 아덜 시에 강 살아노난.(선인장도 심어보고, 선인장 밭에 심어 있어. 다 이젠 늙어 버리니까 심어도 관리 못해서 딸이 아들 시에 가서 살아버리니까.)

102001 @ 이 집은 옛날, 옛날 집이고예. 경허곡 지금 농사는 안 지엄지예?(이 집은 옛날, 옛날 집이고요. 그리고 지금 농사는 안 짓지요?)

102001 #2 늙은 디 농사는.(늙은 데 농사는.)

102001 @ 멧 살부터 설러부럿수과? 널어지고 허믄 큰일 나난 게도 팔십 솔ᄁᆞ지.(몇 살부터 그만두셨습니까? 넘어지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팔십 살까지.)

102001 #2 농사 지어 보건 디가 흔 이십년 이상이라.(농사 지어 본 지가 한 이십년 이상이라.)

102001 @ 선인장이라고 허믄 도와주곡예?(선인장이라고 하면 도와주고요?)

102001 #2 그런 건 헷지.(그런 건 했지.)

102001 @ 어머니 성함?(어머니 성함?)

102001 #2 최양. 어머니는 물질도 하고, 밧디 일도 허고.(최양. 어머니는 물질도 하고, 밭에 일도 하고.)

102001 @ 아버지 이름?(아버지 이름?)

102001 #2 고재학.(고재학.)

102001 @ 삼촌이 낳고 자란.(삼촌이 낳고 자란.)

102001 @ 군인 갓당 해방뒈난.(군인 갔다가 해방되니까.)

102001 #3 군인 갓당 해방뒈난, 이제 한국 왕창왕창 오란 또 한국군인 걸령 경뒈불어세.(군인 갔다가 해방되니까. 이제 한국 왕창왕창 와서 또 한국군인 걸려서 그렇게 돼 버렸지.)

102001 @ 오자마자 군인을 갓수과?(오자마자 군인을 갔습니까?)

102001 #3 사삼뒈기 전에.(사삼되기 전에.)

102001 #3 사삼뒈엉게. 사삼ᄉᆞ건.(사삼 되어서. 사삼사건.)

102001 @ 열일곱 살에 사삼 지나고 나서 군인은 바로 갔고 게민 일제시대 사십 오년이니까 세상에.(열일곱 살에 사삼 지나고 나서 군인은 바로 갔고 그러면 일제시대 사십 오년이니까 세상에.)

102001 #3 나 막 어릴 때 군인 가세게. 일본놈덜 겐 나 그때 싸우고 헤세.(나 막 어릴 때 군인 갔네. 일본놈들 그래서 나 그때 싸우고 했네.)

102001 @ 열네 살에 여기에 왕 여기서 한 멧 년은 여기서 살앗다예.(열네 살에 여기에 왕 여기서 한 몇 년은 여기서 살았군요.)

102001 #3 ᄒᆞᆫ.(한.)

102001 @ 3년.(3년)

102001 #3 ᄋᆞ. 경 되실 거여.(응. 그렇게 됐을 거야.)

102001 @ 3년은 여기서 뭘 혯수과?(3년은 여기서 뭘 했나요?)

102001 #3 아, 게 농사게.(아, 거 농사지.)

102001 @ 농사허멍 사삼 또 닥쳐불멍 뭐허당 바로 끝나자마자 그믄 군대 간게 1948년 구년, 십년, 오십년?(농사하면서 사삼 또 닥쳐서 뭐 하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그러면 군대 간 것이 1948년 구년, 십년, 오십년?)

102001 #3 이제 우리 군인 갈 때 팡 팡 이디 다 뭐 헐 때 2차 후퇴 때 우리덜 다 가세게.(이제 우리 군인 갈 때 팡 팡 여기 다 뭐 할 때 2차 후퇴 때 우리들 다 갔었지.)

102001 @ 육이오 사변을.(6.25사변을.)

102001 #3 ᄋᆞ게. 육이오 사변 우리가 다 뭐 해세. 인천상륙허고 우리 육군.(그래. 6.25사변 우리가 다 뭐 했지. 인천상륙하고 우리 육군.)

102001 @ 아이고 세상에 인천상륙작전 말로 들었던 거.(아이고 세상에 인천상륙작전 말로 들었던 거.)

102001 #3 저디 싯저 싯지 안으냐? 다 싯저.(저기 있지. 있지 않니? 다 있지.)

102001 @ 맥아더 장군이여 뭐여?(맥아더 장군이다, 뭐다?)

102001 #3 ᄋᆞ.(응.)

102001 @ 멧 년 제대헹 온 거마씨? 육이오 전쟁 터진 후에 온 것과 살아남은 것만.(몇 년 제대 해서 온 거에요? 육이오 전쟁 터진 후에 온 것과 살아남은 것만.)

102001 #3 간 보난 우리 대통령이 이승만이여 그다음엔 박정희.(가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승만이야 그다음엔 박정희.)

102001 @ 그다음엔 박 정희, 이 승만 헐 때 전쟁 터진 때까지 군대 이섯수과?(그다음엔 박 정희, 이 승만 할 때 전쟁 터진 때까지 군대 있었습니까?)

102001 #3 ᄋᆞ. 군대 간 사람 다 죽엉 아무도 엇어.(응. 군대 간 사람 다 죽어서 아무도 없어.)

102001 @ 삼촌만 살안마씨?(삼촌만 살았나요?)

102001 #3 멧 사름뿐.(몇 사름뿐.)

102001 @ 아이구 세상에 전쟁도 진짜 나간마씨?(아이고 세상에 전쟁도 진짜 나갔나요?)

102001 #3 에이구, 전쟁 나가주. 텔레비전도 안 보느냐? 총알이 비오듯이 날아온다. 이 총알 거 피허멍 어떵, 어떵 살아져세.(에이고, 전쟁 나가지. 텔레비전도 안 보니? 총알이 비 오듯이 날아온다. 이 총알 그거 피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살았어.)

102001 @ 삼춘 대단한 분이다예.(삼춘 대단한 분이군요.).

102001 #3 응. 비오는 건 이유도 아니라 총알 날아 오는 거 샹샹샹샹!(응. 비오는 건 이유도 아니라 총알 날아오는 거 '샹샹샹샹'!)

102001 @ 장개도 안 가고?(장가도 안 가고?)

102001 #3 장개 가긴 갓저.(장가 가긴 갔지.)

102001 @ 그믄 멧 살에 장가 간 것꽈?(그러면 몇 살에 장가 간 겁니까?)

102001 #3 스물 셋, 스물흔 살에 아기 나세.(스물 셋, 스물한 살에 아기 낳았지.)

102001 @ 스물 흔 살에 아니 열일곱 술?(스물한 살에 아니 열일 곱 살?)

102001 #3 이제 가이가 스물흔 살에 난 거, 돌아가 불엇주만은 그 다음 건 이제 열여덟 인가 기여.(이제 그 애가 스물한 살에 난 거, 죽어 버렸지만 그 다음 건 이제 열여덟 인가 그래.)

102001 @ 게난 삼촌이 멧 살에 장가를 간 거마씨?(그러니까 삼촌이 몇 살에 장가를 간 거예요?)

102001 #3 스무 살에, 스물흔 살에 아기 난.(스무 살에, 스물한 살에 아기 났어.)

102001 @ 스무흔 살에 아기나난 스무 살에 장가를 간 거예?(스물한 살에 아기 나니까 스무 살에 장가를 간 거예요?)

102001 #3 해방뒈난 들어완 그때 장개가세.(해방되니까 들어와서 그때 장가갔지.)

102001 @ 아, 그난 군대에서 제대핸 오자마자 장개간 거마씨?(아,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해서 오자마자 장가 간 건가요?)

102001 #3 아니, 장개 간 한국군인 갔젠 허난.(아니, 장가 간 한국군인 갔다고 하니까.)

102001 @ 해방뒈난 완 해방뒈난 일본서 오고 겐 장개를 스무 살에?(해방되니까

와서 해방되니까 일본에서 오고 그래서 장가를 스무 살에?)

102001 #3 장개 스물흔 살에 아기 난 사람 아니가? 장갠 일찍 가세.(장가 스물한 살에 아기 난 사람 아니가? 장간 일찍 갔네.)

102001 @ 일찍 간예?(일찍 갔어요?)

102001 #3 으. 큰 아덜이니까 우리 부모네가 장개를 일찍 가렌 막 뭐 헷저.(그래. 큰아들이니까 우리 부모네가 장가를 일찍 가라고 막 뭐 했지.)

102001 @ 겐 아기 낳고 어디 군대를 간 거라예?(그래서 아기 낳고 어디 군대를 간 거군요?)

102001 #3 응.(응.)

102001 @ 스물 흔 살에 애기 난 스물흔 살 이후에 군대 간 거꽈?(스물 한 살에 애기 나서 스물한 살 이후에 군대 간 겁니까?)

102001 #3 스물 흔 살에 그냥 바로 군인 갓저.(스물한 살에 그냥 바로 군인 갔어.)

102001 @ 바로 군대 간 군대 간 거기서 삼 년, 사 년?(바로 군대 간 군대 간 거기서 3년, 4년?)

102001 #3 칠 년 살앗저. 칠 년.(7년 살았지. 7년.)

102001 @ 아이고, 군대 강 칠 년을 살안예?(아이고, 군대 가서 7년을 살았어요?)

102001 #3 나 계급도 높은 사람이여.(나 계급도 높은 사람이야.)

102001 @ 무슨 것까지 땃수과?(무슨 것까지 땄어요?)

102001 #3 중사, 상사.(중사, 상사.)

102001 @ 표창까지 받아시컹게? 살아온 돌아온 자체가.(표창까지 받으셨겠네요? 살아온 돌아온 자체가.)

102001 #3 나 유멩한 사람이여. 이 이승만안티 등뗑이 왕 독독 두드리멍 우리 한국도 기술자가 있느냐고 나 누구안티 교육받앙 차 운전헌 사람이여. 우리 한국 사람도 기술자가 없언 미 고문관도 대령이라고 벨자리 둘안 그 사람오랑 영어로 써 가난 나 그 통역관보고 저것도 글겐 막 칠판에 예, 글이우덴 미안허지만은 저 밑에 당신 저 한글로 적아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허니까 겐 한글로 적어주멍 헨 배완. 나 교육받앙 나완 차 끌어세.(나 유명한 사람이야. 이 이승만한테 등에 와서 '톡톡' 두드리면서 우리 한국도 기술자가 있느냐고 나 누구한테 교육받아서 차 운전한 사람이야. 우리 한국 사람도 기술자가 없었어. 미 고문관도 대령이라고 별자리 달아서 그 사람 와서 영어로 써 가니까 나 그 통역관보고 저것도 글이냐고 막 칠판에 예, 글이라고 미안하지만은 저 밑에 당신 저 한글로 적어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글로 적어 주며 해서 배웠어. 나 교육받아 나와서 차 끌었네.)

102001 @ 아, 운전수가 그추룩 헨 타고.(아, 운전수가 그렇게 해서 타고.)

102001 #3 운전수가 이 기생.(운전수가 2기생.)

102001 @ 이 기생?(2기생?)

102001 #3 일 기생은 전쟁에 나간 오꼿 죽어버리고 이 기생.(1기생은 전쟁에 나간 아쉽게도 죽어버리고 2기생.)

102001 @ 이 기생예? 스무 ᄋᆞ듭에 이제 고향에 돌아온 것과?(2기생이예요? 스무 여덟에 이제 고향에 돌아온 건가요?)

102001 #3 스무 ᄋᆞ듭에 들어온 철인가?(스무 여덟에 들어온 철인가?)

102001 @ 칠년 만에.(칠년 만에.)

102001 #3 팔 년 만에 와시난 팔 년 햇수로 팔 년 만에 왓저.(팔 년 만에 왔으니까 팔년 햇수로 팔년 만에 왔지.)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허연마씨? 농ᄉᆞ짓고.(부모님은 어떤 일을 했나요? 농사짓고.)

102002 #1 농ᄉᆞ짓고게. 물질허곡 그자 월령서 태어나고.(농사짓고. 물질하고 그저 월령에서 태어나고.)

102002 @ 어머니는 무슨 성씨마씨? 삼촌네 어머니.(어머니는 무슨 성씨요? 삼촌네 어머니.)

102002 #1 박씨, 아버진 강씨난 나도 강씨고.(박씨, 아버진 강씨난 나도 강씨고.)

102002 @ 그믄 아버지는 바당에 강 어부, 배, 보재기?(그러면 아버지는 바다에 가서 어부, 배, 어부?)

102002 #1 ᄒᆞ꼼 헤낫저게.(조금 했었지.)

102002 @ ᄒᆞ꼼 해나고예. 농사도 짓고예?(조금 했었구요. 농사도 짓고요?)

102002 #1 농사도 짓고.(농사도 짓고.)

102002 @ 어머니도 박씬디 이 동네서 태어나고?(어머니도 박씬데 이 동네서 태어나고?)

102002 #1 ᄋᆞ게 물질도 허곡.(응. 물질도 하고.)

102002 @ 아부지도?(아버지도?)

102002 #1 응. 다 월령서 태어나고, 또 나도 월령서 태어나고 월령서 시집가곡이.(응. 다 월령서 태어나고, 또 나도 월령서 태어나고 월령서 시집가고.)

102002 @ 게믄 일찍이 다 돌아가셧수과? 삼촌 멧 살 때 어머니, 아버지?(그러면 일찍 다 돌아가셨습니까? 삼촌 몇 살 때 어머니, 아버지?)

102002 #1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마흔, 쉰도 못난 마흔 아홉에 돌아가고, 우리 어멍은 오래 살앗저. 여든 두 술 나도록 살아서이. 큰 오라방도 여든 둘에 돌아가고, 우리 어멍이 여든 둘 ᄒᆞ꼼 더 난 거 닮다. 우리 아버진 막 젊은 때 돌아가도 아긴 여러 개 봣저. 우리 아버지가 경 헷저게.(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마흔, 쉰도 못되서 마흔 아홉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살았지. 여든두 살 나도록 살았어. 큰 오빠도 여든 둘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여든 둘 조금 더 난 거 같다. 우리 아버진 막 젊은 때 돌아가셔도 아긴 여러 개 봤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

102002 @ 그믄 형제는 삼춘네 형제 아부지가 멧 남 멧 녀를 두션마씨? 강씨 집안?(그러면 형제는 삼촌네 형제 아버지가 몇 남 몇 녀를 두셨습니까? 강씨 집안?)

102002 #1 우리 형제가 이제 여자가 우리 네 개, 아덜이 두 개.(우리 형제가 이제 여자가 우리 넷, 아들이 둘.)

102002 @ 그믄 삼춘은 멧 번째?(그러면 삼촌은 몇 번째?)

102002 #1 나 큰뚤이여게.(나 큰 딸이야.)

102002 @ 헤, 큰뚤로 태어난 뚤이 넷, 아덜이 둘.(헤, 큰 딸로 태어나서 딸이 넷, 아들이 둘.)

102002 @ 똑같네? 하하 어머님이 난 자녀 수랑 삼촌이 난 자녀 수가 똑같아.(똑같네? 하하 어머님이 난 자녀 수랑 삼촌이 난 자녀 수가 똑같아.)

102002 #1 아, 경허냐?(아, 그러냐?)

102002 @ 삼촌 형제, 이모네는?(삼촌 형제, 이모네는?)

102002 #1 이모네 나 아시 ᄒᆞ나 신거 저디 이제 아덜 ᄒᆞ나 난 거 아신 죽고, 이 우린 큰 오라방도 죽고 샛 오라방도 죽고 나 우에 나 아래 아시도 죽고, 오라비도 죽고, 다 죽언. 나 ᄒᆞ나 살앗저. 나 아래 오누이 죽어 불고, 나 우이 오라방 두 개 죽어 불고, 나 ᄒᆞ나 중간에 살앗저. 어떵 헤여? 지 멩이 거 메긴디게.(이모네 나 아우 하나 있는 거 저기 이제 아들 하나 난 거 동생 죽고, 이 우린 큰오빠도 죽고, 둘째오빠도 죽고, 나 위에 나 아래 동생도 죽고, 오빠도 죽고, 다 죽었어. 나 하나 살았지. 나 아래 오누이 죽어 버리고, 나 위에 오빠 둘 죽어 버리고 나 하나 중간에 살았지. 어떻게 해? 자기 명이 그거 끝인데 말야.)

102002 @ 큰 뚤인디 밑에 동셍들 다 죽어불언예?(큰 딸인데 밑에 동생들 다 죽어버렸네요?)

102002 #1 응. 아랫 것도 우에 것도 죽고, 다 죽어불엇저. 아무것도 엇다.(응. 아래 것도 위에 것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아무 것도 없다.)

102002 @ 세 명 다 아판?(세 명 다 아판?)

102002 #1 후손들은 싯지.(후손들은 있지.)

102002 @ 그렇죠. 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시난 이추룩예 월령에 사는 유일한 진짜 뭐구나예.(그렇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요? 월령에 사는 유일한 진짜 뭐였구나.)

102002 @ 아버지의 형제들은 멧 형제엿수과? 사촌?(아버지의 형제들은 몇 형제였나요? 사촌?)

102002 #2 다 돌아가부니까 삼형제라낫지. 고모님은 ᄒᆞᆫ 분.(다 돌아가버리니까 삼형제였었지. 고모님은 한 분.)

102002 @ 게민 어머니는 그 겨울 뒈면 쉐 물도 데왕도 주곡 아버지가 헷수과 어머니가 헷수과? 다같이?(그러면 어머니는 그 겨울 되면 소 물도 데워서 주고 아버지가 했습니까? 어머니가 했습니까? 다같이?)

102002 #2 ᄀᆞ치 허주 뭐. 이디 ᄒᆞᆫ 집이 신 거니까 아멩헤도 어머님이 많이 했

지. 물 같은 것도 영 주곡.(같이 하지 뭐. 여기 한 집이 있는 거니까 아무리 해도 어머님이 많이 했지. 물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102002 @ 거믄 아버지는 뭐?(그러면 아버지는 뭐?)

102002 #2 바다에 어부로.(바다에 어부로.)

102002 @ 어머닌 해녀?(어머닌 해녀?)

102002 #2 해녀도 허곡 뭣이 헷주만은.(해녀도 하고 뭔가 했지만.)

102002 @ 아버지 어부 밴 어섯수과?(아버지 어부 배는 없었나요?)

102002 #2 아, 배도 셔나서.(아, 배도 있었어.)

102002 @ 부자라나신게.(부자였네요.)

102002 #2 게메? 아덜이 나가 혼자라노니까.(글쎄? 아들이 나가 혼자니까.)

102002 @ 배도 잇고 월령에선 부자라나꾸나 게도.(배도 있고 월령에선 부자였었구나 그래도.)

102002 #2 ᄇᆞ듯 살만 헤나서.(겨우 살만 했었지.)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2002 #3 우리 아버지는 저 농사일 해나세. 옛날 헹 먹엉 살젠이. 배 헤영 저 ᄆᆞᆷ 비어당 엿날 걸름도 경 없어. 비양도 있지? 저디 강, 네를 젓으멍 이어싸 이어싸 허멍 네 젓엉 강 ᄆᆞᆷ 비영, 이빠이 식경 오랑, 금방 ᄆᆞᆯ령 이디 왕 거 펑, ᄆᆞᆯ려 아졍, 금방 밧디 끌아 놔사, 보리밥도 먹엇저.(우리 아버지는 저 농사일 했었어. 옛날 해서 먹고 살려고. 배 해서 저 모자반 베어다가 옛날 거름도 그렇게 없어. 비양도 있지? 저기 가서, 노를 저으면서 이어싸 이어싸 하면서 노 젓고 가서, 모자반 베여서 가득 싣고 와서, 금방 말려서 여기 와서, 그거를 퍼서 말려 가지고, 금방 밭에 깔아 놔야, 보리밥도 먹었지.)

102002 @ 아이고 그게 걸름이 뒈엇구나예? 세상에.(아이고 그게 거름이 되었군요? 세상에.)

102003 @ 어머니 고향도 월령?(어머니 고향도 월령?)

102003 #1 월령서 태어나곡, 월령서 시집가곡.(월령에서 태어나고, 월령에서 시집가곡.)

102003 @ 삼촌 어머니 성씨는마씨?(삼촌 어머니 성씨는요?)

102003 #2 우리 어머니 최씨고, 저 신창에서 여기 완.(우리 어머니 최씨고, 저 신창에서 여기 왔어.)

102003 @ 아버지는 원래 월령이고예. 삼촌 멧 살 때 돌아가셨수과?(아버지는 원래 월령이고요. 삼촌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102003 #2 나 열다섯 안 뒌 때 돌아가서. 사삼 뒈기 전에.(나 열다섯 안 되었을 때 돌아가셨어. 사삼 되기 전에.)

102003 @ 어머니가 멧 살? 삼춘이 멧 살때 돌아가신 거라?(어머니가 몇 살? 삼춘이 몇 살 때 돌아가신 거라?)

102003 #2 어머니는 오래 살앗어. 팔십끄지 나 오십 때쯤 돌아가서.(어머니는

오래 살았어. 팔십까지 나 오십 때쯤 돌아갔어.)

102003 @ 어머닌 멧 살에 시집 왕은에 첫 애길 낳은 것꽈? 신창에서 왓구나예.(어머닌 몇 살에 시집 와서 첫 아길 낳은 겁니까? 신창에서 왔군요.)

102003 #2 ᄋᆞ. 신창에서 왓저. 에, 어머님이 ᄒᆞᆫ 연세가 많을 때 날 낳앗는데 그때는 아덜이 못나니까 상당히 뭐 헤서 누나 낳고 나 나서.(응. 신창에서 왔지. 에, 어머님이 한 연세가 많을 때 날 낳았는데 그때는 아들을 못 나니까 상당히 뭐 해서 누나 낳고 나 낳아서.)

102003 @ 어머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어머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102003 #3 아, 금능.(아, 금릉.)

102004 @ 어린 때 무신 거 막 잘 놀앗지예? 뭐 오자미나 자치기놀이 뭐 이런 거 무싱 거 허멍 놀앗수과?(어린 때 뭐 막 잘 놀았지요? 뭐 오자미나 자치기놀이 뭐 이런 거 뭐 하면서 놀았나요?)

102004 #1 우리 클 때사 영 짜는 거이. 실 짜는 것도 짜고 심심허니까, 또 ᄒᆞ꼼 젊은 때 물에덜 들곡. 그자 밧디 검질도 매곡게. 일이 거주게 뭣을 허여?(우리 클 때 야 이렇게 짜는 거. 실 짜는 것도 짜고 심심하니까, 또 조금 젊은 때 물에들 들고. 그저 밭에 김도 매고 일이 그거였지. 뭣을 해?)

102004 @ 공기 노는 거 아이덜?(공기 노는 거 아이들?)

102004 #1 것사 허엿주게. 존존헌 돌싸기 헹은에 거 누구나마 다 헌다. 공기라고이. 본전, 본전이엔 헌다. 엿날 그거허영 헐 때.(거야 했지. 잔잔한 돌멩이 해서 그거 누구나가 다 한다. 공기라고. '본전', '본전'이라고 한다. 옛날 그거해서 할 때.)

102004 @ 공기 허는 걸 본전이렌 허여마씨?(공기 하는 걸 '본전'이라고 합니까?)

102004 #1 본전이엔 헌다. 본전이엔도 ᄀᆞᆫ고. 우리 어릴 땐 그걸로 방둥이, 뭐 헐 거 셔게? 방둥이 ᄒᆞ는 것이 본전.('본전'이라고 한다. '본전'이라고도 말하고. 우리 어릴 땐 그걸로 장난감 뭐 할 거 있었나? 장난감 하는 것이'본전'.)

102004 @ 아, 방둥이 ᄒᆞ는 것이 본전이고 자파리[29]엔도 허곡?(아, 장난감 하는 것이 '본전'이고 '자파리'라고도 하고?)

102004 #1 게메, 자파리는 어른덜 ᄀᆞᆫ는 말이곡 거 본전허겐 허민 이거 다 알아들어. 우리 어린 때이 어른덜 ᄀᆞᆫ는 건 자파리.(글쎄, '자파리'는 어른들 말하는 말이고 그거 본전하자고 하면 이거 다 알아들어. 우리 어린 때. 어른들 말하는 건 '자파리'.)

102004 @ 방둥인 아이덜 ᄀᆞᆫ는 거고.(장난감은 아이들 말하는 거고.)

102004 #1 건 아이덜 ᄀᆞᆫ는 거고게.(그건 아이들 말하는 거고.)

102004 @ 겡 뭐 심방말축 심엉은에 뭐 저 산더레 꼬박꼬박 허는 이런 거.(그래서 뭐 방아깨비 잡아서 뭐 저 산에 꾸벅꾸벅 하는 이런 거.)

102004 #1 장난게. 영 쥐민 꼬박꼬박 헌다게. 발 디뎌근에.(장난이지. 이렇게 쥐

29) '자파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놀이 또는 장난을 말한다.

면 꼬박꼬박 한다. 발 디뎌서.)

102004 @ 그런 노래 엇수과?(그런 노래 없습니까?)

102004 #1 몰르켜. 노랜 뭣산디.(몰르겠어. 노랜 뭐인지.)

102004 @ 저 산더레 절 꼬박꼬박, 뭐 이런 거?(저 산에 절 꾸벅꾸벅, 뭐 이런 거?)

102004 #1 아니, 뭐 노랜 모르고, 심엉 영 발 디뎌지민.(아니, 뭐 노랜 모르고, 잡아서 이렇게 발 디뎌지면.)

102004 @ 꼬딱꼬딱예?(까딱까딱요?)

102004 #1 응. 헌다게.(응. 한다.)

102004 @ 경 허면서 놀고예?(그렇게 하면서 놀고요?)

102004 #1 게. 그거 장난 허는 거 보멍 놀곡게.(그래. 그거 장난 하는 거 보면서 놀고 했지.)

102004 @ 심방말축, 풀각시 놀이, 뻥이, 뻥이도 뽑앙 먹곡.(방아깨비, 풀각시 놀이, 삘기, 삘기도 뽑아서 먹고.)

102004 #1 심방말축 하하, 아 거 해낫저 뻥이.(방아깨비 하하, 아 그거 했었지. 삘기.)

102004 @ 뻥이치기.(삘기치기.)

102004 #1 아니. 그 뻥이라고 것ᄀᆞ라 뭐센 허느니? 저 새왓 어린 때 강 빠당 먹어낫저. 뻥이렌 ᄒᆞᆫ다. 어른덜이.(아니. 그 삘기라고 그것 보고 뭐라고 하니? 저 띠밭 어린 때 가서 뽑아다가 먹어났어. 삘기라고 한다. 어른들이.)

102004 @ 경허곡, 무슨 동지, 양파동지덜 꺽엉 먹고.(그리고, 무슨 동지, 양파동지들 꺾어 먹고.)

102004 #1 ᄋᆞ. 그런 것도 거껑 잘 먹고.(응. 그런 것도 꺾어서 잘 먹고.)

102004 @ 삼동 타레 가곡 탈 타레.(삼동 따러 가고 산딸기 따러.)

102004 #1 삼동도 타당 먹고 헷저.(삼동도 따다 먹고 했지.)

102004 @ 삼동 타고 탈 타고?(삼동 따고 산딸기 따고?)

102004 #1 ᄋᆞ게. 삼동도 타고.(그래. 삼동도 따고.)

102004 @ 다리세기 ᄒᆞᆫ다리 인다리 거청개 이런 거?(다리세기 '한다리 인다리 거청개' 이런 거?)

102004 #1 ᄒᆞᆫ다리 인다리 것도 허곡 하하, 우리 놀멍 그 장난으로 ᄀᆞᆫ는 말이주 ᄒᆞᆫ다리 인다리게.('한다리 인다리' 것도 하고 하하, 우리 놀면서 그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 '한다리 인다리'게.)

102004 @ ᄒᆞᆫ다리 인다리 한 번 노래 그런 거 기억 남수과?('한다리 인다리' 한 번 노래 그런 거 기억납니까?)

102004 #1 기억은 몰르고, 그거 영 헹 허멍 'ᄒᆞᆫ다리 인다리' 헤낫저.(기억은 모르고, 그거 이렇게 해서 하면서 '한다리 인다리' 했었지.)

102004 @ 생각나는 데로.(생각나는 대로.)

102004 #1 아이구 첨, 그거 옛날 헤낫주기 어떵 아느니게? 이젠 안허니까.(아이구 참, 그거 옛날 했었지. 어떻게 알겠니? 이젠 안하니까.)

102004 @ 혼다리인다리 거청개 주녀오녀 버문개?('한다리 인다리 거청개 주녀오녀 버문개'?)

102004 #1 혼다리 인다리 흑꼼 알아졈저 어린 때 놀멍 일 엇어노민 그자 누게사 ᄀᆞ라줘신디사.('한다리 인다리' 조금 알아지겠네. 어린 때 놀면서 일 없으면 그저 누구가 말해 줬는지.)

102004 @ 다리세기도 하고 실 가졍 또 이렇게 오자매, 씰, 실뜨기 실로 이렇게 실 장난.(다리세기도 하고 실 가져서 또 이렇게 오자매, 씰, 실뜨기 실로 이렇게 실 장난.)

102004 #1 실로 그자, ᄋᆞ게. 영 해근에 허곡 것고라 뭐생사 ᄀᆞᆫ는 지 몰르켜. 헤낫저. 그것도 영영 톡 뒛실락도 허곡 그때 뭐 헐 거 엇어노민 손장난덜게.(실로 그저, 그래. 이렇게 해서 하고 그것 보고 뭐라고 하는 지 모르겠네. 했었지.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톡 뒤집기도 하고 그때 뭐 할 거 없으면 손장난들.)

102004 @ 아아, 실도 허고예, 또 그럼 돌멩이 가졍은에 뭐 영?(아아, 실도 하고요, 또 그럼 돌멩이 가져서 뭐 이렇게?)

102004 #1 본전이라고이.('본전'이라고.)

102004 @ 이런 디 올려 놓곡.(이런 데 올려 놓고.)

102004 #1 건 몰르켜만은 톡 허게시릭 줴여근에 허엿당 본전이옌 헌다.(그건 모르겠지만 톡 하게끔 쥐어다가 하는 '본전'이라고 한다.)

102004 @ 손에 올리고.(손에 올리고.)

102004 #1 응게. 경헌거 헤낫저.(그래. 그런 거 했었지.)

102004 @ 삼동 타레가곡?(삼동 따러가고?)

102004 #1 삼동 타레가곡.(삼동 따러가고.)

102004 @ 또 인동고장?(또 인동꽃?)

102004 #1 운동고장 타레가곡.(인동꽃 따러가고.)

102004 @ 인동고장 타레가곡?(인동꽃 따러가고?)

102004 #1 삼동은 타당 먹고 인동고장은 ᄆᆞᆯ리민 사간다게. 돈 나는 거렌 경헌다게 아이고 시상.(삼동은 따다 먹고, 인동꽃은 말리면 사간다게. 돈 나는 거라고 그런다. 에고 세상.)

102004 @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헷수과?(어릴 때 어떤 놀이를 했습니까?)

102004 #3 우리 커 올 때, 우리 커 올 때이. 조끼차기 저 신도 어성 조리 삼앙 뎅기멍 신엇저, 조리. 찍으로 허는 거 싯지 않으냐?(우리 커 올 때, 우리 커 올 때이. 재기차기 저 신도 없어서 조리 삼아서 다니면서 신었지, 조리. 짚으로 하는 거 있지 않니?)

102004 @ 짚신?(짚신?)

102004 #3 짚신. 그거 신엉 뎅겨났고 걷고.(짚신. 그거 신어서 다녔었고 걷고.)

102004 @ 멩글앙 뎅기고, 자치기?(만들어 다니고, 자치기?)

102004 #3 자치기엔 헌건 영 헌다, 영 톡 허게 올리민 착허게 그거 자치기 경 헨.(자치기라고 한 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톡 하게 올리면 착하게 그거 자치기 그렇게 핸.)

102004 @ 그거 자치기헐 때 영 그저 영 영 구덩이에 놓는 거, 이름은 뭐고? 영 차는 거, 이름은 뭐고? 막대기 이름도 다 이십디다.(그거 자치기할 때 이렇게 그저 이렇게 이렇게 구덩이에 놓는 거, 이름은 뭐고? 이렇게 차는 거, 이름은 뭐고? 막대기 이름도 다 있읍디다.)

102004 #3 그, 그, 저 작대기 그거 다 이실거여. 게난 우린 뭐.(그, 그, 저 작대기 그거 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린 뭐.)

102004 @ 그냥 작대기렌 헷수과?(그냥 작대기라고 했나요?)

102004 #3 자치기.(자치기.)

102004 @ 자치기에서 그 나무를 뭐렌 헷수과?(자치기에서 그 나무를 뭐라고 했나요?)

102004 #3 그 막대기.(그 막대기.)

102004 @ 막대기렌 헷수과?(막대기라고 했나요?)

102004 #3 응. 영 노믄이 영 톡허게 넘엉 착허게 멀리 나 간다.(응.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톡하게 넘어서 착하게 멀리 나 간다.)

102005 @ 일본놈들 와 가지고 공출 해난 거 생각납니까?

102005 #1 무사 아니라. 우리 어린 때 거 막 집 돌멍 오죽 헤사게? 할당을 하영 나오민 채우지 못혜영 공출이라고 그놈의 새끼덜.(왜 아니라. 우리 어린 때 거 막 집 돌면서 오죽 했었냐? 할당을 하영 나오면 채우지 못해서 공출이라고 그놈의 새끼들.)

102005 @ 무슨 걸 공출 해간마씨?(무슨 걸 공출 해 갔습니까?)

102005 #1 밧디 나는 거 다 아무만이 할당허렌 ᄒᆞ민 거 채우지 못혜영 오죽 애 먹여샤게. 그 씨발 놈의 새끼덜 왜놈의 새끼덜이 못 젼디게 멘들앗저게.(밭에 나는 거 다 아무만큼 할당하라고 하면 그거 채우지 못해서 오죽 애 먹였나. 그 시발 놈의 새끼들 왜놈의 새끼들이 못 견디게 만들었지.)

102005 @ 그때가 삼촌 멧 살 때마씨?(그때가 삼촌 몇 살 때입니까?)

102005 #1 몰라. 멧 살산디 어린 때라 우리 어멍네이 허는 거 다 봣저. 공출이라고이.(몰라. 몇 살인지 어린 때라 우리 어머니네 하는 거 다 봤지. 공출이라고.)

102005 @ 보리도 밧테 나는 거 모든 거 다?(보리도 밭에 나는 거 모든 거 다?)

102005 #1 응게, 감제나 감제도 썰엉 뻿데기로 다 사가나고이.(그래, 고구마나 고구마도 썰어서 절간고구마로 다 사가고.)

102005 @ 뻿데기로 바치렌 핸 마씨?(절간고구마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102005 #1 바치렌 헤낫저. 모르켜. 다른 ᄆᆞ을은 어떵사 핸디 그냥도 받아 갈 수 있주만은 그 썰엉 뻿데기도 해서 바치곡 경 헤낫저게.(바치라고 했었지. 모르겠다.

다른 마을은 어떻게야 했는지 그냥도 받아 갈 수 있지만 그 썰어서 절간고구마도 해서 바치고 그렇게 했었지.)

102005 @ 공출 뭐 내라 해가지고 그런 거 기억남수과?(공출 뭐 내라 해가지고 그런 거 기억납니까?)

102005 #2 그거 뭐 공출이 농사 지어도 이녘 쏠도 제대로 먹도 못헤서 공출 네라고 해부니까.(그거 뭐 공출이 농사지어도 이녁 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공출 내라고 해버리니까.)

102005 @ 무슨 보리 허믄 보리 내라.(무슨 보리 하면 보리 내라.)

102005 #2 보리 허믄 얼매? 조허믄 얼매 딱딱 그 저 공출이 나오라낫주기. 일본 놈덜.(보리 하면 얼마? 조하면 얼마? 딱딱 그 저 공출이 나왔었지. 일본놈들.)

102005 @ 아이구, 그 밥 먹는 것도 어려왓겠다예.(아이구, 그 밥 먹는 것도 어려웠겠네요.)

102005 #2 어려왓어. 이녁 농사지어도 먹도 못헷 으니까 어떨 거라.(어려웠어. 당신 농사지어도 먹지도 못 했으니까 어떠할 거야.)

102005 @ 그런 때 희생당허곡 저 일본사람한티 끌려가고 이런 거 기억 안남수과? 마을에서 소문이 나고.(그런 때 희생당하고 저 일본사람한테 끌려가고 이런 거 기억 안 납니까? 마을에서 소문이 나고.)

102005 #2 그런 건 아직은 월령 사람덜은 경 끌려간 거 엇고.(그런 건 아직은 월령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간 거 없고.)

102005 @ 그믄 일제시대 순사라든가 칼 찬 순사라든가 ᄆᆞᆯ 탄 순사라든가 봐낫수과?(그럼 일제시대 순사라든가 칼 찬 순사라든가 말 탄 순사라든가 봤었나요?)

102005 #2 하, 봐낫주.(하, 봤었지.)

102005 @ 기억 남수과? 무서왓수과?(기억나나요? 무서웠나요?)

102005 #2 아, ᄆᆞ소왔주기.(아, 무서웠지.)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ᄀᆞ라줍서.(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해 주세요.)

102005 #3 공출 오죽해샤게? 공출허단 보난 우리 영 못살아시녜.(공출 오죽했었나? 공출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렇게 못살았지.)

102005 @ 일제 강점기 오난 바로 군대 가부렀다예?(일제 강점기 오니까 바로 군대 가버렸네요?)

102005 #3 왜놈군대도 강 오랑 해방되언. 오난 또 한국군인 가게 뒌. 경 뒈세. 나 우리가 커 올 때 제일 고생헌 사람이여. 나 왜놈군대도 강 오죽 얼 먹어샤?(왜놈군대도 가서 오니 해방되어 오니까 또 한국군인 가게 되었어, 그렇게 되었어. 나 우리가 커 올 때 제일 고생한 사람이야. 나 왜놈군대도 가서 오죽 얼 먹었나?)

102005 @ 일본군대마씨? 허, 일본은 멧 년간 군대생활 헌거마씨? 살앙 온 건만 해도 다행이다예?(일본군대요? 허 일본은 몇 년간 군대생활 했습니까? 살아서 온 건만 해도 다행이네요?)

102005 #3 일본 간 군인 허연. 내일은 이제 간 흔 달간 훈련 받아ᄋᆞ젼 내일은 이젠 나갈거다 이렇게 헨 준비혜영 딱 시난 그날 저녁 오란 왕창 뭐해부난 그냥 손 번쩍 들러불어시네.(일본 가서 군인 핸. 내일은 이제 간 한 달간 훈련 받아오라고 내일은 이젠 나갈거다 이렇게 핸 준비해서 딱 있으니까 그날 저녁 와서 왕창 뭐해 버리니까 그냥 손 번쩍 들어 버렸지.)

102005 @ 바로 해방?(바로 해방?)

102005 #3 응게, 바로 해방 뒈언. 이젠 한국을 이제 오렌 헨. 오란 보난 또 한국 군인 또 이제 걸령 들어갓주기.(그래, 바로 해방 되었어. 이젠 한국을 이제 오라고 했어. 와서 보니까 또 한국군인 또 이제 걸려서 들어갔지.)

102005 @ 아, 세상에. 게도 ᄒᆞ끔만 일찍 혜시민 정말 일본, 거기서 죽을 수도 이선. 아 세상에 경헨 일본에 강 한 달만에 해방 뒈부난 다시 돌아온 거 마씨?(아, 세상에. 게도 조금만 일찍 했으면 정말 일본,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어. 아,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가서 한 달 만에 해방 되버리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102005 #3 ᄋᆞ.(응)

102005 @ 아 그러면 어떵해연 일본에 망하기 전에 가게 뒌마씨?(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본에 망하기 전에 가게 됐나요?)

102005 #3 아니, 어린 때에 갓저. 대ᄋᆞ섯 살에 아니 일곱 솔에.(아니, 어린 때에 갔지. 대여섯 살에 아니 일곱 살에.)

102005 @ 사삼 끝난?(사삼 끝난?)

102005 # 아니, 사삼 끝나지 안 헹 사삼 끝나기 전이.(아니, 사삼 끝나지 안 해서 사삼 끝나기 전에.)

102005 @ 아, 맞아. 사삼이 1948년이니까 그믄 1945년이민 열 니살?(아, 맞아. 사삼이 1948년이니까 그러면 1945년이면 열네 살?)

102005 #3 열 시살에 가져실 거라, 열시 살에.(열세 살에 갔을 거야, 열세 살에.)

102005 @ 열 시살에 일본에 무사 간마씨?(열세 살에 일본에 왜 갔나요?)

102005 #3 못 사난게. 아주 어려완 매형 일본 강 살앗저. 나 증명 끊어 왕 나 데령 강 이제 일본 살암시난 또 군인에 연령도 헤당 안 뒌걸 해당뒛젠 허연.(못 사니까. 아주 어려워서 매형 일본 가서 살았지. 나 증명 끊어 와서 나 데려 가서 이제 일본 살고 있으니까 또 군인에 연령도 해다가 안 된 걸 해당되었다고 했어.)

102005 @ 열다섯 살에 거믄 열네 살 뒌 아이를 세상에.(열다섯 살에 그러면 열네 살 된 아이를 세상에.)

102005 #3 ᄋᆞ. 나 막 그때 오족 싸와샤. 나 일본말도 착착 잘 헐 때주기. 게난 왜 연령이 지금 해당도 안 뒈었는디 나가 군인에 잡혀 가냔 말이지.(응. 나 막 그때 오죽 싸웠냐. 나 일본말도 착착 잘 할 때지. 그러니까 왜 연령이 지금 해당도 안 되었는데 내가 군인에 잡혀 가느냔 말이지.)

102005 @ 무사 잡아간마씨? 거기 일본 사람덜이?(왜 잡아갔나요? 거기 일본 사

람들이?)

102005 #3 ᄋᆞ게. 그 거시기 허난게 그 사람덜 오끗 다 망가져 오죽해샤.(응. 그 거시기 하니까 그 사람들 그만 다 망가져 오죽해야.)

102005 @ 잡아. 사람덜 조선인 조센징이렌 걸 데려갑데가?(잡아. 사람들 조선인 조센징이라고 그걸 데려갔습니까?)

102005 #3 ᄋᆞ게.(응.)

102005 @ 삼춘은 방어도 못하고 그냥 글라 허니까 갈 수 밖에 어선 일본 살멍?(삼촌은 방어도 못하고 그냥 가자 하니까 갈 수 밖에 없어서 일본 살면서?)

102005 #3 ᄋᆞ게. 거 어떵 방어, 어떵 헐 말이고? 일본 놈 말 안 들민 쏴 불 거고.(응. 거 어떻게 방어, 어떻게 할 말이고? 일본 놈 말 안 들면 쏴 버릴 거고.)

102005 @ 그믄 열세 살에 매형네 집이 강 고생헷겟다예? 뭔 일 헷수과?(그러면 열세 살에 매형네 집에 가서 고생 했겠네요? 뭔 일 했습니까?)

102005 #3 배 탓저. 배 탄.(배 탔지. 배 탄.)

102005 @ 세상에 열세 살에 헤. 초등학교 육학년.(세상에 열세 살에 해. 초등학교 육학년.)

102005 #3 배 탄. 웃긴다. 웃겨. 춤말로 얼마나 나 ᄋᆞ망지게 헤 뎅겨난.(배 탄. 웃긴다. 웃겨. 참말로 얼마나 나 똑똑하게 해서 다녔는데.)

102006 @ 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2006 @사삼 때는 삼촌이 멧 살 될 철이꽈?(사삼 때는 삼촌이 몇 살 될 때인가요?)

102006 #1 몰라. 사삼 때 몰라게. 열세 살, 네 살 아닌가? 길 거라.(몰라. 사삼 때 몰라. 열세 살, 네 살 아닌가? 그럴 거야.)

102006 @ 열세 살, 네 살, 경ᄒᆞ난 허주 ᄒᆞ끔 더 나이 많으믄 사삼 서청덜허고도 결혼도 허곡예, 경도 헌 사람도 이십디다게. 나이가 딱 어릴 때라부니까 차라리 몰랏주. 경해도 불나고 이 마을에도 피해는 이서실 거 아니예?(열세 살, 네 살, 그러니까 하지. 조금 더 나이 많으면 사삼, 서청들 하고도 결혼도 하고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디다. 나이가 딱 어릴 때라서 차라리 몰랐지. 그렇게 해도 불나고 이 마을에도 피해는 있었을 거 아니요?)

102006 #1 아이고 그놈의 새끼덜 들어 왕 불 부쳐 불언게이, 아이고 오죽해나샤? 오랑 불 부쳐 불언게. 아이고 씨발놈이.(아이고 그놈의 새끼들 들어와서 불 붙여 버렸어, 아이고 오죽했었나? 와서 불 붙여 버렸어. 에고 시발 놈이.)

102006 @ 그런 거 봐났수과?(그런 거 봤었나요?)

102006 #1 경허난 우리 어릴 때 게난 막 보초 사낫저게. 영 성도 다 둘러낫저.(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러니까 막 보초 섰었지. 이렇게 성도 다 둘렀었지.)

102006 @ 월령에 성이 이서마씨?(월령에 성이 있어요?)

102006 #1 담 닿은 것고라 성이옌 허주게 빙 둘러낫저게.(담 닿은 것보고 성이

라고 하지. 빙 둘렀었지.)

102006 @ 아, 환해장성 그런 사삼 때 만든 거 허렌 핸?(아, 환해장성 그런 사삼 때 만든 거 하라고 했나요?)

102006 #1 성이옌 헤여근에, 으. 둘러 허렌 핸.(성이라고 해서, 응. 둘러서 하라고 했어.)

102006 @ 지금도 자리가 잇수과? 성 다와난 자리가 잇수과?(지금도 자리가 있습니까? 성 쌓았던 자리가 있습니까?)

102006 #1 그 이제 필요어시난게, 그 때 성 쫙 둘러낫저게.(그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때 성 쫙 둘렀었지.)

102006 @ 모양은 어디 남아 이실 거다예?(모양은 어디 남아 있을 거네요?)

102006 #1 어디 저영헌 구석 더레 ᄒᆞ꼼썩 실거여. 성덜 다운 거.(어디 저런 구석 쪽에 조금씩 있을 거야. 성들 쌓은 거.)

102006 @ 성 다우렌 헨 삼춘도 갔다 완마씨? 그기?(성 쌓으라고 해서 삼춘도 갔다 왔나요? 거기?)

102006 #1 그 어릴 때 돌덜 지멍게. 돌덜 지멍.(그 어릴 때 돌들 지면서요. 돌들 지면서.)

102006 @ 열싀 살에?(열세 살에?)

102006 #1 열싀 살쯤 일거여 그때가.(열세 살쯤 일거야 그때가.)

102006 @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다 강?(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다 가서?)

102006 #1 게. 어른덜이 그 돌 헤당 다우주. 어렁 거 해지느냐게.(그럼. 어른들이 그 돌 해다가 쌓지. 어려서 그거 해졌니?)

102006 @ 동생덜도 가고.(동생들도 가고.)

120006 #1 동생은 더 어련이. 나, 아래도 두 개 싯고, 나, 우이도 두 개 싯저만은.(동생은 더 어려서. 나, 아래도 둘 있고, 나, 위에도 둘 있지만.)

102006 @ 멧 살부터 거길 간 그 돌을 지언 날라 마씨?(몇 살부터 거길 가서 그 돌을 지어서 날랐나요?)

102006 #1 열싀 살쯤에 난이. 나 우엔 ᄒᆞ꼼 커도 나 아렌 어련 그 돌 져지느냐게? 열 살 아렌디.(열세 살쯤에 난. 내 위엔 조금 커도 내 아랜 어려서 그 돌 질 수 있었겠니? 열 살 아랜데.)

102006 @ 삼촌도 간 돌 젼마씨?(삼촌도 가서 돌 졌나요?)

102006 #1 지지 않허영 어느 정도 게도 보고 다 헷지. 부모덜 댕기니까 월령 돌이 하노난이 돌로 다 성 쌓아낫저.(지지 않아서 어느 정도 그래도 보고 다 했지. 부모들 다니니까 월령돌이 많으니까. 돌로 다 성 쌓았었지.)

102006 @ 아침부터 멧 시부터 멧 시까지?(아침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2006 #1 몰라. 멧 시에사 해신디. 하여튼 불그난 강 해실 거여게. 다 져당 성 쌓앗저.(몰라. 몇 시에야 했는지. 하여튼 밝으니까 가서 했을 거야. 다 져다가 성 쌓았지.)

102006 @ 불타는 장면이나 이런 거 봐난마씨?(불타는 장면이나 이런 거 봤었나요?)

102006 #1 불덜 다른 디서 오랑 막 캐와불곡, 하옇튼 저펜더레 강 불질러서 저ᄂᆞ려왕 허지. 좋은더레 이런 알러렌 오지 못ᄒᆞ곡이. 그놈의 새끼덜 폭도라고이 것덜고라 폭도렌 헷저게. 우리 오랑 불 질러불고. 경찰 것덜 심으레 뎅겨샤 어떵해샤?(불들 다른 데서 와서 막 태워버리고, 하여튼 저쪽으로 가서 불 질러서 저 내려와서 하지. 좋은 쪽으로 이런 아래쪽으로 오지 못하고. 그 놈의 새끼들 폭도라고 그것들 보고 폭도라고 했지. 우리 와서 불 질러버리고. 경찰 그것들 심으러 다녔나? 어떻게 했나?)

102006 @ 폭도는 산에 올라간 사람?(폭도는 산에 올라간 사람?)

102006 #1 산에서 내려오니까 폭도엔 헷저게. 오랑 불 질러 불곡.(산에서 내려오니까 폭도라고 했지. 와서 불 질러 버리고.)

102006 @ 경찰덜도.(경찰들도.)

102006 #1 경찰 것덜 심으레 댕겨샤? 어떵 해시?(경찰 그것들 잡으러 다녔나? 어떻게 했나?)

102006 @ 경찰은 심으레 뎅기곡 경허멍.(경찰은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102006 #1 경헷지이. 우리 어린 때난 스물 안에 열다슷 안에니까.(그랬지. 우리 어린 때난 스물 안에 열다섯 안이니까.)

102006 @ 막 어렸을 때 무ᄉᆞ왕 어디 도망가고 막 그런 생각은 엇수과 사삼 때?(막 어렸을 때 무서워서 어디 도망가고 막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사삼 때?)

102006 #1 도망가진 안 해보고 부모덜 이시니까이.(도망가진 안하고 부모들 있으니까.)

102006 @ 어디 소까이렌 해가지고.(어디 소개라고 해가지고.)

102006 #1 소까이옌 들어났저. 어디 가오진 안 해진 셍이라.(소개라고 들었었어. 어디 가서 오진 안 했던 모양이라.)

102006 @ 집에서만 숨엉 그 옛날엔 이 집은 아니었지예?(집에서만 숨어서 그 옛날엔 이 집은 아니었지요?)

102006 #1 이거 시집 온 집이여. 나 이 스물 하나에 시집 온 집, 아이덜 다 집 상 나가부난 이제도록 살암저게.(이거 시집 온 집이야. 나 이 스물 하나에 시집 온 집, 아이들 다 집 사서 나가버리니까 이제도록 살고 있지.)

102006 @ 위치가 동산우에다가 잘도 좋은게예?(위치가 동산위에다가 너무 좋네요?)

102006 #1 ᄋᆞ. 어떵산디 나 사난 좋지. ᄂᆞᆷ의 집보다 질 좋아. 이녁집이난이, 집덜 상 시에 다 나가 비난이, 뚤은 풀아 불민 가불고 아덜은 시에 집덜 상 나가 불고.(응. 어떻게든 내가 사니까 좋지. 남의 집보다 제일 좋아. 이녁집이니까, 집들 사서 시에 다 나가 버리니까, 딸은 팔아 버리면 가버리고 아들은 시에 집들 사서 나가 버리고.)

102006 @ 여기도 외지 사람덜이 많이 왕 살암지예?(여기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지요?)

102006 #1 ᄒᆞ꼼 왐저게. 지네 필요한 사람덜 완.(조금 온다. 자기네 필요한 사람들 왔어.)

102006 @ 게난 요 밑에도 집, 빈집, 막 곱닥헌 집 이선게예, 그런 디는 풀지 안헹 자손덜이 그냥 놔두는 셍이라. 빌려주지도 못허곡.(그러니까 요 밑에도 집, 빈집, 막 예쁜 집 있더군요, 그런 데는 팔지 않고 자손들이 그냥 놔두는 모양이라. 빌려주지도 못하고.)

102006 #1 경 헴실거여게. 그디 살 사람이 와사 빌려 주주만 빌려준 것사 어디 가느냐만은.(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거기 살 사람이 와야 빌려 주지만 빌려준 거야 어디 가느냐만.)

102006 @ 저기 풀젠 내 논 것과?(저기 팔려고 내 논 겁니까?)

102006 #1 몰르켜. 어떵사 헴신지 놈의 집 허는 거 나가 아느냐게. 어떵사 헴신지 다른 사람이나 왕 살민 아이구, 오랑 살암구나 허주만은.(몰라. 어떻게 하는지 남의 집 하는 거 내가 아느냐. 어떻게야 하는지 다른 사람이나 와서 살면 아이고, 와서 사는구나 하지만.)

102006 @ 맞아. 아덜이나 이제 만나지 못하민.(맞아. 아들이나 이제 만나지 못하면.)

102006 #1 모른다. 어떵헌 걸 모른다. 우리ᄀᆞ라 ᄀᆞᆫ느냐게?(모른다. 어떻게 한 걸 모른다. 우리에게 말하겠냐?)

102006 @ 누가 살당 돌아가셔 버린 거지예 부모가?(누가 살다가 돌아가셔 버린 거지요 부모가?)

102006 #1 누게 어떵허는 걸 모른다 몰라 살당 죽어불민 누게 풀믄 딴 사람이 살주만은이, 풀지 안헹은 ᄀᆞ만이 싯느냐게. 이 알러레 이거 우리 샛아방네 집이란 거, 풀아부난이 팔아도 오란 살지 안으난게이.(누가 어떻게 하는 걸 모른다 몰라. 살다가 죽어버리면 누구 팔면 딴 사람이 살지만, 팔지 안해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 아래쪽으로 이거 우리 둘째아버지네 집이였던 거, 팔아버리니 팔아도 와서 살지 않으니까.)

102006 @ 다른 외방사람한티 풀아부럿구나?(다른 외방사람한테 팔아버렸구나?)

102006 #1 모르켜, 어드레사 풀아신디 몰라. 이딘 우리 씨아방네 살당 나 시집온 집이고, 이 땅이 우리 씨아지방은 요거 요디고, 요 올렌 우리 씨누이곡, 그 이제 아니 사는 집은 샛씨아방네 집이라난디, 풀아 먹어비난 어디 사람덜 사신디 빈집이곡, ᄒᆞ꼼 올레렌 또 즉은 아방네 집이라난디, 그것도 풀아부난 어디 사람이라산디 몰라. 우리 이디 영 살아난디 우리 씨아방네 동기간덜이 이제 나 ᄒᆞ나벳긔 우리 씨누이 올레 살암저. 우리 씨아지방 요거고이. 경헷저이. 엿날덜은 집덜 잘 물려줘.(모르겠다. 어디에야 팔았는지 몰라. 여긴 우리 시아버지네 살다가 나 시집 온 집이고, 이 땅이 우리 시아주버니는 요거 요기고, 요 올렌 우리 시누이고, 그 이제 아니 사

는 집은 둘째 시아버지네 집이였는데 팔아 먹어버리니까 어디 사람들 샀는데 빈집이고. 조금 '올레'엔 또 작은 아버지네 집이였는데, 그것도 팔아버리니까 어디 사람인지 몰라. 우리 여기 이렇게 살았었던 데, 우리 시아버지네 동기간들이 이제 나 하나밖에, 우리 시누이 '올레' 살고 있어. 우리 시아주버니 이거고 그랬지. 옛날들은 집들 잘 물려줘.)

102006 @ 사삼 사건 때는 또 피해는 엇어수과?(사삼 사건 때는 또 피해는 없었습니까?)

102006 #2 월령은 피해가 업써. 춤 흔 사람도 안 죽고, 춤 사삼 사건 땐 그 저 폭도덜 이디 오라갓주만은 그 저 불 질르고 헐 떼 월령은 불도 안 질르고. 춤 그 많이 살아나서. 흔번 오라낫주.(월령은 피해가 없어. 참 한 사람도 안 죽고, 참 사삼 사건 땐 그 저 폭도들 여기 왔었지만 그 저 불 지르고 할 때 월령은 불도 안 지르고. 참 그 많이 살았었지. 한 번 왔었지.)

102006 @ 그 때 어디 이섯수과? 봣수과? 폭돌 봐 봤수과?(그 때 어디 있었나요? 봤나요? 폭돌 봐봤나요?)

102006 #2 폭도 이꺼지 오라낫주기.(폭도 여기까지 왔었지.)

102006 @ 이 집이?(이 집이?)

102006 #2 아니, 아니 이 질에.(아니, 아니 이 길에.)

102006 @ 왓다 갓다, 착착착착.(왔다 갔다, 착착착착.)

102006 #2 경헤 가지고 월령 그 저 뭣고? 폭도 온다고 허니까 그 이디 질이 어디로 간 철이도 몰란 어디 중간 중간 막 쌓아부니까 돌로 쌓아가지고.(그래 가지고 월령 그 저 뭣고? 폭도 온다고 하니까 그 여기 길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서 어디 중간 중간 막 쌓아버리니까 돌로 쌓아가지고.)

102006 @ 돌로 쌓앗덴 헙디다예. 거기서 돌도 날라낫수과? 삼촌도?(돌로 쌓았다고 합디다. 거기서 돌도 날랐습니까? 삼촌도?)

102006 #2 으.(응.)

102006 @ 그 돌멩이 돌담 그런 거 흔적이 남아 이신가예? 어디?(그 돌멩이 돌담 그런 거 흔적이 남아 있는가요? 어디?)

102006 #2 업써.(없어.)

102006 @ 흔끔이라도 남아 잇지 안은카예? 바당이라도.(조금이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요? 바다에라도.)

102006 #2 저 거시기 밧디.(저 그거 뭐 밭에.)

102006 @ 밧디 잇지 골으차 줍서예. 4.3때 쌓았던 성이렌 헷지예. 성은 무사 쌓안마씨?(밭에 있지. 가르쳐 주세요. 4.3때 쌓았던 성이라고 했지요. 성은 왜 쌓았나요?)

102006 #2 폭도들 들어오지 못허게 거 쌓앗주. 부락에서 자진해가지고 이런 길도 다 막아 불고 경해도 그놈덜이 들어와.(폭도들 들어오지 못하게 그거 쌓았지. 부락에서 자진해가지고 이런 길도 다 막아 버리고 그래도 그놈들이 들어와.)

102006 @ 그 놈덜이 들어왕 뭘 내노렌 헙데가?(그 놈들이 들어와서 뭘 내노라고 합디까?)

102006 #2 아, 들어와도 만나보진 안헷주만은.(아, 들어와도 만나보진 안했지만.)

102006 @ 아, 얼굴은 안 만나보고 지나가는 것만 봤수과? 멧 명정도가?(아, 얼굴은 안 만나보고 지나가는 것만 봤습니까? 몇 명 정도가?)

102006 #2 곱아근에게. 헤영 뭐 저 신작로까지 오라가지고 저 쏠덜이영 무싱 거영 다 털어갓어. 그런 건 ᄋᆞ져가고.(숨어서. 해서 뭐 저 신작로까지 와 가지고 저 쌀들이랑 뭐랑 다 털어갔어. 그런 건 가져가고.)

102006 @ 사람 죽이거나?(사람 죽이거나?)

102006 #2 응. 그런 건 안 허고.(응. 그런 건 안 하고.)

102006 @ 말, 소 이런 거 가져가진 안코? 쏠 털어가고 경찰덜은 그때 서북청년단이나 이런 무서운 건 안 봣수과?(말, 소 이런 거 가져가진 않고? 쌀 털어가고 경찰들은 그때 서북청년단이나 이런 무서운 건 안 봤습니까?)

102006 #2 서북청년덜 오라가지고 월령 모여산 오라네. 저 흔 반디 사람덜, 월령 사람덜 다 모여놔가지고 그 때 죽진 안해서 사람덜.(서북청년들 와서 월령 모여서서 오라네. 저 한 곳에 사람들, 월령 사람들 다 모여 놔가지고 그 때 죽진 안했어 사람들.)

102006 @ 아오야, 다행이다예. 여기 경찰출신은 엇어수과? 경찰이시믄 좀 도와주고 헷덴 헤도.(어휴, 다행이네요. 여기 경찰출신은 없었나요? 경찰 있었으면 좀 도와주고 했다고 해도.)

102006 #2 경찰 우리 아시가 경찰로 뎅겨나서. 아시가 동생 이제 살앗주만은.(경찰 우리 아우가 경찰로 다녀나서. 아우가 동생 이제 살았지만.)

102006 @ 올 해 살앗수과? 그 아시.(올 해 살았습니까? 그 아우.)

102006 #2 이제 살아서. 제주시에 살아.(이제 살았어. 제주시에 살아.)

102006 @ 경찰 멧 년 헨마씨?(경찰 몇 년 했나요?)

102006 #2 흔 5,6년 헤실거라.(한 5, 6년 했을 거라.)

102006 @ 아시가 이시난 도움도 좀 잇엇겟다예. 게도 그때는 경찰이 아니엇잖아, 아시가 애기엿주. 사삼 땐 열다슷?(아우가 있으니까 도움도 좀 있었겠네요. 그래도 그때는 경찰이 아니었잖아, 아우가 애기였지. 사삼 땐 열다섯?)

102006 #2 아. 경찰로 뎅갓주. 아니, 아니 경찰 뎅길 때(아. 경찰로 다녔지. 아니,아니 경찰 다닐 때)

102006 @ 사삼 지낭?(사삼 지나서?)

102006 #2 사삼 지낭 뎅겨신가? 사삼 때 뎅가신가? 사삼 지난 뎅갓구나.(사삼 지나서 다녔는가? 사삼 때 다녔는가? 사삼 지난 다녔구나.)

102006 @ 사삼 때 열일곱 살인데 삼촌이.(사삼 때 열일곱 살인데 삼촌이.)

102006 @ 군대 갓다 왕 간 거구나.(군대 갔다 와서 간 거구나.)

102006 #2 군대 갓다 와가지고.(군대 갔다 와가지고.)

102006 @ 그땐 동생도 발발 떨엇주게.(그땐 동생도 발발 떨었지.)

102006 #2 떨고 말고, 하이고.(떨고 말구, 하이고.)

102006 @ 서청덜이 왕 한 번 딱 왕 어디에 모이렌 헙디가?(서청덜이 와서 한 번 딱 와서 어디에 모이라고 했습니까?)

102006 #2 저 우이. 그 부락회관이 이제 곁에 전부 메와 낫주게.(저 위에. 그 부락회관이 이제 곁에 전부 메웠지.)

102006 @ 응. 경헨 산사람덜 오민 동조허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믄 서북청년단도 무ᄉᆞ왔지예?(응. 그렇게 해서 산사람들 오면 동조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서북청년단도 무서웠지요?)

102006 #2 아이고, 거시 무ᄉᆞ왔주 그거.(아이고, 것이 무서웠지. 그거.)

102006 @ 그냥 막 다른 디선 엄청 죽여십디다.(그냥 막 다른 데선 엄청 죽였던데요.)

102006 #2 ᄌᆞ그만 허민 그냥 페 죽이렌 허곡 그 놈덜이 무서와서.(좀 하면 그냥 때려죽이라고 하고 그 놈들이 무서워서.)

102006 @ 어머니네가 그런 말 헷지예? 피해는 어성 다행이다예?(어머니네가 그런 말 했지요?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네요?)

102006 #2 피해는 업섯어.(피해는 없었어.)

102006 @ 뭐 빼사가고 이런 건 업고?(뭐 빼앗아 가고 이런 건 없고?)

102006 #2 빼사간 건 업고, 저 폭도덜 오랑 저 신작로 저 ᄀᆞᆫ 들어오는 디 오란 쏠ᄒᆞ곡 저 무싱 거 허고.(빼앗아 간 건 없고, 저 폭도들 와서 저 신작로 저 곧 들어오는 데 와서 쌀하고 저 무슨 거 하고.)

102006 @ 폭도덜은 어디 한라산에 살멍 그 먹을 거 구허레.(폭도들은 어디 한라산에 살면서 그 먹을 거 구하러.)

102006 #2 어, 먹을 거 어선, 그때덜 오란.(어, 먹을 거 없어서, 그때들 와서.)

102006 @ 흔 번씩 벳긔 안 완 잘 넘어갓다예.(한 번씩 밖에 안 와서 잘 넘어갔네요.)

102006 #2 흔 번벳긔 안 오라 간.(한 번밖에 안 와서 간.)

102006 @ 어머닌 아덜 걱정에 곱으라 헤싯겟다예? 산이라도 데려갈 수도 잇고.(어머닌 아들 걱정에 숨어라 했겠네요? 산이라도 데려갈 수도 있고.)

102006 #2 여기 우리 이건 텃밭이라는 밭에 텃밭인디 우이 모살이라. 모래 파. 경허니까 그디 강 곱음도 허곡. 이디 집이 들어오지. 오라근에 올 런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것이 무ᄉᆞ왓주기. 밤이 가.(여기 우리 이건 텃밭이라는 밭에 텃밭인데 위가 모래라. 모래 파. 그렇게 하니까 거기 가서 숨기도 하고. 여기 집이 들어오지. 와서는 올 건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것이 무서웠지. 밤에 가.)

102006 @ 밤이 사, 오년은 잘도 스무 살이믄 제일 젊엉 왕성헐 땐디.(밤에 사, 오년은 잘도 스무 살이면 제일 젊어서 왕성할 땐데)

102006 #2 그때 제일 무서와 뭐 또 부락에 또 지키레 나오렌 ᄒᆞ곡.(그때 제일 무서워. 뭐 또 부락에 또 지키러 나오라고 하고.)

102006 @ 게믄 젊은 청년덜이 그때 여러 명 이서시쿠다예? 다 월령리에 어머니네는 그 젊은 청년덜을 다 숨키고 게도 어디 산 사람으로 간사람 어시 잘 뭐 헷다예? 아이고 여기 즉은 마을이난 경 살아 남아신가?(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그때 여러 명 있었겠군요? 다 월령리에 어머니네는 그 젊은 청년들을 다 숨켜 주고 그래도 어디 산 사람으로 간사람 없이 잘 뭐 했네요? 아이고 여기 작은 마을이니까 그렇게 살아남았는가?)

102006 #2 부락이 즉으난 아마 폭도덜도 잘 아니오랏주게.(부락이 작으니까 아마 폭도들도 잘 안 왔지.)

102006 @ 젊은 여자덜도 겁나실 건디.(젊은 여자들도 겁났을 건데.)

102006 #2 아, 젊은 여자덜도 그 땐 다 겁나지 안 헴샤게. 다 겁나 가지고.(아, 젊은 여자들도 그 땐 다 겁나지 안 했나. 다 겁나 가지고.)

102006 @ 겐디 별일이 업섯다는 거지예?(그런데 별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102006 #2 응. 별일은 어선.(응. 별 일은 없었어.)

102006 @ 그런 일 다 지나고 사삼 지낭 멧 살에 결혼허신 것꽈? 중매로.(그런 일 다 지나고 사삼 지나서 몇 살에 결혼하신 겁니까? 중매로.)

102006 #2 이 중매로 연락헤연 중매 헷주기. 스무 술에.(이 중매로 연락해서 중매 했지. 스무 살에.)

102006 @ 게믄 스무 술예 사삼지낭 바로 지낭 위험할 때다예. 빨리 결혼헷네예?(그러면 스무 살이요? 사삼 지나서 바로 지나서 위험할 때네요. 빨리 결혼했네요?)

102006 #2 위험헐 때.(위험할 때.)

102006 @ 경헤연 아까 같은 양 기철이라는 서당의 선생님 소식은 들엇겟다예? 어떵 헹 돌아가시고.(그렇게 해서 아까 같은 양 기철이라는 서당의 선생님 소식은 들었겠군요? 어떻게 돌아가시고.)

102006 #2 일본에 간 이제 돌아가실 거여. 사삼사건 때 ᄆᆞᄉᆞ우니까 일본덜에 가낫주 이제.(일본에 간 이제 돌아가실 거야. 사삼사건 때 무서우니까 일본들에 가났지. 이제.)

102006 @ 근디 이제는 이런 쪼그만, 쪼그만, 집덜도 외방사람덜이 다 사부난 마을이 다 어디로 가불 건지.(근데 이제는 이런 조그만, 조그만, 집덜도 외방사람들이 다 사버리니까 마을이 다 어디로 가버릴 건지.)

102006 #3 사삼사건 당시에 사삼 사건 느 알아지느냐?(사삼 사건 당시에 사삼 사건 너 알아지느냐?)

102006 @ 예게.(예.)

102006 #4 가이 어떵 압니까?(그 애 어떻게 압니까?)

102006 @ 우리 어머니 열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범띠, 우리 어머니가 같이

살아마씨. 저 거로[30]라나서 저쪽 동쪽 어머니가 얘기하는디, 애기 때라부난 불나고 이런 거만 얘기하더라고예.(우리 어머니 열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범띠, 우리 어머니가 같이 살았어요. 저 '거로'라서 저쪽 동쪽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애기 때라서 불나고 이런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102006 #3 어, 월령 이디 저 산폭도덜 내려왕 혼 번 식겁을 당헤낫주기. 이 월령에.(어, 월령 여기 저 산폭도들 내려와서 한 번 식겁을 당했었지. 이 월령에.)

102006 @ 삼촌, 열일곱 살 쯤이지예.(삼촌, 열일곱 살쯤이지요.)

102006 #3 열일곱, 열여덟쯤 그때 그 알로 군인 가불어세 이디서 겁난.(열일곱, 열여덟쯤 그때 그 아래로 군인 가버렸어. 여기서 겁난.)

102006 @ 거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만 헤도 정말.(그러니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102006 #3 으. 그때 어떵했느냐믄, 경해연 우리 부락사람이 이방윤이옌 헌 사람이여. 이방윤이가 일본서 살단 오란 거 몰라. 무싱거 불총을 어떵 헹 멘들아. 이 사람이 우린 뭐 허는 출도 몰르고, 아 이젠 월령이 식겁을 당헐거난 우리가 위용대 팔명 위용대, 팔명이렌 헌 건, 팔명이난 벳끠 부락내에 신 것이 아니고 난 벳긔 돌아 댕기멍 폭도 와가믄 전투 부뜨는 거지. 전투, 이젠 그 당시에 뭐허믄 그 불총을 멘든 따문에 월령은 집도 하나도 안 캐와먹고 집덜, 지녁냥으로 불 부쳇당 이디서 총소리 나가난 다 도망쳐 불어세.(그래.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부락사람이 이방윤이라고 한 사람이야. 이방윤이가 일본서 살다가 와서 그거 몰라. 무슨 거 불총을 어떻게 해서 만들아. 이 사람이 우린 뭐 하는 줄도 모르고, 아, 이젠 월령이 식겁을 당할 거니까 우리가 위용대, 팔명, 위용대, 팔명이라고 한 건, 팔명이니까 밖에 부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난 밖에 돌아다니면서 폭도 와가면 전투 붙는 거지. 전투, 이젠 그 당시에 뭐하면 그 불총을 만들었기 때문에 월령은 집도 하나도 안 태워 먹고 집들, 자기 스스로 불 부쳤다가 여기서 총소리 나가니까 다 도망쳐 버렸어.)

102006 @ 불 총을 멘드난 피해가 없었다는 거?(불 총을 만드니까 피해가 없었다는 거?)

102006 #3 으 피해 엇다.(응. 피해 없다.)

102006 #4 하난 죽언 갔주기게 저.(하나는 죽어서 갔지. 저.)

102006 #4 총 맞안 죽어신디, 하난 죽언 간 뒷날 아첨 보난 저디 간 길바닥에 내비연 죽은 놈.(총 맞아서 죽었는데, 하나는 죽어서 간 뒷날 아침 보니까 저기 가서 길바닥에 내버려져 죽은 놈.)

102006 @ 그 죽은 사람은 월령 사람?(그 죽은 사람은 월령 사람?)

102006 # 아니, 아니 그놈덜 세계.(아니, 아니 그 놈들 세계.)

102006 @ 아아, 산 폭도? 총 맞안?(아아, 산 폭도? 총 맞았어요?)

102006 #3 으게. 우리 총 맞안 뒈젼.(응. 우리 총 맞아서 뒤졌어.)

30) '거로'는 제주시 화북동의 한 마을 이름이다.

102006 @ 아고야 세상에. 한 명 죽었고 무서웡들.(아고야 세상에. 한 명 죽었고 무서워서들.)

102006 #3 게. 즉시 아이구 이거, 이왕이문 군인 강 죽어버리지 이거 헐 짓은 아니옌 헨.(그래. 즉시 아이고 이거, 이왕이면 군인 가서 죽어버리지 이거 할 짓은 아니라고 했어.)

102006 @ 산 폭도렌 헤도 제주도 사람이라부난.(산 폭도라고 해도 제주도 사람이라서.)

102006 #3 으. 나 오죽 허연댜.(응. 나 오죽 했나.)

102006 @ 서북청년단이 또 막 나쁜 짓 많이 헷엇덴 헹게?(서북청년단이 또 막 나쁜 짓 많이 했었다고 하던데?)

102006 #3 으. 그 군인 나가도이 이 폭도 놈의 새끼덜 왔네. 경 다 얘기 헨. 참 나 눈물 많이 흘렸다.(응. 그 군인 나가도 이 폭도 놈의 새끼들 왔네. 그렇게 다 얘기 했어. 참 나 눈물 많이 흘렸다.)

102006 @ 역사가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주예. 아, 그 이방윤이라는 사람이 총을 만들언. 그 사람은 여기서 그냥.(역사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지요. 아, 그 이방윤이라는 사람이 총을 만들었어. 그 사람은 여기서 그냥.)

102006 #3 으. 이젠 돌아갓저. 옛날 그냥.(응. 이젠 돌아갔어. 옛날 그냥.)

102006 @ 돌아가신 거로구나예. 살아 있을 때 이런 걸 조사혜야 뒈는데 세상에.(돌아가신 거로군요. 살아 있을 때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세상에.)

102006 #3 그 양반 참 머린 좋은 양반이라. 그 양반 그거 멘들아 아졍 저 뭐헤시? 월령 살려세.(그 양반 참 머린 좋은 양반이라. 그 양반 그거 만들어서 저 뭐했나? 월령 살렸네.)

102006 @ 세상에.(세상에.)

102006 #3 금능은 집 한 일흔 멧 채 캐와불어세게.(금능은 집 한 일흔 몇 채 태워버렸네.)

102006 @ 금능엔, 금능엔 피해가 많아신디 이 사람 때문에 마을을 지킬 수 있었던 거로구나예.(금능엔, 금'가문질' 월령리 옛지명엔 피해가 많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마을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였군요.)

102006 #3 응.(응.)

102007 @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

102007 @ 삼촌, 중매결혼을 헌 거지예?(삼촌, 중매결혼을 한 거지요?)

102007 #1 으게. 중매결혼, 게난 월령서 태어나곡 월령서 시집가곡.(응. 중매결혼, 그러니까 월령에서 태어나고 월령에서 시집가고.)

102007 @ 신창은 어머니고 월령 양씨렌 헷지예, 양창부 어르신네 친척이꽈?(신창은 어머니고 월령 양씨라고 했지요, 양 창부 어르신네 친척입니까?)

102007 #2 으. 친척이라 그디도.(응. 친척이라 거기도.)

102007 @ 아, 경ᄒᆞ난 딸이 거기 갓구나. 귀양풀이[31], 우에예? 웨쪽이난 영 연결이 뒈는구나. 경헨 중매로, 게민 어릴 때부터 ᄒᆞᆫ 살 위난 얼굴 많이 봐시컨게게.(아, 그러니까 딸이 거기 갔구나. '귀양풀이', 위에요? 외쪽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중매로,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한 살 위니까 얼굴 많이 봤었겠네.)

102007 #2 하, 얼굴이야 자꾸 매일 여기니까 봣지.(하, 얼굴이야 자꾸 매일 여기니까 봤지)

102007 @ 누님이렌ᄒᆞ단 게난 어른덜이 결혼시키난 어쩔 수 없는 거, 마음에는 또 든 거 아니예?(누님이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결혼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마음에는 또 든 거 아니에요?)

102007 #2 ᄋᆞ. 서로가 좋아 뵈니까 결혼도 허고.(응. 서로가 좋아 보이니까 결혼도 하고.)

102008 @ 사주팔자 이런 것들도 어디 강 봐 실거 아니?(사주팔자 이런 것들도 어디 가서 봤을 거 아니?)

102008 #1 게. 보안 덜 다 허주. 그냥 안 허여. 이젠 어떵 헐 지 몰라도.(그럼. 봐서 다 하지. 그냥 안 해. 이젠 어떻게 할 지 몰라도.)

102008 @ 사모님은 무슨 성씨엿수과?(사모님은 무슨 성씨였습니까?)

102008 #2 양씨.(양씨.)

102008 @ 거믄, 이 마을 분이엿수과? 사모님은?(그러면, 이 마을 분이였습니까? 사모님은?)

102008 #2 응.(응.)

102009 @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어떤 거를 가져왓수과?(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어떤 것을 가져왔습니까?)

102009 #1 그때들이사게 어떵헌 거 ᄀᆞ졍 와게? 그때 그자 ᄋᆞ정 오는 것덜 ᄒᆞ꼼헌다게.(그때들이야 어떤 거 가져 오나? 그때 거의 가져서 오는 것들 조금이다.)

102009 @ 궤 기억나는 거 잇수과? 지금 남은 거 엇지예? 궤, 궤라든가 이불?(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금 남은 거 없지요? 궤, 궤라든가 이불?)

102009 #1 궤, 궤 허곡이, 우리 저건 아덜네 풀멍 허영온 거여. 이 찻잔허곡 요거영 경헷저게. 그땐게, 이불허영 오곡 건 이불은 꼭 ᄒᆞ영온다. 시집 갈 때 부모덜이 헤주는 거니까.(궤, 궤하고, 우리 저건 아들네 팔면서 해서 온 거야. 이 찻잔하고 요거랑 그렇게 했지. 그땐, 이불해서 오고 그건 이불은 꼭 해서 온다. 시집 갈 때 부모들이 해주는 거니까.)

102009 @ 부모가예? 이불 헤영 오고.(부모가요? 이불 해서 오고.)

102009 #1 허영 온다.(해서 온다.)

102009 @ 이불 헤영 오고 궤도 허영 왓수과?(이불 해서 오고 궤도 해서 왔습니까?)

102009 #1 오줌단지 ᄋᆞ졍 오고, 요강이라고 이 요강 ᄋᆞ졍 오고, 경ᄒᆞᆫ다게.(오줌

31) '귀양풀이'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치르는 굿을 말한다.

단지 가져서 오고, 요강이라고 이 요강 가져서 오고 그렇게 했다.)

102009 @ 요강, 생각나는 거 뭐 잇수과? 또,(요강,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또.

102009 #1 몰르켜. 뭣사 해 와신지.(모르겠다. 뭘 해 왔는지.)

102009 @ 궤 가졍 왓수과?(궤 가져서 왔습니까?)

102009 #1 궤 허영 오곡, 요강 ᄋᆞ정 오곡.(궤 해서 오고, 요강 가져 오고.)

102009 @ 게도 잘 살아난 셍이우다.(그래도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102009 #1 몰르켜. 어떵사 헌디. 부모가 해 주니까.(모르겠다. 어떻게 했는지. 부모가 해 주니까.)

102009 @ 게믄, 사모님이 궤랑 무싱 거 가졍 옵디가? 이불이영.(그러면, 사모님이 궤랑 무슨 거 가져 옵디까? 이불이랑.)

102009 #2 이불 그땐 그 이불 같은 거, 궤 같은 거, 전부 ᄀᆞ져오주기.(이불 그땐 그 이불 같은 거, 궤 같은 거, 전부 가져왔지.)

102009 @ 전부 ᄀᆞ져오곡 잘 살아난 집이꽈?(전부 가져오고 잘 살아난 집인가요?)

102009 #2 ᄋᆞ. 관찬은 집이라낫지.(응. 괜찮은 집이었지.)

102009 @ 거기도 큰뚤?(거기도 큰딸?)

102009 #2 아니 중간에. 뚤, 게도 한문선생이라나고, 아버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낫주.(아니 중간에. 딸, 그래도 한문선생이었었고, 아버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지.)

102009 @ 게믄 장인어른도 아껴 주곡 마을이난예. 게믄 스물 하나에 이추룩 결혼허연 멧 살나난 일 년 뒤에 큰 뚤 낳고, 아덜 낳고, 게난 삼촌은 첫 뚤 날 땐 어떵 허곡, 아덜 두 번째 날 땐 어떵 허곡 기쁨은 어떵 헙데가? 아버지 어머니가 뭰다는 게.(그러면 장인어른도 아껴주고 마을이니까요. 그러면 스물 하나에 이렇게 결혼해서 몇 살 나니까 일 년 뒤에 큰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러니까 삼촌은 첫 딸 날 땐 어떻게 하고, 아들 두 번째 날 땐 어떻게 하고 기쁨은 어땠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게.)

102009 #2 어떵허여게? 기쁘지이게. 기뻥허고 형제 경허니까 나가 곤란해 가지고.(어떻게 하기는? 기쁘지. 기뻐하고 형제 그러니까 내가 곤란해 가지고.)

102009 @ 그믄, 아버지 어머닌 어디 살고?(그러면, 아버지 어머닌 어디 살고?)

102009 #2 아버지 어머닌 저디 밖거리 서낫주기게.(아버지 어머닌 저기 바깥채 있었지.)

102009 @ 밖거리로, 결혼허믄 글로 가불고, 어멍 아방은 삼촌은 안거리로 옵니까? 결혼허믄 그렇게 뭬는구나.(바깥채로, 결혼하면 거기로 가버리고, 어머니, 아버지, 삼촌은 안채로 옵니까?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102009 #2 응. 그렇게 뭬여. 경헨 살멍 엇어 노니까.(응. 그렇게 돼. 그렇게 살면서, 없으니까.)

102010 @ 멧 살에 시집가신 것꽈?(몇 살에 시집가신 건가요?)

102010 #1 나가 스물하나에 시집와져실 거라. 이 집이 시집온 집이여 이거.(내가 스물하나에 시집왔을 거야. 이 집이 시집온 집이야 이거.)

102010 @ 늦게 왓수다예 게도?(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102010 #1 모르켜. 게난 오물락사니로 사난 복 좋지. 이레저레 이동 안헤부난 아이덜은 집 상 나가부난 ᄀᆞ만이 살암저.(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물락사니'로 사니까 복 좋지. 일로 절로 이동 안 해 버리니까 아이들은 집 상 나가 버리고 가만히 살지.)

102010 @ 결혼식은 여기서 헷수과? 어디 친정?(결혼식은 여기서 했습니까? 어디 친정?)

102010 #1 친정에서 헤사 이디오랑 사는 거주기. 이디서 허는 거라 나가.(친정에서 해야 여기 와서 사는 거지. 여기서 하는 거라 내가.)

102010 @ 친정은 멧 번진지 모르고 지금도 그 집터가 잇수과?(친정은 몇 번진지 모르고 지금도 그 집터가 있습니까?)

102010 #1 아, 친정 몰르켜. 멧 번인지 모르켜. 번지가 뭣산디.(아, 친정 모르겠다. 몇 번인지 모르겠다. 번지가 뭔지.)

102010 @ 결혼식은 친정에서 해가지고 그 남동생 다 돌아가셔 불엇지예? 그 집터가 잇수과?(결혼식은 친정에서 해가지고 그 남동생 다 돌아가셔 버렸지요? 그 집터가 있나요?)

102010 #1 집터 싯저만은 이제 밧디 뭐 벌지도 안 헌다 저디 신 거.(집터 있지만 이제 밭에 뭐 벌지도 안 한다 저기 있는 거.)

102010 @ 밧 내불언마씨?(밭 내버렸나요?)

102010 #1 게에. 내불지 안 헤영 뭐 벌어이? 전이 집 지서난디 집 튿어뒁 이젠 이 것덜은 저 중간에 강 집 상 살암고, 전이 나 시집가고 헤난 집은 이젠 저디 밧 뒈엇저. 집 튿엉은에.(그럼. 내버리지 않고 안 헤영 뭐 벌어? 전에 집 지어난데 집 뜯어두고 이제는 그것들은 저 중간에 가서 집 사서 살고 전에 나 시집가고 했던 집은 이젠 저기 밭 되었지. 집 뜯어서.)

102010 @ 결혼사진은 찍엇수과?(결혼사진은 찍었습니까?)

102010 #1 나? 아니 찍엇저게. 말제사 그냥 둘이 찍은 사진 싯저. 아방이영 나영 결혼사진 안 찍고.(나? 안 찍었지. 나중에야 그냥 둘이 찍은 사진 있지. 아버지랑 나랑 결혼사진 안 찍고.)

102010 @ 그러니까마씨, 인연이다예. 결혼식 헐 때 사진이나 이런 건 엇수과?(그러니까요, 인연이네요. 결혼식 할 때 사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102010 #2 어디 실 거여.(어디 있을 거야.)

102010 @ 기꽈? 거 춪앙 놔둡서예, 것도 다 그것이 옛날예? 결혼식 헐 때 족두리 쓰고 사모관대 허고 경 행 헷수과?(그렇습니까? 그거 찾아서 놔두십시오, 그것도 다 그것이 옛날에요? 결혼식 할 때 족두리 쓰고 사모관대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

까?)

102010 #2 사모관대 쓰고, 응.(사모관대 쓰고, 응.)

102010 @ 이 집이서 결혼헌거 아니예?(이 집에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102010 #2 이디서게 이디.(여기서 여기.)

102010 @ 경헨 상 페와 놓고 닭 날리고 경헨 그 뭣꽈? 박세기로 이렇게 술 먹고 호오호오 허멍은에 가매도 탓수과?(그렇게 해서 상 펴 놓고 닭 날리고 그렇게 해서 그 뭣예요? 바가지로 이렇게 술 먹고 호오호오 하면서 가마도 탔습니까?)

102010 #2 가매로 거 헷주기게. 바로.(가마로 그거 했지. 바로.)

102010 @ 집 가까워도?(집 가까워도?)

102010 #2 집 가까와도 그 저 가마 타 가지고.(집 가까워도 그 저 가마 타 가지고.)

102010 @ 게도 집이 이시난.(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102010 #2 응. 하인, 그 전인 하인, 싯주기. 영 들러 간.(응. 하인, 그 전엔 하인, 있었지. 이렇게 들러 갔어.)

102010 @ 뭐 가져 옵데가? 보통 여자들은?(뭐 가져 왔습니까? 보통 여자들은?)

102010 #2 여자덜은 뭐 가졍오지도 안허고.(여자들은 뭐 가져 오지도 안하고.)

102010 @ 결혼은 여자 집이서 헙니까? 남자 집이서 헙니까?(결혼은 여자 집에서 합니까? 남자 집에서 합니까?)

102010 #2 남자집도 허곡 이 저 여자집도 허곡 허주기.(남자집도 하고 이 저 여자집도 하고 하지.)

102010 @ 가문잔치[32]는 경 허는 디 그 상 페와놓고.('가문잔치'는 그렇게 하는데 그 상 펴 놓고.)

102010 #2 가문잔치보다도 잔치 제라헌 잔친 양칩이, 양칩에서 허주기.('가문잔치'보다도 잔치 진짜 잔친 양쪽 집, 양쪽 집에서 하지.)

102010 @ 그 상 페와 놓곡 술 이렇게 먹고 허는 건 여자 칩이서 헹 데령오는 거 아니꽈?(그 상 펴 놓고 술 이렇게 먹고 허는 건 여자 집에서 해서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102010 #2 여자 칩이서도 허고 이디서도 허여. 오랑 여자칩이서 먼저 여기 말 탕 강 허영 둘앙 오랑 또 이디 집이서 허주기.(여자 집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해. 와서 여자 집에서 먼저 여기 말 타고 가서 하고 데리고 와서 또 여기 집에서 하지.)

102010 @ 또 집이서 헤서마씨? 마을 사람덜은 거기 갓당 일로 와. 그믄 상은 두 개를 페와.(또 집에서 했나요? 마을 사람들은 거기 갔다가 여기로 와. 그러면 상은 두 개를 펴.)

102010 #2 응 상은 춤, 두 개도 싀 개도 무싱 거 허고, 강 오믄 확 허게 출려 가지고 그디.(응. 상은 참, 두 개도 세 개도 뭐 하고, 가서 오면 빨리 차려 가지고

32)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를 말한다.

거기.)

102010 @ 마당에서 큰 상 페왕 허는 거는?(마당에서 큰 상 펴서 하는 거는?)

102010 #2 마당에 그런 땐 사람덜 부락 사람덜.(마당에 그런 땐 사람들 부락사람들.)

102010 @ 그건 여자 칩이지예? 건.(그건 여자 집이지요? 건.)

102010 #2 남자 칩도 허여 똑ᄀᆞ치.(남자 집도 해 똑같이.)

102010 @ 남자 칩도 똑ᄀᆞ치.(남자 집도 똑같이.)

102010 #2 똑ᄀᆞ치 남자 칩이 더 크게 허주기.(똑같이 남자 집이 더 크게 하지.)

102010 @ 더 크게, 당연허지예? 경헨 잔치헤난 다음 남자 집에서 첫날밤은 자고 그 다음부터 여자 칩은?(더 크게, 당연하지요? 그렇게 잔치 해난 다음 남자 집에서 첫날밤은 자고 그 다음부터 여자 집은?)

102010 #2 아, ᄆᆞ음대로게. 그때.(아, 마음대로지. 그때.)

102011 @ 응. 둘이 찍은 사진예? 게믄 신혼살림은 여기서 이 집?(응. 둘이 찍은 사진이요? 그러면 신혼살림은 여기서 이 집?)

102011 #1 건 무신 말고?(그건 무슨 말이니?)

102011 @ 처음 결혼해서 이 집으로 온 거마씨?(처음 결혼해서 이 집으로 온 건가요?)

102011 #1 그냥 오랑 이제도록 살암저.(그냥 와서 이제도록 살고 있지.)

102011 @ 아. 씨어머니도 이디서 같이 살고?(아. 시어머니도 여기서 같이 살고?)

102011 #1 그냥 씨어멍덜이 셔도이 ᄀᆞ치 안 살앗저. 그땐 그냥.(그냥 시어머니들이 있어도 같이 안 살았지. 그땐 그냥.)

102011 @ 아들 결혼하면서 이 집을 사 온 거마씨?(아들 결혼하면서 이 집을 사온 건가요?)

102011 #1 아니, 물려 준 집이주기.(아니, 물려 준 집이지.)

102011 @ 큰 아덜이난 바로 물려줫구나예. 그믄 그 씨어머닌 어디 사는 거라?.(큰 아들이니까 바로 물려줬군요. 그러면 그 시어머닌 어디 사는 거라?)

102011 #1 아, 우리 씨어멍은 요디 영 벳껏디 밖거리 살당 즉은 아덜 해뒁 줘뒁 죽엇저게. 줘뒁 밖거리 살앗저.(아, 우리 시어머니는 여기 이렇게 밖에 바깥채 살다가 작은 아들 해서 줘 두고 죽었지. 줘 두고 바깥채 살았지.)

102011 @ 밖거리 살당 시아버지는?(바깥채 살다가 시아버지는?)

102011 #1 엿날은 씨아방도 ᄀᆞ치 살당 죽고게, 아이고 누게고게?(옛날은 시아버지도 같이 살다가 죽고, 아이고 누구니?)

102012 @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02012 @ 게난 아덜도 뚤도 다 강씨 집안에 겨믄 다 살아계셔마씨?(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다 강씨 집안에 그러면 다 살아계셔요?)

102012 #1 죽진 안혜연. 남편덜은 가끔 ᄒᆞ나썩, 두 개 죽은 거 싯저만은 뚤덜은

그냥 살고, 아덜도 살고 그냥 살앗저. 다.(죽진 안했어. 남편들은 가끔 하나씩, 둘 죽은 거 있지만 딸들은 그냥 살고, 아들도 살고 그냥 살았지. 다.)

102012 @ 다 월령서 살멘?(다 월령서 살아요?)

102012 #1 월령서 시집보냉 놔두난 부산도 사는 거 있고, 말잿년 ᄒᆞ나 이. 이제 제주시덜 다 살암저. 아덜 두 개영 뚤덜이영.(월령에서 시집보내 놔두니까 부산도 사는 거 있고, 둘째 딸 하나. 이제 제주시들 다 살고 있지. 아들 둘이랑 딸들이랑.)

102012 @ 늬 번이 부산이곡, 싀 번이 납읍이곡, 두 번이?(네 번이 부산이고, 세 번이 납읍이고, 두 번이?)

102012 #1 두 번이 우리 누게고? 큰뚤이 귀덕 이 샛뚤이 애정이 어디고? 잊어불어졋저. 애정이가 어디고? 잊어불언. 모르켜. 나 어디사.(두 번이 우리 누구니? 큰딸이 귀덕, 둘째딸이 애정이가 어디니? 잊어버렸어. 애정이가 어디고? 잊어버렸어. 모르겠다. 나 어딘지.)

102012 @ 애기덜도 다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지예?(애기들도 다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지요?)

102012 #1 응. 그자 이제 막 풀아도 사난 좋다게. 그자 심으멍 풀앗주기게. 봉금만 허민 닐 말아도 무사 말암딘 안 허커메, 나 앞이서 결혼이나 헹 말켄허연.(응. 그저 이제 막 팔아도 사니까 좋다. 그저 붙잡고 팔았지. 만나기만 하면 내일 안 해도 왜 안하냐고 안 할 테니까, 내 앞에서 결혼이나 하고 말라고 했어.)

102012 @ 다 연애덜 헤 가지고예?(다 연애들 해 가지고요?)

102012 #1 지네덜 봉그민 무조건 풀아노난, 그냥 살암저 아덜이고 뚤이고.(자기네들 주우면 무조건 팔았으니, 그냥 살고 있지. 아들이고 딸이고.)

102012 @ 봉그민.(찾으면.)

102012 #1 시집갈 땐 ᄀᆞᆯ앗주게. 아덜이고 뚤이고 나 풀앙 놔두커메.(시집갈 땐 말했지. 아들이고 딸이고 나 팔아서 놔 둘 테니까.)

102012 @ 다 살아 있고 애기덜도 낳고 영 잘 사는 거잖아예. 아이고, 얼마나 좋은 것꽈게?(다 살아 있고 애기들도 낳고 이렇게 잘 사는 거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 건가요?.)

102012 #1 그냥, 그냥 살암저. 풀아주난.(그냥, 그냥 살고 있지. 팔아주니까.)

102012 @ 얼마나 좋으꽈게? 게믄 애기덜 키우멍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게도 보믄 옛날 어르신덜은 애기 나믄 꼭 어릴 때 애기덜 누구 하나 똑 애기도 일러 불고 막 그런 것도 많고 사연도 많드라고예.(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기들 키우면서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그래도 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애기 나면 꼭 어릴 때 애기들 누구 하나 꼭 애기도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것도 많고 사연도 많더라고요.)

102012 #1 그런 사람도 싯지. 게난 이 그자 풀앙 뒷날 무사 만난덴 안허커메 풀앙이네 말켄허민 다 살암저. 풀아주민.(그런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이 그저 팔아서 뒷날 왜 만났냐고 안 할 테니 팔아서 안하겠다고 하면 다 살고 있지. 팔아주면.)

102012 @ 게도 왕 울고 막 시집살이 힘들덴 ᄀᆞᆫ고.(그래도 와서 울고 막 시집살

이 힘들다고 말하고.)

102012 #1 경도 안하곡게.(그렇게도 안하고.)

102012 @ 아오야.(아오.)

102012 #1 막 그런 거 다짐 받앙 풀주기. 안허커메, 닐 말아도 무사 말암딘 안 허커메, 시집만 가라. 장개도 가곡게.(막 그런 거 다짐 받아서 팔지. 안하겠으니까, 낼 그만둬도 왜 그만두냐고 안하겠으니까, 시집만 가라. 장가도 가고.)

102012 @ 똘은 물질이나 어멍한티 안 베왓수과? 물질.(딸은 물질이나 어머니한테 안 배웠습니까? 물질.)

102012 #1 뭐 물질 허는 똘은 엇어. 큰 똘도 안 헤여. 샛똘도 안 헤여. 말젯똘도 안 헷저. 메누리도 안 ᄒᆞ곡 나 우리 시절엔 물질 안 ᄒᆞ질 안 혼다게.(뭐 물질하는 딸은 없어. 큰 딸도 안 해. 둘째 딸도 안 해. 셋째 딸도 안 했지. 며느리도 안하고 나 우리 시절엔 물질 안하지 안한다.)

102012 @ 아들허곡 똘은 같이 검질도 메레 가고 영 헷수과?(아들하고 딸은 같이 김도 매러 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102012 #1 게게. 농술 하도 지어노난 전이.(그래.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전에.)

102012 @ 초등학교는 어디들 다님니까?(초등학교는 어디 다닙니까?)

102012 #1 처음엔 저 판포.(처음엔 저 판포.)

102012 @ 판포, 이제 엇어졋잖아예.(판포, 이제 없어졌잖아요.)

102012 #1 엇어져사? 몰르켜. 나 어디 애기 학교 뎅기는 거 엇이난 엇어졋구나.(없어졌니? 모르겠어. 나 어디 애기 학교 다니는 거 없으니까 없어졌구나.)

102012 @ 폐교가 뒈 불언.(폐교가 되 버렸어.)

102012 #1 경해샤? 몰르켜 난.(그랬니? 모르겠어. 난.)

102012 @ 다른 사람이 들어 강 헷덴허곡.(다른 사람이 들어 가서했다고 하고.)

102012 #1 경해였구나.(그랬구나.)

102012 @ 경헷덴 허곡.(그랬다고 하고.)

102012 #1 다 이제 다 학교 댕기는 체 ᄒᆞ곡게.(다 이제 다 학교 다니는 척 하고.)

102012 @ 가족사항은 어떵됨수과?(가족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2012 #2 똘 둘, 아덜이 셋.(딸 둘, 아들이 셋.)

102012 @ 똘 ᄒᆞ나는 여기 사는 거마씨? 월령에?(딸 하나는 여기 사는 건가요? 월령에?)

102012 #2 똘 ᄒᆞ나는 점빵, 옆이 이시난.(딸 하나는 상점, 옆에 있으니까.)

102012 @ 삼촌은 제일 먼처가 똘을 낫수과 아덜을 낫수과? 제일 먼처 난 아이가?(삼촌은 제일 먼저가 딸을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까? 제일 먼저 난 아이가?)

102012 #2 아기가 큰 똘이주기게. 이것이 큰똘이여게.(아기가 큰 딸이지. 이것이

큰 딸이야.)

102012 @ 아, 점방이 큰 뚤이꽈? 거기가 멧 살이꽈?(아, 상점이 큰 딸입니까? 거기가 몇 살입니까?)

102012 #2 이제 흔 칠십.(이제 한 칠십.)

102012 @ 점게 보이던데 아오야, 물질헴수과?(젊게 보이던데 아오, 물질합니까?)

102012 #2 게도 젊어. 물질허다가 안 헤여.(그래도 젊어. 물질하다가 안 해.)

102012 @ 큰뚤이 칠십이고 두 번째는?(큰딸이 칠십이고 두 번째는?)

102012 #2 두 번째는 여수에 사는 디 이제 쉰둘인가?(두 번째는 여수에 사는 데 이제 쉰둘인가?)

102012 @ 그믄 세 번째가 아덜 난 것꽈? 다섯 오누이 중에?(그러면 세 번째가 아들 난겁니까? 다섯 오누이 중에?)

102012 #2 아니, 두 번째 난 아덜이 잇어. 일본가가지고 연락이 업써.(아니, 두 번째 난 아들이 있어. 일본 가서는 연락이 없어.)

102012 @ 지금마씨? 어떵해. 언제쯤 연락이 엇어젼 마씨?(지금요? 어떻게 해서. 언제쯤 연락이 없어졌나요?)

102012 #2 1년 뭠저. 1년. 이제 걱정이 그건디 그거 일본서 살당 등록어성 걸령 들어왕 멧 년 살당 또 가신디, 작년부터 연락어서. 뚤 ᄒᆞ나 이서.(1년 됐어. 1년. 이제 걱정이 그건데 그거 일본에서 살다가 등록 없어서 걸려서 들어와서 몇 년 살다가 또 갔는데, 작년부터 연락 없어. 딸 하나 있어.)

102012 @ 아이고 츰. 게민 세 번째가 뚤 여수 살고?(아이고 참. 그러면 세 번째가 딸 여수 살고?)

102012 #2 아니, 두 번째 아덜이. 일본에 또 살아. 살안 그 놈은 일본각시 해가지고 제주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귀화해 부럿어. 거기서.(아니, 두 번째 아들이. 일본에 또 살아. 살아서 그 놈은 일본각시 해가지고 제주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귀화해 버렸어. 거기서.)

102012 @ 귀화해 불언. 삼촌도 츰, 게도 연락도 허곡? 놀러 오렌도 허곡?(귀화해 버렸어. 삼촌도 참, 그래도 연락도 하고? 놀러 오라고도 하고?)

102012 #2 가끔 연락도 허곡, 오렌도 허주만은 난.(가끔 연락도 하고, 오라고도 하지만 난.)

102012 @ 여긴 와보기도 허곡.(여긴 와보기도 하고.)

102012 #2 ᄋᆞ. 어멍 살 때 집이 할망 산 때에 아팟젠 허니까 오랑 가서. 죽엇젠 허니까 아니 오고.(어. 어머니 살 때 집이 할머니 산 때에 아팠다고 하니까 왔다 갔어. 죽었다고 하니까 안 오고.)

102012 @ 세상에 겨믄 여수 사는 딸이 네 번째가 뒈겠다예.(세상에 그러면 여수 사는 딸이 네 번째가 되겠네요.)

102012 #2 ᄋᆞ.(어.)

102012 @ 다섯 번째가 아덜, 세상에.(다섯 번째가 아들, 세상에.)

102012 #2 아덜.(아들)

102012 @ 세상에 막낸게. 여기가 시에 사는 거예? 큰아덜 역할을 허컨게.(세상에 막내네. 여기가 시에 사는 거예요? 큰아들 역할을 하겠네요.)

102012 #2 모두가 그디 멛겨 부럿주게. 뭐시던지 손지도 농협 뎅기고 이서.(모두가 거기 맡겨버렸지. 뭣이든지 손자도 농협 다니고 있어.)

102012 @ 잘 들어갓수다게. 여수 간 뚤도 잘 살고.(잘 들어갔습니다. 여수 간 딸도 잘 살고.)

102012 #2 자기 살긴 펜안하곡 잘 살아 웨손지도 오누이라.(자기 살긴 편안하고 잘 살아. 외손자도 오누이라.)

102012 @ 큰뚤은 월령신랑 만난 셍이우다예? 점방도 허고예?(큰딸은 월령신랑 만난 모양이네요? 상점도 하고요?)

102012 #2 그건 예초로 허곡 사위가 일본 강 뎅기당 오란 농사지어.(그건 예초로 하고 사위가 일본 가서 다니다가 와서 농사지어.)

102012 @ 게도 그 뚤이 이시난 삼촌.(그래도 그 딸이 있으니까 삼촌.)

102012 #2 응. 이제 뚤이 이시난, 펜안허게 이거 식사 같은 것도 다 거기서 헤 와.(응. 이제 딸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거 식사 같은 것도 다 거기서 해 와.)

102012 @ 아이덜은 어떻게 됩니까?(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02012 #3 그루후제 아기덜 막 나세 이제 아홉 오누이이여. 큰어멍에 아기 여섯 오누이 고 이 할망도 나 만난 서 오누이고.(그 후에 아기들 막 낳았지. 이제 아홉 오누이이야. 큰어머니에 아기 여섯 오누이고 이 할머니도 나 만나서 세 오누이고.)

102012 @ 아홉 오누이예?(아홉 오누이요?)

102012 #3 응. 손지덜이 바로 세지도 못헌다. 이름도 모르고 하도 원체 하노난. 왁작왁작흔다. 한 해에 육남매썩 난 뚤덜이 싯저게.(어. 손자들이 바로 세지도 못한다. 이름도 모르고 너무 원체 많으니까. 북적북적한다. 한 해에 육남매씩 난 딸들이 있지.)

102013 @ 때려 분거우다게.(때려 버린 겁니다.)

102013 #1 몰르켜 그걸. 어떵 알아게. 아이고 답답이라. 우리 그놈의 할망이 진짜로 죽어도 줄바로 못가실 거여게. 난 그거안티 배왕 큰일난덴 단도리 헷저.(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고 답답이라. 우리 그놈의 할머니가 진짜로 죽어도 제대로 못 갔을 거야. 난 그거한테 배워서 큰일 난다고 '단도리' 했지.)

102013 @ 씨아지방도 경헙디가?(씨아지방도 그렇게 했습니까?)

102013 #1 경 안헤. 스물 멧'개 작산 조상을 허는 할망을.(그렇게 안 해. 스물 몇'개 많은 조상을 하는 할머니를.)

102013 @1 날르는 거.(나르는 거.)

102013 보통 일은 아니였주게.(보통 일은 아니었지.)

102013 #2 맞주기게.(맞지.)

102013 @ 일은 열심히 했나?(일은 열심히 했나?)

102013 #1 몰르켜게. 아이고 답답이라. 그놈의 할망이. 죽어도 줄바로 못가실거여.(모르겠다. 에고 답답이라. 그놈의 할머니가. 죽어도 제대로 못 갔을 거야.)

102013 @ 씨어멍은 아팡은에 밥은 누가 멕여 줫수과?.(시어머니는 아파서 밥은 누가 먹여 줬습니까?)

102013 #1 어떵 내불어지느냐? 집에 와서 우리도 풀아줬지게. 내불어지느냐?(어떻게 내버려지느냐? 집에 와서 우리도 팔아줬지. 내버려지느냐?)

102013 @ 거넘헨마씨?(돌봤나요?)

102013 #1 난 씨어멍은 젊을 때 돌아가 부난. 게난 욕헷저. 아기 ᄒᆞ나 못 낳는 것이 쉐막에. (전화) 아이고 시상.(난 시어머니가 젊을 때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욕했지. 아기 하나 못 낳는 것이 외양간에. (전화) 아이고 세상.)

102013 @ 게믄 아저씨는 무슨 성씨마씨?(그러면 아저씨는 무슨 성씨인가요?)

102013 #1 박씨.(박씨.)

102013 @ 아오야. 어떵 어머니 성씨?(아우. 어떻게 어머니 성씨?)

102013 #1 아니여. 난 강씨.(아니야. 난 강씨.)

102013 @ 게난 엄마가 박씨였다며?(그러니까 엄마가 박씨였다며?)

102013 #1 ᄋᆞ. 어멍이 박씨고이.(응. 어머니가 박씨고.)

102013 @ 신랑도 박씨?(신랑도 박씨?)

102013 #1 맞다. 맞다. ᄋᆞ게 ᄋᆞ게.(맞다. 맞다. 응.응.)

102013 @ 신기허다예.(신기하네요.)

102013 #1 난 강씨난 우리 집이 우리 친정아방은 강가지 맞다게. 동네에서 그자 외방일은 모른다. 월령에서 태어나곡 월령에서 시집 가곡해노난.(난 강씨니까 우리 집에 우리 친정아버지는 강씨지. 맞다. 동네에서 그냥 외방일은 모른다. 월령에서 태어나고 월령에서 시집가고 하니까.)

102013 @ 신랑은 나이차이가 어떵 뒛수과?(신랑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102013 #1 나보다 ᄒᆞᆫ술 위.(나보다 한살 위.)

102013 @ 게믄 잘 쌉기도 헷겟다예?(그러면 잘 싸우기도 했겠네요?)

102013 #1 어떵사 해젼디 모르켜게. 어떵사 살아져신디 싸와젼디 아니 싸와젼디.(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졌는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102013 @ 게도 어진 셍이우다예.(그래도 어진 모양입니다.)

102013 #1 엿날은이 아이구, 시집 안 살민 죽을 걸로 알앙이, 저ᄁᆞ지 돌아당 강 심어당 문 덕껑 막 아이고 우리 동세 요재기 골아라 저 서귀포 살당 육지 강 인천도 살아나고 그ᄁᆞ지 소문 나난셍이라. 돌아난 거 심어당 막 아이고 소문 듣ᄀᆞ렌 이제 ᄀᆞ치 살암저. 영 오랑 요디 살고 그 육지ᄁᆞ지 다 소문 가서렌. 아멩혜도 어떵허느니 우리 씨어멍이 우리 난 씨어멍은 죽어부난 이제 말제 온 시어멍은 아기도 안 나본 사람인디 경 무사 시기느니게. 난 씨어멍한티 베왕이 아덜성젠디 ᄁᆞ딱 너네

메누리 떼렷당 큰일난덴 막 시겨져라게. 아니뒈라게 고정헌 사람이라노난 아이고. (옛날은 아이구, 시집 안 살면 죽을 걸로 알았어. 저까지 데려다가 잡아서 문 닫아서 막 아이고, 우리 동세 요전에 말하더라. 저 서귀포 살다가 육지 가서 인천도 살아나고 그까지 소문났었던 모양이라. 달아난 거 잡아다가 막 아이고 소문 들었다고 이제 같이 살아. 이렇게 와서 여기 살고 그 육지까지 다 소문 갔다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하니?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난 시어머니는 죽어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온 시어머니는 아기도 안 나본 사람인데 그렇게 왜 시키느니? 난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아들형제인데 까딱 너네 며느리 때렸다가 큰 일 난다고 막 시켜지더라. 안되더라. 고정한 사람이라서 아이고.)

102013 @ 삼촌을 마씨?(삼촌을요?)

102013 #1 으. 우리 동셍 골아라. 막 육지ᄁᆞ지 소문 나렌 경험젠 전화가 뭐 헤난셍이라. 게난 우리 씨할망이 나신디 완 이 우리 난 씨어멍 어멍 아니 실프민 그냥 내쳐불주기. 아이고 다리 꺽어져 불곡게 실프건 다리라도 곱게 내쳐사 동냥질해 먹을 거 아니겐 골아낫저. 우리 씨할망 경해도 아기 아까왕 못나가라게. 우리 샛뚤은 이제 좇 먹이고 우리 큰 뚤 큰아덜 그 우이 꺼 어린 거난이 어멍네 집이 요디여. 우리 친정어멍 그디 가당 아이고, 아이고 오렌 안헹 불쌍헹 오믄 나가 죽어져도 아기 밥헤 줄 거 아니? 이제 샛뚤은 좇 멕일때고 아이고 어가라 들어와낫저 못살커라라. 아기 아까왕 아기 때문에 살림사는 거라라게. 그 매 맞으멍도이. 게 살암시난 살아젼게. ᄀᆞ만이 살암져게. 경ᄒᆞ민 못 살 사람 하나 어실거여. 그 매 맞앙 사난이. (응. 우리 동생 말하더라. 막 육지까지 소문 나더라고 그렇게 한다고 전화가 뭐 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우리 씨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우리 난 씨어머니 어머니 아니 싫으면 그냥 내쳐버리지. 아이고, 다리 꺽어져 버리고. 싫으면 다리라도 곱게 내쳐야 동냥질 해 먹을 거 아니냐고 말했었어. 우리 시할머니 그래도 아기 아까워서 못나갔어. 우리 둘째딸은 이제 젖 먹이고 우리 큰 딸, 큰아덜 그 위에 거 어린거니까 어머니네 집이 여기야. 우리 친정어머니 거기 가다가 아이고, 아이고 오라고 안해서 불쌍해서 오면 내가 죽어져도 아기 밥해 줄 거 아니? 이제 둘째딸은 젖 먹일 때고 아이고 얼른 들어왔었지. 못 살겠더라. 아기 아까워서 아기 때문에 살림 사는 거드라. 그 매 맞으면서도 그게 살고 있으니까 살아진다. 가만이 살고 있지. 그러면 못 살 사람 하나 없을 거야. 그 매 맞아서 사니까.)

102013 @ 게난. 세상에 아저씨는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마씨?(그러니까. 세상에 아저씨는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요?)

102013 #1 쉬흔아홉에.(쉰아홉에.)

102013 @ 에, 아이고 무싱것이 경 답답허여근에 경.(에, 아이고 무엇이 그렇게 답답해서 그렇게.)

102013 #1 고정헌 거라. 고정헌 사람이라노난 ᄯᅳ리렌 헤노난게 어떵허여?(고정한 거라. 고정한 사람이니까 때리라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102013 @ 아니, 씨어멍도.(아니, 시어머니도.)

102013 #1 배왕 우리 아덜 성제이 너넨 메누리 손뎃당 큰일난덴 ᄒᆞ건 살젠 애기 나멍 ᄒᆞ는 거 ᄁᆞ딱 ᄯᅳ령 큰일난덴 난 드르 시겻져. 아덜네ᄀᆞ라.(배워서 우리아들 형제 너희 며느리 손댔다가 큰일 난다고 어떻게든 살려고 애기 나면서 하는 거 까딱 때려서 큰일 난다고 난 계속 시켰지. 아들네보고.)

102013 @ 아이덜도 그걸 보고 자랏네예?(아이들도 그걸 보고 자랐네요?)

102013 #1 경ᄒᆞ난 이제 우리 아이덜은이, 우리 아덜 성제신디 각씨 ᄯᅳ리는 걸 ᄯᅳ렷당 큰일난덴 헷저. 난게 ᄯᅳ령 뒈느냐? 나가 경 살아나난.(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들형제에게 각시 때리는 걸 때렸다가 큰일 난다고 했지. 난 때려서 되느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102013 @ 가슴 아픈 거를?(가슴 아픈 거를?)

102013 #1 그걸 아이덜고라 시겻저게. 나가 우리 시어멍안티 베완이, 우리 아덜은이 ᄁᆞ딱 각시 안 ᄯᅳ려낫저 ᄯᅳ령 뒐 것가?(그걸 아이들보고 시켰지.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워서, 우리 아들은 절대 각시 안 때렸지. 때려서 될 거냐?)

102013 @ 못 삽니다.(못 삽니다.)

102013 #1 야. 경 맞아도 못나가라. 아기 아까왕게.(야. 그렇게 맞아도 못나가더라. 아기 아까워서.)

102013 @ 게난 거난. 아이가 홀륭하게 뒌. 게도 영 사는 거주게. 어멍 어신 아이덜이 요즘.(그러니까. 아이가 훌륭하게 됐어.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지.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 요즘.)

102013 #1 다 알앙 우리 큰뚤 ᄀᆞᆯ아라게. 또 먹을 것도 어성 그땐 이 막 그냥 구해당 으네 주곡 우리 큰뚤 경 ᄀᆞᆯ아라 질고라 밥 허렌 헤뒁, 엿날엔 보리낭으로 불 솜주게. 밥 허렌 헤뒁 또 ᄊᆞᆯ 구허레 나가렌. 풀 ᄇᆞ른 구덕 ᄋᆞ정 지네 배 고프겐 안헤렌. 거 ᄒᆞ나 기분 좋안게. 경 ᄊᆞᆯ 구헤당 지넬 밥 헨 먹으렌 헤도 밴 고프겐 안헤렌 씨어멍헌티 욕 들으멍 밥 하영 헤영 먹엄젠 남기는 밥도 엇고 식은 것도 엇주기. 게난 이제사 나가 아척에 아기덜 하루헤원 먹을 걸 홈치 해진 셍이라. 경 헤낫저 게난 그거 ᄒᆞ나 기분 좋안게. 큰뚤이 이제 살암저 시에.(다 알아서 우리 큰딸 말하더라. 또 먹을 것도 없어서 그땐 막 그냥 구해다가 주고 우리 큰딸 그렇게 말하더라. 자기보고 밥 하라고 해두고, 옛날엔 보리짚으로 불땠지. 밥 하라고 해두고 또 쌀 구하러 나가더라고. 풀 바른 구덕 가져서 자기네 배 고프게는 안했다고. 그거 하나 기분 좋았지. 그렇게 쌀 구해다가 자기들 밥 해서 먹으라고 해도 배는 고프다고 안했다고 씨어머니한테 욕 들으면서 밥 많이 해서 먹는다고 남기는 밥도 없고 식은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아침에 아기들 하루해천 먹을 걸 한꺼번에 한 모양이라. 그렇게 했었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기분 좋았어. 큰딸이 이제 살고 있지. 시에.)

102013 @ 신랑은 큰 아덜이우꽈?(신랑은 큰 아들입니까?)

102013 #1 ᄋᆞ.(응.)

102013 @ 아이구, 경ᄒᆞ난 더 독ᄒᆞ게 했구나. 씨어멍이 시집살이를.(아이고, 그러

니까 더 독하게 했구나.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102013 #1 첨 우리 아지방이 살암저 이디. 시누이 올레 살암고이, 우리가 큰 아덜이여게.(참, 우리 시동생이 살고 있지. 여기. 시누이 '올레' 살고 있고, 우리가 큰 아들이야.)

102013 @ 아이고, 그믄 큰 아덜에 또 형제가 멧인 거라? 씨누이허곡 씨아지방이 멧명인 거?(아이고, 그럼 큰 아들에 또 형제가 몇인 거야? 시누이하고 시아주버니 몇 명인 거?)

102013 #1 하나. 씨아지방 ᄒᆞ나, 우리 씨누이 요거 ᄒᆞ나, 서오누이, 우리 씨어멍이난, 죽언.(하나. 시아주버니 하나, 우리 시누이 요거 하나, 세 오누이, 우리 시어머니니까, 죽었어.)

102013 @ 아이고 서오누인디 그추룩 막 경 세게 경 막 큰 아덜이난 더 막 경헷구나게.(아이고 세 오누인데 그렇게 막 세게 그렇게 막 큰 아들이니까 더 막 그렇게 했구나.)

102013 #1 아기도 안 나본 씨어멍이 우리 난 씨어멍은 죽어불고이, 저 젊은 때.(아기도 안 나본 시어머니가 우리 난 시어머닌 죽어버리고, 저 젊은 때.)

102013 @ 두 번째가 온 거로구나.(두 번째가 온 거로구나.)

102013 #1 또시 얻어온 사람이 애기도 하나 못난 윤씨 할망이옌 허연, 막 지네 괸당안티 욕 들으멍 공중이라고, 이 월령 똑똑헤낫저. 손은 끊어져도 아니, 아기도 어선.(또 얻어온 사람이 애기도 하나 못난 윤씨 할머니라고 해서, 막 자기네 친척한테 욕 들으면서 공중이라고, 이 월령 똑똑했었지. 손은 끊어져도 아니, 아기도 없었다.)

102013 @ 메께라[33]?(어머나?)

102013 #1 에이구 답답이라 벨디 다 살아. 다 신다. 우리 신랑에 씨어멍.(에이고 답답이라. 별 곳 다 살아. 다 있다. 우리 신랑에 시어머니.)

102013 @ 친어머닌 일찍 돌아가셔 불엇구나예?(친어머닌 일찍 돌아가셔 버렸군요?)

102013 #1 우리 친어멍? ᄋᆞ게.(우리 친어머니? 응.)

102013 @ 아저씨삼춘 저기.(아저씨 삼춘 저기.)

102013 #1 우리 씨어멍.(우리 시어머니.)

102013 @ 신랑에 씨어멍.(신랑에 시어머니.)

102013 #1 ᄋᆞ게 ᄋᆞ게.(응, 응.)

102013 @ 멧 살 때 돌아가션마씨?(몇 살 때 돌아가셨나요?)

102013 #1 서른싯에 돌아갓젠 헌다. 게도 아기 서오누이 난. 서른셋에도.(서른셋에 돌아갔다고 한다. 그래도 아기 세 오누이 난. 서른셋에도.)

102013 @ 아오야.(아우.)

102013 #1 우리 씨누이 살암고, 우리 씨아지방 요디. 이딘 큰아덜이고.(우리 시

33) '메께라'는 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다.

누이 살고 있고, 우리 시아주버니 요기. 여긴 큰아들이고.)

102013 @ 겐 그 다시 온 그 씨어멍은? 씨할망이렌 불러신디.(그래서 그 다시 온 그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라고 불렀는데.)

102013 #1 아니. 다시 온 어멍은 윤씨라고 어떵허느니? 얻어오난게 경 못된 마음은 먹어도.(아니. 다시 온 어머니는 윤씨라고 어떻게 하느냐? 얻어오니까 그렇게 못된 마음은 먹어도.)

102013 @ 그 분은 살아계셔마씨?(그 분은 살아계셔요?)

102013 #1 엇다게. 이제 살아지느냐? 죽엇저게.(없다. 이제 살아지느냐? 죽었지.)

102013 @ 돌아가션예, 제사도 허여마씨?(돌아가셨군요, 제사도 해요?)

102013 #1 제사 ᄒᆞ주게. 영ᄒᆞ나 정ᄒᆞ나 제사 안ᄒᆞ느냐?(제사 하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사 안하느냐?)

102013 @ 게난, 영 ᄒᆞ나 정 ᄒᆞ나.(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102013 #1 이제 나 늙엉 제사 안허니까 다 허당 이젠 큰 아덜, 족은 아덜신디 줘부난 헴저게.(이제 나 늙어서 제사 안하니까 다 하다가 이젠 큰 아덜, 작은 아들에게 줘버리니까 하지.)

102013 @ 진짜, 씨어머니 제사 그 분 제사 합제도 안하곡 그냥.(진짜, 시어머니 제사 그 분 제사 합제도 안하고 그냥.)

102013 #1 응. ᄃᆞ로 ᄒᆞᆫ다게.(응. 따로 한다.)

102013 @ 아, 착허다예?(아, 착하네요?)

102013 #1 씨왓 ᄀᆞᆮ지 못ᄒᆞ는 셍이헴저라이. 무사 ᄀᆞᆮ질 허지 안 헴저게?(씨왓 같이 못하는 모양이라. 왜 같이 하질 안하지?)

102013 @ 남편하고 각시는 또 영 합제도 헌데는 헙디다만은.(남편하고 각시는 또 이렇게 합제도 한다고는 합디다만.)

102013 #1 헌데는 해도 시앗[34], 두 개는 안 ᄒᆞ는 셍이라 ᄃᆞ로헌다. 난 이제 늙언 안허여, 아이덜 다 허여. 큰아덜이여 족은아덜이여.(한다고는 해도 '씨앗', 두 개는 안 하는 모양이라. 따로 한다. 난 이제 늙어서 안 해, 아이들 다 해. 큰아들이야 작은 아들이야.)

102013 @ 착허다. 게도, 게도.(착하다. 그래도, 그래도.)

102013 #1 으당이 허는 걸 지네덜이 다 이제 아니까 나 서른 멧해 식게 멩질 우리 큰 아덜 ᄀᆞᆯ아라. 나도 어멍만이 해. 똘성제 나뒁 말제 나노난, 나도 어멍허는 햇술 세사 아덜 물려줘지켄 ᄀᆞᆯ아라. 우리 큰 아덜.(당연히 하는 걸 자기네들이 다 이제 아니까 나 서른 몇 해 식게 명절 우리 큰 아들 말하더라. 나도 어머니만큼 해. 딸 형제 나두고 나중에 나니까, 나도 어머니 하는 해수를 세어야 아들 물려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라. 우리 큰 아들.)

102013 @ 그믄 서른세 살에 그 씨어멍이 죽으민 애기가 멧 살에 돌아가신 거

34) '시앗'은 '씨앗'으로, 여기서는 남편의 첩을 가리킨다.

라?(그러면 서른세 살에 그 시어머니가 죽으면 애기가 몇 살에 돌아가신 거라?)

102013 #1 몰라게. 서오누이 난 죽엇저게.(몰라. 세 오누이 나서 죽었지.)

102013 @ 그믄 신랑이 열 살도 안 뭰?(그러면 신랑이 열 살도 안 됐나요?)

102013 #1 몰라게. 어떵사 열시 살에 돌아갔젠 헌다 우리 신랑 그거 들엇저.(몰라. 어떻게야 열세 살에 돌아갔다고 한다. 우리 신랑 그거 들었지.)

102013 @ 그난 새엄마가 드러 왕 어쨋든 경 구박 받으멍 살아시쿠다예.(그러니 새엄마가 들어와서 어쨌든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았겠네요.)

102013 #1 으이그, 진짜로이.(으이그, 진짜로.)

102013 @ 게난 몽니가 셍기고.(그러니까 오기가 생기고.)

102013 #1 아기가 어신 시어멍이주기게.(아기가 어신 시어머니이지.)

102013 @ 불쌍하게 신랑이 불쌍허게 어쨋튼 크난. 각시한티 포마시[35]허곡.(불쌍하게 신랑이 불쌍하게 어째든 크니까. 각시한테 '포마시'하고.)

102013 @ 씨아주방허고 씨누이는 괜찬앗수과?(시아주버니하고 시누이는 괜찮았습니까?)

102013 #1 게. 아껴주는 사람은 좋추게. 살기도이.(그럼. 아껴주는 사람은 좋지. 살기도.)

102013 @ 씨아주방허고 씨누이는 괜찮고?(시아주버니하고 시누이는 괜찮고?)

102013 #1 괜찮으니까 이제도 ᄀᆞ만이 살암저.(괜찮으니까 이제도 가만히 살고 있지.)

102013 @ 씨어멍에 비해서 자기 형제니까 삼촌한테 막 구박허곡 이런 것들은 기억 안 남수과?(시어머니에 비해서 자기 형제니까 삼촌한테 막 구박하고 이런 것들은 기억 안 남습니까?)

102013 #1 구박헌 거, 아니사 구박헤시냐만은 어떵 허여 어떵헐 거라.(구박한 거, 아니야 구박했겠냐만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102013 @ 게도 둘만 이시난 다행이우다.(그래도 둘만 있으니까 다행이다.)

102013 #1 맞아 맞아.(맞아 맞아.)

102013 @ 그 씨아주방 장개 보내곡 씨누이들 시집보내곡.(그 시아주버니 장가 보내고 시누이들 시집보내고.)

102013 #1 게. 게. ᄀᆞ만이 흔디덜 이제 ᄌᆞ끗디 사난 막 좋나게. 요딘 씨아주방 요, 올렌 씨누이.(그래. 그래 가만히 함께 이제 옆에 사니까 막 좋나. 요긴 시아주버니고, '올렌' 시누이.)

102013 @ 친구처럼.(친구처럼.)

102013 #1 응. 잘도 좋아. 우리 동세 나 엇이민 벗 어성 못 살켄. 씨끄러와. 작산 것이 벗 무싱 거 뭐. 진 하나만 엇어도 못 살켄. 나만 엇어도 못 살켄. 나만 엇어도 시끄러와이.(응. 잘도 좋아. 우리 동세 나 없으면 벗 없어서 못 살겠다고 시끄러워. 다 큰 것이 벗 무슨 거 뭐. 자기는 하나만 없어도 못 살겠다고. 나만 없어도

35) '포마시'는 남에게 때려 맞거나 원한이 있을 때 그를 때려 주거나 원한 갚음을 하는 짓을 말한다.

못 살겠다고. 나만 없어도 시끄러워.)

102013 @ 씨누이 다 살안마씨?(시누이 다 살았어요?)

102013 #1 응. 씨아지방 살고 씨누이 이디 살고 딱 서 오누이 나둥 우리 씨어멍이 서른셋에 돌아갓젠 헌다게.(응. 시아주버니 살고 시누이 여기 살고 딱 세 오누이 놔두고 우리 시어머니 서른셋에 돌아갔다고 한다.)

102013 @ 자식덜안티는 막 해꼬지 그런 건 안 하고?(자식들한테는 마구 해코지 그런 건 안 하고?)

102013 #1 나 어떵 안 한다. 무신 해꼬질 허여게?(나 어떻게 안 한다. 무슨 해코질 해?)

102013 @ 거기도 자식덜 낳고 잘 살고예?(거기도 자식들 낳고 잘 살고요?)

102013 #1 응. 큰아덜이나 서른싯에 즉은 아덜은 고등학교 선생이고, 큰아덜은 이제 뭐 그거 선생헤영 마땅치 안허덴 막 배달 하도 하도 저 서귀포까지 다 배달허곡덜 헌다. 그 무싱거 풀멍 이 밧에서 난 거 다 풀멍 경헌다.(응. 큰아들이나 서른셋에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선생이고, 큰아들은 이제 뭐 그거 선생해서 마땅치 안하다고 막 배달 너무 너무 저 서귀포까지 다 배달하고들 한다. 그 무슨 거 팔면서 이 밭에서 난 거 다 팔며 그렇게 한다.)

102013 @ 경해도 자랑스러우쿠다게. 선생 흔나 되는 것도 어디라.(그래도 자랑스럽겠습니다. 선생 하나 되는 것도 어디라.)

102013 #1 그자 지네 몰라게. 그 고등학교 선생 허는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허는 거 아니라이?(그저 자기네 몰라. 그 고등학교 선생 하는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하는 거 아니라?)

102013 @ 예.(예.)

102013 #1 즉은 건 그거 선생이여게.(작은 건 그거 선생이여.)

102013 @ 게민 거기도 다 저 어쨌든 박씨 집안이네예. 씨동생 씨누인?(그러면 거기도 다 저 어쨌든 박씨 집안이네요. 시동생 시누인?)

102013 #1 게. 아덜덜도 다 박씨고. 우리신랑이 박씨니까.(그래. 아들들도 다 박씨고. 우리 신랑이 박씨니까.)

102014 @ 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도에 살암수과?(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도에 삽니까?)

102014 #1 제주시에덜 살멘. 부산도 하나 살고. 말젯n년 부산에 지네 살 때 오라 가라 안 허주.(제주시에 살아. 부산도 하나 살고. 셋째 년 부산에 자기네 살 때 오라 가라 안 하지.)

102014 @1 그, 그 자식들이 결혼은 지금 일곱 형제렌 헷지예?(그, 그 자식들이 결혼은 지금 일곱 형제라고 했지요?)

102014 #1 나.(나.)

102014 @ 응.(응.)

102014 #1 뚤이 늬 개. 아덜이 두 개.(딸이 네 개. 아들이 두 개.)

102014 @ 게. 멧 살 때 또 결혼덜 일곱 형제 다 시킨 거?(그래. 몇 살 때 또 결혼들 일곱 형제 다 시킨 거?)

102014 #1 게. 엿날들은 다 경ᄒᆞ는 거여게.(그래. 옛날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102014 #1 시집 아니 뒈고, 장개 안 가믄, 사람으로 안 헷주게. 살던 말던 간에.(시집 안 되고, 장가 안 가면, 사람으로 안 했지. 살던 말든 간에.)

102014 @ 오십 구세에 돌아가실 적에, 일곱 형제 다 보내뒁 간 거마씨?(오십 구세에 돌아가실 적에, 일곱 형제 다 보내두고 간 거예요?)

102014 #1 게 그자 ᄒᆞ꼼만 헤가민 그자 그 으당이 부모덜이 ᄒᆞ는 걸로 알앗주게.(그래. 그저 조금만 해가면 그저 그 당연이 부모들이 하는 걸로 알았지.)

102014 @ 다 보고 가난 아저씨 여한은 엇어시쿠다?(다 보고 가니까 아저씨 여한은 없었겠네요?)

102014 #1 맞다. 맞다.(맞다. 맞다.)

102014 @ 육십 세 넘는 게 어려운 거라예? 남자들.(육십 세 넘는 게 어려운 거지요? 남자들.)

102014 #1 맞아이. 경헌 셍이라이.(맞아. 그런 모양이라.)

102014 @ 겨믄 자식덜 결혼헐 때 큰아덜은 여기서 핸 마씨?(그러면 자식들 결혼할 때 큰아들은 여기서 합니까?)

102014 #1 이디서 헷지이 나가. 시집 온 집이서 난 이제도록 ᄀᆞ만이 사니까. 가문잔치?(여기서 했지 나가. 시집 온 집에서 난 이제도록 가만히 사니까. '가문잔치'?)

102014 #1 경ᄒᆞ난 다 시에덜 집덜 상 나가비난, 난 아직 ᄀᆞ만이 사는 거라.(그렇게 하니까 다 시에 집들 사서 나가버리니까, 난 아직 가만히 사는 거라.)

102014 @ 큰 아덜은 지금 연세가 저보다 좀 우에겟다예, 오십 멧?(큰 아들은 지금 연세가 저보다 좀 위겠네요, 오십 몇?)

102014 #1 ᄀᆞ만시라보저, 오십 멧 개고. 나영 돌아온 그 무싱거여만은 잊어불언. 이 이제 준나비 띠여 나영 ᄀᆞ튼.(가만 있어봐라. 오십 몇 개고. 나하고 돌아온 그 무슨 거지만 잊어 버렸어. 이 이제 잔나비 띠다 나랑 같은.)

102014 @ 사십팔이 준나비난 육십 뒈겟는데, 이제 육십되커라.(사십팔이 잔나비니까 육십 되겠는데, 이제 육십 되겠네.)

102014 #1 벌써 육십뒈샤 경해샤? 띠만 알아져 답답이라 즉은 아덜이. 또 돌아온 또 우리 ᄀᆞ튼 띠고이, 즉은 아덜이 고등학교 선생이고.(벌써 육십 되었니? 그랬니? 띠만 알아. 답답이라. 작은 아들이. 또 돌아온 또 우리 같은 띠고,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선생이고.)

102014 @ 즉은 아덜도 준나비띠예?(작은 아들도 잔나비띠예요?)

102014 #1 돌아온 띠 ᄀᆞ치 거 멧 살 난산디 모르켜.(돌아온 띠 같이 거 몇 살 났는지 모르겠어.)

102014 @ 사십 팔.(사십 팔.)

102014 #1 몰라 잊어불언. 멧 술산디.(몰라 잊어 버렸어. 몇 살인지.)

102014 @ 사십 팔 뒈는데예. 멧 살에덜 스무살 넘으난 결혼덜?(사십 팔 되는데요. 몇 살 에들 스무 살 넘으니까 결혼들?)

102014 #1 몰르켜. 멧 술에사 헤져신디. 거 어떵 아느니? 결혼은 다 나 헤준디 살암저. 착헤여이.(모르겠어. 몇 살에야 했는지 그거 어떻게 아니? 결혼은 다 나 해준데 살고 있지. 착해.)

102015 @ 뚤 사위덜은 다 착해마씨?(딸 사위들은 다 착한가요?)

102015 #1 ᄋᆞ게. 그자 살암저 정해준디. 나 앞이서 결혼만 헹 내부켄 헹 네부난.(응. 그저 살고 있지. 정해 준데. 나 앞에서 결혼만 해서 내버리겠다고 해서 내버렸으니까.)

102015 @ 큰 뚤사위는 어느 지방 사람이꽈?(큰 딸사위는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102015 #1 귀덕, 큰 뚤사윈 스님이여. 큰 스님.(귀덕, 큰 딸사윈 스님이야. 큰 스님.)

102015 @ 두 번째 사위는?(두 번째 사위는?)

102015 #1 납읍.(납읍.)

102015 @ 납읍. 세 번째 사위는?(납읍. 세 번째 사위는?)

102015 #1 말젯 년 부산.(셋째 년 부산.)

102015 @ 부산사위. 네 번째는?(부산사위. 네 번째는?)

102015 #1 아, 네 번이 우리 애행이 세 번이 납읍, 납읍이로구나. 우리 애정이가 뚤이 네 개여게.(아, 네 번이 우리 애행이 세 번이 납읍, 납읍이로구나. 우리 애정이가)

3. 밭일

보리 농사

103002 @ 밧일로 들어가 보쿠다. 보리농사를 지을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밭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2 보리농사 무싱거. 뭐 옛날엔 그 저 통지에 걸름 내영 불려가지고 그 걸로 씨 뿌령 물로 시꺼가지고 이제 밧디 가 가지고 막 불려가지고 씨 뿌령 그거 이제 벙뎅이로 멘들아 가지고 밧디 이젠 그거 실러간단 말이여. 그거 또 이제 갈 때는 또 영, 영 손에 비비멍 뿌려가지고, 그 씨니까 씨 막 뿌리거든. 다덜 밧드레 게민 그 저 쉐로 밧을 갈아야 뒈.(보리농사 무슨 거? 뭐 옛날엔 그 저 돼지우리에 거름 내어서 밟아가지고 그걸로 씨 뿌려서 말로 실어가지고 이제 밭에 가 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씨 뿌려서 그거 이제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밭에 이젠 그거 실러

간단 말이야. 그거 또 이제 갈 때는 또 이렇게, 이렇게 손에 비비면서 뿌려가지고, 그 씨니까 씨 막 뿌리거든. 다들 밭에 그러면 그 저 소로 밭을 갈아야 돼.)

103002 #3 밧, 보리농사 지을 때 페롭긴 헌다. 옛날 지금은 비료 시난이, 거름 비료 시난 비료 작작작작 뿌려ᄋᆞ정 보리씨 삐어ᄋᆞ정 다니믄 보리가 갈아지는 거주만은 옛날에는 우리 멜 있지이 멜.(밭, 보리농사 지을 때 까다롭긴 하다. 옛날 지금은 비료 있으니까, 거름 비료 있으니까 비료 '싹싹싹싹' 뿌려서 보리씨 뿌려서 다니면 보리가 갈아지는 거지만 옛날에는 우리 멸치 있지. 멸치.)

103002 @ 예.(예.)

103002 #3 바당에 신 멜. 그거 헤여당 그 ᄆᆞᆯ렸당 거름ᄒᆞ곡, 몸 있지? 몸. 바당에 뜨는 몸?(바다에 있는 멸치. 그거 해다가 그 말렸다가 거름하고, 모자반 있지? 모자반. 바다에 뜨는 모자반?)

103002 @ 예.(예)

103002 #3 그거 비어당도 그 ᄆᆞᆯ령 걸름 하곡 경허난, 이젠 기계로 다 갈주만은 옛날 소로 갈아나세. 소로. 흔 고지썩 갈앙 허믄 그거 덮어ᄋᆞ정 붋으멍 살멍 경 힘들게 살아왓저.(그거 비어다가도 그 말려서 거름 하고 그러니까, 이젠 기계로 다 갈지만 옛날 소로 갈았었어. 소로. 한 고지씩 갈아서 하면 그거 덮어서 밟으면서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어.)

103003 @ 쒝이는 거 메칠 걸려마씨? 쉐막에(전화) 보리농사?(썩히는 거 며칠 걸려요? 외양간에(전화) 보리농사?)

103003 #1 ᄃᆞᆺ걸름 내영. 나 말 들어보라. 도새기 질뢍, 도새기 걸름을 내엉, 이제 도시 그레 이제 씨삐영 마당더레 걸름내엉 막 ᄌᆞ근 ᄌᆞ근 ᄌᆞ근 불뢍 밧디 망텡이에 시꺼 강 두망두망 비우는거라. 요디 하나민 저디 하나 비왕 그걸 이제 붙어근에 좀주룽이 치정 밧더레 저 걸름을 놓는 거라. 경허민 이제 그 걸름에 붙엉은에 보리씨가 모드락모드락 난다게. 경헤연 농사지어낫저게. 이젠 허지 좋안 작작 보리 씨 삐연 갈아낫저만은 경 헹 농ᄉᆞ지어낫저. 그 땐 걸름 경 헹 갈아낫저. 게민 그냥 삔 것보다 ᄒᆞ꼼 걸름이 들어가니까 ᄒᆞ끔 좋아낫저게.(돼지거름 내어서. 내 말 들어보라. 돼지 길러서, 돼지 거름을 내어서, 이제 도시 그래. 이제 씨뿌려서 마당에 거름 내어서 막 자근 자근 자근 밟아서 밭에 망태기에 실어 가서는 드문드문 던지는거라. 여기 하나면 저기 하나 비워서 그걸 이제 붙여서 잘게 찢어서 밭에 저 거름을 놓는거라. 그러면 이제 그 거름에 붙어서 보리씨가 모여서 난다. 그렇게 해서 농사지었었지. 이젠 하기 좋아서 쫙쫙 보리씨 뿌려서 갈아났었지만 그렇게 해서 농사지었었지. 그 땐 거름 그렇게 해서 갈았었지. 그러면 그냥 뿌린 것보다 조금 거름이 들어가니까 조금 좋았었지.)

103003 @ 아, 그믄 해마다 그렇게 헤연마씨?(아,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했나요?)

103003 #1 그디 허는 일이 그거라노난 그땐, 그땐 말제라가난 그냥 삐니까 허기 좋곡 비료만 하영 잘 놔주민.(거기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땐, 그땐 나중에 되니까

그냥 뿌리니까 하기 좋고 비료만 많이 잘 놔주면.)

103003 @ 걸름도 추울 때.(거름도 추울 때.)

103003 #1 게, 그땐 내영은에 그땐 꼭 쉐 질롸놩 쉐 걸름을 통시에 담앙놩 이제 썩으민 또시 내어근에 그것에 씨 삐어근에 불뢍 게민 걸름에 요만씩 걸름에 서꺼지라고 이. 그냥 쉡씨 갈앙은 잘 안뒈어라게. 경헨 그때 헤낫저.(그렇지, 그땐 내여서 그땐 꼭 소 길러놔서 소 거름을 돼지우리에 담아놔서 이제 썩으면 또 내어다가 그것에 씨 뿌려서 밟아서 그러면 거름에 이만큼씩 거름에 섞어지라고 그냥 '쉡씨' 갈아서 잘 안됐었어. 그렇게 해서 그때 했었지.)

103003 @ 그믄 돗통시에 걸름만 아니고 쉐 길러난 것도?(그러면 돼지우리에 거름만 아니고 소 길러난 것도?)

103003 #1 통시에 담아놩 ᄀᆞ치 섞엉 줌주룽이 찢엉 경헹 이젠 작작, 허는 일이 그거라 노난 아니게, ᄋᆞ게. 걸름 내엉 허대경 ᄌᆞ근ᄌᆞ근 허턴 ᄌᆞ근ᄌᆞ근 두망두망, 무두락 이젠 그냥.(돼지우리에 담아놔서 같이 섞어서 잘게 찢어서 그렇게 해서 이젠 쫙쫙, 하는 일이 그거니까 아니, 응. 거름 내어서 펼쳐서 자근자근 섞어 자근자근 듬성듬성, 모도록이 이젠 그냥.)

103003 @ 쇠, 물.(소, 말.)

103003 #1 이제 ᄀᆞ치 요만썩 그냥 가는 건 쉡씨[36] 그냥 잘 뒈라게.(이제 같이 요만큼씩 그냥 가는 건 '쉡씨' 그냥 잘 돼라.)

103003 @ 그때 마당에 뿌련, 씨 밟을 때 쉐나 물이나 이런 거 ᄀᆞ치 붋진 않고, 사람덜이 다 발로 붋안예? 아, 다 정성이다예.(그때 마당에 뿌려서, 씨 밟을 때 소나 말이나 이런 거 같이 밟진 않고, 사람들이 다 발로 밟았나요? 아, 다 정성이네요.)

103003 #1 경ᄒᆞ민 이제 그것에 ᄀᆞ치 씨에 버물려지민 걸름에 다 붋을 때 붋앙 요만씩요만씩 다 뿌려노민이, 그것에 붙엉 씨가 나오민 ᄒᆞ꼼 걸어라게. 그냥 가는 건 쉡씨, 그냥 걸름 아니 헹 그냥 씨삐엉 가는 건 그것엔 걸름이 들어가난 ᄒᆞ낌 잘 뒈어라게. 밀랑밀랑하게.(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에 같이 씨에 섞어지면 거름에 다 밟을 때 밟아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다 뿌리면, 그것에 붙어서 씨가 나오면 조금 걸었어. 그냥 가는 건 쉡씨, 그냥 거름 아니해서 그냥 씨 뿌려서 가는 건 그것엔 거름이 들어가니까 조금 잘 되더라. '밀랑밀랑'하게.)

103003 @ 게민 쉐왕에 있는 것도 걸렁 돗통시에 놓고, 걸름도 쉐 거영 물에 있는 거영 다 돗통시에 놩.(그러면 외양간에 있는 것도 걸러서 돼지우리에 놓고, 거름도 소 거랑 말에 있는 거랑 다 돼지우리에 놔서.)

103003 #2 쉐 걸름이라도 쉐 통지에 놧다가, 보리라도 갈게 뒈며는 마당더레 다네쳐서 거기에 그 이제 말려서 씨를 뿌렁 불려야 밧디 가기 전이 씨 들어가게 불렷다가 거 이제 다 뒈시민 다 모여가지고 밧디 실러간단 말이여.(소 거름이라도 소 우리에 놨다가, 보리라도 갈게 되면 마당으로 다 내쳐서 거기에 그 이제 말려서 씨를

36) '쉡씨'는 거름을 안 하고 뿌리는 씨를 말한다.

뿌려서 밟아야 밭에 가기 전에 씨 들어가게 밟았다가 거 이제 다 되어 있으면 다 모여가지고 밭에 실러 간단 말이야.)

103003 @ 저 마을에서 막 걸름 잘 네는 사람 빌엉예, 그게 일이주게. 밧디 뿌령.(저 마을에서 막 거름 잘 내는 사람 빌어서요, 그게 일이지. 밭에 뿌려서.)

103003 #2 뿌령 밧디 강 갈젠 허민, 손으로 그걸 다 뿌려놔 가지고 쉐로 간단 말이여.(뿌려서 밭에 가서 갈려고 하면, 손으로 그걸 다 뿌려놔 가지고 소로 간단 말이야.)

103003 @ 소로 갈면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직접 삐지는 않고 다 걸름에 뿌린다는 거지예?(소로 갈면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직접 뿌리지는 않고 다 거름에 뿌린다는 거지요?)

103003 #2 어. 걸름에 뿌려 놔서 뿌린 거 실러 가가지고 손에 영, 영 하면서 영 골루루 놓는다.(어. 거름에 뿌려 놔서 뿌린 거 실러 가가지고 손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골고루 놓는다.)

103003 @ 보리밭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 말 한 것처럼?(보리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 말 한 것처럼?)

103003 #3 거름? 거름은 많이 주면은 농사가 잘 뒈곡.(거름? 거름은 많이 주면은 농사가 잘 되고.)

103003 @ 예. 그 거름은 아까추룩 돗통시에 거나 소왕에 거나?(예. 그 거름은 아까처럼 돼지우리에 거나 외양간에 거나?)

103003 #3 소에 끙는 찍, 그것도 거름헌다. 그 저 촐왓디 거름ᄒᆞ연 간다. 거 퇴비엔 헌다. 퇴비. 그것도 나 허곡이 옛날엔 통지 도세기 통지에 길렷저. 이디 영, 거 집집마다 다 했어 건.(소에 까는 짚, 그것도 거름한다. 그 저 띠밭에 거름해서 간다. 그거 퇴비라고 한다. 퇴비. 그것도 나 하고 옛날엔 우리, 돼지우리에 길렀지. 여기 이렇게, 거 집집마다 다 했어 건.)

103003 @ 통지, 통시?(우리, 돼지우리?)

103003 #3 통, 통지 담으로 쌓아 아졍 거 돼지 거기 떡 집어놩.(돼지우리 담으로 쌓아서 그거 돼지 거기 떡 집어놔서.)

103003 @ 예. 도세기 어릴 때 저도 봔마씨.(예. 돼지 어릴 때 저도 봤어요.)

103003 #3 어. 그거 경 헹 키우멍 그디서 걸름내영, 헹 그 걸름으로 찌멍 보리씨 통지에서 내어 놩 그거 찌멍 헤영 보리갈멍 다 경 살앗저.(어. 그거 그렇게 해서 키우면서 거기서 거름 내어서, 해서 그 거름으로 찌면서 보리씨 변소에서 내어 놔서 그거 찌면서 해서 보리 갈면서 다 그렇게 살았지.)

103003 @ 잘 골아줍서. 쉐 찍허곡 통지에 그 걸름을 마당에 어떵헙니가? 그걸 ᄎᆞ근ᄎᆞ근.(잘 말해주십시오. 소 짚하고 돼지우리에 그 거름을 마당에 어떻게 합니가? 그걸 차근차근.)

103003 #3 아, 저 통지에 이젠 쇠시랑으로 걸름 네어 놓주기. 마당더레 내어 노믄 이제 또 이제 씨 삔다. 씨 막 걸름 우트레.(아, 저 돼지우리에 이젠 쇠스랑으로

거름 내어 놓지. 마당으로 내어 노면 이제 또 이제 씨 뿌린다. 씨 막 거름 위로.)

103003 @ 마당더레 걸름을 내어 놩 보리씨를.(마당으로 거름을 내어 놔서 보리씨를.)

103003 #3 보리씨 우트레 삐어노민 이제 또 섞으주기 딱딱, 막 영 쇠시랑으로 조시멍 섞어노믄 그 발로 이제 쉐로 불린다. 불려ᄋᆞ정 다 뒌거 닮으민 그때 딱 재어 놩 둥그렇게 제어 놓주기. 이 거름을.(보리씨 위로 뿌려놓으면 이제 또 섞지. 딱딱 ,막 이렇게 쇠스랑으로 쪼면서 섞어 노면 그 발로 이제 소로 밟게 한다. 밟으면 다 된 거 같으면 그때 딱 재어 놔서 둥그렇게 쌓아 놓지. 이 거름을.)

103003 @ 아, 걸 ᄀᆞᆯ체에 담앙 저(아, 그걸 삼태기에 담아서 저.)

103003 #3 둥그렇게 마당 한가운디 재어 놩, 재어 놓으면은 이젠 밧디 갈뗀 쉐에도 시껑 가고 구루마에도 시껑 가곡, 경허멍 헨 보리 갈아낫저.(둥글게 마당 한가운데 재어놔서, 쌓아 놓으면 이젠 밭에 갈 땐 소에도 실어 가고 수레에도 실어 가고, 그러면서 해서 보리 갈았었어.)

103003 @ 밧디 갈땐 쉐나 구루마에 시껑은에 이제 강 이젠 그 다음엔 어떵헙니까?(밭 갈 땐 소나 수레에 실어서 이제 가서 이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103003 #3 그 다음엔 가믄 이제 밧디서 보리 아졍 이제 뿌리주기.(그 다음엔 가면 이제 밭에서 보리 가지고 이제 뿌렸지.)

103003 @ 그 걸름을?(그 거름을?)

103003 #3 그 보리씨 섞어진 집에서 해 놓은 거. 그 푸는체에 막 손 곱앙이 막 굉장헌다. 그때 장갑이 시냐 뭐시 시니?(그 보리씨 섞어진 집에서 해 놓은 거. 그 키에 막 손 곱아서 막 굉장했다. 그때 장갑이 있니? 뭣이 있니?)

103003 @ 추운 날이라부난.(추운 날이라서.)

103003 #3 ᄋᆞ. 경 막 손 곱으멍 헤영 불 추멍 그 걸름덜 다 뿌린 다음에 이젠 소로 이젠 갈 거 아니가. 이젠 다 뿌렷젠허민 이제 소메왕 소 밧갈믄 이젠 또 밧가는 뒤에 고량 이 고량 나온다. 이 밧고량이옌 흔거. 게믄 그레 영 거 톡톡톡톡 줍아 놩 그건 고량에.(응. 그렇게 막 손 곱으면서 해서 불 쬐면서 그 거름들 다 뿌린 다음에 이젠 소로 이젠 갈 거 아니가? 이젠 다 뿌렸다고 하면 이제 소 매워서 소 밭 갈면 이젠 또 밭가는 뒤에 고랑, 고랑 나온다. 이 밭고랑이라고 한 거. 그러면 그 쪽에 이렇게 거 톡톡톡톡 집어 놔서 그건 고랑에.)

103003 @ 고량에 뭘 줍아놔마씨? 씨를.(고랑에 뭘 집어놔요? 씨를.)

103003 #3 보리씨게.(보리씨.)

103003 @ 일차로는 하고 또다시 씨를 또 고량이믄 이렇게 들어간디꽈? 들어 간디 또 줍아놔.(일차로는 하고 또다시 씨를 또 고랑이면 이렇게 들어간뎁니까? 또 집어놔.)

103003 #3 거 저 거시기게. 땅 남아시카부덴 혜연 여비로 경 땅 헹은에, ᄀᆞ량에 놩 곡석 잘 나온다. 또다시 땅 남아 시카부댄 경헌 땅 고량에 놩, 거름 잘한 밧들은 보리밥덜 먹고, 거름 못헌 밧은 보리 안 뒈영 베롱베롱[37]헤영은에 뭐 허주기.(그거

저 거시기. 땅 남았을까봐 해서 여비로 그렇게 땅 해서, 고랑에 놔서 곡식 잘 나온다. 또다시 땅 남아 있을까봐 그렇게 한 땅 고랑에 놔서, 거름 잘한 밭들은 보리밥들 먹고, 거름 못한 밭은 보리 안 되어서 '베롱베롱'해서 뭐하지.)

103003 @ 못 먹엉 베롱베롱허고예. 저 거름을 이렇게 베롱베롱허믄 것 먹으고 이 만약에 몸이나 멜 그런 거는.(못 먹어서 '베롱베롱'하고요 저 거름을 이렇게 '베롱베롱'하면 그것 먹고 이 만약에 모자반이나 멸치 그런 거는.)

103003 #3 그거 허믄 잘 뒌다.(그거 하면 잘 된다.)

103004 @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떵 감네까? 보리는 가을에 겨울에?(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 보리는 가을에 겨울에?)

103004 #1 아, 보린 겨울에 가랑 겨울 내낭되언 가민 비곡.(아, 보린 겨울에 가랑 겨울 내내 되어서 가면 베고.)

103004 @ 겨울에 갈앙예.(겨울에 갈아서요.)

103004 #1 응. 겨울 들어가민.(응. 겨울 들어가면.)

103004 @ 보린 겨울에 갈앙.(보린 겨울에 갈아서.)

103004 #1 쉐 질롸놩 통시에 담아놩 너러놩게 내어근에 통시에 담아놩 걸름에 요만썩 걸라고, 그냥 쉡씨 갈앙 잘 안뒈. 그거 돗통시에 걸름ᄒᆞ곡 섞엉 바당더레.(소 길러서 통시에 담아놔서 널어놔서 내어서 통시에 담아와서 거름에 이만씩 잘 되라고, 그냥 쉡씨 갈아서 잘 안 돼. 그거 돼지우리에 거름하고 섞어서 바다에.)

103004 @ 혼 줌썩 씨삐어놩 붋앙 혼줌썩.(한 줌씩 씨 뿌려놔서 밟아서 한줌씩)

103004 #1 골체에 그런 건.(삼태기에 그런 건.)

103004 @ 그런 건 남자덜이 아저씨가 헷수과?(그런 건 남자들이 아저씨가 했습니까?)

103004 #1 안 허민 뭣을 헤영 헐 거라게?(안 하면 무엇을 해서 할 거야?)

103004 @ 그믄 십이월돌에 보리 그 걸름을 해신가예. 보통 멧 월 달 뒙니까? 겨울이면 12월?(그러면 십이월 달에 보리 그 거름을 했는가요? 보통 몇 월 달 됩니까? 겨울이면 12월?)

103004 #1 십이월꼬지 아니고이, 음력으로이 말허민 ᄀᆞ만시라. 그 경 걸름 헐 때가 칠팔 월 아니가?(십이월까지 아니고, 음력으로 말하면 가만있어라. 그 그렇게 거름 할 때가 칠팔 월 아니가?)

103004 @ 칠 팔월이민 여름 구월 달에예?(칠팔 월이면 여름 구월 달에요?)

103004 #1 구월, 시월인가?(구월, 시월인가?)

103004 @ 음력?(음력?)

103004 #1 응. 양력은 못 곧나만은.(응. 양력은 못 말하지만.)

103004 @ 10월은 될 거우다.(10월은 될 겁니다.)

103004 #1 게메이. 경허연 영영 허연 요망썩 요망썩 걸름을 헤영 그디 씨들어강 거 영 방 벌영헤사 보리가 뒈어라게. 말제라간예 그냥 씨로 뿌렷저만은이.(글쎄. 그

37) '베롱베롱ᄒᆞ다'는 생활이 옹색한 지경에서 벗어나 조금 여유있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씩 이만씩 거름을 해서 거기 씨 들어간 거 이렇게 방 벌려서 해야 보리가 된다. 나중에 되니까 그냥 씨로 뿌렸지만.)

103004 @ 옛날식.(옛날식.)

103004 #1 옛날은 경 헤낫저. 걸름에 그냥 쉡씨에 갈민 아니 뒌덴 ᄒᆞ연 꼭 걸름에 석언 꼭 경 헤연 갈아낫저게.(옛날은 그렇게 했었지. 거름에 그냥 '쉡씨'에 갈면 아니 된다고 해서 꼭 거름에 섞어서 꼭 그렇게 해서 갈았었지.)

103004 @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

103004 #2 보리 음력으로 허주기. 음력 11월 뒈 가민 보리 갈기 시작 허거든. 보리 갈아가지고 게서 삼사월에 거두와 들인다.(보리 음력으로 하지. 음력 11월 되 가면 보리 갈기 시작 허거든. 보리 갈아가지고 그래서 삼사월에 거둬들인다.)

103004 @ 걸름내고 허는 거 남자들이 주로허곡 이렇게 보비멍 허는 건 여자들이험니까?(거름내고 하는 거 남자들이 주로하고 이렇게 비비면서 하는 건 여자들이 합니까?)

103004 #2 남자는 거름내가지고 불리고 실러가고, 여자덜은 보비멍 뿌리고.(남자는 거름내가지고 밟고 실러가고, 여자들은 비비면서 뿌리고.)

103005 @ 보리 삘땐 어떵 삐어마씨?((보리 뿌릴 땐 어떻게 삐어요?)

103005 #1 어떵허여. 전인 걸름헤영 영, 영 뿌렷주만은, 이젠 삔다덜게 요새 보리 갈젠 허는 사람덜.(어떻게 해. 전에는 거름해서 이렇게, 이렇게 뿌렸지만, 이젠 뿌린다들 요새 보리 갈려고 하는 사람들.)

103005 @ 그믄 모든 씨를 다 걸름에 놩은에?(그러면 모든 씨를 다 거름에 놔서는?)

103005 #1 옛날엔 경 헤낫저게. 걸름에 갈앙 그냥 삐민이 잘 아니뒈영게. 이젠 가는 사람덜 말제라가난 씨만 삐엇저만은 옛날에 걸름에 쪙 이 쉐 질루왕 걸름 통지에 담앙 놩 쒝연 네여근에 마당에서 이젠.(옛날엔 그렇게 했었어. 거름에 갈아서 그냥 뿌리면 잘 안되어서. 이젠 가는 사람들 나중에 가니까 씨만 뿌렸지만 옛날에 거름에 쪄서 이 소 길러서 거름 돼지우리에 담아 놔서 썩혀서 꺼내서는 마당에서 이젠.)

103005 @ 쎅이는 건 메칠 걸려마씨?(썩히는 건 며칠 걸립니까?)

103005 #1 거 무신 말고? 오래 마당엔 그거 다 썩어논 거 내치고 이 쉐막에 쉐 걸름을(전화벨)오래 통시에 놔사 썩나게.(거 뭔 말이야? 오래 마당엔 그거 다 썩은 거 내치고 이 외양간에 소거름을(전화벨)오래 돼지우리에 놔야 썩지.)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이 잇수과?(보리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103006 #1 술오리, 맥주보리, 나 그거 두 가지벳긔 다른 거 모른다. 더 싱가? 어떵사.(살보리, 맥주보리, 나 그거 두 가지밖에 다른 거 모른다. 더 있는가? 어떻게야.)

103006 @ 밧 불리는 거 보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잇습니까?(밭 밟는 거 보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3006 #2 술보리, 맥주보리 그거주게.(쌀보리, 맥주보리 그거지.)

103007 @ 보리 밧 봛기, 보리봛기, 밧 볼릴 때 보리 봛읍니까?(보리 밭 봛기, 보리봛기, 밭 봛을 때 보리 봛습니까?)

103007 #1 아, 밧볼릴 때 그 저 보린 아니허곡이, 저 좁씨 삐영 볼려낫저 우리 전이 아니 붋으민 아니뒈연게. 똑똑헤영 붋아줘사 좁씨 삐영은 볼려낫저게. 이게 딱딱헤사 땅을.(아, 밭 봛을 때 그 저 보린 안하고, 저 좁씨 뿌려서 봛았었지. 우리 전에 안 봛으면 안됐었지. 똑똑해서 봛아 줘야 좁씨 뿌려서 봛았었지. 이게 딱딱해야 땅을.)

103007 @ 보린 새싹이 나민 또 볼랐지예?(보린 새싹이 나면 또 봛았지요?)

103007 #1 안 볼라도 되어. 게메 볼라줘사 든든헤영 굽이 든든헤영 뤤덴 해나도, 응 볼라줘사 좋덴 헤낫저게.(안 봛아도 돼. 글쎄 봛아줘야 단단해서 밑동이 단단해서 된다고 했어도, 응 봛아줘야 좋다고 했었지.)

103007 @ 일부러 강 막 허지 않고예?(일부러 가서 막 하지 않고요?)

103007 #1 아니 해봣저. 아니 해도 뒈니까 볼른 사람은 볼라낫저.(안 해봤지. 안 해도 되니까 봛는 사람은 봛았었지.)

103007 @ 즈근즈근 몰를 때 발로 붋아마씨?(자근자근 마를 때 발로 봛았습니까?)

103007 #1 아니게. 그 밧 갈앙 아 이디 이디 씨할 때 걸름내영 이젠 영 해대겨진듯 허게 흔 짐썩 즈근즈근 막 모여논건 안뒈곡. 마당에 널엉 씨 허텅 즈근즈근 볼롸 그걸 이젠 망탱이로 하나썩 밧디 졍 강 두망두망 뿌려이. 그걸 이제 영 손에서 보미멍 뿌리민 걸름에 그 씨가 붙엉은에 이제 두멍두멍두멍 이제 이만씩은 나오주기. 무드락무드락이. 게민 걸 보리 갈민 그냥 쉡씨에 갈아근 잘 안뒈렌. 그 걸름 그디 들어가니까 그건 뒈여. 옛날에 이젠 그냥 막 삐영 갈아불어.(아니게. 그 밭 갈아서 아, 여기 여기, 씨할 때 거름내서 이젠 이렇게 펼친듯하게 한 짐씩 자근자근 막 모여논건 안되고. 마당에 널어서 씨 섞어서 자근자근 봛아서 그걸 이젠 망태기로 하나씩 밭에 져 가서 듬성듬성 뿌려. 그걸 이제 이렇게 손에서 비비면서 뿌리면 거름에 그 씨가 붙어서 이제 듬성듬성듬성 이제 이만씩은 나오지. 뭉클뭉클. 그러면 그걸 보리 갈면 그냥 '쉡씨'에 갈아서 잘 안되었어. 그 거름 거기 들어가니까 그건 돼. 옛날에 이젠 그냥 막 삐어서 갈아버려.)

103007 @ 두 가지예? 밧 볼르기는 어떠케 합니까?(두 가지요? 밭 봛기는 어떻게 합니까?)

103007 #2 밧 볼리는 건 조 헐 때 볼리는 거고.(밭 봛는 건 조 할 때 봛는 거고.)

103007 @ 조 헐 때 볼리는 디 보리헐 때는?(조 할 때 봛는 데 보리 할 때는?)

103007 #2 안허여.(안 해.)

103007 @ 나중에 보리 퍼렁허게 나민 붋으민?(나중에 보리 파랗게 나면 봛으면?)

103007 # 그건 볼릴 수 잇어.(그건 밟을 수 있어.)

103007 @ 그건 어떵 헹 볼립니까?(그건 어떻게 해서 밟습니까?)

103007 #2 볼려주민 더 좋아.(밟아주면 더 좋아.)

103007 @ 헤봣수과? 멧 술때부터 헷수과?(해봤어요? 몇 살 때부터 해봤어요?)

103007 #2 우리가 좀 커가지고 봐가지고, 볼려. 볼린 것이 더 곡식이 좋추기.(우리가 좀 커서 봐가지고, 밟아. 밟은 것이 더 곡식이 좋지.)

103008 보리밧 김매기는 멧 번 헙니까?(보리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08 #1 혼 번 매고 두 번만 매가민 좋나게. 보리 커불어.(한 번 매고 두 번만 매면 좋다. 보리 커버려.)

103008 @ 아, 초불 두 불까지?(아, 첫 번째 두 번째까지?)

103008 #1 말째 두불 ᄒᆞ꼼 주서줘사 밧이 ᄒᆞ꼼 깨끗헤여이. 혼불 매믄 좋나만은 경해도 두불ᄁᆞ지 주서줘사.(나중에 두 번째 조금 주워줘야, 밭이 조금 깨끗해. 한 번 매면 좋지만 그래도 두 번까지 주워줘야.)

103008 @ 초불이옌 안 헹 혼 불, 두 불?(초벌이라고 안 해서 한 벌, 두벌?)

103008 #1 ᄋᆞ. 초불매고 말제 메젠ᄒᆞ민 두불은 그자 영 기영이라도 헤여줘사 깨끗헤낫저게.(응. 초벌 매고 나중에 매려고 하면 두벌은 그저 이렇게 그렇게라도 해줘야 깨끗했었지.)

103008 @ 보리밧 김메기는 멧 번 멥니까?(보리밭 김매기는 몇 번 맵니까?)

103008 #2 검질 혼번 멜 때도 두 번 멜 때도 있고.(김 한번 맬 때도 두 번 맬 때도 있고.)

103009 @ 그러면 어떤 검질들이 자람니까? ᄀᆞ란지 대완지.(그러면 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가라지, 대새풀.)

103009 #1 아이고 검질, ᄀᆞ랏은 여름에 조에 나는 거고이. 또 저울에 이제 보리 왓디 나는 건 대우리옌 허느냐? 잊어 불어졋저. 그디 진풀 같은 거, 또시 이제 또 ᄒᆞ나 무싱거렌 ᄒᆞ연게 이름 잊어 불엉 모르켜. 소웽이도 잇주만은 건 하영 안 나고이, 진풀이영 개자리[38] 그것들 낭은에 매낫저. 여름엔 또 재완지 여름에 나는 건이 고랏이 조에 나는 것덜, ᄀᆞ랏 제완지 다 검질도 지철에 나 나는 거 이. 겨울에 나는 건 겨울에 나고 여름에 나는 건 여름에 나곡 응 경허는 거라이.(아이고 김, 가라지는 여름에 조에 나는 거고. 또 겨울에 이제 보리밭에 나는 건 귀리라고 하니? 잊어버렸다. 거기 별꽃 같은 거, 또 이제 또 하나 뭐라고 하는데 이름 잊어버려서 모르겠다. 엉겅퀴도 있지만 그건 많이 안 나고, 별꽃이랑 '개자리' 그것들 나서 맸었지. 여름엔 또 대새풀 여름에 나는 건 가라지, 조에 나는 것들 가라지, 대새풀, 다 김도 제철에 나 나는 거. 겨울에 나는 건 겨울에 나고 여름에 나는 건 여름에 나고 응 그러는 거라.)

103009 @ 보리밧딘 어떤 검질이 자랍니까?(보리밭엔 어떤 김이 자랍니까?)

103009 #2 검질, 뭐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대오린 그건 막 보리 케가사 뽑

38) '개자리'는 여름에 나는 김 종류의 하나다.

아불고게.(김, 뭐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귀린 그건 막 보리 뽑아 가야 뽑아 버리고.)

103009 @ 다른 검질, 기억나는 거 잇수과?(다른 김, 기억나는 거 있어요?)

103009 #2 보리 대오리 말고 무싱거고? 보리 나올 때 제완지 ᄀᆞ튼 거. 이런 풀 같은 거 막 막 나오주기.(보리, 귀리 말고 무슨 거니? 보리 나올 때 대새풀 같은 거. 이런 풀 같은 거 막 막 나오지.)

103010 @ 보리수확은 유월초예?(보리수확은 유월초요?)

103010 #1 아니, 수확하는 거? ᄀᆞ만시라보저. 어느제 해져시? ᄀᆞ만시라보저.(아니 수확하는 거? 가만 있어봐라. 언제 했을까? 가만 있어봐라.)

103010 @ 초여름, 늦봄?(초여름, 늦봄?)

103010 #1 보리 빌 때 ᄀᆞ만시라보저. 보리 빌때가 ᄉᆞ월 음력 ᄉᆞ월 오월 음력으로 양력 모른다. 그 정도 뒈실거여. 아메도.(보리 빌 때 가만 있어봐라.. 보리 벨 때가 사월 음력 사월 오월 음력으로 양력 모른다.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도.)

103010 @ 어떵 비영 어떵 묶언? 어떵?(어떻게 베여서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103010 #1 보리 빌때가 5월, 비어 놩 ᄆᆞᆯ령 묶엉 이젠 클로 홀탕 집이 오랑 경 헤영 영 도깨로 두드려났저. 엿날덜은 이제 말째라간에 그냥 기곙이로 다 장만혯주만은 말째라 가믄 또 비는 거영 다 기계로 헤낫저. 우리 처음엔 호미로 비어당이. 비어놓앙 그디 영 패와놩 몰령, 묶엉 왕, 이제 또 클에 홀탕, 경 도깨로 두드려낫저게. 엿날 말째라 가난 기곙이로 다 비고 그냥 장만헹 내려와낫저게. 말째라 가난 처음엔 경 비여근에 헤낫저만은 말째라 가난 기계로 비영 그냥 그디서 또 장만해정 이제 내려받앗저. 게 보릿댄 알러레 홀타지고.(보리 벨 때가 5월, 베어 놔서 말려서, 묶어서 이젠 클로 홅어서 집에 와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리깨로 두드렸었지. 옛날은 이제 나중에 되니 그냥 기계로 다 장만했지만은 나중에 가면 또 베는 거랑 다 기계로 했었지. 우리 처음엔 호미로 베어다가. 베어 놔서 거기 이렇게 펴 놔서 말령 묶어 와서, 이제 또 틀에 홅어서, 그렇게 도리깨로 두드렸었지. 옛날 나중에 가니까 기계로 다 비고 그냥 장만해서 내려왔었지. 나중에 가니까 처음엔 그렇게 베여서 했었지만 나중에 가니까 기계로 베어서 그냥 거기서 또 장만해서 이제 내려 받았지. 그래서 보릿대는 아래로 홅어지고.)

103010 #1 보리비레 꼭 다녔었고 보리 그거 안 헹 무싱거 헹 살아? 거 혜사 아이덜도 먹고 우리도 먹고 헹 살 거 아니라.(보리 베러 꼭 다녔었고, 보리 그거 안 해서, 뭐 해서 살아? 그거 해야 아이들도 먹고 우리도 먹고 해서 살 거 아니라.)

103010 @ 풀이름들 기억 나는 거예? 것도 다 옛날 제주말 이라부난. 그믄 보리 수확할 때는 베고, 묶고, 홀트고.(풀이름들 기억나는 거요? 그것도 다 옛날 제주 말이라 버리니까. 그러면 보리 수확할 때는 베고, 묶고, 홅고.)

103010 #2 묶어가지고 실러다가 홀탕.(묶어가지고 실어다가 홅어서.)

103010 @ 벨 때는 호미로 베고예.(벨 때는 호미로 베고요?)

103010 #2 호미로 베고.(호미로 베고.)

103010 @ 멧 살 때부터 베봣수과?(몇 살 때부터 베어 봤습니까?)

103010 #2 우리 어릴 때 커갈 때.(우리 어릴 때 커갈 때.)

103010 @ 묶으는 건 뭇으로, 뭇으로예?(묶으는 건 뭇으로, 뭇으로요?)

103010 #2 거 보릿대로 영, 영 헹 묶으주기게.(그거 보릿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묶지.)

103010 @ 보릿대로 영 꼬아 가지고 묶엉은에 그걸 어떵 헷수과? 어디 가져가? 집이.(보릿대로 이렇게 꼬아 가지고 묶어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가져가? 집에.)

103010 #2 집이 실러다가 홀탕.(집에 실어다가 훑어.)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10 #3 보리를 수확허젠 허민 보리 비멍 묶엉은에이 밧디서 홀탕 다 장만해 왓지만은, 지금은 밧디서 그냥 막 장만허멍 기계가 셔라. 큰 거. 참 지금은 농사헐 만허여.(보리를 수확하려고 하면 보리 베면서 묶고 나서 밭에서 훑어서 다 장만해왔지만, 지금은 밭에서 그냥 막 장만하면서 기계가 있어. 큰 거. 참 지금은 농사할 만해.)

103010 @ 옛날 했던 거 골으쳐 줍써? 호미로 베고.(옛날 했던 거 가르쳐 주세요? 호미로 베고.)

103010 #3 호미로 비엉.(호미로 베어서.)

103010 @ 묶고.(묶고.)

103010 #3 영 호미로 비멍 즈근즈근 다 허여 나가주기.(이렇게 호미로 베면서 자근자근 다 해 나가지.)

103010 @ 예.(예.)

103010 #3 경허믄 이제 ᄆᆞ른 다음에 이제 묶은다. 묶은 다음엔 닥닥 데메ᄋᆞ정 집이 집에 막 시꺼온다. 집이덜 시꺼당은에 보리 영 눌 봉 어 그건 보리 이 집은 많이 비였구나. 눌 허는 거 봉 눌 눈 거 봉 얘기헌다.(그러면 이제 마른 다음에 이제 묶는다. 묶은 다음엔 닥닥 쌓고서 집에 집에 막 실어온다. 집에들 실어다가 보리 이렇게 가리 봐서 어, 그건 보리 이 집은 많이 베었구나. 가리 하는 거 봐서 가리 가린 거 봐서 얘기한다.)

103010 @ 아, 눌 봉 여기 많이 허였구나, 눌 허는 거라예?(아, 가리 봐서 여기 많이 했구나, 가리 하는 거지요?)

103010 #3 응.(응.)

103011 @ 보리 불리고.(보리 불리고.)

103011 #1 ᄋᆞ게. 두드령 도깨덜 두드령 마당에서 홀탕.(응. 두드려서 도리깨들 두드려서 마당에서 훑어서.)

103011 @ 메타허곡예?('메타'하고요?)

103011 #1 ᄋᆞ게. 말제라간안 편안해연.(응. 나중에 가니까 편안해져서.)

103011 @ 다음 훑기 도깨질까지 헨예?(다음 훑기 도리깨질까지 했나요?)

103011 #1 ᄋᆞ게. 장만헤낫저.(응. 장만했었지.)

103011 @ 껍데기 벳기지 못헌 건 그냥 손으로.(껍데기 벗기지 못한 건 그냥 손으로.)

103011 #1 아니여, 손으로 못 벳긴다. 기곙이에 강 지고 이 방앳간 셔낫저. 응. 방앳공장에 강 져당 쏠 헤여근에 ᄀᆞ레에 또 ᄀᆞᆯ앙 그냥 그 저 통채 허젠ᄒᆞ민 밥 오래난 이 경 허멍덜 헤낫저.(아니, 손으로 못 벗긴다. 기계에 가서 지고, 이 방앗간 있었지. 응. 방아공장에 가서 져다가 쌀 해서 맷돌 또 갈아서 그냥 그 저 통채 하려고 하면 밥 오래니까 이 그렇게 하면서들 했었지.)

103011 @ ᄒᆞᆯ탕 클이옌 허지예? ᄒᆞᆯ탕 보리클?(홅어서 클이라고 하지요? 홅어서 보리클?)

103011 #2 보리클에 ᄒᆞᆯ탕.(보리틀에 홅어서.)

103011 @ 보리클에 홀탕 다음 타작 도깨질?(보리틀에 홅어서 다음 타작 타작?)

103011 #2 도깨질 도깨질도 허곡 ᄆᆞᆯ로도 ᄇᆞᆯ리고 걸.(도리깨질, 타작도 하고 말로도 밟고 그걸.)

103011 @ ᄆᆞᆯ로도 ᄇᆞᆯ리고예? ᄆᆞᆯ로도.(말로도 밟고요?, 말로도.)

103011 #2 ᄇᆞᆯ림도 ᄒᆞ곡 마당에서.(밟기도 하고 마당에서.)

103011 @ 마당에서예? 게민 도깨로 멧 명 영.(마당에서요? 그러면 도리깨로 몇 명 이렇게.)

103011 #2 도깨로 두들림도 하곡.(도리깨로 두들리기도 하고.)

103011 @ 아버지, 어머니 다 ᄀᆞ치.(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103011 #2 응. 다 ᄀᆞ치.(응. 다 같이.)

103011 @ 그믄 보리를 집이 가졍 강, 보리타작을 도깨질헙니까? 홀터?(그러면 보리를 집이 가져가서, 보리타작을 도리깨질 합니까? 홅어?)

103011 #3 저 홀트주기. 홀탕은에 이제 장만헐 땐 기계에 담앙 막 쏠 나온다. 기계 영 돌아가멍.(저 홅지. 홅어서 이제 장만할 땐 기계에 담아서 막 쌀 나온다. 기계 이렇게 돌아가면서.)

103011 @ 기계담기전이 도깨질?(기계 담기 전에 도리깨질?)

103011 #3 도깨질 허는 사람도 싯주만은, 도깨질 거 얼마나 허는 것고? 그 경엇다만은.(도리깨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리깨질 거 얼마나 하는 것고? 그 그렇게 없다만.)

103011 @ 삼촌 멧 살 때부터 기계가 나왕 헷수과?(삼촌 몇 살 때부터 기계가 나와서 했습니까?)

103011 #3 나 기계가 나온 때가 군대 강 오랑 뭐 헐 때난 오래 뒈서. 기계 나온 지가.(나 기계가 나온 때가 군대 가 와서 뭐 할 때니까 오래 되었어. 기계 나온 지가.)

103011 @ 도깨질 헐 때는 옛날에 헤난 거지예?(도리깨질 할 때는 옛날에 했었던 거지요?)

103011 #3 ᄋᆞ. 옛날이고.(응. 옛날이고.)

103012 @ ᄀᆞ레에 ᄀᆞᆯ앙 연자매는 연자매도 이섯수과?(맷돌에 갈아서 연자매는 연자매도 있었습니까?)

103012 #1 연자매가 뭐꼬?(연자매가 뭐니?)

103012 @ ᄆᆞᆯᄀᆞ래, ᄆᆞᆯ방에?(연자매, 연자매?)

103012 #1 ᄋᆞ. ᄆᆞᆯ방에도 션. 그거 쉐 헤영 둥글이멍 이제 그레 놩 이제 ᄆᆞᆯ방에로 방에 쳥.(ᄋᆞ응. 연자매도 있었어. 그거 소 해서 굴리면서 이제 그리 놔서 이제 연자매로 방아 찧어서.)

103012 @ ᄆᆞᆯ방에가 월령에는 멧 개 이섯수과?(연자매가 월령에는 몇 개 있었습니까?)

103012 #1 요라 개 셔낫저. 저디도 ᄒᆞ나, 요디도 ᄒᆞ나, 저 말땅[39]아래 ᄒᆞᆫ질 네 개나 알아졈저. 네 개 셔난. 거 둥글이멍 그디서 쳐져이.(여러 개 있었지. 저기도 하나, 요기도 하나, 저 '말땅' 아래 한질 네 개나 알겠어. 네 개 있었어. 거 굴리면서 거기서 찧어지지.)

103012 @ 엇어. 아무것도.(없어. 아무것도.)

103012 #1 엇나게. 걸 뭣 허레 허느니게?(없다니까. 그걸 뭐 하러 하니?)

103012 @ 아오야, 그거 어떤 마을엔 오고셍이 보관뒌 디도 잇어예, 신엄도 잇고.(아이고, 그거 어떤 마을엔 그대로 보관된 데도 있어요, 신엄도 있고.)

103012 # 엿날 거렌이.(옛날 거라고.)

103012 @ 덕수도 하나 잇고예.(덕수도 하나 있고요.)

103012 #1 아이고, 거 잘 놔뒀저. 모른다게, 요새 사람덜은.(아이고, 그거 잘 놔뒀네. 모른다, 요새 사람들은.)

103012 @ 게난마씨. 마을에도 명물이 뒈가지고.(그러게말이에요. 마을에도 명물이 돼가지고.)

103012 #1 아이고, 거 봐. 우린 보민 알지이. 옛날 우리 봐나난. 새로 난 사람덜은 모른다게. 거 잘 놔뒀저.(아이고, 거 봐. 우린 보면 알지. 옛날 우리 봤었으니까. 새로 난 사람들은 모른다. 그거 잘 놔뒀네.)

103012 @ ᄆᆞᆯ방에가 네 개가 이섯구나예?(연자매가 네 개가 있었군요?)

103012 #1 월령 ᄋᆞ게. 네 개가 만딱 아래 한질에 무끗[40]디 네 개 알아졈저. 네 개나 셔낫저.(월령 응. 네 개가 모두 아래 한길에 '무끗'에 네 개 알아지겠다. 네 개나 있었지.)

103012 @ 저 ᄀᆞ레로 ᄀᆞᆯ아?(저 맷돌로 갈아?)

103012 #1 ᄀᆞ레로 ᄀᆞᆷ벳긔 어떵허여게?(맷돌로 가는 것밖에 어떻게 해?)

103012 @ 겡 ᄀᆞ루를 체 쳥 어떵 헹 먹엇수과?(그래서 가루를 체 쳐서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

39) '말땅'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의 옛 지명이다.
40) '무끗'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의 옛 지명이다.

103012 #1 어떵허여? ᄀᆞ루 물에 탕 먹고, 개역이라고.(어떻게 해? 가루 물에 타서 먹고, 미숫가루라고.)

103012 @ 밥도 비병 먹고 우뭇가사리에도 놩 먹고? 우미?(밥에도 비벼서 먹고 우뭇가사리에도 놔서 먹고? 우뭇가사리?)

103012 #1 아, 우미. 아 난 우유엔 헴젠. 먹는 건 ᄀᆞ치.(아, 우뭇가사리. 아 난 우유라고 한다고, 먹는 건 같이.)

103012 @ 요즘은 우유에도 탕 먹주만은.(요즘은 우유에도 타서 먹지만.)

103012 #1 맞주. 요새 우유가 어디 시니? 엿날. 개역헤영 그자 밧디 강은에 물에도 탕 먹고 밥에도 부병 먹고.(맞지. 요새 우유가 어디 있니? 옛날. 미숫가루해서 그저 밭에 가서 물에도 타서 먹고 밥에도 비벼서 먹고.)

103012 @ 그 보리쏠은 어떻게 장만헙니까? 물방에로 어떵.(그 보리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연자매로 어떻게.)

103012 #1 아니, 저 이디이, 이 이디 방에도 이제 두 개벳긔 없지만은, 옛날에도 우리 방엣간에 안 강 이 물방에렌 헌 것이 싯저. 돌멩이 영 헹 빙빙 돌멍 허는 그거 물방거리옌 헌다.(아니, 저 여기, 여 여기 방아도 이제 두 개밖에 없지만, 옛날에도 우리 방앗간에 안 가서 이 연자매라고 한 것이 있지. 돌멩이 이렇게 해서 빙빙 돌면서 하는 그거 '물방거리'라고 한다.)

103012 @ 이때는 연자매, 맷돌에 장만을 합니까, 보리쏠을?(이때는 연자매, 맷돌에 장만을 합니까, 보리쌀을?)

103012 #2 아, 거 다 장만헤영 이젠 물령 이젠 먹게 뒈야 ᄀᆞᆯ주기. 저거.(아, 그거 다 장만해서 이젠 말려서 이젠 먹게 돼야 갈지. 저거)

103012 @ 먹게 뒈야 고팡에 놧당 먹게 뒈민 여기가 물방에가 멧 개 이섯수과?(먹게 되야 고방에 놨다가 먹게 되면 여기가 연자매가 몇 개 있었습니까?)

103012 #2 물방에가 하나, 둘, 네 밧디 셔나신가?(연자매가 하나, 둘, 네 군데 있었나?)

103012 @ 월령엔 물방에가 네 밧디예, 거기는 저 초가 지붕도 영 씨와낫수과? 네 개 다?(월령엔 연자매가 네 군데요, 거기는 저 초가 지붕도 이렇게 씌웠었습니까? 네 개 다?)

103012 #2 어, 씨와서.(어, 씌웠어.)

103012 @ 다 네 개 다. 물방에가 네 개 이섯고 거기에 참여허젠 허민, 다 줄섯당 삼촌네 많이 헷엇수과?(다 네 개 다. 연자매가 네 개 있었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다 줄섰다가 삼촌네 많이 했었습니까?)

103012 #2 많이 허주.(많이 하지.)

103012 @ 많이 헹 거기 어머니 ᄯᅳ랑 강 어머니가 헙니까? 아부지가 헙니까?(많이 해서 거기 어머니 따라 가서 어머니가 헙니까? 아버지가 합니까?)

103012 #2 뭣을?(뭣을?)

103012 @ 물방에 허젠 허믄 아부지가?(연자매 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103012 #2 물방에 허젠 허믄 식구가 전부 가도 뒈여. 전부 그디 가가지고 빙빙 그 저 물 헤가지고.(연자매 하려고 하면 식구가 전부 가도 돼. 전부 거기 가가지고 빙빙 그 저 말 해가지고.)

103012 @ 삼촌은 어렷을 땐 어떤 걸 도왓고 나중엔 나이 들어근엔 물을 이렇게?(삼촌은 어렸을 땐 어떤 걸 도왔고 나중엔 나이 들어선 말을 이렇게?)

103012 #2 물을 영 헤영 빙빙 돌리게시리 뒤에 사가지고 영 빙빙.(말을 이렇게 해서 빙빙 돌게끔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빙빙.)

103012 @ 뭐렌 헙니까? 이런 식으로 뭐렌 헙니까?(뭐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합니까?)

103012 #2 돌아가주기게. 빙빙.(돌아가지. 빙빙.)

103012 @ 뭐렌 말한테 때립니까?(뭐라고 말한테 때립니까?)

103012 #2 아 말 안 들민 두드림도 허곡, 어려려 소리도 허곡.(아 말 안 들면 두드리기도 하고, '어려려' 소리도 하고.)

103012 @ 소리로 흔 번 해봅서.(소리로 한 번 해보세요.)

103012 #2 와아 흔저 가자 영 헤영은에 말도 허곡 워려려려 허주기. 워려려려.(와아, 어서 가자 이렇게 해서 말도 하고 '워려려려' 허주기. '워려려려'.)

103012 @ 말이 헙니까? 소가 헙니까? 물방에니까 물이?(말이 합니까? 소가 합니까? 연자매니까 말이?)

103012 #2 물이 허주기.(말이 하지.)

103012 @ 무사 손 안허곡 물이?(왜 손 안하고 말이?)

103012 #2 소도 허여.(소도 해.)

103012 @ 겐디 물이 말을 더 잘 들은덴 헙디다예?(그런데 말이 말을 더 잘 듣는다고 하던데요?)

103012 #2 물이 좀 재주기.(말이 좀 빠르지.)

103012 @ 재여. 게민 밥, 보리밥 먹고 허곡 보리쏠을 방엣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맷돌로?(재어, 그러면 밥, 보리밥 먹고 하고 보리쌀을 방앗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맷돌로?)

103012 #2 맷돌로 골앙.(맷돌로 갈아서.)

103012 @ 어머니가 허는 거 봣수과?(어머니가 허는 거 봤습니까?)

103012 #2 맷돌로 골앙은에.(맷돌로 갈아서는.)

103012 @ 삼촌은 안헤봣잖아예?(삼촌은 안 해봤잖아요?)

103012 #2 응, 안 헤봣주기.(응, 안 해봤지.)

103012 @ ᄀᆞ레는 안 골고?(맷돌은 안 갈고?)

103012 #2 안 골고.(안 갈고.)

103012 @ 어머니가 허곡?(어머니가 하고?)

103012 #2 어머니가 허곡.(어머니가 하고.)

103012 @ 물방거리?('물방거리'?)

103012 #3 물방, 물방.(연자매, 연자매.)

103012 @ 물방?(연자매?)

103012 #3 응. 이 돌멩이 동그랑헌 거 거 안 봐난?(응. 이 돌멩이 동그란 거 안 봤었니?)

103012 #3 예. 봐낫수다. 물방에렌 헙니까? 물방?(예. 봤었습니다. 연자매라고 합니까? 연자매?)

103012 #3 물방, 물방 헌다. 그걸로 그디 강 쉐 메왕 빙빙 돌아뎅기멍 찌주기.(연자매, 연자매 한다. 그걸로 거기 가서 소 메워서 빙빙 돌아다니면서 찧지.)

103012 @ 쉐 메왕 빙빙 돌아지멍 찌민, 그 보리쏠을 걸 솔보리렌허지예?(소 메워서 빙빙 돌아지면서 찧으면, 그 보리쌀을 그걸 쌀보리라고 하지요?)

103012 #3 응게, 솔보리.(응, 쌀보리.)

103012 @ ᄀᆞ레 ᄀᆞ망을 뭐렌 헙니가? ᄀᆞ레 이걸 ᄀᆞ래ᄌᆞ룩이옌 헙니까? ᄀᆞ래ᄌᆞ룩.?(맷돌 구멍을 뭐라고 합니까? 맷돌 이걸 맷손이라고 합니까? 맷손?)

103012 #3 ᄀᆞ래ᄌᆞ룩.(맷손)

103012 @ 그리고 찔르는 나무를 뭐렌 허고?(그리고 찌르는 나무를 뭐라고 하고?)

103012 #3 ᄀᆞ래ᄌᆞ룩게.(맷손.)

103012 @ 여기 가운데 저 웃착하고 아래착 찔르는 거 그거 이름 모르쿠과?(여기 가운데 저 위짝하고 아래짝 찌르는 거 그거 이름 모르겠습니까?)

103012 #3 그 저 뭐 뭐옌 해.(그 저 뭐 뭐라고 해.)

103012 @ 좃똥이렌 헷덴 허드라고예?(맷수쇠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103012 #3 찔르는 거?(찌르는 거?)

103012 #2 거 안트레 들어가사 ᄀᆞ레 갈아질 거 아니가?(그거 안으로 들어가야 맷돌 갈아질 거 아니가?

103012 #3 게메. 그거 뭐 이름 뭐시라?(그러게. 그거 뭐 이름 뭐라?)

103012 @ 이름 엇수다. 그자 ᄀᆞ레렌 허주.(이름 없습니다. 그저 맷돌이라고 하지.)

103012 #2 할머니가 좃똥이렌 헷덴 허멍.(할머니가 맷수쇠라고 했다고 하면서.)

103012 #3 좃똥은 싯저. 좃똥은 그 가운디.(맷수쇠는 있지. 맷수쇠는 그 가운데.)

103012 @가운디 찔르는 거?(가운데 찌르는 거?)

103012 #3 응. 그거 보고 좃똥이렌 헌다.(응. 그거 보고 맷수쇠라고 한다.)

103012 @ 구멍은 이름은 모르쿠과?(구멍은 이름은 모르겠습니까?)

103012 #2 구멍 이름은 난.(구멍 이름은 난.)

103012 #3 혹이옌 헌다. 그거ᄀᆞ라 혹 저.(확이라고 한다. 그거보고 확 저.)

103012 @ 남방에?(남방아?)

103012 #2 남방에 그거 저.(남방아 그거 저.)

103012 #3 들러 가가믄 영영 영 드러 치곡 영영 들러 강 뚜로 영 드러 치곡 헤 가믄 혹?(들고 가면 이렇게 이렇게 마구 치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서 따로 이렇게 마구 치고 해가면 확?)

103012 @ᄀᆞ래혹. ᄀᆞ래혹, ᄀᆞ망을?(방아확. 방아확, 구멍을?)

103012 #2 들어가는 거 혹 쏠 들어가는 거영 혹이옌 영 이만허주기. 이만허믄 이디 영영.(들어가는 거 확 쌀 들어가는 거랑 확이라고 이렇게 이만하지. 이만하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103012 #3 옛날엔 그 ᄀᆞ레 굴멍 제사 돌아와 가민 건덕 허영 부껑은에 식게 해나고 헤나세.(옛날엔 그 맷돌 갈면서 제사 돌아와 가면 건더기 해서 끓어 넘쳐서 제사 해나고 했었어.)

103012 @ 아, 게난예? 이런 말을 모르는 할머닌 모르고 아는 할머닌 그런 것들 때문에예.(아, 그니까요? 이런 말을 모르는 할머닌 모르고 아는 할머닌 그런 것들 때문에요.)

103012 #3 보릿찍, 보릿대렌 헌다.(보릿짚, 보릿대라고 한다.)

103012 @ 당그네?(고무래?)

103012 #3 아니 ᄀᆞ레 영 노민 이디 보리 놩 솔솔 그레 영 드물리지 안 허느냐? 아구리 아구리 뭣엔 굴아?(아니 맷돌 이렇게 놓으면 이디 보리 놔서 살살 거기 이렇게 들이밀지 않니? 입구, 입구 뭐라고 말해?)

103013 @ 보리쌀로 개역을 허면 비올 때 개역헤영.(보리쌀로 미숫가루를 하면 비올 때 미숫가루해서.)

103013 #1 ᄋᆞ게. 그 보리 헤영 보깡이 굴민 개역 뭰다게. 겡 밧디 강 거 카먹고 먹기 좋게끔 헹.(응. 그 보리 해서 볶아서 갈면 미숫가루 된다. 그렇게 밭에 가서 거 타먹고 먹기 좋게끔 해서.)

103013 @ 겨민 밥헹 먹고 밥헤봣수과, 보리밥?(그러면 밥해서 먹고 밥 해봤습니까, 보리밥?)

103013 #2 밥헤 보주기게.(밥해 보지.)

103013 @ 어머니 밧디 가불민?(어머니 밭에 가버리면?)

103013 #2 밧디 가불민.(밭에 가버리면.)

103013 @ 누나덜 있고 허난 뭐.(누나들 있고 하니까 뭐.)

103013 #2 누난 뭐 농사덜 짓고.(누난 뭐 농사들 짓고.)

103013 @ 개역은 어떵 헹 먹엇수과?(미숫가루는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103013 #2 개역.(미숫가루.)

103013 @ 보리개역 만드는 거 봐봣수과? 비 오민?(보리미숫가루 만드는 거 봐봤습니까? 비 오면?)

103013 #2 ᄋᆞ. 비오민 솟뚜껭이 놩은에 보깡, 보까가지고 그거 이젠 그 저 맷돌 거시기에 놩 굴아. 굴앙은에 좀질게 굴아 가지고.(응. 비오면 솥뚜껑에 놔서 볶아서, 볶아가지고 그거 이젠 그 저 맷돌 거시기에 놔서 갈아. 갈아서 잘게 갈아 가지고.)

103013 @ 체 청.(체 쳐서.)

103013 #2 치엉 ᄀᆞ져오곡 헷주.(쳐서 가져오고 했지.)

103013 @ 겡 우미에 놩도 먹고, 물에 캉 먹고.(그래서 우미에 놔서도 먹고, 물에 타서 먹고.)

103013 #2 물에 캉 먹고.(물에 타서 먹고.)

103013 @ 보리 그거 개역, 당원 그런 거 놘 ᄃᆞ난 가루도 먹고 당원도 놉니까?(보리 그거 미숫가루, 당원 그런 거 놔서 다니까 가루도 먹고 당원도 놉니까?)

103013 #2 설탕.(설탕.)

103013 @ 설탕, 옛날에 옛날 설탕이 어실 때도 잇엇주.(설탕, 옛날에 옛날 설탕이 없을 때도 있었지.)

103013 #2 아니 당원, 그래서 설탕 안 헨 설탕 놓는 거야.(아니 당원, 그래서 설탕 안 해서 설탕 놓는 거야.)

103013 @ 그니까 ᄃᆞᆯ고예?(그러니까 달고요?)

103013 #2 ᄃᆞᆯ게 멘든 거.(달게 만든 거.)

103013 #3 그거를 개역을 멘들거나.(그거를 미숫가루를 만들거나.)

103013 #3 응. 개역은 또 이제 그 개역 멘들젠 허민 방에 강 거 찌지 안행 보리 ᄆᆞᆯ리왕, 강 저 방엣간에 강 개역 ᄀᆞ는 기계에 강은에 개역 ᄀᆞᆯ아당 먹는 거 아니가 이? ᄀᆞ레에도 헤낫저. ᄀᆞ레, 개역 먹젠 허민 영영 돌앙.(응. 미숫가루는 또 이제 그 미숫가루 만들려고 하면 방아에 가서 그거 찧지 않고 보리 말려서, 가서 저 방앗간에 가서 미숫가루 가는 기계에 가서 미숫가루 갈아다가 먹는 거 아니가? 맷돌에도 했었지. 맷돌, 미숫가루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103013 @ 개역.(미숫가루.)

103013 #3 보깡.(볶아서.)

103013 #3 콩도 서꺼근에.(콩도 섞어서.)

103014 @ 보리ᄀᆞ시락 보리ᄀᆞ시락에 얽힌 거 잇수과? ᄀᆞ시락.(보리까끄라기, 보리까끄라기에 얽힌 거 있습니까? 까끄라기.)

103014 #1 ᄀᆞ시락 궤양 ᄇᆞᄅᆞᆷ이 알러레 가게 불령 사람시레 오지 못허게 사람 찔러부렁 살아지느냐? 항상 ᄇᆞᄅᆞᆷ 알러레 가게끔 헤사 불려근에 ᄇᆞ름 우이 오지 못허게 허지. ᄇᆞ름 우이 왕 뒈느냐 ᄇᆞᄅᆞᆷ 아래 가사 저레 영 벳긧더레 네치곡 사람신디 안 오지.(까끄라기 고이 바람이 아래로 가게 불려서 사람에게 오지 못하게 사람 찔러버려서 살아지냐? 항상 바람 아래로 가게끔 해야 불려서 바람 위에 오지 못하게 하지. 바람 위에 와서 되느냐? 바람 아래 가야 저리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치고 사람에게 안 오지.)

103014 @ 보리낭껭이는 어디 눌 헷수과?(보리짚은 어디 가리 했습니까?)

103014 #1 응. 눌어낫저.(응. 가리했었지.)

103014 @ 눌어난예? 보리낭깽이 눌엉 거기서 애기 날 때 북덕자리[41].(가리었었

41) '북덕자리'는 짚, 검불 따위가 난잡하게 깔린 자리를 말한다. '북덕 방'이라고도 한다.

나요? 보리짚 가리어서 거기서 애기 날 때 '북덕자리'.)

103014 #1 그것도 아졍당 끌안 나고이, 보리낭껭이 애기날 때 방에.(그것도 가져다가 깔아서 낳고, 보리짚 애기날 때 방아.)

103014 @ 멧 번째까지 그축 헤낫수과?(몇 번째까지 그렇게 했었습니까?)

103014 #1 몰르켜. 우리 ᄀᆞ자 경 헤실 거라.(모르겠다. 우리 거의 그렇게 했을 거야.)

103014 @ 부엌에가 아니고 방에 걸 깔앗수과?(부엌에 말고 방에 그걸 깔았습니까?)

103014 #1 게. 그것도 ᄀᆞ자 부엌에 아니고 방에.(그래. 그것도 거의 부엌에 아니고 방에.)

103014 @ 방에 북덕자릴 끌안?(방에 '북덕자릴' 깔았어?)

103014 #1 보리낭. 우리 어릴 때 그것이 보통 허는 일이니까.(보리 짚. 우리 어릴 때 그것이 보통 하는 일이니까.)

103014 @ 피도 나오곡 태반도 나오곡 허는 보리낭에.(피도 나오고 태반도 나오고 하는 보리짚에.)

103014 #1 게. 그거 문딱 헤당 불 케와불고게.(그래. 그거 모두 해다가 불 태워버리고.)

103014 @ 불 케우고예. 어느 번째 아이가 날 때 아픕디가?(불 태우고요. 몇 번째 아이가 날 때 아픕던가요?)

103014 #1 야이, 문딱 아프주게. 아니도 아프느냐?(얘, 모두 아프지. 안 아프니?)

103015 @ 그난 멧 시간 동안 막.(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막.)

103015 #1 몰르켜. 멧 시간사 틀류와신디게. 그거 아기 나본 사람 첨 또 낳첸은 안 허주만은 또시 그거 경 생겨근에 또 나오곡, 나오곡. 나도 아홉 개를 나세게. 여섯 갠 커도이. 뚤이 네 개, 아덜이 두 개 이제 컷저. 나긴 아홉 갤 낫저. 그때게, 아이고 답답, 답답, 아이 이젠 하나 두 개 난 설른다만은 아이고 답답이라.(모르겠다. 몇 시간이나 뒤틀렸는지. 그거 아기 나본 사람 참 또 낳으려고 안 하지만 또 그거 그렇게 생겨서 또 나오고, 나오고. 나도 아홉 개를 낳았어. 여섯 갠 커도. 딸이 네 개, 아들이 두 개, 이제 컸지. 낳긴 아홉 갤 낳았지 그때, 아이고 답답, 답답, 아이 이젠 하나 두 개 낳아서 그만두지만 아이고 답답이라.)

103014 @ 아기 나단도 뭐허고예. 아홉 개 낫덴 허난.(아기 낳다가도 뭐하고요. 아홉 낳았다고 하니까.)

103014 #1 아홉 개 난게.(아홉 개 낳았어.)

103014 @ 게난 세 갠?(그러니까 세 갠?)

103014 #1 죽어 불곡, 세 살 난도 죽고 그 안에도 죽고 여섯 갠 컷저. 아홉 개 난.(죽어 버리고, 세 살 나서도 죽고 그 안에도 죽고 여섯 갠 컸지. 아홉 개 낳았어.)

103014 @ 보리 ᄀᆞ시락에 대한 그런 거 어릴 때 막 이런 디 두드레기 나곡.(보리 까끄라기에 대한 그런 거 어릴 때 막 이런 데 두드러기 나고.)

103014 #1 무사 아니라게. 까락까락 춤 그거 허영 좋을 사람 ᄒᆞ나 엇일거여. ᄀᆞ시락 어릴 때덜은 그거.(왜 아니냐. 까락까락 참 그거 해서 좋을 사람 하나 없을 거야. 까끄라기 어릴 때들은 그거.)

103014 @ᄀᆞ시락, 보릿짚, 보릿 ᄀᆞ시락 얘기라든가, 기억나는 거 잇수과?(까끄라기,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얘기라든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3014 #2 아아, 그런 건 안 허주만은.(아아, 그런 건 안 하지만.)

103014 @ 보릿눌 눌 때 어떵 도왓수광?(보릿가리 가릴 때 어떻게 도왔을까요?)

103014 #2 눌 아아, 보릿눌 눌 때, 그거 머.(가리 아아 보릿가리 가릴 때, 그거 머.)

103014 @ 아버지가 헙니까?(아버지가 합니까?)

103014 #2 영 아버지가 허면은 아레 상 올려줘야.(이렇게 아버지가 하면은 아래서서 올려줘야.)

103014 @ 게민, 올려주고 나중에는 아덜덜이 건 도와줍니까?(그러면, 올려주고 나중에는 아들들이 건 도와줍니까?)

103014 #2 아덜이 도와줘야지.(아들이 도와줘야지.)

103014 @ ᄂᆞ람지는 누가 합니까?(이엉은 누가 합니까?)

103014 #2 ᄂᆞ람지는 아버지가 다 하지.(이엉은 아버지가 다 하지.)

103014 @ 그거는 뭘로 헙니까? 새로?(그거는 무엇으로 합니까? 띠로?)

103014 #2 새로, 새로. 영 그저 영 ᄂᆞ람지 멘들앙.(띠로, 띠로. 이렇게 그저 이렇게 이엉 만들어서.)

103014 @ ᄂᆞ람지를 우에 더끄는 이유는 비완 젖지 않게?(이엉을 위에 덮는 이유는 비와서 젖지 않게?)

103014 #2 비완 젖지 안허게시리 허는 거주기.(비와서 젖지 않게끔 하는 거지.)

103014 @ 보릿눌은 버리지 안헹 다 그추룩 몽땅 그걸로 저 부엌에서 정지에서 불도 솜고.(보릿가리는 버리지 않고 다 그렇게 모두 그걸로 저 부엌에서 정지에서 불도 때고.)

103014 #2 옛날은 보릿대로 전부 밥을 헷주게.(옛날은 보릿대로 전부 밥을 했지.)

103014 @ 밥을 허고 또 통시에도 저 바싹허게도 허곡, 소하고는 관계엇수과? 보리낭 끌아주지, 쉐왕에.(밥을 하고 또 돼지우리에도 저 바싹하게 하고, 소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보리짚 깔아주지. 외양간에.)

103014 #2 무사 안 끌아줘게? 질락질락 허거든. 끌아주거든.(왜 안 깔아주나? 질락질락 하거든. 깔아주거든.)

103014 @ 질락질락하면예, 먹진 안허고예. ᄀᆞ시락은, ᄀᆞ시락 들어봣수과?(질락질락하면요, 먹진 않고요. 까끄라기는, 까끄라기 들어봤습니까?)

103014 #2 ᄀᆞ시락, 옛날은 이 저 ᄀᆞ시락헤영 뭐 헤낫주기게. 불 때영 이 저 구들에 ᄃᆞ시게 굴묵[42]헹은에, 저 그디 놩은에 불 솔랑 ᄯᅳᆺ이.(까끄라기, 옛날은 이 저 까끄라기해서 뭐 했었지. 불 때서 이 저 방에 따뜻하게 '굴묵'해서, 저 거기 놔서 불 때서 따뜻하게.)

103014 @ 쉐똥, ᄆᆞᆯ똥 주서난 경험도 잇수과?(소똥, 말똥 주웠던 경험도 있습니까?)

103014 #3 그런 것덜 때문에 보리 베영 헌다. 옛날 보릿대로 헤영 우리 밥도 헹 먹어나세.(그런 것들 때문에 보리 베어서 한다. 옛날 보릿대로 해서 우리 밥도 해서 먹었었어.)

103014 @ 보릿대는 어떵 헷수과?(보릿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103014 #3 밥 헤먹을 때 눌게. 지들케[43].(밥 해먹을 때 가리. 땔감.)

103014 @ 지들케로 눌 눌어서.(땔감으로 가리 가리어서.)

103014 #3 눌엇단 이 소도 잇잖아? 소. 소에 묻치지 말렌 그 거름 거름허게끔 그 저 영 허게큼 ᄀᆞᆯ아준다 복삭ᄒᆞ[44]게. 통시에 돼지 소곱에도 담아 주곡 돼지 소곱에 ᄁᆞᆯ아준다 ᄯᅳ시게 허영.(가리었다가 이 소도 있잖아? 소. 소에 묻히지 말라고 그 거름 거름하게끔 그 저 이렇게 하게끔 갈아준다. '복삭하게'. 돼지우리에 돼지우리 속에도 담아 주고 돼지우리 속에 깔아준다. 따뜻하게 해서.)

103014 #3 ᄀᆞ시락은 다 불 케와 분다.(까끄라기는 다 불 태워 버린다.)

103014 @ ᄀᆞ시락은 굴묵 지들 때도 허고.(까끄라기는 '굴묵' 땔 때도 하고.)

103014 #3 굴묵도 ᄀᆞ시락은 잘 안헌다. 잘 ᄀᆞ시락은 잘 부트질 안허여. 잘 써지질 안허여. 게난 똥, ᄆᆞᆯ똥덜 싯지 않으냐? 금방 가민 금방 주서당 그런 거.('굴묵'도 까끄라기는 잘 안한다. 잘 까끄라기는 잘 붙질 않아. 잘 쓰질 않아. 그러니까 똥, 말똥들 있지 않니? 금방 가면 금방 주워다가 그런 거.)

103014 @ ᄆᆞᆯ똥으로 굴묵을 짓고예?(말똥으로 '굴묵'을 때고요?)

103014 #3 ᄋᆞ.(어.)

103015 @ 오빠덜은 공부허레 가곡?(오빠들은 공부하러 가고?)

103015 #1 ᄋᆞ게. 뚤이나 우린 난 큰뚤이곡 부지런히 마당에서 홀탕 두둘령 그거 져당.(응. 딸이나 우린 난 큰딸이고 부지런히 마당에서 홅아서 두드려서 그거 져다가.)

103015 @ 삼춘은 그렇게 어머니영 일만 일만 헷구나.(삼촌은 그렇게 어머니하고 일만 일만 했구나.)

103015 #1 게민 무싱걸 허느니?(그러면 무엇을 하니?)

103015 @ 거난 아이구 사연이 잇더라고예.(그러니까 아이고 사연이 있더라고요.)

---

42)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바깥 공간을 말한다.

43) '지들케'는 장작, 검불 따위의 불을 때는 데 쓰는 재료를 말한다. '지들커'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땔감'에 해당한다.

44) '복삭ᄒᆞ다'는 무거운 물건이 움푹 들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3015 #1 그땐 무덤, 이녁 애긴 영ᄒᆞ나 정ᄒᆞ나 죽으민 생각나는 거 죽어분 건 잘도 고와라만은 덕행이렌 이름도 지와나곡이, 또 여덟 둘만이 죽은 ᄉᆞ나이 놈도 경 셔나곡 이제 여슷 갠 컷저. 똘 니 개, 아덜 두 개, 아홉 갠 난 아이구 거 못살앙 먹을 것도 엇이멍 이젠 하나 낭 설른다만은 아이고 답답이라.(그땐 무덤, 이녁 애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으면 생각나는 거. 죽어버린 건 잘도 고왔지만 덕행이라고 이름도 지었었고, 또 여덟 달만에 죽은 사나이 놈도 그렇게 있었고 이제 여섯 갠 컸지. 딸 네 개, 아들 두 개, 아홉 갠 낳아서 아이고 그거 못살아서 먹을 것도 없으면서 이젠 하나 낳아서 그만 둔다만 아이고 답답이라.)

103015 @ 어떵 애기무덤도 헤줍니까? 그냥 묻은 걸 몰라?(어떻게 애기무덤도 해줍니까? 그냥 묻은 걸 몰라?)

103015 #1 엿날은 묻엇다 허민 어디 묻은 건 몰라.(옛날은 묻었다 하면 어디 묻은 건 몰라.)

103015 @ 어머니 그거 피눈물 나는 것이 그 말이지예?(어머니 그거 피눈물 나는 것이 그 말이지요?)

103015 #1 아니 그자 아긴 죽으민 묻어부는 걸로 가곡 허니까 어디 간 묻어 분지 몰라이.(아니 그저 아긴 죽으면 묻어 버리는 걸로 가고 하니까 어디 가서 묻어 버렸는지 몰라.)

103015 @ 슬프잖아 어쨌든.(슬프잖아 어쨌든.)

103015 #1 ᄒᆞᆯ 수 엇주기. 죽어분 거 살릴 수도 엇고. 엿날은 잘 죽언이, 아기덜이. 춤 약이 엇어나신가이?(할 수 없지. 죽어버린 거 살릴 수도 없고. 옛날은 잘 죽었어, 아기들이. 참 약이 없었는가?)

103015 @ 약도 없고예?(약도 없구요?)

103015 #1 이젠 하나 두 개 나민 안 난다.(이젠 하나 두 개 낳으면 안 낳는다.)

103015 #1 정성을 또 그만큼 허곡 병원 의술이 엄청 발달허곡. 얼마나 열악헷수과?(정성을 또 그만큼 하고 병원 의술이 엄청 발달하고.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103015 #1 맞다게. 약도 좋곡이. 그 먹을 건 엇어도 아긴 하영, 하영 난.(맞다. 약도 좋고. 그 먹을 건 없어도 아기는 많이, 많이 낳아서.)

103015 @ 게난 어떵 생겨불민 어쩔 수가 엇이난.(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버리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103015 #1 게메 말이주게. 사람덜이 어리석언 거라이. 이제들은 하나 둘 낭 설러부는네게.(그러게 말이지. 사람들이 어리석언 거야. 이제들은 하나 둘 나서 그만 둬버리지.)

103015 @ 보리용시헐 때 어떤 추억이나, 보리피리 불엇던 거나 보리 뭐 분덴 헴수과? 주넹이 그런 거나 아니면 아이가 ᄀᆞ시락에 막 두드레기 난 거나 추억 엇수과?(보리농사할 때 어떤 추억이나, 보리피리 불었던 거나 보리 뭐 분다고 했습니까? 지네 그런 거나 아니면 아이가 까끄라기에 막 두드러기 난 거나 추억 없습니까?)

103015 #1 (웃음) 아이고 모르켜만은 보릿대에 무싱거 불멍 헤난 건 알아졈저.

(아이고 모르겠지만 보릿대에 무엇 불면서 했던 건 알겠다.)

103015 @ 그 이름 알아지쿠과?(그 이름 알겠습니까?)

103015 #1 모르켜. 일름은 뭣엔사 헤신지.(모르겠다. 이름은 뭐라고 했는지.)

103015 @ 아이구, 보리는 누게나 다 지엇지예?(에구, 보리는 누구나 다 지었지요?)

103015 #1 누게나마 거 안 지엉?(누구나 거 안 지어서?)

103015 @ 걸로 살앙 먹고 살아야 하니까.(그걸로 살아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103015 #1 ᄋᆞ게. 누게나 거 안 허민 먹을 것이 엇인디.(응. 누구나 거 안 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조 농사

103016 @ 에구, 조 농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뒈어마씨?(에구, 조 농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103016 #1 좁씨 삐영 불랑.(좁씨 뿌려서 밟아서.)

103016 @ 조 농사는 보리농사보다 쉬웠구나예.(조 농사는 보리농사보다 쉬웠군요.)

103016 #1 ᄋᆞ 쉽나 ᄋᆞ.(응. 쉬워. 응.)

103016 @ 겨믄 조농사로 감수다예. 조농사를 할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헙니까?(그러면 조 농사로 갑니다. 조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2 준비는 무싱거 셔? 준비 무신 저.(준비는 무엇 있어? 준비 무슨 저)

103016 @ 아까 걸름 내는 것처럼 보리농사처럼 준비.(아까 거름 내는 것처럼 보리농사처럼 준비.)

103016 #2 그런 거 엇어. 씨만 잘 놔뒁당 밧 갈아 가지고 삐여 경헤영 불려.(그런 거 없어. 씨만 잘 놔뒀다가 밭 갈아 가지고 뿌려서 그렇게 해서 밟아.)

103016 @ 여자가 뿌리고 남자가 뿌리는 건 엇수과?(여자가 뿌리고 남자가 뿌리는 건 없습니까?)

103016 #2 무사, 남자가 다 뿌리주기.(왜, 남자가 다 뿌리지.)

103016 @ 여자가 안 뿌립니까?(여자가 안 뿌립니까?)

103016 #2 여자도 뿌리는 사람 잇어. 허지만 남자가 대강 다 삐여.(여자도 뿌리는 사람 있어. 하지만 남자가 대강 다 뿌려.)

103016 #3 삼촌은 조 농사 헐 때 그 저 홍애기 소리[45]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나중에 불러줍서예, 기억해놧당예.(삼촌은 조농사 할 때 그 저 '홍애기 소리'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나중에 불러주세요, 기억해놨다가요.)

103016 @ 조 농사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조 농사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

45) '홍애기 소리'는 홍아기. 농촌에서 혼자 또는 여럿이 노동하면서 부르는 소리로 밭 매는 소리의 한 가지이다.

103016 #3 조 농사허믄 상당히 힘들어. 저거 물 비집헌 밧도 잘 안되고 물왓디도 안되고 물 비집헌디도 잘 안되는 거여.(조 농사 하면 상당히 힘들어. 저거 물 '비집헌' 밭도 잘 안되고 물밭에도 안되고 물 '비집헌' 데도 잘 안 되는 거야.)

103016 @ 물 비집헌 디가 뭣꽈?(물 '비집헌' 데가 뭡니까?)

103016 #3 물 땅 개지락허지 안허느냐게?(물 땅 질퍽하지 안하느냐?)

103016 @ 물 많은 디.(물 많은 데.)

103016 #3 응. 그런 것이 그런 밧들은 잘 안 뒌다. 조가 겐 조농사 해 놓믄 그 옛날엔 우리 흐린 좁쌀이옌 흔다. 그걸로 헹은에 막걸리 헹 먹으민 참 좋나.(응. 그런 것이 그런 밭들은 잘 안된다. 조가 그렇게 조 농사 해놓으면 그 옛날엔 우리 흐린 좁쌀이라고 한다. 그걸로 해서 막걸리 해서 먹으면 참 좋다.)

103016 @ 아, 흐린 좁쌀로 밥헹 먹으민 맛좋아.(아, 흐린 좁쌀로 밥해서 먹으면 맛좋아.)

103016 #3 아니 술, 술 막걸리.(아니 술, 술 막걸리.)

103016 @ 아아, 막걸리예.(아아, 막걸리요.)

103016 #3 아주 참 되게 좋나.(아주 참 되게 좋아.)

103016 @ 그게 맛이 좋다는 거지예?(그게 맛이 좋다는 거지요?)

103016 #3 응.(응.)

103017 @ 멧 월달? 걸름 조팟 검질도 똑같아마씨? 걸름?(몇 월 달 거름 조밭 김도 똑 같아요? 거름?)

103017 #1 아니여게. 존 걸름 안ᄒᆞ곡.(아니다. 잔 거름 안 하고.)

103017 @ 조밭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조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17 #3 거름, 거름은 경 뭐 안헌다. 이 보리끄르[46]에 허는 거난 조 게믄 그 보리끄르에 다 거름 해져세. 게난 이제는 조 혼 번 붸려보난 비료도 ᄒᆞ꼼 주곡 허는 셍이라.(거름 거름은 그렇게 뭐 안 한다. 이 보리그루에 하는 거니까 조 그러면 그 보리 그루에 다 거름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조 한 번 보니까 비료도 조금 주고 하는 모양이라.)

103017 @ 비료 옛날에는 멜이나 몸 이거 헷수과?(비료 옛날에는 멸치나 모자반 이거 했습니까?)

103017 #3 ᄋᆞ. 어디 경 셩은에 그걸 조 헐 때ᄁᆞ정 다 줄 말이고. 그것도 읏엉 허영 이젠 저 비료덜 살기 좋난 저 비료도 강 ᄒᆞᆫ 멧통 ᄀᆞ져당은에 끌앙은에 줭.(응. 어디 그렇게 있어서 그걸 조 할 때까지 다 줄 말이니. 그것도 없어서 해서 이젠 저 비료들 살기 좋으니까 저 비료도 강 한 몇 통 가져다가 깔아서 줘서.)

103017 @ 옛날엔 조팟 걸름이 별로 엇엇다예?(옛날엔 조밭 거름이 별로 없었군요?)

103017 #3 ᄋᆞ. 벨반 엇다. 보리 갈젠 허믄 막 거름 헤낫저.(응. 별반 없다. 보리 갈려고 하면 막 거름 했었지.)

---

46) '보리끄르'는 보리 농사를 지었던 자리를 나타낸 말이다.

103018 @ 응.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응.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3 조게, 유월 둘에 유월에.(조야, 유월에 유월에.)

103019 @ 씨를 잘 뿌려야 됴겠다예?(씨를 잘 뿌려야 되겠네요?)

103019 #1 그냥 씨를 삐영 이 요만썩 세와줘사 조가 고고리 나오지. 줒이믄 안 됀다게. 걸 메어 줘사 헤여게. 굴갱이 드물앙 방 벌영 세와줘사 조가 됴주이. 복작[47]허영 안 됀다게.(그냥 씨를 뿌려서 이 이만큼씩 세워줘야 조가 이삭 나오지. 촘촘하면 안 된다. 그걸 매어 줘야 해. 호미 들이밀어서 방 벌여서 세워줘야 조가 되지. 복작해서 안 된다.)

103019 @ 그 좁씨 뿌릴 땐 어떵 허여마씨?(그 좁씨 뿌릴 땐 어떻게 합니까?)

103019 #1 조씨 뿌령 영영 조씨로 뿌려이. ᄒᆞ꼼 낭 요만이 허믄 방 벌려서 세와줘사 굴갱이로.(좁씨 뿌려서 이렇게 이렇게 좁씨로 뿌려. 조금 나서 요만큼 하면 방 벌려서 세워줘야 호미로.)

103019 @ 아, 조가 나믄 또 방 벌령 다.(아 조가 나면 또 방 벌려서 다.)

103019 #1 ᄋᆞ게. 응 다 검질 매줘사게. 그거 검질이영 조영 두망두망 세와줘사 조가 크주이. 그 복작허영 안 됀다.(그래. 응 다 김 매줘야지. 그거 김이랑 조랑 띄엄띄엄 세워줘야 조가 크지. 그 '복작'해서 안 된다.)

103019 @ 솎은덴 허지예?(솎는다고 하지요?)

103019 #1 ᄋᆞ, 솎아줘사 헌다게.(응, 솎아줘야 한다.)

103019 @ 멧 월달에 조를 좁씨를?(몇 월 달에 조를 좁씨를?)

103019 #1 좁씨가 ᄀᆞ만시라. 유월 칠월에 뿌리는 거 아니가? 잊어 불어졋저?(좁씨가 가만 있어봐라. 유월 칠월에 뿌리는 거 아닌가?, 잊어버렸어.)

103019 @ 봄에 뿌리지 않고마씨?(봄에 뿌리지 않고요?)

103019 #1 유월 칠월에 뿌령.(유월 칠월에 뿌려서.)

103019 @ 가을에 나젠 허믄 여름에 뿌리는 거 아니? 보리 농사 다음?(가을에 나려고 하면 여름에 뿌리는 거 아니? 보리 농사 다음?)

103019 #1 ᄋᆞ게. 그 보리 허여뒁 보린 겨울에 뒈는 거고 조 농사는 여름에 뒈는 거 아니가? 경헌다게. 지철이 뒈사주이 거꾸로 헹은 안 됀다게.(응, 그 보리 해 두고 보린 겨울에 되는 거고 조 농사는 여름에 되는 거 아니가? 그렇게 한다. 제철이 돼야지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

103019 @ 지철에 좁씨는 아까처럼 일단 뿌려서 한다.(제철에 좁씨는 아까처럼 일단 뿌려서 한다.)

103019 #1 꼭 뿌려사 방도 이만썩 세와줘사 뒈주, 줒이믄 안뒈여. 조 존 줒이믄 안뒈여.(꼭 뿌려야 방도 이만큼씩 세워줘야 돼지, 빽빽하면 안 돼. 조 존 빽빽하면 안 돼.)

103019 @ 어떵 뻽니까?(어떻게 뿌립니까?)

103019 #2 그냥 손으로.(그냥 손으로.)

47) '복작허다'는 모종 따위가 빽빽이 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19 @ 착착 굴루 굴루.(착착 골고루 골고루.)

103019 @ 그믄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조밧 걸름은 어떻게 마련헙니까?(그러면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조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19 #2 조 걸름, 걸름 없어.(조 거름, 거름 없어.)

103019 @ 걸름은 엇고 오줌이라든가 돗통시 그런 건?(거름은 없고 오줌이라든가 돼지우리 그런 건?)

103019 #2 엇어.(없어.)

103019 @ 좁씨 삐영.(좁씨 뿌려서.)

103019 #2 좁씨 삐영 물로 불려.(좁씨 뿌려서 말로 밟아.)

103020 @ 조를 불를 때는 물테 남테[48], 돌테[49], 섬피, 이런 거 다?(조를 밟을 때는 '물테', 남태, '돌테', 끙게, 이런 거 다?)

103020 #1 경허난이. 붋아줘사 존이 붋지 안허민 굽 벌러졍 안뒌다게. 옛날엔 ᄆᆞ쉬로덜 막 불려낫저. 뱅뱅 돌멍 게난이 북삭허민 안뒈니까 딱딱 불롸줘사 조 보린 그냥 묻어만 주민 뒈곡 걸름에 섞은 거난.(그러니까. 밟아줘야 조는 밟지 않으면 굽 깨져서 안된다. 옛날엔 마소로들 막 밟았었지. 뱅뱅 돌면서 그러니까 '북삭'하면 안 되니까 딱딱 밟아줘야 조 보린 그냥 묻어만 주면 되고 거름에 섞은 거니까.)

103020 @ 딱딱허게 불려줘사 겐디 말도 잇수과?(딱딱허게 밟아줘야 그런데 말도 있습니까?)

103020 #1 물도 셔낫저게. 막 그걸 불르젠 허민.(말도 있었지. 막 그걸 밟으려고 하면.)

103020 @ 물도 잇고 쉐도?(말도 있고 소도?)

103020 #1 쉔 밧 갈고.(소는 밭 갈고.)

103020 @ 불를 때 안허고?(밟을 때 안 하고?)

103020 #1 불를 때도 허주만은 물이 셔사지, 딱딱 불라줘사 뒈낫저게.(밟을 때도 하지만 말이 있어야지, 딱딱 밟아줘야 됐지.)

103020 @ 물 멧 ᄆᆞ리.(말 몇 마리.)

103020 #1 몰르켜게. 멧 ᄆᆞ리나 셔나신지.(모르겠어. 몇 마리나 있었는지.)

103020 @ 멧 ᄆᆞ리 정도 새끼영 막?(몇 마리 정도 새끼랑 막?)

103020 #1 새낀 나민 드러 나와나고이.(새끼는 나면 계속 나왔었고.)

103020 @ 열 ᄆᆞ리 봐낫수과?(열 마리 봤었습니까?)

103020 #1 열 ᄆᆞ리ᄁᆞ정은 션디 말안디 원 멧 ᄆᆞ린 모르켜. 잊어불언.(열 마리까지는 있었는지 말았는지 원 몇 마린 모르겠어. 잊어버려서.)

103020 @ 서너 마리?(서너 마리?)

103020 #1 하여튼 멧 ᄆᆞ린, 댓 ᄆᆞ리ᄁᆞ장은 셔사 밧을 불려이.(하여튼 몇 마린, 다섯 마리까지는 있어야 밭을 밟아.)

---

48)'남태'는 씨 뿌린 땅을 다지는 데 쓰는 농기구다. 둥근 통나무에 반 뼘 길이의 나무토막들을 둘러 박는다.

49) '돌태'는 씨를 뿌린 밭을 다지는 데 쓰는 돌로 둥그렇게 만든 농기구를 말한다.

103020 @ 댓 ᄆᆞ리가 멧 ᄆᆞ리꽈?(댓 마리가 몇 마리입니까?)

103020 #1 다섯 개여. 응.(다섯 개여. 응.)

103020 @ 그믄 사람도 한 식구덜 다?(그러면 사람도 한 식구들 다?)

103020 #1 사람도 ᄀᆞ치 조차뎅경 ᄇᆞᆯ려사.(사람도 같이 쫓아다니며 밟아야.)

103020 @ 그믄 놉 빌엉도 경 같이 수눌앙[50]도 허고?(그러면 놉 빌어도 그렇게 같이 품앗이해서도 하고?)

103020 #1 그거 수눌멍 잘 ᄇᆞᆯ라줘사 엿날은 조 안 ᄇᆞᆯ랑은 안 뒌덴 헌다.(그거 품앗이하면서 잘 밟아줘야 옛날은 조 안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103020 @ 한 열 명 정도는 열 명, 다섯 명?(한 열 명 정도는 열 명, 다섯 명?)

103020 #1 뭣엔 ᄀᆞᆯ암시? 몰르켜. 걸 어떵 세느니게? 이녁 헐 만큼게.(뭐라고 말하니?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세니? 자기 할 만큼.)

103020 @ 어쨌든 가득헤영 고지대로 막 붋아야.(어쨌든 가득해서 이랑대로 막 밟아야.)

103020 #1 그냥게. 응. 대깍허게 ᄇᆞᆯ라줘사 존 뒈낫저게. 아니 ᄇᆞᆯ르민 북삭경 아니 뒈여 굽들러졍.(그냥. 응. 단단하게 밟아줘야 조는 됐었지. 안 밟으면 부석해서 안 돼. 밑이 들려서.)

103020 @ ᄇᆞᆯ라줘야 뒈고 말테, 남테, 돌테, 끙게? 무슨 말이 알아지쿠과? 남태나무로 뒌 거 아니? 섬피?(밟아줘야 되고 '말테', 남태, '돌테', 끙게?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남태 나무로 된 거 아니? 끙게?)

103020 #1 선비, 선비 남테가 아니고 선빈 끗어사 게사 씨도 감춰지곡 이제 허여 놩 이제 ᄇᆞᆯ른다게. 선빈 꼭 이서사.(끙게, 끙게, 남태가 아니고 끙겐 끌어야 그래야 씨도 감춰지고 이제 해 놔서 이제 밟는다. 끙게는 꼭 있어야.)

103020 @ 선빈 꼭 이서사예? 선핀 뭘로 만들어마씨?(끙게 꼭 있아야죠? 끙게 뭘로 만들어요?)

103020 #1 저 선비낭이 잇나, 베겻디 저 선비 낭이라고이. 그거 헤영당 영 허여근 주둥이 무껑 영영 ᄀᆞᆯ로로 ᄀᆞᆯ로로 입혀줘사 이제 납작허영은에 선피 거. 그 우이 돌 두어 개 놓고 헹 끗어주민이 맨드락허연 ᄇᆞᆯ르기 좋나. 우이 납작허게 얼건 요 우트레 돌 두어개 놩 끗어주민이 그 저 무시거 헉이 납드락허연 ᄇᆞᆯ르기 좋나게. 그냥은 ᄇᆞᆯ르기 궂언게.(저 끙게 나무가 있나, 밖에 저 끙게 나무라고. 그거 해다가 이렇게 해서는 주둥이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입혀줘야 이제 납작해져서 끙게 그거. 그 우이 돌 두어 개 놓고 해서 끌어 주면 평평해서 밟기 좋다. 위에 납작하게 얽어서 요 위로 돌 두어 개 놔서 끌면 그 저 뭐 흙이 납작해져서 밟기 좋아. 그냥은 밟기 궂어서.)

103020 @ 흑벙이도 부숴야 뒈는가?(흙덩이도 부숴야 되는가?)

103020 #1 게. 곰베라고 거 부수는 거. 곰베라고 곰베.(그치. 곰방메라고 거 부수는 거. 곰방메라고 곰방메.)

---

50) '수눌다'는 품앗이하다의 의미로 힘든 일을 이웃 간에 서로 거들어 가며 하는 것을 말한다.

103020 @ 곰베 여자도 헤마씨?(곰방메 여자도 합니까?)

103020 #1 게게, 요만이헌 거. 이레 영 ᄌᆞ룩 부쪄근에.(그래 그래, 이만큼 한 거. 여기 이렇게 자루 붙여서.)

103020 @ 곰베로.(곰방메로.)

103020 #1 헉 두드려사 냅짝헨.(흙 두드려야 납짝해서.)

103020 @ 씨 뿌리기 전에 곰베로 먼저 두드리고.(씨 뿌리기 전에 곰방메로 먼저 두드리고.)

103020 #1 경허난이. 그 씨 뿌리기 전엔 선피로 끄시민 맨지랑 헌다게. 맨지랑 허민 그디 이제 벙에 나시민 두드려사.(그러니까. 그 씨 뿌리기 전엔 끙게로 끌면 평평해진다. 평평해지면 거기 이제 덩어리 생기면 두드려야.)

103020 @ 아, 씨 뿌려놩 선피질 허는 게 아니고?(아, 씨 뿌려놔서 끙게질 허는 게 아니고?)

103020 #1 저 무싱거꼬. 씨 뿌려놩도 해실지도 모르다만은, 어떻튼 고지 멜사놔사, 씨 뿌려사 잘 간다게.(저 뭐니? 씨 뿌려놔도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이랑 허물어 놔야, 씨 뿌려야 잘 갈지.)

103020 @ 아 고지 멜사놔사예. 그러면 흑벙이 바수기, 흑벙에 허기 전에 선피부터 허여마씨?(아 이랑 허물어 놔야. 그러면 흙덩이 부수기, 흙덩이 하기 전에 끙게부터 해요?)

103020 #1 선피해 놔사 땅이 맨지락해근에 저 씨뿌려이?(끙게 해놔야 땅이 평평해서 저 씨 뿌려?)

103020 @ 흑벙에 헤난 다음, 선피 헤난 다, 흑벙에를 두드려 난 다음.(흙덩이 한 다음, 끙게 한 다음, 흙덩이를 두드리고 난 다음.)

103020 #1 선피 허여 놔사, 저 씨 삐영이 불라가멍.(끙게 해 놔야, 저 씨 뿌려서 밟아가면서.)

103020 @ 흑벙에부터 하고 선피 하카마씨?(흙덩이부터 하고 끙게 할까요?)

103020 #1 거 싀 가진 헤사게.(그거 세 가진 해야지.)

103020 @ 뭐가 먼저? 흑벙에가 먼저? 선피가 먼저?(뭐가 먼저? 흙덩이가 먼저? 끙게가 먼저?)

103020 #1 선피 헤사 이제 땅을 ᄀᆞᆯ아지지, 납작헤연. 경 헹 씨뿌려이 경헤연 씨뿌려 놩 ᄆᆞ쉬발로 불롸이. 걸 이 불르민 소곱더레 들어도 가곡 땅도 멘짝허고. 경헹 ᄃᆞᆫᄃᆞᆫ헤사 준디는 거. 그냥은 굽 들러졍 안 뒌덴 헌다게. 보린 그냥 씨 묻어만 지민 뒈도.(끙게 해야 이제 땅이 골고루 되지, 납작해져서. 그렇게 해서 씨 뿌려. 그렇게 해서 씨 뿌려 놓고 마소 발로 밟게 해. 그걸 밟으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땅도 평평하고. 그렇게 해서 단단해야 견디는 거. 그냥은 밑동 들려서 안 된다고 한다. 보린 그냥 씨 묻히기만 하면 돼도.)

103020 @ 흑벙에하고, 선피하고 ᄆᆞ쉬로?(흙덩이하고, 끙게하고 마소로?)

103020 #1 곰베, 곰베 셔사 그디 벙에 두드려 주곡.(곰방메, 곰방메 있어야 거기

흙덩이 두드려 주고.)

103020 @ 아, 선피하고 흑벙에하고.(아, 끙게하고 흙덩이하고.)

103020 #1 흑벙에가 그냥 저 무싱거로 뚜리는 거주기.(흙덩이가 그냥 저 무엇으로 때리는 거지.)

103020 @ 곰베하고, 선피하고, 곰베하고?(곰방메하고, 끙게하고, 곰방메하고?)

103020 #1 것만 시민 갈아논 거 잠대로, 쉐로 갈아논 거 섬피 끗어줘사 헉이 멘지락헤[51]근에 씨도 잘 먹고게, 그 고지 셩은이 가는 딘 가곡 안 가는 딘 안 강이 경헨 헌다게 멘지락허게 헤 놩 씨뿌령 불라주민이 걸로 난다게.(그것만 있으면 갈아놓은 거 쟁기로, 소로 갈아놓은 거 끙게 끌어줘야 흙이 '멘지락해'서 씨도 잘 먹고, 그 이랑 있으면 가는 덴 가고 안 가는 덴 안 가서 그렇게 해서 한다. '멘지락허'게 해 놔서 씨 뿌려서 밟아주면 그걸로 난다.)

103020 @ 아아, 난 선피질은 나중에 허는 줄 알아신디. 끙게질이 먼저?(아아, 난 끙게질은 나중에 하는 줄 알았는데. 끙게질이 먼저?)

103020 #1 고지 멜라졍 펜안허영 씨 뿌령 불라주민이 이제 무싱거 헌다게.(이랑 허물어져서 편안해져서 씨 뿌려서 밟아주면이제 무엇 한다.)

103020 #2 좁씨 삐영 물로 불려.(좁씨 뿌려서 말로 밟아.)

103020 @ 아아, 그거 듬성듬성 또 영 싱거야 뭰덴 누게가 곱디다만은. 저기는 좁씨가 나민 아아 일단 먼첨 불령 물로 불립니까? 사람도?(아아, 그거 듬성듬성 또 이렇게 심어야 된다고 누가 말합디다만. 저기는 좁씨가 나면 아아 일단 먼저 밟게 해서 말로 밟게 합니까? 사람도?)

103020 #2 사람으로도 불르고 소 물 엇인 사람은 발로도 붋으는디.(사람으로도 밟게 하고 소, 말 없는 사람은 발로도 밟는데.)

103020 @ 다 동원허영은에 어떵 헹 고지마다 ᄃᆞ근ᄃᆞ근 어떵?(다 동원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랑마다 차근차근 어떻게?)

103020 #2 빙빙허게 돌주기. 영 빙빙허게.(빙빙하게 돌지. 이렇게 빙빙하게.)

103020 @ 아아 빙빙 돌멍예?(아아 빙빙 돌면서요?)

103020 #2 겐, 불려지민.(그래서, 밟아지면.)

103020 @ 그 밧 갈 때 흑덩이 바수는 거든가 섬피라든가 이런 거 썻수가? 곰베로 흑벙에 바수멍?(그 밭 갈 때 흙덩어리 부수는 거든가 끙게라든가 이런 거 썼습니까? 곰방메로 흙덩이 부수면서?)

103020 #2 밧 갈민 벙뎅이가 나가던 거시기 나면은 거 곰베 두드려 까지게시리 경 혜연, 그때엔 선비로 쭉 바닥을 골르게시리 골랑 경혜연 이제 씨 삐려 가지고 불려.(밭 갈면 덩어리가 나가던 거시기 나면은 거 곰방메 두드려 까지게끔 그렇게 해서, 그때엔 끙게로 쭉 바닥을 평평하게 골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씨 뿌려 가지고 밟아.)

103020 @ 씨 삐여 난 다음 또 선피로도 허지 안헤마씨?(씨 뿌려 난 다음 또 끙

51) '멘지락ᄒᆞ다'는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럽다는 의미다.

게로도 하지 않아요?)

103020 #2 경 허질 안허고.(그렇게 하질 않고.)

103020 @ 경허지 안고 바닥을 골랑 씨삐영 붑아 불려 불리는 것이 수눌엉덜 헙니까? 동네사람덜 다 오렌 헹 멧 명?(그렇게 하질 않고 바닥을 골라서 씨뿌려서 밟아 밟아, 밟는 것이 품앗이들 합니까? 동네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몇 명?)

103020 #2 동네 사람덜 수누는 사람도 잇고, 안 수누는 사람도 있고, 아마도 쉐, 물 없는 사람은 다 저 수눌엉 허주기.(동네사람들 품앗이 사람도 있고, 품앗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마도 소, 말 없는 사람은 다 저 품앗이해서 하지.)

103020 @ 그러면 불롸 난 다음 조가 나면?(그러면 밟고 난 다음 조가 나면?)

103020 #2 조가 나면 검질 너무 좇아도 메 불고.(조가 나면 김 너무 잦아도 매 버리고)

103020 @ 좇으민 메주고 검질은 무슨 검질이 싯고예?(잦으면 매주고 김은 무슨 김이 있고요?)

103020 #2 제완지도 실거고 무신 검질 여러 가지 나오주기.(바랭이도 있을 거고 무슨 김, 여러 가지 나오지.)

103020 @ 말테, 남테, 돌태, 끙게, 뭐 남태도 아까 밧 불릴 때 남테도 헤낫수과?(‘말테’, ‘남테’, ‘돌태’, 끙게, 뭐 ‘남테’도 아까 밭 밟을 때 ‘남테’도 했었습니까?)

103020 #2 남테 뭐여?(‘남테’ 뭐야?)

103020 @ 나무로 만든 이렇게 둥글락 둥글락헌 건디.(나무로 만든 이렇게 둥글어서 둥그렁한 건데.)

103020 #2 어. 그것도 허는 부락이 잇어. 것도 여기는 안허지.(어. 그것도 하는 부락이 있어. 그것도 여기는 안하지.

103020 @ 아 섬피만 허곡 남테는 안하고. 아아, 말테나 돌태?(아, 끙게만 하고 ‘남테’는 안하고. 아아, 말테나 ‘돌태’?)

103020 #2 그런 것도 안허지.(그런 것도 안하지.)

103020 @ 유월에예? 조밭은 어떻게 밟습니까?(유월에요? 조밭은 어떻게 밟습니까?

103020 #3 쉐로 불르지. 어려하랴 허멍.(소로 밟지. ‘어려하랴’ 하면서.)

103020 @ 물은?(말은?)

103020#3 물 허여근에 영 선수 잡앙 어려하랴, 돌돌돌돌.(말 해서 이렇게 선수 잡아서 ‘어려하랴’, 돌돌돌돌.)

103020 @ 쉐도 붑고 물도 붑고?(소도 밟고 말도 밟고?)

103020 #3 쉔 밧 가는 거고 이제 조 어염은 선비로 영 끗나 펜펜허게. 땅을 펜펜허게 선비옌 헌 거. 느 모르지.(소는 밭가는 거고 이제 조 구석은 끙게로 이렇게 끌어. 편편하게. 땅을 편편하게 끙게라고 한 거. 너 모르지.)

103020 @ 알아마씨.(알아요.)

103020 #3 으. 그 선비로 펜펜허게 끗어 논 다음엔, 이젠 물 데령 물 대여섯 개

데령 어어엉허 ᄒᆞ멍 밧덜 불려가주기.(응. 그 선비로 편편하게 끌어 논 다음엔, 이젠 말 데려서 말 대여섯개 데려서 어어엉허 하면서 밭들 밟아 가지.

103020 @ 아, 쉐는 안 붋고예?(아, 소는 안 밟고요?)

103020 #3 쉐도 헌 뗀 쉐는 괴로왕 뒈느냐 밧도 갈지 못헤영허는디, 그거 강.(소도 많을 땐 소는 괴로워서 되느냐 밭도 갈지 못해서 하는데, 그거 가서.)

103020 @ 그믄 ᄆᆞᆯ때, 남테나 돌테, 끙게 이런 거 이섯수과?(그러면 말때, 남테나 돌테, 끙게 이런 거 있었습니까?)

103020 #3 그건 다.(그건 다.)

103020 @ 선피만 이섯수과? 남테나 이런 건 안헷수과? 돌테, 남테, ᄆᆞᆯ테, 끙게 이런 건 어섯수과?(끙게만 있었읍니까? '남테'나 이런 건 안했습니까? '돌태', '남테', '말테', 끙게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3020 #3 뭐 감태 말헴댜? 바당에 나는 감태?(뭐 감태 말하니? 바다에 나는 감태?)

103020 @ 남테, 남테. 나무로 뭰 거. 이런 거 선피만 헷수과? 이렇게 ᄀᆞᆯ를 때 밧ᄀᆞᆯ를 때 선피로.('남테', '남테'. 나무로 뭰 거. 이런 거 끙게만 했습니까? 이렇게 고를 때 밭 고를 때 끙게로.)

103020 #3 아 선비로 헐 때 그 선비낭으로 허는 거 아니가?(아 끙게로 할 때 그 선비나무로 하는 거 아니가?)

103020 @ 곰베, 곰베로 흙.(곰방메, 곰방메로 흙.)

103020 #3 곰베도 낭으로 팡허고.(곰방메도 나무로 파서하고.)

103020 @ 흑벙에?(흙덩이?)

103020 #3 ᄋᆞ. 헉 ᄯᅳ리는 그 곰베옌 한다. 거.(응. 흙 때리는 그 곰방메라고 한다. 거.)

103020 @ 곰베로 먼저 하곡?(곰방메로 먼저 하고?)

103020 #3 ᄋᆞ게. 영 불리멍도 밧 멀리 안 강 어어하량 불리멍도 곰베로 헤영 톡톡 때리멍 때린다게 비짝허게.(응. 이렇게 밟으면서도 밭 멀리 안 가서 '어어하량' 밟으면서도 곰방메로 해서 톡톡 때리면서 때린다. 비짝하게.)

103020 @ 때리고 그 다음엔 선피?(때리고 그 다음엔 끙게?)

103020 #4 벙뎅이 나와시민게 헉벙뎅이 나와시민, 영 ᄒᆞ썰 페믄 복삭허주기게. 그거 선비 요영 허영 요거추룩 묶엉은에, 어깨 메연 막 일로갔닥 저레 갓닥 막 끗어간다게.(덩어리 나오면 흙덩이 나오면, 이렇게 조금 펴면 '복삭'하지. 그거 끙게 이렇게 해서 이것처럼 묶어서, 어깨 매서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끌어간다.)

103020 @ 선피?(끙게?)

103020 #3 끗어가민 마지막이여 거.(끌어가면 마지막이야 그거.)

103020 @ 아 조는 언제 뿌려마씨?(아 조는 언제 뿌립니까?)

103020 #3 뿌령 헤세게.(뿌려서 했지.)

103020 @ 그믄 선피가 씨 뿌린 뒤에 헙니까?(그러면 끙게가 씨 뿌린 뒤에 합니까?)

103020 #3 ᄋᆞ게.(응.)

103020 #4 씨 구처지렌 밧디 씨부리멍 밧디 끄시멍.(씨 다져지라고 밭에 씨부리면서 밭에 끄시멍.)

103020 @ 어떤 사람은 씨뿌리기 전에 펜펜하게 선피를 먼저 헤야 뒌덴 ᄀᆞᆯ읍디다.(어떤 사람은 씨뿌리기 전에 편편하게 끙게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합디다)

103020 #3 난 그렇게 안 헤봇봇저.(난 그렇게 안 해봤지.)

103020 @ 아, 게민 제일 먼저 허는 건 밧을 갈앙.(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밭을 갈아서.)

103020 #3 ᄋᆞ게. 갈앙.(응. 갈아서.)

103020 @ 첫 번째 밧 갈고.(첫 번째 밭 갈고.)

103020 #3 갈믄 이.(갈면.)

103020 @ 그 다음 흑벙뎅이.(그 다음 흙덩이.)

103020 #3 선피로 ᄒᆞᆫ 번 끗나.(끙게로 한 번 끈다.)

103020 @ 선피로 끗고.(끙게로 끌고.)

103020 #3 밧ᄀᆞ랑이 들어 강, 영 들어 갈 거 아니가? 펜펜ᄒᆞ게 ᄒᆞᆫ 번 뿌려줘. 거멍케 돌 놩 훼훼 끗어노민 씨뿌리기가 좋추기. 겡 씨 뿌려 ᄋᆞ정 이젠 ᄆᆞᆯ로 ᄇᆞᆯ리멍 헝 허멍 ᄇᆞᆯ려가믄, 이제 헉 벙뎅이 나오민 곰베로 때리멍도 허곡 이젠 마지막엔 선비로도 확 끗엉 뎅겨 불고게.(밭고랑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 갈 거 아니가? 편편하게 한 번 뿌려줘. 꺼멓게 돌 놔서 훼훼 끌어놓으면 씨뿌리기가 좋지. 그렇게 씨 뿌려서 이젠 말로 밟으면서 '헝' 하면서 밟아 가면, 이제 흙덩어리 나오면 곰방메로 때리면서도 하고 이젠 마지막엔 끙게로도 확 끌어서 당겨 버리고.)

103020 @ 게난 동시에 헴다예. 그냥 흑벙에 허멍 선피허멍 씨 뿌리멍 또 이제 선피도 헐 거 이시민 곰베도 허곡 경 안하민 말고 경헌다.(그니까 동시에 하는군요. 그냥 흙덩어리 하면서 끙게하면서 씨 뿌리면서 또 이제 끙게도 할 거 있으면 곰방메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렇게 한다.)

103021 @ 그믄 조팟 검질은 멧 번 멧수과?(그러면 조밭 김은 몇 번 맸습니까?)

103021 #1 아이구 엿날은 ᄉᆡ 불ᄁᆞ지 멘덴 헌다. 경헤야 펜칙허영이 거 처음은 조 북삭헌 거 벙뎅이 풀엉 어느 정도 북삭허게 나주기게. 씨 뿌리민 ᄒᆞᆫ 번에 펜안허게 헤지느냐게. 게사 밧이 ᄉᆡ 번ᄁᆞ지 메사 뒛저게. 그다음엔 하나씩 세와 놩 말젠 막보리라고이 경헤사 밧이 판칙헌다게.(아이고 옛날은 세 벌까지 맨다고 한다. 그래야 깨끗해져서 거 처음은 조 '북삭'한 거 덩어리 풀어서 어느 정도 '북삭'하게 나지. 씨 뿌리면 한 번에 편안하게 할 수 있니? 그래야 밭이 세 번까지 매어야 됐지. 그 다음엔 하나씩 세워 놔서 나중엔 막보리라고 그래야 밭이 깨끗하다.)

103021 @ 그믄 여기도 여름 조작벳디 조팟 검질 제일 어려워라. ᄉᆡ 불 검질 멜 띤 조가 막 커졍 막 뭐꽈? 그거 베여 불고 막 조로 베여가지고 막 따갑게. 게난 막

힘들더라 얘기덜 있잖아예?(그러면 여기도 여름 땡볕에 조밭 김, 제일 어려워라. 세 불 김 멜 땐 조가 막 커져서 막 뭡니까? 그거 베여버리고 막 조로 베여 가지고 막 따갑게. 게난 막 힘들더라 얘기들 있잖아요?)

103021 #1 아니 메민 안 뭰다. 안 뭰다, 영 방울방울 아니 세와주민 조가 아니 뒈여이, 보린 갈앙 어느 정도 뒈는디. 존 꼭 방 벌렁 세와줘사 뒈여. 경헤사 고고리가 이만썩 홁고 복삭헹은 고고리가 요만썩 허영 안뒈여.(안 매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방울방울 안 세워주면 조가 안 돼, 보린 갈아서 어느 정도 되는데. 존 꼭 방 벌려 세워줘야 돼. 그래야 이삭이 이만씩 굵고 '복삭'해서는 이삭이 요만씩 해서 안 돼.)

103021 @ 고고리가 덩더렁 마께[52]만씩.(이삭이 '덩더렁 마께'만씩.)

103021 #1 으. 고고리가 덩더렁 마께만이 흔다게. 흥알흥알 훌근다. 방 벌렁 세와사 그때부터.(응. 이삭이 '덩더렁 마께'만큼 한다. '흥알흥알' 굵다. 방 벌려서 세워야 그때부터.)

103021 @ 그믄 조팟 검질메기는 멧 번 합니까?(그러면 조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21 #2 두 번 두 번 메지. 싀 번 메카?(두 번, 두 번 매지. 세 번 맬까?)

103021 @ 싀 불 검질, 검질도 메봇수과?(세 벌 검질, 김도 매봤습니까?)

103021 #2 검질도 메보지.(김도 매보지.)

103021 @ 언제 무슨 검질이 어려와마씨? 보리검질, 조컴질?(언제 무슨 김이 어려워요? 보리 김, 조 김?)

103021 #2 조컴질 아멩해도 뜻신 때니까 건 준디.(조 김 아무리 해도 따뜻한 때니까 그건 좋은데.)

103021 @ 게민 그 저 조팟 검질맬 때는?(그러면 그 저 조밭 김맬 때는?)

103021 #3 검질맬 땐 괴롭나게. 하이고 대으숫번썩 메어야.(김맬 땐 괴롭다. 아이고 대여섯 번씩 매야.)

103021 @ 대으숫 번예?(대여섯 번요?)

103021 #3 으.(응.)

103021 @ 싀 불 검질, 두 불 검질, 초불 검질.(세 벌 김, 두 벌 김, 초 벌 김.)

103021 #3 네 불 검질, 다섯 번ᄁᆞ지 메여.(네 벌 김, 다섯 번까지 매여.)

103021 @ 다섯 번까지마씨?(다섯 번까지 말입니까?)

103021 #3 다섯 번ᄁᆞ지도 매여. 검질 신 밧은.(다섯 번까지도 매어. 김 있는 밭은.)

103021 @ 아이고 세상에 조만마씨? 보리도?(아이고 세상에 조만요? 보리도?)

103021 #3 보린 경 검질 잘 안 나온다. 이 저 겨울이난 경사 허는지.(보린 그렇게 김 잘 안 나온다. 이 저 겨울이니까 그렇게야 하는지.)

103021 @ 조 검질이 제일 어렵구나.(조 김이 제일 어렵구나.)

---

52) '덩더렁 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다.

103021 #3 조 검질이 막 어렵나. 조 헤영 잘 솎아줘사 이거이 조 비짝허게 나오주기. 땅 골 업시 경 나오민 씨 잘못 뿌리민 씨 잘 뿌려주는 사람은 어랑어랑[53]허게시리 손보기 좋게 헤영 허는 사람이 드물어.(조 김이 막 어렵나. 조 해서 잘 솎아줘야 이거 조 뽀족하게 나오지. 땅 골 없이 그렇게 나오면 씨 잘못 뿌리면 씨 잘 뿌려주는 사람은 생생하게끔 손보기 좋게 해서 하는 사람이 드물어.)

103021 @ 아.(아.)

103021 #3 경 헨 나, 씨도 하영 뿌려 주레 뎅겻주.(그렇게 해서 나, 씨도 많이 뿌려 주러 다녔지.)

103021 @ 씨는 어떵 뿌립니까?(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21 #3 골ᄀᆞ루에.(골고루.)

103021 @ 골ᄀᆞ루 솎아줘야 뒈는 거로구나.(골고루 솎아줘야 되는 거로구나.)

103021 #3 경허믄 이제 바짝 솟나. 한 메칠 시민 경허믄 강 영 이제 뎅기멍이 조 부그락헌[54] 디가 싯나. 못 강 부드락 부드락 헌 디가 이서. 씨가 잘못 뿌리민 그것도 검질도 긁으레 뎅기곡 검질도 뽑아주고 경허는 거 아니가?(그러면 이제 바짝 솟아나. 한 며칠 있으면 그러면 가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조 모드락한 데가 있나. 못 가서 모드락, 모드락, 한 데가 있어. 씨가 잘못 뿌리면 그것도 김도 긁으러 다니고 김도 뽑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가?)

103021 @ 긁으레 뎅기고예. 게 솎아주고, 싱거주고, 검질은 무슨 검질덜이 잇수과?(긁으러 다니고요. 그거 솎아주고, 심어주고, 김은 무슨 김들이 있습니까?)

103021 #3 검질 그, 그 제완지 뭐여?(김 그, 그 바랭이 뭐여?)

103021 @ 재완지여? ᄀᆞ라지여, 쒜비늠이여(바랭이다? 가라지다, 쇠비름이다.)

103021 #3 ᄋᆞ.(응.)

103021 @ 쒜비늠이여. 기억나는 검질덜 잇수과?(쇠비름이야. 기억나는 김들 있습니까?)

103022 @ 흥알 흥알 밧도 좋아야뒈곡, 검질은 싀 불 검질, 어떤 검질이 이신지 아까 ᄀᆞ라지, 제완지?('흥알흥알' 밭도 좋아야 되고, 김은 싀 불김, 어떤 김이 있는지 아까 가라지, 바랭이?)

103022 #1 아이고 진풀도 나곡 이 또 개자리라고 겨울에 나는 거고이.(아이고 별꽃도 나고 또 개자리라고 겨울에 나는 거고.)

103022 @ 개자린 겨울에 나마씨?(개자린 겨울에 납니까?)

103022 #1 겨울에 나 개자리영 진풀이영이 보리왓디 또 이제 저 무시거꼬? 대우리 보리왓디 나는 거 ᄒᆞ꼼 영 커가민 대우리라고 보리 닮은 거.(겨울에 나 개자리랑 별꽃이랑 보리밭에 또 이제 저 뭐니? 귀리, 보리밭에 나는 거 조금 이렇게 커가면 귀리라고 보리 같은 거.)

103022 @ 조팟디 나는 검질은?(조밭에 나는 김은?)

---

53) '어랑어랑'은 나뭇잎이나 상추 따위가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54) '부그락ᄒᆞ다'는 싹 따위가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103022 #1 고랏이여게. 고랏에 제완지에 여름에 나는 거. 거 겨울에 나는 거 여름에.(가라지야. 가라지에 바랭이에 여름에 나는 거. 거 겨울에 나는 거 여름에.)

103022 #1 나는 거 지철에 뚤랑 나이.(나는 거 제철에 따라서 나.)

103023 @ 검질들. 조 수확은 언제 헤마씨? 가을?(김들. 조 수확은 언제 합니까? 가을?)

103023 #1 가을에 헐 거여. 아멩헤도 겨울 들기 전에이 허영.(가을에 할 거여. 아무리 해도 겨울 들기 전에 해서.)

103023 @ 게믄 조 수확은 어떵 헙니까?(그러면 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23 #1 9월에.(9월에.)

103023 @ 9월에 무껑.(9월에 묶어서.)

103023 #1 호미로 톧지 않느냐?, 호미 허지 안 허느냐?(호미로 뜯지 않니? 호미 하지 않니?)

103023 @ 밧디서 조 코고리 톧앙 경헨 그거를.(밭에서 조 이삭 뜯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103023 #1 그걸 집이 시꺼다 놩은에 방에에.(그걸 집이 실어다 놔서는 방아에.)

103023 @ 도깨 안허곡 .(도리깨 안하고.)

103023 #1 아니 안헤여. 막 튀엉 좋지 안헌다. 저, 저, 뭘방거리 이 이 연자매 싯지 않느냐? 영 쉐 메영 둘러메영 그거 헹 많이 뻣나.(아니 안 해. 막 튀어서 좋지 않아. 저, 저, 연자매 이 이 연자매 있지 않니? 이렇게 소 매서 둘러매어서 그거 해서 많이 빻아.)

103023 @ 그건 다 순번들을?(그건 다 순번들을?)

103023 #1 다 싯저. 월령도 거 여섯 밧디나 싯저.(다 있지. 월령도 거 여섯 군데나 있지.)

103023 @ 으숫 밧디마씨?(여섯 군데요?)

103023 #1 으숫 군데.(여섯 군데.)

103023 @ 으숫 군데 이서난마씨? 세상에.(여섯 군데 있었어요? 세상에.)

103023 #1 응.(응.)

103023 @ 즉작벳에 어렵주게. 거기도 이 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땡볕에 어렵지. 거기도 이 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23 #2 수확.(수확.)

103023 @ 예. 조를 비엉.(예. 조를 베서.)

103023 #2 비엉, 고고린 호미로 톧앙.(베어서, 이삭은 호미로 뜯어서.)

103023 @ 비엉, 무껑, 호미로 톧앙.(베어서, 묶어서, 호미로 뜯어서.)

103023 #2 톧앙.(뜯어서.)

103023 @ 그 다음.(그 다음.)

103023 #2 그 저 고고리만 이제 딱허게 봉허여. 아니 저 이 거시기에 담앙.(그 저 이삭만 이제 딱하게 봉해. 아니 저 이 거시기에 담아서.)

103024 @ 베고, 묶고, 이삭만 따마씨? 이것도.(베고, 묶고, 이삭만 따요? 이것도.)

103024 #1 ᄋᆞ게. 집이 오랑 호미로 영, 영, 영 헤여근에, 이제 조 코고리이 톤아 놩은에. 톤아놩은에 엿날엔 이디 도깨로 두드리나, ᄆᆞᆯ방에에 강 둥글이나 헤사 걸까좌사게. 졸 도깨로 두드리나 경 헤영 ᄆᆞᆯ방에에 강 둥글이나이. 그 큰 ᄆᆞᆯ방에 싯지 안허느냐? 그것에 놩 둥글이나.(응. 집이 와서 호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이제 조 이삭 뜯어 놔서. 뜯어 놔서 옛날엔 여기 도리깨로 두드리나, 연자매에 가서 굴리나 해야 걸 까야. 조를 도리깨로 두드리나 그렇게 해서 연자매에 가서 굴리거. 그 큰 연자매에 있지 않니? 그것에 놔서 굴리거나.)

103024 @ 그믄, 막 마을에서 그거 ᄎᆞ지허젠 줄 서겠다예?(그러면, 막 마을에서 그거 차지하려고 줄 서겠네요?)

103024 #1 멧 밧디 월령도 멧 밧디 요만이도 하나 셔 나고, 섯 동네도 하나 셔 나고 니 개 시민이 ᄎᆞ례, ᄎᆞ례로 그냥 경 안 ᄒᆞ민 마당에서 도깨로 두드려도 뒌다.(몇 군데 월령도 몇 군데 이만쯤도 하나 있었고, 섯 동네도 하나 있었고 네 개 있으면 차례, 차례로 그냥 그렇게 안하면 마당에서 도리깨로 두드려도 된다.)

103024 @ 밤에도 막 허곡예.(밤에도 막 하고요.)

103024 #1 거 지 허지 기리운.(거 자기 하고 싶은.)

103024 @ 새벽에도 허곡.(새벽에도 하고.)

103024 #1 응. 도깨로 두드림도 허곡, ᄆᆞᆯ방에에 강 둥글임도 허곡.(응. 도리깨로 두드림도 하고, 연자매에 가서 굴리기도 하고.)

103024 @ 아아, 비닐 그런 거에 푸대에.(아아, 비닐 그런 거에 자루에.)

103024 #2 담아 아졍 ᄋᆞ저, 오랑 방에에 놩 이제 ᄆᆞᆯ방에에 놩은에.(담아서 가져오랴, 와서 방아에 놔서 이제 연자매에 놔서.)

103024 @ 담아 아졍 ᄋᆞ저.(담아 가져 오랴.)

103024 #2 아. 도깨질은 잘 안하곡, 조는 방에에 놔가지고 둥글여.(아, 도리깨질은 잘 안하고, 조는 방아에 놔가지고 굴려.)

103024 @ 아아, 그추룩 푸데에 담앙 둥글여?(아아, 그렇게 자루에 담아서 굴려?)

103024 #2 푸데에 이제 담앙 오랑, 방에레 이제 퍼 놩 영 둥글영.(자루에 이제 담아 와서, 방아에 이제 퍼 놔서 이렇게 굴려서.)

103024 @ 퍼 놩 둥글영, 그믄 조가 ᄆᆞᆯ방에가 필요허다예. 보리보다예 타작은 안허고 별로?(퍼 놔서 굴려서, 그러면 조가 연자매가 필요하군요. 보리보다 타작은 안하고 별로?)

103024 #2 타작은 안 허여.(타작은 안 해.)

103024 @ ᄆᆞᆯ방에가 여기서 중요허구나.(연자매가 여기서 중요하구나.)

103024 #2 둥글이는 거.(굴리는 거.)

103024 @ ᄀᆞ실 들민 ᄆᆞᆯ방에 둥글영 경허연 씰어 담앙 맥에예?(가을 들면 연자

매 굴려서 그렇게 해서 쓸어 담아서 먹에요?)

103024 #2 맥에 딱 담아다가 이젠 그 이젠 불리우고, 뭐에 헤야 뒈거든.(먹에 딱 담아다가 이젠 그 이젠 불리고, 뭐에 헤야 되거든.)

103024 @ 불리우고 이제 고팡에 다 담습니까?(불리고 이제 고방에 다 담습니까?)

103024 #2 이제 멕 헤당.(이제 먹 해다가.)

103024 @ 씨 헐 거는 조코고리채 놔둡니까?(씨 할 거는 조이삭째 놔둡니까?)

103024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24 @ 아 좁쌀 따로 좋은 걸로 조푸게기[55]에 담앙.(좁쌀 따로 좋은 걸로 '조푸게기'에 담아서.)

103024 #2 좋은 걸로 놔 둬. 놔 뒷다가 씨 허주게.(좋은 걸로 놔 둬. 놔 뒀다가 씨 하지.)

103024 @ 덩더렁 마께[56]로 두드리고?('덩더렁 마께'로 두드리고?)

103024 @ 그거 다 언제 엇어져 불엇수과?(그거 다 언제 없어져 버렸습니까?)

103024 #3 응, 아니. 해방된 것이 아니라 새마을 사업허멍 치우지 말렌 헹 놔두난 치왕 데껴 불언.(응, 아니. 해방된 것이 아니라 새마을 사업하면서 치우지 말라고 해서 놔두니까 치워서 던져버렸어.)

103024 @ 신엄은 지금도 하나 이십디다게.(신엄은 지금도 하나 있습니다.)

103024 #3 응. 실 거여. 신 부락 셔.(응. 있을 거야. 있는 부락 있어.)

103026 @ 좁쏠로는 무엇을 합니까?(좁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26 #1 좁쏠만도 조팝이라고, 거문 조 거무룽흔 거 더 맛좋나.(좁쌀만도 조밥이라고, 검은 조 거무스름한 거 더 맛있다.)

103026 @ 흐린 조.(흐린 조.)

103026 #1 게메 흐린 것이 거문 거여. 다시 노랑 것도 흐린 거 싯나. 무싱거에 뜨랑은예.(글쎄, 흐린 것이 검은 거야. 다시 노란 것도 흐린 거 있다. 뭐에 따라서요.)

103026 @ 모인조?(모인조?)

103026 #1 모인조. 노랑헌 거, 거 죽 쒀먹고이.(메조, 노랑한 거, 그거 죽 쒀먹고.)

103026 @ 죽 쒀 먹는 거?(죽 쒀 먹는 거?)

103026 #1 죽도 쒀 먹나. 그 모인조.(죽도 쒀 먹나. 그 메조.)

103026 @ 아이덜도예? 애기 아플 때 베게도 허곡?(아이들도요, 애기 아플 때 베게도 하고?)

103026 #1 응. 베게도 거 조 놩 흔다.(응. 베게도 거 조 놔서 한다.)

103026 @ 어렸을 때 거 어른덜 말이 경 헙디다게.(어렸을 때 거 어른들 말이

55) '조푸게기'는 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에 넣고 둥그스름하게 엮어 올리되 아가리를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졸이고 목이 있게 만든 아주 작은 멱둥구미를 말한다. '씻부게', '씻부게기'라고도 한다.

56) '덩더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덩드렁마께'라고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103026 #1 그 모인 조 베게도 조 놩 흔다.(그 메조 베게도 조 놔서 한다.)

103026 @ 어른덜 검은 조가 맛셔라, 어느 조가 맛잇어마씨?(어른들 검은 조가 맛있더라, 어느 조가 맛있었습니까?)

103026 #1 아 그건 저 무신것고? 다 맛잇젠 헤도 검은 조가 맛셔라. 이 노랑해도 또 검은 것이 싯저 또.(아, 그건 저 무엇이니? 다 맛있다고 해도 검은 조가 맛있어라. 이 노랑해도 또 검은 것이 있지 또.)

103026 @ 흐랑흐랑헌[57] 게 오메기[58] 허는 건가?('흐랑흐랑한' 것이 '오메기' 하는 건가?)

103026 #1 오메기도 헌다. 그 저 오메기 헤영 찧엉 술도 헹 먹고게, 오메기이 막걸리.(오메기도 한다. 그 저 오메기 해서 찧어서 술도 해서 먹고게, '오메기' 막걸리.)

103026 @ 술을 뭐엔 헙니까? 고소리?(술을 뭐라고 합니까? '고소리'?)

103026 #1 아, 고소린 다끄는 거고, 영 오메긴 영 고망도 싯고 물 놔근에 숨아가민 그레 건 고소린 그 술 다끄는 거고. 이 오마긴 또 떡 멘들안 가운디 고망 뚤랑 숨으민 익으민 또 걸로 막 이제 찌어근에 이 펭으로 허나 어떵 허영 그걸 헤연 술 담는 거고. 오마긴, 오마긴 떡이여게.(아, '고소린' 닦는 거고, 이렇게 '오메긴' 이렇게 구멍도 있고 물 놔서 때어가면 거기에 그건 '고소린' 그 술 닦는 거고. 이 '오마긴' 또 떡 만들어서 가운데 구멍 뚫어서 때면 익으면 또 그걸로 막 이제 쪄서 이 병으로 하나 어떻게 해서 그걸 해서 술 담는 거고. '오마긴', '오마긴' 떡이야.)

103026 @ 헤 봣수과?(해 봤습니까?)

103026 #1 아이고 허곡말곡. 우리 어멍네 허는 거ᄀᆞ치 보리 ᄀᆞ튼 거 봐나난 다 알암주기게.(아이고 하고말고. 우리 어머니네 하는 거같이 보리 같은 거 봤었으니까 다 알고 있지.)

103026 @ 감주도 해 봐낫수과?(감주도 해 봤었습니까?)

103026 #1 거 무신 말고? 골감주[59], 골감주옌 헌다게.(그거 무슨 말고? '골감주', '골감주'라고 한다.)

103026 @ 골감주는 보리로 허는거꽈? 조감주과?('골감주'는 보리로 하는 겁니까? 조감줍니까)

103026 #1 아니, 그 저 무싱거고. 그저 골감준 그저 골 놩 그거 헹은에 허민 든다게. 골감주라고 골 놩 그저 뿔낭은에 뿔나민 골이라고이 든다. 보리, 보리 물 컷다근에 영 놔두민이 뿔난다. 뿔나민 그것이 골이라고이 든다게. 경헤근에이.(아니, 그 저 무엇이니? 그저 '골감주'는 그저 골 놔서 그거 해서 하면 달아. '골감주'라고 엿기름 놔서 그저 뿌리 나서 뿌리 나면 엿기름이라고 달다. 보리, 보리 물 담갔다가

57) '흐랑흐랑ᄒᆞ다'는 끈기 있는 물건이 휠 정도로 아주 부드럽다는 의미다.
58) '오메기'는 차좁쌀가루에 더운물을 넣어 되게 반죽한 후 가운데 큰 구멍이 뚫어지게 만든 고리 모양의 떡을 말한다.
59) '골감주'는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를 말한다.

이렇게 놔두면 뿌리 난다. 뿌리 나면 그것이 엿기름이라고 달다. 그렇게 해서는.)

103026 @ 보리 싹 나는 거 아니예?(보리 싹 나는 거 아니예요?)

103026 #1 응, 싹 난다게. 경허민 그거 이젠 물류와근에이 골아근에 골감주 멩글주기. 감주 멩글앙 게믄 든다. 그거 짜근에.(응, 싹 난다. 그러면 그거 이젠 말려서 갈아서 '골감주' 만들지. 감주 만들어서 그러면 달다. 그거 짜서.)

103026 @ 그것도 헐 줄 아는구나예?(그것도 할 줄 아는군요?)

103026 #1 어릴 때 다 헤나세. 이젠 안 헌다만은.(어릴 때 다 했었지. 이젠 안 한다만.)

103026 @ 조팝도 헹 먹고, 조떡은 무신 오메기 침떡?(조밥도 해서 먹고, 조떡은 무슨 '오메기' 시루떡?)

103026 #1 좁쏠로 오메기도 허곡.(좁쌀로 '오메기'도 하고.)

103026 @ 조떡, 조떡은 오메기 침떡, 조침떡?(조떡, 조떡은 '오메기'시루떡, 조시루떡?)

103026 #1 오메기도 허곡, 침떡도 허곡게.('오메기'도 하고, 시루떡도 하고.)

103026 @ 조침떡 거기에 뭘 놉네까? 감제도 놓곡.(조 시루떡 거기에 뭘 놉니까? 고구마도 놓고.)

103026 #1 감제도 놩은에 가운더레 놓곡이, 경허곡 무신 풋이나 녹디나 헹은에 그 무싱걸 서터줘사 뒌다게. 쉬라고 경헤사 두 개 어우러 붙으지 안허영. 야야, 요만썩 헹은에 이 우터레 놓곡, 그거 또 놓곡 헤사 뒌다.(고구마도 놔서 가운데 놓고, 그렇게 해서 무슨 팥이나 녹두나 해서 그 무엇을 섞어줘야 된다. 고물이라고 그렇게 해야 두 개 어우러져 붙지 않아서. 야야, 요만큼 해서 이 위에 놓고, 그거 또 놓고 해야 된다.)

103026 @ 흐랑흐랑해 부난예.('흐랑흐랑해' 버리니까요.)

103026 #1 딱 그디 그거 안허민 떡이 안뒈여. 건 하나 혼 덩어리 뒈언. 그거 헤영 놓아 둬사 글로 탁탁 떼어 내어근에 혼 빗[60]. 두 빗허멍 떼어네는 거여게.(딱 거기 그거 안하면 떡이 안 돼. 그건 하나 한 덩어리 되언. 그거 해서 놓아 둬야 그리로 탁탁 떼어 내어서 한 '빗', 두 '빗' 하면서 떼 내는 거야.)

103026 @ 게 좁쏠론 뭐 해 먹습니까?(그게 좁쌀론 뭐 해 먹습니까?)

103026 #1 어떵허여? 저 보리밥 허영 영 뿔어가민 우이 영 허텅은에도 허영 먹고 그냥 조팝만 헹 먹고 좁쏠만도 밥 뒌다게. 조팝이라고.(어떻게 해? 저 보리밥 해서 이렇게 불어가면 위 이렇게 섞어서 해서 먹고 그냥 조밥만 해서 먹고 좁쌀만도 밥 된다. 조밥이라고.)

103026 @ 조팝에는 어떤 종류가 이서마씨?(조밥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3026 #1 아이고, 검은 조도 싯고 거무룽헌 거 더 맛싯나. 것도 싯고.(아이고 검은 조도 있고 거무스름한 거 더 맛있어. 그것도 있고.)

103026 @ 모인조?(메조?)

---

60)'빗'은 탈로 베어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를 세는 말이다.

103026 #1 죽도 쒀 먹나.(죽도 쒀 먹는다.)

103026 @ 좁쌀은 무엇을 해서 먹습니까? 조팝?(좁쌀은 무엇을 해서 먹습니까? 조팝?)

103026 #2 조팝. 조팝도 헹 먹고, 그 저 보리쏠에 놩은에 서껑 잘 먹어.(조밥. 조밥도 해서 먹고, 그 저 보리쌀에 놔서 섞어서 잘 먹어.)

103026 @ 서껑예? 그리고 감주, 술, 오메기떡, 뭐 어떤 거 떡은 무슨 조침떡?(섞어서요? 그리고 감주, 술, '오메기'떡, 뭐 어떤 거 떡은 무슨 조 시루떡?)

103026 #2 오메기떡이렌 헌 거는 조로 멩들거든. 오메기떡을 멘들아 가지고 술을.('오메기'떡이라고 한 거는 조로 만들거든. '오메기'떡을 만들어 가지고 술을.)

103026 @ 무사 오메기떡이렌 헴신고예?(왜 '오메기'떡이라고 했는가요?)

103026 #2 오메기떡 멘들민 방동글락ᄒᆞ게 멘들어 가지고 가운디 그 저 터지게 멘들아. 자지게 멘들어 가지고 그 저 뭣고? 술 ᄀᆞ튼 거 허젠 술.('오메기'떡 만들면 동글랑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운데 그 저 터지게 만들어. 찰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저 뭐고? 술 같은 거 하려고 술.)

103026 @ 오메기라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예?('오메기'라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요?)

103026 #2 오메기 오메기떡이라고 허주기게. 그게.('오메기', '오메기'떡이라고 하지. 그게.)

103026 @ 오메기가 무슨 말인지는? 오메기.('오메기'가 무슨 말인지는? '오메기.)

103026 #2 오메기떡 그 저 뭣고. 술 만들 때 하는.('오메기'떡 그 저 뭣고. 술 만들 때 하는.)

103026 @ 술 만들 때 오메기술예. 오메기술, 감주도 조로 만드는가? 고소리[61]는 조 아니지예?(술 만들 때 '오메기'술요? '오메기'술, 감주도 조로 만드는가? '고소리'는 조 아니지요?)

103026 #2 어. 고소린 술.(어. '고소린' 술.)

103026 @ 고소린 술이고 감주 ᄃᆞᆯ코롬헌 감주도 조로 만들어.('고소린' 술이고 감주 달콤한 감주도 조로 만들어.)

103026 #2 응. 조로 멘들어.(응. 조로 만들어.)

103026 @ 그거 어머니가 헤주는 거 만들어 보진 안허고.(그거 어머니가 해주는 거 만들어 보진 않고.)

103026 #2 만들어 보진 안허고, 그.(만들어 보진 않고, 그.)

103026 @ 그거 좋아 헤낫수과? 감주.(그거 좋아 했었습니까? 감주.)

103026 #2 감주, ᄃᆞᆯ거든. ᄃᆞᆯ게 멘들아.(감주, 달거든. 달게 만들어.)

103026 @ 그난 언제 건 헙데가? 멩질허곡.(그러니까 언제 건 했습니까? 명절하

61) '고소리'는 솥에 오메기술을 넣고 그 위에 소줏고리를 얹어서 증류해서 뽑아내는 제주의 전통 소주를 말한다.

고.)

103026 #2 멩질 제사때 주로 허주기. 그거.(명절 제사 때 주로 하지. 그거.)

103026 @ 오메기떡 엿 헤가지고도 영 헤주고, 어머니도 영 헤 줘낫수과? 어머니도 술 멘듭디가?('오메기'떡 엿 해 가지고도 이렇게 해주고, 어머니도 이렇게 해줬었습니까? 어머니도 술 만들었습니까?)

103026 #1 술, 에펜삼춘도.(술, 여자삼춘도.)

103026 #2 응. 우리 집 할망은 안 헤보고, 어머니 산 때 헤연. 그.(응. 우리 집 할머니는 안 해보고, 어머니 산 때 했어. 그.)

103026 @ 아버지가 술 그렇케 헤서 먹고 삼촌도 먹어보고?(아버지가 술 그렇게 해서 먹고 삼촌도 먹어보고?)

103026 #2 아니. 본래 술 안 먹으난 몸 아파가지고 술 베우질 안헷주.(아니. 본래 술 안 먹으니까 몸 아파가지고 술 배우질 안했지.)

103026 @ 떡 뭐가 조로 만든 거 맛좋은 거 뭐가 생각이 남수과? 조침떡?(떡 뭐가 조로 만든 거 맛좋은 거 뭐가 생각이 납니까? 조침떡?)

103026 #2 침떡. 조팝.(시루떡. 조밥.)

103026 @ 뭐가 제일 맛 좋아마씨? 곤밥?(뭐가 제일 맛 좋습니까? 쌀밥?)

103026 #2 아멩헤도 곤밥이 낫긴 나신디이.(아무리 해도 흰밥이 낫기는 나은데.)

103026 @ 곤밥 먹젠허민 제일 제주도에서는 어렵덴 헙디다.(흰밥 먹으려고 하면 제일 제주도에서는 어렵다고 합디다.)

103026 #2 어려와낫주게.(어려웠었지.)

103026 @ 보리 흐는 거 똑같다예?(보리 하는 거 똑같군요?)

103026 #1 씨만 딱 놩은에 뒈느냐? 아무나 그냥 갈아줭은에 벳 나고. 땅 속에 들어가사 흙 속에 꼭 들어가사 헉 우에 셩 뒌다. 게난 지철에 산디, 나룩만이 안 나와도.(씨만 딱 놔서 되니? 아무나 그냥 갈아줘서 볕 나고. 땅 속에 들어가야 흙 속에 꼭 들어가야 흙 위에 있어야 된다. 그니까 제철에 밭벼, 벼만큼 안 나와도.)

103026 #1 연날엔 물 컷당 맞다게. 어려운거옌 맞다. 맞다 뚤도 아덜 보리밥만 어려운 거렌 들어본 아니여. 어려운 거여. 베도 꼬고 무사 여잔 입 엇어? 여려 손에 갈라줘낫저. 아덜이영 뚤이영이(전화) 나신디 말골암저. 끊어 불엄저.(옛날엔 물 담갔다가 맞다. 어려운거라고 맞다. 맞다. 딸도 아들 보리밥만 어려운 거라고 들어본 아니여. 어려운 거여. 베도 꼬고 왜 여잔 입 없니? 여려 손에 갈라줬었지. 아들이랑 딸이랑 (전화) 나에게 말한다. 끊어 버리네.)

103026 @ 감주, 조팝, 조떡, 조침떡, 오메기술?(감주, 조밥, 조떡, 조시루떡, '오메기'술?)

103026 #3 오메기술은게게, 조로 헹은에 오메기 무사?('오메기'술은, 조로 해서 '오메기' 왜?)

103026 @ 막걸리.(막걸리.)

103026 #3 그거 봐나실 건디. 오메기옌 동그랗게 고망 뚤랑 오메기떡 멩글앙 막

걸리 담는 거 그게 오메기 아니가?(그거 봤었을 텐데. ‘오메기’라고 동그랗게 구멍 뚫어서 오메기떡 만들어서 막걸리 담그는 거 그게 ‘오메기’ 아니냐?)

103026 @ 그게 맛좋아마씨?(그게 맛있어요?)

103026 #3 응. 그것이 막걸리 담는 거 그거 오메기떡 아니가?(응. 그것이 막걸리 담그는 거 그거 ‘오메기’떡 아니가?)

103026 @ 무사 오메기옌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쿠과?(왜 ‘오메기’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103026 #3 저 그거 고망 뚤라지난 오메긴가 생각허주기. 오메기, 오메기.(저 그거 구망 뚫러지니까 ‘오메긴’가 생각하지. ‘오메기’, ‘오메기’.)

103026 @ 오물락허게 들어갓덴?(움푹하게 들어갔다고?)

103026 #3 오메기 경헌 모양이라.(‘오메기’ 그런 모양이라.)

103026 @ 음 이게 제일 맛 좋아마씨? 고소리허곤 또 틀리고?(음 이게 제일 맛 좋습니까? ‘고소리’하고는 또 틀리고?)

103026 #3 고소린 거 소주 다끄는 거고, 이건 막걸리 담앙 먹는 거 고소리 술.(‘고소린’ 거 소주 닦는 거고, 이건 막걸리 담아서 먹는 거 ‘고소리’ 술.)

103026 @ 이게 어머니가 만들어줘 봣수과? 아니믄?(이게 어머니가 만들어줘 봤습니까? 아니면?)

103026 #3 우리 어머니도 그거 멘들아낫저. 고소리 다 잇고.(우리 어머니도 그거 만들었었지. ‘고소리’ 다 있고.)

103026 @ 그믄 좁쌀 흐린 조로 허는 거예.(그러면 좁쌀 흐린 조로 하는 거요.)

103026 #3 응. 흐린조로 참 먹기도 좋넨 저 감자 뻿데기헤영 물령, 그거 헹 소주 뿝주. (응. 흐린조로 참 먹기도 좋다고 저 감자 절간고구마해서 말려서, 그거 해서 소주 뿝지.)

103026 @ 조깡마기[62]? 고고리가 아니고? 깡마기렌 헙니까?(‘조깡마기’? 이삭이 아니고? ‘깡마기’라고 합니까?)

103026 #3 조 돌려낭 그거, 깡마기주기.(조 달려서 그거, ‘깡마기’지.)

103026 @ 깡마기? 조코고리가 아니고?(‘깡마기’? 조 이삭 아니고?)

103026 #3 조코고리 다 털어낸 다음에 그 깡마기옌 헌다. 그 깡마기 소 잘 먹어.(조 이삭 다 털어낸 다음에 그 ‘깡마기’라고 한다. 그 ‘깡마기’ 소 잘 먹어.)

103026 @ 좃대를 깡마기렌 헙니까?(조짚을 ‘깡마기’라고 합니까?)

103026 #3 좃대 말고 그 고고리, 영 허지 안으냐? 조 털어불믄 깡마기 별도로 나온다게. 그거 조깡마기.(조짚 말고 그 이삭, 이렇게 하지 않나? 조 털어버리면 ‘깡마기’ 별도로 나온다. 그거 ‘조 깡마기’.)

103026 @ 조 털어 분 거예?(조 털고 난 거요?.)

103026 #3 그거 잘 먹은다. 그거.(그거 잘 먹는다. 그거.)

103026 @ 조깡마기 잘 먹는다고예.(‘조깡마기’ 잘 먹는다고요.?)

62) ‘조깡마기’는 조 이삭에서 열매를 떨고 남은 줄기를 말한다. ‘조칵메기’라고도 한다.

103026 #3 응.(응.)

103027 @ 조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조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27 #1 조 허여난 찍이여게. 쉐 멕이고 헌다.(조 했던 짚이여. 소 먹이고 한다.)

103027 @ 아, 쉐 멕이고?(아, 소 먹이고?)

103027 #1 쉐 멕이고 조찍은 조 헤여난 찍이여. 쉐 멕인다 조찍이라고이 조 비어나민 고고리 토다나민 조찍이여게. 나무.(소 먹이고 조짚은 조 했던 짚이야. 소 먹인다 조짚이라고 조 베어나면 이삭 뜯고 나면 조짚이야. 나무.)

103027 @ 뭐 만들진 안코예?(뭐 만들진 않고요?)

103027 #1 아니 만든다.(안 만든다.)

103027 @ 눌은 눕니까?(가리는 눕니까?)

103027 #1 눌엇당 쉐 멕인다게. 그거. 그냥은 놔둘 수 엇지. 비 맞아불엉.(가리었다가 소 먹인다. 그거. 그냥은 놔둘 수 없지. 비 맞아버려서)

103027 @ 그난 보리눌은 쉐 안 멕영 불 숨고, 조찍은 쉐 먹고.(그러니까 보리가리는 소 안 먹여서 불 때고, 조짚은 소 먹고.)

103027 #1 조찍은 쉐 먹고, 조찍은 쉐 먹나게. 빠닥빠닥ᄒᆞ영 쉐 잘 먹어. 보리낭은 쉐 안먹나게. 불이나 숨은벳긔.(조짚은 소 먹고, 조짚은 소 먹나. 뻣뻣해서 소 잘 먹어. 보리짚은 소 안 먹어. 불이나 땔 밖에.)

103027 @ 게민 무슨 농사가 경 어려웁데가?(그러면 무슨 농사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103027 #1 어떵허여. 그땐게 산디도 허곡.(어떻게 해. 그땐 밭벼도 하고)

103027 @ 거믄 조칩은 어떵케 활용헙니까? 조찝.(그러면 조짚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27 #2 소 멕이주게.(소 먹이지.)

103027 @ 소 멕이고예. 다 눌 눌엉.(소 먹이고요. 다 가리 가려서.)

103027 #2 눌엇다가.(가렸다가.)

103027 @ 눌엇다가 이거 누는 거는 보리하고 달라마씨?(가렸다가 이거 가리는 거는 보리하고 다릅니까?)

103027 #2 게 일반이주게. 거 눌엇다근에 혼 믓 빵은에 쉐 주고.(그래. 일반이지. 거 가렸다가 한 뭇 뽑아서 소주고.)

103027 @ 물도 멕이고.(말도 먹이고.)

103027 #2 물도 멕이고 허주게.(말도 먹이고 하지.)

103027 @ 게믄 눌 때는 조코고리쪽이 안쪽으로 다 보리하고 똑같아마씨? 코고리 쪽이 안으로 들어가게.(그러면 눌 때는 조 이삭 쪽이 안쪽으로 다 보리하고 똑같습니까? 이삭 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103027 #2 응. 안으로 들어가게 눌엇다가 등체긴[63] 베끗디레 영 나오게시리.

63) '등체기'는 나무 밑둥이나 식물의 굽둥을 말한다. '등케기'라고도 한다.

(응. 안으로 들어가게 가리었다가 '등체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103027 @ 그때는 무사 경 헤신고예. 경헤야 비 올 때라도 것도 잘도 과학적인 거 닮은디.(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가요?. 그렇게 해야 비 올 때라도 그것도 정말 과학적인 거 같은데.)

103027 #2 빠기 좋고.(뽑기 좋고.)

103027 @ 예. 그믄 조찍은 어떵헙니까?(예. 그러면 조짚은 어떻게 합니까?)

103027 #3 소 주는 거여 소. 먹는 거 잘 먹나. 건 이 집이 시꺼당 그거 눌엉은에 영 작두 싯지.(소 주는 거야 소. 먹는 거 잘 먹나. 그건 이 집이 실어다가 그거 가려서 이렇게 작두 있지?)

103027 @ 예.(예.)

103027 #3 작두로 막 썰어ᄋᆞ졍 솖앙은에 뭐 무싱거 버무령 주곡 허는거여.(작두로 막 썰어가지고 삶아서 뭐 무엇 버무려서 주고 하는 거야.)

103027 @ 아, 솖앙 버무령 줍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아, 삶아서 버무려 줍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103027 #3 그 영 썰믄, 그거 이제 큰 가마에 놩 솖주기. 보그랑케 솖아지민 그ᄀᆞ루 무신 디딜ᄀᆞ루나 보리ᄀᆞ루 그거 허영 허텅 소 주곡허느네.(그렇게 썰면, 그거 이제 큰 가마에 놔서 삶지. 뿌옇게 삶아지면 그 가루 무슨 디딜가루나 보리가루 그거 해서 섞어서 소 주고 했었네.)

103027 @ 아아, 허텅예?(아아, 섞어서요?.)

103027 #3 응. 소 촐 허는 거 아니가. 좃댄, 좃댄.(응. 소 촐 하는 거 아니가. 조짚, 조짚.)

103027 @ 예.(예.)

103027 @ 조하고 콩 다 잘 먹어?(조하고 콩 다 잘 먹어?)

103027 #3 ᄋᆞ게. 좃대.(응. 조짚.)

103028 @ 빠기 좋고 조 농사에 얽힌 뭐 조 검질메당 뱀을 봣다던가?(빼기 좋고 조 농사에 얽힌 뭐 조 김매다가 뱀을 봤다던가?)

103028 #2 아. 그런 거 뱀은 옛날도 하나니까 그게 뭐 밧디 갓당이라도 봐지니까.(아. 그런 거 뱀은 옛날도 많았으니까 그게 뭐 밭에 갔다 가라도 봐지니까.)

103028 @ 넋나난 적은 어섯수과?('넋났'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103028 #2 아, 그런 거 넋도 날 때가 싯고, 그 앞에서 어릴 땐 겁이 문딱허게 날 때도 싯지.(아, 그런 거 넋도 날 때가 있고, 그 앞에서 어릴 땐 겁이 '문딱'하게 날 때도 있지.)

103028 @ 조팝, 보리밥허곡 조 섞은 게 맛좋고.(조밥, 보리밥하고 조 섞은 게 맛있고.)

103028 #2 아멩헤도 조가 들어가사 맛이서.(아무리 해도 조가 들어가야 맛있어.)

콩 농사

103029 @ 콩은 마씨?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콩은요?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콩도 갈곡게.(콩도 갈고.)

103029 @ 콩씨 받아 놧던 거 집에?(콩씨 받아 놨던 거 집에?)

103029 #1 응. 것도 콩씨. 것도 일 년 넘어가민 안 난다. 일 년 넘어가민(응. 것도 콩씨. 것도 일 년 넘어가면 안 난다. 일 년 넘어가면.).

103029 @ 청태영 무신 거?(청태랑 무엇?)

103029 #1 청태가 뭣고?(청태가 뭐고?)

103029 @ 푸리롱 푸리스름흔 콩.(파리롱 파리스름한 콩.)

103029 #1 푸린 콩도 있고 허지. 거 청태렌 허느냐?(푸른 콩도 있고 하지. 그거 청태라고 하느냐?)

103029 @ 청태렌 헙디다. 시장에서.(청태라고 합디다. 시장에서.)

103029 #1 ᄒᆞ꼼 들어난 듯 헷저.(조금 들어난 듯 했어.)

103029 @ 그 콩은 보통 노랑 콩이나.(그 콩은 보통 노란 콩이나.)

103029 #1 노랑 콩도 잇고 푸린 콩도 잇고.(노란 콩도 있고 푸린 콩도 있고)

103029 #1 쥐눈이콩, 검은 약 콩도 잇고.(쥐눈이콩, 검은 약 콩도 있고.)

103029 #1 응. 멧 가지 싯주기게.(응. 몇 가지 있지.)

103029 @ 근디 거의 누렁 걸로헷지예?(그런데 거의 누런 걸로 했지요?)

103029 #1 노란 거 지일 주류로 하영 하는 거. 노랑 거.(노란 거 제일 주류로 많이 하는 거. 노란 거.)

103029 @ 자, 이제 콩으로 감수다. 콩농사를 헐 땐 어떤 준비가 필요헙니까?(자, 이제 콩으로 갑니다. 콩농사를 할 땐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2 콩. 그거 뭐, 준빈 무싱거?(콩. 그거 뭐, 준빈 무엇?)

103029 @ 이것도 똑같이.(이것도 똑같이.)

103029 #2 어. 똑같이 그냥.(어. 똑같이 그냥.)

103029 @ 게난, 콩농사 산디 농사 감저농사 이제.(그러니까, 콩 농사 밭벼 농사 고구마농사 이제.)

103029 #3 그거 다 흔 가지여게. 거 무슨 산디헐 철나민 산디허고, 콩 갈 철 나민 콩 갈곡. 그거.(그거 다 한가지여. 그거 무슨 밭벼 할 철나면 밭벼하고, 콩 갈 철 나면 콩 갈고. 그거.)

103030 @ 콩 농신 언제 헤마씨?(콩 농산 언제 합니까?)

103030 #1 ᄀᆞ실에 갈아근에 영 봄 나가믄 빈다.(가을에 갈아서 이렇게 봄 나가면 벤다.)

103030 @ 그믄 조 끝나 가민?(그러면 조 끝나 가면?)

103030 #1 ᄀᆞ찌ᄀᆞ찌 뒈 간다게. 조영 콩이영.(같이 같이 돼 간다. 조랑 콩이랑.)

103030 @ 보리 끝나면 콩이영 조영.(보리 끝나면 콩이랑 조랑.)

103030 #1 응게. 보린 겨울에 ᄒᆞ는 거. 보릴 하영 갈아사 먹지.(응. 보린 겨울에

하는 거. 보릴 많이 갈아야 먹지.)

103030 @ 어느 걸 더 잘 갈앗수과? 보리 끝난 다음?(어느 걸 더 잘 갈았습니까? 보리 끝난 다음?)

103030 #1 ᄀᆞ찌 못허는거여게. 봄에 허는 건 봄이, 겨울 허는 건 겨울 경ᄒᆞ는 거여.(같이 못허는 거야. 봄에 하는 건 봄이, 겨울 하는 건 겨울 그렇게 하는 거야.)

103030 @ 조를 갈까? 콩을 갈까? 중에 선택을 헤야 뒈잖아예?(조를 갈까? 콩을 갈까?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103030 #1 그건 이녁. 이녁 ᄒᆞ지 기려운 냥. 콩도 갈민 그거 솖으민 메주도 뒈영 장도 담앙 먹고.(그건 이녁. 이녁 하고 싶은 대로. 콩도 갈면 그거 삶으면 메주도 되어서 장도 담아서 먹고.)

103030 #1 아니여게. 콩은 그냥 갈고.(아니야. 콩은 그냥 갈고.)

103030 @ 콩은 그냥 갈아예? 콩은 언제? 조가 먼저꽈? 콩이 먼저꽈?(콩은 그냥 갈아요?, 콩은 언제? 조가 먼접니까? 콩이 먼접니까?)

103030 #1 ᄀᆞ자ᄀᆞ자 ᄀᆞ타간다게. 조영 콩이영, 보린 겨울 거난 건 또시.(그럭저럭 같아간다. 조랑 콩이랑, 보린 겨울 거니까 그건 또.)

103030 @ 콩 농사허고 조 농사는 시기가 비슷하곡?(콩 농사하고 조 농사는 시기가 비슷하고?)

103030 #1 응. 그자 ᄀᆞ트다.(응. 그저 같다.)

103030 @ 좁쌀허곡 콩은 시기가 언제 어떻게 갑니까? 조허고 비슷합니까?(좁쌀허곡 콩은 시기가 언제 어떻게 갑니까? 조하고 비슷합니까?)

103030 #2 응.(응.)

103030 @ 이거는 봄?(이거는 봄?)

103030 #2 응. 봄.(응. 봄.)

103030 @ 봄 멧 월 달쯤 뒐 건고예?(봄 몇 월 달쯤 될 건가요?)

103030 #2 조 갈 때 콩허는 거난.(조 갈 때 콩 하는 거니까.)

103030 @ 똑같이 그믄 어떻게 선택을 헤마씨? 조도 허고 콩도 허고?(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조도 하고 콩도 하고?)

103030 #2 ᄋᆞ게. 콩이랑 ᄯᅳ로 갈고.(응. 콩이랑 따로 갈고.)

103030 @ ᄯᅳ로 갈고 나름 뭘 헐까를 고민 헤야잖아예?(따로 갈고 나름 뭘 할까를 고민 해야잖아요?)

103030 #2 조영도 ᄀᆞ치 갈아 섞어지게.(조랑도 같이 갈아 섞어지게.)

103030 @ 무사마씨?(왜입니까?)

103030 #2 다르게도 허주만은 ᄯᅳ로 허는 게 나아.(다르게도 하지만 따로 하는 게 나아.)

103030 @ ᄯᅳ로 갈면 콩은 삐여마시씨?(따로 갈면 콩은 뿌립니까?)

103030 #2 응. 콩도 삐여 그냥.(응. 콩도 뿌려 그냥.)

103030 @ 콩씨를 좁쌀처럼 삔다?(콩씨를 좁쌀처럼 뿌린다?)

103030 #2 좁쌀 모냥으로 뿌려 가지고 갈아.(좁쌀 모양으로 뿌려 가지고 갈아.)

103030 @ 다른 방법 없이 똑같아 똑같고?(다른 방법 없이 똑같아 똑같고?)

103030 #2 똑같아.(똑같아.)

103031 @ 아까 보린 헷고예. 콩농사 할려면 걸름 준비 안헤도 뒈곡?(아까 보린 했고요. 콩 농사 하려면 거름 준비 안 해도 되고?)

103031 #1 건 그냥 삐여.(그건 그냥 뿌려.)

103031 @ 그건 걸름은? 그믄.(그건 거름은? 그러면.)

103031 #1 그건 거름 안 헤도 뒌다. 콩은 이 이 보린 걸름 안 헤영은 잘 안 뒈여이, 쉡씨라고 그냥 집 일멍.(그건 거름 안 해도 된다. 콩은 이 이 보린 거름 안해서는 잘 안 돼, '쉡씨'라고 그냥 집 일면서.)

103031 @ 콩농사를 하려면 어떵 해야 뒈마씨? 이건 걸름 필요엇어마씨? 콩?(콩농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거름 필요 없습니까? 콩?)

103031 #1 건 어느 정도 건 걸름 안 놔도 보리 ᄀᆞ튼 건 걸름 안 헹은 안 뒈여이. 게도 이젠 쉡씨라고이 그냥 씨 삐영도 비료만 하영 허믄 뒌다.(그건 어느 정도 건 거름 안 놔도 보리 같은 건 거름 안해선 안 돼. 그래도 이젠 '쉡씨'라고 그냥 씨 뿌려도 비료만 많이 하면 된다.)

103031 @ 것도 그냥 뿌려마씨?(그것도 그냥 뿌립니까?)

103031 #1 아니. 이젠 쉡씨라고 그땐 쉡씨 안뒌덴 헤낫저.(아니. 이젠 '쉡씨'라고 그땐 '쉡씨' 안된다고 했었지.)

103031 @ 옛날 걸로?(옛날 걸로?)

103031 #1 옛날 거는 걸름에 서껑은에.(옛날 거는 거름에 섞어서.)

103031 @ 콩도?(콩도?)

103031 #1 콩은 이것도 삐고 걸름은 이것도 걸름은 어떻게 합니까?(콩은 이것도 뿌리고 거름은 이것도 거름은 어떻게 합니까?)

103031 #2 건 비료나 시민 비료나 줌벳긔.(그건 비료나 시민 비료나 줄 수밖에.)

103032 @ 콩 씨는 어떻게 뿌립니까?(콩 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2 콩씨 그냥 그대로 뿌렷주기.(콩 씨 그냥 그대로 뿌렸지.)

103033 @ 이것도 싀 불 검질 메야 뒈어마씨?(이것도 세 벌 김 매야 됩니까?)

103033 #1 검질 메주지 않으민 안 뒌다게. 다 메줘사.(김 매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매줘야.)

103033 @ 싀 불예. 이건은 조팟 검질보다 똑같이 어려와? 콩?(세 벌요. 이건은 조밭 김보다 똑같이 어려워? 콩?)

103033 #1 아니, 콩도 메어줘사 헤여. 아니 멘덴 해도 덜 멘덴 해도, 어느 정도 메사 검질에 졸령은 안뒌다. 뭐시던지.(아니, 콩도 매어줘야 해. 안 맨다고 해도 덜 맨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매야 김에 져서는 안 된다. 뭐든지.)

103033 @ 조팟 검질 메는 게 어려워마씨? 콩밧 검질 메는 게 어려웁니까?(조밭 김매는 게 어렵습니까? 콩밭 김매는 게 어렵습니까?)

103033 #1 콩밧이 쉽나게. 조팟이 흔 불 더 메주고게. 존 요만썩 조는 ᄉᆞ뭇 줓지만 안허민 어느 정도 뒈도, 조팟은 꼭 방 벌여사 뒌다게. 경 안허민 줄앙 안뒌다게. 응. 요만씩 딱 해주고 불라주곡, 조가.(콩밭이 쉽다. 조밭이 한 벌 더 매지. 존 요만큼 조는 사뭇 잦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돼도, 조밭은 꼭 방 벌려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잘아서 안 된다. 응. 요만큼씩 딱 해주고 밟아주고, 조가.)

103033 @ 조가 까다롭구나예?(조가 까다롭군요?)

103033 #1 ᄋᆞ게. 보기 닮지 안 헌다.(그래. 보기 닮지 안한다.)

103033 @ 안허는 이유가 그거로구나.(안하는 이유가 그거로구나.)

103033 #1 모르켜만은 콩이 쉽나 조보다.(모르겠지만 콩이 쉽다 조보다.)

103033 @ 응. 콩밧엔 어떤 검질덜이 이신고예? 똑같은가?(응. 콩밭엔 어떤 김들이 있나요? 똑같은가?)

103033 #1 아이고 그런 거 여름 나는 거 거자 비슷헌다. ᄀᆞ랏 ᄀᆞ튼 거. 응. 그런 거. 그자 여름 나는 검질은 여름에 나곡이, 겨울에 나는 건 겨울에 나고 경흔다. 지철 ᄃᆞᆯ령 다 난다 검질덜.(아이고 그런 거 여름 나는 거 거의 비슷한다. 가라지 같은 거. 응. 그런 거. 그저 여름 나는 김은 여름에 나고, 겨울에 나는 건 겨울에 나고 그렇게 한다. 제철 따라서 다 난다 김들.)

103033 @ 콩밧 검질은 멧 번 멥니까?(콩밭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33 #2 흔 번쯤 멜 거여. 콩밧은.(한 번쯤 맬 거야. 콩밭은.)

103033 @ 한번쯤 이건 쉬운가보다예. 검질은 이것이 조팟보다도 메기도 쉽다.(한 번쯤 이건 쉬운가보군요. 김은 이것이 조밭보다도 매기도 쉽다.)

103033 #2 어, 쉬워.(어, 쉬워.)

103033 @ 검질들은 어떤 것이 잇습니까? 콩밧디는 쒜비늠.(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콩밭에는 쇠비름.)

103033 #2 쒜비늠도 싯고, 것도 여러 가지 셔.(쇠비름도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 있어.)

103033 @ 콩밧디 검질.(콩밭에 검질.)

103033 #3 검질 안 매영.(김 안 매여서.)

103033 @ 콩은 조하고 비슷허게 싱금니까?(콩은 조하고 비슷하게 심습니까?)

103033 #3 ᄋᆞ게. 조 헐 때 콩 허는 거 아니가?(응. 조 할 때 콩 하는 거 아니가?

103033 @ 콩은 검질은 조보다는 괜찮아마씨?(콩은 김은 조보다는 괜찮습니까?)

103033 #3 ᄋᆞ, 쉽나. 콩 가는 건.(응, 쉽나. 콩 가는 건.)

103033 @ ᄀᆞ라지[64] 여름 검질 겨울 검질도 틀린덴 헙디다.(가라지 여름 김, 겨울 김도 틀린다고 하던데요.)

103035 @ 콩수확은 어떵헙니까? 꺽는덴 허는 말은 뭐우꽈?(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꺾는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64) ‘ᄀᆞ라지’는 여름에 나는 김의 한 종류다.

103035 #2 무시거?(뭐?)

103035 @ 콩수확은 호미로 베는 게 아니고.(콩 수확은 호미로 베는 게 아니고.)

103035 #2 거꺼.(꺽어.)

103035 @ 거꺼? 호미로?(꺽어? 호미로?)

103035 #2 호미로 영 호미 데영, 영 영 톡톡 거꺼지주게.(호미로 이렇게 호미 대어서, 이렇게 이렇게 톡톡 꺽어지지.)

103035 @ 거끈다고 하드라고예. 거끄고 도깨질을 허는가, 도깨질예? 이게 진짜 제라헌 도깨질이지예, 마당에 놩.(꺾는다고 하더라고요. 꺾고 도리깨질을 하는가, 도리깨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도리깨질이지요, 마당에 놔서.)

103035 #2 마당에 놩 두드리거든. 도깨로. 마당에 놩 두드리거든.(마당에 놔서 두드리거든. 도리깨로. 마당에 놔서 두드리거든.)

103035 @ 어떤 노래 흔 번 헤지쿠과? 어야도 홍.(어떤 노래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야도 홍.)

103035 #2 거 소리헤난 사람도 싯고, 아니 허는 사람도 시난 거. 여자덜 헐 때 어야도 홍, 어야도 홍. 경 ᄒᆞ멍 치지.(거 소리했던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여자들 할 때 어야도 홍, 어야도 홍. 그렇게 하면서 치지.)

103035 @ 아버지는 이런 노래 부르멍 헙디가? 경은 안허고? 게믄 아부지 어머니 다 마당에 들엉들 막 그냥 두드리는구나예?(아버지는 이런 노래 부르면서 했습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다 마당에 들어서 막 그냥 두드리는군요?)

103035 #2 도깨도 아부지가 만들고마씨? 도리깨?(도리깨도 아버지가 만들고요? 도리깨?)

103035 #2 멘들주게. 저.(만들지. 저.)

103035 @ 낭이 중요한 것이 이신 셍이라?(나무가 중요한 것이 있는 모양이라?)

103035 #2 낭 가운디 궁기 뚤라 가지고, 그디 영 헤당.(나무 가운데 구멍 뚫어 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다가.)

103035 @ 만들어 봣수과?(만들어 봤습니까?)

103035 #2 아, 만들어 보진 안 헷주만은. 그 만든 거 허우치당 부쳐주는 거 보믄, 다 경허여.(아, 만들어 보진 안 했지만. 그 만든 거 때리다가 부쳐주는 거 보면, 다 그렇게 해.)

103035 @ 콩은 무사 꺼끈덴 험니까?(콩은 왜 '꺾는다' 고 합니까?)

103035 #3 비엄주. 그거 비어도 꺼꺼, 꺼꺼 헴주기.(베지. 그거 베어도 꺽어 꺽어 하는 거지.)

103035 @ 도깨질은 콩 허지예?(도리깨질은 콩 하지요?)

103035 #3 ᄋᆞ. 도깨질 헌다. 콩 때릴 때 원체 우리 많이 헐 때 도갠 힘들엉 못 헤연 다. 기계로 헤낫저.(응. 도리깨질 한다. 콩 때릴 때 워낙 우리 많이 할 때 도리깬 힘들어서 못 했어 다. 기계로 했었지.)

103036 @ 필요한 거잖아예?(필요한 거잖아요?)

103036 #1 물류민 골앙 죽도 쒕 먹고 국 끓영 먹고 콩.(말리면 갈아서 죽도 쒀서 먹고 국 끓여서 먹고 콩.)

103036 @ 두부도 헤낫수과? 둠비도 헤낫수과?(두부도 했었습니까? 두부도 했었습니까?)

103036 #1 그 둠비도 먹을 때나 헌다게. 제사 때나 이.(그 두부도 먹을 때나 한다. 제사 때나.)

103036 @ 제사 때나예? 헤봔마씨?(제사 때나요? 해봤습니까?)

103036 #1 게.(그럼.)

103036 @ 콩국도 콩가루도?(콩국도 콩가루도?)

103036 #1 콩ᄀᆞ루헤영 또 숭키 놩 허텅 영 국 끓이민이, 잘도 둘아. 콩국이라고.(콩가루해서 또 푸성귀 놔서 섞어 이렇게 국 끓이면, 아주 달아. 콩국이라고.)

103036 @ 숭키 놩예? ᄂᆞ물 배추ᄂᆞ물 놓는 거 아니?(푸성귀 놔서요? 나물 배추나물 놓는 거 아니?)

103036 #1 배추ᄂᆞ물도 뒈곡, 무수도 썰어놔도 뒌다게.(배추나물도 되고, 무우도 썰어놔도 된다.)

103036 @ 무수도 뒈고예. 그 메주도 해 봣수과?(무도 되고요. 그 메주도 해 봤습니까?)

103036 #1 메준 이제 그거 헹은에 틔와사 장 담는 거여 건.(메준 이제 그거 해서 띄워야 장 담그는 거야 그건.)

103036 @ 틔왕 장 담그고.(띄워서 장 담그고.)

103036 #1 거 틔왕 물려사.(그거 띄워서 말려야.)

103036 @ 콩나물을 뭐옌 험니까? 콩주름?(콩나물을 뭐라고 합니까? '콩주름'?)

103036 #1 응. 콩주름이옌헌다. 콩ᄂᆞ물ᄀᆞ라.(응. '콩주름'이라고 한다. 콩나물보고.)

103036 @ 콩주름도 헹 먹고?(콩나물도 해서 먹고?)

103036 @1 응. 제사 땐 꼭 해나세. 건.(응. 제사 땐 꼭 했었지. 그건.)

103036 @ 콩주름 제사 때 꼭 해난마씨? 아아, ᄯᅳ뜻헌 방에서?(콩나물 제사때 꼭 했었습니까? 아아, 따뜻한 방에서?)

103036 #1 ᄋᆞ. 걸 틔와줘사게 ᄯᅳ뜻허게 헹은에.(응. 그걸 띄워줘야 따뜻하게 해서)

103036 @ 틔와야 뒈는 거지예. ᄯᅳ뜻허게예?(띄워야 되는 거지요. 따뜻하게요?)

103036 #1 저 무시거꼬? 그 떡 치는 거 뭐고? 시리에 그거 놩은에 물 자꾸 줘줘사 큰다게.(저 뭐니? 그 떡 치는 거 뭣고? 시리에 그거 놔서 물 자꾸 줘야 큰다.)

103036 @ 아주 옛날부터 콩주름은 꼭 헷다는 거네예?(아주 옛날부터 콩나물은 꼭 했다는 거네요?)

103036 #1 그건 꼭 헤사. 제사 때.(그건 꼭 해야. 제사 때.)

103036 @ 제사 때 고사리 콩주름 저 퍼렁헌 거 뭐 헷수과? 시금치 아니믄?(제사 때 고사리 콩나물 저 파란 거 뭐 했습니까? 시금치 아니면?)

103036 #1 시금치. 신디 말안디 모르켜만은이.(시금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103036 @ 콩주름허곡, 저 고사리는 꼭 올렸다는거다예?(콩나물하고, 저 고사리는 꼭 올렸다는 거지요?)

103036 #1 고사린 어딜 가도 올려사.(고사린 어딜 가도 올려야.)

103036 @ 고사린 꼭 올려야 뒈곡, 자손을 번창헌덴 헙디다예?(고사린 꼭 올려야 되고, 자손을 번창 한다고 하던데요?)

103036 #1 게메 어떵사 허는디. 하엿튼 고사린 꼭 제사 때 올려사 헌다게.(글쎄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고사린 꼭 제사 때 올려야 한다.)

103036 @ 콩으로는 또 무싱거 인절미 헐 때 뿌렁도 그런 걸 인절미 안 먹엇지예?(콩으로는 또 무엇 인절미 할 때 뿌려도 그런 걸 인절미 안 먹었지요?)

103036 #1 인절민 안허고, 콩은 골앙 콩ᄀᆞ루 헹은에 국 끌영 먹고.(인절민 안하고, 콩은 갈아서 콩가루 해서 국 끓여 먹고.)

103036 @ 콩ᄀᆞ루 국이 중요하다예?(콩가루 국이 중요하지요?)

103036 #1 콩은 콩주름 놩 먹나. 제사때에 ᄋᆞ. 그거이.(콩은 콩나물 놔서 먹지. 제사 때에 응. 그거.)

103036 @ 콩주름예?(콩나물요?)

103036 @ 게믄 콩으로 무엇을 헙니까?(그러면 콩으로 무엇을 합니까?)

103036 #2 무엇을 헤여게?(무엇을 해?)

103036 @ 먹는 거 무엇을 만듭니까? 둠비도 만들고?(먹는 거 무엇을 만듭니까? 두부도 만들고?)

103036 #2 둠비 두부 멘들고, 골아가지고 죽 쒕도 먹고 콩죽이 좋지.(두부 만들고, 갈아가지고 죽 쒀도 먹고 콩죽이 좋지.)

103036 @ 콩주름.(콩나물.)

103036 #2 콩주름도 놩 먹고.(콩나물도 놔서 먹고.)

103036 @ 어머니 허는 거 봐봣수과?(어머니 하는 거 봤었습니까?)

103036 #2 나 그런 콩주름 ᄀᆞ튼 거 놓는 건 안 봣주만은 콩죽은 많이 먹어봐서.(나 그런 콩나물 같은 거 놓는 건 안 봤지만 콩죽은 많이 먹어봤어.)

103036 @ 콩국도?(콩국도?)

103036 #2 콩국도 많이 먹어 보고.(콩국도 많이 먹어 보고.)

103036 @ 콩주름은 멩절 때 콩주름헤야 뒈지 안험니까?(콩나물은 명절 때 콩나물 해야 되지 안습니까?)

103036 #2 콩주름 콩주름은 그 ᄯᅳ로 잘 벨도로 헤서.(콩나물은 그 따로 잘 별도로 해서.)

103036 @ 콩나물이렌 허잖아예?(콩나물이라고 하잖아요?)

103036 #2 어, 콩나물.(어, 콩나물.)

103036 @ 벨도로 헐때는 멩절 아니면 제사?(별도로 할 때는 명절 아니면 제사?)

103036 #2 제사 때나 하지.(제사 때나 허주기.)

103036 @ 제사 때 고사리 올리듯이 콩주름도 꼭 올렷수과?(제사 때 고사리 올리듯이 콩나물도 꼭 올렸습니까?)

103036 #2 꼭 올려.(꼭 올려.)

103036 @ 꼭 올련예? 게민 그 방에다가 놩은에 시루에 놩은에 봐낫다는 거지예? 어머니도 허고 저 예펜삼춘도 하고 게믄 콩가루는 맷돌로 이렇게 허고 메주 쑤는 것도 봐봣지예? 그 저 뭣꽈? 뒌장 만든 거.(꼭 올렸군요? 그러면 그 방에다가 놔서 시루에 놔서 봤었다는 거지요? 어머니도 하고 저 여자삼춘도 하고 그러면 콩가루는 맷돌로 이렇게 하고 메주 쑤는 것도 봤었지요? 그 저 뭡니까? 된장 만든 거.)

103036 #2 뒌장 만든 거. 저거 만들앙 거시기.(된장 만든 거. 저거 만들어서 거시기.)

103036 @ 숢앙 숢으믄?(삶아서 삶으면?)

103036 #2 숢아 가지고 그게 막 메주 멘들아 가지고.(삶아 가지고 그게 막 메주 만들어 가지고.)

103036 @ 틔왕?(틔워서?)

103036 #2 틔와 가지고, 담으거든 저게.(틔워 가지고, 담그거든 저게.)

103036 @ 음. 걸엉 공장에 걸엉 공장에 걸든가, 허연 그걸로 뒌장 멘들고 간장 멘들고?(음. 걸어서 '공장'에 걸어서 '공장'에 걸든가, 해서 그걸로 된장 만들고 간장 만들고?)

103036 #2 간장 멘들고.(간장 만들고.)

103036 @ 장항은 어디 이섯수과?(장독은 어디 있었습니까?)

103036 #2 장항 뒤에 놩은에 어디 놔가지고, 그걸로 뒌장 담아 오면은 거시기가 거 물. 이거 간장이 뒈는 거.(장독 뒤에 놔서 어디 놔가지고, 그걸로 된장 담아 오면은 거시기가 거 물. 이거 간장이 되는 거.)

103036 @ 메주 쑬 때는 저 콩 숢은 거 먹기도 허고?(메주 쑬 때는 저 콩 삶은 거 먹기도 하고?)

103036 #2 응. 먹기도 허곡게.(응. 먹기도 하고.)

103036 @ 깅이에 또 콩 헐 때 반찬도 헹 먹고, 우럭 놩도 지졍 먹고 콩, 콩국에 ᄂᆞ멀 놩도 헹 먹고?(게에 또 콩 할 때 반찬도 헹 먹고, 우럭 놔서도 지져서 먹고 콩, 콩국에 나물 놔서도 헹 먹고?)

103036 #2 어. ᄂᆞᄆᆞᆯ 놔서 헹도 먹고 하간,거 놔도 좋아.(어. 나물 놔서 해서도 먹고 온갖 거 놔도 좋아.)

103036 @ 늄삐도 놩?(무도 놔서?)

103036 #2 늄삐 놔도 좋고.(무 놔도 좋고.)

103036 @ 그게 몸에 좋덴예?(그게 몸에 좋다고요?)

103036 #2 콩ᄀᆞ루엔 춤말로 아무 거 들어가도 좋아.(콩가루라고 참말로 아무 거 들어가도 좋아.)

103036 @ 콩ᄀᆞ루예? 근데 미숫가룬 먹는디 콩가룬 물에 탕 먹진 안 허는 거 닮아예? 무사 비린가?(콩가루요? 그런데 미숫가룬 먹는데 콩가룬 물에 타서 먹진 않는 거 같네요? 왜 비린가?)

103036 #2 아니. 콩ᄀᆞ루도 그 저 보릿ᄀᆞ루에 서껀.(아니. 콩가루도 그 저 보릿가루에 섞어서.)

103036 @ 건 이제야주게. 옛날에는.(그건 이제야지. 옛날에는.)

103037 @ 콩찍은 또??(콩짚은 또?)

103037 #1 ᄋᆞ게. 쉐도 먹곡 헌다.(응. 소도 먹고 한다.)

103037 @ 콩찍도 쉐 먹고 이것도 신기허여예. 딱딱헌디예.(콩짚도 소 먹고 이것도 신기하지요. 딱딱한데요.)

103037 #1 쉐 먹나. 콩깍지라고 거 먹나. 쉐게, 경 딱딱해도.(소 먹어. 콩깍지라고 그거 먹어. 소, 그렇게 딱딱해도.)

103037 @ 콩깍지렌 헨 마씨?(콩깍지라고 했습니까?)

103037 #1 조찍이 조 해난 것도 쉐먹고, 콩해난 것도 쉐먹고.(조짚, 조 했던 것도 소 먹고, 콩 했던 것도 소 먹고.)

103037 @ 것도 눌 눌고예.(그것도 가리 가리고요.)

103037 #1 어떵허여? 그냥 놩은 아니뒈곡 비 맞이민.(어떻게 해?. 그냥 놔서는 안 되고 비 맞으면.)

103037 @ 콩농사나 조농사에 무슨 비가 왕 뭐 썩어부럿던가?(콩 농사나 조 농사에 무슨 비가 와서 뭐 썩어버렸든가?)

103037 #1 경해난 눌어줘야지. 묻어 줘사 비 안 맞게 우이 뭐 덮엉 비 맞이민 다 썩어부는 따문게.(그런 다음 가려줘야지. 묻어 줘야 비 안 맞게 위 뭐 덮어서 비 맞으면 다 썩어 버리는 때문.)

103037 @ 콩찧은 어떵헙니까? 콩찧 콩찍?(콩짚은 어떻게 합니까? 콩짚 '콩찍'?)

103037 #2 아, 콩대.(아, 콩대.)

103037 @ 콩대렌 헙니까? 콩대는?(콩대라고 합니까? 콩대는?)

103037 #2 뭐 어떵 허여게?(뭐 어떻게 해?)

103037 @ 이것도 조찍하고 똑같이 쉐하고 ᄆᆞᆯ 먹어예? 근데 이건 어떵 먹어마씨?(이것도 조찧하고 똑같이 소하고 말 먹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먹습니까?)

103037 #2 것도 그냥 첨 저 조찍 눌듯 눌어도 뒈고.(그것도 그냥 참 저 조짚 가리듯 가려도 되고.)

103037 @ 눌어야 뒈예? 눌어야.(가려야 되요? 가려야.)

103037 #2 불도 슴고 남은 건.(불도 때고 남은 건.)

103037 @ 콩은 눌, 이것도 쉐멕입니까?(콩은 가리, 이것도 소 먹입니까?)

103037 #3 ᄋᆞ게, 쉐 잘 먹나.(그래, 소 잘 먹어.)
103037 @ 잘 안 먹어마씨?(잘 안 먹습니까?)
103037 #3 잘 먹어.(잘 먹어.)
103037 @ 콩은 콩잎은?(콩은 콩잎은?)
103037 #3 콩은 저 콩대도 잘 먹어나서.(콩은 저 콩대도 잘 먹어나서.)

밭벼 농사

103039 @ 산디도 해봣수과?(밭벼도 해봤습니까?)
103039 #3 ᄋᆞ게, 산디ᄀᆞ튼 거 안 헤 볼 일 시냐? 농사렌 헌 건 다.(응, 밭벼 같은 거 안 해 볼 일 있니? 농사라고 한 건 다.)
103039 @ 게민. 산디는 또 어떵? 산디?(그러면. 밭벼는 또 어떻게? 밭벼?)
103039 #1 뭐시라. 산디, 산디도 그거 저 무시거꼬? 여름에 허는 거 아니가?(뭐시라. 밭벼, 밭벼도 그거 저 뭐니? 여름에 하는 거 아니가?)
103039 @ 거믄 이제 산디로 감수다예. 산디는 밭벼농사를 할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그러면 이제 밭벼로 갑니다. 밭벼는 밭벼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39 #2 산디.(밭벼.)
103039 @ 산디, 곤밥 먹는 거?(밭벼, 흰밥 먹는 거?)
103039 #2 어. 그건 이젠 잘 안 허주만은, 옛날에 그 일반이여. 가는 건 씨 헹 가는 거.(어. 그건 이젠 잘 안 하지만, 옛날에 그 일반이여. 가는 건 씨 해서 가는 거.)
103040 @ 언제 어떻게 갑니까? 산디는 봄에?(언제 어떻게 갑니까? 밭벼는 봄에?)
103040 #2 봄에, 나룩헐 때.(봄에, 벼할 때.)
103040 @ 나룩헐 때 물에 엇인디 허난, 산디 허는 거잖아예. 이것도 땅 그냥 밧 갈앙 씨 뿌령?(벼할 때 물에 없는데 하니까, 밭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따서 그냥 밭 갈아서 씨 뿌려서?)
103040 #2 씨 뿌령, 갈믄 뒈주기.(씨 뿌려서, 갈면 되지.)
103040 @ 봐낫수과? 헤낫수과?(봤었습니까? 했었습니까?)
103040 #2 안 헤봐서. 우린.(안했어. 우린.)
103040 @ 듣기만 허연.(듣기만 했어.)
103040 #2 어. 듣기만 허연.(어. 듣기만 했어.)
103040 @ 산디는 멧 월 달에 갈아마씨?(밭벼는 몇 월 달에 갈아요?)
103040 #3 산디 저 뭐헌다. 산디 갈젠 허믄 막 뭐 헤연. 잘 안 이 저 두모, 신창 더레 산듸덜 잘 헤낫저. 이렌이 잘 안헤.(밭벼 저 뭐한다. 밭벼 갈려고 하면 막 뭐 했어. 잘 안 이 저 두모, 신창쪽엔 밭벼들 잘 했었지. 여긴 잘 안 해.)
103041 @ 근데 이건 거름 안 해도 뒈곡.(그런데 이건 거름 안 해도 되고.)

103041 #1 비료 ᄒᆞ꼼 더 줘야지이.(비료 조금 더 줘야지.)

103041 @씨 박아서?(씨 넣어서?)

103041 #1 씨만 딱 놩사 뒈느냐? 아무 거라도 ᄒᆞ꼼 걸류와 줘사, 것이 뒈는 거주.(씨만 딱 놔야 되니? 아무 거라도 조금 걸게 해 줘야, 그것이 되는 거지.)

103041 @ 그믄 거름을 영 던져주는가예?(그러면 거름을 이렇게 던져주는가요?)

103041 #1 걸름을 알더레. 비료도 뒈난게. 어떻든지 걸류와 줘사. 아무 걸 뒈도.(거름을 아래쪽으로. 비료도 되니까. 어떻든지 걸게 해 줘야. 아무 걸 되도.)

103041 @ 거난 아까 보리처럼 속에 놩은에 허진 않고?(그러니까 아까 보리처럼 속에 놔서 하진 않고?)

103041 #1 그냥 갈아 줭은에. 이제 그런 건이 어떻튼지 씨 우에 논 건 안 뒌다. 우에 논 건 안 뒈곡, 벳 나곡 허는 따문에 안 뒈곡. 하엿튼 땅속에 들어가야.(그냥 갈아 줘서. 이제 그런 건 어떻든지 씨 위에 놓은 건 안 된다. 위에 놓은 건 안 되고, 볕 나고 하기 때문에 안 되고. 하여튼 땅속에 들어가야.)

103041 @ 거름 먼저 허고 그럼?(거름 먼저 허고 그럼?)

103041 #1 경허난 거름 ᄀᆞ치 ᄀᆞ치 허영, 그 거름이나 씨나 땅에 들어가사 헉 속에 들어가사 뒈주. 이 헉우이 이성은 안뒈는 거여.(그러니까 거름 같이 같이 해서, 그 거름이나 씨나 땅에 들어가야 흙 속에 들어가야 되지. 이 흙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103041 @ 아, 거름 먼저 하고 그 다음 씨를 뿌린다던가 그런 방법을?(아, 거름 먼저 하고 그 다음 씨를 뿌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103041 #1 ᄋᆞ. 영 ᄒᆞ나 정 ᄒᆞ나 ᄀᆞ치 땅속에 들어가사 뒌다게. 헉 속에.(응.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이 땅속에 들어가야 된다. 흙 속에.)

103041 @ ᄀᆞ치 씨랑예?(같이 씨랑요?)

103041 #1 헉 우이 셩은 안 뒈는 거여게.(흙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103041 @ 헉 우이 거름이 이성은 안 뒈고, 서꺼줘야 뒌다는 거지예?(흙 위에 거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섞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103041 #1 헉 속에 똑 들어가사.(흙 속에 꼭 들어가야.)

103041 @ 밧벼가 걸름은 어떵 네고? 씬 어떵 뿌리고?(밭벼가 거름은 어떻게 내고? 씬 어떻게 뿌리고?)

103041 #2 걸름은 허지 안허여. 그냥 씨 뿌렁.(거름은 하지 안 해. 그냥 씨 뿌려서.)

103043 @ 이것도 검질, 싱경 똑ᄀᆞ튼가예?(이것도 김, 심어서 꼭 같은가요?)

103043 #1 게. 검질은 다 메줘사주. 검질 셩은 아무것도 안 뒈여.(그럼. 김은 다 매줘야지. 김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

103043 @ 이것도 가을에 아마 나룩이 가을에 나는 것처럼 산디도 가을에 나는 거?(이것도 가을에 아마 벼가 가을에 나는 것처럼 밭벼도 가을에 나는 거?)

103043 #1 게, 지철에 헤줘사 뒌다.(게, 제철에 해줘야 된다.)

103045 @ 이것도 똑같이 베곡, 도깨질 허곡?(이것도 똑같이 베고, 도리깨질 하고?)

103045 #1 ᄋᆞ게. 홀타주곡 헤사.(응. 홅어주고 해야.)

103045 @ 클로 홀타주곡 보리허는 거 똑같다예?(틀로 홅어주고 보리하는 거 똑같네요?)

103045 #1 ᄋᆞ. 보리허는 거 닮나.(어. 보리하는 거 닮나.)

103045 @ 이것도 베영 도리깨허고 똑같은가예?(이것도 베여서 도리깨하고 똑같은가요?)

103045 #2 어. 일반.(어. 일반.)

103046 @ 추석 때 써야 뒈니까예?(추석 때 써야 되니까요?)

103046 #1 응, 게난 지철에 꼭꼭 지 들어가는 거 들어가사주이.(응, 그러니까 제철에 꼭꼭 제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지.)

103046 @ 게난 산디로는 곤밥이 중요하잖아예?(그러니까 밭벼로는 쌀밥이 중요하잖아요?)

103046 #1 게. 것도 쏠 나온다게, 곤밥 나와.(그래. 그것도 쌀 나온다, 쌀밥 나와.)

103046 @ 많이 안나오지예?(많이 안 나오지요?)

103046 #1 나룩만인 아니 돌아도, 이게 나오긴 헌다게.(벼만큼 안 달려도, 이게 나오긴 한다.)

103046 @ 겨믄 떡은 무신 떡 돌래떡?(그러면 떡은 무신 떡 도래떡?)

103046 #1 떡도 그냥 지네 허기 기로운 냥 허주기게.(떡도 그냥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103046 @ 옛날은 물 컷당 ᄲᆞᆺ앙 헷낫저.(옛날은 물 담갔다가 빻아서 했었지.)

103046 @ ᄲᆞᆺ앙예? ᄲᆞᆺ앙.(빻아서요? 빻아서.)

103046 #1 ᄒᆞ꼼 물 커나민 뿟사진다게. 남방에라고 경헤연 떡덜 헤낫저.(조금 물 담그면 빻아진다. 남방아라고 그렇게 해서 떡들 했었지.)

103046 @ 이게 저 모인 찹쌀하고 산디는 또 틀리지예?(이게 저 '모인' 찹쌀하고 밭벼는 또 틀리지요?)

103046 #1 뭐, 춥쌀? 어떵게 춥쌀도 춥쌀허곡, 출진 뿐이주이. 아멩헤도 걸 ᄲᅥ사 줘사 춥쌀떡을 뒈나. 밥은 또 그냥 할 수도 잇주만은 출진 거.(뭐, 찹쌀? 어떻게 찹쌀도 찹쌀하고, 차진 뿐이지. 아무리 해도 그걸 빻아줘야 찹쌀떡을 되나. 밥은 또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차진 거.)

103046 @ 이거 진짜 멩질 아니민 먹지 못 헤어서예?(이거 진짜 명절 아니면 먹지 못했어요?)

103046 #1 맞다게. 어려운 거여.(맞다. 어려운 거야.)

103046 @ 산디, 곤밥 먹젠 허민 진짜로 경 수꾸락, 여자아인 안 주곡 아덜만 주곡? 뭐.(밭벼, 쌀밥 먹으려고 하면 진짜로 그렇게 숟가락, 여자아인 안 주고 아들만

주고? 뭐.)

103046 #1 경 헤나샤? 여잔 무사 먹지 안 헤나샤?(그렇게 했었니? 여잔 왜 먹지 안 했었니?)

103046 @ 아니, 경헤도 밤이 여잔 한 수꾸구락씩만 정말 먹언마씨?(아니, 그렇게 해도 밤에 여잔 한 숟가락씩만 정말 먹어요?)

103046 #1 지랄헌다. 아니 무사 여잔 무사 입어서 아덜만 입셔? 두령청헌 말 골암저. 게민 먹지 말렌 말고? 여잔 더 골으라 보저.(지랄한다. 아니 왜 여잔 왜 입 없어? 아들만 입이 있어? 뜬금없는 말 한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말인가? 여잔, 더 말해 봐라.)

103046 @ 겨난 말도 안 뒈는 소리라.(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103046 #1 어떵헌 말고 두령청헌 소리. 여잔 안 주고 아덜만 줜? 어떵헌 말고?(어떤 말이니? 뜬금없는 소리. 여잔 안 주고 아들만 줜? 어떤 말이니?)

103046 @ 아이 그렇진 않은 디, 한 수꾸락씩 그 제사 지난 끝나난 다음 경 귀헷덴.(아이 그렇진 않은 데, 한 숟가락씩 그 제사 지나서 끝나난 다음 그렇게 귀했다고.)

103046 #1 아, 어려운 거옌 끊어 주멍 갈라 줫구나. 얘야, 손에 끊엉 손더레 갈라 줘낫저게. 보리밥 쏠만 보리밥만 먹주. 그거 어려운 거라고, 맞다. 맞다게. 똘도 주고 아덜 주고 허지. 안 헨. 난 들어보도 안헌 말이여. 끊어준 건 알아지는 디, 삼방에서 말덜 곧당 말 골암덴 ᄒᆞ난 들구 우리 큰똘 들구 우시멍 끈어불엄세.(아, 어려운 거라고 끊어 주면서 갈라 줬구나. 얘야, 손에 끊어서 손에 갈라 줬었지. 보리밥 쌀만 보리밥만 먹지. 그거 어려운 거라고, 맞다. 맞다. 딸도 주고, 아들 주고 하지. 안 했어. 난 들어 보지도 안한 말이야. 끊어준 건 알겠는데, 마루에서 말들 하다가 말한다고 하니까 마구 우리 큰딸, 마구 웃으면서 끊어버리네.)

103046 @ 곤밥, 제사 때 곤밥 이 산디쌀로 헤 먹습니까?(흰밥, 제사 때 흰밥 이 밭벼쌀로 해 먹습니까?)

103046 #2 산디 간 사람은 이녁 거 놔뒷당 헤도, 읏인 사람은 사당.(밭벼 간 사람은 이녁 거 놔뒀다가 해도, 없는 사람은 사다가.)

103046 @ 읏인 사람은 사당 나룩은 여기 엇엇지예? 사당허고.(없는 사람은 사다가 벼는 여기 없었지요? 사다가도 하고.)

103046 #2 엇어.(없어.)

103046 @ 이녁 거 간 거는 어디 놧당 막 귀허게 썻지예?(이녁 거 간 거는 어디 놨다가 막 귀하게 썼지요?)

103046 #2 이녁 거 간 사람은 그 이녁 집이 걸로 헤여.(이녁 거 간 사람은 그 이녁 집에 걸로 해.)

103047 @ 벳찝으론 뭘 헷수과? 산디찝으로.(벼짚으론 뭘 했습니까? 밭벼짚으로.)

103047 #1 옛날덜은 그걸로 신도 삼고이.(옛날은 그걸로 신도 삼고.)

103047 @ 찦신?(짚신?)

103047 #1 찍신이라고 노도 꼬,고 베도 꼬고.(짚신이라고 노도 꼬고, 베도 꼬고.)

103047 @ 노도 꼬고, 베도 꼬고 질빵예?(노도 꼬고, 바도 꼬고 질빵요?)

103047 #1 쓰젠 허민 경헷저게. 으게, 경헷저게.(쓰려고 하면 그렇게 했지. 응. 그렇게 했지.)

103047 @ 산디찍으로는 뭘 헷수과?(밭벼짚으로는 뭘 했습니까?)

103047 #2 멩텡이도 멕도 줄고, 멍석도 졸고, 짚신도 삼고, 노도 꼬고.(망태기도 멱도 짜고, 멍석도 짜고, 짚신도 삼고, 노도 꼬고.)

103047 @ 베도 꼬고 베는 뭐지?(바도 꼬고 바는 뭐지?)

103047 #2 베, 베, 그 저 찍으로 영 졍 뎅기는 베.(바, 바, 그 저 짚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 바.)

103047 @ 베도 꼬고, 산디도 산디찍이 헐 일 많앗다예?(바도 꼬고, 밭벼도 밭벼짚이 할 일 많았네요?)

103047 #2 어.(어.)

103047 @ 이 찦신 이런 거 삼아봣수과?(이 짚신 이런 거 삼아봤습니까?)

103047 #2 노도 꼬고 헤 봐서 허여 보고 망텡이도 영 줄아보고.(노도 꼬고 해 봐서 해 보고 망태기도 이렇게 짜보고.)

103047 @ 아이고 누가 가르쳐 줜마씨?(아이고 누가 가르쳐 줬나요?)

103047 #2 그 허는 사람이. 그땐 많헷주게. 그런 줏는 사람덜.(그 하는 사람이. 그땐 많았지. 그런 짜는 사람들.)

103047 @ 마을에?(마을에)

103047 #2 마을에.(마을에.)

103047 @ 지금은 없잖아예?(지금은 없잖아요?)

103047 #2 이젠 없어.(이젠 없어.)

103047 @ 허렌 헤도 못허겟지예?(하라고 해도 못하겠지요?)

103047 #2 이젠 허렌 헤도 그런 거.(이젠 하라고 해도 그런 거.)

103047 @ 망텡이도 줏고예?(망태기도 짜고요?)

103047 #2 어. 망텡이도 줄고 짚신도 삼아보고.(어. 망태기도 짜고 짚신도 삼아보고.)

103047 @ 짚신도 삼아보고 게민 어쨋든 산디 누가 허면 그 찍을 어떵 얻어신고예?(짚신도 삼아보고 그러면 어쨌든 밭벼 누가 하면 그 짚을 어떻게 얻었나요?)

103047 #2 찍을 그 산디 간 사람네 집이서 돈, 강 사당.(짚을 그 밭벼 간 사람네 집에서 돈, 가서 사다가.)

103047 @ 사당 찍을 사는구나 이거는.(사다가 짚을 사는 구나 이거는.)

103047 #2 어. 사주게.(어. 사지.)

103047 @ 응. 비싸진 않고예?(응. 비싸진 않고요?)

103047 #2 응. 비싸진 않고.(응. 비싸진 않고.)

103047 @ 게믄, 이것도 다 눌엉 풉니까? 눌엉 봇당 풀민 ᄒᆞ꼼씩 쓰고 짚신도 자기가 삼앙 자기가 신어마씨? 가족들.(그러면, 이것도 다 가려서 팝니까? 가려 봤다가 팔면 조금씩 쓰고 짚신도 자기가 삼아서 자기가 신어요? 가족들.)

103047 #2 가족들게 이녁냥으로.(가족들 이녁대로.)

103047 @ 그믄 모두가 재능이 엇인 사람 짚신 다 허는 건 아니다예? 잘 허는 사람 이실 거 아니?(그러면 모두가 재능이 없는 사람 짚신 다 하는 건 아니네요? 잘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

103047 #2 잘 허는 사람 잇어.(잘 하는 사람 있어.)

103047 @ 거기서 벱기도 허고?(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103047 #2 어, 벱기도 허고.(어, 배우기도 하고.)

103047 @ 사기도 허고?(사기도 하고?)

103047 #2 어. 잘 허는 사람은 이녁냥으로 풀주기. 옛날에는 신이 엇어 노니까 찍신이 많이.(어. 잘 허는 사람은 이녁냥으로 팔지. 옛날에는 신이 없으니까 짚신 많이.)

103047 @ 찦신이 아니 찍신이렌 헙니까? 산디찍이렌 헙니까? 산디짚이렌 헙니까?(짚신이 아니 '찍신'이라고 합니까? 밭벼짚이라고 합니까? '밭벼찍'이라고 합니까?)

103047 #2 찍.(짚.)

103048 @ 곤밥에 얽힌 추억 뭐 제사헤난 다음 곤밥을 뭐 숟가락으로 먹엇덴 허곡, 사발로 한 사발 다 먹음니까? 12시까지 파제 기다렷당?(흰밥에 얽힌 추억 뭐 제사해난 다음 흰밥을 뭐 숟가락으로 먹었다고 하고, 사발로 한 사발 다 먹습니까? 12시까지 파제 기다렸다가?)

103048 #2 하영도 먹고 족게도 먹는 사람 싯고 허주기. 그거 식게 땐 곤밥이 식게 때 저 멩질 때 춤 곤밥이옌 헹 먹어보주.(많이도 먹고 작게도 먹는 사람 있고 하지. 그거 제사 땐 흰밥이 제사 때 저 명절 때 참 흰밥이라고 해서 먹어보지.)

103048 @ 뭐가 제일 맛좋아마씨? 삼촌은 옥돔이영 곤밥이영.(뭐가 제일 맛있어요? 삼촌은 옥돔이랑 흰밥이랑.)

103048 #2 식게 때는 아멩헤도 식게 때는 고기.(제사 때는 아무리해도 제사 때는 고기.)

103048 @ 고기 무슨 고기? 돼지고기?(고기 무슨 고기? 돼지고기?)

103048 #2 돼지고기도 싯고 바릇궤기도.(돼지고기도 있고 바닷고기도.)

103048 @ 적, 그런 게 맛좋아. 옥돔 국 맛좋고.(적, 그런 게 맛있어. 옥돔 국 맛있고.)

고구마 농사

103049 @ 고구마 용시 감제?(고구마 농사 고구마?)

103049 #1 감제 것도 잘 헤낫저게.(고구마 그것도 잘 했었지.)

103049 @ 감제는 또 언제 흔번만 하지예? 이것도.(고구마는 또 언제 한번만 하지요? 이것도.)

103049 @ 한 번 갈지예?(한 번 갈지요?)

103049 #1 일 년에 흔 번.(일 년에 한 번.)

103049 @ 겨울 내내 ᄃᆞ뜻헌 방에 영 놧당?(겨울 내내 따뜻한 방에 이렇게 놨다가?)

103049 #1 ᄋᆞ게. 언디 노민 썩어불언게.(응. 추운데 놔두면 썩어버렸어.)

103049 @ 아이고 우리 할머니 춤.(아이고 우리 할머니 참.)

103049 @ 고구마로 감수다예. 감제예? 감제는 언제 준비가 필요합니까?(고구마로 갑니다. 고구마요? 고구마는 언제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49 #2 감제도 조 헐 때.(고구마도 조 할 때.)

103049 @ 조 헐 때 똑같아예. 감자를 ᄃᆞ뜻헌 디 놔뒀당?(할 때 똑같아요. 고구마를 따뜻한 데 놔뒀다가?)

103049 #2 놔뒀다가 그 옛날에는 저실에ᄁᆞ지 땅 파가지고, 속에 그 저 묻엉 놔뒀다가 거시기 헐 때마다 안네멍 먹고.(놔뒀다가 그 옛날에 겨울에 까지 땅 파가지고, 속에 그 저 묻어서 놔뒀다가 거시기 할 때마다 꺼내면서 먹고.)

103049 @ 빠네멍 먹고 저도 경헤나신디. 우린 이런 저 방에 ᄌᆞ은 방에.(빼내면서 먹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린 이런 저 방에 작은 방에.)

103049 #2 이딘 몰래 팡은에 묻엇당.(여긴 모래 파서 묻었다가.)

103049 @ 경헨 그걸 싱경 봄에 싱경.(그렇게 해서 그걸 심어서 봄에 심어서.)

103049 @ 아, 잘 안헤예. 감제는 많이 헷수과?(아, 잘 안 해요. 고구마는 많이 했습니까?)

103049 #3 응 고구마 헤낫저, 고구마.(응 고구마 했었지, 고구마.)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경 안허민 묻어도 낫저. 땅에 묻어근에이 영 헉 더껑은에. 그레 무싱 것덜 놩 보리낭이나 무싱거던지 놓앙은에, 헉 덕껑 경 헹덜 옴파내멍 먹어낫저게. 이젠 영 방에도 놓주만은 ᄒᆞ꼼 시민 뭐 헷주만은이. 전이사 큰일로 헷주기게. 큰 양석으로 먹곡게.(그렇게 안하면 묻었었지. 땅에 묻어서 이렇게 흙 덮어서. 거기에 무엇들 놔서 보릿대나 무엇이든지 놓아서, 흙 덮어서 그렇게 해서 옴파내면서 먹었었지. 이젠 이렇게 방에도 놓지만 조금 있으면 뭐 했지만. 전에야 큰일로 했지. 큰 양식으로 먹고.)

103050 @ 큰일로 헷주게. 고구마는 언제?(큰일로 했지. 고구마는 언제?)

103050 #1 고구마 ᄀᆞ만 시라. 어느제 겨울에 언제 봄 나민 허는거까? 몰르켜. 잊어불어졋저.(고구마 가만 있어라. 언제 겨울에 언제 봄 나면 하는 걸까? 모르겠다. 잊어버렸네.)

103050 @ 이건 멧 월 달에 싱것수과? 봄에?(이건 몇 월 달에 심었습니까? 봄

에?)

103050 #1 이제 그 저 봄에 헹 싱경, 구월 나가믄 감제 파는 거난.(이제 그 저 봄에 해서 심어서, 구월 나가면 고구마 파는 거니까.)

103051 @ 고구마가 걸름은 마찬가지?(고구마가 거름은 마찬가지?)

103051 #1 게게. 것도 잘 놔두지 않으믄 안 들어.(그럼. 그것도 잘 놔두지 않으면 안 들어.)

103051 @ 아아, 그믄 어떵 돗거름을 놔예?(아아, 그러면 어떻게 돼지거름을 놔요?)

103051 #1 연날이사게 그레 쉐 질루당 통시레 담아 놩, 이 내쳐근에 이젠 ᄒᆞ꼼영 시들시들허믄 밧드레 시꺼간다게.(옛날이야 거기에 소 기르다가 돼지우리에 담아 놔서, 내쳐서 이젠 조금 이렇게 시들시들하면 밭에 실어간다.)

103051 @ 걸름은 안허고?(거름은 안하고?)

103051 #2 걸름은 안허여. 저것도 저 비료나 주고 이젠 허주만은. 옛날사 비료가 셔서게?(거름은 안 해. 저것도 저 비료나 주고 이젠 하지만. 옛날에야 비료가 있었나?)

103051 @ 고구마도 돗걸음, 그런 거 줫수과?(고구마도 돼지걸음, 그런 거 줬습니까?)

103051 #3 ᄋᆞ게 거름 잘 줘사 그것도 잘 뒌다 거.(응. 거름 잘 줘야 그것도 잘 된다 그거.)

103053 @ 고구마도 검질 세 번 메고예?(고구마도 김 세 번 매고요?)

103053 #1 거 나오는 냥 메사주기게. 이 세 번 메믄 판칙허지이. 초불 두불 뭣이던지 거 두불만 메도 거 줄 더꺼질 거여. 감젠 줄 더꺼지믄 검질 안 나니까.(그거 나오는 대로 매야지. 이 세 번 매면 깨끗하지. 초벌, 두벌, 뭐든지 거 두벌만 매도 그거 줄 덮어질 꺼야. 고구만 줄 덮어지면 김 안 나니까.)

103053 @ 음, 줄 더꺼지면?(음, 줄 덮어지면?)

103053 #1 ᄋᆞ. 아니 난다게. 그늘치믄 안 나는 거여. 감제줄 탁 더꺼지믄 검질 안 나. 그 전엔 메어줘사 허여.(응. 안 난다. 그늘지면 안 나는 거야. 고구마줄 탁 덮어지면 김 안 나. 그전엔 매어줘야 해.)

103053 @ 그늘 지면 검질이 안나?(그늘 지면 김이 안 나?)

103053 #1 아니 난다. 그늘 지기 전이 메줘사. 거 다 메는 거 아니여. 검질씨 아진 밧은 안 난다. 검질 씨진 밧은 박삭[65] 나곡 걸류와 놓곡 헤노민이 감젠 그냥 싱거도 안뒈난 비료 줭 싱거줘사 헌다게. 게믄이 검질씨 신 딘 잘도 나. 메줘사, 아니 메믄 안 뒈여. 검질에 졸령.(안 난다. 그늘지기 전에 매줘야. 그거 다 매는 거 아니야. 잡초 씨 앉은 밭은 안 난다. 잡초 씨 있는 밭은 박삭 나고 기름져 놓고 하면 고구만 그냥 심어도 안 되니까 비료 줘서 심어줘야 한다. 그러면 잡초 씨 있는 덴 잘 나. 매 줘야, 안 매면 안 돼. 잡초에 져서.)

65) '박삭'은 풀이나 모종이 빽빽이 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53 @ 비료를 줘사 감제를.(비료를 줘야 고구마를.)

103053 #1 못 싱근다게. 경헤사 감제 들어.(못 심는다. 그래야 고구마 들어.)

103053 @ 비료 없던 때는 걸름을?(비료 없던 때는 거름을?)

103053 #1 걸름도 주고, 또 걸름이 엇이민 비료만 줘도 뒈니까 그냥 싱근 건 안 뒈어. 들어 요 손구락ᄀᆞ치 감제 얼마 들지 안허여. 잘 ᄀᆞᆯ려줘사 뒌다게.(거름도 주고, 또 거름이 없으면 비료만 줘도 되니까 그냥 심는 건 안 돼. 계속 요 손가락같이 고구마 얼마 들지 안 해. 잘 가려줘야 된다.)

103053 @ 이것도 고구마도 검질메고?(이것도 고구마도 김매고?)

103053 #3 그 검질메주.(그 김매지.)

103054 @ 고구마 밧디 검질은 멧 번 멥니까?(고구마 밭에 김은 몇 번 멥니까?)

103054 #2 그것도 흔 번 아니믄 두 번 메주기. 감제 헐 땐 흔 번쯤 멜 거여.(그것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매지. 고구마 할 땐 한 번쯤 맬 거야.)

103055 @ 고구마 심어? 그냥 내버리면 그거 나면 고구마줄 걷으면?(고구마 심어? 그냥 내버리면 그거 나면 고구마줄 걷으면?)

103055 #1 응. 그 안에 소곱엔 감제가 시난이, 고구마 거 첨 파 가나허민 싹 나오민 그 허여근에, 그냥 놔두민 썩언이. 이젠 뜻신 방 시난 해도 엿날인 땅 똑 팡 묻어낫저게. 땅 팡 묻엉 그.(응. 그 안에 속엔 고구마가 있으니까, 고구마 거 참 파 가면 싹 나오면 그 해서, 그냥 놔두면 썩었어. 이젠 따뜻한 방 있으니까 하지만 옛날엔 땅 꼭 파서 묻었었지. 땅 파서 묻어서 그.)

103055 @ 고구마 줄 나민 고구마 줄을 또 짤라 가지고 싱거낫지예?(고구마 줄 나면 고구마 줄을 또 잘라 가지고 심었었지요?)

103055 #1 응. 것도 메 놓나고이 메 모종 노민 고구마줄 난다게. 거 쫄랑 요만 썩 헤영 싱경 놔주민 감제든다. 철이 다 잇저게, 허는 철이. 아무 때나 안뒈여.(응. 그것도 메 놓으려고 메 모종 놓으면 고구마줄 난다. 그거 잘라서 요만큼씩 해서 심어서 놔주면 고구마 든다. 철이 다 있지, 하는 철이. 아무 때나 안 돼.)

103055 @ 팔 때가 언제꽈? 파게 뒈민?(팔 때가 언젭니까? 파게 되면?)

103055 #2 파게 뒈믄 구시월에.(파게 되면 구시월에.)

103055 @ 구월, 시월 조보다 일찍?(구월, 시월 조보다 일찍?)

103055 #2 응. 아니 조나 일반.(응. 아니 조나 일반.)

103055 @ 일반예. 구 시월에 팡?(일반요? 구시월에 파서?)

103055 #2 엉.(엉.)

103055 @ 줄을 베영 파?(줄을 베서 파?)

103055 #2 가는 사람도 싯고 파는 사람도 싯고 허주게.(가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고 하지.)

103055 @ 가는 사람 파는 사람 어떵 헤낫수과?(가는 사람 파는 사람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55 #2 파낫주기. 갈기도 허곡 쉐 신 집인 다 갈아게.(팠었지. 갈기도 하고

소 신 집엔 다 갈아.)

103055 @ 쉐 신 집은 다 갈아예? 빨리 하니까?(소 있는 집은 다 갈아요? 빨리 하니까?)

103055 #2 빨리 하니까.(빨리 하니까.)

103055 @ 고구마 많이 심언예?(고구마 많이 심었나요?)

103055 #3 응. 고구마 막 받지 못혜영은에 공장에 강 막 시꺼다 놩 찻데기로 뜨지도 안헹 무데기로 혜영 막 풀멍 헤낫저.(응. 고구마 막 받지 못해서 공장에 가서 막 실어다 와서 차떼기로 뜨지도 않고 무더기로 해서 막 팔면서 했었지.)

103056 @ 게난 보리눌은 영 눌어 놩, ᄏᆞ찡ᄏᆞ찡[66] 영 눌엇던 거 닮고.(그러니까 보리가리는 이렇게 가려 놔서, ‘ᄏᆞ찡ᄏᆞ찡’ 이렇게 눌었던 거 닮고.)

103056 #1 보리, 보리도 무꺼.(보리, 보리도 묶어.)

103056 @ 무껑 눌어마씨?(묶어서 눌어요?)

103056 #1 무꺼근에 이제 그 보리 신 건 안트레 가게 ᄒᆞ곡, 이 보리 그 비어난 디 베껏디로 오게 허곡. 경혜영 우이 덮으민 소곱에 물 안들어, 비 맞지 말젠.(묶어서 이제 그 보리 있는 건 안으로 가게하고, 이 보리 그 베었던 데 바깥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위에 덮으면 속에 물 안 들어, 비 맞지 않으려고.)

103056 @ 우엔 눌 이렇게?(위엔 가리 이렇게?)

103056 #1 눌어놩 그 위랑 뭐 덮어줘야 소곱더레.(눌어 놔서 그 위랑 뭐 덮어줘야 속으로.)

103056 @ ᄂᆞ람지?(이엉?)

103056 #1 ᄂᆞ람지. 잘 알암저이. 아하하하 기영 안ᄒᆞ민 아니 뒌다게. 젖으민 썩는 거라부난.(이엉. 잘 알고 있네. 아하하하 그렇게 안하면 안 된다. 젖으면 썩는 거라 버리니까.)

103056 @ 젖으민 썩으난.(젖으면 썩으니까.)

103056 #1 ᄋᆞ게. 비 안 들게 해줘사. 엿날엔 그것이 일이주게.(응. 비 안 들게 해줘야. 옛날엔 그것이 일이지.)

103057 @ 절간고구마 씨고구마 절간?(절간고구마 씨고구마 절간?)

103057 #1 절간도 헤여나고 절간해연 오죽 하영 바쪄나샤? 썰엉 ᄆᆞᆯ류왕.(절간도 했었고 절간해서 오죽 많이 바쳤니? 썰어서 말려서.)

103057 @ 절간감제렌 헙니까?(절간고구마라고 합니까?)

103057 #1 감제 절간혜영 잘도 바쪄낫저. 그냥 역불 받아간다게 절간혜영 ᄆᆞᆯ리민.(고구마 절간해서 잘도 바쳤었지. 그냥 일부러 받아간다. 절간해서 말리면.)

103057 @ 절간헌다는 말이 뺏데기?(절간한다는 말이 절간고구마?)

103057 #1 감제 뺏데기. 감제 써는 거. 절간이, 거 ᄆᆞᆯ류민 막 받아 가낫저.(절간고구마. 고구마 써는 거. 절간, 거 말리면 막 받아 갔었지.)

103057 @ 씨감제는?(씨 고구마는?)

66) ‘ᄏᆞ찡ᄏᆞ찡’은 크기가 비슷하여 가지런하다는 의미다. ‘ᄏᆞ뜽이’, ‘ᄏᆞ찡이’라고도 한다.

103057 #1 씨감전 놀 한에 놔사게 땅에 묻어 뒌 묻엉 이 땅에 묻엉 이 비닐이라도 더끄민이 뚜상 잘 나 씨감저 놩.(씨 고구마 놓을 때 놔야 땅에 묻어 두고 묻어서 이 땅에 묻어서 이 비닐이라도 덮으면 따뜻해서 잘 나. 씨 고구마 놔서.)

103057 @ 땅에 묻엉 씨감제를 놩 비닐이라도?(땅에 묻어서 씨고구마 놔서 비닐이라도?)

103057 #1 비닐에 더꺼 줘사, 뚯앙 잘 나. 씨감저를 놩 경 헹 더꺼줘사.(비닐에 덮어 줘야, 따뜻해서 잘 나. 씨고구마를 놔서 그렇게 해서 덮어줘야.)

103057 @ 절간고구마가 뭣꽈?(절간고구마가 뭡니까?)

103057 #2 절간고구마 ᄆᆞ른 감제(절간고구마 마른 고구마).

103057 @ 뺏데기?(절간고구마?)

103057 #2 뺏데기.(절간고구마.)

103057 @ 뺏데기 많이 헤낫수과? 여기도?(절간고구마 많이 했었습니까? 여기도?)

103057 #2 월령 사람덜 많이 해나서.(월령 사람들 많이 했었어.)

103057 @ 많이 헤난예. 게 그거 감제뺏데기도 솖앙 먹고?(많이 했었군요. 그거 고구마 절간고구마도 삶아서 먹고?)

103057 #2 솖앙도 먹고 그냥.(삶아서도 먹고 그냥.)

103057 @ 비왕은에 욕 들어 본 적은 엇수과? 들이지 안헹은에 어머니한티.(비와서 욕 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거두지 않아서 어머니한테.)

103057 #2 들이지. 그거 들이지 않으면 되나. 들여야지.(거둬야지. 그거 거둬들이지 않으면 되나. 거둬들여야지.)

103057 @ 갑자기 놀레 갓당 씨고구만 잘 놔두고.(갑자기 놀러 갔다가 씨 고구만 잘 놔두고.)

103057 #2 씨감젠.(씨고구만.)

103057 @ 소 말 다 잘먹고예?(소 말 다 잘 먹고요?)

103057 #2 잘 먹주이.(잘 먹지.)

103057 @ 감제 뺏데기 얽힌 추억이라던가? 어디다 널엇수과? 마당에 감제뺏데기는.(절간고구마 얽힌 추억이라든가? 어디다 널었습니까? 마당에 절간고구마는.)

103057 #2 뺏데기. 뺏데기는 눌지 안 헹 집안에 놔뒷다가.(절간고구마, 절간고구마는 가리지 안 해서 집안에 놔뒀다가.)

103057 @ 어디다 주정공장에다 풀앗수과?(어디다 주정공장에다 팔았습니까?)

103057 #2 다 풀앗주기. 메칠날 공판헌다 허믄, 그때 실어 가가지고.(다 팔았지. 메칠 날 공판한다 하면, 그때 실어 가가지고.)

103057 @ 저 어렷을 때도 헤나신디. 이거는 멧 년에야 뺏데길 헤신고예? 나 어렷을 때 칠십 년도도 헤시난. 이제 막 옛날엔 안 헤낫던 거 아니?(저 어렸을 때도 했었는데. 이거는 몇 년에야 절간고구마 했나요? 나 어렸을 때 칠십 년도도 했으니까. 이제 막 옛날엔 안 했던 거 아니?)

103057 #2 옛날엔 우리 옛날도 가끔 헤 나실 거라게. 우리가 좀 욕은 때니까.(옛날엔 우리 옛날도 가끔 했을 거야. 우리가 좀 철든 때니까.)

103057 @ 감자빼대기?(절간고구마?)

103057 #3 ᄋᆞ게. 고구마 싯지 안으냐? 그거 막 썬다. 그거 물류왕 그걸로 헹은에 뺏데기 헹 소주덜 멩글암세 옛날.(응. 고구마 있지 않니? 그거 막 썬다. 그거 말려서 그걸로 해서 절간고구마해서 소주들 만들었네 옛날.)

103057 @ 주정공장이여 무싱거여 헷구나예.(주정공장이다 무엇이다 했군요.)

103057 #3 ᄋᆞ.(응.)

103057 @ 응. 이것도 절간고구마여 이거 다 주정공장에 바쳣구나예?(응. 이것도 절간고구마다 이거 다 주정공장에 바쳤군요?)

103057 #3 응.(응.)

103058 @ 쫄랑 나민 가을에?(잘라서 나면 가을에?)

103058 #1 싱거근에 이 ᄋᆞ게. 게민 철에 싱그민 고구마가 든다게.(심어서 응. 그러면 철에 심으면 고구마가 든다.)

103058 @ 고구마가 들민 이걸 크민 그 줄은 뭘 해마씨?(고구마가 들면 이걸 크면 그 줄은 뭘 해요?)

103058 @ 무꺼 가지고 눌 눌땐 좀 다르다예? 보리하고예 뭉텡이로 무껑 어디 눌을 하나씩 하나씩.(묶어 가지고 가리 가릴 땐 좀 다르네요? 보리하고요. 뭉텅이로 묶어서 어디 가리를 하나씩 하나씩.)

103058 #2 눌어.(눌어.)

103058 @ 또 눌어 경헨 감젯 눌 줄 베영 그 줄을 또 눌 놩 팡 그거 보관허고 감젯눌?(또 눌어. 그렇게 해서 고구마 가리 줄 베여서 그 줄을 또 가리 놔서 파서 그거 보관하고 고구마 가리?)

103058 #1 뭣 헤여? 물류왓당 쉐도 멕이곡.(뭐 해? 말렸다가 소도 먹이고.)

103058 @ 줄덜은 이것도 다 쉐 멕이는 거예?(줄들은 이것도 다 소 먹이는 건가요?)

103058 #1 게, ᄆᆞ쉬 먹어 것이.(그래, 마소 먹어 그것이.)

103058 @ 돼지도?(돼지도?)

103058 #1 ᄒᆞ꼼 저 물령 물앙 돼지도 그냥 젖은 때 ᄒᆞ꼼 주민 씹엉 먹어낫저게.(조금 저 말려서 말아서 돼지도 그냥 젖은 때 조금 주면 씹어서 먹었었지.)

103058 #1 또 사람도이 그거 ᄒᆞ꼼 거 저 톤앙 솖으민 먹어낫저.(또 사람도이 그거 조금 거 저 뜯어서 삶으면 먹었었지.)

103058 @ 옛날에는 우리 제주도에선 그건 잘 안 먹엇주기. 지금은 막 감제줄 먹지 않아예?(옛날에는 우리 제주도에선 그건 잘 안 먹엇주기. 지금은 막 고구마줄 먹지 않나요?)

103058 #1 아니. 그거 솖앙 이.(아니. 그거 삶아서.)

103058 @ 감제줄 아니민 이파리?(고구마 줄 아니면 이파리?)

103058 #1 감자 뎅구리[67]라고 혼다. 것고라게 이파리가 아니고. 감제 줄은 말고 감아서 나온 거 감자 뎅구리렌 허는디, 무싱거렌 허느니? 감제줄은 질경 못먹고 이파리 말고.(고구마 둥치라고 한다. 그것보고 이파리가 아니고. 고구마줄은 아니고 감아서 나온 거 고구마 둥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니? 고구마줄은 질겨서 못 먹고 이파리 말고.)

103058 @ ᄑᆞ릿ᄑᆞ릿 감제줄기.(파릇파릇 고구마줄기.)

103058 #1 영 나온 거 그거, 그거 먹어낫저.(이렇게 나온 거 그거, 그거 먹었었지.)

103058 @ 감자뎅구리.(고구마 둥치.)

103058 #1 ᄋᆞ, 감자뎅구리.(응, 고구마 둥치.)

103058 @ 껍데기 벳경?(껍데기 벗겨서?)

103058 #1 벳기민 더 좋주만, 아니 벳겨도 뒈여. 복짝 썰민.(벗기면 더 좋지, 안 벗겨도 돼. 잘게 썰면.)

103058 @ 숢앙은에?(삶아서?)

103058 #1 벳경은 더 좋아. 벳경도 먹고, 아니 벳경도 먹고.(벗겨서는 더 좋아. 벗겨서도 먹고, 아니 벗겨서도 먹고.)

103058 @ 된장에 무침니까?(된장에 무칩니까?)

103058 #1 ᄋᆞ게, 돈다게.(응, 달지.)

103058 @ 응. 감저줄기.(응. 고구마 줄기.)

103058 #1 감저 둥치옌 허지. 우린 감자뎅구리 감제뎅구리엔 ᄒᆞ민 다 알아. 하하하.(고구마 둥치라고 하지. 우린 고구마 둥치, 고구마 둥치라고 하면 다 알아. 하하하.)

103058 @ 어떵 헹 뭐 국도 끓영 먹고?(어떻게 해서 뭐 국도 끓여서 먹고?)

103058 #1 모르켜. 국은 안 끓여 보고, 거 숢안이 뒌장에 무쳥 먹어낫저.(모르겠다. 국은 안 끓여 보고, 거 삶아서 된장에 무쳐서 먹었었지.)

103058 @ 뒌장에예. 톳 무치듯이예.(된장에요. 톳 무치듯이요.)

103058 #1 ᄋᆞ게. 톳 무치듯 버무령.(응. 톳 무치듯 버무려서.)

103058 @ 근데 더꺼주지 않아도 허고예?(그런데 덮어주지 않아도 하고요?)

103058 #1 뒈긴 뒈는디 더꺼준 것이 ᄃᆞ시고 잘 낭 나가민 걷어버리지 말아서이, 그 순 나는 디만 쏙쏙쏙쏙 영 영 트루 싸주민 글로 나왕 잘 큰다. 확 걷어 불민.(되긴 되는데 덮어준 것이 따뜻하고 잘 나서 나가면 걷어버리지 말고, 그 순 나는 데만 쏙쏙쏙쏙 이렇게 이렇게 둘러 싸주면 거기로 나와서 잘 큰다. 확 걷어 버리면.)

103058 @ 고망 뚤러 준다는 거지예?(구멍 뚫러 준다는 거지요?)

103058 #1 ᄋᆞ, 고망 뚤라 주민 잘 커낫저. 경 헹 막 크민 싱경 끊으멍 게 두불줄이라고 초불 싱경 또씨 놔두민 또 나왕 큰다게. 게민 또 그 말제 싱근 건 두불줄이라고 이 것도 싱그민 뒈낫저게.(어, 구멍 따라 주면 잘 컸지. 그렇게 해서 막 크

67) '뎅구리'는 채소의 뿌리에서 줄기를 자른 후 그 밑동 부분을 말한다. '뎅가리'라고도 한다.

면 심어서 끊으면서 두벌 줄이라고 초벌 심어서 또 놔두면 또 나와서 큰다. 그러면 또 그 나중에 심은 건 두벌 줄이라고 이것도 심으면 되었지.)

103058 @ 두불 줄예?(두벌 줄요?)

103058 #1 음.(음.)

103058 @ 게민 첫 번째 난 건 싱경 또 나고 잇고?(그러면 첫 번째 난 건 심어서 또 나고 있고?)

103058 #1 그건 또 밧디서 크곡게. 싱거주니까.(그건 또 밭에서 크고. 심어주니까.)

103058 @ 흔 달채?(한 달째?)

103058 #1 게난 몰르켜. 거 나 아는 것이 흔 이주, 거 흔달이고 반달이고 거 나근에 헤가민 또 끈엉 싱그민 또 뒌다.(그러니까 모르겠다. 거 나 아는 것이 한 이주, 거 한달이고 반달이고 거 나서 해가면 또 끊어서 심으면 또 된다.)

103058 @ 아 그 나는 걸 또 끈엉?(아 그 나는 걸 또 끊어서?)

103058 #1 그레 나온다게 순이게. 끈어난 딜로 끈어난 굽으로 또 나민.(그리 나온다 순이. 끊었던 대로 끊어난 굽으로 또 나면.)

103058 @ 감제 파불지 않으면?(고구마 파버리지 않으면?)

103058 #1 메불지만 말민 또 나게. 그걸 또 싱그민 또 난다. 그거ᄀᆞ라 두불 줄이렌 흔다. 하영 배왐댜? 아니 봐나샤?(매 버리지만 말면 또 나. 그걸 또 심으면 또 난다. 그거보고 두벌 줄이라고 한다. 많이 배우고 있니? 안 봤었니?)

103058 @ 두불 줄예? 하영 베왐수다. 고구마 줄기는 쉐 멕이고?(두벌 줄요? 많이 배웠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소 먹이고?)

103058 #1 ᄋᆞ게, 그거.(응, 그거.)

103058 @ 몰령예?(말려서요?)

103058 #1 ᄋᆞ게, 그냥.(응, 그냥.)

103058 @ 이것도 눌어마씨?(이것도 가려요?)

103058 #1 눌어사지. 그냥 놔두민 비오민 썩어부니까. 몰리왕 감제줄이라고 이 쉐 잘 먹지.(가려야지. 그냥 놔두면 비오면 썩어버리니까. 말려서 고구마줄이라고 이 소 잘 먹지.)

103058 @ 음, 둥글둥글허난 안 뒌. 그냥?(음, 둥글둥글하니까 안 돼. 그냥?)

103058 #1 둥글둥글이 뭣고?(둥글둥글이 뭐니?)

103058 @ 이게 기난 지난.(이게 기니까 기니까.)

103058 #1 질어도 몰르민 이제 무수를 멩들아. 거 흔번에 눌민 뒈느냐게. 그 빠내기도 어렵고 동글락동글락허게시리 헹은에 영 빠도 흔 번에 빠지게.(길어도 마르면 이제 무를 만들어. 그거 한 번에 가리면 되니? 그 빼내기도 어렵고 동글동글하게끔해서 이렇게 빼도 한 번에 빠지게.)

103058 @ 흔 묶음씩 빨 수 있게?(한 묶음씩 뺄 수 있게?)

103058 #1 ᄋᆞ. 경 헹 쉐 준다게.(응. 그렇게 해서 소 준다.)

103058 @ 아 아. 눌 헐 때는?(아 아. 가리 할 때는?)

103058 #1 ᄋᆞ게. 동글락동글락 헹 눌어줘사지. 거 그냔 막 밀면 어떵 헐 것고? 동글락동글락허게 눌어줘사 쏙 빠민 혼 덩어리썩 빠질거 아니가? 혼뭇썩 감자줄이나 조찍이나 거 다 쉐멕여낫저. 쉐양석.(응. 동글동글하게 눌어줘야지. 그거 그냥 막 밀면 어떻게 할 것고? 동글동글하게 가려 줘야 쏙 빼면 한 덩어리씩 뽑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한 뭇씩 고구마 줄이나 조짚이나 거 다 소 먹였었지. 소 양식.)

103058 @ 그믄 감젯눌은 어떵 무싱거 헷수과? 감젯눌.(그러면 고구마가리는 어떻게 무엇 했습니까? 고구마가리.)

103058 #2 감젯눌.(고구마가리.)

103058 @ 이것도 감젯줄기로 눌을 험니까?(이것도 고구마줄기로 가리를 합니까?)

103058 #2 눌 감제. 영 팡은에 묻엇당.(눌 고구마. 이렇게 파서 묻었다가.)

103058 @ 응. 감젯줄기로는 쉐 멕입니까?(응. 고구마줄기로는 소 먹입니까?)

103058 #2 소 멕엿주게.(소 먹였지.)

103058 @ 것도 눌 헤야겟다예?(그것도 눌 해야겠네요?)

103058 #2 아니 눌 눌엇당.(아니 가리 가렸다가.)

103058 @ 건 어떵 눌 눕니까?(그건 어떻게 가리 눕니까?)

103058 #2 것도 일반게. 영.(그것도 일반. 이렇게.)

103058 @ 똥글똥글 말앙?(동글동글 말아서?)

103058 #2 ᄆᆞᆯ앙 요만썩 무끄주게. 그게 또.(말아서 이만씩 묶지. 그게 또.)

103059 @ 감제뻿데기 ᄀᆞ루로 무싱거 헹 감제범벅 해 먹고.(절간고구마 가루로 무엇해서 고구마범벅 해 먹고.)

103059 #3 ᄋᆞ, ᄋᆞ, 기여. ᄋᆞ, 경덜 헤세. 거 막 좋은 거여. 춤 범벅 감제뻿데기 헹은에 ᄀᆞᆯ앙 범벅허민 춤 맛좋나. 그거 고급이라.(어, 어, 그래. 어. 그렇게들 했지. 그거 막 좋은 거야. 참 범벅 절간고구마 해서 갈아서 범벅하면 참 맛있나. 그거 고급이라.)

103059 @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고구마나 감제 엇이민 못 살아예?(우리 어렸을 때 진짜 고구마나 고구마 없으면 못 살아요?)

103059 #1 ᄋᆞ게 ᄋᆞ게.(응. 응.)

103059 @ 감제범벅.(고구마범벅.)

103059 #1 ᄋᆞ게.(응.)

103059 @ 거 어떵헹 먹어낫수과? 감제범벅.(그거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고구마범벅.)

103059 #1 ᄋᆞ게. 아이고, 감제 썰엉 ᄆᆞᆯ령 썰엉 ᄆᆞᆯ령근에 ᄀᆞ루 멩글앙 범벅도 헹 먹고 헤낫저게.(응. 아이고, 고구마 썰어서 말려서 썰어서 말려서는 가루 만들어서 범벅도 해서 먹고 했었지.)

103059 @ 무슨 ᄀᆞ루마씨?(무슨 가루요?)

103059 #1 그 감제뻿데기. 영 무싱거 허민 ᄀᆞ루 나온다게. 경헤여근에 감제 솖앙 버무리민이 감제범벅 뭰다게. 옛날이사 먹을 거 셔사게?(그 절간고구마. 이렇게 무엇 하면 가루 나온다. 그렇게 해서 고구마 삶아서 버무리면 고구마범벅 된다. 옛날에야 먹을 거 있었니?)

103059 @ 맛 좋아예?(맛 좋아요?)

103059 #1 아무 거라도 먹는 거 허영은에 배고파 노난덜이, 아무거나 잘 먹어 엿날은.(아무 거라도 먹는 거해서 배고파 놓으니까, 아무 거나 잘 먹어 옛날은.)

기타 농사

103060 @ 수박도 헤낫수과?(수박도 했었습니까?)

103060 #1 수박도 ᄒᆞ꼼 싱거낫저만은. 먹을 거 경 크게 안 허주기게. 감젠 크게 헤낫저.(수박도 조금 심었었지만. 먹을 거 그렇게 크게 안 했지. 고구만 크게 했었지.)

103060 @ 야, 수박도 그 씨를 심는 거지예? 싱그는.(야, 수박도 그 씨를 심는 거지요? 심는.)

103060 #1 ᄋᆞ 싱그믄 먹을 것덜게.(응. 심으면 먹을 것들.)

103060 @ 수박용시, 츰외용시 이런 건 안헤 봣수과?(수박농사, 참외농사 이런 건 안 해 봤습니까?)

103060 #1 수박도 ᄀᆞ튼 거 이렌 안 헤여.(수박도 같은 거 이쪽엔 안 해.)

103061 @ 츰웨도 씨 싱그고?(참외도 씨 심고?)

103061 #1 ᄋᆞ, 씨 싱그민 난다.(응, 씨 심으면 난다.)

103061 @ 츰웨.(참외.)

103061 #1 츰웨 쪼금 놩 먹고 거.(참외 조금 놔서 먹고 그거.)

103061 @ 츰웨?(참외?)

103061 #1 츰웨도 안 허고.(참외도 안 하고.)

103062 @ 호박이나 고추?(호박이나 고추?)

103062 #1 ᄋᆞ게. 다 씨 싱그민 나는 거여. 게민 들어 놔두민 잘 든다.(응. 다 씨 심으면 나는 거여. 그러면 계속 놔두면 잘 든다.)

103062 @ 고추?(고추?)

103062 #1 ᄋᆞ, 고추. 그냥 집이서 먹는 거난 ᄒᆞ꼼.(어, 고추. 그냥 집에서 먹는 거난 조금.)

103062 @ 고추?(고추?)

103062 #1 고추는 그 집이 먹을 거 그자 ᄒᆞ꼼썩 헤난 뿐.(고추는 그 집에 먹을 거 그저 조금씩 허는 거 뿐.)

103063 @ 배추도 ᄒᆞ꼼?(배추도 조금?)

103063 #1 배추 ᄒᆞ낌 헹 먹는 거난.(배추 조금 해서 먹는 거니까.)

103063 @ 배추?(배추?)

103063 #1 배추 ᄀᆞ튼 것도.(배추 같은 것도.)

103064 @ 무우도 ᄒᆞ꼼?(무도 조금?)

103064 #1 ᄋᆞ, 그것도 다 집이서 먹는 거난.(어, 그것도 다 집이서 먹는 거니까.)

103064 @ 집이서 무시, ᄂᆞᆷ삐?(집에서 무, 놈삐?)

103064 #2 ᄂᆞᆷ삐 ᄀᆞ튼 거도 거 하나씩 허주만은 다 사당 먹엇어.(무 같은 것도 거 하나씩 하지만 다 사다가 먹었어.)

103065 @ 지실, 감제?(감자, 고구마?)

103065 #1 그것도 ᄒᆞ꼼씩 ᄒᆞ꼼씩 그자.(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그저.)

103065 @ 감제, 지실?(고구마, 감자?)

103065 #1 지실도 지실 ᄀᆞ튼 건 이디 잘 안뒈여.(감자도 감자 같은 건 여기 잘 안돼.)

103066 @ 피농사도 헷수과? 수수 피?(피 농사도 했습니까? 수수 피?)

103066 #1 피는 안 헤봇저. 핀 안 헤봇저 들음만 헷주.(피는 안 해봤지. 핀 안 해봤지. 듣기만 했지.)

103066 @ 안뒈여예? 피 농사?(안돼요? 피 농사?)

103066 #1 피도 잘 안허고.(피도 잘 안하고.)

103067 @ 메밀?(메밀?)

103067 #1 ᄆᆞ멀 ᄀᆞ튼 거 ᄒᆞ꼼 헤낫저. 우리 젊을 때.(메밀 같은 거 조금 했었지. 우리 젊을 때.)

103067 @ 메밀은 또 늦게 하잖아예?(메밀은 또 늦게 하잖아요?)

103067 #1 지일 말제 건 잊어불민 아니뭔덴 헌단다. 지일 말제 ᄒᆞ는 거난이 모멀은 지일 말제 허는 거. 아이구 엿날 잘도 헤낫저만은, 이젠 늙으난 안 헌다만은. 또 밧이 원체 널르게 저 조수 아레 시난 그디.(제일 나중에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한단다. 제일 나중에 하는 거니까 메밀은 제일 나중에 하는 거. 아이구 옛날 잘 했었지만, 이젠 늙으니까 안 한다만. 또 밭이 원래 넓어서 저 조수 아래 있으니까 거기.)

103067 @ 조수 아래, 모멀.(조수 아래, 메밀.)

103067 #1 그디 강 살멍 헤낫저. 모멀도 헤나곡. 막 농사 헌덴 허는 건 다 헤낫저게. 경허믄 지네 일헤 뒁 우리 밧디 오믄 어디 간 그날 일당을 나가 꼭 주주기. 쫙 세와놩, 애야 저 반찬 값 벌엉 오켄 허멍 이 싀 사람 빌엉 놔 두민 열 사람 더 올라가는 거 아니 저 조수 아래 밧 막 널르게 벌어낫저. 우리 그디 살멍.(거기 가서 살면서 했었지. 메밀도 했었고. 막 농사 한다고 하는 건 다 했었지. 그러면 자기네 일해 두고 우리 밭에 오면 어디 가서 그날 일당을 내가 꼭 주지. 쫙 세워서 애야 저 반찬 값 벌어서 오겠다고 하면서 이 세 사람 빌어서 놔두면 열 사람 더 올라가는 거 아니? 저 조수 아래 밭 아주 넓게 벌었었지. 우리 거기 살면서.)

103067 @ 모멀도 안 허고?(메밀도 안 하고?)

103067 #2 응.(응.)

103068 @ 담배?(담배?)

103068 #1 담배도 ᄒᆞ꼼 헤나고이, ᄒᆞ썰 헤여근에.(담배도 조금 했었고, 조금해서는.)

103068 @ 다 헤낫수과?(다 했었습니까?)

103068 #1 게. 다 ᄒᆞ꼼썩 헤낫저게.(그럼. 다 조금씩 했었지.)

103068 @ 조수 아래?(조수아래?)

103068 #1 응. 경허난이. 우리 밧디 올라오믄이 돈은 어디 강 헤당이라도.(응. 그렇게 했지. 우리 밭에 올라오면 돈은 어디 가서 해서라도.)

103068 @ 거기 밧이 이서마씨?(거기 밭이 있어요?)

103068 # 밧 막 ᄒᆞᆫ 만 평도 더 벌어낫저게.(밭 막 한 만 평도 더 벌었었지.)

103068 @ 헤, 잘도 일 헤나시쿠다예?(헤, 잘도 일 했었겠네요?)

103068 #1 경허난. 그디 살멍 아기 키우젠 아기 그디 앚앙 허젠 집 ᄒᆞ꼼 짓엉 허난, 이젠 뜨시 그기 우인 더끄난 우리 조캔 간에 저 아래 뜨시게 방을 놔줘라게이. 불 때민 그레 뜨시게 그디 누멍 헤낫저 우리.(그러니까. 거기 살면서 아기 키우려고 아기 거기 앉아서 하려고 집 조금 지어서 하니까, 이젠 또 거기 위엔 덮으니까 우리 조칸 가서 저 아래 따뜻하게 방을 놔줬어. 불 때면 거기 따뜻하게 거기 누면서 했었지. 우리.)

103068 @ 자기 집? 자기 밧?(자기 집? 자기 밭?)

103068 #1 우리 밧디. 원체 널러노난 막.(우리 밭에. 원체 넓어서 아주.)

103068 @ 게난 지금은 또 이서마씨?(그러니까 지금은 또 있어요?)

103068 #1 아이고 그냥 풀아부렷저게. 저 우트렌 ᄒᆞ꼼 싯저 우트레. ᄒᆞ꼼 놔뒌.(아이고 그냥 팔아버렸지. 저 중산간엔 조금 있지. 위엔. 조금 놔뒀어.)

103068 @ 지금 이서시민 떼부자 뒈실 건디.(지금 있었으면 떼부자 되었을 텐데.)

103068 #1 아이고, 난 거 놔뒷자 촐왓뒌 안 뒌다게. 밧은 벌고 집은 사람이 살아사 뒈는 거여. 이젠 아니 헤영 줜 네불엇저. 족은년 주난 트멍에 가근에 선인장은 나가 싱그고 선인장 타온다게. 게도 ᄒᆞ꼼 핫저. 아아 게도 우트레 한 이천 평.(아이고, 난 거 놔둬도 꼴밭 되어서 안 된다. 밭은 벌고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젠 안 해서 줘서 내버렸지. 작은년 주니까 틈에 가서 선인장은 내가 심고 선인장 따온다. 그래도 조금 많지. 아아, 그래도 위에 한 이천 평.)

103068 @ 아이고, 부잔게마씨?(아이고, 부자네요?)

103068 #1 응. 족은뚤 알러렌 믄 풀곡 안 뒈커라라게. 밧은 벌지 않으믄 촐왓뒈부는 따문에 벌어질 때.(응. 작은 딸 아랜 모두 팔고 안 되겠더라. 밭은 벌지 않으면 꼴밭 되버리기 때문에 벌수 있을 때.)

103068 @ 땅값이 막 올라가난예?(땅값이 막 올라가니깐요?)

103068 #1 맞주기.(맞지.)

103068 @ 그거 얼마나 뭐 헴수과게?(그거 얼마나 뭐 하고 있나요?)

103068 #1 아이구 벌지 않을 땐 풀아불어사주 놔두민 안 뒈여. 밧은 벌어사 뒈는 거난.(아이고 벌지 않을 땐 팔아버려야지. 놔두면 안 돼. 밭은 벌어야 되는 거니까.)

103068 @ 담배?(담배?)

103068 #1 담배도 안 헤보고. 아, 담배 일 년쯤 이디서 싱거 봐실 거라. 일이 년.(담배도 안 해보고. 아, 담배 일 년쯤 여기서 심어 봤을 거라. 일이 년.)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쉐도 키와낫수과?(소도 키웠었습니까?)

104001 #1 응. 쉐도 막 키와나곡, 뭐 엿날에야 그런 거벳긔 돈 나올 게 셔게. 쉐 키왕 일년이민 새끼 나니까 것도 키울 만헌다게. 암컷.(어. 소도 막 키워나고, 뭐 옛날에야 그런 거밖에 돈 나올 게 있나. 소 키워서 일 년이면 새끼 나니까 그것도 키울만 한다. 암컷.)

104001 @ 아이구, 안 헤난 게 엇구나예. 소는 어떵 키우민 뒈마씨?(아이구, 안 했던 게 없군요. 소는 어떻게 키우면 돼요?)

104001 #1 어떵허여. 풀을 허당 말렷당.(어떻게 해. 풀을 하다가 말렸다가.)

104001 @ 무신 풀을 촐혜영?(무슨 풀을 꼴해서?)

104001 #1 아니. 촐 나는 밧이 싯나게. 이 조칩도 먹주만은이, 이 쉐촐이라고 밧디 강 비여근에 말왕은에.(아니. 촐 나는 밭이 있다. 이 조짚도 먹지만, 이 새꼴이라고 밭에 가서 베여서 말려서.)

104001 @ 쉐촐?(소꼴?)

104001 #1 쉐이옌 흔다게. 저 밧디강 비영 그거 비영 말령은에 눌어둠서 멕여사주기. 조찍도 조 헤난 것도 먹주만은.(소꼴이라고 한다. 저 밭에 가서 베여서 그거 베어서 말려서 눌어두고서 먹여야지. 조짚도 조 했던 것도 먹지만.)

104001 @ 눌헤영예?(가리해서요?)

104001 #1 눌엉 놔둬사. 헤당 말리왕은네 무끄멍.(가려서 놔둬야. 해다가 말려서 묶으면서.)

104001 @ 게믄 쉐 한 다섯 머리까지도 키와낫수과?(그러면 소 한 다섯 마리까지도 키웠습니까?)

104001 #1 하영 키와낫저. 밧디 살 때. 그디 새끼 나민 이 쉐가 싀 술 넘으민 새끼나는 거난, 그거 허영 막 돈도 벌어낫주기. 쉐 키왕.(많이 키웠었지. 밭에 살 때. 거기 새끼 나면 이 소가 세 살 넘으면 새끼 나는 거니까, 그거 해서 막 돈도 벌어났지. 소 키워서.)

104001 @ 쉐 키와낫덴 헷잖아예. 쉐는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질룹니까?(소 키웠었다고 했잖아요. 소는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기룹니까?)

102001 @ 그믄 쉐 ᄆᆞᆯ 다 멧 ᄆᆞ리까지 질롸낫수과?(그러면 소, 말 다 몇 마리까지 길렀었습니까?)

102001 #1 ᄆᆞᆯ이 서너 ᄆᆞ리. 소는 ᄒᆞᆫ ᄆᆞ리 헤가지고 세 ᄆᆞ리ᄁᆞ지 질루왓지.(말이 서너 마리. 소는 한 마리 해가지고 세 마리까지 길렀지.)

104001 #2 어떻게 질루와게.(어떻게 길러.)

104001 @ 이건 뭐 특이헌 거 엇수과?(이건 뭐 특이한 거 없습니까?)

104001 #2 어.(어.)

104002 @ 쉐는 털 색깔 털 모양에 따라서 쉐가 종류가?(소는 털 색깔 털 모양에 따라서 소가 종류가?)

104002 #2 거 쉐 뿔 안 나는 쉐도 엇고, 이 껄 안 나는 쉐도 엇나. 검은쉐도 잇고 노란 쉐도 잇고. 엇나게? 누런쉐 그건 색깔이사게 검은 것도 태어나곡 노랑것도 태어나곡 키와나곡 소로 간다. 사람 조름에 상 잠대, 쉐가 가가민 졸졸졸 밧갈아 진다게.(거 소뿔 안 나는 소도 없고, 이 터럭 안 나는 소도 없나. 검은 소도 있고 노란 소도 있고. 없니? 누런 소 그건 색깔이야 검은 것도 태어나고 노란 것도 태어나고 키워서 소로 간다. 사람 뒤에 서서 쟁대, 소가 가가면 졸졸졸 밭 갈아 진다.)

104001 @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뿔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틀리덴 허고?(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뿔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틀리다고 하고?)

104001 #2 노랑쉐는 황쉐라고 허거든. 저게 노랑쉐가 검은 놈은 헉, 검은 쉐 헉쉐.(노랑소는 황소라고 허거든. 저게 노랑소가 검은 놈은 흑, 검은 소 흑소.)

104001 @ 검은 놈은 헉쇠?(검은 놈은 흑소?)

104001 #2 헉 헉쉐.(흑 흑소.)

104001 @ 헉쉐?(흑소?)

104001 #2 응.(응.)

104001 @ 검은 놈은 헉 이름이 황쉐하고 얼룩쉐예?(검은 놈은 흑, 이름이 황소하고 얼룩소요?)

104001 #2 또 저 얼룩베기도 싯고.(또 저 얼룩배기도 있고.)

104001 @ 얼룩베기는 무싱거렌 헷수과?(얼룩배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4001 #2 얼룩쉐(얼룩소).

104001 @ 얼룩쉐. 저 이 흰 것도 싯고 서꺼진 것도 싯고 흰 거?(얼룩소. 저 이 흰 것도 있고 섞어진 것도 있고 흰 거?)

104001 #2 흰 거영 그 저 검은 것도 서꺼질 때 싯주기. 쉐가 그거 얼룩쉐옌 허주기.(흰 거랑 그 저 검은 것도 섞어질 때 있지. 소가 그거 얼룩소라고 하지.)

104001 @ 서꺼지민 얼룩쉐옌 허여예?(섞어지면 얼룩소라고 해요?)

104004 @ 쉔 말들읍니까?(손 말 듣습니까?)

104004 #1 사람 조름에 상 왕 허민 가당 사고, 헝ᄒᆞ민 가곡.(사람 뒤에 서서 와서 '왕' 하면 가다가 서고, '헝'하면 가고.)

104004 @ 헝 ᄒᆞ민 가곡?('헝' 하면 가고?)

104004 #1 ᄋᆞ. 헝 ᄒᆞ민 그거 영허여근에, 쉐 양쪽으로 베 메영 헝허민 왕 허민 사곡 허들락 ᄒᆞ민 가곡. 왕 ᄒᆞ민 사곡.(어. '헝' 하면 그거 이렇게 해서, 소 양쪽으로 바 매어서 '헝'하면 '왕' 하면 서고 '허들락' 하면 가고. '왕' 하면 서고.)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2 어떵 허여.(어떻게 해.)

104004 @ 밧 갈 땐 길들일 때 밧 갈 때 길들이는 거?(밭 갈 땐 길들일 때 밭 갈 때 길들이는 거?)

104004 #2 그 저 밧가는 것도 거 쉐 ᄀᆞ르치젠 허민 메칠 ᄀᆞ르쳐사 밧을 갈고.(그 저 밭가는 것도 거 소 가르치려고 하면 며칠 가르쳐야 밭을 갈고.)

104004 @ 어떵 ᄀᆞ르쳣수과?(어떻게 가르쳤습니까?)

104004 #2 상당히 그 저 궤로워 저거. 그거 ᄀᆞ르치젠 허믄 그걸 ᄀᆞ르쳐 놔사 그것 밧도 갈아지고 무싱거 허는 거니까. 혼 메칠간.(상당히 그 저 괴로워 저거. 그거 가르치려고 하면 그걸 가르쳐 놔야 그것 밭도 갈아지고 무엇 하는 거니까. 한 며칠간.)

104004 @ 뭐렌 헙니까? 돌아사라 뭐?(뭐라고 합니까? 돌아서라 뭐?)

104004 #2 돌아사라. 영 ᄃᆡᆼ기는 줄이 싯주기. ᄃᆡᆼ기는 줄 ᄂᆞ단착더레 ᄃᆡᆼ기는 거 웬착더레 ᄃᆡᆼ기는 줄.(돌아서라. 이렇게 당기는 줄이 있지. 당기는 줄 오른쪽으로 당기는 거 왼쪽으로 당기는 줄.)

104004 @ ᄃᆡᆼ기멍 뭐렌 헷수과?(당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04004 #2 뭣이엔 허여. 왕 허여근 돌아사 영 허고.(뭐라고 해. '왕' 해서 돌아서 이렇게 하고.)

104004 @ 돌아사, 가라 허믄?(돌아서, 가라 하면)

104004 #2 가라 허민 가주기.(가라 하면 가지.)

104004 @ 가라 허믄 가고 허믄?(가라 하면 가고 하면?)

104004 #2 헝 허고.('헝' 하고.)

104004 @ 소는 어떻게 질들입니까? 말 듣게 허여? 길들여 사람 말 잘 듣게시리 밭 갈 때?(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말 듣게 해? 길들여 사람 말 잘 듣게끔 밭 갈 때?)

104004 #3 질이 익숙해져, 웃어른한티 베와.(길이 익숙해져, 웃어른한테 배워.)

104004 #3 ᄋᆞ. ᄀᆞ르칠 때 말하는 거로구나. 그 저 상당히 힘든다. 멍에 걷은 거 씌우지 안헹 놔비난 겐 잘 붙잡아근에 혼 사람이 셔야뒈여. 겡 붙잡앙 멍에 씌와 놩 헹 그때 쟁기 헹 매와ᄋᆞ정 처음 메믄 소가 와당탕와당탕 막 들러퀸다. 밧디서. 마냥 첫판에서 막 들러퀴주기. 들러켯던 말앗건 쉐 똘아뎅기멍 쟁기만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뭐 허주기. 겐 헹 놔두민 이 소가 이제 혼참 뭐헤가믄 이 소가 헉신헉신

헌다. 그때부터 쟁기로 딱 짚엉 밧 감시작허주기. 겡 그때 ᄀᆞ르치는 거 아니가?(어. 가르칠 때 말하는 거로구나. 그 저 상당히 힘든다. 멍에 같은 거 씌우지 안 해서 놔 버리니까 그래서 잘 붙잡아서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붙잡아서 멍에 씌워 놔서 해서 그때 쟁기 해서 매워서 처음 매면 소가 와당탕와당탕 아주 날뛴다. 밭에서 마냥 첫판에서 막 날뛰지. 날뛰건 말았건 소 따라다니면서 쟁기만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뭐 하지. 그래서 해서 놔두면 이 소가 이제 한참 뭐 해가면 이 소가 헉신헉신한다. 그때부터 쟁기로 딱 짚어서 밭 갈기 시작하지. 그래서 그때 가르치는 거 아니가?)

104004 @ 쉐 갈땐 노래도 잇수과?(소 갈땐 노래도 있습니까?)

104004 #3 밧 볼릴땐 노레 싯주만은. 무신 거 잇주만은. 헉 으씩 헉 좌우로 좌우로 우로. 경허멍 간다.(밭 밟을 땐 노래 있지만. 무신 거 있지만. 헉 으씩 헉 좌우로 좌우로 우로. 그렇게 하면서 간다.)

104004 @ 밧 볼릴 때는?(밭 밟을 때는?)

104004 #3 허량하량 돌돌 좋다. 저 밧디 사람덜. 다 알아듣게 아이고, 저 하르방은 소리 좋다. 경 헤낫주.('허량하량' 돌돌 좋다. 저 밭에 사람들. 다 알아듣게 아이고, 저 하르방은 소리 좋다. 그렇게 했었지.)

104005 @ 소의 나이 멧 살까지 사는고예? 소 키울 때 멧살 뒈민 풀아 불고.(소의 나이 몇 살까지 사는가요? 소 키울 때 몇 살 되면 팔아 버리고.)

104005 #2 아, 그 이녁 ᄆᆞ음.(아, 그 이녁 마음.)

104005 @ 1년에 혼번씩 새끼납니까?(1년에 한 번씩 새끼납니까?)

104005 #2 새끼 나는 딘.(새끼 나는 덴.)

104005 @ 멧 마리 납니까?(몇 마리 납니까?)

104005 #2 하나게.(하나.)

104005 @ 하나, 일 년에 혼 번?(하나, 일 년에 한 번?)

104005 #2 일 년에 혼 번.(일 년에 한 번.)

104005 @ 그믄 야이네는 우리는 열달 애기가 뱃속에 잇수게. 야이네는 한 달.(그러면 얘네는 우리는 열 달, 애기가 뱃속에 있잖습니까. 얘네는 한 달.)

104005 #2 혼 둘?(한 달?)

104005 @ 강셍이는 혼 둘이면 납데다. 강셍이는.(강아지는 한 달이면 납니다. 강아지는.)

104005 #2 게, 개는 그거 뭐 혼 둘뒈도 나곡 허주만은 이것도 일반 사람이나 일반 일년.(응, 개는 그거 뭐 한 달 되도 나고 하지만은 이것도 일반 사람이나 일반 일 년.)

104005 @ 물은 멧 살까지 삽니까? 소는 멧 살까지 살고?(말은 몇 살까지 삽니까? 소는 몇 살까지 살고?)

104005 #2 소는 멧살까지 혼 삼십.(소는 몇 살까지 한 삼십.)

104005 @ 소는 맷 술까지 삽니까?(소는 몇 살까지 삽니까?)

104005 #3 거 사는 건 혼 멧솔ᄁᆞ지 다섯, 여섯만 뒈가믄 소 늙엇젠 허연 잘 사가질 안헌다. 늙엉은에 힘 못쓰주기 소가.(그거 사는 건 한 몇 살까지 다섯, 여섯만 되가면 소 늙었다고 해서 잘 사가지를 안한다. 늙어서 힘 못쓰지 소가.)

104005 #3 힘 늘거근에 힘 못쓰주기.(힘 늙어서 힘 못쓰지.)

104006 @ 쟁기는 뭐렌 험니까? 잠대?(쟁기는 뭐라고 합니까? 잠대?)

104006 #1 으. 잠대게. 거 허여사 거 허영 쉐 멍에 씌와근에, 영 허민 조름에서 밧 갈아간다. 쉐 잡아 뎅겨주곡.(어. 잠대. 그거 해야 그거 해서 소 멍에 씌워서, 이렇게 하면 조름에서 밭 갈아간다. 소 잡아 당겨주고.)

104006 @ 일년에 혼 번 그 쉐왕에 잠대렌 헙니까? 쟁기를?(일 년에 한 번 그 외양간에 쟁기라고 합니까? 쟁기를?)

104006 #2 쟁기.(쟁기.)

104006 @ 예. 쟁기?(예. 쟁기?)

104006 #2 쟁기.(쟁기.)

104006 @ 잠대들런 안으로.(쟁기 들어서 안으로.)

104006 #2 잠대ᄀᆞ라 쟁기옌 허주게, 이디선.('잠대'보고 쟁기라고 하지, 여기선.)

104006 @ 잠대 쟁기 들런?('잠대', 쟁기 들어서?)

104007 @ 쉐질메가지?(소 길마가지?)

104007 #2 쉐질멘 저 무시거 집 무싱거 헐 때 이 쉐질메쓰고 밧갈 때.(소 길마 저 뭐 집 무엇 헐 때 이 소 길마 쓰고 밭갈 때.)

104007 @ 멍에, 쉐질멧가지?(멍에, 소 길마가지?)

104007 #2 멩에 이디 야게기에 헹은 밧 가는 거 멍에.(멍에 여기 목에 해서 밭 가는 거 멍에.)

104007 @ 쉐 야게기에 이렇게 바트는 거예? 멍애 쉐질멧가지?(소목에 이렇게 바트는 거요? 멍에 소길마가지?)

104007 #2 쉐질멘 뒤에이 등땡이에 놩 허는 것ᄀᆞ라 질메.(소 길만 뒤에 등에 놔서 하는 것보고 질메.)

104007 @ 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7 #3 앞가지 뒷가지 오그라진 거 싯저. 질메 고렝이줄.(앞가지 뒷가지 오그라진 거 있지. 길마 '고렝이줄'.)

104008 멍에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멍에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8 #2 그냥 저 잠대에 멍에만 허민 영 잡아댕기민 밧 갈아진다게. 멍에 멍에 밧 갈 때 ᄒᆞ는 건 멍에.(그냥 저 잠대에 멍에만 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밭 갈아진다. 멍에, 멍에 밭 갈 때 하는 건 멍에.)

104008 @ 등땡이에 놩 허는 거. 그믄 멍에를 헤서 어떻게 거를 그믄 이 잠대를 거 허고 연결헤 가지고서.(등에 놔서 하는 거. 그러면 멍에를 해서 어떻게 그거를

그러면 이 잠대를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서.)

104008 #2 멍에에 줄ᄃᆞ라메서 뒤에 이젠 잠대레 졸라메영, 겡헨 이제 밧덜 메영.(멍에에 줄 달아매서 뒤에 이젠 쟁기에 잘라 매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밭들 매여서.)

104008 @ 밧가는거라. 밧 갈 때 그믄 멍에 줄 허는 거랑 다 헐 줄 아는 거 아니예? 삼촌은예?(밭가는 거라. 밭 갈 때 그러면 멍에 줄 하는 거랑 다 할 줄 아는 거 아닌가요? 삼촌은요?)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목장은 없엇잖아예?(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목장은 없었잖아요?)

104009 #2 ᄋᆞ.(응.)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4009 #3 목장은 저 우리 월령은 목장이 엇고 개인에게 엇고, 저 금악우이 새별오름 우에 그 목장이 개인목장이라. 게믄 그디 쉐 올렷당 이제 내려올땐 집이서 간섭헐 때 촐도 헤난 것도 다 눌어놧당 썰멍 써는 기계, 작두알지 작두로 썰어ᄋᆞ경 콩깍지도 썰고 경 헤영 물 팔팔 끓이는 디 헹 놔둔 거 허영 끓영 주믄 잘 먹나. 경헹 소 키와와세.(목장은 저 우리 월령은 목장이 없고 개인에게 없고, 저 금악 위에 새별오름 위에 그 목장이 개인목장이라. 그러면 거기 소 올렸다가 이제 내려 올땐 집에서 간섭할 때 꼴도 한 것도 다 눌어 놨다가 썰면서 써는 기계, 작두 알지? 작두로 썰어서 콩깍지도 썰고 그렇게 해서 물 팔팔 끓이는 데 해서 놔둔 거 해서 끓여서 주면 잘 먹나. 그렇게 해서 소 키워 왔지.)

104010 @ 폴아불어?(팔아버려?)

104010 #1 오래 못질롸. 양쪽으로 베 매영.(오래 못 길러. 양쪽으로 베 매여서.)

104010 @ 늙으믄 잡아먹기도 허곡?(늙으면 잡아먹기도 하고?)

104010 #1 너미 늙으민 것도 안 뒈여게. 싀 살 나가민 일험 시작허연 쉐가이 뒈곡 폴아불어 게 폴아불어.(너무 늙으면 그것도 안 돼. 세살 나가면 일하기 시작해서 소가 되고 팔아버려. 팔아버려.)

104010 #1 일 년에 ᄒᆞᆫ번 새끼나는 따믄 하영 질롸낫저. 일 년에 ᄒᆞᆫ번썩 난다. 꼬박꼬박. 그믄 폴곡 것도 돈 뒈고.(일 년에 한 번 새끼 나는 때문 많이 길렀었지. 일 년에 한 번씩 난다. 꼬박꼬박. 그러면 팔고 그것도 돈 되고.)

104010 @ 암커 키우는 게 좋겠다예?(암컷 키우는 게 좋겠네요?)

104010 #1 암커이나 수커나 다 지네 필요헌.(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자기네 필요한.)

104010 @ 멧마리 키왓수과? 쉐왕?(몇 마리 키웠습니까? 외양간?)

104010 #1 쉐왕, 그디서 큰 거 멘들앙 허곡이.(외양간, 거기서 큰 거 만들어서 하고.)

104010 @ 어디, 어디 살안마씨?(어디, 어디 살았어요?)

104010 #1 저 조수에 가는 디 산전이라고 이 그디. 아기 그디서 키우젠 집을 지

시난 우리 조캔 갔단 방을 놔줘라게. 아레 영 불 솜으면 뚜시게 그디 살멍 헤낫저. (저 조수에 가는 데 산전이라고 이 거기. 아기 거기서 키우려고 집을 지으니까 우리 조카는 갔단 방을 놔 주더라. 아래 이렇게 불사르면 따뜻하게 거기 살면서 했었지.)

104010 @ 여기도 집 있고?(여기도 집 있고?)

104010 #1 이건 영 헹 놔두고, 쉐는 그디 밧디서.(이건 이렇게 해서 놔두고, 소는 거기 밭에서.)

104010 @ 밧디서?(밭에서?)

104010 #1 무시거 해다주느니게. 밥 헹 먹고 밥허당 보민 뜨신 거 들어 강 살멍 헤낫저. 뜨시난 애기덜.(무슨거 해다 주니? 밥해서 먹고 밥하다가 보면 뜨신 거 들어 가서 살면서 했었지. 뜨시니까 애기들.)

104010 @ 소는 여기서 안 키우고?(소는 여기서 안 키우고?)

104010 #1 소는 여기서 안 키우고(소는 여기서 안 키우고.)

104010 @ 조수에서 쉐 키와났다는 거지예?(조수에서 소 키웠었다는 거지요?)

104010 #1 조수도 아니고 올라가는 중간에.(조수도 아니고 올라가는 중간에.)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꼇던 추억이나 경험? 소가 말 잘 들음니까?(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 소가 말 잘 듣습니까?)

104010 #2 소가 말 시기민 잘 듣주게. 거 저디 네비는 쉐덜은 말 안 듣주만은. 집이서 질루는.(소가 말 시키면 잘 듣지. 거 저기 내버리는 소들은 말 안 듣지만. 집에서 기르는.)

104010 @ 그믄 소허고 말허고 뭐 다른 점이 잇덴허면 어느 게 아까와마씨?(그러면 소하고 말하고 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어느 게 아까워요?)

104010 #2 아멩 헤도 소가 밧가는 딘, 말로도 갈긴 갈아. 허주만은 쉐가 낫주게. 밧가는 딘.(아무리 해도 소가 밭가는 덴, 말로도 갈긴 갈아. 하지만 소가 낫지. 밭가는 덴.)

104010 @ 키우는 거는 먹는 거나, 뭐가 틀리지 않음니까?(키우는 거는 먹는 거나, 뭐가 틀리지 않습니까?)

104010 #2 먹는 거, 쉐가 뜰리주기게. 말이옌 헌 건 집이서 아니. 저을이고 거시기고 들에서 많이 살주게. 소는 항상 겨을엔 뭐 집 안에 메야.(먹는 거, 소가 틀리지. 말이라고 한 건 집에서 아니. 겨울이고 거시기고 들에서 많이 살지. 소는 항상 겨울엔 뭐 집 안에 매야.)

104010 @ 겨울엔 집 안에 이시난 식구같다는 생각?(겨울엔 집 안에 있으니까 식구 같다는 생각?)

104010 #2 응 식구.(응 식구.)

104010 @ 게도 그걸로 풀아 불기도 하고?(그래도 그걸로 팔아 버리기도 하고?)

104010 #2 응. 풀아 불기도 하고, 또 다른 걸로 또 바꽈도 먹고.(응. 팔아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걸로 또 바꿔도 먹고.)

104010 @ 걸로 또 잡아도 먹고. 겐 그렇게 헤서 또 병에 걸령 죽고 이런 것들

은 경험 안헤 봣수과?(그걸로 또 잡아도 먹고. 겐 그렇게 해서 또 병에 걸려서 죽고 이런 것들은 경험 안 해봤습니까?)

104010 #2 안헤봐서.(안 해봐서.)

104010 @ 겐 소에 대한 얽힌 추억 송애기 나는 거 거 봐봣수과?(그래서 소에 대한 얽힌 추억 송아지 나는 거 그거 봐봤습니까?)

104010 #2 송애기 집이서 길루민 뭐 나는 거 보주기.(송아지 집에서 기르면 뭐 나는 거 보지.)

104010 @ 나단 실패헹은에 뭐 그런 경우라든가?(낳다가 실패해서 뭐 그런 경우라든가?)

104010 #2 실패허는 건 안 봣주만은 집이서 그냥 나.(실패하는 건 안 봤지만 집에서 그냥 나.)

104010 @ 쉐에 대한 어떤 물멕이레 가민 어디레 강 물 멕입니가 여기서?(소에 대한 어떤 물 먹이러 가면 어디로 가서 물 먹입니까 여기서?)

104010 #2 요디 저 물통에.(여기 저 물통에.)

104010 @ 이름이 뭐우과? 물통 이름이.(이름이 뭡니까? 물통 이름이.)

104010 #2 이딧 물통 저 무끗디 무끗물.(여기 물통, 저 '무끗디' '무끗물'.)

104010 @ 무끗디 무끗물 사람은 안 먹고 마씨?('무끗디' '무끗물' 사람은 안 먹고 요?)

104010 #2 안 먹고. 무끗물 옛날에 먹어난 물 그 옆이.(안 먹고. '무끗물' 옛날에 먹어난 물 그 옆이.)

104010 @ 아 옛날에 먹어난 물은 이름이 뭐 마씨?(옛날에 먹어난 물은 이름이 뭐예요?)

104010 #2 그디도 무끗물인디.(거기도 '무끗물'인데.)

104010 @ 무끗물 두 군데가 잇구나예? 두 군데가 있는디 하나는 사름 먹는 물?(무끗물 두 군데가 있군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사름 먹는 물?)

104010 #2 하난 이쪽엔 사름 먹는 물.(하나는 이쪽엔 사름 먹는 물.)

104010 @ 무끗물 둘 다 무끗물. 아 둘 다 무끗물인디 하나는 사람 먹는 물, 하나는 쉐 먹는 물?('무끗물' 둘 다 '무끗물'. 아 둘 다 '무끗물'인데 하나는 사람 먹는 물, 하나는 소 먹는 물?)

104010 #2 우 아레 잇주기.(위, 아래 있지.)

104010 @ 우 아레 게민 옛날에 목욕헤난 다음 몸 헹구는 물도 잇수과?(위 아래 그러면 옛날에 목욕해서 다음 몸 헹구는 물도 있습니까?)

104010 #2 쉐먹는 물에 목욕허여.(소 먹는 물에 목욕해.)

104010 @ 사람덜 물 먹는 건 아졍 놔두고, 쉐먹는 물에 무긋물에 사람덜 목욕허여?(사람들 물 먹는 건 아껴서 놔두고, 소 먹는 물에 '무긋물'에 사람들 목욕해?)

104010 #2 목욕도 허곡.(목욕도 하고.)

104010 @ 목욕은 여름에 바당에 몸 헹굴땐 어디강 다 무끗물?(목욕은 여름에

바당에 몸 헹굴 땐 어디 강 다 '무끗물'?)

104010 #2 무끗물에도 헤야주게. 집이 물 질어당도 허곡.('무끗물'에도 해야지. 집이 물 길어다가도 하고.)

104010 @ 바당에서 이렇게 물 솟아나는 물은 어섯수과? 다 저 어디 협재랑 이런 데는 물이 잇수게.(바다에서 이렇게 물 솟아나는 물은 없었습니까? 다 저 어디 협재랑 이런 데는 물이 있잖아요.)

104010 #2 어. 그딘 잇주만은 월령엔 비나 하영 올 땐 저디 내리는 물이 잇어나서.(어. 거긴 있지만 월령엔 비나 많이 올 땐 저기 내리는 물이 있었어.)

104010 @ 비 오면 내리는 물 있엇는데?(비 오면 내리는 물 있었는데.)

104010 #2 메칠만 뒈민 끊어져 불어.(며칠만 되면 끊어져 버려.)

104010 @ 이 무끗물은 물이 계속 이섯수과?(이 무끗물은 물이 계속 있었습니까?)

104010 #2 어. 무끗물은 물통이니까 그냥.(어. 무끗물은 물통이니까 그냥.)

104010 @ 그믄 그것도 싸고 들 때마다 물이 그런 건 엇고?(그러면 그것도 싸고 들때마다 물이 그런 건 없고?)

104010 #2 엇고.(없고.)

104010 @ 아 바다에 용천수가 물 몸 보시 허는 디가 이실건디?(아, 바다에 용천수가 물 몸 헹구는 데가 있을 텐데?)

104010 #2 엇어.(없어.)

104010 @ 그런 곳이 엇어마씨? 그믄 헤엄치당도 해녀들이 물을 저 목욕허젠허민 어디로 가?(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면 헤엄치다가도 해녀들이 물을 저 목욕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

104010 #2 어디로 가게.(어디로 가게.)

104010 @ 무끗물로 가야 뒈여?(무끗물로 가야 돼?)

104010 #2 바깟딘 엇어.(바깥엔 없어.)

104010 @ 집이서는 옛날 수도 안 나올 때?(집이서는 옛날 수도 안 나올 때?)

104010 #2 물 질어당 놔 둔 거게.(물 길어다가 놔 둔 거.)

104010 @ 바당에도 물이 엇구나?(바다에도 물이 없구나?)

104010 #2 엇어.(바다에도 물이 없구나?)

104010 @ 신기하다예? 여기예 그믄 무끗물이 지금도 보관뒈 잇수과?(신기하네요? 여기요 그러면 무끗물이 지금도 보관 돼 있습니까?)

104010 #2 아, 잇어.(아, 있어.)

104010 @ 어어.(어어.)

104010 #2 먹는 물도 이제 물은 그디도 이제 터불엇어.(먹는 물도 이제 물은 거기도 이제 터 버렸어.)

104010 @ 터불곡 보관을 헤야 될건디예?(터 버리고 보관을 해야 될 건데요?)

104010 #2 먹는 물은 수도가 나오니까.(먹는 물은 수도가 나오니까.)

104010 @ 수도는 어디 한림에서 끗어당 먹엄수과?(수도는 어디 한림에서 끌어다가 먹고 있습니까?)

104010 #2 한림.(한림.)

104010 @ 무끈물이라는 말은 삼촌안티 처음 들엄저. 그믄 무끗물에서 그거 먹고 그믄 하루에 멧 번 물을 멕엿수과?('무끗물'이라는 말은 삼촌한테 처음 듣네. 그러면 '무끈물'에서 그거 먹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물을 먹였습니까?)

104010 #2 ᄒᆞ루에 ᄒᆞᆫ번 멕이주게.(하루에 한번 먹였지.)

104010 @ 그믄 거기 이 동네에 친구들이나 누군 다 거기 목욕도 허곡 물도 먹이곡?(그러면 거기 이 동네에 친구들이나 누군 다 거기 목욕도 하고 물도 먹이고?)

104010 #2 물도 먹이곡.(물도 먹이고.)

104010 @ 여자 탕, 남자 탕 이서사주. 쉐도 먹여야 뒈고?(여자 탕, 남자 탕 있어야지. 소도 먹여야 되고?)

104010 #2 아 여자탕도 잇어. 도 밧디.(아 여자탕도 있어. 구석 밭에.)

104010 @ 여자 탕, 남자 탕 이서마씨? 그믄 쉐 물 멕이는 탕은 남자쪽이꽈?(여자 탕, 남자 탕 있어요? 그러면 소 물 먹이는 탕은 남자쪽입니까?)

104010 #2 응 남자쪽.(응 남자쪽.)

104010 @ 응. 그믄 쉐 많이 키우는 사람은 멧 시에 밥 물 멕이레 갑니까? 보통 아침 일찍도 가고?(응. 그러면 소 많이 키우는 사람은 몇 시에 밥 물 먹이러 갑니까? 보통 아침 일찍도 가고?)

104010 #2 일찍도 가곡 거 비교 없어. 시간이 없어.(일찍도 가고 그거 비교 없어. 시간이 없어.)

104010 @ 여기 동네 형이라든가 막 괴롭히는 건 어섯수과?(여기 동네 형이라든가 막 괴롭히는 건 없었습니까?)

104010 #2 엇어.(없어.)

104010 @ 사이좋게덜 다 먹고 먹을만큼 먹고 겨믄 집이왕 쉐왕에 묶으고 ᄒᆞ루 ᄒᆞᆫ번 꼭 가야뒈마씨?(사이좋게들 다 먹고 먹을 만큼 먹고 그러면 집에 와서 외양간에 묶으고 하루 한번 꼭 가야되요?)

104010 #2 꼭 가야뒈주 ᄒᆞ루에 ᄒᆞᆫ번 쉐는 멕여야.(꼭 가야되지. 하루에 한번 소는 먹여야.)

104010 @ 퍼당 또 집이서 줄 수도 싯고.(퍼다가 또 집에서 줄 수도 있고.)

104010 #2 어, 경허주.(어, 그렇게 하지.)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10 #3 뭇긋디, 무끗물 낮 되어사 물멕이레.('뭇긋디', '무끗물' 낮 되어야 물먹이러.)

말 기르기

104011 @ 물은 안 키우고 뭉셍이?(말은 안 키우고 망아지?)

104011 #1 그건 안 허곡 쉐만 키와낫저.(그건 안 하고 소만 키웠었지.)

104011 #2 물은 집이 메는 사람이 드물어.(말은 집에 매는 사람이 드물어.)

104011 @ 어디 갑니까?(어디 갑니까?)

104011 #2 곶디.(곶에.)

104011 @ 곶 잇수과? 다 묶엉 놔둬마씨? 게민 어떵.(곶 있습니까? 다 묶어서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104011 @ 어떵 자기네 걸 알앙 데려와?(어떻게 자기네 걸 알아서 데려와?)

104011 #2 이녁 물은 알주게 헤헤.(이녁 말은 알지. 헤헤.)

104011 @ 동네 사람 말덜이 거기 잇다는 거지예 그믄 그 밧디 알앙 저녁 뒈민 데리레 가?(동네 사람 말들이 거기 있다는 거지요. 그럼 그 밭에 알아서 저녁 되면 데리러 가?)

104011 #2 저녁 뒈민 물 멕일 때나 ᄒᆞ끔 멕이곡.(저녁 되면 물 먹일 때나 조금 먹이고.)

104011 @ 일년 내내 놔둡니까? 경.(일 년 내내 놔둡니까? 그렇게.)

104011 #2 일년 내내 놔두는 디도 있고 거 부릴 때나 물아당 그 밧이나 불리곡게.(일 년 내내 놔두는 데도 있고 거 부릴 때나 몰아다가 그 밭이나 밟게 하고.)

104011 @ 그 들판에 주인은 엇어. 마을 목장도 아니고.(그 들판에 주인은 없어. 마을 목장도 아니고.)

104011 #2 목장 아니고.(목장 아니고.)

104011 @ 거기 놔둠수다. 허락은 받아야 뒐 거 아니?(거기 놔둡니다. 허락은 받아야 될 거 아니?)

104011 #2 허락은 무슨 허락 곶디.(허락은 무슨 허락 곶에.)

104015 @ 말새끼 나는 것도 봐봣수과?(말새끼 낳는 것도 봐봤습니까?)

104015 #2 응. 물도 길루민게 집이서 안 나주만은 멩 나두민.(응. 말도 기르면 집에서 안 나지만 매어서 놔두면.)

104015 @ 박에서도 낳고?(밖에서도 낳고?)

104015 #2 ᄋᆞ. 박에서 나. 박에서.(어. 밖에서 나. 밖에서.)

104015 @ 말도 마찬가지 마씨?(말도 마찬가지예요?)

104015 #2 ᄒᆞ꼼 질뤄당게, 풀아불고.(조금 기르다가, 팔아버리고.)

104015 @ 물은 물도 경 누구 사감니까? 말고기도 안 먹잖아예? 옛날에.(말은 말도 그렇게 누구 사갑니까? 말고기도 안 먹잖아요? 옛날에.)

104015 #2 먹으나 안 먹으나. 거 뭐 풀아불고게. 물은 하영 질루는 사람덜이 잇어.(먹으나 안 먹으나. 거 뭐 팔아버리고. 말은 많이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

먹이

104016 @ 쉐촐이영 뭐여는?(소꼴이랑 뭐는?)

104016 #1 그디서 막 비영 눌엇당 멕이곡게.(거기서 막 베여서 기리었다가 먹이고.)

104016 @ 아저씨랑 같이?(아저씨랑 같이?)

104016 #1 ᄋᆞ게 그디 또 집도 크게 지서낫저. 쉐 질룰디.(응. 거기 또 집도 크게 지었었지. 소기를 데.)

104016 @ 또 무슨 거 콩 뭐?(또 무엇 콩 뭐?)

104016 #1 것도 먹고 쉐촐도 먹고. 이제 그 집 영 허영 바당 이펜더레 물도 받앙 얼마던지 거기서 먹고. 에이고, 밧디 살멍 첨 일도 잘헤낫저 젊을 때. 이젠 안 헴주만.(것도 먹고 소꼴도 먹고. 이제 그 집 이렇게 해서 바다 이쪽으로 물도 받아서 얼마든지 거기서 먹고. 에이고, 밭에 살면서 처음 일도 잘했었지. 젊을 때. 이젠 안하지만.)

104016 @ 그추룩허난 애길 키와졋구나예?(그렇게 하니까 애길 키워졌군요?)

104006 #1 몰라게. 그디 살멍 허난이. 멧 그물 헷주기. 이디 사난게.(몰라. 거기 살면서 하니까. 몇 그물 했지. 여기 사니까.)

104016 @ 말이나 소나 먹이는 똑같아마씨?(말이나 소나 먹이는 똑같아요?)

104016 #1 몰르켜. 물은 쉐만이 값을 안 줜 안 질롸진 셍이라이.(모르겠다. 말은 소만큼 값을 안 줘서 안 길러진 모양이라.)

104016 @ 촐이렌 허는구나예?(꼴이라고 하는군요?)

104016 #1 쉐먹는 건 쉐촐.(소 먹는 건 소꼴.)

104017 @ 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쉐촐은 공짜로 허는 게 아니고 사야지이?(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소꼴은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사야지?)

104017 #1 아니 농사지으민 그거 물령 눌민 쉐가 먹어이 조찍, 콩찍.(아니 농사지으면 그거 말려서 눌면 소가 먹어 조짚, 콩짚.)

104017 @ 마소의 먹이는 아까 콩찍 조찍 감제줄 꼴은 어떻게 마련헙니까?(마소의 먹이는 아까 콩짚, 조짚 고구마줄 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2 콩칩 조칩 감자 촐 것도 섞엉 멕이주게. 혼것만 멕이지 않허영. 촐은 사야, 이녁 밧거나.(콩짚, 조짚 감자 꼴 것도 섞어서 먹이지. 한 가지만 먹이지 않고. 꼴은 사야, 이녁 밭거나.)

104018 @ 어디강 소촐은 비어당이네?(어디 가서 소꼴은 베어다가?)

104018 #1 아 쉐촐 비는 밧도 잇나. 그 쉐촐만 나는 디. 그거 헤영 물류민 쉐꼴이라고 조헤나민 조찍, 밧디 강 그거 비는 거 쉐꼴 그거 다 눌엇당은에 쉐 잘 먹나.(아 소꼴 베는 밭도 있나. 그 소꼴만 나는 데. 그거 해서 말리면 소꼴이라고 조해나면 조짚, 밭에 가서 그거 베는 거 소꼴 그거 다 눌었다가 소 잘 먹나.)

104018 @ 벨 때는 어떵 촐베는 소리도 이렇게?(벨 때는 어떻게 꼴 베는 소리도 이렇게?)

104018 #1 아, 우리 그땐 호미로 비어낫저게. 이젠 기계도 싯주만은. 이 우리 헐 땐.(아, 우리 그땐 호미로 베었었지. 이젠 기계도 있지만. 우리 할 땐.)

104018 @ 진 호미꽈?(긴 호밉니까?)

104018 #1 저 호미라고 골갱이 닮은 거 무사 이만이 헌 거. 이제도 그걸로 비어낫저. 이제 기계로.(저 호미라고 골갱이 닮은 거 왜 이만큼 한 거. 이제도 그걸로 베었었지. 이제 기계로.)

104018 @ 안장 그냥 베어마씨. 것도 묶어가지고.(안장 그냥 베어요. 그것도 묶어가지고.)

104018 #1 바삭 몰령 묶엉 눌어둠서 쉐줘낫저게.(바삭 말려서 묶어서 눌어두면서 소 줬었지.)

104018 @ 꼴베기는 안헤봣지예. 사버리난 호미가 큰 호미로 헙니까?(꼴 베기는 안 해봤지요. 사버리니까 호미가 큰 호미로 합니까?)

104018 #2 아니, 아니 호미로.(아니, 아니 호미로.)

104018 @ 즌즌헌 일호미로 베고. 베보긴 헷수과? 쉐출헐 때 이렇게 베봣수과?(잔잔한 일호미로 베고. 베보긴 했습니까? 소꼴 할 때 이렇게 베보긴 했습니까?)

104018 #2 응.(응.)

104018 @ 그걸 묶음니까? 또?(그걸 묶습니까? 또?)

104018 #2 또 묶어야 주게. 비영 어떵 헹 ᄋᆞ정 ᄋᆞ젠.(또 묶어야지. 베여서 어떻게 해서 가져서 오려고.)

104018 @ 경헤야 가정오지. 어느 만큼씩 묶엇수과?(그렇게 해야 가져오지. 어느 만큼씩 묶었습니까?)

104018 #2 요만썩 묶언.(이만큼씩 묶어서.)

104018 @ 거는 보리보다 적게?(그거는 보리보다 적게?)

104018 #2 ᄋᆞ 적게.(어, 적게.)

104018 @ 가져오기 좋겐가?(가져오기 좋게 한 건가?)

104018 #2 그 쫄른거라노난 크게 묶으민 빠지거든. 그게.(그 짧은 거니까 크게 묶으면 빠지거든. 그게.)

104018 @ 아아 쫄른거난?(아아 짧은 거니까?)

104018 #2 응. 빠져불주게. 영 조그만썩 묶어사주.(응. 빠져버리지. 이렇게 조그맣게 묶어야지.)

104018 @ 촐 베는 거 헤봣수과?(꼴 베는 거 해봤습니까?)

104018 #3 촐 멧사람 빌어아졍 촐비레 가주기. 촐왓디 비어ᄋᆞ졍 끄트머리에 강 다 묶어오곡.(꼴 몇 사람 빌어서 꼴 베러 가지. 꼴 밭에 베어서 끄트머리에 가서 다 묶어오고.)

104019 @ 아, 또 가을에 하잖아예?(아, 또 가을에 하잖아요?)

104019 #1 ᄋᆞ게. 날 추운디했다게.(응. 날 추운데 했다.)

104019 @ 그믄 그걸을 또 운반헤당?(그러면 그것을 또 운반하다가?)

104019 #1 그디 눌어둠서 그디서 쉐도 키우고 집도 큰 거 지서낫저. 그 ᄆᆞ쉬 키우젠허난이 밧디.(거기 눌어 두고서 거기서 소도 키우고 집도 큰 거 지었었어. 그

마소 키우려고 하니까 밭에.)

104019 #2 쉐촐허는 밧이 잇어? 토지가?(소꼴하는 밭이 있어? 토지가?)

104019 @ 지네 밧이.(자기네 밭이.)

104019 #2 아니라도 사당 멕여.(아니라도 사다가 먹여.)

104019 @ 삼촌은 밧 이서낫수과?(삼촌은 밭 있었습니까?)

104019 #2 밧 엇어나고. 우린 저 쉐촐 멕이젠 허믄 저 산간에 강.(밭 없었어. 우린 저 소꼴 먹이려고 하면 저 산간에 가서.)

104019 @ 산간이 어디꽈?(산간이 어딥니까?)

104019 #2 산간부락에 강은에 사당 멕이주게.(산간부락에 가서 사다가 먹이지.)

104019 @ 사당 날라 올때는 뭘로 날라옵니까? 쉐촐?(사다가 날라 올 때는 뭘로 날라옵니까? 소꼴?)

104019 #2 그 땐 구루마도 잘 엇어.(그 땐 구루마도 잘 없어.)

104019 @ 그믄 뭘로?(그러면 뭘로?)

104019 #2 ᄆᆞᆯ로 어떵.(말로 어떻게.)

104019 #2 ᄆᆞᆯ로 헹 강 시꺼오주게. ᄆᆞᆯ로 쉐로.(말로 해서 가서 실어오지. 말로 소로.)

104019 #2 등뗑이에 질메놘 그 시끄는 거시기가 잇어.(등에 질메 놔서 그 싣는 거시기가 있어.)

104019 @ 아, 시끄는 거, 촐을 시껑 집이 왕 이것도 눌엉?(아, 싣는 거, 꼴을 실어서 집에 와서 이것도 기리어서?)

104019 #2 눌엉게.(가리어서.)

104019 #3 옛날 구루마 싯지? 구루마. 쉐구루마 구루마에 왈그락 왈그락 구루마에 다 싯껑 뎅겨낫저.(옛날 수레 있지? 수레. 소달구지에 왈그락 왈그락 수레에 다 실어서 다녔었지.)

104020 @ 눌이 멧 개라?(가린 몇 개라?)

104020 #2 ᄒᆞᆫ 짐 다 눌어.(한 짐 다 가리어.)

104020 @ 눌엉?(가리어서?)

104020 #2 빠멍 멕이주게.(빼면서 먹이지.)

104020 @ 빵은에 멕이고 이것저것 섞어가멍예? 소여물은 아까와 같은 거, 콩콩도 줍니까?(빼면서 먹이고 이것저것 섞어 가며요? 소여물은 아까 같은 거, 콩 콩도 줍니까?)

104020 #2 콩, 콩깍지 잘 ᄆᆞᆯ령 놔둬사 쉐도 주고 허주. 콩깍지.(콩, 콩깍지 잘 말려서 놔두어야 소도 주고 하지. 콩깍지.)

104020 #3 뜻다 가지고.(뜯어 가지고.)

104021 @ 꼴 베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꼴 베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21 #3 호미로 아자서 촐베는 소리[68].(호미로 앉아서 '촐 베는 소리'.)

104021 @ 선 낫으로?(선 낫으로?)

104021 #3 그건 우린 경 안헌다.(그건 우린 그렇게 안한다.)

104021 @ 출베는 소리 헤낫잖아예?('촐 베는 소리' 했었잖아요?)

104021 #3 이젠 느려게. 다 머리에 기억뒈시믄 허는디.(이젠 느려. 다 머리에 기억되면 하는데.)

땔감

104022 @ 그믄 땔감은?(그러면 땔감은?)

104022 #3 땔감은 우리 저 옛날 땔 때는 이 산에 강 이 산 곶자왈이거든. 월령이 곶자왈이난 조끔만 올라가믄 나무덜 쌓영 이서낫저. 그거 비어당 막 데메주기 일년 헹 놔두민 낭 삭아ᄋᆞ졍 그거 주서당.(땔감은 우리 저 옛날 땔 때는 이 산에 가서 이 산 곶자왈이거든. 월령이 곶자왈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나무들 쌓였었어. 그거 비어다가 막 쌓았지. 일년 해서 놔두면 나무 삭아져서 그거 주어다가.)

104022 @ 그거 지들커를 삭다리렌 헙니까? 뭐렌 험니까?(그거 '지들커'를 삭정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04022 #3 지들커가 지들커주. 무신거.('지들커'가 '지들커'지. 무신 거.)

104023 @ 쉐똥, 물똥?(소똥, 말똥?)

104023 #2 물똥 소똥 주서당은에 그 ᄯᅳ시게 멘들젠 허주게.(말똥, 소똥 주어다가 그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지.)

104023 @ 집에 것도 놔둡니까? 버리지 안허영?(집에 그것도 놔둡니까? 버리지 안하고?)

104023 #2 버리지 안 허여.(버리지 안 해.)

104023 #1 그것도 물류왕 불도 솜아나고 집이 것도 뒈곡. 어디 강 에와난디 강 주서당도 물류왕 솜고 헤낫저. 응. 쉐나 물이나 밧디 에우주기게이. 게민 그런디 강 주서당은에 몰류왕 불도 솜고.(그것도 말려서 불도 때고 집에 것도 되고. 어디 가서 에왔었는데 가서 주어다가도 말려서 때고 했었지. 응. 소나 말이나 밭 에우지. 그러면 그런데 가서 주어다가 말려서 불도 때고.)

104023 @ 몰류왕 굴묵도 때곡?(말려서 '굴묵'도 때고?)

104023 #1 ᄋᆞ게, 경 헤낫저. 엿날.(응, 그렇게 했었지. 옛날.)

104023 #2 정지에 불도 솜고.(정지에 불도 때고.)

104023 @ 굴묵만 지섯수과? 말똥, 소똥은?('굴묵'만 땠습니까? 말똥, 소똥은?)

104023 #3 밥도 헹 먹엇저. 쉐똥으로 납작납작하게 헹. 우이 덮어 놔두믄 납작헌다. 돌래떡 모냥으로 나무영 잘 몰라 거 두어 개 지덩 놔두민 잘 부튼다.(밥도 해서 먹었지. 소똥으로 납작납작하게 해서. 위에 덮어 놔두면 납작한다. '돌래떡' 모양으로 나무랑 잘 말라. 그거 두어 개 때서 놔두면 잘 붙는다.)

104023 @ 밥도 헹 먹고예?(밥도 해서 먹고요?)

---

68) '촐베는 소리'는 늦가을에 마소에게 먹일 꼴을 베면서 부르는 노동요를 말한다.

104024 @ 여긴 옛날 지들커 중에 저 산이여 오름이 엇이난 소낭이난 이런 거 솔잎 그런 거 안 헤낫겠다예?(여긴 옛날 '지들커' 중에 저 산이여 오름이 없으니까 소나무니까 이런 거 솔잎 그런 거 안 했었겠네요?)

104024 #1 무사 소낭밧디 강 솔잎도 긁어당 숢아나고 곶디강 낭도 허당.(왜 소나무밭에 가서 솔잎도 긁어다가 삼아나고 '곶'에 가서 나무도 해다가.)

104024 @ 지레 어머니는 솔잎도 끌엉 오고?(길에 어머니는 솔잎도 끌어서 오고?)

104024 #2 ᄋᆞ. 솔잎도 끌엉 오민 마중가고.(어. 솔잎도 끌어서오면 마중가고.)

104024 @ 솔잎도예?(솔잎도요?)

104024 #3 글겡이 아니가게. 나도 솔잎 긁으레 많이 뎅겨낫저. 오름에 판포 오름, 정월이 오름. 나도 많이 해봣저. 뭇으로 만들엉.(갈퀴 아니가. 나도 솔잎 긁으러 많이 다녔었지. 오름에 판포 오름, 정월이 오름. 나도 많이 해봤지. 뭇으로 만들어서.)

104025 @ 땔감은 지들커렌 허지예 삭다리?(땔감은 '지들커'라고 하지요 삭정이?)

104025 #1 거 무신 말고? ᄋᆞ게. 지들커옌 헌다게. 그 때는 거 삭다리옌도 허주만은, 요 ᄒᆞ꼼 우터레 가민 곶이라고이 그디 강 헤당덜 짇어낫저.(그거 무슨 말이니? 응. '지들커'라고 한다. 그 때는 그거 삭정이라고도 하지만, 요 조금 위로 가면 곶이라고? 거기 가서 해다 가들 때었지.)

104025 #1 곶[69]디 강 낭도 헤당 숨고.('곶'에 가서 나무도 해다가 삼고.)

104025 @ 무슨 낭이 많은 고?(무슨 나무가 많은가?)

104025 #1 섬피낭. 곶디 허는 건 섬피낭이, 소낭 같은 건 못ᄒᆞ게 헤낫저게. 막안 섬피낭 같은 거 헤사 돼메. 이젠 저영추룩허민 톡허게 불도 나오곡 허주만은 엿날은 다 해단.(섬피나무. '곶'에서 하는 건 섬피나무, 소나무 같은 건 못하게 했었지. 막아서 섬피나무 같은 거 해야 돼. 이젠 저렇게 하면 톡허게 불도 나오고 하지만 옛날은 다 해다가.)

104025 @ 곶자왈[70]헐 때 곶?('곶자왈' 할 때 '곶'?)

104025 #1 곶자왈을 곶이렌 헌다. 그디 강 우트레가민 곶에 강은에, 보리 헤난 거 보리낭으로도 걸로도 불숨고 조 허여난 건 쉐멕이고 보리낭은 쉐 안 먹나.('곶자왈'을 '곶'이라고 한다. 거기 가서 위로 가면 곶에 가서, 보리 했었던 거 보리짚으로도 걸로도 불 때고 조 했었던 건 소 먹이고 보리짚은 소 안 먹나?)

104025 @ 조그만썩 묶엇따예? 마소의 먹이 삭다리 땔감허레도 가 봣수가?(조금씩 묶었네요? 마소의 먹이 삭정이 땔감 하러도 가 봤습니까?)

104025 #2 낭허레 저 것도 산간으로 가사 헹 와.(나무하러 저 그것도 산간으로 가야 해 와.)

---

69) '곶'은 숲,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을 말한다.
70) '곶자왈'은 나무와 넝쿨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말한다.

104025 @ 한림우에 저 산간으로 간 삭다리?(한림위에 저 산간으로 가서 삭정이?)

104025 #2 삭다리 같은 거 헤영 와.(삭정이 같은 거 해서 와.)

104025 @ 삭다리 꺽엉 졍 옵니까?(삭정이 꺽어서 져 옵니까?)

104025 #2 졍 오주 어떵허여?(져서 오지. 어떻게 해?.)

104025 @ 삭다리 졍 오고 뭐 지들커옌도 헙니까?(삭정이 져서 오고 뭐 '지들커'라고도 합니까?)

104025 #2 지들커허렌 가는 것ᄀᆞ라 지들커허연 허여.('지들커' 하러 가는 것보고 지들커한다고 해.)

104025 @ 그믄 솔잎 글그는 건 여자들이 허고 남자들은 그런 글겡이로 글그진 안허고?(그러면 솔잎 긁는 건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그런 갈퀴로 긁진 안하고?)

104025 #2 여자들이 다 글거.(여자들이 다 긁어.)

104025 @ 나무 많이 헹 와 봣수과?(나무 많이 해 와 봤습니까?)

104025 #2 나무도 벨반 난 안 헤봣주만은.(나무도 별반 난 안 해봤지만.)

104025 @ 아버지네 경헤야 겨울에 굴묵 지들 때?(아버지네 그렇게 해야 겨울에 굴묵 지들 때?)

104025 #2 경헤사 겨울에 굴묵 짓어지고.(그렇게 해야 겨울에 '굴묵' 짇어지고.)

104025 @ 소,똥 말똥도 주워보고 아이들이영 모영 땔감 그 저 삭다리 누구랑?(소똥, 말똥도 주워보고 아이들이랑 모여서 땔감 그 저 삭정이 누구랑?)

104025 #2 친구들도 갈 땐 사람덜 하영 가. 부락 사람덜.(친구들도 갈 땐 사람들 많이 가. 부락 사람들.)

104025 @ 그믄 어른들이영 같이?(그러면 어른들이랑 같이?)

104025 #2 어른들이영.(어른들이랑.)

104025 @ 응. 같이 가면 솔똥도 줍고?(응. 같이 가면 솔방울도 줍고?)

104025 #2 솔똥도 줍고 하근 거 다 솔똥은 허레 그ᄁᆞ지 안 가주만은. 그 저 뭣고 낭허레.(솔방울도 줍고 온갖 거 다 솔방울은 하러 거기까지 안 가지만. 그 저 뭔가 나무하러.)

104025 @ 삭다리 낭 아무거나 헤도 또 안뒈지예?(삭정이 나무 아무거나 해도 또 안 되지요?)

104025 #2 삭다리.(삭정이.)

104025 @ 삭다리허믄 아이덜이영 아버지영 주로 많이 갓수과?(삭정이하면 아이들이랑 아버지랑 주로 많이 갔습니까?)

104025 #2 아이덜도 안가주만은 그 저 부모네가 많이 가주기 가민 지레 마중가주게.(아이들도 안가지만 그 저 부모네가 많이 가지. 가면 길에 마중가지.)

104026 @ 숯굽는 숯도 구워난디 잇수과?(숯굽는 숯도 구워난데 있습니까?)

104026 #1 모르켜. 숯도 구운 사람덜 구워실거메.(모르겠다. 숯도 구운 사람들 구웠을거야.)

104027 @ 여기도 굴묵이 이서낫지예?(여기도 '굴묵'이 있었었지요?)

104027 #1 ᄋᆞ게, 굴묵셔낫저. 옛날더렌 다 이제사 온돌로 놤주만은 굴묵 짇어낫저.(응, '굴묵' 있었지. 옛날엔 다 이제야 온돌로 놓지만 '굴묵' 땠었지.)

104027 @ 멧솔때부터 그추룩 솔잎도 글그레 가곡, 쉐,똥 ᄆᆞᆯ똥 주시레 가곡?(몇 살 때부터 그렇게 솔잎도 긁으러 가고, 소똥, 말똥 주우러 가고?)

104027 #1 그것사 그자 아무 때라도 때 탕.(그거야 그저 아무 때라도 때 보며.)

104027 @ 어릴 때부터?(어릴 때부터?)

104027 #1 ᄋᆞ. 걸어만 지민, 걸어만 지민 가는 것이 아니고, 거 헤영 졍 해올만이 커사게.(어. 걸어만 지면, 걸어만 지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해서 져서 해 올 만큼 커야.)

104027 @ 열 살 넘어가면?(열 살 넘어가면?)

104027 #1 게 게난 그걸 헐 만허민 가근에.(그럼 그러니까 그걸 할 만하면 가서는.)

104027 @ 친구들이영 동생이영도 가나곡?(친구들이랑 동생이랑도 갔었고?)

104027 #1 게. 경도 가고 이녁만도 가곡. 그자 거 헹 와사 불도 솜고 허니까 이젠 톡허민 불 나오곡 가민.(어, 그렇게도 가고 이녁만도 가곡. 그저 그거 해서 와야 불도 삼고 하니까 이젠 톡하면 불 나오고 가면.)

104027 @ 바당에 강도 뭐 주성오곡?(바다에 가서도 뭐 주워오고?)

104027 #1 물에도 들어나고.(물에도 들어나고.)

사냥

104028 @ 사농은? 꿩사농 노루사농 지달이사농?(사냥은? 꿩사냥, 노루사냥, 지달이사냥?)

104028 #1 그런 건 모르켜. 아니해난.(그런 건 모르겠다. 안했었어.)

104029 @ 꿩고기 그런 거 먹어 낫수과?(꿩고기 그런 거 먹었었습니까?)

104029 #1 몰르켜. 들음만 헤낫저.(모르겠다. 듣기만 했었지.)

104029 @ 사농, 꿩사농, 꿩, 잡아봣수과? 꿩, 꿩코 놩은에 놀이?(사냥, 꿩사냥, 꿩, 잡아봤습니까? 꿩, 꿩코 놔서 놀이?)

104029 #2 그런 거 이디 안헤여.(그런 거 여기서 안 해.)

104029 @ 그 다음 꿩바치 있으면 꿩사농 사농바치?(그 다음 꿩사냥꾼 있으면 꿩사냥 사냥꾼?)

104029 @ 꿩바치?(꿩사냥꾼?)

104029 #4 꿩바치? 총허영 저 총이 아니고 것도 낭 대막땡이옌 대막땡이 엿날인 대 막 술진거 ᄒᆞ나허영 어깨 노끈애기 이디 매,고 이디 매고, 어깨, 이제 군인덜 총메영 허듯 그것이 이제 컹 꿩 잡으레 뎅기는 산신이라.(꿩 사냥꾼? 총해서 저 총이 아니고 그것도 나무 대막대기라고 대막대기 옛날엔 대 막 살찐 거 하나해서 어깨 줄 여기 매고, 여기 매고, 어깨, 이제 군인들 총 매여서 하듯 그것이 이제 커서

꿩 잡으러 다니는 산신이라.)

104029 #4 꿩 마치레 꿩사농. 옛날 꿩사농 산에 강 모 꿩사냥 댕기믄 모재가 영ᄀᆞ트민 털모자 이거ᄀᆞ치 거 씌영은에, 이제 마구리혜영 씌영 거 씌영이네 막대기 닮은 거 멩글앙 이 어깨매영 매영 이젠 그 꿩이 사람 이제 거 하르방이 이제 뎅기멍 이만헌 막뎅이 ᄋᆞ정 댕기멍 그 꿩이 옛날에 옛날에 꿩이 오렌 허믄 사람 앞더레 ᄂᆞ려 오더라 한다. 꿩이 저 꿩이 영 허영 이레오라 허민 그 하르바지안티 앞더레 왕 앚아.(꿩 맞히러 꿩 사냥. 옛날 꿩사냥, 산에 가서 모 꿩 사냥 다니면 모자가 이렇게 같으면 털모자 이거같이 그거 써서, 이제 대충해서 써서 그거 써서 망태기 닮은 거 만들어서, 어깨매여서 매여서 이젠 그 꿩이 사람 이제, 그거 할아버지가 이제 다니면서 이만한 막대기 가져다니면서 그 꿩이 옛날에 옛날에 꿩이 오라고 하면 사람 앞으로 내려 오더라 한다. 꿩이 저 꿩이 이렇게 해서 이리 오라 하면 그 할아버지한테 앞으로 와서 앉아.)

104029 @ 하르방이 월령에 이섯수과?(할아버지가 월령에 있었습니까?)

104029 #3 붙잡앙 먹곡 헤난셍이라. 게민 큰 굿허레도 가믄이 그 옛날 하르바지가 꿩사냥 해나믄 이제 산신 꿩사냥헤낫젠 그 ᄃᆞᆨ 혼마리 허영 꿩 잡으레 뎅겨 꿩 두러매영 이디 영 지엉 지엉 가근에 쏘앗저 헤영은에 이레오렌 헤영 두러매영 막대기 닮은 거 업고 망탱이 닮은 거 요만헌거 어깨메영 온 그 옛날에 옛날에 그거지. 게난 그 집이 꿩사냥 해난 사람이 엇인가 매사냥해난 사람 엇인가 그것이 일월이야 심방덜 강 굿허멍 그 일월 선왕일월 있수과? 허믄 배타믄 선왕일월 바당에 선왕 배탕 댕기는 사람이 그 늙은 돌아가신 날ᄁᆞ지 그 배를 운전헹 뎅기믄 선왕일월이 있구나 허영 선왕상 헹 ᄯᅳ로 놀리고 건 일월로 돌아가신 날ᄁᆞ장 일월로 들어가는거야. 그배를 운전 헹 댕기믄 이디 선왕 일월이 있구나. 허영 선왕 상 놩 놀리고 일월로 들어가고.(붙잡아서 먹고 했던 모양이라. 그러면 큰 굿 하러 가면 그 옛날 할아버지가 꿩사냥 해나면 이제 산신 꿩사냥 했었다고 그 닭 한마리 해서 꿩 잡으러 다녀. 꿩 둘러매서 여기이렇게 지어서 지어서 가서 쏘았어 해서 이리로 오라고 해서 둘러매서 막대기 닮은 거 업고 망탱이 닮은 거 이만헌 거 어깨매여서 온 그 옛날에 옛날에 그거지. 게난 그 집이 꿩사냥 했던 사람이 없는가? 매사냥했던 사람 없는가? 그것이 일월이야. 심방들 가서 굿하면서 그 일월 선왕 일월 있습니까? 하면 배타면 선왕 일월 바당에 선왕 배 타서 다니는 사람이 그 늙은 돌아가신 날까지 그 배를 운전해서 다니면 선왕 일월이 있구나 해서 선왕상 해서 따로 놀리고 그건 일월로 돌아가신 날까지 일월로 들어가는거야. 그배를 운전해서 다니면 여기 선왕 일월이 있구나. 해서 선왕 상 놔서 놀리고 일월로 들어가고.)

104031 @ 지다리 들어봣지예?(오소리 들어봤지요?)

104031 #1 듣긴 해난디. 먹어보진 안 헷저. 지다리 들어나긴 헷저. 아니 헤낫저.(듣긴 했는데. 먹어보진 안했지. 오소리 들어보긴 했지. 안 했어.)

104031 @ 지다리, 마을에 잡는 사람들이 실 건디?(오소리, 마을에 잡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104031 #2 실거주만은 안 헤여.(있을 거지만 안 해.)

104031 @ 엿 헹 먹고?(엿 해서 먹고?)

104031 @ 월령에도 지다리영 꿩이영 잡아난 사농바치가 이서낫수과?(월령에도 오소리랑 꿩이랑 잡아난 사냥꾼이 있었습니까?)

104031 #3 지다리덜 많이 잡아낫저. 개로.(오소리들 많이 잡았었지. 개로.)

104031 @ 개로?(개로?)

104031 #3 으. 개로 잡아낫저.(어. 개로 잡았었지.)

104031 @ 누가 잡는 사람 따로 이서낫수과?(누가 잡는 사람 따로 있었습니까?)

104031 #3 으. 많이 이서서.(어. 많이 있었어.)

104031 @ 지다리를 오소리렌 헙니까?('지다리'를 오소리라고 합니까?)

104031 #3 아니 무싱거 닮은 거 아니가게.(아니 무엇 닮은 거 아니가.)

104031 @ 족제비?(족제비?)

104031 #3 저 지다리, 돼야지 형체가, 뒈야지 닮지 않허냐? 지달이.(저 오소리, 돼지 형체가, 돼지 닮지 않니? 오소리.)

104031 #4 아, 지달인 코 놩게.(아, 오소린 코 놔서.)

104031 #3 게멘 그거 잡으레.(그러면 그거 잡으러.)

104031 #4 지다리, 지다리엔 헌건 이디 ᄀᆞ트민 돼야지 산돼야지. 요놈이 나 옷ᄀᆞ치 까망허여. 지다리가 밤이 오민 저 곶디 엉에 들어 강 이영추룩 사진 기계추룩 영 허영 코 놩 코 놩 놔두민 걸어지믄덜 것덜 것 강 잡아당덜 네시 허영덜 약도 헹 먹고 잡앙덜 먹고 경 헤낫저. 월령도 막 내려 와낫저. 내려와난 멧 해 돼서양. 사람 몬 죽엄젠 지달이 내려 왔젠 노루 내려왓젠 헤나서. 꿩덜도 막 내려 완 영 방 때는 굴묵 어귀에 싯저. 영 들어 가민 방때는 구 굴묵이엔 흔디 우트레 뭣덜 놓고 허는디 그디 오랑 앚안 우리 친정 어멍네도 막 오란 아잦난 우리 친정 어멍네 노리 담아졍 담아지난 말쩬 개덜 못 잡아렌 헴시네 그거 엿날 풍습 옛날이멍 말멍 세중이네 산 때난.(오소리, 오소리라고 한 건 여기 같으면 돼지, 산돼지. 요놈이 내 옷같이 까망해. 오소리가 밤에 오면 저 '곶'에 '엉'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기계처럼 이렇게 해서 코 놔서 코 놔서 놔두면 걸어지면들 그것들 가서 잡아다가들 넷이 해서들 약도 해서 먹고 잡아서들 먹고 그렇게 했었지. 월령도 막 내려왔었지. 내려와서 몇 해 돼서. 사람 모두 죽는다고, 오소리 내려 왔다고, 노루 내려왔다고 했었어. 꿩들도 막 내려와서 이렇게 방 때는 '굴묵' 어귀에 있었어. 이렇게 들어가면 방때는 구 '굴묵'이라고 한데 위에 뭣들 놓고 하는데 거기 와서 앚아서 우리 친정어머니네도 막 와서앉았었어. 우리 친정어머니네 노루도 담아져서 담아지니까 나중엔 개들도 못 잡았다고 하드라. 그거 엿날 풍습 옛날이나 마나 세중이네 산 때니까.)

104031 #3 으게, 오래뒛저. 흔 육십년 칠십년 가까이 뒛저.(응, 오래됐지. 한육십년 칠십년 가까이 됐지.)

104031 #4 역ᄉᆞ를 다 읽젠허민 한정이 엇지. 한정이 엇어.(역사를 다 읽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 한정이 없어.)

104032 @ 엿 헹 먹고 뭐 족제비 들어봣수과?(엿 해서 먹고 뭐 족제비 들어봤습니까?)

104032 #2 족제비도 이제 뎅기긴 허여. 그전에는 족제비도 잡아나서. 저기 덧놩은에.(족제비도 이제 다니긴 해. 그전에는 족제비도 잡아나서. 저기 덧놔서.)

104032 @ 덧놩은에예? 들어보기만 헷구나예?(덧놔서요? 들어보기만 했군요?)

104032 #2 아니, 그런 것도 보긴 봐난.(아니, 그런 것도 보긴 봤었어.)

104032 @ 사농, 월령에도 이서나신가?(사냥, 월령에도 있었는가?)

104032 #2 족제비 같은 건 허여도 꿩 사농은 아니 헤여.(족제비 같은 건 해도 꿩 사냥은 안 했어.)

104032 @ 아, 무사마씨?(아, 왜요?)

104032 #2 몰라. 그런 건 안헤도 쪽제비 잡는 사름 셔낫주기.(몰라. 그런 건 안 해도 족제비 잡는 사름 있었지.)

104032 @ 이서낫수과? 이서난? 월령에 이서난?(있었습니까? 있었어? 월령에 있었군요?)

104032 #2 잡앙은에 풀주게.(잡아서 팔지.)

104032 @ 오일장에 간예? 지달이는 모르고?(오일장에 가서요? 오소리는 모르고?)

104032 #2 지달이는 모르고.(오소리는 모르고.)

104032 @ 아까, 사농은 꿩, 노리, 지달이, 족제비, 족제비도 잡아봣수과?(아까 사냥은 꿩, 노루, 지달이, 족제비, 족제비도 잡아봤습니까?)

104032 #3 족제비, 나 덫 놩 잡아낫저. 덫 덫 덫.(족제비, 나 덫 놔서 잡았었지. 덫 덫 덫.)

104032 @ 족제빈 잡앙 뭐 헙니까?(족제빈 잡아서 뭐 합니까?)

104032 #3 그때 왕 사가라. 사러 와.(그때 와서 사가더라. 사러 와.)

104032 @ 털 때문에 사 감신가?(털 때문에 사 가는가?)

104032 #3 덫 놩 잡아낫저. 그거 헤영 족제비 잡앙 영 벨랑 소곱에 술은 헤영 ᄃᆞ른디 놔두고 껍데기 헤영 찍 막 담앙 꽉허게 헹 놔두믄 이 찍으로 담앙 허믄 멋진다. 그거 헹 왕 족제비가 색깔 터럭, 터럭, 터럭, 좋으믄 돈푼이나 주곡 터럭 안 좋은 건 돈 푼 안준다.(덫 놔서 잡았었지. 그거 해서 족제비 잡아서 이렇게 갈라서 속에 살은 해서 다른데 놔두고 껍데기 해서 짚 막 담아서 꽉하게 해서 놔두면 이 짚으로 담아서 하면 멋지다. 그거 해 와서 족제비가 색깔 털, 털, 털 좋으면 돈푼이나 주고 털 안 좋은 건 돈 푼 안준다.)

104032 @ 삼촌도 이추룩 헨 잡아봣구나예?(삼촌도 이렇게 해서 잡았었군요?)

104032 #3 응. 나 잡아낫저.(응. 나 잡았었지.)

104032 @ 풀아도 보고예?(팔아도 보고요?)

104032 #3 응.(응.)

104033 @ 그거 해난 사람 마을에 있긴 잇지예?(그거 했었던 사람 마을에 있긴

있지요?)

104033 #1 몰라. 엇어낫저. 이딘.(몰라 없었지. 여긴.)

104033 #4 매는 뭐시넨 허민 이제 곹으민 비둘기, 하간거 날아댕기지 안허나. 매를 잡으민 이디 곹으민 참매, 참매.(매는 뭐냐고 하면 이제 같으면 비둘기, 여러 가지 날아다니지 안하나. 매를 잡으면 여기 같으면 참매, 참매.)

104033 @ 소로기?(소로기?)

104033 #4 소레기 닮은 거. 츰매가 잇어. 쪼그만 헌 거. 경허믄 이젠 그 사냥허당 보믄 그 다음은 뭐시냐허믄 소로기 매 소로기. 매 허믄이 엿날에 엿날에 못살믄 듹통에 요만이헌 거 찍으로 멘들앙 망텡이 멘들앙 영 혜영 아쩡 굴묵더레 가는 디, 강 아지믄 망탱이 멩글앙 빙아리 깨우고 듹세기 내왕 빙애기 막 여러 개 스무 개고 이제 열다섯 개고 그것이 바글바글 헹 깨우민 날 조믄 얻어 먹엉 살 수가 어성 벳 긧디덜 막 주워먹으레 나오민 공중에 소레기 소레기매가 뎅기당 몬딱 하나고 두 개 곡 몬딱 그거 다 주서아졍 강 또 강은에 놓아둬은에 뚜로 그 집이 뚜로 들어오라가 난 아이고 그것도 못쓰겟다 어떵 혜영 잡으코 허믄 이 놈의 맬 잡당 버치민 요런 그물도 영허영 놩은에 이것에 걸어지건에 심주기. 경 안해도 거러지지도 않허고 경 허난 말젠 보난 돍은 새끼 없거던 만딱 다 차가비연. 차가부난 한번은 주인이 허는 말이 듹은 질뢍 하르방ᄀ라 하르방 사는 딘디 아이고, 하르방 듹 질뢍 뭣거헙네까 듹 문딱 다 차가부렀수궤. 게믄 저 나가 노끈애기 영 헹은에 옛날 그물이 없거든 찍으로 허영 믈락헌 망사리 모작허영 믓듯 헹 ᄆ상 영허연 이것에 걸어졍 잡으민 따시 아니온다 야이도. 자꾸 그놈의 소레기가 그놈의 집이 강 영흔 동산에 아자근에 영ᄒ영 어디 빙아리나 잡아지카부덴 ᄋ시록 헹 앚아도 못 잡거든 게난 그 집엔 그 매가 안뎅겻젠 헴세 이젠 안뎅기난 이제 또 흔 집이가 이젠 내와 노난 빙아리가 스무ᄆ리난 스무개 이십개 깨와노난 돍통으로 하나 게난 이걸로 어떵허영 간십ᄒ나 굴묵에서 때는 거주기게 옛날 불때곡허영 믈똥이렌 ᄒ는 거 싯저 굴묵 때영 굴묵방 때영 뚜시게 허게시리. 그거허영 때멍은에 강 보난 아이고, 어떵ᄒ난 이 집인 빙아리가 영 홁엉 북실북실만썩허영 영 번들번들헤영 질롸집디가. 저 골목 어귀에 영 허여근에 무싱거 포장쳐근에 매들어오지 못허게시리 마강이네 질륩서 질루믄 질롸집니다. 허난에 하이고 나도 경헤여 보카? 영 ᄒ난 경해도 안 뒈언. 안 뒈언에 이젠 그집이서 그 사람덜 빙아릴 막 깨완 듹해연 이집저집 막 기냥 흔 마리썩 다 사갑센 허멍 다 줬젠 헴시네 그것이 옛날 풍습이라. 옛날 옛적에 매는 뭣이넨 허민 매를 잡으민 이디 곹으민 비둘기 하간거 날아댕기지 안허나소로기 참매가 이서 쪼끄만흔 거 참매가 이서. 사냥허는 거 허다 보믄 그 다음은 뭣이냐허믄 소로기 매, 소로기 매허믄 옛날에 옛날에 엉 이레 오렌 망탱이 닮은 거 멘들앙 앚이믄 빙애기깨우고 씌영 어깨메영 매영 이젠 그 꿩이 이제 하르방이 이제 뎅기멍 이만헌 막땡이 ᄋ경 뎅기멍 엿날에 엿날에 사람 앞더레 놀아 오더라 헌다. 꿩이 이레와 엿날에 엿날에 하르바지 앞더레 왕 앚앙 꿩 사농 헷젠 지엉 그거 허여근에 혜영 그 지막때기 닮은 거 어깨 매영 망탱이 닮은 거 멩글앙 어깨 매영 엿날에 엿날에 사농 일월이여.(솔개

같은 거. 참매가 있어. 조그마한 거. 그러면 이젠 그 사냥하다 보면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솔개, 솔개 하면, 옛날에 옛날에 못 살면 닭통에 이만큼한 거 짚으로 만들어서 망태기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앉혀서 굴묵에 가는 데, 가서 앉으면 망태기 만들어서 병아리 깨우고 달걀 내워서 병아리 막 여러 개 스무 개고 이제 열다섯 개고 그것이 바글바글 해서 깨우면 날 좋으면 얻어 먹어서 살 수가 없어서 바깥에들 막 주워먹으러 나오면 공중에 솔개, 솔개가 다니다가 모두 하나고 두 개곡 모두 그거 다 주어서 가고 또 가서 놓아두고 또 그 집에 또 들어와가니까 아이고, 그것도 못쓰겠다 어떻게 해서 잡을까? 하면 이 놈의 매를 잡다가 힘들면 요런 그물도 이렇게 해서 놔서 이것에 걸려지면 잡지. 그렇게 않아도 걸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닭은 새끼 없거든. 모두 다 차가 버렸어. 차가 버리니까 한번은 주인이 하는 말이 닭은 길러서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사는 곳에 아이고, 할아버지 닭 길러서 뭐 합니까? 닭 모두 다 차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 나가. 끈 이렇게 해서 옛날 그 물이 없거든. 짚으로 해서 말랑한 망사리 매듭해서 짜듯 해서 빻아 이렇게 했어. 이것에 걸려져서 잡으면 다시 안온다. 야이도. 자꾸 그 놈의 솔개가 그놈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어디 병아리나 잡아 보려고 조용히 해서 앚아도 못 잡거든. 그러니까 그 집엔 그 매가 안 다녔다고 해. 이젠 안다니니까 이제 또 한 집에가 이젠 내와 노니까 병아리가 스무 마리니까 스무 개, 이십 개 깨워 놓으니까 닭통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서 간섭하나? '굴묵'에서 때는 거지. 옛날 불때고 해서 말똥이라고 하는 거 있지. '굴묵' 때서 '굴묵' 방 때서 따뜻하게끔 하게. 그거 해서 때면서 가서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 집엔 병아리가 이렇게 커서 북실북실만씩해서 이렇게 번들번들해져서 기를 수가 있었습니까? 저 골목 어귀에 이렇게 해서 무엇 포장쳐서 매 들어오지 못허게끔 막아서 기르세요. 기르면 기를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서 보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었어. 안 되어서 이젠 그 집에서 그 사람들 병아릴 막 깨워서 닭 해서 이집저집 막 그냥 한 마리씩 다 사가라고 하면서 다 줬다고 하네. 그것이 옛날 풍습이라. 옛날 옛적에 매는 뭐냐고 하면 매를 잡으면 여기 같으면 비둘기, 여러 가지 날아다니지 않니? 솔개, 참매가 있어, 조그만 참매가 있어. 사냥하는 거 하다 보면 그 다음은 뭐냐하면 솔개, 매, 솔개하면 옛날에 옛날에 엉 이리로 오라고 망태기 같은 거 만들어 앉으면 병아리 깨우고 씌워서 어깨 매여서 매여서 이젠 그 꿩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다니면서 이만한 막대기 가져서 다니면서 옛날에 옛날에 사람 앞으로 날아 오더라 한다. 꿩이 여기와 옛날에 옛날에 할아버지 앞으로 와 앉아서 꿩 사냥했다고 지어서 그거 해서 그 막대기 같은 거 어깨매서 망태기 같은 거 만들어서 어깨 매여서 옛날에 옛날에 사냥 일월이야.)

5. 바다일

105001 @ 바당에 들어감수다.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바다에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01 #1 짚은 바당에 전복도 헤영오곡 젊을 때 메역 나곡.(깊은 바다에 전복도 해서 오고 젊을 때 미역 나고.)

105001 #3 좀수가 허는 말가? 우리가 남자가 허는 일 말가?(잠수가 하는 말이니? 우리가 남자가 하는 일 말하니?)

105001 @ 남자가 허는 일?(남자가 하는 일?)

105001 #3 옛날에 우리 바당에 강 자리도 막 털엉 풀곡 헌다. 자리, 자리, 자리, 싯지?(옛날에 우리 바다에 가서 자리도 막 털어서 팔고 한다. 자리, 자리, 자리 있지?)

105001 @ 예. 자리 테 탕 강?(예. 자리 '테' 타서 가서?)

105001 #3 배 탕 강게.(배 타서 가서.)

105001 @ 배 탕 강, 테우?(배 타고 강서, '테우'?)

105001 #3 테도 탕 강 허는 사람도 잇어.('테'도 타서 가서 하는 사람도 있어.)

105001 @ 옛날 테 탕 강 뭘로 걸여마씨?(옛날 '테' 타서 가서 무엇으로 떠요?)

105001 #3 족바지로덜게.('족바지'로들.)

105001 @ 족바지로 걸이고예 그런 일을 여름에 헷다는 거잖아예, 건예?('족바지'로 거리고요 그런 일을 여름에 했다는 거잖아요, 건요?)

105001 #3 ᄋᆞ. 여름에 자리 거린다. 겨울엔 당추.(어. 여름에 자리 거린다. 겨울엔 당최.)

105001 @ 거믄 고기 낚으레 갈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갓수과?(그러면 고기 낚으러 갈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갔습니까?)

105001 #3 ᄋᆞᄋᆞ. 낚으레 갈때는 오늘도 날 좋으믄 낚으레 가는 거주.(응. 낚으러 갈 때는 오늘도 날 좋으면 낚으러 가는 거지.)

105001 @ 아. 그믄 어느 코지에 가야 고기 많이 낚으고 허는 거? 뭐가 잘 낚아마씨 여긴?(아. 그러면 어느 코지에 가야 고기 많이 낚고 허는 거? 뭐가 잘 낚여요 여긴?)

105001 #3 우린 저 돔 잡으레. 저 차귀 섬 싯지.(우린 저 돔 잡으러. 저 차귀섬 있지.)

105001 @ 차귀섬이 어딧과?(차귀섬이 어딥니까?)

105001 #3 차귀섬도 몰라? 고산.(차귀섬도 몰라? 고산.)

105001 @ 아, 차귀. 에 거기 갑니까?(아, 차귀. 에 거기 갑니까?)

105001 #3 거기 강 멧시간 나상 그디 강 그물 놩, 옥돔덜이 차로 멧 시간 나왕.(거기 강 몇 시간 나서서 거기 가서 그물 놔서, 옥돔들이 차로 몇 시간 나와서.)

105001 @ 차귀섬, 대섬이렌 험니까? 대나무가 많아서 바구니를?(차귀섬, 대섬이라고 합니까? 대나무가 많아서 바구니를?)

105001 #3 옛날 그디 대왓듸 셔난 모냥이라. 으응.(옛날 거기 대밭이 있었던 모

양이라. 으응.)

105001 #3 전설에도 그런 말이 이선게.(전설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

105001 @ 응.(응.)

105002 @ 여기도 듬북, 감태 이런 거?(여기도 듬북, 감태 이런 거?)

105002 #1 감태 곹은 거, 바당에 난다게.(감태 같은 거, 바다에 난다.)

105002 @ 그믄 그거 주서당 뭐핸 마씨?(그러면 그거 주서다가 뭐 했나요?)

105002 #1 그거이 전인 그런 거 막 저 무싱거꼬 저 얼로 아니 그런 거 모둥 바당에서 영 불때민이 딱딱헌 그 그거 받아낫저게. 엿날이 애야 그거 개장에서 술민이 감태 야 딱딱헌 벙뎅이가 딱딱헤낫저. 거게이. 거 받아나서. 우리 어린 때, 이젠 그런 거 안헌다.(그거이 전엔 그런 거 막 저 무엇이니? 저 어디로 아니, 그런 거 모두 모아다가 바다에서 이렇게 불 때면 딱딱한 그 그거 받았었지. 옛날에 애야 그거 개장에서 태우면 이 감태, 야 딱딱한 덩어리가 딱딱했었지. 거, 거 받았었어. 우리 어린 때, 이젠 그런 거 안 한다.)

105002 @ 바당에서 받아난 마씨?(바다에서 받았나요?)

105002 #1 아니. 우리가 바당에서 거 바당에 난다게. 감태가 그거 헤당 불 술민 그 불이 그것이 딱딱헤낫저게. 해양한게이. 그거 받아나서 그땐 풀아나서 거 해연 뭣사 해신딘 몰라.(아니. 우리가 바다에서 그거 바다에 난다. 감태가 그거 해다가 불태우면 그 불이 그것이 딱딱해졌어. 하얗게. 그거 받아나서 그땐 팔았었어. 그거 해서 뭐 했는지 몰라.)

105002 @ 일본에서도 사갓덴 헙디다게?(일본에서도 사갔다고 하던데요?)

105002 #1 아 거 보라. 그런 때 이거지 방문헤낫구나이. 아메도 멘드는 것이 션해난 거 아니?(아 거 보라. 그런 때 이거지 방문했었구나. 아마도 만드는 것이 있으니까 했었던 거 아니?)

105002 @ 듬북, 감태도 해봣수과?(듬북, 감태도 해봤습니까?)

105002 #2 감태 감탠 안 헤도 월령도 감태 헹은에 불살라근에 헤봣주.(감태, 감탠 안 해도 월령도 감태 해서 불살라서 해봤지.)

105002 @ 어머니 헤낫다예? 삼촌은 안 헤보고?(어머니 했었네요? 삼촌은 안 해보고?)

105002 #2 난 안헤 보고.(난 안해 보고.)

105002 @ 응. 공동으로도 막 헹 풀고?(응. 공동으로도 막 해서 팔고?)

105002 #2 ᄋᆞ.(어.)

105003 @ 여긴 깅이렌 헙니까? 게를, 고동 보말을 보말?(여긴 게라고 합니까? 게를, 고동 보말을 보말?)

105003 #1 아 보말. 응.(아 보말. 응.)

105003 @ 보말이옌 허곡, 고동이렌 안허곡?(보말이라고 하고, 고동이라고 안하고?)

105003 #1 고동이옌 허는 디가 어디 실 거여만은 이딘 보멀이옌 흔다.(고동이라

고 하는 데가 어디 있을 거다만 여긴 ‘보말’이라고 한다.)

105004 #1 크난 코토새기 담 일리민 잡아져 수두리 까마귀보말 쪼짝헌 거. 먹보말은 거멍허영 허곡. 수두린 색깔이 달랑 수두리가 커. 베말, 베말 잘도 든다. 아맹이라도 된다. 납작허게시리 딱딱 솖앙도 먹고, 굼벗 물 데왕 두루치기 헤영 작작 밀어 밀민 아무거라도 허영 먹어. 겁죽도 벗어지고 밀민 헤양허게 나오난 아무거나 해먹주. 전인 우리어멍넨 그거 헤당 불도 솜고, 우리어멍넨 그거 헤낫저. 풀아나서. 우리 물에 들땐 풀아보지 아니허곡 안 우리어멍 물에 들 때 솔민 딱딱헌거 나오민, 그거 무싱거 헹고이? 바당에서 지덩 캐와. 재가 헤양헌게 딱딱 ᄉᆞ라난 거. 재를 풀아 뭣사해산디, 우리 막 어릴 때. 톳 바당 이제라도 헤당 먹어. 톧앙 먹어. 우미 짚은 디 나는 거고, 톳은 아무나 우민 짚은디 나곡, 솖앙도 먹고 우민 짚은디 나곡. (크니까 ‘코토새기’ 담 올리면 잡아져. ‘수두리’, ‘까마귀보말’, 쪼짝헌 거. ‘먹보말’은 검어서 하고. ‘수두린’ 색깔이 달랑 ‘수두리’가 커. ‘베말’, ‘베말’ 잘도 달다. 아무렇게라도 된다. 납작허게끔 딱딱 삶아서도 먹고, 군부 물 데워서 두루치기 해서 작작 밀어. 밀면 아무거라도 해서 먹어. 껍데기도 벗어지고 밀면 하얗게 나오니까 아무거나 해먹지. 전엔 우리어머니넨 그거 해다가 불도 삼고 우리어머니넨 그거했었지. 팔았었어. 우리 물에 들 땐 팔아보지 안하고 우리어머니 물에 들 때 태워서 딱딱한 거 나오면 그거 뭐 했을까? 바다에서 지펴서 태워. 재가 하얗게 딱딱, 태워난 거. 재를 팔아. 뭐했는지 우리 막 어릴 때 톳 바당 이제라도 해다가 먹어. 뜯어서 먹어. 우민 깊은 데 나는 거고, 톳은 아무나 우민 깊은 디 나곡, 삶아서도 먹고 우민 깊은 데 나고.)

105004 @ 고동은 어떤 고동이 잇는지 알아지쿠과? 보말 무슨?(고동은 어떤 고동이 있는지 알겠습니까? 보말 무슨?)

105004 #2 보말도 여러 가지여.(보말도 여러 가지야.)

105004 @ 이름 기억나는 거?(이름 기억나는 거?)

105004 #2 기억나는 거? 무신 수두리여 무신 가마귀보말이여.(기억나는 거? 무슨 ‘수두리’여 무슨 ‘가마귀보말’이여.)

105004 @ 쪽쪽보말이여. 매홍이?(‘쪽쪽보말’이여. ‘매홍이’?)

105004 #2 매홍이, 또 무신.(‘매홍이’, 또 무슨.)

105004 @ 그믄 음. 고동 구젱기 보말 이런 거 ᄀᆞᆯ아봅서. 보말?(그러면 음. 고동, 구젱기, 보말, 이런 거 말해보세요. 보말?)

105004 #4 수두리보말, 먹보말, ᄏᆞ토데기, 문닥지, 저 그거 구젱기게.(‘수두리보말’, ‘먹보말’, ‘코토데기’, ‘문닥지’, 저 그거 소라게.)

105004 @ 구젱기도 암쿠젱기 숫구젱기 잇수과?(소라도 암소라, 숫소라 있습니까?)

105004 #4 ᄋᆞ. 대, 중, 또 이제 깍엔 가민 요만썩헌 거 쪼금썩 쪼금썩 헌 거. 건 못 잡게 허는 거주게. 바당에 강 잡아당 이 바당에도 들이치곡 경허영 허는 거.(어. 대, 중, 또 이제 깍엔 가민 이만큼씩 한 거 조금씩 조금씩 한 거. 그건 못 잡게 하

는 거지. 바다에 가서 잡아다가 이 바다에도 들이치고 그렇게 하는 거.)

105004 @ 애기보말 이런 건 엇수과? 쪽쪽보말 애기보말?(애기보말 이런 건 없습니까? '쪽쪽보말', '애기보말'?)

105004 #4 애기보말은 엇고 애기보말도 싯주만은. 원척엔 수두리보말, 먹보말, ᄏᆞ토데기, 문닥지 그거 것뿐이라. 보말덜 이름덜은.('애기보말'은 없고 '애기보말'도 있지만. 원래엔 '수두리보말', '먹보말', 코토데기, '문닥지' 그것뿐이야. 고둥들 이름들은.)

105005 @ 게를 깅이, 겡이?(게를 게, 게?)

105005 #1 깅이옌 허곡게.(게라고하고.)

105005 @ 돌킹이?돌킹이?(돌게? 돌게?)

105005 #1 돌킹이. 헤헤 춤킹이.(돌게. 헤헤 참게.)

105005 @ 춤킹이?(참게?)

105005 #1 싯깅이[71] 싯깅이.('싯깅이', '싯깅이'.)

105005 @ 싯깅인 뭣꽈?싯깅인 뭣꽈?(게는 뭡니까?'싯깅인' 뭡니까?)

105005 #1 싯깅인 얼룩얼룩ᄒᆞ곡이.('싯깅인' 얼룩얼룩하고)

105005 @ 아, 싯깅이? 아 이거 처음 들어본다예. 얼룩덜룩예 싯깅이옌도 허고?(아, 싯깅이? 아 이거 처음 들어보네요. 얼룩덜룩요 '싯깅이'라고도 하고?)

105005 #1 얼룩얼룩혼다. 싯깅이라고 깅이 색깔이 얼룩얼룩혼다. 싯깅이.(얼룩얼룩한다. '싯깅이'라고 깅이 색깔이 얼룩얼룩한다. '싯깅이'.)

105005 @ 또 다른 깅이는?(또 다른 게는?)

105005 #1 지름깅이, 춤킹이, 싯깅이. 난 거벳긔 모르커라.(기름게, 참게, '싯깅이'. 난 거밖에 모르겠다.)

105005 @ 아, 지름킹이, 춤깅이, 똥깅이?(아, 지름게, 참게, 똥게?)

105005 #1 게메. 똥깅인 얼룩얼룩 검은 걸 거여. 그것이 똥깅이라고.(글쎄. 똥게 얼룩얼룩 검을 걸 거야. 그것이 똥게라고.)

105005 @ 먹지 못허는 거예?(먹지 못허는 건가요?)

105005 #1 먹긴 허여. 못 먹는 깅인 엇어. 다 먹나. 검나 검엉 얼룩얼룩 헌다. 하이고 깅이도 잡으레 잘 뎅겨낫저만은. 이젠 안 가진다.(먹긴 해. 못 먹는 겐 없어. 다 먹어. 검어 검어서 얼룩얼룩 한다. 하이고 게도 잡으러 잘 다녔었지만. 이젠 안 간다.)

105005 @ 깅이, 돌킹이, 춤깅이, 똥깅이 뭐렌 헙니까?(게, 돌게, 참게, '똥깅이', 뭐라고 합니까?)

105005 #2 깅이 것도 깅이옌 허긴 허는 디. 그런 건 별반.(게, 그것도 게라고 하긴 하는 데. 그런 건 별반.)

105005 @ 깅이도 잡으레 다녓지예?(게도 잡으러 다녔지요?)

105005 #2 어, 다녀. 깅인 먹을 걸로.(어, 다녀. 겐 먹을 걸로.)

---

71) '싯깅이'은 색깔이 얼룩얼룩한 게를 칭한다.

105005 @ 먹을 걸로 아이덜이영 ᄀᆞ치 어떵 잡음니까? 그냥 손으로?(먹을 걸로 아이들이랑 같이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손으로?)

105005 #2 그냥 돌 놔 뒈씨멍 심엇주게.(그냥 돌 놔서 뒤집으면서 잡았지.)

105005 @ 콩 놩이네 반찬도 헤 먹고.(콩 놔서 반찬도 해 먹고.)

105005 #2 반찬도 헤나서 여러 가지.(반찬도 했어. 여러 가지.)

105005 @ 춤깅이옌 헙니까?(참게라고 합니까?)

105005 #2 춤깅이, 꺼멍헌 거이. 금능에 강 많이 주서오주기.(참게, 까망한 거. 금능에 가서 많이 주서오지.)

105005 @ 금능에 강 금능에 깅이 많이 나는구나?(금능에 가서 금능에 게 많이 나는구나?)

105005 #2 응.(응.)

105005 @ 금능 바당에 강덜 헤엄도 치고 헷겠다예? 바당이 좋아노난?(금능 바다에 가서들 헤엄도 치고 했겠네요? 바다가 좋아서?)

105005 #2 바당이 좋아노난.(바다가 좋으니까.)

105005 @ 무슨 깅이가 이섯수과? 돌킹이, 춤깅이, 똥낑이.(무슨 게가 있었습니까? 돌게, 참게, 똥게.)

105005 #3 그런 건 ᄀᆞᆺ에서.(그런 건 가에서.)

105005 @ ᄀᆞ에서 잡는 거 갯것에서 잡는 건?(가에서 잡는 거, 갯것에서 잡는 건?)

105005 #3 그 저 바당에 강 좀수덜 잡아오는 건 흰 거. 이만이헌 거.(그 저 바다에 가서 좀수들 잡아오는 건 흰 거. 이만큼한 거.)

105005 @ 흰 거마씨? 붉은 거 아니고?(흰 거요? 붉은 거 아니고?)

105005 #3 희뚜룩헌다. 이만썩헌다. 발 ᄒᆞ나가 이만이 질고 그거 강 덜 잡아당.(희뚜룩한다. 이만씩한다. 발 하나가 이만큼 길고 그거 가서들 잡아다가.)

105005 @ 아, 월령에서도 큰 꽃게렌 헙니까?(아, 월령에서도 큰 꽃게라고 합니까?)

105005 #3 저 거기 강 잡아야 뒌다. 거 비양도에 강 저 한도에 강 잡아온다.(저 거기 가서 잡아야 된다. 거 비양도에 가서 저 '한도'에 가서 잡아온다.)

105005 @ 비양도를 한도렌 헙니까?(비양도를 '한도'라고 합니까?)

105005 #3 응. 한도 싯저. 한도에 그 배 들어오는 배 매는 입구.(응. 한도 있지. 한도에 그 배 들어오는 배 매는 입구.)

105005 @ 아 비양도. 그 바당 길이 한도꽈?(아 비양도. 그 바다 길이 한돕니까?)

105005 #3 ᄋᆞ. 갓다왓다.(응. 갔다 왔다.)

105005 @ 거기에서 꽃게를 뭐렌 헙니까? 무슨 깅이렌 헙니까?(거기에서 꽃게를 뭐라고 합니까? 무슨 게라고 합니까?)

105003 #3 깅이 이름은 그 깅이 이름 뭣고? 저 금능서 나는 거.(게 이름은 그

깅이 이름 뭣고? 저 금능서 나는 거.)

105005 #4 뭐 깅이 일름도 싯수과? 깅이옌 허주기.(뭐 게 이름도 있나? 게라고 하지.)

105005 @ 큰 거 큰 거 큰 깅이? 그.(큰 거, 큰 거, 큰 게? 그.)

105005 #3 바당깅이 조개도 그디 강 잡곡 헌다. 조개.(바다 게, 조개도 거기 가서 잡고 한다. 조개.)

105005 #4 돌킹이 돌킹이.('돌킹이', '돌킹이'.)

105005 @ 돌킹인 작은 거고.('돌킹이' 작은 거고.)

105005 #3 돌킹이. 바당에서 ᄀᆞ에서 잡는 거고. 거 바당.('돌킹이'. 바다에서 가에서 잡는 거고. 거 바다.)

105005 #4 어디서 남네까? 먼 바당.(어디서 납니까? 먼 바다.)

105005 @ 비양도 쪽에 낫덴?(비양도 쪽에 낫다고?)

105005 #3 비양도 조개 나지 않느냐게. 저 조개하고 ᄀᆞ치 뎅경 잡아 와시네.(비양도 조개 나지 않니. 저 조개하고 같이 다니면서 잡아 왔었지.)

105005 #4 비양도 앞이 가믄 ᄌᆞ물어 오는 거.(비양도 앞에 가면 저물어 오는 거.)

105005 @ 조개 이름은 엇수과?(조개 이름은 없습니까?)

105005 #4 대합조개기옌 허주기.(대합조개기라고 하지.)

105005 @ 대합조겡이?(대합조개?)

105005 #4 대합조개.(대합조개.)

105005 #3 대합조개옌 헌다. 조개.(대합조개라고 한다. 조개.)

105005 #4 대합조개 아이고 비양도에 강 대합조개기덜 하영덜 조개덜 잡아와서라. 경 우리도 흔 해 간 잡아낫저.(대합조개 아이고 비양도에 가서 대합조개들 많이 조개들 잡아왔더라. 그렇게 우리도 한 해 가서 잡았었지.)

105005 @ 아까 돌킹이 잇고 춤깅이, 똥깅이.(아까 '돌킹이' 있고 참게, '똥깅이'.)

105005 #4 춤깅인 장깅이옌 헌다.(참게 '장깅이'라고 한다.)

105005 @ 아, 춤깅인 장깅이옌 험니까?(아, 참게 '장깅이'라고 합니까?)

105005 #4 ᄋᆞ. 춤깅이 ᄀᆞ라 장깅이옌 헌 벌경헌 거. 벌경헌 거ᄀᆞ라 장킹이옌 허곡. 또 싯깅이도 싯저.(어. 참게보고 장게라고 하는 벌경헌 거. 벌경헌 거보고 장게라고 하고. 또 '싯깅이'도 있지.)

105005 @ 싯깅인 무슨 색깔이꽈?('싯깅인' 무슨 색깔입니까?)

105005 #4 두 개여. 벌경헌 건 춤깅인디, 장킹이옌 허곡. 또 싯깅이옌 헌 건 또영 그믓이 셔 영 가운디.(두 개여. 벌경한 건 참겐데, 장게라고 하고. 또 '싯깅이'라고 한 건 또 이렇게 선이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

105005 #3 얼룩얼룩허여.(얼룩얼룩해.)

105005 #4 얼룩얼룩허여. 똥깅이옌 흔 건 막 웃밧디 ᄆᆞᆯ른 밧디.(얼룩얼룩해. '똥깅이'라고 한 건 막 윗 밭에 마른 밭에.)

105005 #3 먹도 안헌다.(먹지도 안한다.)

105005 #4 싀가지가 이서, 깅이라도.(세 가지가 있어, 게라도.)

105005 @ 똥깅이 무슨 색깔마씨? 검은 색깔?(똥게, 무슨 색깔인가요? 검은 색깔?)

105005 #3 먹도 안허고 검은 색깔이여.(먹도 안하고 검은 색깔이야.)

105005 #4 늬 가지로구나. 지름킹이영 허믄 늬 가지로구나.(네 가지로구나. 기름게랑 하면 네 가지로구나.)

105005 @ 오, 지름킹이 건 무슨 색깔마씨?(오, 기름게 그건 무슨 색깔인가요?)

105005 #3 거 빨강헌 거.(거 빨강한 거.)

105005 @ 아. 지름킹이가 빨가?(아, 기름게가 빨가?)

105005 #3 빨강헌 거여.(빨강한 거야.)

105005 #4 빨강헌 건 츰깅이 츰깅이.(빨강한 건 참게, 참게.)

105005 #3 거, 지름킹이옌 헌다.(거, 기름게라고도 한다.)

105005 #4 반찬 이디 놩 헹 먹는 거.(반찬 여기 놔서 해서 먹는 거.)

105005 @ 아, 지름킹인 무슨 색깔?(아, 기름게 무슨 색깔?)

105005 #4 영 젓 담앙 먹는 거고, 싯깅인 영 헤영 것도 먹긴 먹어. 먹어도 저 솖앙덜 알앙 거시기 헹덜, 모르켜.(이렇게 젓 담아서 먹는 거고, '싯깅이' 이렇게 해서 그것도 먹긴 먹어. 먹어도 저 삶아서들 알아서 거시기 해서들, 모르겠다.)

105005 @ 콩반찬 지름킹인.(콩/반찬 기름게.)

105005 #4 지름킹이옌 헌 건 웃밧디 통킹이왓디 거 잡아당 뺏앙 죽숴먹으믄 다리도 안 아프고 헌뎅 거 죽숴먹어. 거 잡아당 막 ᄆᆞᆯ른 밧디 물싼디 이디 우에 이 파도치는 우에.(지름게라고 한 건 윗밭에 통게밭에 그거 잡아다가 빻아서 죽 쒀서 먹으면 다리도 안 아프고 한다고 그거 죽 쒀서 먹어. 그거 잡아다가 막 마른 밭에 물싼데 여기 위에 이 파도치는 위에.)

105005 #3 죽도 쑤민 맛신나.(죽도 쑤면 맛있나.)

105005 @ 지름킹이가 우리가 먹는 검은 깅이 담수다. 그게 양이 제일 많아예? 그게 제일 양 많고.(기름게가 우리가 먹는 검은 게 같습니다. 그게 양이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양 많고.)

105005 #4 비양도가 하지.(비양도가 많지.)

105005 @ 그게 제일 양 많아예?(그게 제일 양 많아요?)

105006 #1 맞아. 밤이 뎅겨낫저. 밤이 그거 거 대가리만 똑 요거ᄀᆞ치 보그레기 아장이 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 영 홰들렁 영 바당에 물 ᄒᆞ꼼 쌍 뎅겨가민.(맞아 밤에 다녔었지. 밤에 그거 거 대가리만 꼭 요거같이 '보그레기' 앉아서 그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 이렇게 횃불 들러서 이렇게 바다에 물 조금 싸서 다녀가면.)

105006 @ 그믄 밤에 멧시에, 누구랑 같이 가마씨?(그러면 밤에 몇 시에, 누구랑 같이 가요?)

105006 #1 가다보민 벗 장난으로덜게. 게믄 요것ᄀᆞ치 영 톡 아지민 이, 알아사

심어 모르민 뭐철이 몰라.(가다보면 벗 장난으로. 그러면 요것같이 이렇게 톡 앉으면, 알아야 잡어. 모르면 뭔지 몰라.)

105006 @ 돌멩이 옆이 그냥?(돌멩이 옆에 그냥?)

105006 #1 그냥 모그레기 아장 모그레기. 요 먹통에 요거ᄁᆞ치 앚나게. 물에 폭 심으민 안 사람 심으민 거 멧쿠럭 뒌다 거게.(그냥 살짝 앉아서 조용히. 요 먹통에 요거까지 앉지. 물에 폭 잡으면 아는 사람 잡으면 그거 낙지 된다 그거.)

105006 @ 어마큼 해마씨?(얼마 마큼 해요?)

105006 #1 아니, 낙지, 그냥 야야, 지레긴 허민 요만이 진다.(아니, 낙지, 그냥 야야, 길인 하면 요만큼 긴다.)

105006 @ 그믄 물구럭인게게.(그러면 문어네요.)

105006 #1 무꾸럭이 아니고 낚지, 무꾸럭은 ᄒᆞ꼼 솔찌주만은 낚진 ᄀᆞ는다게. 발이 영 진진헌 게 ᄀᆞ는다. 거 잡으레 장난으로 뎅겨낫주게. 훼 들렁 훼 들렁 불을 싸 줘사 뎅겨 건.(문어가 아니고 낙지, 문어는 조금 살찌지만 낙진 가늘다. 발이 이렇게 긴긴한 것이 가늘다. 그거 잡으러 장난으로 다녔었지. 횃불 들러서 횃불 들러서 불을 싸 줘야 다녀 그건.)

105006 @ 훼는 누가?(횃불은 누가?)

105006 #1 훼들렁 말째라가난 데로 헤영 저 지름도 지렁 뎅겨나고. 경 안ᄒᆞ민 무싱 거 세 묶엉 불 들렁 뎅겨나고. 장난으로덜게 이젠 안 뎅긴다.(횃불 들러서 나중에 되가니까 대로 해서 저 기름도 길러서 다녔었고. 그렇게 안하면 무엇 띠 묶어서 불 들러서 다녔었고. 장난으로, 이젠 안 다닌다.)

105006 @ 대단허다예? 남자아이덜도 같이 친구들?(대단하네요? 남자아이들도 같이 친구들?)

105006 #1 남자도 그때 가나고, 우린 어리난 여자도.(남자도 그때 갔었고, 우린 어리니까 여자도.)

105006 @ 여자친구덜이영 남자 어른덜도 잇고?(여자친구덜이랑 남자 어른들도 있고?)

105006 #1 아메도 지녁 취미 이신 사람덜 가주기게. 이젠 못 봐.(아마도 자기 취미 있는 사람들 가지. 이젠 못 봐.)

105006 @ 누구영 제일 먼저 ᄀᆞ치 조차뎅겨난마씨?(누구랑 제일 먼저 같이 쫓아다녔나요?)

105006 #1 아방은 엇다. 아방 어멍이 아니고, 우리 친구덜이 장난으로덜.(아버지는 없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장난으로.)

105006 @ 재미잇겠다예?(재미있겠네요?)

105006 #1 뎅겨낫저게.(다녔었지.)

105006 @ 게민, 멧 마리 잡아보기도 핸마씨?(그러면, 몇 마리 잡아보기도 했나요?)

105006 #1 멧 마리 잡아진지 모르고, 똑 요거거치 ᄆᆞᆼ그랭이 아장 폭 심어사 뒌

다게. 모르는 사람은 못 심어.(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고, 꼭 이거같이 조용히 앉아서 폭 잡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못 잡아.)

105006 @ 그거 잡아지민 뭐 헹 먹어마씨?(그거 잡아지면 뭐해서 먹어요?)

105006 #1 몰라게. 솖앙도 먹고 먹는 거난게.(몰라. 삶아서도 먹고 먹는 거니까.)

105006 @ 아니, 물구럭은 죽도 쒕 먹으민 맛좋았고, 솖앙도 먹으민 맛좋아난.(아니, 문어는 죽도 쒀서 먹으면 맛있었고, 삶아서도 먹으면 맛있었어.)

105006 #1 다 먹나. 멧구럭도 먹고 물구럭도 먹고. 물구럭은 솔찌고 큰 거고 멧구럭은 ᄀᆞ늘앙 발이영 진진헌 거여. 잇져 낙지라고. 응.(다 먹나. 낙지도 먹고, 문어도 먹고. 문어는 살찌고 큰 거고 낙지는 가늘어. 그거 발이랑 긴긴한 거야. 있지 낚지라고. 응.)

105006 @ 홰렌 허는구나예?(횃불이라고 하는군요?)

105006 #1 거 무신말고?(거 무슨 말이니?)

105006 @ 아까 횃불을 홰?(아까 횃불을 '훼'?)

105006 #1 ᄋᆞ.(어.)

105006 #1 훼들렁 뎅기고?(횃불 들러서 다니고?)

105006 @ 해산물은 이 낙지만 밤에 잡는 거 뭐 잇수과?(해산물은 이 낙지만 밤에 잡는 거 뭐 있습니까?)

105006 #1 가끔 무꾸럭 ᄒᆞ나씩 나오는 거 셔라. 게민 낚지가 하영 나와. 이 밤이 잡는 건 원 이젠 어심사 헌디 뎅기는 거.(가끔 문어 하나씩 나오는 거 있어. 그러면 낙지가 많이 나와. 이 밤에 잡는 건 이젠 없는지 다니는 거.)

105006 @ 원담 갯담도 이섯수과?(원담, 갯담도 있었습니까?)

105006 #1 원담도 셔낫저.(원담도 있었지.)

105006 @ 원담도 이서난예?(원담도 있었군요?)

105006 #1 이젠 것도 어실 거여. 다 믈아졍 설러불어실 거여.(이젠 그것도 없을 거야.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을 거야.)

105006 @ 믈아졍예?(무너져서요?)

105006 #1 아메도 자꾸 봐져사 다울 거 아니?(아마도 자꾸 봐져야 다울 거 아니?)

105006 @ 횃불로 낙지 잡으레 가 본 적 잇수과?(횃불로 낙지 잡으러 가 본 적 있습니까?)

105006 #2 낚지 잡으레 댕겨봐서.(낙지 잡으러 다녀봤어.)

105006 @ 횃불을 뭐렌 험니까? 그 뭐 싸가지고 강은에 밤이?(횃불을 뭐라고 합니까? 그 뭐 켜가지고 가서 밤이?)

105006 #2 횃불 영 지름담앙 불부쳔 들러근에.(횃불 이렇게 기름 담아서 불 부쳐서 들러서.)

105006 @ 불 부쳔 누구랑 갑니까? 밤에 불 헹 낚지 잡으레 월령 바다에?(불 부

쳐서 누구하고 갑니까? 밤에 불해서 낚지 잡으러 월령 바다에?)

105006 #2 월령 바다 이디게.(월령 바다 요기.)

105006 @ 아버지영? 어머니영?(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105006 #2 아니. 아버지영이나 가주기게. 여러이 가. 그런 때. 서너이 사람덜 강은에 하영 잡으레.(아니. 아버지하고나 가지. 여럿이 가. 그런 때. 서너이 사람들 가서 많이 잡으러.)

105006 @ 낙지 잡앙 걸로 뭘 헹 먹어마씨?(낙지 잡아서 그걸로 뭘 해서 먹어요?)

105006 #2 뭣을 헹 먹어게? 오랑 반찬헤영 먹고 놀채 씹어도 먹고.(뭣을 해서 먹어? 와서 반찬해서 먹고 날 차 씹어도 먹고.)

105006 @ 횃불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불 쌍은에?(횃불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불 켜서?)

105006 #3 횃불? 낙지, 낙지, 무꾸럭, 문어.(횃불? 낙지, 낙지, 문어, 문어.)

105006 #4 건 밤이 낙지 잡는 건, 밤이 가멍 구젱기도 잡아오곡, 보말도 막 ᄉᆞ믓 낭은에 훳불에 훳불 쌍 영 허여근에 새영 기신새[72]영 묶어근에 영 혜영 들르믄 메꾸럭이옌 ᄒᆞᆫ다, 것고라. 이젠 낙지옌 허주만은. 메꾸럭.(건 밤에 낙지 잡는 건, 밤이 가면서 소라도 잡아오고, 보말도 막 사믓 나무 해서는 횃불에 횃불 싸서 이렇게 해서 새랑 '기신세'랑 묶어서 이렇게 해서 들면 '메꾸럭'라고 한다, 그것보고. 이젠 낙지라고 하지만. 낙지.)

105006 @ 아아, 낚지를 메꾸럭?(아아, 낙지를 '메꾸럭'?)

105006 #4 ᄋᆞ. 메꾸럭이옌 ᄒᆞᆫ다.(어. 문어라고 한다.)

105006 @ 메쿠럭. 이런 말이 진짜 중요헌 말이우다게. 이런 것 때문에 영 헴수궤 메쿠럭.('메꾸럭'. 이런 말이 진짜 중요헌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메꾸'.)

105006 #4 메쿠럭. 이젠 낚지옌 허주만은. 메꾸럭 메꾸럭덜 잡으레 감저 경 헤여.('메쿠럭'. 이젠 낙지라고 하지만. 낙지 낙지들 잡으러 간다. 그렇게 해.)

105006 @ 세상에. 훳불은 뭐렌 헷수과? 훳불?(세상에. 횃불은 뭐라고 했습니까? 횃불?)

105006 #4 건 밤이. 어두운 때 불쌍은에 보말도 나고. 강 보믄 전복도 막 올라오곡 무꾸럭도 나곡 경 잡아 낫저. 이젠 이거 잡는 사람 엇나. 잡으레 가는 사람 막 ᄒᆞᆫ 주전지 ᄋᆞ정 강 주전지로 ᄒᆞ나씩 잡아당 풀아.(그건 밤에. 어두운 때 불 켜서 보말도 나고. 가서 보면 전복도 막 올라오고 문어도 나고 그렇게 잡았었지. 이젠 이거 잡는 사람 없다. 잡으러 가는 사람 막 한 주전자 가져서 가면 주전자로 하나씩 잡아다가 팔아.)

105006 #4 그신새옌 헌 건 집이렁에 멧 십 년 뒌 집, 그것 강 ᄒᆞ꼼 빠당 그거 묶엉 강은에 잡는 거 아니가?('그신새'라고 한 건 집이렁에 몇 십 년 된 집, 그것

72) '기신새'는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를 말한다. '그슨새'라고도 한다.

가서 조금 뽑아다가 그거 묶어서 가서 잡는 거 아닌가?)

105006 @ 아 그거 빠당 지름에 부청?(아 그거 뽑아다가 기름에 부쳐서?)

105006 #4 아니, 지름 못헌다. 그거 묶어ᄋᆞ정 그 ᄀᆞ정 가주기.(아니, 기름 못한다. 그거 묶어가지고 그거 가져서 가지.)

105006 @ 헝겊에 묶으지 말앙, 그냥 딴딴허게 묶엉?(헝겊에 묶지 말고, 그냥 딴딴하게 묶어서?)

105006 #3 이만씩 묶은다 질게.(이만큼씩 묶는다 길게.)

105006 #4 주충밧디게. 주충밧디 물 싸믄 주충밧디게. 영 영ᄒᆞ영 동글락헌 이 방동글락한 저 거시기가 셔.(지충밭에. 지충밭에 물 싸면 지충밭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그란 저 거시기가 있어.)

105006 @ 낚지 많이 난다?(낚지 많이 난다?)

105006 #4 막 올라와.(막 올라와.)

105006 @ 어디에 많이 나마씨?(어디에 많이 나요?)

105006 #3 물통. 이 바당에도 이 원[73] 안에 영 싯나. 물덜 잘 안 빠졍.(물통. 이 바다에도 이 '원' 안에 이렇게 있다. 물들 잘 안 빠져서.)

105006 @ 아, 밤이 싼 때?(아, 밤에 쌀 때?)

105006 #3 ᄋᆞ. 그런 디 가믄 많이 셔.(어. 그런 데 가면 많이 있어.)

105006 @ 아아. 물 잘 안 빠졍 원담 닮은디?(아아. 물 잘 안 빠져서 '원담' 같은데?)

105007 @ 원담, 갯담.('원담', '갯담'.)

105007 #1 멜 ᄀᆞᆮ은 거. 자리는 벳긧디 강 걸이곡.(멸치 같은 거. 자리는 바깥에 가서 걸이고.)

105007 @ 게믄 이제 삼촌 원담 ᄀᆞᆯ아줍서. 원담 여기 원담, 갯담이 이섯수과?(그러면 이제 삼촌 '원담' 말해주세요. '원담' 여기 '원담', '갯담'이 있었습니까?)

105007 #3 ᄋᆞ, 잇엇저.(어, 있었지.)

105007 @ 솖앙도 먹고 원담도 잇엇수과?(삶아서도 먹고 '원담'도 있었습니까?)

105007 #2 원담. 멜 잡는 게 원담이주.('원담'. 멸치 잡는 게 '원담'이지.)

105007 @ 그거 이제 엇어졋수과?(그거 이제 없어졌습니까?)

105007 #2 엇어져서.(없어졌어.)

105007 @ 멜도 걸려낫구나예?(멸치도 걸렸었군요?)

105007 #2 어. 멜은 많이 들어.(어. 멸치는 많이 들어.)

105007 @ 와. 원담이름이 뭔지 기억 안남수과?(와. '원담'이름이 뭔지 기억 안납니까?)

105007 #2 원담. 이것도 원담 다운 사람이라사 ᄀᆞᆫ지.('원담'. 이것도 '원담' 다운 사람이라야 말하지.)

---

73) '원'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바닷가에 둘러쌓아 놓은 담을 말한다. '원담', '갯담'이라도 한다.

105007 @ 게난 원담 다운 사람. 다 죽어불지 안 헨?(그러니까 '원담' 다운 사람. 다 죽어버리지 안 했어요?)

105007 #2 다 죽어부럿주게.(다 죽어버렸지.)

105007 @ 어렷을 때 그 원담에 궤기 들어 간 멜 잡아봣잖아예. 파닥파닥 영 거려봣지예. 소쿠리 들렁 강 멜 들엇저, 헙니까? 누가 골아줘?(어렸을 때 그 '원담'에 고기 들어 간 멸치 잡아봤잖아요. 파닥파닥 이렇게 걸어봤지요. 바구니 들고 가서 멸치 들었어, 합니까? 누가 말해줘?)

105007 #2 골아도 하.(말해도 많아.)

105007 @ 달려 강 뭘로 멜 거립니까? 족베기[74]로?(달려가서 무엇으로 멸치 거립니까? '족베기'로?)

105007 #2 족베기가 잇주기. 이 저 요만이헌 족베기 멘들엉 놔뒁당 확 확 확 거려.('족베기'가 있지. 이 저 요만한 '족베기' 만들어 놔뒀다가 확 확 확 걸여.)

105007 @ 족베기로 겡 그거 가졍 어머니한티 주민 어머니가 멜젯도 담그고?('족베기'로 그렇게 그거 가져서 어머니한테 주면 어머니가 멸치젓도 담그고?)

105007 #2 으. 멜젯도 담그고.(어. 멸치젓도 담그고.)

105007 @ 멜국도 끓영 먹고?(멸치국도 끓여서 먹고?)

105007 #2 멜국도 끓영 먹고. 풀레도 가곡, 가곡.(멸치국도 끓여서 먹고. 팔러도 가고, 가고.)

105007 @ 풀레도 가곡 우뜨리에?(팔러도 가고 중산간에?)

105007 #2 으.(어.)

105007 @ 그믄 '원'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그러면 '원'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7 #3 어, 이서낫저. 차돌로 걸이멍게.(어, 있었었지. 차돌로 걸이면서.)

105007 @ 차돌?(차돌?)

105007 #3 멜, 멜덜 들어와나세게 멜.(멸치, 멸치들 들어왔었네 멸치.)

105007 @ 아아, 멜 들어완예? 그믄 차돌은 뭣고 족바진 뭐꽈?(아아, 멸치 들어왔군요? 그러면 차돌은 뭐고 족바진 뭡니까?)

105007 #3 거 족바지가 족바지. 그거가 그거여.(그거 '족바지'가 '족바지'. 그거가 그거여.)

105007 @ 족바지가 차돌이꽈? 족은 게 차돌?, 족바지 족은 게?('족바지'가 차돌입니까? 작은 게 차돌?, '족바지' 작은 게 차돌?)

105007 #3 으. 족바지 영 그걸로 멜 뜨는 거.(어. '족바지' 이렇게 그걸로 멸치 뜨는 거.)

105007 #4 멜 뜰 어음 망시리허영 영 똥그락허게시리 멘들앙 강 멜 들엇저 허멍 것들로 두러멩 강 그걸로 영 물아당은에 걸이는 거 족바지.(멸치 뜰 어음 망사리 해서 이렇게 동그랑하게끔 만들어서 가서 멜 들었어 하면서 그것들로 둘러매서 가

74) '족베기'는 뜰채처럼 손잡이가 달린 작은 그물을 말한다. '족베기'라고도 한다.

서 그걸로 이렇게 말아다가 걸이는 거 ‘족바지’.)

105007 @ 차돌이렌도 허곡?(차돌이라고도 하고?)

105007 #4 ᄋᆞ.(어.)

105007 #3 족바지렌 헷저. 우리.(‘족바지’라고 했지. 우리.)

105007 @ 그믄 원담엔 멜이 주로 많이 들엇다예?(그러면 ‘원담’엔 멸치가 주로 많이 들었네요?)

105007 #3 멜, 멜, 멜잡젠 그거 다와세.(멸치, 멸치 잡으려고 그거 쌓았지.)

105007 @ 게민 누가 멜 들엇저 험니까? 멜 들엇저 허민 막 가?(그러면 누가 멸치 들었어 합니까? 멸치 들었어 하면 막 가?)

105007 #3 ᄋᆞ게. 공동으로 해 논 거난.(응. 공동으로 해 놓은 거니까.)

105007 @ 원담은? 지금 엇어졋수과?(‘원담’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105007 #4 원담. 그 엿날엔 그딘 저디 관광덜 오는디 엿날, 이제도 경 보멀낭이옌 헌다. 그것ᄀᆞ라 보멀낭, 보말낭, 보멀낭.(‘원담’. 그 옛날엔 거긴 저디 관광들 오는데 옛날, 이제도 그렇게 ‘보멀낭’이라고 한다. 그것보고 ‘보멀낭’, ‘보말낭’, ‘보멀낭’.)

105007 @ 원담은 보멀낭?(‘원담’은 ‘보멀낭’?)

105007 #4 ᄋᆞ. 보말낭 경ᄒᆞ난 이젠 관광덜 가는 저 알에 이제도 보말낭 보말낭이옌 허여. 보말낭덜 즘네덜 들어가라 경혜영 허곡. 그디 원담 멜 들어오게시리덜 강 지커는 사람 담덜 다왕덜 원담 동그락허게시리 들어왕 허멍 그디강 담 다운 사람은 멜 강 걸이게 허곡, 경 안헌 사람 담 강 안 다으민 멜 ᄀᆞᆯ른 밧디가믄 막 우티 네빈 거 ᄒᆞᆫᄆᆞ리씩 두ᄆᆞ리썩 ᄒᆞᆫ 거 강 주서오라나서 ᄑᆞ레왓디 강 ᄋᆞ 경혜낫저. 보멀낭이옌도 허곡, 그 다음엔 버렝이알이렌도 허곡.(어. ‘보말낭’ 경하니까 이젠 관광들 가는 저 아래에 이제도 ‘보말낭’, ‘보말낭’이라고 해. ‘보말낭’들 좀녀들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하고. 거기 원담 멸치 들어오게끔들 가서 지키는 사람, 담들 다워서들 원담 동그락하게끔 들어와서 하며 거기 가서 담 다운 사람은 멸치 가서 걸이게 하고, 그렇게 안한 사람 담 가서 안 다으면 멸치 고른 밭에 가면 막 위에 내버린 거 한 마리씩 두마리씩 한거 가서 주워 왔었어. 파래밭에 가서 가지고 했었지. ‘보멀낭’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엔 ‘버렝이알’이라고도 하고.)

105007 @ 아아 원담속을 경 ᄀᆞᆯ앗덴 헌 거 아니예? 아이고 세상에 지금도 버렝이알이옌 헙니까?(아아 ‘원담’속을 그렇게 말했다고 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도 ‘버렝이알’이라고 합니까?)

105007 #4 이제도 버렝이알이렌 헌다. 그디 보말낭 버렝이알 진여옌도 허곡. 이렌 허곡 여가 질주게. 경ᄒᆞ난 여가 질딱허니까 진여옌 허곡.(이제도 버렝이알이라고 한다. 거기 ‘보말낭’, ‘버렝이알’, ‘진여’라고도 하고. 이쪽엔 하고 여가 길지. 그러니까 여가 기니까 ‘진여’라고 하고.)

105007 @ 아이고, 우리 삼촌 총기가예. 그 원에 멜 말고 다른 고기도 들어옵니까?(아이고, 우리 삼촌 총기가요. 그 원에 멸치 말고 다른 고기도 들어옵니까?)

105007 #3 따치 곹은 거 들어온다.(따치 같은 거 들어온다.)

105007 @ 따치도 들어왕 잡고?(따치도 들어와서 잡고?)

105007 #4 이제 멜 걸이레 가는 사람 엇나.(이제 멸치 거리러 가는 사람 없다.)

105007 @ 여기서 소리도 어 허야 디야 멜 후리는 소리 이것도 이런 거 들어난 적은 엇수과? 멜소리, 멜 후리는 소리?(여기서 소리도 '어 허야 디야' 멸치 잡는 소리 이것도 이런 거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멸치소리, 멸치 잡는 소리?)

105007 #3 멜 바당에 강은에 그물 놩 막 잡아오멍 그 소리덜 헤낫주기. 멜 털멍.(멸치 바다에 가서 그물 놔서 막 잡아오면서 그 소리들 했었지. 멸치 털면서.)

105007 @ 그거 헤낫수과?(그거 했었습니까?)

105007 #3 멜 털멍.(멸치 털면서.)

105007 @ 멜 털멍, 거 한소절이라도 홀수 있는거 잇수과?(멸치 털면서, 그거 한 소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105007 #3(소리) 오 어어어어~ 멜을 만선을 시켯구나. 어야 어어홍 어여차. 멜 딱딱 털주게.((소리) 오 어어어어~ 멸치를 만선을 시겼구나. 어야 어어홍 어여차. 멸치 딱딱 털지.)

105008 @ 원의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담 보수?('원'의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담' 보수?)

105008 #3 거 파도 쳥 무너지민 또 강 다와사주기게.(그거 파도 쳐서 무너지면 또 가서 쌓아야지.)

105008 @ 돌 다와예? 누가 합니까?(돌 쌓아요? 누가 합니까?)

105008 #3 거 동네 사람덜게.(거 동네 사람들.)

105008 @ 동네사람덜이 같이 가자 헙니까? 그믄 멧사름부터 어른덜이?(동네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합니까? 그러면 몇 사람부터 어른들이?)

105008 #3 어른덜 한이 서게 멧 사름부터 아니고. 헐 사람이 그냥 강 허는 거난.(어른들 한이 있나? 몇 사름부터 아니고. 할 사람이 그냥 가서 하는 거니까.)

105008 @ 경허믄 고기 먼저 봉근 사람이 가져당 먹고?(그렇게 하면 고기 먼저 주운 사람이 가져다가 먹고?)

105008 #3 그냥 멜 하영 들어지믄 막 연락허영 멜 걸이레, 멜 하영 들엇젠 연락 온다.(그냥 멸치 많이 들어지면 막 연락해서 멸치 거리러, 멸치 많이 들었다고 연락 온다.)

105009 @ 멜도 들어낫수과?(멸치도 들었었습니까?)

105009 #1 멜도 들어나고, 멜은 깃디서 들이고. 자린 벳긧들로 강 거려오라낫저.(멸치도 들어나고, 멸치는 갯가에서 들고. 자린 바깥으로 가서 거려 왔지.)

105009 @ 멸치는 배 탕 가민 어떻게 잡습니까?(멸치는 배 타서 가면 어떻게 잡습니까?)

105009 #1 원담 다와근에 원 안이 들어오민 갯것디 이제사 원 뭣헤여. 바당에 멜 베끗디 강 걸이곡.('원담' 쌓아서 원 안에 들어오면 갯것에 이제야 원 뭣해. 바다

에 멸치 바깥에 가서 거리고.)

105009 @ 게믄 멸치는 배탕 가믄 자리 걸이는 거하고 멜치 걸이는 게 뭐가 달라마씨? 멜치는 그물로 하고 자리는 족바지로 하고?(그러면 멸치는 배 타서 가면 자리 거리는 거하고 멸치 거리는 게 뭐가 달라요? 멸치는 그물로 하고 자리는 '족바지'로 하고?)

105009 #3 응, 족바지로게.(어. '족바지'로.)

105009 @ 멜치는 그물로?(멸치는 그물로?)

105009 #3 응. 그 저 그물 놩 놔두민 그 저 오늘 그물 노믄 즈냑이 그물 헹 놔두민 내일 아침 걸이레 가주기. 걸이레 가믄 만선 멜덜 많이들 오주기.(어. 그 저 그물 놔서 놔두면 그 저 오늘 그물 노면 저녁에 그물 해서 놔두면 내일 아침 거리러 가지. 거리러 가면 만선 멸치들 많이들 오지.)

105009 @ 만선이여 헙니까?(만선이야 합니까?)

105009 #3 경허믄 이제 이디 왕 털 땐 이 막 요라이 턴다. 겡 소리덜 허멍.(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털 땐 이 막 여럿이 턴다. 그래서 소리들 하면서.)

105009 @ 당선기 올랏저. 대략 배가 멧 대 갑니까?(당선기 올랐어. 대략 배가 몇 대 갑니까?)

105009 #3 이제 멜 그거 잡는 디가 세 척이나 이서난디, 이젠 아니 헐 것도 엇어.(이제 멸치 그거 잡는 데가 세 척이나 있었는데, 이젠 안 할 것도 없어.)

105009 @ 옛날 세 척 가근에 에워쌍?(옛날 세 척 가서 에워싸서?)

105009 #3 아니. 뚜로뚜로 헌다. 질루지썩.(아니. 따로따로 한다. 각자대로.)

105009 @ 질루지썩, 뚜로뚜로허민 그거 가졍오민 너무 많아, 게민 그거 폴레도 가고?(각자대로, 따로따로하면 그거 가져서오면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 팔러도 가고?)

105009 #3 응. 다 왕 사간다. 저 서귀포레덜 왕 다 사간다. 저 뭐 허젠 뭐 허젠 사감시냐 허믄.(어. 다 와서 사간다. 저 서귀포로 와서 다 사간다. 저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사가냐 하면.)

105009 @ 멜젯 담그젠?(멸치젓 담그려고?)

105009 #3 저 멜젓, 멜젓 둥그고 사료.(저 멸치젓, 멸치젓 담그고 사료.)

105009 @ 사료 저 걸름?(사료 저 거름?)

105009 #3 사료옌 헌건 고기 키우는 사료.(사료라고 한 건 고기 키우는 사료.)

105009 @ 아아 양식 그런 거 헤낫수과? 월령에도?(아아, 양식 그런 거 했습니까? 월령에도?)

105009 #3 응, 아니. 이딘 양석 안 헤낫저만은. 그걸로 헹 폰다. 겡 그디서 그 공장에서 사료 멘들앙은에 밥주곡 허는 거 아니가?(어, 아니. 여긴 양식 안했지만. 그걸로 해서 판다. 그래서 거기서 그 공장에서 사료 만들어서 밥 주고 하는 거 아니가?)

105009 @ 양식공장 어디?(양식공장 어디?)

105009 #3 저레 가믄 다 싯저. 이제.(저리 가면 다 있지. 이제.)

105009 @ 아아, 옛날에는 걸름도 헷덴 헙디다? 멜로 밧디.(아아, 옛날에는 거름도 했다고 하던데요? 멸치로 밭에.)

105009 #3 그건 보리 갈젠 허믄 걸름 많이 헷지.(그건 보리 갈려고 하면 거름 많이 했지.)

105009 @ 보리밧디예?(보리밭에요?)

105009 #3 어. 보리밧디는 놔 낫저. 거믄 잘 뭰다 보리.(어. 보리밭에는 놨었지. 그러면 잘 된다 보리.)

105009 @ 보리가 잘 뒈어?(보리가 잘 되요?)

105009 #3 틀림엇어. 건 멜론.(틀림없어. 그건 멸치론.)

105009 @ 메루치도 헤낫수과? 메루치 솖앙 ᄆᆞᆯ령.(멸치도 했습니까? 멸치 삶아서 말려서.)

105009 #3 솖앙 ᄆᆞᆯ령허는 것이 아니고, 생체 그냥 막 ᄆᆞᆯ령은에 밧디 놓는다.(삶아서 말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체로 그냥 막 말려서 밭에 놓는다.)

105009 @ 아니 먹는 거 ᄆᆞᆯ령 먹지 안 헷수과?(안 먹는 거 말려서 먹지 안했습니까?)

105009 #3 무사 안 먹어, 먹주기게. 원체 많이 들어노난 밧디강 끌암세 원체 많이 들언.(왜 안 먹어, 먹지. 워낙 많이 들어노니까 밭에 가서 깔았네. 워낙 많이 들어서.)

105009 @ 원체 많이 드난?(원체 많이 드니까?)

105009 @ 그믄 금능은 더 많이 들엇겟다예?(그러면 금능은 더 많이 들었겠네요?)

105009 #3 ᄋᆞ. 금능은 요자기도 멜덜 하영 들어 뭐 헷덴 헤라.(어. 금능은 요즘도 멸치들 많이 들어 뭐했다고 하드라.)

105009 @ 월령도 많이 들고?(월령도 많이 들고?)

105009 #3 월령은 이제 원 다 치와 불언.(월령은 이제 원 다 치워 버려서.)

105009 @ 옛날 옛날?(옛날 옛날?)

105009 #3 ᄋᆞ. 옛날은 많이 들어낫저. 월령도.(어. 옛날은 많이 들었었지. 월령도.)

105010 @ 궤기는 안 낚아 봣지예?(고기는 안 낚아 봤지요?)

105010 #1 아니. 궤긴 낚은 사람은 낚으주. 거 아무나 낚아지느냐게. 우리가 무사 궤기를 낚으느니?(아니. 고긴 낚은 사람은 낚지. 그거 아무나 낚아지느냐. 우리가 왜 고기를 낚으니?)

105010 @ 음, 궤기는 어떻게 헤서 낚습니까? 늬껍은 무슨 늬껍으로 헷수과 주로?(음, 고기는 어떻게 해서 낚습니까? 미끼는 무슨 미끼로 했습니까? 주로.

105010 #2 괴기 낚을 땐.(고기 낚을 땐.)

105010 @ 예.(예.)

105010 #2 이 즌괴기 낚을 땐 이디 저 지렁이가 이서. 지렁이 팡 놔뒷당 읏경 강.(이 잔고기 낚을 땐 이디 저 지렁이가 이서. 지렁이 파서 놔뒀다가 가지고가서.)

105010 @ 늬껍.(미끼.)

105010 #2 늬껍.(미끼.)

105010 @ 그거 헹 뭐 뭐 낚아수과?(그거 해서 뭐 뭐 낚았습니까?)

105010 #2 우럭 같은 것도 낚으고, 멕진다리 술멩이같은 거 낚으주게.(우럭 같은 것도 낚고, 멕진다리, 술멩이 같은 거 낚지.)

105010 @ 멕진다리, 술멩이 뭐 어렝이나 이런 거. 어렝인 멀리 가여뒈지 안 헤마씨?(멕진다리, 술멩이 뭐 어렝놀레기나 이런 거. 어렝놀레긴 멀리 가야되지 않나요?)

105010 #2 요디만 나가믄 먼디 안 가도.(요기만 나가면 먼데 안 가도.)

105010 @ 낚시대, 낚시줄 낚시 뽕돌 등은 어떻게 구합니까?(낚시대, 낚시줄 낚시 봉돌 등은 어떻게 구합니까?)

105010 #2 그 뽕돌허곡, 낚시 픈는디가 잇주기.(그 봉돌하고, 낚시 파는 데가 있지.)

105010 @ 픈는디서 옛날에도 수릿대로 만들엉 수릿대는 그냥 대 베어다근에 이렇게 헤당 작살로 고기를 잡아 본 적이 잇수과? 소살?(파는데서 옛날에도 수릿대로 만들어서 수릿대는 그냥 대 베어다가 이렇게 하다가 작살로 고기를 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소살?)

105010 #2 아, 소살 거 잡아본 디가 엇주만은. 오랑 잡는 것도 보기는 헷주. 월령아이덜 하영 그런 거 잡아.(아, 소살 그거 잡아본 적이 없지만. 와서 잡는 것도 보기는 했지. 월령아이들 많이 그런 거 잡아.)

105010 @ 자리회, 방어회 다 먹어봣지예?(자리회, 방어회 다 먹어봤지요?)

105010 #2 어. 회 같은 거 바다에서 나는 건 다 먹어.(어. 회 같은 거 바다에서 나는 건 다 먹어.)

105010 @ 그믄예, 고기는 어떵 헹 낚음니까?(그러면요 고기는 어떻게 해서 낚습니까?)

105010 #3 낚싯대에 낚으는 거 말가?(낚싯대에 낚는 거 말이니?)

105010 @ 예.(예.)

105010 #3 낚싯대에 헤근에, 늬껍 꿰영게.(낚싯대에 해서, 미끼 꿰여서.)

105011 @ 낚싯대, 낚싯줄, 낚시, 뽕돌 등은 어떻게 구합니까?(낚싯대, 낚싯줄, 낚시, 봉돌 등은 어떻게 구합니까?)

105010 #3 저 다 풀암세게, 가게덜.(저 다 팔고 있네, 가게들.)

105011 @ 옛날, 옛날 수리대 옛날 얘기를 헤 줘야해마씨?(옛날, 옛날 수리대 옛날 얘기를 해줘야 해요?)

105011 #3 아, 옛날 옛날에 우리 낚을 땐 이 영 선비 네왓저. 영 선비, 영 선비라고 봉똘 요디 가운디 큰 거 놓고 영 헤영은에 선비 멘들앙, 이디 헹 이것에 낚시

양갈레에 돌아메영 바당에 강 드리청 궤기 낚으고 해나서.(아, 옛날 옛날에 우리 낚을 땐 이렇게 선비 내웠지. 이렇게 선비 이렇게 선비라고 봉돌 요기 가운데 큰 거 놓고 이렇게 해서 선비 만들었어, 여기 해서 이것에 낚시 양 갈레에 달아 매여서 바다에 가서 들이쳐서 고기 낚고 했었어.)

105011 @ 음, 늬껍은 어디서 구합니가?(음, 미끼는 어디서 구합니가?)

105011 #3 그거야 어디강 구허느니? 바당에서 집이서 구혜영 가사주.(그거야 어디 가서 구하니? 바다에서 집에서 구해서 가야지.)

105011 @ 지렁이?(지렁이?)

105011 #3 뭐 생선 낚으젠 허믄 저 문어가 좋나.(뭐 생선 낚으려고 하면 저 문어가 좋나.)

105011 @ 아 생선 낚으젠 허믄 옥돔을 말헴수과? 조기를 말헴수과? 생선.(아 생선 낚으려고 하면 옥돔을 말하나요? 조기를 말 하나요? 생선.)

105011 #3 생선은 그 옥돔 아니가?(생선은 그 옥돔 아니가?)

105011 @ 옥돔 낚으젠 허믄 문어가 좋고, 또 갯지렝이를 뭐렌 험니까?(옥돔 낚으려고 하면 문어가 좋고, 또 갯지렁이를 뭐라고 합니까?)

105011 #3 지렝인 뭐 잘 문다만은, 지렝이 안 무는 괴기가 엇어. 지렝인 파기 힘드난 문어로 헴시네게.(지렁인 뭐 잘 문다만, 지렁이 안 무는 고기가 없어. 지렁인 파기 힘드니까 문어로 하네.)

105011 @ 파기 힘드난 문어로 허곡?(파기 힘드니까 문어로 하고?)

105011 #3 그 다음 다른 늬껍 멜도 허곡.(그 다음 다른 미끼, 멸치도 하고.)

105011 @ 응 멜도 허고?(어, 멸치도 하고?)

105011 @ 보말 그런건 안허고예?(보말 그런 건 안허고요?)

105011 #3 보말 잘 안 문다 궤기.(보말 잘 안 문다 고기.)

105011 @ 음, 뽕돌 그런 건 만듭니까?(음, 봉돌 그런 건 만듭니까?)

105011 #3 응 이녁냥으로 멘들아 본인이 멘들아 이녁냥으로.(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본인이 만들어 자기 스스로.)

105011 @ 어떵 고망을 어떵 멩글아마씨?(어떻게 구멍을 어떻게 만들어요?)

105011 #3 고망 뚤를 거, 것도 못 뚤렁 혜영 어떵.(구멍 뚫을 거, 것도 못 뚫어서 해서 어떻게.)

105011 @ 돌멩이에 고망 뚤르젠 허민 어려?(돌멩이에 구멍 뚫으려고 하면 어려?)

105011 #3 돌멩이가 아니고 연철이지 연철.(돌멩이가 아니고 연철이지 연철.)

105011 @ 아아, 뽕돌은 연철로 만드는구나예?(아아, 봉돌은 연철로 만드는군요?)

105011 #3 어, 납 납으로.(어, 납 납으로.)

105011 @ 어디서 사당?(어디서 사다가?)

105011 #3 응게 옛날부터 그거 프는 디가 셔낫저.(응 옛날부터 그거 파는 데가

있었지.)

105011 @ 아아 옛날부터 프는 디가 이선예? 음 그런디도 상점에서 폴앗수과? 한림?(아아, 옛날부터 파는 데가 있었다고요? 음 그런데도 상점에서 팔았습니까? 한림?)

105011 #3 한림에도 폴고, 뭐든지 대한민국 전체가 폴앗주.(한림에도 팔고, 뭐든지 대한민국 전체가 팔았지.)

105011 @ 월령에도 폴고?(월령에도 팔고?)

105011 #3 아니, 월령엔 안 폴아낫저.(아니, 월령엔 안 팔았었지.)

105011 @ 월령엔 상점이 어시난 한림을 가야뒈고.(월령엔 상점이 없으니까 한림을 가야되고.)

105012 @ 뽕돌에 낚시대, 작살, 오라방같은 경우 작살로도 고기 낚으고.(봉돌에 낚싯대, 작살, 오라비같은 경우 작살로도 고기 낚고.)

105012 #1 거 남자니까 낚앗주, 여잔 안 뎅기주기게.(거 남자니까 낚았지, 여잔 안 다니지.)

105012 @ 호멩이[75], 비창 또 작살도 가졍뎅깁니까?('호멩이', 비창 또 작살도 가져서 다닙니까?)

105012 #1 거 무신 말 작살이 뭣고?(거 무슨 말 작살이 뭐니?)

105012 @ 고기, 고기 팍 쏘는 거?(고기, 고기 팍 쏘는 거?)

105012 #1 아, 건 소살이라고. 소살이라고 궤기 시민 그걸 찔러사 뒈주게.(아, 그건 '소살'이라고. 작살이라고 고기 있으면 그걸 찔러야 되지.)

105012 @ 음. 여자도 가졍 뎅겨마씨?(음. 여자도 가져서 다녀요?)

105012 #1 게 게. 물에 드는 거. 우리 다 가졍 뎅겨낫저. 테왁에 거 꼭 찔렁 뎅기당이 야 그 궤긴 바당 소곱에 영 무시거 소곱에 신나게이 영 영 저 무싱거 쏘는 그 소곱에 시민 그걸로 강 콱 찔렁은에 궤기 잡아오는 거여게.(그럼, 그럼. 물에 드는 거. 우리 다 가져서 다녔었지. '테왁'에 거 꼭 찔러서 다니다가 야 그 고긴 바다 속에 이렇게 뭐 속에 신나게 이렇게 이렇게 저 무엇 쏘는 그 속에 있으면 그걸로 가서 콱 찔러서 고기 잡아오는 거야.)

105012 @ 우럭이나 이런 거예?(우럭이나 이런 거요?)

105012 #1 아무 거라도 그 속에 신 거 솔치곧은 거 가시 과작혼 거, 거 찔르민 아파 괴양 헤당은에 ᄋᆞ정 안 오민 먹을 수 이시니까.(아무 거라도 그 속에 있는 거 쑤기미같은 거 가시 과작한 거, 그거 찔르면 아파. 고이 해다가 가져서 안 오면 먹을 수 있으니까.)

105012 @ 솔치는 찔르민 아프지요?(쑤기미는 찌르면 아프지요?)

105012 #1 솔치 찔르민 아파. 거 당추 찔르민 안 뒌다게.(쑤기미 찌르면 아파. 거 당최 찌르면 안 돼.)

105012 @ 그믄 작살로 고기를 어떵 잡습니까?(그러면 작살로 고기를 어떻게 잡

75) '호멩이'는 성게, 문어나 소라 등 구멍 속에 것들을 파내는 호미를 말한다.

습니까?)

105012 #3 아, 작살, 소살이렌 허주기. 그걸로 궤기 잡는 사람은 잘 잡나?(아, 작살, '소살'이라고 하지. 그걸로 고기 잡는 사람은 잘 잡아?)

105012 @ 응, 안 잡아낫수과?(응, 안 잡았었습니까?)

105012 #3 난 잘 허지 못허게 헤낫저.(난 잘 하지 못하게 했었지.)

105013 @ 고깃배도 이디 여러 개 이섯수과?(고깃배도 여기 여러 개 있었습니까?)

105013 @ 고깃배는 어떤 배가 잇습니까? 덕판배여 무신 배여 여기 배가 멧 개 이섯수과? 옛날에?(고깃배는 어떤 배가 있습니까? 덕판배다 무슨 배다 여기 배가 몇 개 있습니까? 옛날에?)

105013 #2 옛날에 배가 서너 개.(옛날에 배가 서너 개.)

105013 @ 서너 개 거기에 삼촌네 배도 하나 이섯다는 거 이름이 뭔지 기억남수과?(서너 개, 거기에 삼촌네 배도 하나 있었다는 거 이름이 뭔지 기억납니까?)

105013 #2 기억 안 나.(기억 안 나.)

105013 #3 ᄒᆞ끔 싯긴 셔낫저. 바당에 뎅기는 사람이나 허주, 아무나 안 뎅겨. 것도.(조금 있긴 있었지. 바다에 다니는 사람이나 하지, 아무나 안 다녀. 것도.)

105013 @ 고깃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뭐 덕판배여 고깃배 이름 종류?(고깃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뭐 덕판배여다 고깃배 이름 종류?)

105013 #3 종류 뭐 덕판배엔도 헷주만은, 딴 이름으론 우리 풍선, 풍선, 덕판풍선이옌 늘 헤왓지. 게난 테도 싯저. 테 옛날은 테로 헤영 자리 거리이고도 헤낫저.(종류 뭐 덕판배라고도 했지만, 딴 이름으론 우리 풍선, 풍선, '덕판풍선'이라고 늘 해왔지. 그래도 떼배도 있지. 떼배, 옛날은 떼배로 해서 자리돔 뜨고 했었지.)

105014 @ 뭘 이제까지 큰 거 낚아본 적 잇수과? 어마어마허게 생각나는 거 전복이라든가 얼마만이 큰 거 해봣다든가?(뭘 이제까지 큰 거 낚아본 적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생각나는 거 전복이라든가 얼마만큼 큰 거 해봤다든가?)

105014 #1 아니게, 닥치민 허지이. 전복이나 뭐시던지 물속에 신 거.(아니게, 닥치면 하지. 전복이나 뭐든지 물속에 있는 거.)

105014 @ 또 저 미?(또 저 해삼?)

105014 #1 미가 뭣고?('미'이 뭐니?)

105014 @ 해숨.(해삼.)

105014 @ 잊어불어졋저? 미가 뭣고 ᄋᆞ. 해숨.(잊어버려졌네? '미'가 뭐니? 그래. 해삼.)

105014 #1 해숨이옌 혼다. 닥치민 심어네지. 해숨이옌 헌다. 미옌도 헌다만은 해숨을 잘 곤지.(해삼이라고 한다. 닥치면 잡아내지. 해삼이라고 한다. '미'라고도 한다만 해삼을 잘 말하지.)

105014 @ 해산물은 어떤 것이 이섯수과? 톳, 몸?(해산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톳, 모자반?)

105014 #2 톳, 몸, 그거주기. 미역, 가시리.(톳, 모자반, 그거지. 미역, 풀가사리.)

105014 @ 잠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잠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14 #4 소라도 잘 뒈고, 문어 잘 잡아오고, 멍게도 잘 잡아오곡, 물에 들민 천초도 잘, 모살에 ᄉᆞ믓 쉐 둥글어 오듯 둥글어 왕은에.(소라도 잘 되고, 문어 잘 잡아오고, 멍게도 잘 잡아오고, 물에 들면 천초도 잘, 모래에 막 사뭇 소 굴러 오듯 굴러 와서.)

105015 @ 잠녀들이 물질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잠녀들이 물질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15 #1 경 테왁[76]은 꼭 짚어사. 어음도 돌아메고 망시리 어음은 삼동낭으로 대충 테왁 사와. 싱그민 ᄀᆞᆯ락이 나와. ᄀᆞᆯ락씨 소곱의 싱그민 욜아. 우리 친정어멍 어릴 때난 어머니가 해 줘. 연다. 테왁이 물적삼 헤양한 걸로 우이 족은눈 허당 말제라가난 큰눈 처음엔 족은눈 해서 말제라가난 아멩해도 일제시대.(그렇게 '테왁'은 꼭 짚어야. 어음도 달아매고 망사리 어음은 상동나무로 대충 '테왁' 사와. 심으면 박이 나와. 박씨 속에 심으면 열어. 우리 친정어머니 어릴 때니까 어머니가 해 줘. 연다. 테왁에 물적삼 하얀 걸로 위에 작은 물안경 하다가 말짜이니까 큰 물안경 처음엔 작은 물안경 해서 말째여가니까 아무래도 일제시대.)

105015 @ 그믄 테왁?(그러면 '테왁'?)

105015 #1 테왁은 물에 들엉 뎅기멍 짚으는 거.('테왁'은 물에 들어서 다니면서 짚는 거.)

105015 @ 누가?(누가?)

105015 #1 아이, 테왁 만드는 것이 아니고, 테왁 사다가 그거 짚어서 물에.(아니, 테왁 만드는 것이 아니고, 테왁 사다가 그거 짚어서 물에.)

105015 @ 어디 강 사마씨?(어디 가서 사요?)

105015 #1 아니, 그거 고망 뚤랑 바싹 ᄆᆞᆯ령, 그 고망 뚤앙 걸 막 어떵 어떵 허영 빼나사 그 고망 막아사 테왁이 뒌다게.(아니, 그거 구멍 뚫어서 바싹 말려서, 그 구멍 뚫어서 걸 막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빼내야 그 구멍 막아야 테왁이 된다.)

105015 @ 만들어 봣수과?(만들어 봤습니까?)

105015 #1 게, 아니 우리사 만드느냐만은 그거 사당은에 그거 짚엉 물에 들어나민 ᄀᆞᆯ락이렌 혼다.(그레, 아니 우리야 만드느냐만 그거 사다가 그거 짚어서 물에 들어나면 박이라고 한다.)

105015 @ 월령에 만드는 사람 엇언마씨?(월령에 만드는 사람 없었어요?)

105015 #1 그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시니? 허여당 ᄀᆞᆯ락이라고이 그거 싱경 ᄀᆞᆯ락 ᄀᆞᆯ락 테왁ᄀᆞ라 ᄀᆞᆯ락이렌 헌다.(그거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니? 해다가 박이라고 그거 심어서 박, 박 '테왁'보고 박이라고 한다.)

---

76) '테왁'은 박의 씨를 파내고 구멍을 막아, 잠녀들이 바다에서 작업할 때 지친 몸을 의지하여 잠시 쉬거나 망사리를 매달아 두는 물건을 말한다. 'ᄏᆞ테왁', 'ᄀᆞᆯ락테왁'이라고도 한다.

105015 @ 테왁ᄀᆞ라 ᄀᆞᆯ락이렌 헤마씨?(‘테왁’보고 박이라고 해요?)

105015 #1 음. 클 때 경 ᄒᆞ여근에 이젠 그걸 타당은에 크민 고망 뚤앙이 클르고, 씨 어떵 어떵 어떵 베꼇디랑 가지 못허게 허멍 그 씰 줏앙 빼영. 겡 ᄆᆞᆯ리우민 테왁이 뒈주기. 그거 아래랑 망시리 ᄃᆞᆯ아메고 어음 ᄃᆞᆯ아매고 그거 ᄃᆞᆯ아메사.(음. 클 때 그렇게 해서는 이젠 그걸 타다가 크면 구멍 뚫어서 끄르고, 씨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바깥에는 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씰 쪼아서 빼어서. 그래서 말리우면 테왁이 되지. 그거 아래랑 망사리 달아매고 어음 달아매고 그거 달아매야.)

105015 @ 망시리 ᄃᆞᆯ아메고 어음이 뭣과 낭?(망사리 달아매고 어음이 뭡니까? 나무?)

105015 #1 영 둥글락헌 낭으로 해진 거 낭으로 해진 거.(이렇게 둥그런 나무로 한 거, 나무로 한 거.)

105015 @ 아, 낭, 낭 그거 삼동낭이 좋덴 헨게?(아, 나무, 나무 그거 상동나무가 좋다고 하던데?)

105015 #1 몰르켜.(모르겠다.)

105015 @ 어음?(‘어음’?)

105015 #1 어음. 게난 그것에 이젠 알러렌 그물 ᄃᆞᆯ아메민 망시리, 그것에 ᄃᆞᆯ아멘 건 테왁, 어음 ᄃᆞᆯ아맨 거 나 물 헤영 헤어사 거 끗엉 뎅기멍 지펑도 뎅기고 그레 뭣 헤당 담앙 올라오곡 허는 거여. 베낏디 올 때.(어음. 그러니까 그것에 이젠 아래라고 그물 달아매면 망사리, 그것에 달아맨 건 ‘테왁’, 어음 달아맨 거 나 물 해서 해야 거 끌고 다니면서 짚어서도 다니고 그리로 무엇 해다가 담아서 올라오고 하는 거야. 바깥에 올 때.)

105015 @ 예. 거기 쪼끄만헌 것도 놓주게, 호멩이?(예. 거기 조그마한 것도 놓지 ‘호멩이’?)

105015 #1 경 터나지 못허게. 호멩인 저 무싱거 ᄀᆞᆯ갱이곡이, 것 강 오벼오는 거 바당 아레 간 경 ᄒᆞᆫ다게.(그렇게 떠나지 못하게. ‘호멩인’ 저 무엇 호미고, 그것 가서 호벼오는 거, 바다 아래 가서 그렇게 한다.)

105015 @ 비창은 어디 강?(비창은 어디 가서?)

105015 #1 비창은 이제 허리에 찻당은에 전복 시민 트는 거.(비창은 이제 허리에 찼다가 전복 있으면 따는 거.)

105015 @ 건 어디서 삿수과? 오일장?(그건 어디서 샀습니까? 오일장?)

105015 #1 모르켜게. 어디덜 난다게, 그런 거.(모르겠다. 어디들 난다, 그런 거.)

105015 @ 응. 물안경은?(응. 물안경은?)

105015 #1 물안경 족은 거 찌당 말젠 큰 놈 쪄사지. 영 ᄒᆞᆫ 거이 코ᄁᆞ지 눈ᄁᆞ지 다 막아진 거.(물안경 작은 거 끼다가 말째는 큰 놈 껴야지. 이렇게 한 거 코까지 눈까지 다 막아진 거.)

105015 @ 뭐 테왁이여 비창이여 이런 거 어머니 호멩이여 다 들어봣지예? 어머니 허는 잠녀들의 도구.(뭐 테왁이다, 비창이다, 이런 거 어머니 ‘호멩이’다, 다 들어

봤지요? 어머니 하는 잠녀들의 도구.)

105015 #2 거 도구주게. 거 해녀덜 도구.(그거 도구지. 거 해녀들 도구.)

105015 @ 바당에 거 잘허난 물어보쿠다예. 좀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 좀녀들 비창이영 테왁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닙니까?(바다에 거 잘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잠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 잠녀들 비창이랑 테왁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닙니까?)

105015 #4 거 테왁은이, 옛날 이 테왁 엇어. 이제는 저 스폰지 잇주만은 옛날엔 꼭 콜락박 콜락 콜락 테왁 닮은 거 율앙 콜락이엔 헌 거 신다. 육진 바가치엔 흔다. 바가치엔 흐는 거, 이제 무사 텔레비에 먹지 안 허나. 북북 글경 테왁헤연 그거 헤영 강은에 이젠 얽을 거 없어서 신사라[77]엔 헌 거 잇어. 그 노 꼬앙 막 질겨 걸 꼬앙 신사라 꼬앙은에 이제 테왁 얽엉 이제 어음 이만이 헌 거 삼동낭 어음 삼동낭 어음. 어음 헤당 이젠 멘들앙 테왁 이제 돌아매영 망시린[78] 이제 저 미망시리[79] 아까 곧지 안헤냐. 미망시리 그물이 어디 시니. 게난 그거 저 신사라. 신사라로 망시리 맹들안 육지 강 맹들앙 그거 허영 그 소곱이 전복도 헤영 오곡 구젱기도 주물아 오고 경헤낫저. 이젠 망시리도 수뭇 어성 어음도 육지 강 보민 이젠 다 소라 잡는 것도 뚜로 이제 문어 잡는 것도 뚜로 해삼통도 잡아당 이만이 줄앙 멘들앙 머구리 조락[80] 멘들듯 육지 강 온 사람덜 그거 잘 하나썩 잘 숨켱 와. 못 ᄀᆞ졍오게 허여. 우린 그냥덜 오라낫저. 테왁이엔 헌다. 게난 그땐 헤양케 물적삼 헤영은에 물적삼 허영 입엉 아레도 헤양케 옷 솟곳 헤영 돌마구 허영 메고 뚜로 까부리[81] 머리 광목으로 바령 이디 영 얼굴도 못 카게 까부리 경헤영 써낫저. 안경은이 옛날에는 쉐안경덜 동촌 사람덜 쒜안경허지 안 허느냐 우린 고무안경 허영 헤낫저.(거 테왁은, 옛날 이 테왁 없어. 이제는 저 스펀지 있지만 옛날엔 꼭 박, 박, 박, 테왁 같은 거 열어서 박이라고 한 거 있다. 육진 바가지라고 한다. 바가지라고 하는 거, 이제 왜 텔레비전에 먹지 않느냐. 박박 긁어서 테왁해서 그거 해서 가서 이젠 얽을 거 없어서 뉴질랜드삼이라고 한 거 있어. 그 노 꼬아서 매우 질겨. 그걸 꼬아서 뉴질랜드삼 꼬아서 이제 테왁 얽어서 이제 '어음' 이만큼 한 거 상동나무 '어음', 상동나무 '어음', '어음' 해다가 이젠 만들어서 테왁 이제 달아매어서 망사리는 이제 저 '미망사리' 아까 말하지 않았니. '미망사리' 그물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그거 저 뉴질랜드삼. 뉴질랜드삼으로 망사리 만들어서 육지 가서 만들어서 그거 해서 그 속에 전복도 해서 오고, 소라도 캐서 오고 그렇게 했었어. 이젠 망사리도 사뭇 없어서 '어음'도 육지 가서 보면 이젠 다 소라 잡는 것도 따로 이제 문어 잡는 것도 따로 해삼통도 잡아다가 이만큼 결어서 만들어서 '머구리 조락' 만들듯 육지 가서 온 사람들 그거 잘 하나씩 잘 숨겨서 와. 못 가져오게 해. 우린 그냥들 왔었지. '테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땐 하얗게 물적삼 해서 입어서 아래도 하얗게 옷, 속곳해서 매듭단추 해

77) '신사라'는 식물에 한 종류로, 긴 잎을 두들겨 꼬아 밧줄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78) '망사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이다.
79) '미망사리'는 억새꽃을 쌌던 속잎을 꼬아서 만든 망사리다.
80) '조락'은 잠녀들이 망사리 안에 넣고 다니며 오분자기, 전복 따위를 따로 넣어두는, 그물로 만든 주머니를 말한다. '그물수대', '바르출리', '조레기', '좀망사리'라고도 하였다.
81) '까부리'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얼굴이 타지 않도록 만들어 썼던 모자다.

서 매고 따로 ‘까부리’ 머리 광목으로 찢어서 여기 이렇게 얼굴도 못 타게 ‘까부리’ 그렇게 해서 썼었지. 안경은 옛날에는 ‘쇠안경’들 동촌 사람들 ‘쇠안경’하지 안하느냐 우린 고무안경 해서 했었지.)

105015 @ 아아, 동쪽은 쒜안경?(아아, 동쪽은 쇠안경?)

105015 #4 간 보난 동촌 사람덜 아웅아웅허멍 쒜안경 헴서라. 그때 강 보난 영 테왁도 이제 저 눈도 바로 안 쪄, 영 한쪽더레 영 탁 영 허영 쪈. 동촌 사람덜 다 일로 들어가 가믄 저 어디고, 동촌 사람덜 이젠 잊어비언. 다 같이 살아나난 화북, 서화, 김녕, 고성. 아으, 섬덜. 저 ᄆᆞ을도 모르크라. 경덜 허멍 막 살앗어. 소섬 이 동어귀넌(?) 허멍 막 허연. 넨 잘 졋어. 그쪽에 네덜이 그쪽에 사람덜은이 잘 졋나. 우리 네 젓는 건이 주지도 안 하여. 네 젓엉 가민 동촌 사람덜 이거 네 아니가? 이건 네민 겨믄 그 서화 사람덜 아이고, ᄀᆞ제기 살아도게 네 하나 못 져십데가게 성님, 성님. 아이고, 빌어먹을 년 ᄀᆞ자 살아도 난 못 베왓저. ᄀᆞ자 살아도 못 베왓저. ᄀᆞ자 짐제기가 뭣고? 허난 뒈왁세기[82]게. 이젠 보난 뒈왁세기 것도 그 사람덜 말이 틀림엇어. 짐작허는 거난. 솔박[83] 봐져냐? 솔박이 이 빌어먹을 년덜아 뭣고, 뭣고? 허믄 솔박은 영 담아네는 거.(가서 보니까 동촌 사람들 아웅아웅하면서 ‘쇠안경’ 하고 있더라. 그때 가서 보니까 이렇게 테왁도 이제 저 눈도 바로 안 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껴서. 동촌 사람들 다 이리로 들어가 가면 저 어디니, 동촌 사람들 이젠 잊어버렸어. 다 같이 살았었으니까 화북, 세화, 김녕, 고성, 아이 섬들. 저 마을도 모르겠다. 그렇게들 하면서 막 살았어. 우도 동어귀넌(?) 하면서 막 했어. 노는 잘 저어. 그쪽에 노들이 그쪽의 사람들은 잘 젓나. 우리 노 젓는 건 주지도 안 해. 노저어서 가면 동촌 사람들 이거 노 아니가? 이건 노면 그러면 그 세화 사람들 아이고, 아직까지 살아도 노 하나 못 젓습니까? 형님, 형님. 아이고, ‘빌어 먹을 년’ 아직껏 살아도 난 못 배웠어. 지금껏 살아도 못 배웠지. 아직껏 ‘짐제기’가 뭐니? 하니까 ‘뒈왁세기’. 이제 보니까 ‘뒈왁세기’ 것도 그 사람들 말이 틀림없어. 짐작하는 거니까. ‘솔박’ 봐져냐? ‘솔박’이 이 ‘빌어먹을 년들아’ 뭐니? 뭐니? 하면 ‘솔박’은 이렇게 담아내는 거.)

105015 @ 여긴 좀팍이렌 허드라고예?(여긴 ‘좀팍’이라고 하더라고요?)

105015 #4 어, 어, 경허영 영허고 허믄 경허믄 네젓는 거 시난 전복 잡으레덜 가주기게. 물찌 뒈언 즘녀 혼 배가 멧 명 헤영 시껑 허믄 네 젓이라, 헤영 허믄 막 네 그년덜은양 어떵사 네 경 잘 젓는지 (소리) 성님도 이리 오랑 젓어 봅서 허쿠덴. 나도 젓어 보마. 영 허멍 허난 경 허영 허믄이. 야, 소섬 동어귀 동해다 살던 년아 이어싸나, 이어싸 이어싸. 어떤 날에 우리 어멍 날 낳다더냐 해청 영업 요거 하나 배와주렌 날 납데가? 그년덜은 날ᄀᆞ라만 헤렌 허여. 그때 기신도 시영 헤얇게 까부리[84] 입으난 요년 요년 아이고 요요 칼선 닮은 김녕년덜아, 이어싸나. 백장노역 낭

82) ‘뒈왁세기’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아주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한다.
83)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한다. ‘속박’, ‘손박’, ‘좀팍’, ‘좀팍세기’라고도 한다.
84) ‘까부리’는 해녀가 작업할 때 쓰는 모자의 한 가지다. 머리와 뒷목덜미와 양뺨을 덮을 수 있게 되

군님은 산폭도한티덜 잃어둰 오란. 아이고, 성님 그 말 ᄀᆞᆫ지 맙서. 아이고, 성 ᄀᆞ자 ᄀᆞᆯ아가믄 우린. 이 고작고작 경 헤낫저. 이제 경 허지도 못헌다. 나 비양도 갈 데도 막 네 젓엉 우린 네 젓엉 간다. 속곳 입엉 무슨 옷이나 이거 영 입엉 가고 속곳 바랑에 이디 물적삼도 엇어. 그냥 강 멧 시간씩 싸왕 아이구 ᄒᆞᆫ 번 얼엉 ᄒᆞᆫ 번 얼룩얼룩친 것추룩 헷당 얼룩얼룩헷당 두 번 얼언 ᄉᆡ 번차는 ᄆᆞᆫ딱 ᄉᆞᆯ 죽어빌믄 언 줄 몰라.(어,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그러면 노 젓는 거 있으니까 전복 잡으러들 가지. 물때 되어서 잠녀 한 배가 몇 명해서 실어서 하면, 노 저어라 해서 하면 막 노 그년들은 어떻게 해야 노 그렇게 잘 젓는지 형님도 이리 와서 저어 보세요 하니까 나도 저어 보마.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소리) 야, 소섬, 동 어귀 동해 살던 년아, 이어싸나 이어싸 이어싸. 어떤 날에 우리 어머니 날 낳았다더냐 해천 영업 요거 하나 배워 주려고 날 낳았나요? 그년들은 날보고만 하라고 해. 그때 힘도 있어서 하얗게 '까부리' 입으니까 요년 요년 아이고 요요 칼선 닮은 김녕년들아, 이어싸나. 백장노역 낭군님은 산폭도한테들 잃어두고 와서. 아이고, 형님 그 말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형님 아직껏 말해가면 우린. 이 '고작고작' 그렇게 했었어.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나 비양도 갈 때도 막 노 저어서 우린 노 저어서 간다. 속곳 입어서 무슨 옷이나 이거 이렇게 입어서 가고 속곳 바람에 여기 '물적삼'도 없어. 그냥 가서 몇 시간씩 싸워서 아이고 한 번 얼어서 한 번 얼룩얼룩한 것처럼 했다가 얼룩얼룩했다가 두 번 얼어서 세 번째는 모땅 살 죽어버리면 언 줄 몰라.)

105015 @ 아, ᄉᆡ번째 ᄉᆞᆯ 죽어불어예. 세상에.(아, 세 번째 살 죽어버린다고요. 세상에.)

105015 #4 ᄋᆞ, 경 헤낫저. 잘 헤영 우리 네 젓엉 뎅겨낫저. 육진 네 젓어사만 메역 허레도 가곡 전복 잡으레도 가곡 경헤난. 네만 젓엉 요만헌 배 하나 헤영.(어, 그렇게 했었지. 잘 해서 우리 노 저어서 다녔었지. 육진 노 젓어야만 미역을 하러도 가고 전복 잡으러도 가고 그렇게 했었어. 노만 저어서 요만한 배 하나 해서.)

105015 #3 풍선이난 기계가 엇주기. 게난 네 젓어사주.(풍선이니까 기계가 없지. 그러니까 노 저어야지.)

105015 #4 나 이디 와도 전복이 하르방ᄀᆞ라 들어보라. 큰 전복 큰 저울로 떼낫저.(나 여기 와도 전복이 할아버지보고 들어봐라. 큰 전복 큰 저울로 땄었다.)

105015 @ 비창[85]은 어디서 사당 비창?(비창은 어디서 사다가 비창?)

105015 #4 보믄 영 ᄆᆞᆫ직앙 우린 그냥 봐지질 안 허영 영 어름쓸멍 ᄂᆡ 개도 ᄃᆞᆯ아지고 다섯 개도 ᄃᆞᆯ아졍 경허믄 테왁, 전복 잡으레덜 가곡 옛날 감제 뜨는 저울 셔낫저. 큰 저울 그걸로 떠낫저. 그걸로 작은 저울 튼 것광 그 감저 저울 튼 거영 차이가 셔. 그 동안에도 막 전복 잘 터낫저만은 이젠 전복 고냥 ᄆᆞᆫ져지지도 안 허곡 봐지지도 안 허곡. 멧 해 안에도 간 막 양식장 들믄 이만썩 헌 거 덩어리 하나

어 있는데 '끼부리', '까불이', '풍뎅이'라고도 한다.

85) '비창'은 전복을 따는 데 쓰는 쇠로 만든 연장을 말한다.

이젠 허고정도 안허여. 보젠도 안 허고. 앞이 거 구젱기나 흔 사발허영 구젱기, 막 떨어지지 안허연. 상군들한티 둘앙 하르방도 끗어내지 못허영.(보면 이렇게 만져서 우린 그냥 봐지질 안 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 개도 달고 다섯 개도 달아져서 그러면 테왁, 전복 잡으러들 가고 옛날 고구마 뜨는 저울 있었지. 큰 저울 그걸로 달았지. 그걸로 작은 저울 뜬 것과 그 고구마 저울 뜬 거랑 차이가 있어. 그 동안에도 매우 전복 잘 떴지만 이젠 전복 구멍 만져지지도 안 하고 보이지도 안 하고 몇 해 안에도 가서 막 양식장 들면 이만큼씩 한 거 덩어리 하나, 이젠 하고자도 안 해. 보려고도 안 하고, 앞에 거, 소라나 한 사발해서 소라, 막 떨어지지 않았어. 상군들 한테 달아서 할아버지도 끌어내지 못해서.)

105015 @ 게믄 이 안경은 처음엔 족은눈?(그러면 이 안경은 처음엔 작은 물안경?)

105015 #4 으으, 영 큰 거 싯저. 저디 고무눈 영허영 이만이 헌 거 영 ᄒᆞ영 허믄 요만이 쪙 이레 영 쪙 이디 훤허게.(으으, 이렇게 큰 거 있지. 저기 고무물안경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한 거 이렇게 해서 하면 요만큼 껴서 이리 이렇게 껴서 여기 훤하게.)

105015 @ 거 이름이 뭣과? 눈 그냥 눈? 족은눈 안허고 큰눈?(거 이름이 뭡니까? 물안경 그냥 물안경? 작은 물안경 안 하고 큰 물안경?)

105015 #4 천리통보다 더 훤헌 거 싯저.(천리통보다 더 훤한 거 있지.)

105015 @ 큰 눈? 큰 눈?(큰물안경? 큰물안경?)

105015 #4 ᄋᆞ 느네 그거 안 봔?(어, 너네 그거 안 봤어?)

105015 @ 봐나신디 눈.(봤었는데 물안경.)

105015 #4 ᄋᆞ, 눈, 눈, 눈이렌 ᄒᆞᆫ다. 거ᄀᆞ라.(어, 물안경, 물안경, 물안경이라고 한다. 거보고.)

105015 @ 비창?(비창?)

105015 #4 비창, 호멩이, 까꾸리옌 허여. 까꾸리옌도 허고, 육진 까구리옌 허주만은. 이딘 호멩이. 아이고, 호멩이 네불어졋저게. 영ᄒᆞ곡.(비창, '호멩이', '까꾸리'라고 해. '까꾸리'라고도 하고, 육진 '까구리'라고 하지만. 여긴 '호멩이'. 아이고, '호멩이' 내버려졌어. 이렇게 하고.)

105015 @ 호멩이는 구살?('호멩이'는 성게?)

105015 #4 ᄋᆞ, 구살 영 뚱기고 구젱이도 뚱겨나고 무꾸럭도 심고 그걸로 영혜영 ᄀᆞᆯ겡이 닮은 거 싯저. 영 ᄒᆞᆫ 걸로 그걸로 영 끗엉.(어, 성게, 이렇게 땅기고 소라도 땅겼었고 문어도 잡고 그걸로 이렇게 해서 호미 같은 거 있지. 이렇게 한 걸로 그걸로 이렇게 끌어서.)

105015 @ 비창은 전복?(비창은 전복?)

105015 #4 ᄋᆞ. 비창은 전복. 전복 게난 호멩인 무꾸럭 다 그디 다 오만 거, 구젱기도 파나고 경허는 거. 호멩이엔 허는 거.(어, 비창은 전복. 전복 그러니까 '호멩인' 문어 다 거기 다 오만 거, 소라도 파내고 그렇게 하는 거. '호멩이'라고 하는 거.)

105015 @ 호미, 호미?(낫, 낫?)

105015 #4 호민 건 영 낫 비는 거. 메역 비고 밧데 가믄 보리 옛날 보리 비어나고 에염도 비곡.(낫은 건 이렇게 낫 베는 거. 미역 베고 밭에 가면 보리 옛날 보리 베어나고 가장자리도 베고.)

105015 @ 그 호미가 그 호미?(그 낫이 그 낫?)

105015 #4 또 영 ᄒᆞ는 건 ᄀᆞᆯ겡이. ᄀᆞᆯ겡이, ᄀᆞᆯ겡이 것ᄀᆞ라 ᄀᆞᆯ겡이옌. 나 ᄀᆞᆯ겡이 봐져냐덜. 경 헤영.(또 이렇게 하는 건 호미. 호미, 호미 것보고 호미라고. 내 호미 봤었니들. 그렇게 해서.)

105015 @ 메역헐 땐 호미 가져가야 뒈어?(미역할 땐 낫 가져가야 되어?)

105015 #4 메역헐 땐 호미. 저 호미.(미역할 땐 낫. 저 낫.)

105015 @ ᄆᆞᆷ국헐 때 ᄆᆞᆷ?(모자반국할 때 모자반?)

105015 #3 ᄆᆞᆷ헐 때, 그때 호미 들르지 안 헤샤? ᄆᆞᆷ 헐 때.(모자반할 때, 그때 낫미 들지 안 했니? 모자반 할 때.)

105015 #4 ᄆᆞᆷ 헐 때 그건 몰라. ᄆᆞᆷ 안 헤나난, 이 하르방덜 무싱거 헐 때 비양도 간 헤난난.(모자반 할 때 그건 몰라. 모자반 안 했으니까, 이 할아버지들 무엇 할 때 비양도 가서 했었으니까.)

105015 @ 월령엔 ᄆᆞᆷ 엇수과? 월령엔 ᄆᆞᆷ 엇어?(월령엔 모자반 없습니까? 월령엔 모자반 없어?)

105015 #3 이제 엇어. 꽉 찻저만은 이젠 ᄆᆞᆷ 다 흐지부지 엇어져 불언.(이제 없어. 꽉 찼다만 이젠 모자반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어.)

105015 @ 이젠 뭐 엇다. 이섯지예?(이젠 뭐 없다. 있었지요?)

105015 #3 꽉 찻주기게.(꽉 찼지.)

105015 @ 아아, 옛날에는?(아아, 옛날에는?)

105015 #4 이제도 비양도 가믄 저 거시기 지름ᄆᆞᆷ[86] 막 꽉 차실 거여. 희지 못헹이. ᄆᆞᆷ 딱 ᄭᆞᆯ아지믄 그 우이로덜 희지 못헤영 ᄉᆞ뭇 퍼뜩 헹 놔두민 ᄯᆞᆷ이 후끗후끗허여. ᄆᆞᆷ에 걸어졍 나오지 못허영 베겻듸 나와사 배 탈거난 ᄆᆞᆷ 영 탁 걸쳐노믄 이 우이로 ᄆᆞᆷ 트멍으로 막 희여 나오젠 허민 몸이 후끗후끗허연 고무옷 입고 허난 얼마나 더울 거니.(이제도 비양도 가면 저 거시기 '지름ᄆᆞᆷ' 막 꽉 찼을 거야. 헤지 못 해서. 모자반 딱 깔아지면 그 위로들 헤지 못해서 사뭇 퍼뜩 해서 놔두면 땀이 후끈후끈해. 모자반에 걸어져서 나오지 못해서 바깥에 나와야 배 탈거니까 모자반 이렇게 탁 걸쳐놓으면 이 위로 모자반 틈으로 막 헤어 나오려고 하면 몸이 후끈후근해서 고무옷 입고 하니까 얼마나 더울 거니?)

105016 @ 잠녀들의 물질을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잠녀들의 물질을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5016 #1 ᄂᆞᆷ 가난 디 다 가낫저. 여름에 다 강 살당 얼어 가민 멧 ᄃᆞᆯ이라? 삼사월에 ᄯᅮ신 때 나강 다 줏 먹을 때 큰뚤 ᄃᆞ령 강 경은 안하곡. 할망 빌엉 돈 줭

86) '지름ᄆᆞᆷ'은 모자반이 일종이다. 공기주머니가 자잘한 모자반이다.

뭊져뒁 흔 사람이 ᄒᆞ나벳긔 못 들주. 육지도 바당에서 다른 것도 벨반 엇어. 다 어성 펄 신 디도 싯나게. 돈 나는 디렌 뎅겨난다게. 월령에 하다. 코지라고 바당이 널르진 안해도 물레가 하다 저 코지이 앞더레 몰래 ᄒᆞ끔 여가 돌이 셔사 뭐가 천초, 우미ᄀᆞ라 천초렌 흔다. 우미ᄀᆞ라 천초렌 흔다.(남 갔던 데 다 갔었지. 여름에 다 가서 살다가 얼어 가면 몇 달이야? 삼사월에 따뜻한 때 나가서 다 젖 먹을 때 큰딸 데리고 가서 그렇게는 안하고. 할머니 빌려서 돈 줘서 맡겨두고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데리지. 육지도 바다에서 다른 것도 별반 없어. 다 없어서 펄 있는 데도 있어. 돈 나는 데라고 다녔었어. 월령에 많다. 곶이라고 바다가 너르진 않아도 모래가 많다. 저 곶 앞으로 모래 조금 여가 돌이 있어야 뭐가 천초, 우미보고 천초라고 한다. 우미보고 천초라고 한다.)

105017 @ 아아, 이것도 테왁 들렁 강 허곡, 물옷은 물소중이[87]옌 헙니까?(아아, 이것도 테왁 들어서 가서 하고, 물옷은 '물소중이'라고 합니까?)

105017 #1 ᄋᆞ. 속옷ᄀᆞ라 물소중이옌도.(어, 속옷보고 '물소중이'라고도.)

105017 @ 옛날 헝겊 천으로 뭰 거, 그것도 입어낫지예? 그런 거 엇지예?(옛날 헝겊 천으로 된 거, 그것도 입었었지요? 그런 거 없지요?)

105017 #1 ᄋᆞ게. 그거 안 입으민 안 뒈주기게.(그래. 그거 안 입으면 안 되지.)

105017 @ 그거 이제 엇지예?(그거 이제 없지요?)

105017 #1 이제 그런 거 엇나게.(이제 그런 거 없어.)

105017 @ 겐 그 나중에 나온 거 입어봣지예? 그 고무로 뭰 거 고무 물옷?(그래서 그 나중에 나온 거 입어봤지요? 그 고무로 된 거 고무 물옷?)

105017 #1 아, ᄋᆞ게. 그거 입어사 뭰다게.(아, 그래. 그거 입어야 된다.)

105017 @ 고무 물옷도 입어보고 옛날 것도 입어보고예?(고무 물옷도 입어보고 옛날 것도 입어보고요?)

105017 #1 ᄋᆞ게. 물에 들때사게 그거 아니 입엉은 안 뒈여. 입어사지.(그래. 물에 들 때야 그거 안 입어서는 안 돼. 입어야지.)

105017 @ 저 이런 저 고무옷 입을 때 벳겨주고 헤낫수과? 입을 때 어렵더라고.(저 이런 저 고무옷 입을 때 벗겨주고 했습니까? 입을 때 어렵더라고.)

105017 #2 고무옷 것도 옛날엔 으선.(고무옷 것도 옛날엔 없어서.)

105017 @ 옛날에 물옷 입을 때, 어머니 물옷 입엉 헷지예?(옛날에 물옷 입을 때, 어머니 물옷 입어서 했지요?)

105017 #2 어.(어.)

105018 @ 톳도 헷지예?(톳도 했지요?)

105018 #1 ᄋᆞ, 톳도 헷저.(그래, 톳도 했지.)

105018 @ 우미?(우뭇가사리?)

105018 #1 우미도 싯고, 우민 영 무싱거 ᄒᆞ꼼 짚은 디 나곡이, 톳은 ᄀᆞᄉᆞ디 난

87) '물소중이'는 잠녀들이 물질 할 때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속곳을 말한다. '소중기', '소중의'라고도 한다.

다게.(우뭇가사리도 있고, 우뭇가사린 이렇게 무엇 조금 깊은 데 나고, 톳은 가에 난다.)

105019 @ 우미 허레 가 본 적 잇수과? 우뭇가사리.(우미 하러 가 본 적 있습니까? 우뭇가사리.)

105019 #2 우미.(우뭇가사리.)

105019 @ 게도 어머니 덕분에 톳이여 우미여 먹어봣지예?(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톳이다 우뭇가사리다 먹어봤지요?)

105019 #2 아. 먹긴 먹어봣주기게.(아. 먹긴 먹어봤지.)

105019 @ 우뭇가사리는 어떻게 채취합니까?(우뭇가사리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105019 #4 우리 세계는 천초렌 허느네. 우미렌 허느네. 청각추룩 허민 ᄀᆞᆺ디 왕 ᄆᆞᆯ리왕 우린 ᄒᆞᆫ 줌 ᄒᆞ당 바래영 얼마나 맛 좋느니?(우리 세계는 천초라고 해. 우뭇가사리하고 하네. 청각처럼 하면 가에 와서 말려서 우린 한 줌 해다가 바래여서 얼마나 맛 좋니?)

105019 @ 우미, 우미? 우미는 어떵허고?(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는 어떻게 하고?)

105019 #4 우미. 것고라 우리 세계렌, 저렌 가믄 저 거시기 천초옌 허느네. 육진 천초옌 허곡. 이딘 우미, 우미 우미벳긔 엇나. 이딘 우미 메역이나벳긔.(우뭇가사리. 것보고 우리 세계에는, 저기로 가면 저 거시기 천초라고 하네. 육진 천초라고 하고. 여긴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밖에 없어. 여긴 우뭇가사리, 미역이나밖에.)

105019 @ 우미는 여름에, 여름에?(우뭇가사리는 여름에, 여름에?)

105019 #4 아니, 열매 열지 않는다. 우미 그건 그냥 다박허게 청각추룩 허믄 그자 박박박박박박 손으로 영헤영 장갑 쪙은에 뜯어당 망시리 놩 ᄀᆞᆺ디 오랑 ᄆᆞᆯ령 ᄆᆞᆯ령 게믄 상인덜 사레 오는 사람덜 상인덜안티 푼다. 우린 그걸 그런 것도 헤보지도 안 허고 그자 ᄒᆞᆫ 줌 허당은에 비에 바령 물 적지멍 바리믄 헤양허주기게. 요것추룩 허믄 우미 여름에 숣앙 먹으믄 얼마나 맛 좋느니? 시원허게 얼음 놓곡 허영. 그런 것벳긔 뭐 읏나.(아니, 열매 열지 않는다. 우뭇가사리 그건 그냥 다발하게 청각처럼 하면 그저 박박박박박박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장갑 껴서 뜯어다가 망사리 놔서 가에 와서 말려서 말려서 그러면 상인들 사러 오는 사람들, 상인들한테 판다. 우린 그걸 그런 것도 해보지도 안 하고 그저 한 줌 해다가 비에 바래서 물 적시면서 바래면 하얗지. 요것처럼 하면 우뭇가사리 여름에 삶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 좋으니? 시원하게 얼음 넣고 해서. 그런 것밖에 뭐 없어.)

105019 @ 헹 먹엇다는 거잖아예?(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105019 #3 헹 먹어낫저.(해서 먹었었지.)

105020 @ 전복허고 소라는 암컷 수컷 이름이 잇수과? 암전복, 숫전복.(전복하고 소라는 암컷, 수컷, 이름이 있습니까? 암전복, 수전복.)

105020 #4 ᄋᆞ, 암천복은 영 베짝허영 베짝허영 베짝허믄 이거는 비창, ᄀᆞ졍 가믄 딱 물엉 전복을 자게 트질 못허곡, 숫전복은 영허영 오모록 이추룩허영 오모록

허믄 강 비창 덜락 허여시믄 강 비창으로 헤영 강 영 허믄 푹삭 열아졍 것이 암천복이주게. 오분작[88]은 개전복, 요만썩ᄒᆞᆫ 거. 고망에 영 여 트멍에 부트는 거.(어, 암전복은 이렇게 납작해서 납작해서 납작하면 이거는 비창, 가져서 가면 딱 물어서 전복을 재우 따지를 못하고, 수전복은 이렇게 해서 오목 이처럼 해서 오목하면 가서 비창 더럭 하였으면 비창으로 해서 가서 이렇게 하면 푹 열어져서 것이 암전복이지. 오분자기는 '개전복', 요만씩 한 거. 구멍에 이렇게 여 틈에 붙는 거.)

105020 @ 고망에 여 트멍에 먼바당엔 오분작이 엇어? 오분작은 족아?(구멍에 여 틈에 먼바다라고 오분자기 없어? 오분자기는 작아?)

105020 #4 ᄋᆞ, 오분작은 요만썩허주기게. 큰 건 어떤 디 하나 외로 이신 건 요만이 헌다. 오분제기가.(어, 오분자기는 요만하지. 큰 건 어떤 데 하나, 외로 있는 건 요만큼 한다. 오분자기가.)

105020 @ 전복하고 오분제기가 뭐가 틀려마씨?(전복하고 오분자기가 뭐가 달라요?)

105020 #4 저 전복, 이제 암전북, 숫전복, 오분자구 허믄 세 가지주게. ᄯᅳ나주게. 이거 오분자기도 뚤라. 이름이 그거 오분자구엔 허고.(저 전복, 이제 암전북, 수전복, 오분자기 하면 세 가지지. 다르지. 이거 오분자기도 달라. 이름이 그거 오분자기라고 하고.)

105020 @ 건 무슨 색깔 모양이 똑같아, 틀려?(건 무슨 색깔, 모양이 똑같아, 달라?)

105020 #4 영 헌 트멍에 영 보믄 요디 박아졍 싯주게게. 저 오분자구가 어떤 땐 ᄉᆞ망일믄 돌 일러도 부텅 싯고.(이렇게 한 틈에 이렇게 보면 여기 박아져서 있지. 저 오분자기가 어떨 땐 사망일면 돌 일으켜도 붙어 있고.)

105020 @ 알아집니까? 그게 오분제기라는 걸.(알아집니까? 그게 오분자기라는 걸.)

105020 #4 ᄋᆞ, ᄋᆞ. 부텅 싯고 그거 오분자구, 엿날 엿날이주. 오분작 일키로에 얼마 가는 줄 알암디? 팔만 원 돈 감저. 게난 전복덜 사당덜 먹엄주. 전복이 낫네. 오분자구 팔만원 감쩬. 전복이 낫주. 무사 창옥이네가 사 만원 주난 전복이 낫주. 거 십만원 가 오분자기 같으민.(그래, 그래. 붙어 있고 그거 오분자기, 옛날 옛날이지. 오분자기 일 킬로에 얼마 가는 줄 알고 있니? 팔만 원 돈 간다. 그러니까 전복들 사다가들 먹고 있지. 전복이 낫네. 오분자기 팔만 원 간다고. 전복이 낫지. 왜 창옥이네가 사 만원 주니까 전복이 낫지. 그거 십만 원 해. 오분자기 같으면.)

105021 @ 고동이렌 헙니까? 구젱이렌 헙니까?('고동'이라고 합니까? '구젱이'라고 합니까?)

105021 #2 고동 구젱기.(고동, 소라.)

105021 @ 구젱기라고?(소라라고?)

88) '오분작'은 돌 구멍이나 여 틈에 붙는 떡전복을 말한다. '오분자기', '오분재기', '바르', '떡조갱이' '오분자귀'라고도 한다.

105021 @ 그믄예, 고동과 깅이는 어떵 잡습니까?(그러면요, 고둥과 게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21 #3 고동?(고둥?)

105021 @ 예. 고동은 여자덜이 잡는 거지예?(예. 고둥은 여자들이 잡는 거지요?)

105021 #3 우리 부인덜이 테왁으로 헤영 물에 들엉 잡는 거 아니?(우리 부인들이 테왁으로 해서 물에 들어서 잡는 거 아니?)

105021 @ 고동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고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22 @ 여기도 테우도 이서낫수과?(여기도 떼배도 있었습니까?)

105022 #1 거 무슨 말고? 테?(그거 무슨 말이니? 떼.)

105022 @ 밴데 납작헌거?(밴데 납작한 거?)

105022 #1 ᄋᆞ, 거 테 테우렌 허느냐?(어, 그거 떼배, 떼배라고 하느냐?)

105022 @ 테 탕 가지예?(떼배 타서 가지요?)

105022 #1 테 탕도 ᄒᆞ곡, 배도 탕 테도 셔나고 배도 셔낫저게.(떼배 타서도 하고, 배도 타고, 떼배도 있었고 배도 있었지.)

105022 @ 게믄 요디가 바당이 커났구나예?(그러면 여기가 바다가 컸었군요?)

105022 #1 요 알러레 요거, 요거 저 배 메는데 이제.(요 아래로 요거, 요거 저 배 매는데 이제.)

105022 @ 배 메는 디가 요러 개 이섯수과?(배 메는 데가 여러 개 있었습니까?)

105022 # 배덜 뎅기당 메곡, 요 아레 개창이라고.(배들 다니다가 매고, 요 아래 포구라고.)

105022 @ 개창 막 크지 않고?(포구 매우 크지 않고?)

105022 #1 ᄋᆞ, 개 크지 않다게.(그래, 개 크지 않다.)

105022 @ 바당에서 제주 바당에서는 배를 아예 테우나 뭐나 안 타봣수과?(바다에서 제주 바다에서는 배를 아예 떼배나 뭐나 안 타봤습니까?)

105022 #2 제주서?(제주서?)

105022 @ 이 월령에서 바당.(이 월령에서 바다.)

105022 #2 바당?(바다?)

105022 @ 예. 배 타는 거나 테우 타는 거나 한 번도 안 헤봣수과?(예. 배 타는 거나 떼배 타는 거나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105022 #2 아, 가왓저. 나도.(아, 갔었지. 나도.)

105022 @ 멧 살 때 어릴 때부터 바당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잇습니가? 배 타는 거 하고?(몇 살 때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 타는 거 하고?)

105022 #2 배 타는 거, 가민게 이디서 고기 낚으는 거 허고, 그 저 허레 준궤기 낚으레 가는 사람덜이 많주게. 그런 땐 흔디 강은에.(배 타는 거, 가면 여기서 고기

낚는 거 하고, 그 저 잔고기 낚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 땐 함께 가서.)

105022 @ 테우 누구 만드는 사람 이서낫수과?(떼배 누구 만드는 사람 있었습니까?)

105022 #2 어. 테, 월령 잇어낫어. 테 셔난.(어. 떼배, 월령 있었어. 떼배 있었어.)

105022 @ 아아, 월령 누가 만들언마씨? 경 잘 만드는 사람 잇어난?(아아, 월령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잘 만드는 사람 있었어?)

105022 #2 테, 그거 멘들곡, 아니 멘들곡 헐거 셔? 거시기만 시민.(떼배, 그거 만들고, 아니 만들고 할 거 있어? 거시기만 있으면.)

105022 @ 통나무 베어당?(통나무 베다가?)

105022 #2 베어당, 그거 저 테 멘들안 낭으로.(베다가, 그거 저 떼배 만들어서 나무로.)

105022 @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디, 여러사람이 합동헤야지예?(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합동해야지요?)

105022 #2 합동헤사 헤낫주게.(합동해야 했었지.)

105022 @ 여기도 테우 이섯다는 거지예?(여기도 떼배 있었다는 거지요?)

105022 #2 테 셔난.(떼 있었어.)

105022 @ 걸로 자리 걸이고.(걸로 자리 뜨고.)

105022 #2 자리 거리고, 자리 떠낫주.(자리 뜨고, 자리 떴었지.)

105022 @ 같이 안 가봣수과? 바당에 테우 헹 자리 거리레 같이 안 가봔?(같이 안 가봤습니까? 바다에 떼배 해서 자리 뜨러 같이 안 가봤어요?)

105022 @ 테우 하나 그거는 개인 거잖아예? 하나 이섯수과?(떼배 하나 그거는 개인 거잖아요? 하나 있었습니까?)

105022 #2 개인 거게.(개인 거.)

105022 @ 그 사람은 계속 자리 거렁 오믄.(그 사람은 계속 자리 떠서 오면.)

105022 #2 같이 안 가믄 풀기도?(같이 안 가면 팔기도?)

105022 @ 떼는 먼바다에 가는 것꽈?(떼배는 먼바다에 가는 겁니까?)

105022 #3 아, 테는 먼 바다 못 간다. 파도치믄 그거 다 뒈질라고?(아, 떼배는 먼바다 못 간다. 파도치면 그거 다 뒤지려고?)

105022 @ 이건 자리, 자리?(이건 자리돔, 자리돔?)

105022 #3 이 자리 거리레 이디 강 곳디. 요 곳바당만 강 온다.(이 자리돔 뜨러 여기 가서 가에. 요 갓바다만 가서 온다.)

105022 @ 게믄 보통 자리만 걸염수과? 이걸로?(그러면 보통 자리만 뜨고 있습니까? 이걸로?)

105022 #3 으, 테로 다 자리.(어, 떼배로 다 자리.)

105022 @ 멜은 아니고?(멸치는 아니고?)

105022 #3 멜은 아니. 자리만 거린다. 자리.(멸치는 아니. 자리돔만 뜬다. 자리

돔.)

105022 @ 자리만 궤기 낚을 수도 잇잖아예? 거기서?(자리돔만 고기 낚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105022 #3 ᄋᆞ게. 것사 낚을 수 잇주.(그래. 거야 낚을 수 있지.)

105022 #3 돗대는 엇다 이 테는.(돛대는 없다 이 떼배는.)

105023 @ 돗배, 돗배. 테 말고 돗배.(돛배, 돛배. 떼배 말고 돛배.)

105023 #3 돗배는 거 저 우리 초석 ᄃᆞᆯ앙 뎅기는디 그거라낫주. 그 배 그 배가.(돛배는 거 저 우리 돛 달아서 다니는데 그거였었지. 그 배 그 배가.)

6. 의생활

명주

106006 @ 뽕나무나 누에는 안 헤 봣고예?(뽕나무나 누에는 안 해 봤고요?)

106006 #1 들음은 헤낫저.(듣기는 했었지.)

무명

106008 @ 미녕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무명으로.(무명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무명으로.)

106008 #1 헤영 옛날덜은 옷도 헤영 입고, 옷 헤영 감도 들영덜 밧디 일 허고, 미녕은 헤낫저.(해서 옛날들은 옷도 해서 입고, 옷 해서 감도 들여서, 밭에 일 하고, 무명은 했었지.)

106008 @ 미녕으로 옷도 헤영 입고예? 검은 옷에 흰저고리 입엇수과? 무슨 옷을 많이 입엇수과?(무명으로 옷도 해서 입고요? 검은 옷에 흰저고리 입었습니까? 무슨 옷을 많이 입었습니까?)

106008 #1 그거 그자 우리 어릴 때 검은 치매에 흰 저고리도 입어나고, 그때에 ᄯᅡ랑은에 그자.(그거 거의 우리 어릴 때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도 입었었고, 그때에 따라서 거의.)

106008 @ 게난 고운 옷을 입을 수가 어시쿠다예?(그러니까 고운 옷을 입을 수가 없었겠네요?)

106008 #1 그자 그때에 ᄯᅡ랑은에 그자.(그저 그때에 따라서 그저.)

106008 @ 오일장은 한림오일장이 이섯수과?(오일장은 한림오일장이 있었습니까?)

106008 #1 응. 한림 싯저.(응. 한림 있지.)

106010 @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106010 #1 광목은 못 헌다. 기계이로나 허주이. 미녕은 헤낫저, 미녕.(광목은 못 한다. 기계로나 하지. 무명은 했지, 무명.)

106010 #4 광목은 즘질고 하바[89] 널르고 얼마나 좋으냐.(광목은 가늘고 '하바' 넓고 얼마나 좋니.)

106012 @ 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멘네, 멘네.(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화, 목화.)

106012 #1 멘네가 뭣고?(목화가 뭐니?)

106012 @ 목화, 멘네, 멘네.(목화, '멘네', '멘네'.)

106012 #1 아아, 멘네. 그런 것사 하영 헷지. 우리 어멍네 어린 때. ᄋᆞ게, 밧디 멘네 갈앙 멘네 타당 다 그거 이제 타근에 불랑, 이 씨 빼영 무레에 볼롸 겡 태와당 영 씨 빼영 멘들앙 걸로 미녕도 멩들고.(아아, 목화. 그런 거야 많이 했지. 우리 어머니네 어린 때. 그래, 밭에 목화 갈아서 목화 따다가 다 그거 이제 따서 발라서, 이 씨 빼서 물레에 발라서 그래서 타다가 이렇게 씨 빼서 만들어서 걸로 무명도 만들고.)

106012 @ 씨 빼는 것도 다 헤난마씨?(씨 뽑는 것도 다 했었어요?)

106012 #1 게. 어릴 때 우리 어멍넨 허는 거 ᄀᆞ치 다 헤낫저. 미녕 참도 헤나고이.(그래. 어릴 때 우리 어머니네는 하는 거 같이 다 했었지. 무명 짜기도 했었고.)

106012 @ 멩주다 목화, 멘네렌 헙니께? 미녕이여 멘네여 따 보고 헷수과?(명주다 목화, 면화라고 하지요? 무명이다 면화다 따 보고 했습니까?)

106012 #2 어머니 헷어.(어머니 했어.)

106012 @ 따 본 적은 잇수과?(따 본 적은 있습니까?)

106012 #2 목화 헤당 거 ᄆᆞᆯ령 불롸 영영 거세기 불르는 기계가 셔. 저 낭으로 멩든 거.(목화 해다가 거 말려서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거시기 바르는 기계가 있어. 저 나무로 만든 거.)

106012 @ 불르는 기계로?(바르는 기계로?)

106012 #2 불랑 기곗방에서 패와. 그 저 씨 빠게끔 맹들앙.(발라서 '기곗방'에서 펴서 와. 그 저 씨 뽑게끔 만들어서.)

106012 @ 어머니 헤난 거 봣수과? 헙디가?(어머니 했던 거 봤습니까? 합디까?)

106012 #2 ᄋᆞ, 거 헤당 집이 오랑 기계 멩글아 오랑, 이젠 집이서 이제 물레 헤당, 이제 그걸로 실 뽑앙, 그 뽑은 걸로 여러 개 헤영은에, 이젠 미녕 짠다 말이여, 미녕. 짜게시리 것도 허젠 허민.(어, 그거 해다가 집에 와서 기계 만들어 와서는, 이젠 집에서 이제 물레 해다가, 이제 그걸로 실 뽑아서, 그 뽑은 걸로 여러 개 해서는, 이젠 무명 짠다 말이야, 무명. 짜게끔 것도 하려고 하면.)

106012 @ 여자들끼리 모영 헙디가? 혼자만 헙디가?(여자들끼리 모여서 합디까? 혼자만 합디까?)

106012 #2 혼자.(혼자.)

106012 @ 집이서 어머니 허는 거 봣수과?(집에서 어머니 하는 거 봤습니까?)

106012 # ᄋᆞ.(어.)

89) '하바'는 일본어 'はば'로 넓이, 폭이라는 의미다.

106012 @ 멧 시간 동안 앉앙 그거 헷지예?(몇 시간 동안 앉아서 그거 했지요?)

106012 #2 멧 시간 여러 시간 멘들젠 ᄒᆞ민.(몇 시간 여러 시간 만들려고 하면.)

106012 @ 하루 밥 먹고 왕은 또 그거 계속허고?(하루 밥 먹고 와서는 또 그거 계속하고?)

106012 #2 그거 허고. 줄창헤서.(그거 하고. 계속했어.)

106012 @ 어머니가 잡아보라 도와준 적은 잇수과? 어머니가 뭐 잡아보라?(어머니가 잡아봐라 도와준 적은 있습니까? 어머니가 뭐 잡아봐라?)

106012 #2 씨 멩글 때 그거 메영 도와주렌 영 헷주.(씨 만들 때 그거 매어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했지.)

106012 @ 모시 여름에 입는 삼베 싱경 헤 본 적은 엇고마씨? 목화는 따레도 가보고?(모시 여름에 입는 삼베 심어서 해 본 적은 없고요? 목화는 따러도 가보고?)

106012 #2 ᄋᆞ, 따레 가주.(어, 따러 가지.)

106012 @ 가을에 거둬들이고 바구니에 땁니까?(가을에 거둬들이고 바구니에 땁니까?)

106012 #2 따는 거? 그 저 바굼지 ᄋᆞ정강 벨라진 거 헤양허게 나오주게. 그거 강 땅 오랑.(따는 거? 그 저 바구니 가져가서 벌어진 거 하얗게 나오지. 그거 가서 따서 와서는.)

106012 @ 씨 뻬영?(씨 뽑아서?)

106012 #2 응. 씨 뻬는 또 오랑 허젠 허민 씨 빼젠 허믄 기계가 이서.(응. 씨 뽑는 또 와서 하려고 하면 씨 빼려고 하면 기계가 있어.)

106012 @ 씨 뻬는 기계가 이신디 삼촌이?(씨 빼는 기계가 있는데 삼촌이?)

106012 #2 낭으로 멘든 기곈디.(나무로 만든 기곈데.)

106012 @ 이름이 뭔지 몰라마씨?(이름이 뭔지 몰라요?)

106012 #2 것고라 뭐셍 ᄒᆞᆫ다만은, 그거 잊어불언. 그걸로 씨 빵은에.(것보고 뭐라고 한다만, 그거 잊어버렸어. 그걸로 씨 빼서는.)

106012 @ 그때도 도와낫수과? 씨 빨 때?(그때도 도왔었습니까? 씨 뺄 때?)

106012 #2 씨 빨 때 씨도 빼주고 헷주기.(씨 뺄 때 씨도 빼주고 했지.)

106012 @ 응. 여기는 멘네는 많이 싱것수과?(응. 여기는 면화는 많이 심었습니까?)

106012 #2 응. 하영 싱건.(응. 많이 심었어.)

106012 @ 사람마다 다 허고 할망덜이믄 다 집이서 지녁만씩?(사람마다 다 하고 할머니들이면 다 집에서 저만큼?)

106012 #2 이녁 집이서 거세기 미녕도 멩글앙.(이녁 집에서 거시기 무명도 만들어서.)

106012 #4 ᄃᆞ레기 고장 핀다. 오래 해가민 벨라졍 멘네 불라. 씨 빼어뒁 태와당, 씰로 빼영 물레로 돌리멍 베틀에 실 빼영 불라놩, 그걸로 먹고 그 어려도 스물 안에부터 차낫저게. 붉아사 이착으로 드리쳥 우리 어멍넨 허는 거. 이젠 기계집[90]이

다 시난 불르는 거 태와당 요거보다 물앙 옷 멘들젠 ᄒᆞ민 태우는 것도 그거 불린 거 짖어지게 북삭하게 가레기 찔르고 허영 우리도 헤낫저. 옷 멩글젠ᄒᆞ민 베클에 창 헤양헌 건디 물도 들이고 감도 들영 헤당 검은 물도 들이고 감은 바작헌 게 무사 아니라. 고운 거 입지젠 ᄒᆞ민 멩질 때 풀주만은 어느 정도 집이서 풀주게.(다래 꽃 핀다. 오래 해가면 벌어져서 면화 발라. 씨 빼어두고 타다가, 실로 빼어서 물레로 돌리면서 베틀에 실 뽑아서 발라놔서, 그걸로 먹고 그 어려도 스물 안에부터 짰었지. 밝아야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어머니넨 하는 거. 이젠 '기곗집'이 다 있으니까 바르는 거 타다가 요거보다 말라 옷 만들려고 하면 타는 것도 그거 바른 거 찢어지게 북삭하게 가락 찌르고 해서 우리도 했었지. 옷 만들려고 하면 베틀에 짜서 하얀 건데 물도 들이고 감도 들여서 해다가 검은 물도 들이고, 감은 뻣뻣한 게 왜 아니야. 고운 거 입히려고 하면 명절 때 팔지만 어느 정도 집에서 팔지.)

106012 #4 옛날이 미녕ᄒᆞ젠 허믄 느네 그거 돌앙 뎅겸댜? 마당에 ᄀᆞ시락 불 보리 장만헤난 고시락이 잇나. ᄀᆞ시락 발롸 영 헤영 이 저 요 깓 거만이 불 솔롸 풀헤영 이제 영헌 조그만헌 비치락이 싯다. 쉐비치락 멘든 거 영 쉐영 이거 쉐영 영 갔다 ᄀᆞ시락 풀에 물릴 거 아니가 풀멕영 물려사 이제 그 미녕을 짤 거라 뚜로 그거 짜고 그거 풀 헤영 놩 미녕 짤 때 어떵 허연 허젠 멘주기옌 헌 거 싯나. 멘주기옌 헌 거 꼬리, 꼬리 미녕 영 영 뒈씨멍 영 실 나멍 딱 감앙 감앙 이제 말째 그걸 이젠 그걸 다 해다 놩 픗짝 ᄒᆞ게시리 물령 ᄆᆞ른 건 이제 베클헤영 앉아 이디 이디 미녕 차는 거.(옛날에 무명하려고 하면 너희 그거 달아서 다니니? 마당에 까끄라기 불 보리 장만했던 까끄라기 있어. 까끄라기 발라서 이렇게 해서 이 저 요 깐 거만큼 불 살라서 풀해서 이제 이런 조그마한 빗자루가 있다. '쇠빗자루' 만든 거 이렇게 쥐어서 이거 쥐어서 이렇게 갔다 까끄라기 풀에 말릴 거 아니가? 풀 먹여서 말려야 이제 그 무명을 짤 거라. 따로 그거 짜고 그거 풀 해서 놔서 무명 짤 때 어떻게 해서 하려고 토리라고 한 거 있나. 토리라고 한 거, 꼬리, 꼬리 무명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실 나오면서 딱 감아서 감아서 이제 말째 그걸 이젠 그걸 다 해다 놔서 바싹 하게끔 말려서 마른 건 이제 베틀해서 앉아서 여기 여기 무명 짜는 거.)

106012 @ 예 베클?(예. 베틀?)

106012 #4 혼착은이 초신, 혼착은 고무신, 영 영 밀리멍 경허믄 베클에 앉앙 찰칵찰칵. 게믄 그 꼬리가 끊어지주기. 실 끊어지민 미녕 차는 것에 그거 잇엉 이제 그 미녕을 창 이제 ᄀᆞ트민 열 자주만은 그땐 열 자가 넘어 혼 필이 열다섯 자 될 거여. 혼 필이 미녕이 거 짜다근 옛날에 옷 허영 풀지도 안허고 풀 것이 어디시냐. 아기덜 옷 어성 놈의 나가 이 옷을 입으민 고망터젼 문딱 험벅 허영 주언 또 터지믄 뚜로 문딱 헝겊 헤영 주언 경헤영 하곡 어멍 어떵 헹 아느니? 우린 바당에 물질 배우젠 허난 나 열 아홉에 물질 감 시작헷저. 육지, 육지 해천 영업가난 모집헹 간 옷이 어디 시니 입엉 갈 옷이 시냐? 옷이 어선 놈 네빈 요만이 헌 거 미녕옷 물들

90) 여기에서 '기계집'은 솜 타는 집을 가리킨다.

인 거 치마 주더라고. 그거 입엉 가렌 허곡. 뚜로 이제 적삼이옌 헌 건 봉강 가젠 허난 지 입당 거, 어따 그거 입엉 가곡, 신이 어디 시니. 신이 운동화가 시냐 뭣이 시니 고무신 놈 신당 혼 번 신어낭 거 이거 신어 가렌 허연 말 안허민 못헌다. 나 잘도 잘도 고생헌 사람이여. 경ᄒᆞ난 그거 허영은에 신엉 가난 육진 저 일로 들어가 가믄 저 전라도 가믄 저 오얀도옌 헌디 싯저. 물 한가운데 바당 한가운데 저 아낙 쪽에 글로 자믄 일로 쭉 경북 ****로 헨 정적포, 울산 믄 강 헤여도 돈은 잘 안 부트드라고. 안 뒈젠 ᄒᆞ난 자꾸 아파 이 몸이 자꾸 제우러졍 아파. 아프믄 이젠 이제 ᄀᆞ치 돌아간 해녀덜이 아이구 이제랑 제주 가라 제주 가라 허난 그때 돈으로 우리 제주 오젠 허믄 오만 원. 오만 원이믄 이디 오당은에 남아 그 돈이 남앙 오난 게난 사천오백 원을 주더라고이. 제주도 차비헹 가렌 사천오백 원을 주난 오난 어멍은 어머님 허난 아이고 큰일낫저. 나 뚤아 아팡 어떵 허코. 허난 나 곧지 안 헤냐. 아팡 어떵 허코, 어떵 허코 허난 저 산방산 절에 어멍 잘 믿으난 그 절에 간 놔 두난 나 간 뚤 이디서 수양 어멍 키와줍센 놔두난 난 행방불명 어디 간 줄 모르고 스님은 나 춧으레 막 뎅겻거든. 난 머리 어질어질어질 막 허고 게난 좋은 기술 페우지 못해연. 요 나 조케야 경 아파져난 거 겨난 이제도 아프긴 아픈다. 아파도이 그전이 만인 못허곡 막 나가이 소리가 좋더라게. 나 소리가 헤가민 나 점허레 나신디 오믄 이 씨어멍은 솟두껑 벌러진 거 하나 줬구나, 항아리 벌러진 거 또 반착 줬구나.

(중략)

(한 짝은 짚신, 한 짝은 고무신, 이렇게 이렇게 밀리면서 그러면 베틀에 앉아서 찰칵찰칵 그러면 그 꼬리가 끊어지지. 실 끊어지면 무명 짜는 것에 그거 이어서 이제 그 무명을 짜서 이제 같으면 열 자지만은 그땐 열 자가 넘어. 한 필이 열다섯 자 될 거야. 한 필이 무명이 그거 짜다가 옛날에 옷 해서 팔지도 않고 팔 것이 어디 있냐? 아기들 옷 없어서 남의 내가 이 옷을 입으면 구멍 터져서 모두 헝겊해서 기워서 또 터지면 따로 모두 헝겊해서 기워서 그렇게 해서 하고 어머니 어떻게 해서 아니? 우린 바다에 물질 배우려고 하니까 나 열 아홉에 물질 가기 시작했지. 육지, 육지 해천 영업가니까 모집해서 갔어. 옷이 어디 있니? 입어서 갈 옷이 있냐? 옷이 없어서 남 내버린 요만이 한 거, 무명옷 물들인 거 치마주더라고. 그거 입어서 가라고 하고 따로 이제 적삼이라고 한 건 기워서 가려고 하니까 자기 입다가 그거 아, 그거 입어서 가고, 신이 어딨니? 신이 운동화가 있냐? 뭣이 있니? 고무신 남 신다가 한 번 신었던 거 이거 신어서 가라고 해서 말 안 하면 못한다. 나 잘도 잘도 고생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해서 신어서 가니까 육진 저 일로 들어가 가면 저 전라도 가면 저 오얀도(?)라고 한데 있지. 물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저 아래쪽에 거기로 가면 일로 쭉 경북 *** 해서 '정적포', '울산' 모두 가서 해도 돈은 잘 안 붙더라고. 안 되려고 하니까 자꾸 아파. 이 몸이 자꾸 기울어져 아파. 아프면 이젠 이제 같이 데리고 간 해녀들이 아이고, 이제는 제주 가라, 제주 가라 하니까 그때 돈으로 우리 제주 오려면 오만 원. 오만 원이면 여기 오다가 남아. 그 돈이 남아서 오니까 그러니까 사천오백 원을 주더라고. 제주도 차비해서 가라고 사천오백

원을 주니까 오니까 어머니는 어머님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내 딸아 아파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나 말하지 안했니? 아파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저 산방산 절에 어머니 잘 믿으니까 그 절에 간 놔두니까 나가서 딸 여기서 수양어머니 키워 달라고 놔두니까 난 행방불명 어디 간 줄 모르고 스님은 나 찾으러 막 다녔거든. 난 머리 어질어질어질 막 하고 그러니까 좋은 기술 펴지 못했어. 요 내 조카야 그렇게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도 아프긴 아프다. 아파도 그전에 만큼 못하고 막 내가 소리가 좋더라고. 내 소리 해가면 나 점하러 나한테 오면 시어머니는 솥뚜껑 깨진 거 하나 줬구나. 항아리 깨진 거 또 반쪽 줬구나.

(중략)

삼

106017 @ 베옷은 또 어떵?(베옷은 또 어떻게?)

106017 #1 베옷은 베로 멩근 옷이 베옷이주기.(베옷은 베로 만든 옷이 베옷이지.)

106017 @ 그것도 싱거나싱가예?(그것도 심었었나요?)

106017 #1 베옷 싱그는디 모른다. 뭣사 어떵헹 나오는 것산지.(베옷 심는지 모른다. 뭐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106018 @ 삼 재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 재배하는 거 그런 거?(삼 재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 재배하는 거 그런 거?)

106018 #1 것도 모른다. 삼 재배 허는 거.(것도 모른다. 삼 재배 하는 거.)

도구

106019 #1 씨아 뭣고? 건 모르켜.(씨아 뭐니? 그건 모르겠다.)

106020 @ 물레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레 베클?(물레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레, 베틀?)

106020 #1 그런 거 다 봐낫저.(그런 거 다 봤었지.)

106020 @ 봐난마씨?(봤었어요?)

106020 #1 물렌 이제 영 볼르는 거고, 물레허고 싸곡이 씰 뻬곡 허는 것이 물레고.(물렌 이제 이렇게 바르는 거고, 물레하고 켜고, 씰 뽑고, 하는 것이 물레고.)

106021 #1 베클은 짜는 거고이?(배틀은 짜는 거고?)

106021 @ 짜는 거예?(짜는 거요?)

106021 #1 응, 짜는 거. 영 비 들이청은에 비 들이청 이레 갓닥 헤영 드리치곡 저레 헹 영 들리곡.(응, 짜는 거. 이렇게 비 들이쳐서 비 들이쳐서 이리로 갔다 해서 들이치고 저리로 해서 이렇게 들리고.)

106021 @ 헤보기도 헨마씨?(해보기도 했어요?)

106021 #1 헤낫저. 그 어릴 때라도.(했었지. 그 어릴 때라도.)

바느질

106022 @ 바느질은 당연히 헤낫고예? 바농쌈지?(바느질은 당연히 했었고요? 바늘쌈지?)

106022 #1 건 뭣고 바농쌈진? 아, 바농쌈지. 으, 거 바농 놓는 거ᄀᆞ라 바농쌈지 잘도 잘도 적엉 뎅겸저.(건 뭐니? 바늘쌈진? 아, 바늘쌈지. 어, 거 바늘 놓는 거보고 바늘쌈지 잘도 잘도 적어서 다니고 있네.)

106022 @ 여기 베라벨 거 다 잇수다. 지금 이거 봅서.(여기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106022 #1 아이고, 어멍아 벨 거 다 적엉 뎅겸저.(아이고 어머니야, 별 거 다 적어서 다니고 있네.)

106022 @ 바농질 바농쌈지렌 헙니까? 바농 허는 거 바농질.(바느질 바늘쌈지라고 합니까? 바늘 하는 거 바느질.)

106022 #4 바농쌍지. 옛날 어디 차롱이 시냐. 요만헌 그릇에 헤영은에 바농허영 꿰영 이젠 저런 하꼬에 허영 헴주만은, 엇엉 바농쌍지엔 헌다. 것ᄀᆞ라 거 바늘 찔렁 영허영 뚜로 손도메도 찌는 사람 싯다. 이 손 찔르지 못허게 육지 사람덜은 손도메 헤영 찌지 안허나. 육지 손도메헤영 손 찔르지 못허게 손 못찔르게시리 도메헤영 찔렁 우리덜은 그것이 아니라 그거 경헤영허곡 육지 강 보믄 막 수놓는 사람도 싯고이. 시집덜 가젠 그저 방석에 믄 카텐에 우린 그런 거 헐 줄 모른다. 경헤영덜 허곡, 가믄덜 옷덜 헤영 입엉 이 한복덜 인두해서 난 어려부난 그때 몰라낫저.(반짇고리. 옛날 어디 채롱이 있냐. 요만한 그릇에 해서 바늘해서 꿰어서 이젠 저런 상자에 해서 하고 있지만, 없어서 반짇고리라고 한다. 것보고 거 바늘 찔러서 이렇게 해서 따로 골무도 끼는 사람 있다. 이 손 지르지 못하게 육지 사람들은 골무 해서 끼지 않니? 육지 골무해서 손 찌르지 못하게 손 못 찌르게끔 골무해서 찔러서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거 그렇게 해서 하고 육지 가서 보면 막 수놓는 사람도 있고. 시집들 가려고 그저 방석에 몽땅 커튼에 우린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그렇게 해서들 하고, 가면들 옷들 해서 입어서 이 한복들 인두해서 난 어려버리니까 그때 몰랐었지.)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은 어떵 만들어마씨?(남자 옷은 어떻게 만들어요?)

106024 #1 즘뱅인이 남자옷인디, 쫄른 거 쫄른 거ᄀᆞ라. 즘뱅인(잠방인 남자 옷인데, 짧은 거 짧은 것보고 잠방이는.)

106025 @ 여자 옷은?(여자 옷은?)

106025 #1 말제 몸뻬 나오고이, 일본 그런 거여게.(말째 몸뻬 나오고, 일본 그런 거야.)

재단과 염색

106031 @ 염색은 갈옷?(염색은 갈옷?)
106031 #1 풀도 안ᄒᆞ곡 보지락허니까.(풀도 안하고 뻣뻣하니까.)
106031 @ 일 헐 때 주로 입었지예?(일 할 때 주로 입었지요?)
106031 #1 일 헐 때 똠도 보그락허게 좋아이.(일 할 때 땀도 뻣뻣해서 좋아.)
106031 @ 잠뱅이 바지영 뭐여. 그걸로 감물도 들이고.(잠방이 바지랑 뭐야. 그걸로 감물도 들이고.)
106031 #2 감물도 들이고 뭐허곡 헷주기. 입엇주기.(감물도 들이고 뭐하고 했지. 입었지.)
106031 @ 어머니가 다 만들엉?(어머니가 다 만들어서?)
106031 #2 응.(응.)
106031 @ 미싱질 같이 바느질로 바농.(재봉틀질 같이 바느질로 바늘.)
106031 #2 아, 만들기는 다른 디 강 만들주만은.(아, 만들기는 다른 데가 만들지만.)
106031 @ 감물 들이는 건 어머니가 허고?(감물 들이는 건 어머니가 하고?)
106031 #2 감 같은 것도 들이고.(감 같은 것도 들이고.)
106031 @ 여기 싱그고 경 허진 안허고?(여기 심고 그렇게 하진 안하고?)
106031 #2 것도 산간에 강 감 사당.(그것도 산간에 가서 감 사다가.)
106031 @ 사당 물들이는 건 봐낫수과?(사다가 물들이는 건 봤었습니까?)
106031 #2 응, 아니. 감 들이는 건 봣주.(응, 아니. 감 들이는 건 봤지.)
106031 @ 감 들이는 거예? 그믄 물레나 베틀 다 봣다는 거지예? 베틀로 짜는 거 바느질 바농쌈지 있어서 어머니 허고 옷 주워주고 바지 만들엉 입고?(감 들이는 거요? 그러면 물레나 베틀 다 봤다는 거지요? 베틀로 짜는 거 바느질 반짇고리 있어서 어머니 하고 옷 기워주고 바지 만들어서 입고?)
106031 @ 무슨 색깔 옷을 입엇수과?(무슨 색깔 옷을 입었습니까?)
106031 #2 아무 색깔이나 입주게.(아무 색깔이나 입지.)
106031 #2 응.(응.)

신발

106032 @ 찝신은 아버지도 만들고?(짚신은 아버지도 만들고?)
106032 #2 찍신 거 뭐.(짚신 거 뭐.)
106032 @ 아버지안티 배운 거꽈?(아버지한테 배운 겁니까?)
106032 #2 어.(어.)
106032 #3 신에 대해서 옛날 신은 초신이주게. 찍신이렌 헌다.(신에 대해서 옛날 신은 짚신이지. 짚신이라고 한다.)
106033 @ 초신을 찍신이렌 허고, 신발 가죽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초신'을 짚신이라고 하고, 신발 가죽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3 #3 가죽신 가죽신은게 이디서 멘드느냐게. 공장에서 멘드는 거난.(가죽신 가죽신은 여기서 만드느냐.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106033 @ 응. 여긴 갖바치가 엇어수과?(응. 여긴 갖바치가 없었습니까?)

106033 #3 응. 공장에서 가죽 멘들앙 소가죽으로 헹은에, 그걸로 신 멘드는 거 아니가게.(응. 공장에서 가죽 만들어서 소가죽으로 해서, 그걸로 신 만드는 거 아니가.)

106033 @ 거믄 예를 들면 소 잡았을 때, 그 가죽을 어디 폴앗수과?(그러면 예를 들면 소 잡았을 때, 그 가죽을 어디 팔았습니까?)

106033 #3 그걸로 헹은에 가죽으로 헹 폴고.(그걸로 해서 가죽으로 해서 팔고.)

106033 @ 거 사가는 사람이 이섯수과?(그거 사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106033 #3 응. 많이 이섯지.(어. 많이 있었지.)

106033 @ 어디 오일장에 아니면 월령엔 엇엇수과?(어디 오일장에 아니면 월령엔 없었습니까?)

106033 #3 응. 월령엔 엇어.(응. 월령엔 없어.)

106033 @ 월령엔 엇고예?(월령엔 없고요?)

106033 #3 거 많이덜 폴앙 그것덜 헤영 게용덜 많이 썼지.(거 많이들 팔아서 그것들 해서 가용들 많이 썼지.)

106033 @ 쉐 잡았을 때 그 쉐가죽을 오일장에 강 팝니까? 쉐가죽?(소 잡았을 때 그 소가죽을 오일장에 가서 팝니까? 소가죽?)

106033 #3 뭐 개인안티 폴앗지. 오일장에 강 폴지 안헤실 건디. 오일장에 누게가 사 갈 사람이 셔?(뭐 개인한테 팔았지. 오일장에 가서 팔지 않았을 건데. 오일장에 누구가 사 갈 사람이 있어?)

106033 @ 아, 그믄 개인안티 그거 폴젠 허민 물려?(아, 그러면 개인한테 그거 팔려고 하면 말려?)

106033 #3 그거 헤영 북도 멩드는 사람은 북 멩글고, 장구 멩글고 다 허는 거 아니가?(그거 해서 북도 만드는 사람은 북 만들고, 장구 만들고 다 하는 거 아니가?

106033 @ 아, 삼촌은 그런 거 안 멩글어 봣지예?(아, 삼촌은 그런 거 안 만들어 봤지요?)

106033 #3 응, 아니 헤봣저.(어, 아니 해봤지.)

106033 @ 요기 탁현 씨가 북 멩글드라예?(요기 탁현 씨가 북 만들더라고요?)

106033 #3 응 멘든다.(어, 만든다.)

106034 @ 나막신?(나막신?)

106034 #1 나막신도 신어낫저. 우리 아버지 맹들아주난, 나무 판 거 발 곱고.(나막신도 신었었지. 우리 아버지 만들어주니까, 나무 판 거 발 곱고.)

106034 @ 신어집디가?(신었습니까?)

106034 #1 어려워도 그거게 우리 아버지가 멘들아주난, 파 주난 나막신 신어낫저.(어려워도 그거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주니까, 파 주니까 나막신 신었었지.)

106034 @ 언제 신언마씨?(언제 신었어요?)
106034 #1 몰라. 막 어릴 때도 신어낫어.(몰라. 매우 어릴 때도 신었었어.)
106034 @ 비올 때 벗어지지 안핸마씨?(비올 때 벗겨지지 않았어요?)
106034 #1 괴양게, 경 자게 뎅기느냐게?(고이, 그렇게 재우 다니느냐?)
106034 @ 지금은 그런 거 엇고?(지금은 그런 거 없고?)
106034 #1 엇어.(없어.)
106034 @ 나막신은?(나막신은?)
106034 #2 아. 나막신 그것도 보긴 헷어.(아. 나막신 그것도 보긴 했어.)
106034 @ 신어나지도 않고 비 올 때?(신어나지도 않고 비 올 때?)
106034 #2 신어나지도 않고. 이디 헐 때 아버지네 신는 건 봣주?(신어나지도 않고. 여기 할 때 아버지네 신는 건 봤지?)
106034 @ 아버지가 신는 건 봣고예? 누가 만든 건 모르고?(아버지가 신는 건 봤고요? 누가 만든 건 모르고?)
106034 #2 모르고. 것도 사당.(모르고. 그것도 사다가.)
106034 #2 동네에서 만든 사람이 잇엇일 거 같아?(동네에서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 같아?)
106034 @ 몰라.(몰라.)
106034 @ 게민, 나막신?(그러면, 나막신?)
106034 #3 나막신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막신을 팟는디이, 나막신은 어떵 혜영 신엉 그때 뎅겨사 허믄 나막신은 신엉 뎅기기가 불편헌다. 쯔꼼만 잘못헷다허민 구멍 나분다. 피들락 헷다 허믄 이건 뭐 백발백중이라. 겐 그 나막신 그자 우리 할아버지가 늘 파당 손지 놈 신으렌 허난 이거 안 신으쿠덴, 이거 신엉 어디 일을 못허거든. 겐 초신, 찍신 확허게 삼아ᄋᆞ젼 그거 신엉 나가지.(나막신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막신을 팠는데, 나막신은 어떻게 해서 신어서 그때 다녔는가 하면 나막신은 신어서 다니기가 불편하다. 조금만 잘못했다하면 구멍 나버린다. '피들락' 했다 하면 이건 뭐 백발백중이야. 그래서 그 나막신 그저 우리 할아버지가 늘 파다가 손자 놈 신으라고 하니까 이거 안 신겠습니다고, 이거 신어서 어디 일을 못하거든. 그래서 짚신, 짚신 확하게 삼아가지고 그거 신어서 나가지.)
106034 @ 아, 할아버지가 그걸 잘 만들엇구나예?(아, 할아버지가 그걸 잘 만들었군요?)
106034 #3 응, 나막신.(응, 나막신.)
106034 @ 만들 때 어떵헙디가? 칼로 파?(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칼로 파?)
106034 #3 파는 거.(파는 거.)
106034 @ 뭘로 팝데가?(뭐로 팝니까?)
106034 #3 낭.(나무.)
106034 @ 무신 낭, 소낭, 쑥대낭?(무슨 나무, 소나무, 삼나무?)
106034 #3 저 뽕낭일 거여, 뽕낭. 거법게 뽕낭이 거법주기.(저 뽕나무일 거야,

뽕나무. 가볍게 뽕나무가 가볍지.)

106034 @ 뽕낭일 거여. 거머?(뽕나무일 거야. 거매?)

106034 #3 검어, 검어. 와.(검어. 검어. 와.)

106034 @ 무거와? 거머? 가벼와?(무거워? 검어? 가벼워?)

106034 #3 응, 가벼와.(응, 가벼워.)

106034 @ 아아 뽕낭이 가볍구나예?(아아 뽕나무가 가볍군요?)

106034 #3 응.(응.)

106034 @ 그 뽕낭을 헤당 그걸 뭘로 팝니까?(그 뽕나무를 해다가 그걸 뭐로 팝니까?)

106034 #3 뭐 파는 거 셔라. 그 쒜 오그라졍 삭삭 긁어가믄 속속 파져라.(뭐 파는 거 있더라. 그 쇠 오그라져서 삭삭 긁어가면서 속속 파져라.)

106034 @ 아아, 잘 만들엉 오일장에도 팔고.(아아, 잘 만들어서 오일장에도 팔고.)

106034 #3 ᄋᆞ, 그거 풀레 한 베에 비싸. 나막신 상당히 힘들어, 거 파젠 허민.(어, 그거 팔러 한 컬레에 비싸. 나막신 상당히 힘들어, 그거 파려고 하면.)

106034 @ 그런 건 남은 거 엇수과? 보물인디 그런 것도.(그런 건 남은 거 없습니까? 보물인데 그런 것도.)

106034 # 에에, 엇다. 옛날 다 헹 데껴부난 거 뭐 셔게.(에에, 없다. 옛날 다 해서 던져버리니까 거 뭐 있어.)

106034 @ 게믄 성할아르바지가 만들엇다는거지예?(그러면 친할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거지요?)

106034 #3 외할아르방. 막 멋지게 멘들앙.(외할아버지. 매우 멋지게 만들어서.)

106034 @ 외하르바지 멧 살때ᄁᆞ지 살앗수과? 삼촌.(외할아버지 몇 살 때까지 살았습니까? 삼촌.)

106034 #3 이거 외하르바지 짓인 집인디, 외하르바지 나 욕은 후제사 돌아가서 오래오래 살안. 한 구십 대여섯 난 돌아갓어.(이거 외할아버지 지은 집인데, 외할아버지 나 철든 후에야 돌아가서 오래오래 살았어. 한 구십 대여섯 되니까 돌아가셨어.)

106034 @ ᄌᆞ끗디 살앗수과?(곁에 살았습니까?)

106034 #3 금능.(금능.)

106034 @ 아이고, 외할아버지 금능에 사셧고나게. 어머니가 금능이니까 그렇구나.(아이고, 외할아버지 금능에 사셨구나. 어머니가 금능이니까 그렇구나.)

106035 @ 신은 무슨 신 신엇수과? 찍신?(신은 무슨 신 신었습니까? 짚신?)

106035 #1 아버지 삼아 주난 찍신도 신어낫저. 이제 어렵다게, 찍신.(아버지 삼아 주니까 짚신도 신었었지. 이제 어렵다, 짚신.)

106035 @ 찍신은 여러 종류가 싯지예?(짚신은 여러 종류가 잇지요?)

106035 #1 찍신은 조리라고 끈 ᄃᆞᆯ아진 것도 싯고 두 가지 알아진다.(짚신은 '조

리'라고 끈 달린 것도 있고 두 가지 알아진다.)

106035 #1 찍신은 조리라고.(짚신은 '조리'라고.)

106035 @ 조리?(조리?)

106035 #1 조린 영 끈 돌아진 거여, 끈 돌아진 거.(조린 이렇게 끈 달린 거야, 끈 달린 거.)

106035 @ 찍신은 산듸찍으로 헙니까? 뭘로?(짚신은 밭볏짚으로 합니까? 뭐로?)

106035 #1 찍신, 나룩찍이 좋아.(짚신, 볏짚이 좋아.)

106035 @ 짚신?(짚신?)

106035 #3 짚신게.(짚신.)

106035 @ 해봣수과?(해봤습니까?)

106035 #3 으게, 해봣주게.(응, 해봤지.)

106035 @ 게민 줏줏이 골아봅서.(그러면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106035 #3 그거 이제 그거 헹 놀[91]을 꼰다. 놀, 놀이렌 헌거 신놀.(그거 이제 그거 해서 날 꼰다. 날, 날이라고 하는 거 신날.)

106035 @ 놀 베어다가 아니믄?(날 베어다가 아니면?)

106035 #3 건 어욱 빠당 헌다, 어욱 빵.(그건 억새 뽑아다가 한다, 억새 뽑아서.)

106035 @ 짚신을 어욱으로 헙니까? 나룩이 아니고?(짚신을 억새로 합니까? 벼가 아니고?)

106035 #3 아니, 놀, 놀, 그 신줄 이기가 저 거시기로 허여. 그 저 어욱 빠당 어욱 무사 헤얗게 피지 안허느냐? 그거 저 피기 전에 그거 강 빠당 놧당 그거허믄 놀 꼬주기. 경헤야 오래 가곡 질기곡 막 질긴다.(아니, 날, 날, 그 신줄 여기가 저 거시기로 해. 그 저 억새 뽑아다가 억새 왜 하얗게 피지 않니? 그거 저 피기 전에 그거 가서 뽑아다가 놨다가 그거하면 날 꼬지. 그래야 오래 가고 질기고 매우 질긴다.)

106035 @ 질기고예? 게민 어욱을 꽃피기 전에 그 꽃을 뭐렌 헙니까? 어욱꽃을.(질기고요? 그러면 억새를 꽃피기 전에 그 꽃을 뭐라고 합니까? 억새꽃을.)

106035 #3 메, 노인덜이 얘기덜 허지 안 허느냐 저?(에라, 노인들이 얘기들 하지 안 하느냐 저?)

106035 @ 옛날 말로.(옛날 말로.)

106035 #3 어욱꽃 어욱꽃 뭐.(억새꽃, 억새꽃 뭐.)

106035 @ 어욱고장?(억새꽃?)

106035 #3 응, 경 ᄒᆞ난.(응, 그렇게 하니까.)

106035 @ 게믄 나룩찍이나 산디찍으로 짚신을 안 삼앙?(그러면 볏짚이나 밭볏짚으로 짚신을 안 삼아서?)

106035 #3 아, 그걸로 삼나게, 그거 놀 놀.(아, 그걸로 삼나, 그거 날, 날.)

106035 @ 놀 놀은 어욱 빠당, 그 놀을 어떻게 만듭니까?(날, 날은 억새 뽑아다

91)'놀'은 짚신을 만들 때에 짚신의 바닥에다 신의 근간을 이루도록 길게 놓는 굵은 줄을 말한다.

가, 그 날을 어떻게 만듭니까?)

106035 #3 꼬앙게. 영영 무사 꼽지 않느냐, 꼬믄이?(꼬아서. 이렇게 이렇게 왜 꼬지 않니, 꼬면?)

106035 @ 손으로 꼬앙?(손으로 꼬아서?)

106035 #3 으, 손으로 꼬믄 요만이 헹은에 그자 새끼줄 딱 헌다. 꼬아 노믄 그거 헤여근에 찍은 벨도로 헹 담앙, 두두렁 왕, 그 놀 네 군데 놔 놩, 그기 이제 줄 아가주기 신을.(어, 손으로 꼬면 이만큼 해서 그저 새끼줄 딱 한다. 꼬아 놓으면 그거 해서 짚은 별도로 해서 담아서, 두드려서 와서는, 그 날 네 군데 놔. 놔서, 거기 이제 결어가지. 신을.)

106035 @ 그믄 어욱으로 네 군대 줄을 영?(그러면 억새로 네 군대 줄을 이렇게?)

106035 #3 건, 줄, 줄.(그건, 줄, 줄.)

106035 @ 줄을 무껑 어디다 묶어마씨?(줄을 묶어서 어디다 묶어요?)

106035 #3 어. 그 신을 맞춰게 발맞촹.(어. 그 신을 맞춰서 발맞춰서.)

106035 @ 경헨 그 찍은 무슨 찍게?(그렇게 해서 그 짚은 무슨 짚?)

106035 #3 저 산디찍이여, 무신 나룩찍이여 허지 않허느냐? 그거.(저 밭볏짚이다, 무슨 볏짚이다 하지 않니? 그거.)

106035 @ 사당 아니믄 밧디 거를?(사다가 아니면 밭에 그거를?)

106035 #3 사당 헷저. 이제 월령더레 나룩이 경 잘 뒈지 안헌다. 두모 신창더레 강은에 강 사당 ᄉᆞ뭇 가믄 막 준다.(사다가 했지. 이제 월령으로 벼가 그렇게 잘 되지 안한다. 두모, 신창으로 가서 사다가 사뭇 가면 막 준다.)

106035 @ 얼마 정도 허고 얼마만큼 헹 신 하나가 나옵니까? 나룩 어느 만큼 헤야?(얼마 정도 하고 얼마만큼 해서 신 하나가 나옵니까? 벼 어느 만큼 해야?)

106035 #3 흔 뭇 있지 않으냐, 무세미, 한 무께미. 그거 저 신 두 베 솜아진다.(한 뭇 있지 않니?, 매끼, 한 묶음. 그거 저 신 두 켤레 삼아진다.)

106035 @ 흔 무꾸미 허민 신 두 베예?(한 무끔 하면 신 두 배인가요?)

106035 #3 흔 베가 두 개주기. 두 베 솜아저. 응.(한 켤레가 두 개주기. 두 켤레 삼아져. 응.)

106035 @ 두 베 솜아지는데 이게 그 줄 네 개가 잇어야 뒈는데, 어욱 빠단 헷고.(두 컬레 삼아지는데 이게 그 줄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억새 뽑아다가 했고.)

106035 #3 어욱 빠단 끌앙 그거 놀 놀이렌 흔다.(억새 뽑아다가 깔아서 그거 날, 날이라고 한다.)

106035 @ 이거 누구안티 베왓수과?(이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106035 #3 건 나가 직접 허단 건디, 누게안티 배와.(건 내가 직접 하던 건데, 누구한테 배워.)

106035 @ 게난 할아버지나 주위에 사람덜하고 ᄀᆞ치 친구들이영?(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주위에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들이랑?)

106035 #3 어. 다 ᄀᆞ치덜 해낫에.(어. 다 같이들 했었어.)

106035 @ 멧 살ᄁᆞ지 이 짚신을 신엇수과?(몇 살까지 이 짚신을 신었습니까?)

106035 #3 멧 살ᄁᆞ지? 한, 나 그거 허당 우리 증손집이 하도 날레[92]광 막 증손집은 부제엿주기. 우리 증손 부젠디 멍석을 어린아이가 멍석을 잘 쳐지느냐게? 어려부난 멍석이 12개썩 놓나 마당에 경ᄒᆞ믄 저녁 뒈 가믄 보리 널어근에 거 들여놔야 될 거 아니가?(몇 살까지? 한, 나 그거 하다가 우리 증손집이 하도 '날레'와 매우 증손집은 부자였지. 우리 증손 부잔데 멍석을 어린아이가 멍석을 잘 쳐지는가? 어려버리니까 멍석이 12개씩 놓으나. 마당에 그렇게 하면 저녁 돼 가면 보리 널어서 거 들여놔야 될 거 아니가?)

106035 @ 예. 날레?(예. '날레'?)

106035 #3 날레 그걸 들여노믄 밧디 강 오멍 그 멍석을 싹 패운다. 그 증손 할머니 싹 페왕 겐 뭐센 ᄀᆞᆫ느냐믄 멧 날 빌어다 먹는 받아먹는 헹실이 그대로 있구나. 겡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젠 어머니 보고 왓지. 어멍신디 오랑 만날 풀아다 먹나 허는 그 말이 거 무신 말이우꽈? 하이고, 경 ᄀᆞᆯ아냐? 겡 그 발로 나 일본 가불엇에, 벌엉 살젠.('날레' 그걸 들여 놓으면 밭에 가서 오면서 그 멍석을 싹 편다. 그 증손 할머니 싹 펴서 그건 뭐라고 하냐면 몇 날 빌려다 먹는 받아먹는 행실이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선 이젠 어머니 보고 왔지. 어머니한테 와서 만날 팔아다 먹나 하는 그 말이 거 무슨 말입니까? 하이고 그렇게 말하더냐? 그렇게 그 길로 나 일본 가버렸네. 벌어서 살려고.)

106035 @ 아아 그 만날 벌어다 먹는 헹실이 그대로 있구나라는 그 멍석은 무사 마당에 열두 개 잇는디 걸.(아아 그 만날 벌어다 먹는 행실이 그대로 있구나라는 그 멍석은 왜 마당에 열두 개 있는데 걸.)

106035 #3 열두 개. 마당이 크난 부자난 열두 개ᄁᆞ지 막 페운다. 짝허게.(열두 개. 마당이 크니까 부자니까 열두 개까지 막 편다. 짝하게.)

106035 @ 그 옆집의 할망이?(그 옆집의 할머니?)

106035 #3 우리 증손할망.(우리 증손할머니.)

106035 @ 주손할망이 뭐과?(증손할머니가 뭡니까?)

106035 #3 우리 일가에서 제일 높은 할망.(우리 일가에서 제일 높은 할머니.)

106035 @ 큰 할망예? 증손 할망이렌 헙니까?(큰 할머니요? 증손 할머니라고 합니까?)

106035 #3 어, 증손.(어, 증손.)

106035 @ 증손할망이 제일 높은 할망을 증손할망이렌 헨마씨? 증손할망 게난 그게 안 좋은 말이꽈? 영 이런 일 허지 말앙 그런 뜻이꽈?(증손할머니가 제일 높은 할머니를 증손할머니라고 했어요? 증손할머니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이런 일 하지 말아 그런 뜻입니까?)

106035 #3 거 오죽해야 만날 풀아다 먹는 행동 거. 왜냐하믄 멍석이 자꾸 트니

92) '날레'는 볕에 말리려고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을 말한다.

까 보리 멧 방울썩 나와. 멍석 우이 박아진 거. 게 어린아이가 경 잘 깨끗이 털어지는 것가게. 경허난 그 어멍신디 오란 멧 날 풀아다 먹는 이렇게 허영 멧 날 풀아다 먹엄구나. 거 어머니 무신 말이꽈? 허난 경 골아냐 헨. 그 발로 이제 그디 더 일 안 나가고 나 일본 가불엇에.(거 오죽해야 만날 팔아다 먹는 행동 거. 왜냐하면 멍석이 자꾸 트니까 보리 몇 방울씩 나와. 멍석 위에 박힌 거. 그래 어린아이가 그렇게 잘 깨끗이 털어지는 거니? 그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한테 와서 몇 날 팔아다 먹는 이렇게 해서 몇 날 팔아다 먹고 있구나. 거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그렇게 말했냐? 했어. 그 발로 이제 거기 더 일 안 나가고 나 일본 가버렸네.)

106035 @ 응. 그 발로 그 할머니 말에?(응. 그 발로 그 할머니 말에?)

106035 #3 ᄋᆞ, 우리 뭐허믄 그거 나 양재로 돌젠 경 헤난 모냥이라. 게난 나 양제 당신네 집에 뭐 나 양제로 들어오느냐 말이여. 경 헤연 나.(어, 우리 뭐하면 그거 나 양자로 데리려고 그렇게 한 모양이라. 그러니까 나 양자 당신네 집에 뭐 나 양자로 들어오느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

106036 @ 짚신의 종류는 초신뿐이꽈? 뭐에 따라가지고 이름이 또 다르게 잇수과?(짚신의 종류는 짚신뿐입니까? 뭐에 따라가지고 이름이 또 다르게 있습니까?)

106036 #3 종륜 뭐 그거 그거여. 뭐 종류 업는디. 깍 비병은에 삼는 신도 싯저, 깍 비병.(종륜 뭐 그거 그거야. 뭐 종류 없는데. 총 비벼서 삼는 신도 있지, 짚 비벼서.)

106036 @ 비병 뭐 비병마씨? 깍 비병?(비벼서 뭐 비벼요? 총 비벼?)

106036 #3 저 깍 비병 신깍이엥 헌 거. 신깍 싯저. 그건 춤말로 시집갈 때도 신엇저.(저 총 비벼서 신총이라고 한 거. 신총 있지. 그건 참말로 시집갈 때도 신었지.)

106036 @ 이름이 틀리네예.(이름이 다르네요.)

106036 #3 ᄋᆞ, 것도 초신인디 깍을 멋진 걸로 부빈다. 게믄 상당이 고와. 이거 신엉 나사민 어디 옛날 같으믄 일류 가는 기생 신덜 아니가?(어, 그것도 짚신인데 총을 멋진 걸로 비빈다. 그러면 상당히 고와. 이거 신어서 나서면 어디 옛날 같으면 일류 가는 기생 신들 아니가?)

106036 @ 같은 초신이라도 비싸구나예, 이건?(같은 짚신이어도 비싸군요, 이건?)

106036 #3 아이고 뒈게 비싼다.(아이고 되게 비싸다.)

106036 @ 아, 이거 뭐 신깍에 부비민 초신이렌 헙니까?(아, 이거 뭐 신총에 비비면 짚신이라고 합니까?)

106036 #3 어 비싼다. 막 보기도 좋고.(어, 비싸다. 매우 보기도 좋고.)

106036 @ 비싸고 누가 신어마씨? 돈 이신 사람이?(비싸고 누가 신어요? 돈 있는 사람이?)

106036 #3 돈 있는 사람 아가씨덜 어디 외출용이주. 거 외출허레 갈 때.(돈 있는 사람 아가씨들, 어디 외출용이지. 그거 외출하러 갈 때.)

106036 @ 게민 즘질게. 즘질게.(그러면 잘게. 잘게.)

106036 #3 막 곱나.(매우 고와.)

106036 @ 고와예?(고와요?)

106036 #3 상당히 볼만허여.(상당히 볼만해.)

106036 @ 발은 남자발 여자발이 틀린데 대충 헙니까? 이렇게 재멍?(발은 남자발, 여자발이 다른데 대충 합니까? 이렇게 재면서?)

106036 #3 재멍 맞추멍 신 삼앙 놔둬야주. 거 발 대부분 볼 늦은 몽덜 이백육십미리 이백오십미리 경 헤영들 신지 안허냐? 그거 흔 가지라.(재면서 맞추면서 신 삼아서 놔둬야지. 거 발 대부분 볼 늦은 몽들 이백육십미리, 이백오십미리 그렇게 해서들 신지 않니? 그거 한 가지야.)

106036 @ 신발은 헤봣고예? 모자는 안 헤봣고예?(신발은 해봤고요? 모자는 안 해봤고요?)

106036 #3 모자 그런 건 안 헤봣저.(모자 그런 건 안 해봤지.)

모자 등

106037 @ 모자는 양태나 탕건, 망건 봐낫수과?(모자는 양태나 탕건, 망건 봤었습니까?)

106037 #1 아멩헤도 그거 허젠 ᄒᆞ난 사오라실 거여. ᄀᆞ만 셔보라 무싱거옌 ᄒᆞᆫ다? 모자 같은 거도 정동넝쿨로 새로 만든 거, 잊어불어졋저. 봐낫저만은. 뭐셍헌디샤? 모자 줏는 사름 엇고 썽 뎅기는 거 봐낫저게 정동으로.(아무리 해도 그거 하려고 하니까 사왔을 거야. 가만 있어봐라. 무슨 거라고 한다? 모자 같은 것도 댕댕이덩굴로 새로 만든 거, 잊어버렸네. 봤었는데. 뭐라고 하더라? 모자 겯는 사름 없고 써서 다니는 거 봤었지. 댕댕이덩굴로.)

106037 @ 모자 짜는 사람 이섯수과? 정동 그 넝쿨로.(모자 짜는 사람 있었습니까? 댕댕이덩굴 그 넝쿨로.)

106037 #2 모자는 짜는 사람 월령엔 엇엇어.(모자는 짜는 사람 월령엔 없었어.)

106037 @ 이 마을에 모자의 종류 여름모자, 겨울모자, 양태 겯기, 총모자, 탕건 겯기, 망건 겯기 이게 다 함덕 쪽에 많이 잇지예? 이쪽엔 잘 엇지예?(이 마을에 모자의 종류 여름모자, 겨울모자, 양태, 겯기, 총모자, 탕건 겯기, 망건 겯기 이게 다 함덕 쪽에 많이 있지요? 이쪽엔 잘 없지요?

106037 #3 ᄋᆞ, 우리 마을에 밀낭페렝이 있잖아, 밀낭페렝이.(어, 우리 마을에 밀짚모자 있잖아, 밀짚모자.)

106038 @ 이제 여름에는 밀낭페렝이?(이제 여름에는 밀짚모자?)

106038 #3 응. 밀랑 패랭이렌 헌다. 밀짚모자보고.(응. 밀짚모자라고 한다. 밀짚모자보고.)

106039 @ 겨울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겨울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9 #3 겨울모자는 그 나까오리라고이 다 딱 시네, 여기.(겨울모자는 그 '나까오리'라고 다 딱 있네, 여기.)

106039 @ 싯수과?(있습니까?)

106040 @ 양태, 총모자, 탕간, 망건, 이거는 도롱이, 도롱이?(양태, 총모자, 탕간, 망건, 이거는 도롱이, 도롱이?)

106041 #3 그거 저 거시기. 월령 그거. 싯긴 걸궁헐 때 사용헤낫저. 옛날 하르방이. 이 저 둥그렁헌 거여. 거 둥그렁헌 모잔디이, 옛날 하르방 쓰당 거, 가죽모자여 거.(거 저 거시기. 월령 그거. 있기는 걸궁 할 때 사용했었지. 옛날 할아버지. 이 저 둥그런 거야. 그거 둥그런 모잔데, 옛날 할아버지 쓰던 거, 가죽모자야 그거.)

106041 @ 가죽모자가 총모자 무슨 모자 가죽으로?(가죽모자가 총모자 무슨 모자 가죽으로?)

106041 #3 총모잔 거 사농허레 뎅기멍 그 양반, 썽 뎅기멍 사냥헤낫저. 걸궁헐 때 꿩 마치레.(총모잔 거 사냥하러 다니면서 그 양반, 써서 다니면서 사냥했었지. 걸궁할 때 꿩 맞히러.)

106041 #4 꿩 마치레 꿩사농 옛날 꿩사냥 산에 강 꿩사냥 뎅기믄 모ᄌᆞ가 영 ᄀᆞ트민 털모자 이거ᄀᆞ치 거 썽은에 이제 마구리헤영 썽, 거 썽은에.(꿩 맞히러 꿩사냥 옛날 꿩사냥, 산에 가서 꿩사냥, 다니면 모자가 이렇게 같으면 털모자 이거같이 거 써서 이제 마구리해서 써서, 그거 써서는.)

106041 #3 아방.(아버지.)

106044 @ 도롱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도롱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44 #2 월령 누게 하르방 도롱이 헤낫저. 둥그런헌 모잔디 가죽모자여. 사농허레 뎅기멍 쓰영 망텡이 모자 긴 거 쫄른 거 월령 목화하르방.(월령 누구 할아버지 도롱이 했었지. 둥그런 모잔데 가죽모자야. 사냥하러 다니면서 써서 망태기 모자 긴 거 짧은 거 월령 목화할아버지.)

106044 @ 월령엔 엇고예? 양태, 탕건, 망건, 도롱이. 도롱이는 다 촐로 이렇게 비 안 맞게 그 이름이?(월령엔 없고요? 양태, 탕건, 망건, 도롱이. 도롱이는 다 꼴로 이렇게 비 안 맞게 그 이름이?)

106044 #2 그런 것도 잘 안 멘들앗어.(그런 것도 잘 안 만들었어.)

106044 @ 비옷같이 만들엉 거 입어나실 건디. 눌 헐 때 우에 꼭대기 ᄂᆞ람지[93] 처럼 ᄂᆞ람지같이 이렇게 해서?(비옷같이 만들어서 그거 입어났을 건데. 가리 할 때 위에 꼭대기 이엉처럼 이엉같이 이렇게 해서?)

106044 #2 엇어. 이젠.(없어. 이젠.)

7. 식생활

93) 'ᄂᆞ람지'는 낟가리 위에 덮는 이엉을 말한다.

밥과 국

107001 @ 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1 #1 반지기밥 곤밥 주로 좁쌀과 보리쏠 제사 땐 곤밥이라고.('반지기밥', 흰밥, 주로 좁쌀과 보리쌀 제사 땐 쌀밥이라고.)

107001 #2 녹듸밥도 싯고 녹듸 놩 밥헹 먹고.(녹두밥도 있고 녹두 넣어서 밥해서 먹고.)

107004 @ '반지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반지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4 #1 반지기옌 흔 건 보리쏠이영 쏠이영 섞어진 거 허뜨민 섞어진다. 보리밥 이제 쏠 밥 섞어진 거 반지기.('반지기'라고 한 건 보리쌀이랑 쌀이랑 섞어진 거 흐트러뜨리면 섞어진다. 보리밥 이제 쌀 밥 섞어진 거 '반지기'.)

107006 @ 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6 #1 조팝은 곤밥, 곤쏠로만 감제도 놩 먹어나고.(조밥은 흰밥, 흰쌀로만 고구마도 놔서 먹었었고.)

107007 @ 팥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팥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7 #1 폳밥 폳만은 안 뒈곡, 무순 밥 안 뒈고 풋밥 보리밥에 섞으곡.(팥밥 팥만은 안 되고, 무는 밥 안 되고 팥밥 보리밥에 섞고.)

107011 @ '톳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톳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1 @ 밥은 무신 밥이 잇수과? 반지기밥 보리밥 조밥 톳밥도 들어봣수과?(밥은 무신 밥이 있습니까? 반지기밥 보리밥 조밥 톳밥도 들어봤습니까?)

107011 #2 톳밥도 헹 먹어.(톳밥도 해서 먹어.)

107012 @ '페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패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2 #1 페밥[94], 까실까실한 거야. 패, 바다에 난다.('패밥', 까끌까끌한 거야. 패, 바다에 난다.)

107012 #1 엇다, 무신 것에 톳 트멍에 난다. 까실까실 바당에 난다. 톳 나는 디 난다.(없다, 무어에 톳 틈에 난다. 까끌까끌 바다에 난다. 톳 나는 데 난다.)

107012 @ 톳 놩 톳밥도 먹어봣고 페밥은 뭣과?(톳 놔서 톳밥도 먹어봤고 '패밥'은 뭣과?)

107012 #2 페 놩은에 밥헹 먹어.(패 놔서 밥해서 먹어.)

107012 @ 페가 바당에 나는 것꽈? 페렌 헙니까? 톳 닮은 거 김 닮은 거?(패가 바다에 나는 겁니까? 패라고 합니까? 톳 닮은 거 김 닮은 거?)

107012 #2 김 닮은 거 페가 잇주.(김 닮은 거 패가 있지.)

107012 @ 맛 좋아마씨? 페밥?(맛 좋아요? 패밥?)

107012 #2 거 옛날엔 맞추엉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엇어 노난 이것도 놩 헹

94) '패밥'은 보리쌀에 흑갈색 해조류 패를 넣어 지은 밥을 말한다. 구황 음식의 한 가지다.

먹어보고 저것도 놩 헹 먹어보고 헷주.(그거 옛날엔 맞추어서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 놓으니까 이것도 놔서 해서 먹어보고 저것도 놔서 해서 먹어보고 했지.)

107013 @ 국은 무슨 국이?(국은 무슨 국이?)

107013 #1 것사 여러 가지주게. 국은 여러 가지 호박잎국은?(그거야 여러 가지지. 국은 여러 가지 호박잎국은?

107013 #2 호박잎국도 헤영 먹어보곡, 콩국도 헹 먹어보고, 메역국이여, 무싱거여 그 갯곳이서 나는 건 다 헤당 먹어봣주.(호박잎국도 해서 먹어보고, 콩국도 해서 먹어보고, 미역국이다, 무엇이다 그 갯가에서 나는 건 다 해다가 먹어봤지.)

107013 @ 몸국이여, 생선국이여?(모자반국이다, 생선국이다?)

107013 #2 그런 것도 다 헤당.(그런 것도 다 해다가.)

107013 @ 넘피국, 가시리국. 넘피 이것도 해산물이꽈?(넓패국, 풀가사리국. 넓패, 이것도 해산물입니까?)

107013 #2 응, 바당에 거.(응, 바다에 거.)

107013 @ 넘피, 메역새 트멍에 카락카락 넘피가 뭔지 모르겠다예?(넓패, 미역쇠틈에 카락카락 넓패가 뭔지 모르겠네요?)

107013 #2 넘피 셔.(넓패 있어.)

107013 @ 프레국?(파래국?)

107013 #2 프레국도 싯고.(파래국도 있고.)

107013 @ 보말국, 성게국, 죽, 곤죽, 조죽, 풋죽?(고둥국, 성게국, 죽, 흰죽, 조죽, 팥죽?)

107013 #2 거 다 싯주기.(거 다 있지.)

107013 #4 메역국 국은 꼭 헤영 먹주기.(미역국, 국은 꼭 해서 먹지.)

107018 @ 호박잎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호박잎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8 #1 호박잎 베껴근에 썰엉, 영 놩 ᄀᆞ루 허트민.(호박잎 벗겨서 썰어서, 이렇게 놔서 가루 흩뜨리면.)

107018 @ 무슨 가루 허터마씨?(무슨 가루 흩뜨려요?)

107018 #1 나중에 보릿가루 무신 ᄀᆞ루?(나중에 보릿가루 무슨 가루?)

107018 @ 보릿ᄀᆞ루. 보리 ᄀᆞ룬 아니고, 보리쏠 ᄀᆞᆫ 거. 보릿ᄀᆞ룬 보리 져낭 쉐나 개나 도새기나 주주, 보릿ᄀᆞ룬. 보릿ᄀᆞ룬 보리 져난 거ᄀᆞ라 보릿ᄀᆞ룬 보리 져 난 ᄀᆞ루ᄀᆞ라, 못 먹나게(보릿가루. 보리 가룬 아니고, 보리쌀 간 거. 보릿가룬 보리 찧어나서 소나 개나 돼지나 주지, 보릿가룬. 보릿가룬 보리 찧어난 거보고 보릿가룬 보리 찧어난 가루보고, 못 먹는다.)

107019 @ 모자반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모자반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9 #1 몸국은 해 먹어낫저.(모자반국은 해 먹었었지.)

107019 @ 접작뻬국이렌 헙니까?('줍작뼈'국이라고 합니까?)

107019 #1 도세기 잡은 접작뻬.(돼지 잡은 등뼈.)

107019 @ 접작뻬.(등뼈.)

107020 생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생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0 #1 생선. 궤기 중에 제일 양반.(생선. 고기 중에 제일 양반.)

107021 미역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미역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2 @ 냉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냉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2 @ ᄂᆞᆯ 데와도 ᄂᆞᆯ 데왕도 되고 초 ᄒᆞ끔.(배추 데쳐도 나물 데쳐서도 되고 초 조금.)

107023 성게국, 보말국, 넘피국, 가시리국, ᄑᆞ레국, 물회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성게국, 고둥국, 넓패국, 풀가사리국, 파래국, 물회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107023 @ 넘패국은 뭣꽈?(넓패국은 뭡니까?)

107023 #1 넘피국 바당에 잇저게.(넓패국 바다에 있지.)

107023 @ 아까 닮은 건가. ᄋᆞ, 그 톳 트멍에 난 까락까락헌 게 저 무시것고? 메역세 트멍에 나는 넘피가 잇저. 바다에 잇저게. 메역귀 소곱이 톳트멍에 메역새 트멍에.(아까 닮은 건가. 어, 그 톳 틈에 난 까끌까끌한 게 저 무엇이지? 미역쇠 틈에 나는 넓패가 있지. 바다에 있지. 미역귀속에 톳틈에 미역쇠 틈에.)

107023 @ 가시리국?(가시리국?)

107023 #1 거 보라.(거 보라.)

107023 @ ᄑᆞ래국?(파래국?)

107023 #1 ᄑᆞ랜 잘 먹어낫저.(파랜 잘 먹었었지.)

107023 @ ᄑᆞ랜 잘 먹어마씨? 어떵 ᄐᆞᆫ아마씨?(파랜 잘 먹어요? 어떻게 뜯어요?)

107023 #1 먹는 건 믄지락ᄒᆞᆫ다. 못 먹는 건 아니. 먹는 건 까칠, 나 모르켜. 너미 하영 ᄀᆞ르난.(먹는 건 부드럽다. 못 먹는 건 아니. 먹는 건 까칠, 나 모르겠다. 너무 많이 말하니까.)

죽류

107013 @ 모멀죽, 닭죽, 깅이죽, 녹두죽, 무꾸럭죽?(메밀죽, 닭죽, 게죽, 녹두죽, 문어죽?)

107013 #2 무꾸럭 죽도 쒕 먹어.(문어죽도 쒀서 먹어.)

107013 @ 무꾸럭 죽도예? 고등어죽.(문어죽도요? 고등어죽.)

107013 #2 고기엔 헌 건 아무 거라도 죽을 쒕 먹어지난이.(고기라고 하는 건 아무 거라도 죽을 쒀서 먹어지니까.)

107013 @ 옥돔죽도 먹고 우럭죽은?(옥돔죽도 먹고 우럭죽은?)

107013 #2 우럭은 거 꽝이 하는 따문에 잘 안 먹어.(우럭은 거 뼈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먹어.)

107013 @ 우럭은 지졍 먹고?(우럭은 지져서 먹고?)

107013 #2 빼가 하주게 거게.(뼈가 많지. 그거.)

107032 @ 갱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갱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2 #1 깅이죽이야 좋지. 물로 뻣앙 물로 조쏠 밀어둥 솔그랭히 흔다게. 물로 뻣앙 쏠게.(게죽이야 좋지. 물로 빻아서 물로 좁쌀 밀어두고 고스란히 한다. 물로 빻아서 쌀은.)

107033 이외에 죽을 해먹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이외에 죽을 해먹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7033 @ 어머니, 무꾸럭 허믄 죽도 쒕 먹어보고, 고등어여 다 안 먹어 본 거 어시 전복허고 소라도예?(어머니, 문어 하면 죽도 쒀서 먹어보고, 고등어여 다 안 먹어 본 거 없이 전복하고 소라도요?)

107033 #2 어.(어.)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은 무슨 범벅?(범벅은 무슨 범벅?)

107034 #1 무슨 범벅이든 다 뒈주.(무슨 범벅이든 다 되지.)

107034 @ ᄆᆞ멀, 감제범벅. 대개 ᄆᆞ멀이 둘주게?(메밀 고구마범벅. 대개 메밀이 달지?)

107034 #1 ᄆᆞ멀이 제일 좋주게.(메밀이 제일 좋지.)

107034 #1 ᄋᆞ게.(그래.)

107034 @ 감제밥 범벅도 헹 먹어봣수과? 범벅은 무슨 범벅이 제일 맛 좋아마씨? ᄆᆞ멀범벅?(고구마밥 범벅도 해서 먹어봤습니까? 범벅은 무슨 범벅이 제일 맛 좋아요? 메밀범벅?)

107034 #2 톳범벅, 감제범벅, 모멀범벅, ᄆᆞ멀범벅이 맛있주게.(톳범벅, 고구마범벅, 메밀범벅, 메밀범벅이 맛있지.)

107034 @ 감제도 놓고. 톳범벅도 이섯수과?(고구마도 넣고. 톳범벅도 있었습니까?)

107034 #2 톳범벅도 싯고.(톳범벅도 있고.)

107034 @ 톳범벅 다른 범벅 이름 녹듸밥도?(톳범벅 다른 범벅 이름 녹두밥도?)

107034 #4 ᄀᆞ루 지엉 감자 썰엉 감자범벅 범벅은 ᄀᆞ루에.(가루 찧어서 고구마 썰어서 고구마범벅은 가루에.)

107035 수제비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수제비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5 #1 ᄌᆞ베기, 칼국, 애기날 때 나쁜 피 삭넨 흔다.(수제비, 칼국수, 애기 낳을 때 나쁜 피 삭는다고 한다.)

107035 @ 수제비, ᄌᆞ베기, ᄆᆞ멀ᄌᆞ배기?(수제비, 수제비, 메밀수제비?)

107035 #2 응, ᄌᆞ배기.(응, 수제비.)

107035 #4 ᄌᆞ베기 좁쏠도 근쏠도 ᄀᆞ루로 만들어.(수제비 좁쌀도 흰쌀도 가루로

만들어.)

107036 @ 칼국수도 나중에 헹 먹어보고?(칼국수도 나중에 해서 먹어보고?)

107036 #2 칼국수도 헹 먹어보고.(칼국수도 해서 먹어 보고.)

107036 #4 칼국 밀엉 똑똑 썰엉.(칼국수 밀어서 똑똑 썰어서.)

김치

107037 @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서.(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7 #4 집이서 ᄂᆞ물이 나니까, 우영밧디 나니까 ᄋᆞ게, 다.(집에서 배추가 나니까, 텃밭에 나니까 응, 다.)

107041 @ '동지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동지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1 #1 동지짐치 동지 산 거보라.(동지김치 동지 선 거 보라.)

젓갈

107048 @ 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헤 줍서.(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07048 #2 자리젓, 멜젓, 자리젓이 많이 먹어.(자리젓, 멸치젓, 자리젓이 많이 먹어.)

107048 @ 구젱기젓도?(소라젓도?)

107048 #2 옛날이사, 자리젓.(옛날이야, 자리젓.)

107048 @ 깅이젓도 헷수과?(게젓도 했습니까?)

107048 #2 깅이젓도 먹어보고.(게젓도 먹어보고.)

107054 @ 출레[95]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출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4 @ 출레가 뭣꽈?('출레'가 뭡니까?)

107054 #2 출레엔 헌 것이, 그거주게, 반찬 허는 거.('출레'라고 한 것이, 그거지, 반찬 하는 거.)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는?(장아찌는?)

107055 #1 장아찌는 마농지.(장아찌는 마늘장아찌.)

107055 @ 반찬 허는 거? 장아찌 마농지.(반찬 하는 거? 장아찌 마늘장아찌.)

107055 #2 장아찌 마농지 같은거.(장아찌 마늘장아찌 같은 거.)

107055 @ 마농지는 뭘로?(마늘장아찌는 뭐로?)

107055 #2 양아로 지 담앙 먹고 모자반.(양하로 장아찌 담가서 먹고 모자반.)

95) '출레'는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6 #4 마농지랑 마농지 뭣허여 장물에 ᄃᆞᆼ간.(마늘장아찌랑 마늘장아찌 뭣해. 간장에 담가서.)

107057 @ 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7057 #1 회는 새끼회[96], 자리회.(회는 새끼회, 자리회.)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1 ᄀᆞ만 시라. 장이 ᄀᆞ실에 ᄃᆞᆼ그는가? 어떵허는고?(가만 있어라. 장이 가을에 담그는가? 어떻게 하는가?)

107059 @ 콩 나와야 당그니까예?(콩 나와야 담그니까요?)

107059 #1 콩, ᄋᆞ게. 콩 허영 숢앙 이 이제 메주 멘들앙은에 ᄆᆞᆯ류와사 틔왕 ᄆᆞᆯ류와사 장 뒈는 거여. 콩 숢앙 그거 다 간장은 틔왕 ᄆᆞᆯ류와사, 간장은 그디 물 나오는 걸로 간장이고.(콩, 그래. 콩 해서 삶아서 이 이제 메주 만들어서 말려야 띄워서 말려야 장 되는 거야. 콩 삶아서 그거 다 간장은 띄워서 말려야, 간장은 거기 물 나오는 걸로 간장이고.)

107059 #1 메주, ᄆᆞᆯ량 물 나오는 거로 간장 만들고 맞주기게.(메주 말려서 물 나오는 거로 간장 만들고 맞지.)

107059 @ 간장, 장 멩그는 거 제주돈 제주도만?(간장, 장 만드는 거 제주돈 제주도만?)

107059 #4 이제 제주도는 뒌장, 장물, 장물이옌 허여. 것ᄀᆞ라 장물. 또 고추장 먹는 사람 시믄 고추장은 이젠 다 상웨에 강 사당 먹기 따문에 안 헤도 뒈어. 것뿐이라. 뒌장허고 장물 장도 담앙 먹는 사람 여 드물어. 몬딱 다 강 저 상웨에 강 저 하꼬로 강덜 불렁덜.(이제 제주도는 된장, 간장, 간장이라고 해. 것보고 간장. 또 고추장 먹는 사람 있으면 고추장은 이젠 다 상회에 가서 사다가 먹기 때문에 안 해도 되어. 것뿐이야. 된장하고 간장 장도 담가서 먹는 사람 아주 드물어. 몽땅 다 가서 저 상회에 가서 저 상자로 가서들 불러서들.)

107060 @ 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7060 #1 응, 그거 다 우려가민 된장도 나오곡, 간장은 그디 물나오는 걸로 간장허곡.(응, 그거 다 우려가면 된장도 나오고, 간장은 거기 물 나오는 걸로 간장하고.)

107060 #4 뒌장, 육진 고치장, 막장, 간장, 고치장, 막장, 된장 세 가지 간장도

96) '새끼회'는 태어나기 전의 돼지의 새끼를 잘게 다져서 마늘, 파, 참깨, 고춧가루, 식초 따위를 넣고 만든 음식이다.

네 가지라, 육진.(된장, 육진 고추장, 막장, 간장, 고추장, 막장, 된장 세 가지 간장도 네 가지야, 육진.)

107061 @ 장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장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1 #4 옛날 우리도 경 헤낫저. 콩 솖앙 메주 틔왕 경헤연. 장 둥그는 날이 셔. 둑날이나 경 흔 날 경 헤영 담나. 조금에도 안 담고 경 물치 사레 올 때 그 우티 고치 하나 틔우고. 옛날 숯 하나 톡허게 들이치곡.(옛날 우리도 그렇게 했었지. 콩 삶아서 메주 띄워서 그렇게 했어. 장 담그는 날이 있어. 닭날이나 그렇게 한 날 그렇게 해서 담아. 조금에도 안 담고 그렇게 물찌 사리 올 때 그 위에 고추 하나 띄우고. 옛날 숯 하나 톡하게 집어넣고.)

107062 @ 메주는 언제, 어떻게 쑵니까?(메주는 언제, 어떻게 쑵니까?)

107062 #4 장 담그는 것은 둠그는 동짓둘에 담아사. 동짓둘에 담으믄 이제 장 걸르는 건 3월 2월 난다. 메주 저 장 담앙 장물 걸르는 거.(장 담그는 것은 담그는 동짓달에 담가야. 동짓달에 담그면 이제 장 거르는 건 3월 2월 난다. 메주 저 장 담가서 간장 뜨는 거.)

떡류

107064 @ 먹는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서.(먹는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4 #1 좁은 떡이라고 이.(집은 떡이라고.)

107064 @ 좁은 떡은 새미떡[97]이렌 헴수과?(집은 떡은 '새미떡'이라고 했습니까?)

107064 #1 새미떡ᄀᆞ라 좁은 떡이옌 흔다게.('새미떡'보고 집은 떡이라고 한다.)

107064 @ 아, 게민 새미떡하고(아, 그러면 '새미떡'하고)

107064 #1 좁은 떡이 그것이 새미떡ᄀᆞ라 좁은 떡이옌 ᄒᆞ곡, 소북이 이, 쉬 놩 뚝 좁는 거.(집은 떡이 그것이 '새미떡'보고 집은 떡이라고 하고, 소복이, 소 놔서 꼭 집는 거.)

107064 @ 아, 그거를?(아, 그거를?)

107064 #1 새미떡이옌도 ᄒᆞ곡 좁은 떡이옌도 흔다게. 세미옌 ᄀᆞᆯ아도 알아듣곡 우린이, 좁은 떡이옌 해도 알아듣지. 또 늬귀반뜩헌 건 인절미. 이거영 그거 놓곡, 곤떡 놓곡, 싀 가진 놔사 제ᄉᆞ 때도 헌다게. 침떡 놓곡. 반 하나에 겡 헹 사름 ᄒᆞ나 주곡 헤시네.('새미떡'이라고도 하고 집은 떡이라고도 한다. '새미'라고 말해도 알아듣고 우린, 집은 떡이라고 해도 알아듣지. 또 네모반듯한 건 인절미. 이거랑 그거 놓고, 흰떡 놓고, 세 가진 놔야 제사 때도 한다. 시루떡 놓고. 반기 하나에 그렇게 해서 사람 하나 주고 했네.)

97) '새미떡'은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이다.

107064 #3 좁은 떡ᄀᆞ라 세미떡이엔도 허곡, 좁은 떡이엔도 헌다.(집은 떡 보고 '새미떡'이라고도 하고, 집은 떡이라고도 한다.)

107064 #4 우리 세기렌 우리 세기렌 침떡 이제 인절미 새미.(우리 세계에는 우리 세계에는 시루떡 이제 인절미 '새미'.)

107064 #3 새미, 좁은 떡.(새미, 집은 떡.)

107064 #4 이제 인절미 새미떡 좁은 떡 곤떡 겐 뜨로 뭣 헌 사람은 춥쏠 뻐사 당덜 지름떡덜게. 것 벳긔 엇다.(이제 인절미, '새미떡', 집은 떡, 흰떡, 그래서 또 뭣 한 사람은 찹쌀 빻아다가들 기름떡들 것밖에 없다.)

107065 @ 그믄 좁은떡 곤떡 침떡은 좁쏠 조, 조 무슨 걸로 침떡 만듭니까? 좁쏠? 시루떡은?(그러면 집은 떡, 흰떡, 시루떡은 좁쌀 조, 조 무슨 걸로 시루떡 만듭니까? 좁쌀? 시루떡은?)

107065 #1 ᄋᆞ. 시리떡은 시리에 놩 허는 거고게. 시리에 담아근에 영 흔 징 놩 근에 또 쉬 놓앙근에 또 놓곡 해사 떼여졍게. 흔 빗썩 끈어내민 이제 끈어 내지곡 쉬 중간에 놔사.(그래. 시루떡은 시루에 놔서 하는 거고. 시루에 담가서 이렇게 한 켜 놔서 또 고물 놓아서 또 놓고 해야 떼여져서. 한 켜씩 끊어내면 이제 끊어 내지고 고물 중간에 놔야.)

107065 @ 흔 빗이옌 헷지예?(한 켜라고 했지요?)

107065 #1 흔 빗. 거 끈어낸 거 흔 빗.(한 켜. 거 끊어낸 거 한 켜.)

107065 @ 멧 빗이 나옵니까? 똥그락헌 거.(몇 켜가 나옵니까? 동그란 거.)

107065 #1 몰라. 멧 빗사 나왐신디. 누게 세 봐샤? 저으 제 날짼 흔 시리 쳐근에이 톡 비와.(몰라. 몇 켜야 나오는지. 누구 세어 봤어? 저 제 날짜엔 한 시루 쪄서 톡 비워.)

107065 @ 흔 시리.(한 시루.)

107065 #1 시리에 쳥.(시루에 쪄서.)

107065 @ 시리 고망은 멪 개 납니까?(시루 구멍은 몇 개 납니까?)

107065 #1 아이구, 거 알아진다마는 잊어부러졋저. 시리 고망 멧 개옌 건 막 여러 사람들 곧나마는 오꼿 잊어부러졋저.(아이고, 거 알아지지만 잊어버려졌어. 시루 구멍 몇 개인지 건 막 여러 사람들 말한다만 그만 잊어버렸어.)

107064 #4 좁쏠 침떡 아아 이젠 좁쏠떡 엇나. 멥쏠, 멥쏠, 곤쏠, 이제 밥헹 먹는 거.(좁쌀, 시루떡, 아아, 이젠 좁쌀떡 없어. 맵쌀, 맵쌀, 흰쌀, 이제 밥해서 먹는 거.)

107064 #3 무사 옛날엔 좁쏠에 헤세.(왜 옛날엔 좁쌀에 했어.)

107064 @ 옛날 옛날?(옛날 옛날?)

107064 #4 아, 옛날은 좁쏠 컹 흰 징 놩 시리떡 허젠 허믄 세에 흰 징 놓고 풋 놓고 경 헤여근에 떡 헤낫주게. 게난 그런 떡이 어디 잇나? 보도 보도 못 들으지.(아, 옛날은 좁쌀 잠가서 흰 층 놔서 시루떡 하려고 하면 세에 흰 층 넣고 팥 넣고 그렇게 해서 떡 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떡이 어디 있나? 봐도 봐도 못 듣지.)

107065 #4 시리에 놩 시리에 담앙 징, 쉬, 중간 중간 놔사.(시루에 놔서 시루에

담아서 층, 소, 중간 중간 놔야.)

107066 @ 제일 우에는 식게 때 송편 이섯지예? 송편 곤떡?(제일 위에는 제사 때 송편 있었지요? 송편, 흰떡?)

107066 #1 에?(에?)

107066@ 송편(송편)

107066 #1 ᄋᆞ, 송편은 저 무시거 아이가?(응. 송편은 저 무엇 아니니?)

107066 @ 곤떡?(흰떡?)

107066 #1 송편은 저 이 쏠로 무시거 침떡ᄎᆞ롬 멘든 게 송편가?(송편은 저 이 쌀로 무엇 시루떡처럼 만든 게 송편인가?)

107066 @ 곤떡, 곤떡. 곤떡을 송편이렌 헨예? 곤떡.(흰떡, 흰떡. 흰떡을 송편이라고 했어? 흰떡.)

107066 #1 경헤샤? 맞다. 뭐 송편, 맞다. 곤떡이 송편이여게.(그렇게 했어? 맞다. 뭐 송편, 맞다. 흰떡이 송편이야.)

107066 @ 곤떡은 이제 뭐헤도 영 동글락허게 곤떡을 찌영 노믄 이제 요만이 끊어. 영 허영 돌레떡추룩 톡톡톡허연 요만썩 기계가 뛰는 것이 잇어. 똥글락헌 기계가 잇어. 그거 사당 기곌 영 꼭허게 찍으믄 늬 귀, 난 막 보기 좋아.(흰떡은 이제 뭐해도 이렇게 동그랗게 흰떡을 쪄서 놓으면 이제 요만큼 끊어. 이렇게 해서 도래떡처럼 톡톡톡해서 요만큼씩 기계가 뛰는 것이 있어. 동그란 기계가 있어. 그거 사다가 기곌 이렇게 꼭하게 찍으면 네 귀, 난 매우 보기 좋아.)

107066 @ 음, 쉬 곤떡에 쉬 쉬 쉬 쉬?(음, 소, 흰떡에 소 소 소 소?)

107066 #3 곤떡엔 쉬 안 논다.(흰떡엔 소 안 논다.)

107066 #4 곤떡엔 쉬 안 헌다.(흰떡엔 소 안 한다.)

107066 @ 곤떡 쉬 안 놔마씨?(흰떡 소 안 놔요?)

107066 #3 건 좁은 떡에 놓지. 좁은떡.(그건 집은 떡에 놓지. 집은 떡.)

107066 #4 좁은 떡 영 이추룩 헤영 좁앙 영 헤영, 그 소곱에 쉬 담앙 앙꼬 담앙 경허주만 곤떡은 쉬 안 묻힌다. 난 곤떡 쉬 묻힌덴 말.(집은 떡 이렇게 이처럼 해서 집어서 이렇게 해서, 그 속에 소 담아서 소 담아서 그렇게 하지만 흰떡은 고물 안 묻힌다. 난 흰떡 소 묻힌다는 말.)

107066 @ 쉬 속에 안 놔마씨?('소' 속에 안 놔요?)

107066 #4 ᄋᆞ, 그건 좁은 떡이엔 헌다. 소곱에 앙꼬[98] 놔도 곤떡은 쉬 안 묻힌다.(어, 그건 집은 떡이라고 한다. 속에 소 놔도 흰떡은 소 안 묻힌다.)

107066 @ 아, 곤떡은 쉬 안 노고 멥쏠로?(아, 흰떡은 소 안 넣고 맵쌀로?)

107067 @ 빙떡 만드는 거 ᄒᆞ꼼 ᄀᆞ르쳐줘 봅서.(빙떡 만드는 거 조금 가르쳐줘 보십시오.)

107067 #1 빙떡이 이 저 ᄆᆞ멀로 얄로게 카근에 뭣에 저 튀겨 이. 아니 후라이판에 튀겨.(빙떡이 이 저 메밀로 얇게 타서 뭐에 저 튀겨. 아니 프라이팬에 튀겨.)

98) '앙꼬'는 팥소의 일본식 표기다.

107067 @ 예. 후라이판에 지져.(예. 프라이팬에 지져.)

107067 #1 ᄋᆞ 톡허게 이젠 비와그네 그레 뭐 담아이. 쉴 담으나 무신 무술 담으나 허영 ᄆᆞᆯ아. 경 ᄆᆞᆯ민 빙떡 뭰다.(그래. 톡하게 이젠 부어서 그리로 뭐 담아. 소를 담으나 무슨 무를 담거나 해서 말아. 그렇게 말면 빙떡 된다.)

107067 @ 쉬는 픗이꽈?(소는 팥입니까?)

107067 #1 픗도 놓곡 경 아니민 또 이제 무신 무시 썰어놔도 뭰다게.(팥도 넣고 그렇게 않으면 또 이제 무슨 무 썰어놔도 된다.)

107067 @ 무수예. 경헹 삥 말앙.(무요. 그렇게 해서 삥 말아서.)

107067 #1 응, ᄆᆞᆯ앙 허민 빙떡 뭰다.(응, 말아서 하면 빙떡 된다.)

107067 @ 무사 빙떡이렌 헌진 모르쿠과?(왜 빙떡이라고 하는진 모르겠습니까?)

107067 #1 몰라. 무사사 빙떡이옌 허는디. 빙떡이옌 ᄀᆞ르민 알지, 우리도. 이제 일이라도.(몰라. 왜 빙떡이라고 하는지. 빙떡이라고 말하면 알지, 우리도. 이제 일이라도.)

107067 @ 빙떡예? 그믄 이거는 제사 때영 언제 영 막 한 차롱 까득.(빙떡요? 그러면 이거는 제사 때랑 언제 이렇게 막 한 채롱 가득.)

107067 #1 지일 좋아허는 것이 거주게. 저 무시거 ᄆᆞᆯ로 허기 따문에. 질 맛잇나, 거.(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거지. 저 무엇 메밀로 하기 때문에. 제일 맛있어, 거.)

107067 @ 젤 맛잇어예. 그문 무가 여름에 안 나는데 이 겨울에는 무가 맛 좋잖아예. 여름엔 또 쉬어불고.(제일 맛있다고요. 그러면 무가 여름에 안 나는데 이 겨울에는 무가 맛 좋잖아요. 여름엔 또 쉬어버리고.)

107067 #1 게믄 쉬게 노아 두느냐게? 먹을 만이 헹 확 들러먹어 불주.(그러면 쉬게 놓아두니? 먹을 만큼 해서 확 들이먹어 버리지.)

107067 @ 아.(아.)

107067 #1 음식이 하사 쉬곡 허는 거주. 아진 사람도 먹으민 간단히 먹는 건디.(음식이 많아야 쉬고 하는 거지. 앉은 사람도 먹으면 간단히 먹는 건데.)

107067 @ 게믄 추석보다 겨울에가 많이 허지 안헤시카?(그러면 추석보다 겨울에 많이 하지 안했을까?)

107067 #1 몰라. 거 지네 먹을 만썩 헤실 거여게.(몰라. 거 자기네 먹을 만큼씩 했을 거야.)

107067 @ 예.(예.)

107067 #1 하여튼 제ᄉᆞ 때나 뭣에나 이 허는 건 다 허니까.(하여튼 제사 때나 뭐에나 하는 건 다 하니까.)

107067 @ 게도 삼사월에 무가 없을 때는 다른 걸 놓고. 픗을 놓고 그런 식으로예.(그래도 삼사월에 무가 없을 때는 다른 걸 놓고. 팥을 놓고 그런 식으로요.)

107067 #1 무사 아니가게?(왜 아니니?)

107067 @ 아.(아.)

107067 #1 다 허는 건 허니까. 이제덜은 ᄒᆞ꼼 사당 확 허믄 얼마나 편안헤게?

요샌.(다 하는 건 하니까. 이제들은 조금 사다가 확 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요샌)

107067 #3 후라이 믈앙 픗도 무수 빙떡이옌 ᄒᆞ민 쉬게 놔두느냐? 확 들러먹어 불곡.(프라이 말아서 팥도 무 빙떡이라고 하면 소게 놔두느냐? 확 들이먹어버리고.)

107067 @#4 빙은게 영허영 얄룹게 헤영 풀엉 그 소곱에 놈삐 썰엉, 놈삐 썰엉 뎁형, 그레 영헤영 깨헤영 버물영은에, 이젠 요레 영 놩 우이 톡톡톡톡 믈앙은에 건 빙떡[99]이옌 ᄒᆞᆫ다. 빙.(빙떡은 이렇게 해서 얇게 해서 풀어서 그 속에 무 썰어서, 무 썰어서 데쳐서, 그리로 이렇게 해서 참깨 해서 버무려서, 이젠 요리로 이렇게 놔서 위에 톡톡톡톡 말아서 건 '빙떡'이라고 한다. 빙떡.)

107067 @ 빙떡?(빙떡?)

107067 #4 ᄋᆞ, 빙떡이옌 ᄒᆞᆫ다.(어, 빙떡'이라고 한다.)

107067 #3 ᄆᆞ멀로 허는 거주기게.(메밀로 하는 거지.)

107067 @ 모멀로예?(메밀로요?)

107068 #4 푸끄는 거난 빙떡, 아이고 빙이나 푸껑 먹어시믄.(지지는 거니까 빙떡, 아이고 빙떡이나 지져서 먹었으면.)

107067 @ 푸껑?(지져서?)

107068 #4 빙떡.(빙떡.)

107068 @ '상웨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상화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8 @ 상웨떡?(상화떡?)

107068 #1 상웨떡은 뭣고?(상화떡은 뭐니?)

107068 @ 상웨떡은 안 들어봐수과?(상화떡은 안 들어봤습니까?)

107068 #1 저거 뭐 들어난 디 엇다게.(저거 뭐 들었던 적 없다.)

107068 @ 거믄 저 상웨떡, 돌아가실 때.(그러면 저 상화떡, 돌아가실 때.)

107068 #1 상웨떡은 저 무시거 삼매떡 아니가게? 상웨떡이, 아니가? 영 저 뭔디 곧지 몬허켜.(상화떡은 저 무엇 '삼매떡' 아니니? 상화떡이, 아니가? 이렇게 저 뭔지 말하지 못하겠다.)

107068 @ 그거 말고예. 돌아가셨을 때?(그거 말고요. 돌아가셨을 때?)

107068 #1 게메. 게메. 상웨떡이라고.(글쎄, 글쎄. 상화떡이라고.)

107068 #3 줍는 거.(집는 거.)

107068 @ 막걸리에 쪙 놔두믄?(막걸리에 쪄서 놔두면?)

107068 #4 보리쏠 보리떡 헤영덜. 소다 놓고 저 막걸리 놩 부껑 경헨 떡헤나서.(보리쌀, 보리떡 해서들. 소다 넣고 저 막걸리 놔서 부풀려서 그렇게 해서 떡 했었어.)

107068 @ 보리떡? 부껑 소다 놩?(보리떡? 부풀려서 소다 놔서?)

107068 #4 막걸리 헹 쪙 놔두믄 부그락허게 올라와. 올라오믄 그거 끊으멍 솟드

99) '빙떡'은 기름을 친 번철에서 메밀가루 반죽으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팥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을 말한다. '빙', '정기떡', '전기', '멍석떡'이라고도 한다.

레 놩 징 놩 허믄 부각이 올라왕 것벳긔 엇다.(막걸리 해서 쪄서 놔두면 부풀게 올라와. 올라오면 그거 끊으면서 솥으로 놔서 겅그레 놔서 하면 부각이 올라와서 거 밖에 없어.)

107069 @ 제사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제사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9 #4 곤떡, 요만이 끊어. 손으로 돌레떡추룩 영 헤연 멘들아. 그걸 네 귄 믄직앙 요만씩 끊어. 꼭 허게 찍으민.(흰떡, 요만큼 끊어. 손으로 도래떡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그걸 네 귄 만져서 요만큼씩 끊어. 꼭 하게 찍으면.)

107070 @ 상례 때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으민 무슨 떡을 헹 올립디까? 영장밧디 갈 때.(상례 때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무슨 떡을 해서 올립디까? 장지에 갈 때.)

107070 #1 침떡 올리곡, 아, 돌레떡 돌레떡.(시루떡 올리고, 아, 도래떡, 도래떡.)

107070 @ 영장밧디 갈 때는 돌레떡예?(장지에 갈 때는 도래떡요?)

107070 #1 돌레떡 헤낫저게. 돌레떡이라고 이 이만이 크게 해여근에.(도래떡 했었지. 도래떡이라고 이만이 크게 해서.)

107070 @ 뭘로 만들어마씨?(뭐로 만들어요?)

107070 #1 우선 이 저 ᄆᆞ멀 ᄀᆞ뜬 거.(우선 이 저 메밀 같은 거.)

107070 @ 게믄 거 누가 헹 가마씨? 상난 디서?(그러면 거 누가 해서 가요? 상난 데서?)

107070 #1 거 어떵 헤여게? 저 상 난 디서 가멍덜게 저 부주라고 돌레떡. 엿날덜은 꼭 그거 헷어.(거 어떻게 해? 저 상 난 데서 가면서들 저 부주라고 도래떡. 옛날들은 꼭 그거 해서.)

107070 #4 돌레떡은 그 저 옛날 저 영장밧디 가젠허믄 돌레떡 헤낫주. 돌레떡이 어디서 갈 때 이만이 크게 허영 부조라고.(도래떡은 그 저 옛날 저 장지에 가려고 하면 도래떡 했었지. 도래떡이 어디서 갈 때 이만큼 크게 해서 부조라고.)

107071 @ 설기떡에 대헹 ᄀᆞᆯ아줍서.(백설기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107071 #1 다 ᄀᆞᆫ나. 것덜 뭣덜산디.(다 말한다. 것들 뭣들인지.)

107071 @ 고사나 당에 가지고 가는 떡, 굿떡?(고사나 당에 가지고 가는 떡, 굿떡?)

107071 #1 몰라. 건 ᄀᆞᆫ긴 허는디 우린 헤보지 안허난 모른다. 다 들어나긴 헷저. 그런 거.(몰라. 건 말하긴 하는데 우린 해보지 안하니까 모른다. 다 들어었긴 했지. 그런 거.)

107072 @ 인절미는?(인절미는?)

107072 #4 인절미는 그자 저 영헤영 늬기반득 반달떡. 그 다음엔 이젠 인절미, 세미, 허믄 이제 반돌 곤떡벳긔 엇어나서.(인절미는 그저 저 이렇게 해서 네모반듯 '반달떡'. 그 다음엔 이젠 인절미, '세미', 하면 이제 반달 흰떡밖에 없었어.)

107073 #1 절벤, 솔벤에 대헹 말해 주십서.(절편, 솔편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

오.)

107073 @ 솔변, 절변, 절편.(솔편, 절편, 절편.)

107073 #1 것덜 다 곧나마는 무시것산디?(것들 다 말하지만 무엇인지?)

107075 @ 웃기떡?(웃기떡?)

107075 #1 몰라.(몰라.)

107075 @ 지름떡.(기름떡.)

107075 #1 거 지름떡은 지진떡이라? 뭣이라?(거 기름떡은 지진 떡이야? 무엇이야?)

107075 @ 지름, 지름. 별 모양으로 이렇게.(기름, 기름. 별 모양으로 이렇게.)

107075 #1 게메, 뭐 지진 떡이라, 지름떡이?(글쎄, 뭐 지진 떡이야, 기름떡이?)

107075 @ 예, 지진 거, 지진 거.(예, 지진 거, 지진 거.)

107075 #1 지름에 튀긴 것이 지름떡이로구나.(기름에 튀긴 것이 기름떡이로구나.)

107077 @ 굿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굿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7 #4 돌래떡 돌래떡 하는 디 싯고 또로 저 것밖에 엇다. 경허곡 저 성주허젠 허믄 시리떡 들어간다. 성준 허젠 허믄 흔 징 놩 세 징에 놩은에 그 우이 돌레떡 우트레 걸쳥 경허는 거. 굿떡은 돌레떡만 돌레떡만 경 헤영은에 그거 올려 놩 허는 거.(도래떡 도래떡 하는 데 있고 또 저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저 성주 하려고 하면 시루떡 들어간다. 성준 하려고 하면 한 켜 놔서 세 켜에 놔서 그 위에 도래떡 위로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거. 굿떡은 도래떡만 도래떡만 그렇게 해서 그거 올려놓아서 하는 거.)

107078 @ 이외에 어떤 떡들이 있었고, 언제 떡을 해 먹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이외에 어떤 떡들이 있었고, 언제 떡을 해 먹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7078 #4 성주허젠 허민 시루떡 잇어사 한다. 좁은 떡.(성주하려고 하면 시루떡 있어야 한다. 집은 떡.)

소와 고물

107079 @ 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9 #1 고물 그 속에 송편 속에 놓는 거 픗.(고물 그 속에 송편 속에 넣는 거 팥.)

107079 #1 픗도 놓고 녹디도 놓고 속에 놓는 거.(팥도 넣고 녹두도 넣고 속에 놓는 거.)

107079 @ 고물 쉬렌 허지예? 쉬.(고물 소라고 하지요? 소.)

107079 #1 쉬, 쉬 그 저 픗이나 녹디나 그레 허트는 것이 쉬.(고물, 고물, 그 저 팥이나 녹두나 거기 흩뜨리는 것이 고물.)

별식

107082 @ 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2 #1 순대를 수애렌 허지예?(순대를 '수애'라고 하지요?)

107089 @ 쉰다리[100]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쉰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9 #1 밥 쉰 거ᄀᆞ라.(밥 쉰 거보고.)

107089 @ 쉰다리, 이런 거 먹어봣지예?('쉰다리', 이런 거 먹어봤지요?)

107089 #2 다 먹어 봣지.(다 먹어 봤지.)

107090 @ 누룩 만드는 것도 헤낫수과?(누룩 만드는 것도 했었습니까?)

107090 #1 게, 누룩 만드는 것도 이제 허영 그거 놔사 술 뒌다게.(게, 누룩 만드는 것도 이제 해서 그거 놔야 술 된다.)

8. 주생활

구조

108003 @ 안커리, 밧커리, 모커리, 모커리가 뭐꽈?(안채, 바깥채, 곁채, 곁채가 뭡니까?)

108003 #2 안커리, 밧거리, 모커리옌 헌 건, 집 짓엉 들어오는 데ᄀᆞ라 모커리렌 허주.(안채, 바깥채, 곁채라고 한 건, 집 지어서 들어오는 데보고 곁채라고 하지.)

108003 @ 들어오는 데를 모커리, 그믄 삼칸칩이엿수과?(들어오는 데를 곁채, 그럼 삼간집이었습니까?)

108003 #2 어, 우리 삼간칩이라낫주게.(어, 우리 삼간집이었지.)

108003 @ 안커리, 밧커리 두 군데 이시민 삼간칩인가? 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안채, 바깥채 두 군데 있으면 삼간집인가? 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

108003 #2 그런 거 다 잇어사 집을 짓어지주게. 그 전엔 초가집 짓는 거 보민 도르레 영 세와 놩 이디 영 지둥 세우고 주춧돌.(그런 거 다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그 전엔 초가집 짓는 거 보면 도르래 이렇게 세워서 놔서 여기 이렇게 기둥 세우고 주춧돌.)

108003 @ 집 짓는 거 나중에 물어봐야겟다예. 도세기 돗통지 돼지우리에 대헤서 말해 주십시오. 도세기, 통시, 벤소?(집 짓는 거 나중에 물어봐야겠네요. 돼지 돼지우리 돼지우리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돼지, 돼지우리, 변소?)

108003 #2 통지.(돼지우리.)

108003 @ 헛간은 헛간이렌 헷수과? 외양간, 쉐왕, 물왕?(헛간은 헛간이라고 했습니까? 외양간, 소외양간, 마구간?)

108003 #2 응, 쉐왕.(응, 외양간.)

---

100) '쉰다리'는 쉰 밥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켜 만든 음식을 말한다.

108007 @ 게민 요쪽이 고팡이곡 여기가 보통 안방이꽈?(그러면 요쪽이 고방이고 여기가 보통 안방입니까?)

108007 #1 엇다게. 고팡이 안방이렌. 요디 안방. 이젠 고팡이ᄀᆞ라 안방이옌 헤낫저. 요건 큰 구들.(없다. 고방이 안방이라고. 요기 안방. 이젠 고방보고 안방이라고 했었지. 요건 큰방.)

108007 @ 큰구들, 족은구들.(큰방, 작은방.)

108007 #1 이젠 그 고팡이 안방 부엌은 저 안이 저펜이곡, 이건 저 엿날부터 ᄉᆞ칸집이여. 엿날부터 정지 저쪽에 싯고 허난이, ᄉᆞ칸 구둘 두 개허곡, 마루 정지ᄒᆞ민 ᄉᆞ칸이렌 헤낫저. 본디 본디 ᄒᆞ꼼 수랑이 크게 지어 진 집.(이젠 그 고방이 안방, 부엌은 저 안에 저편이고, 이건 저 옛날부터 사간집이야. 옛날부터 부엌 저쪽에 있고 하니까, 사간 방 두 개하고, 마루 부엌하면 사간이라고 했었지. 본디 본디 조금 길게 크게 지어진 집.)

108009 @ 그걸 장만헹 고팡에 놔. 어느 쪽이 고팡이엇수과?(그걸 장만해서 고방에 놔. 어느 쪽이 고방이었습니까?)

108009 #1 요레 영 셔난디, 이제 방 멘들아부럿저게.(요리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방 만들어버렸지.)

108014 @ 굴묵도 있었고예?('굴묵'도 있었고요?)

108014 #1 굴묵은 이디 다 굴묵 짇어낫져.(굴묵은 여기 다 '굴묵' 때었었지.)

108016 @ 물팡, 집에 있었지예?('물팡', 집에 있었지요?)

108016 #1 물팡 이제 무시거 허벅 부리는 디.('물팡' 이제 무엇 허벅 부리는데.)

108016 @ 예.(예.)

108016 # 다 셔낫저게.(다 있었지.)

108016 @ 물허벅 부리는 디.('물허벅' 부리는 데.)

108016 # 응.(응.)

108016 @ 물구덕도 부리고 대바지.('물구덕'도 부리고 '대바지'.)

108016 # 응. 거 다 물팡[101]이라고 셔낫저. 옛날엔 다.(응 거 다 '물팡'이라고 있었지. 옛날엔 다.)

108017 @ 위치가 잘도 좋아. 어디 무슨 진짜 삼싱할머니 집 딱 동산에예.(위치가 잘도 좋아. 어디 무슨 진짜 삼신할머니 집 딱 동산예요.)

108017 #1 동산이고 해 비추고이.(동산이고 해 비추고.)

108017 @ 너무 좋은 거라. 딱 처음에 들어 올 때 나무도 너무 좋고예. 얼마나 좋으꽈?(너무 좋은 거야. 딱 처음에 들어 올 때 나무도 너무 좋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108017 #1 ᄇᆞ름 불민 ᄇᆞ름 잘 들어오곡, 이녁 집이라산디 잘도 좋나게.(바람 불면 바람 잘 들어오고, 이녁 집이어서인지 너무 좋아.)

---

101)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두는 대를 말한다.

108017 @ 나무덜 베불더라고예? 운치를 더 해주곡 그늘도 뒈어 주곡?(나무들 베버리더라고요? 운치를 더 해주고 그늘도 되어 주고?)

108017 #1 엿날은이 이디 믄딱 다 낭이라낫저. 이디가 낭에 들어강 왕 다 멩글앗주. 게난 ** 아래 올래마다 폭낭 싱거낫저. 이거 살단 집이곡 잘도 좋아. 엿날은 나가 살멍 다 만들아. 저 아래 족은아방네 올레마다 폭낭 셔라. 싱경 올레마다 폭낭 셔낫저. 우리 이거 하나 싯저. 발사 잘 들어가산디 이건 안 죽언게.(옛날은 여기 몽땅 다 나무였었지. 여기가 나무에 들어가서 와서 다 만들었지. 그러니까 ** 아래 오래마다 팽나무 심었었지. 이거 살던 집이고 잘도 좋아. 옛날은 내가 살면서 다 만들어. 저 아래 작은아버지네 오래마다 팽나무 있었어. 심어서 오래마다 팽나무 있었지. 우리 이거 하나 있지. 뿌리야 잘 들어갔는지 이건 안 죽었어.)

초가 지붕이기

108028 @ 초가지붕 일 때 새하고 각단 각단은 쯔른 거?(초가지붕 일 때 띠하고 각단 각단은 짧은 거?)

108028 #2 줄 메는 거.(줄 매는 거.)

108028 @ 줄 메는 거는 각단 새는 지붕에 더끄는 거?(줄 메는 거는 '각단' 띠는 지붕에 덮는 거?)

108028 #2 더끄는 거.(덮는 거.)

108028 @ 집줄을 만들기에 대해서 진줄, 쯔른줄?(집줄을 만들기에 대해서 긴 줄, 짧은줄?)

108028 #2 쯔른 것도 잇고 진 것도 잇고.(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108028 @ 집줄 놀 때는 호렝이[102]가 필요하고 뒤치기[103]렌도 헙니까?(집줄 놀 때는 '호렝이'가 필요하고 '뒤치기'라고도 합니까?)

108028 #2 뒤치기 잇어. 뜨로 영 벨도로 앚장은에.('뒤치기' 있어. 따로 이렇게 별도로 앉아서.)

108028 @ 아아, 뒤치기도 잇고 호렝이도 잇고예?(아아, '뒤치기'도 있고, '호렝이'도 있고요?)

108028 #2 으, 뒤치기. 저 거 두 사람이 영 줄 두 개 헹 왕 뒤치기로 이제 영 감아지게시리 멘들주게.(어, '뒤치기'. 저 거 두 사람이 이렇게 줄 두 개 해 와서 '뒤치기'로 이제 이렇게 감아지게끔 만들지.)

108028 @ 고데, 집줄 메기, 집줄의 용도를 말해 주십시오. 지붕을 이렇게 더끄젠 허민 집줄이 필요한것꽈?(고데, 집줄 매기, 집줄의 용도를 말해 주십시오. 지붕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 집줄이 필요한 겁니까?)

108028 #2 으, 다 불려나지 않게 멘드는 건 이제 줄 들앙 다 메주기?(어, 다 불

---

102) '호렝이'는 줄, 참바, 집줄 따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호롱이', '훼롱', '훼롱이'라고도 한다.

103) '뒤치기'는 두 가닥의 줄을 하나의 단단한 줄을 만들 때 쓰는 도구다. '뒤차대', '뒤체', '호롱이판'이라고도 한다.

려나지 않게 만드는 건 이제 줄 달아서 다 매지?)

연장

108033 @ 집 짓는 연장 대패, 먹통, 먹줄, 이 초가집 짓는 분 혹시 살아계신 분 안 계시지예? 초가집 지을 때 대패가 어떻고? 먹통, 먹줄이 어떻고?(집 짓는 연장 대패, 먹통, 먹줄, 이 초가집 짓는 분 혹시 살아계신 분 안 계시지요? 초가집 지을 때 대패가 어떻고? 먹통, 먹줄이 어떻고?)

108033 #2 없어. 다 돌아간.(없어. 다 돌아갔어.)

9. 신앙

109006 #4 거 심방덜 큰심방덜 옹포 김씨 하르방이엔 헌 하르방 영 헹 잇어. 그 하르방 굿허레 갓단에 누게 오렌 헤연 "오라 봅서, 오라 봅서, 누님", 이 말 ᄒᆞ저 허난 "나가 심방도 아닌디 뭐허레 가느닌". 거난 "와봅서. 누님". 거난 그 하르방이 허는 말은 엿날에 엿날에 역ᄉᆞ나 우리 제주도 절산에 내려온 본향덜 본 푸는 사름이 엇일 거라고. 그 하르방이 경 ᄀᆞᆫ더라고. 허난 들음만 했지. 들어나난 육 성제여. 이 본향 할망 아기가. ᄋᆞᄉᆞᆺ 성제를 난 오망오망[104] 놔두난 얻어먹엉 살 수가 엇어 졍, 이제 제주 절산을 올르난 한로산 영산을 올라간 보난 오름도 노프고 아렌 보난 어마서리시루 허가난 어디 본향 아기 이디 앚아근에 좌정허영은에 받앙 먹으렌 헐 수가 엇엇거든. 막 노픈 선싱덜이거든. 산신, 다, 산신, 칠성, 오백장, 구안당, 경허난 어마가 엇지. 경허난 이젠 그 본향아기가 본향 아이놩 어멍이 허는 말은 검악 아래 이제 이 질ᄀᆞ에 본향 ᄒᆞ꼼 시여. 영 섬피낭 걸쳐졍. 본향도 경 뭐 좋질 안허여. 금악질로 영 내려오믄 영 이쪽더레 영 헌 영 섬피낭 줄걷은 그 아래가 이서. 그레나 오일본향이 그건 오일본향으로 좌정햇어. 좌정허곡 게난 두 번쨋 뚤은 나 아까 안 ᄀᆞᆯ아냐? 저 당ᄆᆞᆯ, 당ᄆᆞᆯ오름[105]이 크주게. 당산이 커.(거 '심방'들 큰'심방'들 옹포 김씨 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있어. 그 할아버지 굿하러 갔다가 누구 오라고 해서 "와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누님", 이 말 하려고 하니까 "내가 '심방'도 아닌데 뭐하러 가느냐". 그러니까 "와 보십시오. 누님"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옛날에 옛날에 역사나 우리 제주도 절산에 내려온 '본향'들 본 푸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니까 듣기만 했지. 들어보니 육 형제야. 이 본향 할머니 아기가. 여섯 형제를 낳아서 올망올망 놔두니까 얻어먹어서 살 수가 없어져서, 이제 제주 절산을 오르니까 한라산 영산을 올라가서 보니깐 오름도 높고 아래는 보니까 어마어마해(?) 해가니까 어디 본향 아기 여기 앉아서 좌정해서 받아서 먹으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 막 높은 선생들이거

104) '오망오망'은 사람이나 물건이 졸망졸망하게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105) '당ᄆᆞᆯ오름'은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오름이다.

든. 산신, 다, 산신, 칠성, '오백장', '구안당',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없지. 그렇게 하니까 이젠 그 본향 아기가 본향 아니 놔서 어머니가 하는 말은 금악 아래 이제 이 길가에 본향 조금 있어. 이렇게 '섬피나무' 걸쳐져서. '본향'도 그렇게 뭐 좋지를 안 해. 금악 길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 이렇게 '섬피나무' 줄 걷은 그 아래가 있어. 거기나 '오일본향'이 그건 '오일본향'으로 좌정했어. 좌정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딸은 "나 아까 안 말했니? 저 저지, 저지오름이 크지. 당산이 커.")

109006 @ 당ᄆᆞᆯ[106]? 어디 이수과?('당ᄆᆞᆯ'? 어디 있습니까?)

109006 #4 어, 본향도 커.(어, 본향도 커.)

109006 @ 금악?(금악?)

109006 #4 그 당ᄆᆞᆯ, 당ᄆᆞᆯ이옌 헌디, 저지.(그 '당ᄆᆞᆯ', '당ᄆᆞᆯ'이라고 한데, 저지.)

109006 @ 저지.(저지.)

109006 #4 어, 저지허믄 당ᄆᆞᆯ. 그냥 니네 그디 갈 필요가 엇거든. 그 당 ᄎᆞ지해 영 온 사름 그 본향 아기덜은 다 그 본향이 ᄆᆞᆫ딱 다 ᄃᆞᆯ아졍 문서 끼영 "영 무싱것과?" 허난에 "요 본향이여" 허난 그 아이덜도 일 아니허는 아이난에 본향이 뭣입니까 헹 물거든. 경 물으난 ᄀᆞᆯ을 필요도 엇고 너넨 알 수가 엇다. 영 헨 안 ᄀᆞᆯ아주어렌. ᄀᆞᆯ아주지 안 헌다. 경 싀 번째 ᄯᆞᆯ은 어디옌 허난 차귀섬, 저 고산으로 고산오름에 당도 짓곡 그 할망이 이건 질ᄀᆞ에 일만 백성들 뎅기는 찻질이고 할망은 ᄒᆞ꼼 영 기실어져. 영 돌 바우에 나난 잘 이제 문 ᄃᆞᆯ고 잘 해놨더라고. 그 차 탕 가멍 보난 본향 할망이옌 허영 보난 문 ᄃᆞᆯ고 잘해서라. 게난 싀번째 ᄯᆞᆯ은 어디로 나난 저 신창 거무질이옌 헌다. 거무본향, 거멍해난 이제 느치제 질치제로 막 지치멍 살당 이젠 그디도 막 담우의 막 집 잘 짓어 놔서라.(어, 저지하면 '당ᄆᆞᆯ'. 그냥 너네 거기 갈 필요가 없거든. 그 당 차지해서 이렇게 온 사람 그 본향 아기들은 다 그 본향에 몽땅 다 매달려서 문서 끼워서 "이렇게 무슨 겁니까?" 하니까 "요 본향이야" 하니까 그 아이들도 일 안하는 아이니까 본향이 뭐입니까 해서 묻거든. 그렇게 물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너넨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말해줬다고. 말해주지 안 한다. 그렇게 세번째 딸은 어디냐고 하니까 차귀섬, 저 고산으로 고산오름에 당도 짓고 그 할머니가 이건 길가에 일만 백성들 다니는 찻길이고 할머니는 조금 이렇게 기실어져. 이렇게 돌 바위에 나니까 잘 이제 문 달고 잘 해놨더라고. 그 차 타서 가면서 보니까 본향 할머니라고 해서 보니까 문 달고 잘했더라. 그러니까 세번째 딸은 어디로 나니까 저 신창 '거무질'이라고 한다. 거무본향, 거매니까 이제 '느치제 질치제'로 막 지치면서 살다가 이젠 거기도 막 담위에 막 집 잘 지어 놨더라.)

109006 @ 월령 사람덜이 댕겼던 판포 본향당[107]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서.(월령 사람들이 다녔던 판포 본향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6 #4 판포당은 ᄒᆞ꼼 추접허여. 그 옛날에 그냥 당만 헤여넹에 그디도 잘해

106) '당ᄆᆞᆯ, 당ᄆᆞ르. 당ᄆᆞ를. 닥ᄆᆞᆯ'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큰 동네'의 이름이다.
107) '판포 본향당'는 판포리 마을의 본향을 모신 당을 말한다.

놔시민 막 좋은 딘디. 야 우리도 그 판포당에 가진다. 가진다만은 이제 나 하고 이제 나가믄 본향할망한티 본향할망도 절 받젠허믄 어수에[108]허곡. 우리도 이제 본향할망한티 절 헐 수가 어수에허곡. 이제 나 하가가믄 본향[109]도 다 철변허느녜 철수허느네. 경허난 본향행 가렌허믄 이녁가난 그릇덜 밥 마지 졍 그딘 돗궤기 먹나 이 판포당은 게믄 궤기허영 강은에 젓갈 공양허연 올령 물색[110]허곡. 물색허연 간 사람 판포 사람덜은 물색 안 헌다. 우린이 본대 그 물색을 허영이 저 육지 섬에도 살 때 저 요왕기도 가믄 물색 헤영 올려 불쏘시로 올려. 경헤난 가믄 돈 천 원 둘리곡 허영 경 헤영은에 올령 그자 오널ᄁᆞ장은 건강허곡 경 헹은에 헷주만은 이제사 가지느냐 나가 하세. 하르방 올리 구십, 나 팔십 아니가? 게난 경 가지느냐? 올히나 강 오믄 나 눈 생전 산 때 본향은이 ᄌᆞ식덜에 던데허지 말렌 이녁 살아실 적에 강 본향할망한티 강 할마니 영영 헹 허곡, 만대 ᄌᆞ손덜 천대 ᄌᆞ손덜 나가 살아실 적에 봄으로써 허시난 하다 나 죽엉 저싱땅에 가도 하다 이 ᄌᆞ손덜에 거시게 허지 맙서. 건 이젠 아기덜 신식이 뒈난, 이 본향이 모시영 영 헤냐? 할망한티 절허레 올 수가 싯수가? 영 헹 젊은 소녀로양 할마님 하직 헙서. 경 헤 뒁 온다. 어, 문딱 그 ᄌᆞ끗더레 강 요영 뒤터레 강 곱게 엎어뒁, 경허여. 바구리나 차롱이나 어정뎅겨난 것도 그레 강은에 경허는 거. 경허영 느네 젊은 아으덜 잘 들어 경 헤사 된다. 그루후제 본향이나 당이나 뎅겨나믄 깨끗이 못허게시리.('판포당'은 조금 추접해. 그 옛날에 그냥 당만 해서 거기도 잘해 놨으면 막 좋은덴데. 야 우리도 그 '판포당'에 가진다. 가진다만 이제 나하고 이제 나가면 '본향 할망'한테 '본향 할망'도 절 받으려고 하면 '어수에'하고. 우리도 이제 '본향할망'한테 절 할 수가 '어수에'하고. 이제 나이 많아 가면 '본향'도 다 철변하네. 철수한다고. 그러니까 '본향'해서 가라고 하면 이녁 갔던 그릇들 밥 잘 지어서 거긴 돼지고기 먹나. 이 '판포당'은 그러면 고기해 가서는 적 공양해서 올렸어. '물색'하고. '물색'해서 간 사람 판포사람들은 '물색' 안 한다. 우린 본래 그 물색을 했어. 저 육지 섬에도 살 때 저 용왕기도 가면 '물색' 해서 올려. 불쏘시게로 올려. 그렇게 해나니까 가면 돈 천 원 달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서 그저 오늘까지는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야 가지느냐? 나이가 많네. 할아버지 올해 구십, 나 팔십 아니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느냐? 올해나 가서 오면 나 눈 생전 산 때 '본향'은 자식들에 '던데'하지 말라고 이녁 살았을 적에 가서 '본향 할망'한테 가서 할마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만대 자손들, 천대자손들 내가 살아있을 적에 봄으로써 했으니까 부디 내가 죽어서 저승 땅에 가도 부디 이 자손들에 거시게 하지 마세요. 그건 이젠 아기들 신식이 되니까, 이 '본향'이 모셔서 이렇게 해냐? 할머님한테 절하러 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젊은 소녀로 할마님 하직하세요. 그렇게 해 두고 온다. 어, 모두 그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뒤에 가서 곱게 엎어두고, 그렇게 해. 바구니나 채롱이나 가져 다녔던 것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느네 젊은 아이들 잘 들어. 그렇게 해야 된다. 그 후로 '본

108) '어수에'는 일없이 어정거리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109) '본향'은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신을 말한다.
110) '물색'은 당에 내거는 색깔 있는 천이나 백지 따위를 말한다.

향’이나 당이나 다녔으면 깨끗이. 못하게끔.)

109006 @ 그난 정월 메칠 날 그 본향 츳아갑니까?(그러니까 정월 며칠 날 그 본향 찾아갑니까?)

109006 #4 당에? 멩질날만 가는 거여 가근에.(당에? 명절날만 가는 거야. 가서는.)

109006 @ 일월 일일?(일월 일일?)

109006 #4 이 정월 초ᄒᆞ를날.(이 정월 초하룻날.)

109006 @ 우리 고내허고 똑같다예. 나 고향 고내. 애월읍 고내. 그디도 정월일일 날에 굿허여. 똑같아.(우리 고내하고 똑같네요. 내 고향 고내. 애월읍 고내. 거기도 정월 일일 날에 굿해. 똑같아.)

109006 #4 애월?(애월?)

109006 @ 고내.(고내.)

109006 #4 아, 고내? 애월은 엇다. 본향 엇다. 옛날 시여낫주만 그 이영창[111] 목사가 오랑 만딱 절수꾸 쎄여부러세.(아, 고내? 애월은 없다. 본향 없다. 옛날 있었지만 그 이영창 목사가 와서 모두 절이랑 파괴해 버렸네.)

109006 @ 애월도.(애월도.)

109006 #4 게난 어떵헨 그 문 당도 곱게 모산 빌레 트멍에 일로 물 싸민 저영 끗어비곡, 영허믄 또 들므로 펄랑, 동네 펄랑동네난 그 본향이 이제 들어가는 금문 영 들어가민 할망덜 하르방덜 영 양 어깨에 영 츳앙 보라. 그디 엇건.(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문 당도 곱게 모셔서 너럭바위 틈에 이리로 물 써면 저리로 끌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들면서 ‘펄랑’, 동네 ‘펄랑동네’니까 그 본향이 이제 들어가는 금문 이렇게 들어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양 어깨에 이렇게 찾아 봐라. 거기 없거든.)

109006 @ 만들어십디다.(만들어십디다.)

109006 #4 어, 본향 좋아. 하르방 본향, 하르방은 뒈야지고기를 먹고, 할망은 뒈야지고기를 안 먹으난 하르방당은 웃당, 알당은 할망. 막, 니 구경 그디 아년댜?(어, 본향 좋아. 할아버지 본향, 할아버지는 돼지고기를 먹고, 할머니는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할아버지당은 윗당, 아랫당은 할머니. 막, 너 구경 거기 안했니?)

109006 @ 헷수다.(했습니다.)

109006 #4 허연? 좋아네이? 응 볼만헌다.(했어? 좋았어? 응, 볼만해.)

109006 @ 웃당은 우에 이시난 웃당?(윗당은 위에 있으니까 윗당?)

109006 #4 할망. 이쪽엔 할망, 아랜 하르방. 이쪽으로 영 들어가잖여. 그건 하르방당. 영감이난 돗궤기 먹어. 그딘 꼭 헤영 가사. 게난 니 고내가?(할머니. 이쪽에는 할머니, 아랜 할아버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건 할아버지당. 영감이니까 돼지고기 먹어. 거긴 꼭 해서 가야. 그러니까 너 고내가?)

109006 @ 예.(예.)

---

111) 구술자는 이형상 목사를 ‘이영창’ 목사로 잘못 구술했다.

109006 #4 멩질 헤영 먹엉 간? 멩질 다 지, 메 ᄇᆞ려동 간.(명절해서 먹어서 갔니? 명절 다 제, 메 버려두고 갔어.)

109006 @ 할머니 옛날에 경헙디다.(할머니 옛날에 그렇게 합디다.)

109006 #4 어, 집의 만딱 벌여동 허여동 장에 강 온다. 경헤난. 옛날식 헴지이.(어, 집에 몽땅 벌여두고 해두고 장에 가서 온다. 그렇게 했어. 옛날식 하고 있지.)

109006 @ 할머닌 보름에 고내봉에 갑디다. 할망당에. 고내봉에도 잇어. 고내봉.(할머닌 보름에 고내봉에 갑디다. 할머니당에. 고내봉에도 있어. 고내봉.)

109006 #4 아, 할머니 셔냐?(아, 할머니 계시냐?)

109006 @ 예.(예)

109006 #4 게. 양 부처 어신디가 엇주게.(게. 양 부처 없는 데가 없지.)

109006 @ 그리고 고내 본향당은 바닷가에 이신디,(그리고 고내 '본향당'은 바닷가에 있는데,)

109006 #4 어, 건 개당.(어, 건 개당.)

109006 @ 장수라 막. 건 김통정 장군 무신 무신.(장수라 막. 건 김통정 장군 무슨 무슨.)

109006 #4 것도?(것도?)

109006 @ 예. 김통정 장군을 이겨버린 그런 황 장군이렌 헤신가?(예. 김통정 장군을 이겨버린 그런 황 장군이라고 했는가?)

109006 #4 하르방, 할망 당이라.(할아버지, 할머니 당이야.)

109006 @ 하르방 닮아, 세 명이라.(할아버지 같아, 세 명이야.)

109006 #4 삼 부처?(삼 부처?)

109006 @ 예. 아마 고내가 그럴 거우다.(예. 아마 고내가 그럴 겁니다.)

109006 #4 게믄 하르방이 각시 싀 개라낫저. 삼 본향 치믄.(그러면 할아버지가 각시 세 개였지. 삼 본향 치면.)

109006 @ 기꽈?(그렇습니까?)

109006 #4 응. 이게 영 헌다. 개끗디 요왕당.(응. 이게 이렇게 한다. 갯가 '용왕당'.)

109006 @ 요왕?(용왕?)

109006 #4 응. 용왕당. 거 하난 요왕. 선왕당, 선왕당. 바당에 물질허곡이, 바당에덜 고기잡는. 선왕당. 두 부처믄 영감 할망. 거난 할망 가난 니도 가산다. 영 뎅기멍. 경헤사 집서도 고와 뎅기는 디도 선왕[112]이고. 본향에 강 왕 보라. 막 재수 좋곡, 가도 그자 어떵사 헹 감신딘 몰라도 그 할망 엿날에 느네 할망 허여난 줄리만 내우라게. 그 줄리 덧내우지도 말곡. 궤기 먹어나믄, 이 본향도 경흔다. 멩질 땐 문딱 집이 벌여뒁도 가는 사름, 멩질 다 지내엉 가는 사름, 경흔다. 영허난 할망 헤나건 그자 멩질 전이 허영 강 오건 강 오곡, 또 멩질 먹엉 다 과세로 가는 거야. 이건, 과세 우리 인간 ᄀᆞ트민 과세 "할머니 안녕헷수과? 하르버지 안녕헷수과?" 영허

112) '선왕'은 선앙으로 무속에서 배를 차지하고 있는 신을 말한다.

는 시작허는 체격으로, 거 과세법. 잘 뎅겨. 경허민 니도 막 재수 좋고 경헌다. 경허당 후제랑 나하고. 이젠이 심방 할망덜 둘앙 가젱 헤도 둘앙 갈 사름이 엇어. 다 죽어 저싱 가부난. 게난 이녁 냥으로 강 그자 허영 메, ᄒᆞ여난 보시에 이제 콩나물, 다 헤여난 접시랑 접시, 메 헤영 가느냐? 밥 사발에.(응 용왕당. 거 하나는 용왕. '선왕'당, '선왕'당. 바다에 물질하고 이, 바당에들 고기잡는. '선왕'당. 두 부처면 영감 할망. 그러니깐 할망 가니깐 너도 가야한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집에서도 고와 다니는 데도 '선왕'이고. '본향'에 가서 와서 봐라. 막 재수 좋고, 가도 그저 어떻게야 해서 가는지 몰라도 그 할머니 옛날에 너네 할머니 했던 줄리(?)만 내우라게. 그 '줄리(?) 덧내우지도 말고. 고기 먹어나면 이 '본향'도 그렇게 한다. 명절 땐 모두 집에 벌여두고도 가는 사람, 명절 다 지내어서 가는 사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해 나면 그저 명절 전에 해서 가서 오건 가서 오고, 또 명절 먹어서 다 과세로 가는 거야. 이건, 과세 우리 인간 같으면 과세 "할머니 안녕했습니까? 할아버지 안녕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시작하는 법으로 거 과세법. 잘 다녀. 그렇게 하면 막 재수 좋고 그런다. 그렇게 하다가 이후는 나하고. 이젠 심방 할망들 따라가려고 해도 데려 갈 사람이 없어. 다 죽고 저승 가버리니까. 그러니깐 자기 스스로 가서 거저 해서 메, 하니까 보시기에 이제 콩나물, 다 하니깐 접시랑 접시, 메 해서 가느냐? 밥사발에.)

109006 @ 보싯메[113].('보싯메'.)

109006 #4 보싯메? ᄋᆞ. 거믄 이제 보시도 후제 나 하민 그때랑 이녁 뎅기는 날ᄁᆡ장 뎅기당 그디 강 본향 할망 ᄌᆞ끗디 강 헐려사 하르방 ᄌᆞ끗디 강 허믄 안 뒈여. ᄋᆞ 경 하직헤영 소지 종이에 헹 강, 영헤영 그자 술곡, 물색 ᄒᆞ끔썩 거 싀 개, 영 ᄆᆞᆯ아진 거 있잖아? 이 포목집 거시긴가 그거 어졍강은에 그자 ᄆᆞ는 종이에 ᄆᆞᆯ앙 이름 씨곡 허영 그냥 우리 영 나 하부난 "죄책헹 하직허레 왓수다." 경헹 절허믄 몬 펜안헌다. 경허믄 일 년에 두 ᄃᆞᆯ은 펜안헌다. 경헤보라. 니도 본향에 뎅겸구나게. ('보시기메', 어, 그러면 이제 보시기도 후에 나이 많으면 그때는 이녁 다니는 날까지 다니다가 거기 가서 본향 할머니 곁에 가서 헐어야 할아버지 곁에 가서 하면 안돼. 응, 그렇게 나이 들면 그때랑 이녁 다니는 날까지 할머니가 간다. 가서 헐어야 할아버지 가까운 데 가서 하면 안 돼. 가져서 하직해서 소지 종이에 해서 가서 이렇게 해서 거저 사루고, 물색 조금씩 그거 세 개 이렇게 말아진 거 있잖아? 이 포목점 거시긴가? 그거 가져서 가서는 거저 마는 종이에 말아서 이름 쓰고 해서 그냥 우리 이렇게 나이 많아 버리니까 "죄책해서 하직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하면 막 편안한다. 그렇게 하면 일 년에 두 달은 편안해. 그렇게 해봐라. 너도 본향에 다니고 있구나.)

109006 @ 할머니가 뎅겻주, 나야.(할머니가 다녔지, 나야.)

109006 #4 응? (응?)

109006 @ 할머니가 옛날 어렸을 때. 게믄 굿헐 때 강 뭐 얻어먹젠게.(할머니가

113) '보시메'는 신에게 제물로 올리기 위하여 보시기에 담은 밥을 말한다.

옛날 어렸을 때. 그러면 굿할 때 가서 뭐 얻어먹으려고.)

109006 #4 게난 멧 해에, 그디 본향은 니가 출발혜연?(그러니까 몇 해에, 거기 본향은 네가 출발했어?)

109006 @ 난 안가고 그 할머니만 옛날 옛날 구십두 살에 돌아가시난 할머니 돌아가신지도 오래되신디.(난 안 가고 그 할머니만 옛날 옛날 구십두 살에 돌아가시니까 할머니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는데.)

109006 #4 아, 닌 안 뎅견?(아, 넌 안 다녔어?)

109006 @ 예.(예.)

109006 #4 안 뎅겻건 허지 말라. 시작허지 말라. 시작허지 마라. 거 어떵 헹 줄 이어 나올디? 니가 가고 싶으경 멩질날 거 할망해난 그 일 년 열두 둘 퉤믄 일 돌아오는 냥 그자 지주나 흔 잔 ᄋᆞ졍 가곡 ᄒᆞ영 강 과일이나 흔 접시 ᄋᆞ졍 강 벌렁 영영 벌렁 영영 경 혜불라. 할망 크게 뎅겨나신게. 할망 본향에 가도.(안 다녔거든 하지 마라. 시작하지 마라. 시작하지 마라. 거 어떻게 해서 줄 이어 나올래? 네가 가고 싶으면 명절날 거 할머니 했던 그 일 년 열두 달 되면 일 돌아오는 대로 그저 제주나 한 잔 가져서 가서 과일이나 한 접시 가져서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버려라. 할머니 크게 다녔었네. 할머니 본향에 가도.)

109006 @ 멩월, 학교 이수게? 한림고등학교. 그디 멩월할망당이 이십디다. 학교에.(명월, 학교 있습니다? 한림고등학교. 거기 '명월할망당'이 있습디다. 학교에.)

109006 #4 하르방당은 그거 영감당.(할아버지당은 그거 '영감당'.)

109006 @ 아, 그 학교에 이신 당은 하르방당이꽈?(아, 그 학교에 있는 당은 할어버지당입니까?)

109006 #4 어. 한수리?(어. 한수리?)

109006 @ 멩월, 멩월.(명월, 명월.)

109006 #4 멩월? 아이구 이제 넘도록 왈랑왈랑허는 영감당 아니가?(명월? 아이고 이제 넘도록 왈랑왈랑하는 '영감당' 아니가?)

109006 @ 학교 이신 디가 영감당[114]이꽈?(학교 있는 데가 '영감당'입니까?)

109006 #4 사름덜 막 모시는디.(사람들 막 모시는데.)

109006 @ 판포? 메칠날 가 일월? 당 춧아갑니까?(판포? 며칟날 가? 일월? 당 찾아갑니까?)

109006 #4 정월 초ᄒᆞ룻날 판포당 간다. 궤기 먹은 당.(정월 초 하루날 판포당 간다. 고기 먹은 당,)

10. 세시풍속

1월

114) '영감당'은 영감은 모든 도깨비를 높이 이르는 말로 도깨비를 모시는 당을 말한다.

111005 @ 점쟁이를 찾아가 과거를 알아보고 앞날의 운수, 기동을 알아보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점쟁이를 찾아가 과거를 알아보고 앞날의 운수, 기동을 알아보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110005 #1 점장이, 뭣이엔 허느니? 점. 점.(점쟁이, 뭐라고 하니? 점. 점.)

111005 @ 점을 치는 사람은?(점을 치는 사람은?)

110005 #1 점장이? 뭐시라 거?(점쟁이? 뭐야 거?)

111005 @ 집안에 탈이 엇도록 심방을 불러 가신들을 위로하는 일을 뭐라고 헙니까?(집안에 탈이 없도록 심방을 불러 가신들을 위로하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110005 #1 심방[115]?('심방'?)

111005 @ 안택?(안택?)

110005 #1 음, 안택? 정월 나믄덜이. 안택.(음, 안택? 정월 나면들. 안택.)

111005 @ 옛날엔 헤낫수과?(옛날엔 했었습니까?)

110005 #1 허여낫저. 옛날엔.(했었지. 옛날엔.)

2월

111009 @ 이월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여자 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이월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여자 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10009 #1 영등[116].('영등'.)

110009 @ 예. 영등할머니렌 헙니까?(예. '영등할머니라고 합니까?)

110009 #1 영등할망이옌 헌다게.(영등할머니라고 한다.)

4월

110013 @ 초파일날은 무슨 날인지 알아마씨?(초파일날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110013 #1 초파일날이 거 무싱거 허는 날고? 잊어불엉 모르켜.(초파일날이 거 무엇 하는 날이고? 잊어버려서 모르겠다.)

110013 @ 초파일날?(초파일날?)

110013 #1 무싱거 허는 날이민, 어디 잊어불엉 알아지크라?(무엇 하는 날이면, 어디 잊어버려서 알겠어?)

110013 @ 부처님 오신 날.(부처님 오신 날.)

110013 #1 맞다. 맞다. 음, 초파일날.(맞다. 맞다. 음, 초파일날.)

5월

110015 @ 오월 오일은 무엇이라고 헙니까? 음력.(오월 오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음력.)

110015 #1 단오.(단오.)

115) '심방'은 제주도에서 무당을 이르는 말이다.

116) '영등'은 영등 신, 영등할망을 말하고, 이는 제주에서 음력 2월1일에 입도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의 이름이다.

110015 @ 단오멩절에는 뭐 안 헤낫수과?(단오명절에는 뭐 안 했습니까?)

110015 #1 단오멩절이옌덜은 골아낫져마는 몰르켜. 뭣사 헤져신디.(단오명절이라고들 말했었지만 모르겠어. 뭐야 했었는지.)

7월

110021 @ 칠석날에는?(칠석날에는?)

110021 #1 칠석날은, 몰라게. 법당 뎅기는 사람은 칠석날 가지 안 허느냐? 어떵 허느니?(칠석날은, 몰라. 법당 다니는 사람은 칠석날 가지 안 하니? 어떻게 하느냐?)

110021 @ 백중제?(백중제?)

110021 #1 백중날은 또 다 그런 것덜은 들어낫저마는 뭣사 허는 것산디.(백중날은 또 다 그런 것들은 들었었지만 뭐야 하는 것인지.)

110023 @ 백중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는 것을 무엇이라고 헙니까?(백중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10023 #1 백중.(백중.)

110023 @ 물맞이?(물맞이?)

110023 #1 백중.(백중.)

110023 @ 물 맞는 거, 들어 봣수과?(물 맞는 거, 들어 봤습니까?)

110023 #1 응. 물 맞넨 헌다.(응. 물 맞는다고 한다.)

110023 @ 물 맞는다고, 물맞이? 더운 모래로 찜질 하는 것은? 모래찜질, 들어봣수과?(물 맞는다고, 물맞이? 더운 모래로 찜질 하는 것은? 모래찜질, 들어 봤습니까?)

110023 #1 모래찜질. 응게. 모살찜질이라고이.(모래찜질. 응. 모래찜질이라고.)

8월

110025 @ 벌초?(벌초?)

110025 #1 벌초 벌초사게 산에.(벌초 벌초야 묘소에.)

110025 @ 다 같이 갓수과?(다 같이 갔습니까?)

110025 #1 게. 벌초허레사 산에서 거 무싱 거 허는 거. 조상님덜 거.(그럼. 벌초하러야 묘소에서 거 무엇 하는 거. 조상님들 거.)

110025 @ 몃 군데 벌초 헷수과?(몇 군데 벌초 했습니까?)

110025 #1 응라밧디 헌다게. 우리 아덜덜 허주. 이젠 늙엉 나 안 가고, 이제도 무사?(여러 군데 한다. 우리 아들들 하지. 이젠 늙어서 나 안 가고, 이제도 왜?)

110025 @ 무싱거 헷수과?(무엇 했습니까?)

110025 #1 벌초 헴시네. 이제덜도. 확실이 조상덜 다 헌다게.(벌초 하고 있어. 이제들도. 확실히 조상들 다 한다.)

110025 @ 옛날에는 여자덜도 다 뭐 밥도 헹 가고, 옥돔도 하나 구웡가고.(옛날

에는 여자들도 다 뭐 밥도 해서 가고, 옥돔도 하나 구워서 가고.)

110025 #1 경허난게. 경 헤영 먹을 거게. 그레 올리지 안 해도이. 먹을 거, 그디 벌초 왕 먹을 거, 이제도 벌초 헴세. 그 경 헤야지. 조상님덜, ᄌᆞ손덜.(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을 거, 거기에 올리지 안 해도. 먹을 거, 거기 벌초 와서 먹을 거. 이제도 벌초 하고 있어. 그 그렇게 해야지. 조상님들, 자손들.)

110025 @ 옛날에는.(옛날에는.)

110025 #1 먹을 거 이제도 벌초헴저. ᄌᆞ손덜.(먹을 거 이제도 벌초 하고 있어. 자손들.)

110026 @ 팔월 십오일 날, 음력 팔월 십오일을 뭐렌 헴수과?(팔월 십오일 날, 음력 팔월 십오일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0026 #1 멩절 아니가? 팔월 십오일 날.(명절 아니가? 팔월 십오일 날.)

110026 @ 무슨 멩절이렌 헙니까?(무슨 명절이라고 합니까?)

110026 #1 팔월? 추석가? 뭣고?(팔월? 추석이냐? 무엇이냐?)

110026 @ 추석.(추석.)

110026 #1 팔월은 추석가? 정월은? 정월에 허는 건?(팔월은 추석이냐? 정월은? 정월에 하는 건?)

110026 @ 설이고.(설이고.)

110026 #1 설이고, 맞아이.(설이고, 맞아.)

110026 @ 추석 멩절이렌 헙니까?(추석 명절이라고 합니까?)

110026 #1 맞아. 추석이옌 허여.(맞아. 추석이라고 해.)

11. 놀이

실뜨기

111036 @ 실뜨기, 실뜨기.(실뜨기, 실뜨기.)

111036 #4 거 실 허영 정허영은에 영허영 졸라매는거, 건 몰르커라. 영허영으네 영 뒈씨고 영허곡 그꼿장은 헤낫어, 우리.(거 실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졸라매는 거, 건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하고, 그까지는 했었어, 우리.)

윷놀이

111053 @ 윷가락은 어떻게 준비합니까?(윷가락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53 #2 여자덜 허는 거 봔.(여자들 하는 거 봤어.)

111053 @ 윷놀이 종류는 어떤 것이 잇습니까? 종지와 윷판은 어떻게 준비합니까?(윷놀이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지와 윷판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53 #2 아, 저 넉둥베기라고 허는디.(아, 저 넉동내기라고 하는데.)

111053 @ 넉둥베기 애기 때도 헷엇수과? 나중에 놀음으로 헌 거 아니?(넉동내기애기 때도 했었습니까? 나중에 놀음으로 한 거 아니?)

111053 #2 바로 곧 함은 오락으로도 허는디, 나중에 뒈가난 다 놀음판게.(바로 곧 한 건 오락으로도 하는데, 나중에 돼가니까 다 놀음판.)

111053 @ 어렷을 때 넉둥베기 헤낫수과?(어렸을 때 넉동내기 했습니까?)

111053 #2 헤낫지. 애기 때. 헤낫지 애기 때.(했었지. 아기 때. 했었지 아기 때.)

111053 @ 게민 어떵 만듭니까? 무슨 나무로?(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무슨 나무로?)

111053 #2 아무 나무라도 만드는디 나무로 요만썩 헹은에 그걸 방돌락허게 헹은에 반뜩이 갈라가지고 걸로 늬 개 멘들거든. 갈라진 거 두 개 방돌락헌 거 두 개만 허믄 늬 개 뒈거든. 그거 갈랑 멘들앙 종지에 그거 담아가지고 윷을 율주기.(아무 나무라도 만드는 데 나무로 요만큼씩 해서 그걸 동그랗게 해서 반듯이 갈라가지고 그걸로 네 개 만들거든. 갈라진 거 두 개 동그란 거 두 개만 하면 네 개 되거든. 그거 갈라서 만들어서 종지에 그거 담아가지고 윷을 놓지.)

111054 @ 많이 헤낫수과?(많이 했었습니까?)

111054 #2 많이 헤봇어.(많이 해봤어.)

팽이치기

111059 @ 팽이?(팽이?)

111059 #2 펭이도 헤보고 저 거 패로 치멍 거.(팽이도 해보고 저 거 패로 치면서 거.)

111059 @ 패로 치멍 어떵 만들어마씨?(패로 치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111059 #2 것도 나무로 갂앙.(그것도 나무로 깎아서.)

111059 @ 헤봇수과? 직접?(해봤습니까? 직접?)

111059 #2 응. 어릴 때 장난이옌 헌 건 잘 헤봇주게.(응. 어릴 때 장난이라고 한 건 잘 해봤지.)

111059 @ 응. 게믄 아무 때나 헙니까? 겨울에 헙니까?(응. 그러면 아무 때나 합니까? 겨울에 합니까?)

111059 #2 팽이 겨울에게.(팽이 겨울에게.)

111062 @ 팽이를 잘 돌게 허기위해선 어떤 방법이 잇습니까?(팽이를 잘 돌게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111062 #2 거, 치기를 잘 쳐야 뒈주. 줄로 착착하게.(거, 치기를 잘 쳐야 되지. 줄로 착착하게.)

111063 @ 팽이?(팽이?)

111063 #2 팽이도 헤보고 저 거 패로 치멍 거.(팽이도 해보고 저 거 채로 치면서 거.

111063 @ 패로 치멍 어떵 만들어마씨?(채로 치면서 어떻게 만들어요?)

111063 #2 것도 나무로 깍앙.(그것도 나무로 깍아서.)

111063 @ 헤봣수과? 직접.(해봤습니까? 직접.)

111063 #2 응. 어릴 때 장난이옌 헌 건 잘헤봣주게.(응. 어릴 때 장난이라고 한 건, 잘해봤지.

111063 @ 응. 게믄 아무 때나 헙니까? 겨울에 헙니까?(응. 그러면 아무 때나 합니까? 겨울에 합니까?)

111063 #2 팽이? 겨울에게.(팽이? 겨울에.)

111063 @ 팽이는 뭔 나무로?(팽이는 무슨 나무로?)

111063 #2 아무 나무라도 헤어.(아무 나무라도 해.)

111063 @ 패가 뭐꽈?(채가 뭡니까?)

111063 #2 나무로. 영 이만이헌 걸로 헹은에 이 끗댕이 뭐 저 무신 줄 험벅 줄이 좋긴 좋아. 줄로 헹은에 치주기, 착착.(나무로. 이렇게 이만큼 한 걸로 해서 이 끄트머리 뭐 저 무슨 줄 헝겊 줄이 좋긴 좋아. 줄로 해서 치지. 착착.)

111063 @ 줄로 치고 팽이 싸움이렌도 헙니까?(줄로 치고 팽이 싸움이라고도 합니까?)

111063 #2 팽이싸움 허주게.(팽이싸움 하지.)

111063 @ 양창보 어른네영도 많이 헷겟다예?(양창보 어른네하고도 많이 했겠네요?)

111063 #2 응.(응.)

111063 @ 그 집도 그데로 그 집이엇수과? 거기도.(그 집도 그대로 그 집이었습니까? 거기도.)

111063 #2 거긴 그 집이엇주기.(거긴 그 집이었지.)

111063 @ 무슨 나무로 허든, 뭐든 그런 건 관계엇고?(무슨 나무로 하든, 뭐든 그런 건 관계없고?)

111063 #2 관계엇고 줄이다예.(관계없고 줄이네요.)

111063 @ 팽이 가운데 무신 거? 쉐 박습니까? 뭐.(팽이 가운데 무슨 거? 쇠 박습니까? 뭐.)

111063 #2 쉐 박는 사람도 싯고. 그냥 낭이 센 낭으로 멩근 건 그냥 헤여. 치길 잘 쳐야 그놈이 것이 잘 돌아.(쇠 박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무가 센 나무로 만든 건 그냥 해. 치기를 잘 쳐야 그놈이 것이 잘 돌아.)

'뻥이치기'

111072 @ 뻥이치기 헤봣덴 헷지예?(삘기치기 해봤다고 했지요?)

111072 #2 응.(응.)

111072 @ 뻥이 뽑앙 이기민 지가 갖고?(삘기 뽑아서 이기면 저가 갖고?)

111072 #2 응.(응.)

111072 @ 어느 밧디 강은에 아이들끼리 돌아뎅기멍 뻥이 빠 먹는덴 헙니까?(어

느 밭에 가서 아이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삘기 뽑아 먹는다고 합니까?)
111072 #2 뻥이 빠 먹는.(삘기 뽑아 먹는.)
111073 @ 승부는 어떻게 가립니까?(승부는 어떻게 가립니까?)

그네뛰기

111081 @ 그네뛰기는 어떵 헙니까?(그네뛰기는 어떻게 합니까?)
111081 #4 에, ᄒᆞᄁᆞ만헌 낭 이제 다 끈 부난이주. 연날은 낭 ᄒᆞ꼼 시믄 돌아매영 강기(?) 대껭 소낭 아래 영 메영 헤낫저. 하영도 아니곡.(에, 조그마한 나무 이제 다 끊어버리니까지. 옛날은 나무 조금 있으면 달아매서 강기(?) 던져서 소나무 아래 이렇게 매어서 했었지. 많이도 아니고.)

한다리 인다리

111082 @ '혼다리 인다리 거청개' 이런 거 헤낫수과?('한다리 인다리 거청개' 이런 거 했습니까?)
111082 #4 에?(에?)
111082 @ 다리세기. 혼다리 인다리 거청개(다리세기. '혼다리 인다리 거청개')
111082 #4 ᄋᆞ. 그거, 그거. 건, 난 몰르켜. 거 영 다리 벋엉 이제는 몰르커라. 우리도 그거 헤낫져. 인다리, 뭐 아이, 몰르커라. 겐 영 동무릅 영 영 영 영 허곡, ᄯᅳ루 오주메옝 헌 건 험벅 허영 그 소북에 모살 담아, 모살 담앙 영 일본말 ᄀᆞ뜨믄 "이찌, 니, 산, 시" 영 허듯 영허믄 영 막 앚앙 믄 헤나고 본전이옝 헌건 이 돌쌔기 새끼 봉가당 영 영 본전이옝 헌건 거 돌쌔기ᄀᆞ라 본전이야. 영헹 돌쌔기 봉가당은 네 영 영 영 영 경헤낫저.(응. 그거, 그거. 건, 난 모르겠다. 거 이렇게 다리 뻗어서 이제는 모르겠다. 우리도 그거 했었지. 인다리, 뭐 아니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따로 오자미라고 한 건 헝겊 해서 그 속에 모래 담아, 모래 담아서 이렇게 일본말 같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듯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앉아서 몽땅 했었고 '본전'이라고 한 건 이 돌멩이 주워다가 이렇게 이렇게 '본전'이라고 한 건 거 '돌쌔기'보고 '본전'이야. 이렇게 해서 '돌쌔기' 주워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했었지.)

12. 통과의례

출생

112001 @ 게믄예, 아기가 뱃속에, 아기 어멍이 뱃속에 들어갈 땐 어떵 헤영 아길 낳고 탯줄이영 할망상에 대해서도 말해주곡.(그러면요, 아기가 뱃속에 아기 어머니가 뱃속에 들어갈 땐 어떻게 해서 아길 낳고 탯줄이랑 '할망상'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112001 #4 우린 할망상 몰른다. 그자 아기 나민 그자 그것이 막 기냥 컹은에. 벵완에 흔 번 안 완. 저 나 이제 족은아덜 가이 그 돌쎄기 저 개깃디 강 물 들영 즈묵헌 아이 봉가당 아기 저 구실허는 아길 놘에 오꼿 주사 놔부난 오꼿 아인 오꼿 열받안 그냥 흔 구십도나 비찌난 게난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이젠 난 "골겡이라도 호멩이, 아저씨 싯건 흐나 빌려줍서" 허난에 "호멩이사 아줌마 뭐헐 거여?" 허난 가이 개똥이, "개똥이 엄마" 허난 "가당 죽으민 어떵헙네까?". "땅이라도 팡은에 묻어동 와얄 거 아니우꽈?" 허난에 "안 죽어요. 아이 걱정 말아요. 개똥이 엄마 걱정 말아요." 허멍 허난 가나난 그 병원장 성이란게게. 가나난 아이구 어떵허난 홍진 허는 아길 주사를 놔벼시닌. 경현 그 아기 죽엇던 아기 춤 살아난게. 그디 간에 옷 벳견에 허고, 열 재우고 알로 설새 허연에 설새 빠연 그 대오 빠연 경헤가난 오라가난 이제 야이 강 쑤물네 시간 뒈영 이제 이레서 쓰물네 시간 만이 가렌 현. 경헨에 가난에 쑤물늬 시간 만이 이제 아기가 깰 것 ᄀ뜨민 쑤물늬 시간 넘으믄 가망이 엇수덴 가망이 없어요. 허멍 허난 알앗젠 헨 이젠 주인 아저씨도 이제 조금 더 기다려봔 가켄 허난. 쑤물네 시간 되어가난 입바우로 게끔이 무락허게 물어와라게. 무락허난 이제 그 원장이 영 행 진찰허난 아이구 뒛습니다 아줌마. 이제 살앗어요 살앗어요. 영 허난 경헨 이젠 그 아기 들앙 완 경헤나시네. 게난 이 하르방네 궨당이 그 주살 놔빈 거라. 홍역허는 걸 몰란. 경 헨 뚠 주사 놔비난 오꼿 탁 아인 곧 숨막현 경헨 어멍해나난 이젠이 그로후젠이 이 아기 거 그자 나난게 나는 날이 이제. 경헨 고뿔 한번 아녀고 감기약 흔 번 멕이지 아녀고 벵원에 흔 번 안 들앙 가고 경허난 키우난 난 몰라.(우린 '할망상' 모른다. 그저 아기 나면 그저 그것이 막 그냥 커서. 병원에 한 번 안 왔어. 저 나 이제 작은아들 그 얘, 그 돌멩이 저 갯가에 가서 물 들여서 조그마한 거 주워다가 아기 저 홍역하는 아길 놔서 그만 주사 놔부난 그만 아인 그만 열 받아서 그냥 한 구십도나(?) 빚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이젠 난 호미여도 '호멩이', 아저씨 있거든 하나 빌려줍서 하니까 '호멩이' 야 아줌마 뭐할 거야. 하니까 가이 개똥이, 개똥이 엄마 하니까 가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이라도 파서 묻어두고 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직 아이 걱정 말아요 개똥이 엄마 걱정 말아요 하면서 하니까 갔었으니까 그 병원장 형이던데. 가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니까 홍역 하는 아길 주사를 놔버렸냐고. 그런 그 아기 죽었던 아기 참 살았어. 거기 가서 옷 벗겨서 하고, 열 재우고 아래로 설사 해서 설사 빠서 그 대오(?) 빠서 그렇게 해 가니까 와가니까 이제 야이 가서 스물네 시간 되어서 이제 여기서 스물 네 시간 만에 가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가니까 스물네 시간 만에 이제 아기가 깰 것 같으면 스물네 시간 넘으면 가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어요 하면서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이젠 주인 아저씨도 이제 조금 더 기다려봐서 가겠다고 하니까. 스물네 시간 되어가니까 입가로 거품이 '부각하게' 물어왔어. '무락' 하니까 이제 그 원장이 이렇게 해서 진찰하니까 아이고, 뒛습니다 아줌마. 이제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젠 그 아기 데려서 왔어. 그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네 친척이 그 주살 놔버린 거야. 홍역하는 걸 몰랐어.

그렇게 해서 딴 주사 놔 버리니까 그만 탁 아인 곧 숨막혀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 했었으니까 이젠 그 후론 아기 거 그저 나니까 나는 날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감기 한 번 안 하고 감기약 한 번 먹이지 안 하고 병원에 한 번 안 데려서 가고 그렇게 하니까 키우니까 난 몰라.)

112001 @ 아기 날 때.(아기 낳을 때.)

112001 #4 날 땐 이 우린 이 후배가 이 막 경 오래라게. 이제 뚤들은이 탁 아깃 뻬만 맞으민 알로 수술도 안 해서 탁하게 솓아졍 나왔습니다. 해산헷수다. 허난 아이구 나 닮앙 어떵 허코 허난 이번 막뚤 애기도 그자 알로 낫젠. 수술헹 나카부덴 허난. 경헤연 허고, 난 경 막 오래라게.(낳을 땐 우린 후배가 막 그렇게 오래야. 이제 딸들은 이 탁 '아깃배'만 맞으면 아래로 수술도 안 해서 탁하게 쏟아져서 나왔습니다. 해산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나 닮아서 어떻게 할까? 하니깐 이번 막내딸 아기도 그저 아래로 낳으려고. 수술해서 낳아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난 그렇게 막 오래야.)

112001 @ 아판.(아팠어.)

112001 #4 응. 막 멧 시간 들언. 멧 시간.(응. 아주 몇 시간 들었어. 몇 시간.)

112001 @ 옛날, 옛날엔 여기 막 보리낭 깔곡.(옛날, 옛날엔 여기 막 보릿짚 깔고.)

112001 #4 옛날에 나 날 땐이 기냥 아래 보릿낭 끌앙은에 그냥 아깃방석이영 그냥 그 아래 끌앙 아장 경허멍 헤낫저. 경 물 꿰믄 아기 내와주는 할망 오라근에 이제 아기방석 우에 알 ᄒᆞ꼼 솔지 못허게시리 이디 데운 피에 앚이렌 허영 경허여 나난 몰라. 잘 몰라.(옛날에 나 낳을 땐 그냥 아래 보릿짚 깔아서 그냥 태랑 그냥 그 아래 깔아서 앉아서 그렇게 하면서 했었지. 그렇게 물 끓이면 아기 내워주는 할머니 와서 이제 테 위에 아래 조금 태우지 못하게끔 여기 데운 피에 앉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몰라. 잘 몰라.)

112001 @ 다 태와불고.(다 태워버리고.)

112001 #4 어, 아기 하나 담지 안헤라.(어, 아기 하나 담지 않더라.)

112008 @ 애기 옷은 어떵? 애기 옷. 애기 옷은 다 만들어요? 배넷저고리라고 해?(애기 옷은 어떻게? 애기 옷. 애기 옷은 다 만들어요? 배냇저고리라고 해?)

112008 #4 아기덜 옷?(아기들 옷?)

112008 @ 아기 옷. 금방 태어난 때(아기 옷. 금방 태어난 때)

112008 #4 아기 옷? 난 아기 옷도 엇다. 아기 옷도 엇고 그자 그자 입지믄 입어난 거 취핸에 육지 살멍 나난 이디 산 때도 그자 놈 입단 것덜 주워다주민 그거.(아기 옷? 난 아기 옷도 없다. 아기 옷도 없고 그저 그저 입히면 입었던 거 취해서 육지 살면서 낳으니까 여기 살 때도 그저 남 입던 것들 주워다가 주면 그거.)

112008 @ 아니, 금방 태어낫을 때.(아니, 금방 태어났을 때.)

112008 #4 어 그거 입고, 삿빠 ᄒᆞᆫ 번 아녀곡 몸뻬 문딱 헌거 칮여근에 아래 삿빠허고 이제 저 외국 간 뚤은 삿빠 이제사 기저귀 강 ᄒᆞᆫ필 강 사당 그거 그자 거,

처음. 다 헌옷 허고. 헌 옷.(어 그거 입고, 기저귀 한 번 안하고 몸빼 모두 헌 거 찢어서 아래 기저귀 하고 이제 저 외국 간 딸은 기저귀 이제야 기저귀 가서 한 필 가서 사다가 그거 그저 거, 처음. 다 헌 옷 하고. 헌 옷.)

112004 @ 애기 엄마는 뭐 먹습니까? 금방 애기 낳고 미역국허고.(아기 엄마는 뭐 먹습니까? 금방 아기 낳고 미역국하고.)

112010 #4 그런 거 엇다. 난 이 아기 설젠 허난이 밥도 못 먹곡 고구마, 고구마이 솖앙 그자 그거 ᄒᆞ나 먹엉 살아낫어. 입이 더 경 궂언.(그런 거 없다. 난 이 아기 서려고 하니까 밥도 못 먹고 고구마, 고구마 삶아서 그저 그거 하나 먹어서 살았었어. 입이 더 그렇게 궂었어.)

112004 @ ᄆᆞᆯ국이영 뭐?(메밀국이랑 뭐?)

112004 #4 밥을 못 먹언. 경헤나난.(밥을 못 먹었어. 그렇게 했었어.)

112004 @ ᄆᆞᆯᄌᆞ베기, ᄆᆞᆯᄌᆞ베기.(메밀수제비, 메밀수제비.)

112004 #4 에?(에?)

112004 @ 메역국 (메역국)

112004 #4 에구 메역국이 어디 시니? 기자 아무 거라도 밧디 솟디 기자 밥 솔망 시난 숭눙물 요만이 헌 낭푼이에다 주민 막 애씨여나난 그 물 믄 먹어낫저 경. 난 몰라.(에고 미역국이 어디 있니? 그저 아무 거라도 밭에 솥에 그저 밥 삶아서 있으니까 숭늉 요만큼 한 양푼에다 주면 막 애써나니까 그 물 몽땅 먹었었어. 그렇게. 난 몰라.)

112010 @ 젯도 잘 나완마씨?(젖도 잘 나왔어요?)

112010 #4 게민 아긴 줏이 경 읏어붸도 난 육지 가도 줏이 이만이 허믄 정 뛰젠 허믄 막 탈랑탈랑 허영 막 가지 베 허영 이디 무신걸로 베나 무싱거 흰 수건으로 무꺼사. 질질질 줏 막 흘련. 겐 아기 엇 그 ᄌᆞ끗디 도나리 아기 저 줏 엇언 그 아기 할망이 나신디 멕이레 오고 아적 ᄌᆞ냑 멕이멍 허곡 허난 테왁 ᄒᆞ나 줘라. 테왁이옌 헌 거 알아지느냐? ᄏᆞᆯ락박[117]. 그거 하나 이거라. “개똥이 엄마, 이것밖에 줄거 엇다.” 허멍 허난 거 하나 해다 줘라. 큰 거 허영게. 거 나 전라도꺼정 강 깨여져불엇어.(그러면 아긴 젖이 그렇게 없어보여도 난 육지 가도 젖이 이만큼 하면 저렇게 뛰려고 하면 막 탈랑탈랑 해서 막 가지 베 해서 여기 무슨 걸로 베나, 무슨 거 흰 수건으로 묶어야. 질질질 젖 막 흘렸어. 그래서 아기 없고, 그 곁에 이웃 아기 저 젖 없어서 그 아기 할머니가 나한테 먹이러 오고 아침 저녁 먹이면서 하고 하니까 테왁 하나 줘라. 테왁이라고 한 거 아니? 박. 그거 하나 이거야. “개똥이 엄마, 이것 밖에 줄 거 없다.” 하면서 하니까 거 하나 해다 줘라. 큰 거 해서. 거 나 전라도까지 가서 깨져버렸어.)

112010 @ 그믄 여기 곤지곤지, 좀메좀메, 아기 키우멍 그런 거 헤낫수과?(그러면 여기 곤지곤지, 잼잼, 아기 키우면서 그런 거 했습니까?)

---

117) ‘ᄏᆞᆯ락박’은 ᄏᆞ. ᄏᆞᆯ락, ᄏᆞᆯ왁이라고도 한다. ‘ᄏᆞᆯ’은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덩굴식물을 말하고, 바가지나 테왁을 만들 때 쓰인다.

112010 #4 에?(에?)

112010 @ 곤지곤지, 좀메좀메, 마니마니, 이런 거. 구덕 흥글멍 웡이자랑 노래.(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이런 거. 구덕 흔들면서 웡이 자랑 노래.)

112010 #4 구덕? 구덕, 우리 구덕 시어나신가? 구덕 헌거 양 빌어당 해나서양. 놈 내빈 거. 놈 내빈 거게. 그 아기사게 흥글젠 허민 나나 뭐나. 아기 저 아기 흥글영 눅젱 재우젠 허민 어떵 허여? 자랑 자랑 허주게. 자랑자랑 아기ᄀᆞ라 왕이자랑 자랑을 허나 우리아기 든밥 멕영 재와 줍서. 허멍이나 왕이자랑 왕이자랑.(요람? 요람, 우리 요람 있었었나? 요람 헌 거 빌려다가 했었어요. 남 내 버린 거. 남 내 버린 거. 그 아기야 흔들려고 하면 나나 뭐나. 아기 저 아기 흔들어서 이렇게 누으려고 재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 자랑 자랑 하지. “자랑자랑” 아기보고 왕이자랑 자랑을 하나 우리 아기 단 밥 먹여서 재워 주십시오. 하면서나 왕이자랑 왕이자랑.)

114001 @ 혼 번 해봅서. 노래로.(한 번 해 보십시오. 노래로.)

114001 #4 에에.(에에.)

112010 @ 왜?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왜?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112010 #4 나 아기 흥근 소리도 막 좋아낫저.(내가 아기 흔드는 소리도 아주 좋았었어.)

112010 @ 게난.(그러니까.)

112010 #3 자는 소리, 도는구나. 도는 소리, 자는구나. 웡이자랑 자랑 어기여 어기여랑 자랑자랑 웡이자랑.(자는 소리, 도는구나. 노는 소리, 자는구나. 웡이자랑 자랑 어기여 어기여랑 자랑자랑 웡이자랑.)

112010 #4 밧디 강 멍에소리도 잘허메 저 하르방.(밭에 가서 멍에소리도 잘해. 저 할아버지.)

혼례

112013 @ 막펜지[118] 뭔지 알아마씨?(‘막편지’ 뭔지 알아요?)

112013 #2 막펜지 장가갈 때 막펜지가 이서 결혼식 헐 때(‘막편지’ 장가갈 때 ‘막편지’가 있어 결혼식 할 때.)

상례

112024 @ 죽엇는지 살앗는지는 어떵 확인합니까?(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112024 #1 어떵 해? 그 사람 죽으민 다 죽은 디 강 보곡덜 허는 따믄 알고 죽으민, 제사허고 죽으민.(어떻게 해? 그 사람 죽으면 다 죽은 데 가서 보고 하는 때문에 알고 죽으면, 제사하고 죽으면.)

112025 @ 집 떠난 그 복 부를 때 지붕 우에서 이렇게 누구 돌아가셧덴 복 부릅

118)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이다.

니께?(집 떠나서 그 복 부를 때 지붕 위에서 이렇게 누구 돌아가셨다고 복 부릅니까?)

112025 #1 전인 경 헤낫저만은 이젠 경 안 헌다.(전엔 그렇게 했었지만 이젠 그렇게 안 한다.)

112025 @ 그런 것도 봐낫수과?(그런 것도 봤었습니까?)

112025 #1 응. 전이 경 허는 건 봐낫저.(응. 전에 그렇게 하는 건 봤었지.)

112025 @ 누가 거기 올라강 뭘 가졍 올라갑니까?(누가 거기 올라가서 뭘 가져서 올라갑니까?)

112025 #1 엿날 적삼이라도 가졍 강 허여낫저만은 이젠 경 안 헌다. 엿날 경 헤낫저. 우이 거 들렁 헤낫저게.(옛날 적삼이라도 가져서 가서 했었지만 이젠 그렇게 안 한다. 옛날 그렇게 했었지. 위에 거 들어서 했었지.)

112025 @ 돌아가시면 복 부르기는 어떻게 헙니까? 복 부르기 돌아가셩 지붕에서 복 부르는 거?(돌아가시면 복 부르기는 어떻게 헙니까? 복 부르기 돌아가셔서 지붕에서 복 부르는 거?)

112025 #2 복 부르는 거 이제도 허여.(복 부르는 거 이제도 해.)

112025 @ 어떵헙니까? 건 무사 헙니까?(어떻게 합니까? 건 왜 합니까?)

112025 #2 아, 저 죽언 거세기 뒈민 그 거세기 이젠 집이 떠난덴 허는 게 잇거든.(아, 저 죽어서 거시기 되면 그 거시기 이젠 집에 떠난다고 하는 게 있거든.)

112025 @ 집 떠나난 누가 걸 헙니까?(집 떠나니까 누가 그걸 합니까?)

112025 #2 아무라도 헤여.(아무라도 해.)

112025 @ 큰아들 아니믄 어른?(큰아들 아니면 어른?)

112025 #2 문중의 어른이라도.(문중의 어른이라도.)

112025 @ 옷 가졍 올라간?(옷 가져서 올라가서?)

112025 #2 옷 하나 가졍 올라간 혼이라고 헤영 불르거든.(옷 하나 가져서 올라가서 혼이라고 해서 부르거든.)

112025 @ 혼 불렁 잘 가렌?(혼 불러서 잘 가라고?)

112025 #2 죽엇덴 헌 거 알리는 거주. 잘 가렌.(죽었다고 한 거 알리는 거지. 잘 가라고.)

112026 @ 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112026 #1 거 엿날엔 정시옌 헌다게. 거 춪아주는 사람이 아무나 몰랑이. 묻을 디 이젠 저 뭣엔 곧느니? 공동묘지로 강 ᄌᆞ근ᄌᆞ근 묻나만은 전이덜은 정시 불렁 좋은 땅에 봉간 묻어낫저. 정시 거 춪아주는 사람이 정시.(거 옛날엔 지관이라고 한다. 거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나 몰라. 묻을 데 이젠 저 뭐라고 말하니? 공동묘지로 가서 차근차근 묻지만 전에들은 지관 불러서 좋은 땅에 찾아서 묻었었지. 지관 거 찾아주는 사람이 지관.)

112026 @ 지금은 월령에 엇수과?(지금은 월령에 없습니까?)

112026 #1 이젠 경 안 허영이, 그냥이 저 공동묘지 헹 ᄌᆞ근ᄌᆞ근 묻어빈다게.(이

젠 그렇게 안 해서, 그냥 저 공동묘지 해서 차근차근 묻어버린다.)

12026 @ 옛날엔 유명헌 사람 월령에도 잇엇수과? 정시 보는 사람?(옛날엔 유명한 사람 월령에도 있었습니까? 지관 보는 사람?)

112026 #1 정시? 월령, 몰르켜. 어떵헤나신고? 이제.(지관? 월령,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가? 이제.)

112026 @ 한림에 강 봣수과?(한림에 가서 봤습니까?)

112026 #1 불러당 보주게. 정시라고이. 거 보는 사람은 아무나 못 봐근에. 경 헤난디 이젠 그런 거는 춪지 안허주기 필요엇주기게.(불러다가 보지. 지관이라고. 거 보는 사람은 아무나 못 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젠 그런 거는 찾지 않지. 필요 없지.)

112027 관과 횡대는 어떻게 마련합니까?(관과 횡대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112028 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12028 #1 수의, ᄋᆞ. 사당덜 집이서 멘들앙덜 입져진다게.(수의, 어. 사다가들 집에서 만들어서들 입힌다.)

112028 @ 옛날에는?(옛날에는?)

112028 #1 ᄋᆞ게, 옛날 사당 멘들앙 집이서 ᄇᆞ딘 방상덜, 애기덜.(응, 옛날 사당 만들어서 집에서 가까운 방상들, 아기들.)

112029 상장(喪杖)과 짚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상장(喪杖)과 짚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0 두건과 복치마는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줍니까?(두건과 복치마는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112030 #1 복친은 ᄇᆞ딘 일가게. 복친은 그디 방상덜게. 일가 방상ᄀᆞ라 복친이엔 헌다.(복친은 가까운 일가. 복친은 거기 방상들. 일가 방상보고 복친이라고 한다.)

112032 @ 성복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성복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2 #1 성복젠 이제 죽은 사람이 꼭 성복젠 지내주고, 성복젠 죽어근에 삼일만이 저 지네는 것ᄀᆞ라 성복제렌 허고.(성복젠 이제 죽은 사람이 꼭 성복젠 지내주고, 성복젠 죽어서 삼일 만에 제 지내는 것보고 성복제라고 하고.)

112033 @ 일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일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3 #1 일포젠 뚤이 일포제 허는 거라. 뚤이 아이고, 일포젠 뚤 낫구나 헌다 옛날 할망덜.(일포젠 딸이 일포제 하는 거야. 딸이 아이고, 일포젠 딸 났구나 한다. 옛날 할머니들.)

112034 @ 부조와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부조와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

112034 #1 그디 오멍들 섭섭허난게. 영 큰일칩이 들어오멍.(거긴 오면서들 섭섭하니까. 이렇게 큰일 집에 들어오면서.)

112034 @ 떡으로 헙니까? 돈으로 헙니까?(떡으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112034 #1 것사 그 사람 ᄆᆞ음대로 우린 전이 돈 엇이난 쏠도 ᄋᆞ정 가낫저게.(것이야 그 사람 마음대로 우린 전에 돈 없으니까 쌀도 가져서 갔었지.)

112034 @ 전인예 보리쏠, 곤쏠?(전엔요? 보리쌀, 흰쌀?)

112034 #1 먹는 거게, 그자 보리쏠도 ᄋᆞ정가나고, 엇인 땐 곤쏠도 ᄋᆞ정가나곡, 이젠 그런 거 안 가졍강 돈으로 ᄋᆞ경뎅긴다. 부준 이제라도 헌다.(먹는 거, 거의 그저 보리쌀도 가져갔었고, 없는 땐 흰쌀도 가져갔었고, 이젠 그런 거 안 가져가서 돈으로 가져서 다닌다. 부준 이제라도 한다.)

112034 @ 이젠 돈으로예 떡으론 안하고?(이젠 돈으로요? 떡으론 안하고?)

112034 #1 떡도 헤나고, ᄇᆞ든 일가엔.(떡도 했었고, 가까운 일가엔.)

112034 @ 떡은 무슨 떡?(떡은 무슨 떡?)

112034 #1 그냥 그자 그때 아무 떡이라도이 영 정 허여 난디 이제 떡 안 헌다. 저 본주에서만 허민 부주로 돈으로 헹가. 이제도 그냥은 안 가.(그냥 그저 그때 아무 떡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이제 떡 안 한다. 저 본주에서만 하면 부주로 돈으로 해서 가. 이제도 그냥은 안 가.)

112035 @ 토신제에 말씀해 주십시오.(토신제에 말씀해 주십시오.)

112035 #1 토신에 이제 저 뭐 집 짓젠허민 토신제라고 그걸 뭐센 허믄 뭘 철이고? 그 영 문전을 츰, 그 토신에 그 인사허는 거옌 헌다. 이디 왕 집 지시쿠다, 허는거옌 헌다 토신제가.(토신에 이제 저 뭐 집 지으려고 하면 토신제라고 그걸 뭐라고 하면 될 차례고? 그 이렇게 문전을 참, 그 토신에 그 인사하는 거라고 한다. 여기 와서 집 짓겠습니다, 하는 거라고 한다. 토신제가.)

112036 @ 상여꾼은 어떻게 부립니까?(상여꾼은 어떻게 부립니까?)

112036 #1 아, 그것ᄀᆞ라, 뭐센 헌다만은. 설베[119]메영이 것고라 뭐센 헌다만은. 잊어불어졋저. 막 소리덜허멍 둘렁메영 나가나신디. 이젠 차로 확 시껑 간다만은. 그땐 그거 메영 설배메영이 막 소리덜 허멍 들렁 가느네게.(아, 그것보고, 뭐라고 한다만. '설베'메어서 그것보고 뭐라고 한다만. 잊어버렸네. 막 소리들 하면서 둘러메어서 나갔는데. 이젠 차로 확 실어서 간다만. 그땐 그거 메여서 '설베'메여서 막 소리들 하면서 들어서 간다.)

112036 @ 삼춘도 설베 그추룩 메영 상여소리 허멍 가본 적 잇수과?(삼촌도 '설베' 그처럼 메어서 상여소리 하면서 가본 적 있습니까?)

112036 #1 그거 헐 때덜은이 남자덜 헤낫저게.(그거 할 때들은 남자들 했었지.)

112036 @ 여자덜도 설베 헹 ᄯᆞ라가고?(여자들도 '설베'해서 따라가고?)

112036 #1 ᄋᆞ게. 경ᄒᆞ난, ᄋᆞ게 ᄯᆞ라가곡게. 소리허멍.(그럼. 그렇게 하니까, 응. 따라가고. 소리하면서.)

112036 @ 소리 잘하는 사람 이서낫수과? 월령에도 이서낫수과?(소리 잘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월령에도 있었습니까?)

112036 #1 ᄋᆞ게, ᄯᆞ라가고 허는 사람이 소리허는 사람이 설베메영 전이 엿날

119) '설배'는 운상할 때에 상여에 매어 앞으로 잡아당기게 된 참바를 말한다.

게.(응. 따라가고 하는 사람이 소리하는 사람이 '설베'메어서 전에 옛날.)

112036 @ 그 사람 이름은 모르쿠과?(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습니까?)

112036 #1 몰르켜. 게난 이젠 경 안 헌다. 차에 시껑 확 가불어. 옛날 그것덜 메영근에이 헤여낫저. 설배 메고 설배 그 앞이 영헤영 이젠 민영으로 허영 허는 거 설배 소리덜 허멍 이젠 경 안허여. 차로 시껑 든주 거 험이랑 마랑.(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젠 그렇게 안 한다. 차에 실어서 확 가버려. 옛날 그것들 메어서 했었지. '설베' 메고, '설베' 그 앞에 이렇게 해서 이젠 무명으로 해서 하는 거, '설베' 소리들 하면서 이젠 그렇게 안 해. 차로 실어서 달리지 그거 함이랑 마랑.)

112036 @ 막 산간까지 걸엉가근에?(막 산간까지 걸어서 가서는?)

112036 #1 묻는 장소까지 메영 가멍 소리덜 허멍 엿날 이젠 차로 시껑 든주 그런 거 허믄 무싱 거.(묻는 장소까지 메어 가면서 소리들 하면서 옛날 이젠 차로 실어 달리지. 그런 거 하면 무슨 거.)

112038 @ 봉분은 어떻게 만듭니까?(봉분은 어떻게 만듭니까?)

112038 #1 봉분은 산 묻으는 거고, 산 묻으민 봉분이엔 혼다게. 죽은 사람 묻은 거.(봉분은 묘 묻는 거고, 묘 묻으면 봉분이라고 한다. 죽은 사람 묻은 거.)

112040 @ 장지에서 상여꾼에게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합니까? 장지에서.(장지에서 상여꾼에게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합니까? 장지에서.)

112040 #1 어떵허여. 그자 가민이 그디 강 앉아둠서이. 이제들은 뭐 그디서 그걸 먹고 허질 안 허주만은 옛날은 꼭 허영 강은에 음식 멕여낫저. 묻는 디 영장밧디 강.(어떻게 해. 그저 가면 거기 가서 앉아두고. 이제들은 뭐 거기서 그걸 먹고 하질 안 하지만 옛날은 꼭 해서 가서는 음식 먹였었지. 묻는 데 장지에 가서.)

112040 @ 뭐 멕여신고예?(뭐 먹였는가요?)

112040 #1 떡도 헤당 주곡 고적[120]이라고.(떡도 해다가 주고 '고적'이라고.)

112040 @ 고적?('고적'?)

112040 #1 고적이옌 헌다. 그 돌레떡이, 돌레떡이라고. 엿날은 똑 이만썩 크게이 좁쏠, 똑 이 돌레떡 이만썩 헤낫저. 돌레떡이라고 둥글락허게 멘들아근에 태와낫저게.('고적'이라고 한다. 그 도래떡, 도래떡이라고. 옛날은 꼭 이만큼씩 크게 좁쌀, 꼭 도래떡 이만씩 했었지. 도래떡이라고 둥글게 만들어서 나눴었지.)

112040 @ 좁쏠로예?(좁쌀로요?)

112040 #1 응게, 좁쏠로 허당 또 모멀쏠도 허여나고덜이. 허지 기리운 걸로 이젠 그런 거 허느냐게? 이제사게 다 묻어둬 와근에 그자 밥덜도 먹고.(응, 좁쌀로 하다가 또 메밀쌀도 했었고. 하고 싶은 걸로 이젠 그런 거 하니? 이제야 다 묻어두고 와서 그저 밥들도 먹고.)

112040 @ 아, 좁쏠로가 많이 허고 곤쏠론 안허고.(아, 좁쌀로가 많이 하고 흰쌀론 안하고.)

112040 #1 곤쏠론 어려왕 엿날에 어떵 허느니?(흰쌀론 어려워서 옛날에 어떻게

120) '고적'은 집안에 장사가 났을 때, 친척들이 부조로 하는 떡이나 쌀을 말한다.

하니?)

112040 @ 아, 좁쌀로도 헷구나. 고적이렌 허고예?(아, 좁쌀로도 했구나. '고적'이라고 하고요?)

112040 #1 고적이옌 헌다게, 고적.('고적'이라고 한다, '고적'.)

112040 @ 게믄 이건 상에 올려 난 다음, 사름신디 태웁니까?(그러면 이건 상에 올려 난 다음, 사람에게 나눕니까?)

112040 #1 상에 다 올리지 안 한다. 상에 올릴 거만 조금 시믄 올려근에.(상에 다 올리지 안 한다. 상에 올릴 거만 조금 있으면 올려서는.)

112040 @ 그 다음? 다 테왕 먹고예?(그 다음? 다 나눠서 먹고요?)

112040 #1 다 테왕 간 사람덜.(다 나눠서 간 사람들.)

112040 @ 돼지고기나 옥돔이나 이런 것도 가져갑니까?(돼지고기나 옥돔이나 이런 것도 가져갑니까?)

112040 #1 도새기 잡앙 ᄋᆞ정가지.(돼지 잡아서 가져서 가지.)

112040 @ 도새기도예? 돌아가시면예?(돼지도요? 돌아가시면요?)

112040 #1 옥돔은 또 이제 그냥 영 올 릴 거 지숙[121]이라고이, 지숙, 바당에 거 허영 올 리는 건 지숙. 그 젓갈은 또 이제 돗궤기 허영 영 꿰곡 허영 올리고.(옥돔은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올릴 거 제수라고, 제수, 바다에 거 많이 올리는 건 제수. 그 적은 또 이제 돼지고기 해서 이렇게 꿰고 해서 올리고.)

112040 @ 멧 개 올리는 건 엇고예?(몇 개 올리는 건 없고요?)

112040 #1 그냥 그디 영 헤근에 그거영 포적이영 적갈이영 ᄀᆞ치 영 허멍 올려 준다게. 이 지숙이라고. 이제 바닷궤기 구웡 우트레 놓고 경헨 올리주게.(그냥 거기 이렇게 해서 그거랑 포적이랑 적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올려준다. 이 제수라고. 이제 바닷고기 구워서 위에 놓고 그렇게 해서 올리지.)

112041 @ 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112041 #1 ᄀᆞ만 시라. 수고한 사람ᄀᆞ라 뭐셍 ᄀᆞᆯ아라만은 잊어불어졋저. 그자 그거 테와준다게. 이 떡 테와주고 그자 특별 대우 그자 먹는 거. 돈은 안 주고 그자 상뒤꾼이라고 거 묻는 사람ᄀᆞ라 상뒤꾼.(가만 있어라. 수고한 사람보고 뭐라고 말하더라만 잊어버렸네. 그저 그거 나눠 준다. 이 떡 나눠주고 거저 특별 대우 그저 먹는 거. 돈은 안 주고 거저 상두꾼이라고 거 묻는 사람보고 상두꾼.)

112042 @ 상식(上食)은 어떻게 합니까?(상식(上食)은 어떻게 합니까?)

112042 #1 거 무신 말고? 상식 아, 저 상제들, 상제들 상제 옷 입고 해서 절도 허곡 상 놩 상식 절 허여. 상제덜 놈은 안허곡게, 애기덜 상제옷 입엉.(거 무슨 말이니? 상식 아, 저 상제들, 상제들 상복 입고 해서 절도 하고 상 놔서 상식 절해. 상제들 남은 안 하고, 자녀들 상제 옷 입어서.)

112043 @ 삭망제(朔望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삭망제(朔望祭)에 대해서

121) '지숙'은 제상에 올리는 생선류를 말한다. '제숙'이라고도 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112043 #1 무싱거 삭망이옌 헌다 상식 놓는 거게. 그것이 그 말이여.(무엇 삭망이라고 한다. 상식 놓는 거. 그것이 그 말이야.)

112043 @ 삭제렌도 허지예?(삭제라고도 하지요?)

112043 #1 삭젠 저 보름에 흔 번. 삭제 허지 안 허느냐게? 그것보고 삭제.(삭젠 저 보름에 한 번. 삭제 하지 안 하느냐? 그것보고 삭제.)

112043 @ 그믄 일 년 내내 허는 거예?(그러면 일 년 내내 하는 거라고요?)

112043 #1 게난 그것이 일 년은 헤사지이. 보름에 흔 번 허멍이 삭제라고.(그러니까 그것이 일 년은 해야지. 보름에 한 번 하면서 삭제라고.)

112043 @ 삭망제는 그냥 무덤에서 허는 거마씨?(삭망제는 그냥 무덤에서 하는 건가요?)

112043 #1 무덤에서 허나 삭망은 들어보지 안헷저만은 그것이 삭제 그것이 그 말일 거여게.(무덤에서 하나 삭망은 들어보지 안 했지만 그것이 삭제 그것이 그 말일 거야.)

112044 @ 소・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소・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44 #1 아 소상 대상. 으게, 거 삼년 허느녜. 엿날은이 소상 일 년 헌 거고 일 년 돌아오믄 그날 소상 또 일년 돌아오믄 또 그 날 허는 거 대상. 또시 그 다음에 담재꼬지 허느녜. 날 봥 석 둘 시민.(아 소상 대상. 그래, 거 삼 년 하네. 옛날은 소상 일 년 한 거고, 일 년 돌아오면 그날 소상 또 일 년 돌아오면 또 그날 하는 거 대상. 또 그 다음에 담재까지 하네. 날 봐서 석 달 있으면.)

112044 @ 일 년이 소상이꽈? 대상이 아니고?(일 년이 소상입니까? 대상이 아니고?)

112044 #1 응. 일 년 돌아완 그날 허는 거. 소상 또 일 년 돌아완 그 날허는 거. 대상이 또 담재꼬지 헌다. 건 날 봥 석 둘 시민 담제. 게민 그 다음엔 제사 밤이 일 년 돌아오믄 제사라고.(응. 일년 돌아와서 그날 허는 거. 소상 또 일 년 돌아와서 그 날 하는 거 대상이 또 담재까지 한다. 건 날 봐서 석 달 있으면 담제. 그러면 그 다음엔 제사, 밤에 일 년 돌아오면 제사라고.)

112044 @ 삼 년채 허는 건 담제꽈?(삼 년째 하는 건 담제입니까?)

112044 #1 삼 년이옌 헌다. 삼년 천도 친다 허는 디 세 번채 ᄒᆞ는 건 담제, 게민 삼 년이 뒈주기. 죽엉이, 죽엉, 묻으민 글로부터 세영 일 년 시민 소상 또 일 년 시민 이제 대상 이 또 석 둘시민 담제라고 건 담젠 막 담아간다고 마지막 허는 거여. 담젠 석 둘 시민 담제 헤낫저.(삼년이라고 한다. 삼년 천도 친다 하는데 세 번째 하는 건 담제, 그러면 삼 년이 되지. 죽어서, 죽어서, 묻으면 그로부터 세서 일 년 있으면 소상 또 일 년 있으면 이제 대상, 이 또 석 달 있으면 담제라고 건 담젠 막 담아간다고 마지막 하는 거야. 담젠 석 달 있으면 담제 했었지.)

112045 @ 토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토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43 #1 토롱은 뭍엇당 날 나기 전이 그냥 놔두지 못허난 토롱은 잠시 아멩이나 잠시 묻엇당 묻지 전이 토롱 어드레 묻엇당 집이 오래 놔두느니게이. 토롱 헷다근에 이제 날보고 산터 보고 허여근에 묻지 전이 임시 영 허영 놔두는 건 토롱.(토롱은 묻었다가 날 나기 전에 그냥 놔두지 못하니까 토롱은 잠시 아무렇게나 잠시 묻었다가 묻기 전에 토롱 어디 묻었다가 집에 오래 놔두느니, 토롱 했다가 이제 날보고 뭇자리 보고 해서 묻기 전에 임시 이렇게 해서 놔두는 건 토롱.)

112043 @ 임시 어디에 보통 헙니까?(임시 어디에 보통 합니까?)

112043 #1 묻는 건 날 터 봉 잘 존 디 묻고, 토롱은 아무디나 그냥 허엿당 그레 묻을 거난에, 아무디나 헌다. 그건 오래 안허난 토롱은.(묻는 건 날 터 봐서 잘 좋은 데 묻고, 토롱은 아무데나 그냥 하였다가 그리로 묻을 거니까, 아무데나 한다. 그건 오래 안 하니까 토롱은.)

112046 @ 이묘는 어떻게 합니까?(이묘는 어떻게 합니까?)

112046 #1 아, 다른 디로 웽겨 가는 거 그거 존 터 봉강 웽기젠 허믄이 이장 것ᄀᆞ라 이장이옌 헌다. 이장허는 거 그디 말앙 뚠더레 강 묻을 거.(아, 다른 데로 옮겨 가는 거 그거 좋은 터 주워서 옮기려고 하면 이장, 그것보고 이장이라고 한다. 이장하는 거 거기 말고 딴 데 가서 묻을 거.)

112046 @ 어떻게 헙니까?(어떻게 합니까?)

112046 #1 어떵 허여게? 그거 이제 묻엉 놔두믄 술은 착 쳐져이. 뼈만 남지이, 이 사람은 묻으믄 술은 썩어비는 거주게. 경허믄 것도 날 봉은에 날 봉 이장이옌 헌다. 거 뚠더레 영 허는 걸.(어떻게 해? 그거 이제 묻어서 놔두면 살은 착 쳐져. 뼈만 남지, 이 사람은 묻으면 살은 썩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날 봐서 이장이라고 한다. 거 딴 데 이렇게 하는 걸.)

112046 @ 겨믄 다 사람덜 친척덜 가고? 그러면 다 사람들 친척들 가고?)

112046 #1 게, 그디 그거 묻을 때 또 산 봉분허고 이장이라고이 그건.(그럼, 거기 그거 묻을 때 또 묘 봉분하고 이장이라고 그건.)

112046 @ 게믄 그 묻어난 땅은 어떵?(그러면 그 묻어난 땅은 어떻게?)

112046 #1 내불주게. 그 묻어난 땅은 이제 그디 나쁘믄 좋은 터 봉강은에 야 산 잘뒈믄 ᄌᆞ손 잘뒌덴 허멍 막 터 좋은 디 봉강은에 정시 들아당 봉 허고 헤낫저. 이젠 그냥 그자 공동묘지 헹은에 ᄌᆞ근ᄌᆞ근ᄌᆞ근 거 묻는 사람도 싯고 불도 케와비는 사람도 싯곡 헤도 옛날엔 ᄌᆞ순 조상만 두엉 잘 묻으믄 잘 뒈카부덴 오죽 멩심헤사게.(내버리지. 그 묻었던 땅은 이제 거기 나쁘면 좋은 터 주워서 야 산 잘되면 자손 잘된다고 하면서 아주 터 좋은 데 찾아서 지관 데려다가 봐서 하고 했었지. 이젠 그냥 그저 공동묘지 해서 차근차근차근 거 묻는 사람도 있고 불도 태워버리는 사람도 있고 해도 옛날엔 자손 조상만 두어서 잘 묻으면 잘 될까보다고 오죽 명심해야지.)

112047 @ 복은 언제 벗습니까?(복은 언제 벗습니까?)

112047 #1 삼 년, 일 년 허영 소상헤난 이 년 시민 대상허연 담제 날 복 벗는

거여.(삼 년, 일 년 해서 소상해서 이 년 있으면 대상해서 담제 날 복 벗는 거야.)

112048 @ 상례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상례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2048 #1 보지 말렌. 나빵은에이 그 사람 보민 이제 본 사람도 나쁘고. 멧 술 보지 말라, 멧 술 보지 말라 헌다덜. 그 영 아는 사름 헤사게 그거 ᄒᆞ끔 아는 사람 봐사 거 멧 술 보지 말라, 멧 술 보지 말라 헌다게. 멧 술 보민 거 나쁜데 그 사람마다 보지 아니 아니 본덴은 안 허고. 멧 술 난 사람 보지 말라. 보지 말라는 헤낫저게. 이젠 무신 그거 보고, 저거 보고 헴샤?(보지 말라고. 나빠서 그 사람 보면 이제 본 사람도 나쁘고. 몇 살 보지 말라, 몇 살 보지 말라 한다. 그 이렇게 아는 사름 해야 그거 조금 아는 사람 봐야 거 몇 살 보지 말라, 몇 살 보지 말라 한다. 몇 살 보면 거 나쁜데 그 사람마다 보지 아니 안 본다고는 안 하고. 몇 살 된 사람 보지 말라. 보지 말라는 했었지. 이젠 무슨 그거 보고, 저거 보고 하고 있니?)

제례

112049 #1 제사 준비는 어떵허여게? 밤이 일 년 돌아오민 이 그자 밥허고 적깔허고 지숙허고.(제사 준비는 어떻게 해? 밤에 일 년 돌아오면 거저 밥하고 적하고 지숙하고.)

112049 @ 아침부터?(아침부터?)

112049 #1 밤이게. 열두 시에 허는 거 아니가? 제ᄉᆞ.(밤에. 열두 시에 하는 거 아니가? 제사.)

112049 @ 그난 만드는 건 아침부터 헤야 뒐 거 아니?(그니까 만드는 건 아침부터 해야 될 거 아니?)

112049 #1 것사게 ᄒᆞ루 헤사주게.(그거야 하루 해야지.)

112049 @ 메누리가 다 헤야 뒈고?(며느리가 다 해야 되고?)

112049 #1 게.(그럼.)

112049 @ 적갈은?(적은?)

112049 #1 적갈하고 떡허고.(적하고 떡하고.)

112049 @ 돗궤기 적갈허고?(돼지고기 적하고?)

112049 #1 돗궤기허곡 지숙허곡이, 떡허곡 저 이제 우리 옛날 멘들젠 허민 좁은 떡허곡, 영 늬귀반듯헌 인절미 곤떡허고 싀 가진 헤사 인절미 늬귀반듯헌 거 영 또 좁은 떡은 저 영 좁는 거. 쉬 담앙 좁는 거 엇이냐게? 안 헤봐샤? 싀 가진 헤사 인절미 늬귀반듯헌 거 영.(돼지고기하고 제수하고, 떡하고 저 이제 우리 옛날 만들려고 하면 집은 떡하고, 이렇게 네모반듯한 인절미 흰떡하고 세 가진 해야 인절미 네모반듯한 거 이렇게 또 집은 떡은 저 이렇게 집는 거. 소 담아서 집는 거 없냐? 안 해봤나? 세 가진 해야 인절미 네모반듯한 거 이렇게.)

112049 @ 거 뭘로 만듭니까?(거 뭐로 만듭니까?)

112049 #1 옛날엔 모멀덜 싯곡허난 모멀로덜 헤영은에 ᄀᆞᆯ앙덜 허고 헤낫저. 이

젠 확 사단 허주, 누게 허느니.(옛날엔 메밀들 있고 하니까 메밀로들 해서 갈아서들 하고 했었지. 이젠 확 사다가 하지, 누가 하냐?)

112049 @ 지름떡 그런 건 안 허고예?(기름떡 그런 건 안 하고요?)

112049 #1 아이구 떡 ᄒᆞ꼼 사당은에 허주기 집이서 어떵 허느니게.(아이고, 떡 조금 사다가 하지. 집에서 어떻게 하냐.)

112049 @ 옛날은 쉬는 무싱거? 풋?(옛날은 소는 무엇? 팥?)

112049 #1 쉰 폳게. 녹듸도 허곡 폳도 허곡 솖앙 소곱에 담앙 톡 좁앙 좁은 떡이라고 꼭 헤낫저. 전이 좁은떡은 동글락허게 끊엉 이 요레 이제 요만이 끊엉 그레 쉬 담앙 똑똑 좁으민 영 좁으민 영 뒌다게. 또 영 늬기반듯헌 거 놓고 좁은 떡 놓고, 곤떡 놓고, 반 하나에 사람덜 테우고.(손 팥, 녹두도 하고 팥도 하고 삶아서 속에 담아서 톡 집어서 집은 떡이라고 꼭 했었지. 전에 집은 떡은 동그랗게 끊어서 이 요리로 이제 요만큼 끊어서 그리로 소 담아서 꼭꼭 집으면 이렇게 집으면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네모반듯한 거 놓고 집은 떡 놓고, 흰떡 놓고, 반기 하나에 사람들 나누고.)

112049 @ 침떡은 안 허곡?(시루떡은 안 하고?)

112049 #1 침떡은 끊어놓곡, 요만썩 소랑소랑[122] 침떡은 꼭 허여사.(시루떡은 끊어놓고, 이만씩 기름기름 시루떡은 꼭 해야.)

112049 @ 무슨 침떡? 조침떡?(무슨 시루떡? 조 시루떡?)

112049 #1 ᄋᆞ, 조침떡 헤낫저게. 시리에 쳥 끊엉.(어, 조 시루떡 했었지. 시루에 쪄서 끊어서.)

112049 @ 모멀도? 침떡 허는구나예?(메밀도? 시루떡 하는군요?)

112049 #1 게, 건 지일 좋은 거주기게.(응, 건 제일 좋은 거지.)

112050 @ 제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제물로예? 옥돔 엇이민 조기, 우럭?(제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제물로요? 옥돔 없으면 조기, 우럭?)

112050 #1 ᄋᆞ게, 그것도 다 그냥 들어가느녜. 생선 조기나 그런 것덜 바당궤기 꼭 헤영은에.(그래, 그것도 다 그냥 들어가. 생선 조기나 그런 것들 바닷고기 꼭 해서는.)

112051 @ 콩나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콩나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2051 #1 콩주름 놩은에 주름나민 이젠 거 헤영 올리고.(콩기름 놔서 기름나면 이젠 그거 해서 올리고.

112051 @ 보통날은 안 먹당 제삿날만 콩주름 헹?(보통날은 안 먹다가 제삿날만 콩기름 해서?)

112051 #1 멩심허영 헤사. 고사리 허영 고사린 꼭 들어간다.(명심해서 해야. 고사리 해서 고사린 꼭 들어간다.)

112051 @ 메칠 정도 걸려마씨? 콩주름 허젠 허민?(며칠 정도 걸려요? 콩나물

122) '소랑소랑'은 좀 기름한 물건이 나란하게 놓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시랑시랑'이라고도 한다.

하려고 하면?)

112051 #1 모르켜. 메칠사 허는지, 거 어떵허느니? 물 자꾸 줘 주고 나민이, 얼른 허젠 허민 곧 나는 것도 헐 수 잇고 게민 요만썩 질어도 먹어진다.(모르겠다. 며칠이야 하는지, 거 어떻게 하니? 물 자꾸 줘주고 나면, 얼른 하려고 하면 곧 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만큼씩 길어도 먹어진다.)

112051 @ 겨울에는 어려우켜예?(겨울에는 어렵겠네요?)

112051 #1 경헤도 뚜시게 헤영 저 뚜시게이. 솟 우트레 뚜뚯헌 디레 시리에 놩 밥 헤난 옆이 영 앚져도 너미 뜨거우민 익어불고 뜨겁지 안허게 미지근허게 헤영 꼭 그 주름 놩은에 그거 이젠 막 얼마든지 ᄒᆞ꼼 허지 기리우민 확 강 사오고 허주만은 그때는.(그렇게 해도 따뜻하게 해서 저 따뜻하게. 솥 위로 따뜻한 데로 시루에 놔서 밥 했던 옆에 이렇게 앉혀도 너무 뜨거우면 익어버리고 뜨겁지 안하게 미지근하게 해서 꼭 그 기름 놔서 그거 이젠 막 얼마든지 조금 하고 싶으면 확 가서 사오고 하지만 그때는.)

112052 @ 그믄 소고기는 어렵지예, 적갈?(그러면 소고기는 어렵지요, 적?)

112052 #1 소고기가 어디 이선게.(소고기가 어디 있어서.)

112052 @ 돗궤기 하나만 허연마씨?(돼지고기 하나만 했나요?)

112052 #1 ᄋᆞ게.(그래.)

112052 @ 상어궤기도 헷지예?(상어고기도 했지요?)

112052 #1 그것도 그자 적갈로 들어간다. 적갈로 상어.(그것도 거저 적으로 들어간다. 적으로 상어.)

112052 @ 보통 한 가지 돗궤긴 꼭 헷수과?(보통 한 가지 돼지고긴 꼭 했습니까?)

112052 #1 돗궤긴 꼭 적각은 헤놔사.(돼지고긴 꼭 적은 해놔야.)

112052 @ 돗궤긴 꼭 헤여?(돼지고긴 꼭 해?)

112052 #1 적갈하고, 이제 지숙이라고 바당궤기 헹은에, 배 넨 거, 또 꿴 건 이제 적깔이라고, 꼭 혜 놓고.(적하고, 이제 제수라고 바닷고기 해서, 배 낸 거, 또 꿴 건 이제 적이라고, 꼭 해놓고.)

112052 @ 적갈은 ᄒᆞᆫ 가지만 헤도 뒈는구나예?(적은 한 가지만 해도 되는군요?)

112052 #1 아이구, 정성허는 사람은 세 가지도 ᄒᆞᆫ 가지만 헤도 적갈은 헤 놔사게.(아이고, 정성하는 사람은 세 가지도 한 가지만 해도 적은 해놔야.)

112052 @ 도세기고기는 옛날엔 어떵 사당 헤신고예?(돼지고기는 옛날엔 어떻게 사다가 했는가요?)

112052 #1 잡는 사람이 하낫저. 집이 질황은에.(잡는 사람이 많았지. 집에 길러서.)

112052 @ 게도 돗추렴 식게날에 도세기고기 없을 수도 잇수게. 한림까지 가야 뒈는가 그러면?(그래도 돼지추렴, 제삿날에 돼지고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림까지 가야 되는가 그러면?)

112052 #1 게 어딜 강 사도 적갈은 헤 놔사게. 이제 닮지 안허영 잘덜 잡고 헤 낫저게. 이젠 잘 잡지 안허난.(그럼. 어딜 가서 사도 적은 해놔야. 이제 같지 않아서 이렇게 잘들 잡고 했었지. 이젠 잘 잡지 않으니까.)

112052 @ 돗추렴 헐 때 그런 거 안 헤 봣지예?(돼지추렴 할 때 그런 거 안 해 봤지요?)

112052 #2 안 헤 봔.(안 해 봤어.)

112052 @ 강 ᄀᆞ치 잇긴 이섯지예?(가서 같이 있긴 있었지요?)

112052 #2 응. 돗추렴 헹은에.(응. 돼지추렴 해서.)

112052 @ 그슬리고 바당에서 지붕에서 목 헹 줄 헹 죽이고 바당에 데령강?(그을리고 바다에서 지붕에서 목 해서 줄 해서 죽이고 바다에 데려가서?)

112052 #2 돌아멩 죽여가지고.(달아매서 죽여가지고.)

112052 @ 돌아멩예? 나도 어렷을 때 봐나신디. 겐 간이여 무싱거여 뜨뜻헐 때 먹으렌 또.(달아매어서요? 나도 어렸을 때 봤었는데. 그래서 간이다 무엇이다 따뜻할 때 먹으라고 또.)

112052 #2 간 곧 잡앙 온 거 그냥 먹주게.(간 곧 잡아서 온 거 그냥 먹지.)

112052 @ 어머니가 몸 약허난. 어릴 때부터 먹어집데가?(어머니가 몸 약하니까. 어릴 때부터 먹었었습니까?)

112052 #2 응. 잘 먹엇저. 간 ᄀᆞ튼 거.(응. 잘 먹었지. 간 같은 거.)

112053 @ 적은 몇 종류 준비하며, 누가 합니까?(적은 몇 종류 준비하며, 누가 합니까?)

112053 #1 적은 집이서게. 건 아무 포적[123]이라고 꼭 적은 지져놔사이 아무 걸 헤도.(적은 집에서. 건 아무 '포적'이라고 꼭 적은 지져놔야 아무 걸해도.)

112053 @ 포적은 어떤 거?('포적'은 어떤 거?)

112053 #1 포적이 요만썩 헹은에 꿰는 거. 이 젓갈 알러레 놩 포적 야 포적이라고 요만썩 헹 꿴다게, 꿰영이.('포적'이 요만씩 해서 꿰는 거. 이 젓갈 아래에 놔서 '포적', 야 '포적'이라고 이만씩 해서 꿴다, 꿰어서.)

112053 @ 것도 고기마씨?(그것도 고기예요?)

112053 #1 엇다게. 고기 알러레 논다 거 포적이라고.(없다. 고기 아래에 놓는다. 거 '포적'이라고.)

112053 @ 전? 전.(전? 전.)

112053 #1 전이옌 허느냐?(전이라고 하니?)

112053 @ 동태전 이런 건가? 아니면 뭐?(동태전 이런 건가? 아니면 뭐?)

112053 #1 아니. 동태가 아니고 그냥 이제 무신 그저 무싱걸로 허느니게? 그거 허젠 허믄 한땐 모멀로도 골앙 허고 이 '포적'이라고 그거 아래 놓곡 꿴다. 꿰영 그 우트레 적갈 놓고. 그 우트레 바릇궤기 놓곡.(아니. 동태가 아니고 그냥 이제 무슨 그저 무슨 걸로 하느냐? 그거 하려고 하면 한땐 메밀로도 갈아서 하고 이 '포적'이

123) '포적'은 메밀가루 따위로 지져내서 잘라서 꼬챙이에 꿰서 만든 적을 말한다.

라고 그거 아래 놓고 꿴다. 꿰여서 그 위에 적 놓고. 그 위에 바닷고기 놓고.)

112053 @ 둠비?(두부?)

112053 #1 응게, 둠비도 뭰다. 또 그 우트레 이제 무싱거 바닷궤기 놓고 경헌다게.(응, 두부도 된다. 또 그 위로 이제 무엇 바닷고기 놓고 그렇게 한다.)

112053 @ 적은 순서대로 골으민?(적은 순서대로 말하면?)

112053 #1 적은 그냥 적 놓고 그 우에 저 이 적갈 놓고 적 요만썩 끈엉 야야 헤영 이제 적갈 영 꿰영은에 놔. 놩 것덜에 돗궤기 놩 포적이라고 포적이 그거여게. 적갈은 지일 우에 놓고 적갈 아래 놓는 것이 포적.(적은 그냥 적 놓고 그 위에 저 이 적 놓고 적 요만씩 잘라서 야야 해서 이제 적 이렇게 꿰어서 놔. 놔서 것들에 돼지고기 놩 '포적'이라고 '포적'이 그거야. 적은 제일 위에 놓고 적 아래 놓는 것이 '포적'.)

112053 @ 그믄 두부가 포적에 들어가는 거지예?(그러면 두부가 '포적에 들어가는 거지요?)

112053 #1 두부가 포적이여 것이.(두부가 '포적'이야, 것이.)

112054 @ 떡은 몇 종류를 준비합니까?(떡은 몇 종류를 준비합니까?)

112054 #1 떡 놓고 떡은 쉬 담앙 좁은 떡 놓고, 늬기반듯헌 떡 놓고, 그 우트레 곤떡이라고 동글락헌 거 곤쏠로 헌 거 헤영 놓고.(떡 놓고 떡은 소 담아서 집은 떡 놓고, 네모반듯한 떡 놓고, 그 위로 흰떡이라고 둥근 거 흰쌀로 한 거 해서 놓고.)

112054 @ 곤떡이 제일 우에예?(흰떡이 제일 우에요?)

112054 #1 게.(그래.)

112054 @ 그믄 적 놓는 순서 ᄀᆞ르차 줍서.(그러면 적 놓는 순서 가르쳐 주세요).

112054 #1 게 순서가 이 지일 먼저 영 늬기반득이 끊은 거 그 우트렌 좁은 떡 영 쉬 담은 거 이 그 우트레 곤떡.(그래, 순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네모반듯 끊은 거 그 위론 집은 떡 이렇게 소 담은 거, 그 위에 흰떡.)

112054 @ 다음 좁은 떡이 두 번째?(다음 집은 떡이 두 번째?)

112054 #1 곤떡이 세 번채. 아래 침떡 흐랑[124]허게시리 이만이 끊엉은에 지일 아래 놓는 거 침떡이라고.(흰떡이 세 번째. 아래 시루떡 차지게끔 이만큼 끊어서 제일 아래 놓는 거 시루떡이라고.)

112054 @ 늬기반듯헌 게 침떡?(네모반듯한 게 시루떡?)

112054 #1 침떡. 늬기반듯헌 건 저 인절미. 좁은 떡은 영 쉬 담은 건이 그건 이제 저 좁은 떡이옌 헌다, 곧지 좋게.(시루떡. 네모반듯한 건 저 인절미. 집은 떡은 이렇게 소 담은 건 그건 이제 저 집은 떡이라고 한다, 말하기 좋게.)

112055 @ 과일은 몇 종류를 어떤 걸 준비합니까?(과일은 몇 종류를 어떤 걸 준비합니까?)

112055 #1 서너 가지 올린다만은, 그자 과일은이 하나 시민 하나라도 올리고 우

124) '흐랑'은 물렁한 느낌을 나타낸 말이다.

이 ᄒᆞ낌씩 툭툭 끊으멍 그냥 놔불민. 먹기 좋게사 올렴신디 과일 올릴 땐 이 과일 우이 ᄒᆞ낌씩 툭툭 끊엉 올려준다. 과일도 시 가진 올려줘사 꼭지로 쫄라근에.(서너 가지 올린다만, 그저 과일은 하나 있으면 하나라도 올리고 위에 조금씩 툭툭 끊으면서 그냥 놔버리면. 먹기 좋게야 올리고 있는지 과일 올릴 땐 이 과일 위에 조금씩 툭툭 끊어서 올려준다. 과일도 세 가진 올려줘야 꼭지로 잘라서.)

112055 @ 사과 배 미깡도 올립니까?(사과, 배, 밀감도 올립니까?)

112055 #1 것도 올린다. 것도 과일로 들어간다게.(것도 올린다. 것도 과일로 들어간다.)

112055 @ 참외 수박도 다 올릴 수 잇는 거지예?(참외 수박도 다 올릴 수 있는 거지요?)

112055 #1 것도 다 올릴 수 이시네, 다.(것도 다 올릴 수 있지. 다.)

112056 @ 채소는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채소는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112056 #1 콩ᄂᆞ물 꼭 들어가고이 콩ᄂᆞ물, 콩주름 논 거 집이서 놩덜 헤낫저게 물 노멍.(콩나물 꼭 들어가고 이 콩나물, 콩기름 놓은 거 집에서 놔서들 했었지. 물 놓으면서.)

112056 @ 시금치?(시금치?)

112056 #1 시금치 그런 것덜 싀 가지 놩 허는디이 이젠 사당 덜 얼마라도.(시금치 그런 것들 세 가지 놔서 하는데 이젠 사다가들 얼마라도.)

112056 @ 옛날엔?(옛날엔?)

112056 #1 게메. 옛날 시금치 엇이민 콩나물 키왕 고사리허고 그건 그자 집이서 헐 수 이시난.(글쎄. 옛날 시금치 없으면 콩나물 키워서 고사리하고 그건 그저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112057 @ 진설은 누가 합니까?(진설은 누가 합니까?)

112057 #1 아, 그거 집이서 아무라도 그자 허느네. 지관이라고 절은 이 남자덜 허곡게.(아, 그거 집에서 아무라도 그저 해. 지관이라고 절은 이 남자들 하고.)

112057 @ 그믄 출려 놓는 건 여자덜도 헙니까?(그러면 차려 놓는 건 여자들도 합니까?)

112057 #1 그냥 남자덜이 그디서 다 지관이라고 이 술도 올려주곡 궨당덜신디레도 비와주곡.(그냥 남자들이 거기서 다 지관이라고 이 술도 올려주고 친척들한테도 부어주고.)

112057 @ 제일 처음 여섯 시쯤에 출리는 건 여자들이 허곡예?(제일 처음 여섯 시쯤에 차리는 건 여자들이 하고요?)

112057 #1 곧 어두와가민 올린다게.(곧 어두워가면 올린다.)

112057 @ 남자도 왕은에예?(남자도 와서요?)

112057 #1 남자 시민 남자가 허주만은. 남자 엇인 집은 여자도 헤사주. 어떵 허느니? 남자가 시민 남자가 허주만은 거 잘 올리는 거.(남자 있으면 남자가 하지만. 남자 없는 집은 여자도 해야지. 어떻게 하니? 남자가 있으면 남자가 하지만은 거

잘 올리는 거.)

112058 @ 메, 겡은 누가 뜹니까?(메, 갱은 누가 뜹니까?)

112058 #1 집이서 아무라도 헌다. 집이 신 사름.(집에서 아무라도 한다. 집에 있는 사람.)

112058 @ 뜨는 거, 어머니 메누리?(뜨는 거, 어머니? 며느리?)

112058 #1 에, 그거 곱갈르지[125] 안 헹 아무라도 헌다. 우선 메누리가 임제지. 뚤은 이 그디 얻어먹으레 오는 거고. 그 집 일허는 건 메누리라.(에, 그거 구별하지 안 해서 아무라도 한다. 우선 며느리가 임자지. 딸은 거기 얻어먹으러 오는 거고. 그 집 일하는 건 며느리야.)

112060 @ 파제는 몇 시에 합니까?(파제는 몇 시에 합니까?)

112060 #1 아, 파제 열두 시에 헌다. 게난 열두 시 전이 다 헹은에 딱 열두 시 뒈민 파제헌덴 허주기. 제ᄉᆞ 파제.(아, 파제 열두 시에 한다. 그러니까 열두 시 전에 다 해서 딱 열두 시 되면 파제한다고 하지. 제사 파제.)

112060 #1 건 어떻든지 열두 시에 허느네. 시간이 딱 싯느네. 건 하여튼.(그건 어떻든지 열두 시에 하지. 시간이 딱 있네. 건 하여튼.)

112061 @ 문전제[126]는 어떻게 지냅니까?('문전제'는 어떻게 지냅니까?)

112061 #1 문전제는 집 주인이 헌다. 문전제부터 ᄆᆞ녀 헤놩 제ᄉᆞ헌다. 문전제가 집 주인이옌 헌다. 집 주인이옌 허연 문전제부터 헤 놩 제사헌다. 이제도 허느네게. 딱 상 놓고이. 문전 게난 문전제가 그집 주인이옌 허주게.(문전제는 집 주인이 한다. 문전제부터 먼저 해 놓아서 제사한다. 문전제가 집 주인이라고 한다. 집 주인이라고 해서 문전제부터 해 놔서 제사한다. 이제도 하네. 딱 상 놓고 문전, 그러니까 문전제가 그 집 주인이라고 하지.)

112062 @ 음, 제반은 어떻게 합니까? 잡식 걸명[127] 튼아당? 제반을 걷을 때도?(제반은 어떻게 합니까? 잡식 '걸명' 뜯어다가? 제반을 걷을 때도?)

112062 #1 ᄋᆞ게. 걷어서 저 올레레 웃담더레 경 비운다게 걷엉 그냥.(응. 걷어서 저 오래에 윗담으로 그렇게 부어. 걷어서 그냥.)

112062 @ 올레 어디 비와마씨?(오래 어디 부워요?)

112062 #1 그냥 저 웃담더레. 저 웃담에 강. 이제도 헌다. 뭣허게 뒈믄, ᄒᆞ낌썩 다 걷어 놩.(그냥 저 윗담에. 저 윗담에 가서. 이제도 해. 뭐하게 되면, 조금씩 다 걷어 놔서.)

112062 @ 옛날에는 초가지붕 우에 거뒁은에 까마귀?(옛날에는 초가지붕 위에 걷어서 까마귀?)

112062 #1 올리고 헤낫저. 이젠 지붕 우에 안 올려.(올리고 했었지. 이젠 지붕 위에 안 올려.)

---

125) '곱 갈르다'는 사리를 분별하여 한계를 짓는 것을 말한다.
126) '문전제(門前祭)'는 제사 때 문 앞쪽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127) '걸명'은 제사를 지낸 뒤 제상 위의 각 제물을 조금씩 떠 넣어서 문간채의 지붕위로 올리거나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 가에 두어 잡귀신을 대접하는 일을 말한다.

112062 @ 옛날에는 지붕 우에예?(옛날에는 지붕 위에요?)

112062 #1 지붕 우트레도 올려도낫저. 이젠 지붕 우트레 안 올려. 저 웃담더레 이제도 헌다.(지붕 위로도 올렸었지. 이젠 지붕 위로는 안 올려. 저 윗담에 이제도 한다.)

112062 @ 그 까마귀가 먹으레 온덴 안 들어 봣수과?(그 까마귀가 먹으러 온다고 안 들어 봤습니까?)

112062 #1 그것사 봉가 먹으레 오주게. 놀아뎅기는 거난 봉가 먹는 거난.(그거야 주워 먹으러 오지. 날아다니는 거니까 주워 먹는 거니까.)

112062 #1 톧아놓는 거 톧아당 저레 비우는 거 굴루굴루 톧아 놔.(뜯어놓은 거 뜯어다가 저기 따르는 거 고루고루 뜯어 놔.)

112062 @ 큰아덜이 허는 거지예?(큰아들이 하는 거지요?)

112062 #1 큰아덜이 헤져가주기게. 큰아덜 보니까.(큰아들이 하게 되지. 큰아들 보니까.)

112063 @ 지제는 언제 합니까?(지제는 언제 합니까?)

112063 #1 지제, 그거 오래여이. 거자 뒈여 가민, 지제 허여불민 다음은 담제라고이 지젠 거쟈 허영 끝나는 거주게. 안 허는 거.(지제, 그거 오래야. 거의 되어 가면, 지제 해버리면 다음은 담제라고 지젠 거의 해서 끝나는 거지. 안 하는 거.)

112064 @ 묘제는 어떻게 합니까?(묘제는 어떻게 합니까?)

112064 #1 묘제 그냥 무시것고? 벳겻긋디 강 허는 거 아니가? 묘제라고.(묘제 그냥 뭐지? 바깥에 가서 하는 거 아니가? 묘제라고.)

112065 @ 제사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이시민 말씀해 주십시오. 제사허는 날은 어떵 헤야 한다. 뭐, 뭐허지 말라.(제사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사하는 날은 어떻게 해야 한다. 뭐, 뭐하지 마라.)

112065 #1 헐 건 다 허주기게. 뭐 허지 말렌 허는 건 식게날은?(할 건 다 하지. 뭐 허지 말라고 하는 건 제삿날은?)

112065 @ 아이덜안티는 식겟날은 조심해야 뒐 거? 이런 거?(아이들에게는 제삿날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112065 #1 거 무싱 거 비리지 못허게 헌다게, 어디 피나지 못허게 하고, 무시거 영장밧디 봐난 사람 못 허게 허곡이, 멩심허는 것이 비는 거. 비는 사름 그레 어지르지 못허게 허곡이, 경 헌다. 어디 끊어진, 피난 거 그레 어지르지 못허게 허곡이,(거 무엇 비리지 못하게 한다, 어디 피나지 못하게 하고, 무엇 장지에 봤던 사람 못하게 하고, 명심하는 것이 비는 거. 비는 사람 그리로 얼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어디 끊어진, 피난 거, 거기 얼르지 못하게 하고,)

112065 @ 식겟날은 그런 사람 가믄 안 뒈마씨?(제삿날은 그런 사람 가면 안 돼요?)

112065 #1 어떵허여. 그레 가민 비련 안 뒈지. 제ᄉᆞ헐 땐. 저 영장밧디 본 사람이나 어디 끊어졍 피 난 사름이나 멩심헤사허여. 비린덴.(어떻게 해. 그리로 가면

비려서 안 되지. 제사할 땐. 저 장지에 본 사람이나 어디 끊어져서 피 난 사람이나 명심해야 해. 비린다고.)

112065 @ 제삿날예?(제삿날요?)

112065 #1 이제도 제ᄉᆞ허느네. 우리 허단 아이들 물려줘부난, 싹 모두왕도 허곡이, 나가 허단 제사도 흔 스물 멧 개나 뒈다게이. 큰아덜이. 게난 이제 늙으난 안 허난 아들네집이 강 다 한다. 모영이라도 경헌다. 이제.(이제도 제사하네. 우리 하다가 아이들 물려줘버리니까, 싹 모아서도 하고, 내가 하던 제사도 한 스물 몇 개나 된다. 큰 아들. 그러니까 이제 늙으니까 안 하니까 아들네 집에 가서 다 한다. 모여서라도 그렇게 한다. 이제.)

112065 @ 어쨌든 조상 때문에 나가 나와시난.(어쨌든 조상 때문에 내가 나왔으니까.)

112065 #1 게.(그럼.)

112065 @ 어쨌든 그 위안은 어디 안 가는 것꿰.(어쨌든 그 위안은 어디 안 가는 거지요.)

112065 #1 경 혜연 허는 거지.(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112065 @ 어디서 나온 것과?(어디서 나온 겁니까?)

112065 #1 무사 아니라? 조상님 엇이민 ᄌᆞ손이 나와지느냐?(왜 아니야? 조상님 없으면 자손이 나와지니?)

13. 민간요법

113003 @ 머리에 하양하게 막 머리에 비듬 나는 걸 비듬이렌 허고예?(머리에 하얗게 머리에 비듬 나는 걸 비듬이라고 하고요?)

113003 #1 비듬.(비듬.)

113004 @ 버짐? 군버짐?(버짐? 마른버짐?)

113004 #1 아아, 군버짐은 막 그 지쳐가민 나온다. 둥굴락둥굴락허영이 헤양허게, 춤버짐은 막 벌겅케 그냥 커 가멍 막 허고, 군 버짐은 이 지치민 나오는 거. 그건 그냥 헤양케 영영 헤영 헤영 군버짐이라고, 춤 버짐은 막 큰다.(아아, 마른버짐은 막 그 지쳐가면 나온다. 둥글둥글해서 하얗게, 진버짐은 막 뻘겋게 그냥 커 가면서 막 하고, 마른버짐은 이 지치면 나오는 거. 그건 그냥 하얗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마른버짐이라고, 진버짐은 매우 커.)

113004 @ 아아, 커마씨?(아아, 커요?)

113004 #1 춤버짐은 막 벌겅케 그냥 난 ᄒᆞᆨ깜 똑각헷당 이만이 큰다. 춤버짐은, 군버짐은 지쳐가민 나오는 거고. 사름 얼굴에.(진버짐은 매우 뻘겋게 그냥 난 조금 '똑각'했다가 이만큼 커. 진버짐은 막 큰다. 진버짐은 지쳐 가면 나오는 거고. 사람 얼굴에.)

113004 @ 음. 이거 뭐 볼르민 뒈어마씨?(음. 이거 뭐 바르면 돼요?)

113004 #1 이제 그런 무신 그 약덜이.(이제 그런 무슨 그 약들이.)

113004 @ 못 먹엉 버즘 생겻덴 헌 말이 이서나신디.(못 먹어서 버짐 생겼다고 한 말이 있었는데.)

113004 #1 하하, 경도 곧나마는 엿날 사름덜이. 그런 걸 나게 허느냐게? 군버짐.(하하, 그렇게도 말한다만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나게 하느냐? 마른버짐.)

113004 @ 두 가지, 버즘은 두 가지 잇수과?(두 가지, 버짐은 두 가지 있습니까?)

113004 #1 군버짐, 춤버짐 경 헌다마는 이제 그런 걸 나겔 허느냐게?(마른버짐, 진버짐 그렇게 한다만 이제 그런 걸 나게를 하느냐?)

113004 @ 두 가지 버즘은 두 가지.(두 가지 버짐은 두 가지).

113004 #1 두 가지여게. 군버짐, 춤버짐.(두 가지야. 마른버짐, 진버짐.)

113004 @ 삼촌도 나봣수과?(삼촌도 나봤습니까?)

113004 #1 게. 어린 때 나지. 군버짐이라고이. 춤버짐은 벌겅케 낭 막 큰다. 벌겅케 막 크고 군버짐은이?(그럼. 어린 때 나지. 마른버짐이라고. 진버짐은 뻘겋게 나서 막 큰다. 뻘겋게 막 크고 마른버짐은?)

113004 @ 어떵 허여? 물로 싯어?(어떻게 해? 물로 씻어?)

113004 #1 아니, 물로 싯엉 뒈느냐? 무싱거 영 볼라줘야지. 군버짐은 그냥 이 저 무시거 헤가민 나근에 그건 그냥 춤버짐은 막 큰다.(아니, 물로 씻어서 되느냐? 무엇 이렇게 발라줘야지. 마른버짐은 그냥 이 저 무엇 해 가면 나서 그건 그냥 진버짐은 막 큰다.)

113004 @ 약국도 엇이민 어떵허여? 옛날엔.(약국도 없으면 어떡해? 옛날엔.)

113004 #1 무싱것사 볼라줘난지 몰라. 늙은 할망덜 꿈도 볼라주고 엿날에. 이젠 그런 거 나게 허느냐게?(무엇이야 발라줬었는지 몰라. 늙은 할머니들 침도 발라주고 옛날에. 이젠 그런 거 낫게 하느냐?)

113004 @ 꿈? 꿈?(침? 침?)

113004 #1 꿈 볼라줘야지. 뭐 볼를 거 셔게? 약이 경.(침 발라줘야지. 뭐 바를 거 있어? 약이 그렇게.)

113004 @ 고약? 고약도 아니고?(고약? 고약도 아니고?)

113004 #1 영헤영 볼라 주지. 뭐 시니? 춤.(이렇게 해서 발라 주지. 뭐 있니? 침.)

113004 @ 춤이렌도 헙니까?(침이라고도 합니까?)

113004 #1 게에. 춤. 아이고, 춤이엔도 허고, 꿈이엔도 허고.(그래. 침. 아이고, '춤'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고.)

113004 @ 아이덜 그런 거 나민 막 걱정되잖아예? 애기덜.(아이들 그런 거 나면 매우 걱정되잖아요? 애기들.)

113004 #1 춤이나 볼라줌벳긔 뭣 셔게? 이젠 약 시난 경 춤끄지 볼르지 안해도

이. 또 그런 건 안 좋아. 나지도 안허곡게.군 버짐,츰버짐.(침이나 발라줌밖에 뭐 있냐어 이젠 약 있으니까 그렇게 침까지 바르지 않아도. 또 그런 건 안 좋아. 나지도 않고. 마른버짐. 진버짐.)

113005 @ 나이 들민 하양한 거 거 뭣꽈? 발에 뭐꽈? 거. 무시무시? 발에 막 그 뭐 나는 거 잇수꿰? ᄀᆞ려운 거.(나이 들면 하얀 거 거 뭡니까? 발에 뭐입니까? 거. 무좀? 발에 막 그 뭐 나는 거 있잖습니까? 가려운 거.)

113005 #1 거 츰버짐? 무시무시?(거 진버짐? '무시무시'?)

113005 @ 무시무시?('무시무시'?)

113005 #1 무시무시 이젠 약덜 좋으난 경 못 젼디게 허느냐?(무좀 이젠 약들 좋으니깐 그렇게 못 견디게 하느냐?)

113005 @ 백선이렌 헌 거나.(백선이라고 한 거나.)

113005 #1 백선이 뭐시라?(백선이 뭐야?)

113005 @ 백선이 무시무시 닮수다.(백선이 무좀 같습니다.)

113005 #1 기가?(그러니?)

113005 @ 여기도 무시무시옌 헙니까?(여기도 '무시무시'라고 합니까?)

113005 #1 무시무신옌 헌 건 들어나고 헌디 백선은 몰르켜. 안 들어봣져게.('무시무시'라고 한 건 들어었고 한데 백선은 모르겠어. 안 들어봤지.)

113006 @ 여드름은 들어 봣수과?(여드름은 들어 봤습니까?)

113006 #1 ᄋᆞ. 여드름이사 저 그 막 그 저 열덜 신 때, 젊은 때, 어린 때, 막 막 나낫주기게. 뾰족뾰족 ᄉᆞ뭇 여드름이라고이.(응. 여드름이야 그 저 그 막 그 저 열들 있는 때, 젊은 때, 어린 때, 마구 마구 났었지. 뾰족뾰족 사뭇 여드름이라고.)

113006 @ 것도 여드름이옌 헤낫구나예?(것도 여드름이라고 했구나요?)

113006 #1 여드름이옌 응. 우리 어린 때이. 이제 그런 거 나도록 헴시냐게? (여드름이라고 응. 우리 어린 때. 이제 그런 거 나도록 하고 있느냐?)

113006 @ 방법은 뭐 모르고 이것도.(방법은 모르고 이것도.)

113006 #1 여드름 그 막 저 열 나주기게. 젊은 때이 한창 뭐 헤 올 때. 거 거 나낫져게. 이젠 거 나게 허느냐게?(여드름 그 막 저 열 나지. 젊은 때 한창 뭐 해 올 때. 거 거 났었지. 이젠 거 나게 하느냐?)

113006 @ 지미 여기 꺼멍헌 거?(기미 여기 꺼멍한 거?)

113007 #1 음, 또각또각헌 거. 지미게.(기미, '또각또각'한 거. 기미.)

113006 @ 고름 나는 거.(고름 나는 거.)

113007 #1 이젠 지미옌 헌다 거.(이젠 기미라고 한다, 거.)

113008 @ 지미예? 주근깨라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 ᄒᆞ꼼 햇빛 맞아가민 꺼문 거 쩜쩜쩜쩜.(기미요? 주근깨라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 조금 햇빛 맞아가면 검은 거 쩜쩜쩜쩜.)

113008 #1 게메, 쩜쩜허는 것이 그것이 무싱거옌 허느네? 이제 지미, 검은 거 나는 거 지미.(글쎄. 점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제 기미, 검은 거

나는 거 기미.)

113008 @ 주근깨렌 안 하고?(주근깨라고 안 하고?)

113008 #1 건 안 들어봣어.(건 안 들어봤어.)

113009 @ 사마귀?(사마귀?)

113009 #1 사마귀라고이 건 꺼멍헌 거 나는 거. 꺼멍헌 거 난다. 사막, 꺼멍헹 동글락동글락 난 것이 사막, 사람 몸에.(사마귀라고 건 꺼먼 거 나는 거. 꺼먼 거 난다. 사마귀, 까매서 동글동글 난 것이 사마귀, 사람 몸에.)

113009 @ 어떵해야 될지 모르고예?(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113009 #1 어떵사 헨 구완해신지 모르는디 사막이옌 헌다. 꺼멍헌 거 나는 거. 이젠 이런 거 저런 거 안 나이.(어떡해야 해서 구완했는지 모르는데 사마귀라고 한다. 꺼먼 거 나는 거. 이젠 이런 거 저런 거 안 나.)

113009 @ 다라끼 나민?(다래끼 나면?)

113009 #1 다라낀 눈에 동그랑이 눈바위에 난 거.(다래낀 눈에 동그랗게 눈가에 난 거.)

113010 @ 눈바위에예?(눈가예요?)

113009 #1 그거 고름 나곡 헤영 헤나민 좋나. 못 젼뎌. 거 나도이.(그거 고름 나고 해서 해나면 좋아. 못 견뎌. 거 나도.)

113010 @ 고름, 거 요즘도 나근에 병원에 갑니께.(고름, 거 요즘도 나서 병원에 갑니다.)

113010 #1 거 보라게.(거 봐라.)

113010 @ 옛날엔 어떵해신고 거.(옛날엔 어떡했는가 거.)

113010 #1 어떵사 해신지 다래끼라고 나민이.(어떻게야 했는지 다래끼라고 나면.)

113010 @ 까치러부러신가?(깨뜨려버렸는가?)

113010 #1 몰라. 어떵사 해신 하여튼 것도 고름 앚이고 말쩨민 조으난게. 이제사 그런 거 난 놔두느냐게. 몰르켜마는 우린 안 나부난(몰라. 어떻게야 했는지 하여튼 것도 고름 앉고 말째면 좋으니깐. 이제야 그런 거 나면 놔두느냐. 모르겠다만 우린 안 나니깐.)

113011 @ 눈이 뻘겅허게 뒈민 어떵헤여신고예? 눈도 뻘겅헤연 충혈되민.(눈이 뻘겋게 되면 어떻게 했을가요? 눈도 뻘게서 충혈되면.)

113011 #1 눈이 뻘겅허민 눈뚤림이라고이.(눈이 뻘거면 '눈뚤림'이라고.)

113011 @ 눈뚤림?('눈뚤림'?)

113011 #1 눈뚤림 것ᄀᆞ라 눈 뻘겅헌 거.('눈뚤림' 것보고 눈 빨간 거.)

113011 @ 눈뚤림?('눈뚤림'?)

113011 #1 ᄋᆞ게. 약 션 톡 놓곡 헤난디 몰르켜. 약도 안 논 셍이라. 약 엇인 때도 션가?(그래. 약 있어서 꼭 놓고 했었는데 모르겠어. 약도 안 놓은 모양이야. 약 없을 때도 있었는가?)

113011 @ 눈뚤림예?(‘눈뚤림’요?)

113011 #1 눈뚤림, 눈 뻘겅ᄒᆞᆫ 거.(‘눈뚤림’, 눈 뻘건 거.)

113012 @ 게고 치통, 이빨 알령, 그걸 이빨 알리는 거.(그리고 치통, 이빨 아려서, 그걸 이빨 아리는 거.)

113012 #1 이 알리는 수도 셔낫주기게.(이 아리는 수도 있었었지.)

113012 @ 치통이렌 안 헷수과? 이빨 알령, 치통.(치통이라고 안했습니까? 이빨 아려서, 치통.)

113012 #1 치통이옌 허느냐? 것ᄀᆞ라.(치통이라고 하느냐? 것보고.)

113012 @ 응. 이빨 알린덴 헤영.(응. 이빨 아린다고 해서.)

113012 #1 알린덴 허는 거 치통이옌 허느냐? 치통은 안 들어보고, 이빨 싯당 알리는 수가 싯주기게. 응. 치통, 것이.(알린다고 하는 거 치통이라고 하느냐? 치통은 안 들어보고 이빨 있다가 아리는 수가 있지. 응. 치통, 것이)

113013 @ 셋가시 낭은에 막 허는 건? 무싱거.(혓바늘 나서 막 하는 건? 무엇.)

113013 #1 셋가시 남도 헤난.(혓바늘 나기도 했었어.)

113013 @ 것도 피곤허난 경.(것도 피곤하니까 그렇게.)

113013 #1 몰라게. 셋가시 거, 피곤헹 나는 것가? 것이 셋가시라고 셋가시옌 헌다. 거(몰라. 혓바늘 거, 피곤해서 나는 것이니? 것이 혓바늘이라고 혓바늘이라고 한다. 거)

113014 @ 천연두?(천연두?)

113014 #1 건 몰르크라.(건 모르겠어.)

113014 @ 안 들어봣수과? 빨강허게 홍역ᄀᆞ치 곰보 만드는 거. 마마?(안 들어봤습니까? 빨강하게 홍역같이 곰보 만드는 거. 마마?)

113014 #1 아, 그거 몸에 나느냐?(아, 그거 몸에 나느냐?)

113014 @ 온몸에 다, 마마 나는 거.(온몸에 다, 마마 나는 거.)

113014 #1 경 허느냐? 안 들어봣어. 몰라.(그렇게 하니? 안 들어봤어. 몰라.)

113014 @ ᄒᆞᆫ 번도 안 들어봔. 천연두 안 들어봔?(한 번도 안 들어봤어. 천연두 안 들어봤어요?)

113014 #1 아니.(아니.)

113014 @ 마마는 들어봣지예?(마마는 들어봤지요?)

113014 #1 것도 안 들어보고.(것도 안 들어보고.)

113014 @ 마마, 곰보?(마마, 곰보?)

113014 #1 아아, 곰보라고 마만 안 들어본 거고, 곰보 날 때 드러 뭐 나가지고.(아아, 곰보라고 마만 안 들어본 거고, 곰보 날 때 마구 뭐 나가지고.)

113014 @ 것이 천연두.(것이 천연두.)

113014 #1 경 허느냐? 건 안 들어봣저.(그렇게 하느냐? 건 안 들어봤지.)

113014 @ 곰보는 뭐 나가지고 헌덴 험니까?(곰보는 뭐 나가지고 한다고 합니까?)

113014 #1 아니, 곰보옌 허주게. 거 나나민 그르 셩게. 나난 그르가. 것ᄀᆞ라 곰보옌 허주기게. 나난 그르가.(아니, 곰보라고 하지. 거 나나면 그루 생겨. 났던 그루가. 것보고 곰보라고 하지. 났던 그루가.)

113014 @ 게믄 그거가 마마렌 안 헤낫수과?(그러면 그것이 마마라고는 안 했었습니까?)

113014 #1 건 안 들어본 말이고.(건 안 들어본 말이고.)

113015 @ 홍역은 들어봣수과?(홍역은 들어봤습니까?)

113015 #1 어, 홍역이사 엿날덜은 이젠 원 약사 잘 노난 헴신디. 홍역은 꼭 허영이.(어, 홍역이야 옛날들은 이젠 원 약이야 잘 놓으니까 하고 있는데. 홍역은 꼭 했어.)

113015 @ 홍역?(홍역?)

113015 #1 ᄋᆞ게. 경 헐 땐 막 저 검줄매고 못 들어오게 헷저게.(응. 그렇게 할 땐 막 저 금줄매고 못 들어오게 했지.)

113015 @ 검줄, 금줄매고?(금줄, 금줄매고?)

113015 #1 ᄋᆞ. 사람 못 들어오게. 홍역헐 때.(응. 사람 못 들어오게. 홍역할 때.)

113015 @ 음, 애기도 헤낫수과?(음, 아기도 했었습니까?)

113015 #1 게. 옛날은 무사 경 홍역을 헨고? 이젠 약 좋앙 주사 얼마 안 헴서이. 건 안 들어본 말이고.(응. 옛날은 왜 그렇게 홍역을 했는가? 이젠 약 좋아서 주사 얼마 안 하고 있지. 건 안 들어본 말이고.)

113015 @ 그때 당황헹 어떵헷수과?(그때 당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13015 #1 게. 홍역 허당 잘 죽고 헤시네게. 그거 아이덜이.(그래. 홍역 하다가 잘 죽고 했었어. 그거 아이들이.)

113015 @ 그믄 어떵 아이덜 뭐뭐 죽 쒀줘?(그러면 어떻게 아이들 뭐뭐 죽 쒀줘?)

113015 #1 어떵허여게? 그 아기 먹이는 거 ᄒᆞ꼼씩 멕여주고, 홍역이라고 막 겁나낫저. 홍역이옌 허민.(어떡해? 그 아기 먹이는 거 조금씩 먹여주고, 홍역이라고 매우 겁났었어. 홍역이라고 하면.)

113015 @ 방법이 없엇구나예?(방법이 없었군요?)

113015 #1 게. 홍역.(그래. 홍역.)

113016 @ 모기 물엉 학질?(모기 물어서 학질?)

113016 #1 모기물민게 모기 하노난게.(모기물면 모기 많아놓으니까.)

113016 @ 학질, 학질, 들어봣수과?(학질, 학질, 들어봤습니까?)

113016 #1 학질은 저 것 뭣허는 거여마는 잊어불어졋저. 모기 무는 것ᄀᆞ라 학질이 아니고, 모기 무는 건 모기 무는 거고, 학질이 뭐 설새 나는 것이 학질가? 뭣고? 학질 들어봣저마는 무싱거 어떵 허는 건 모르켜.(학질은 저 것 뭐하는 거다만 잊어버려졌어. 모기 무는 것보고 학질이 아니고, 모기 무는 건 모기 무는 거고, 학질이 뭐 설사 나는 것이 학질인가? 뭐인가? 학질 들어봤다만 무엇 어떻게 하는 건 모르

겠어.)

113019 @ 뚬띠?(땀띠?)

113019 #1 뚬띤 거 뚬 날 때, 뚬 나민 난다게. 뽀족뽀족뽀족, 뻘겅헌거이. 거 뚬띠. 막 밧디 일허민 뚬띠 잘 나낫저. 우리도.(땀띤 거 땀 날 때, 땀 나면 나. 뽀족뽀족뽀족 빨간 거. 거 땀띠. 마구 밭에 일하면 땀띠 잘 났었지. 우리도.)

113019 @ 일 헤난 다음?(일 했던 다음?)

113019 #1 일허민 뚬띠, 뚬 나민 뚬띠. 뚬 하도 나가민 뚬띠 난다게.(일하면 땀띠, 땀 나면 땀띠. 땀 하도 나가면 땀띠 난다.)

113020 @ 부시럼?(부스럼?)

113020 #1 부시럼은 어디 허멀 난 것ᄀᆞ라 부시럼이옌 헌다게.(부스럼은 어디 헌데 난 것보고 부스럼이라고 한다.)

113020 @ 부스럼이옌도 허고 허물이옌도 허고,(부스럼이라고도 하고 헌데라고도 하고,)

113020 #1 ᄋᆞ게. 허멀 난 것ᄀᆞ라 부시럼 낫젠 헌다게.(응. 헌데 난 것보고 부스럼 났다고 한다.)

113020 @ 무사 허물 그런 거 나는고예?(왜 허물 그런 거 나는가요?)

113020 #1 게매 말이여게. 무사사 남신디.(그러게 말이야. 왜야 나고 있는지.)

113021 @ 헌데.('헌데'.)

113021 #1 헌덴 안 들어봣저.('헌덴' 안 들어봤어.)

113022 @ 종기.(종기.)

113022 #1 몰르켜. 아, 종기 그거 뭐 난 것ᄀᆞ라 종지옌 헌다게. 둥그락허게 난 것ᄀᆞ라.(모르겠어. 아, 종기 그거 뭐 나는 것보고 종지라고 해. 둥그렇게 나는 것보고.)

113022 @ 이것도 고름 짜젠 허민 막.(이것도 고름 짜려고 하면 마구.)

113022 #1 종지라고이. 게게. 그건이 크게 둥그락허게 뻘겅허게 난다게. 종지옌 헌 거.(종기라고. 그래. 그건 크게 둥그렇게 빨강하게 나. 종기라고 한 거.)

113022 @ 크게 둥글락하게 뻘겅허게?(크게 둥그렇게 빨강하게?)

113022 #1 ᄋᆞ게.(그래.)

113022 @ 옛날에 고약 붙여나고.(옛날에 고약 붙였었고.)

113022 #1 어떵 헹 아마 구완은 헤실 거여마는 종지옌 헌다. 그건이 종지 겁나? 종기 낫젠 허민 이젠 그런 거 엇나마는 옛날은?(어떻게 해서 아마 구완은 했을 거다만 종기라고 해. 그건 종기 겁나? 종기 났다고 하면 이젠 그런 거 없다만 옛날은?)

113025 @ 두드레기?(두드러기?)

113025 #1 아, 두드러긴 들어낫저.(아, 두드러긴 들었었어.)

113025 @ 잘못 먹언?(잘못 먹어서?)

113025 #1 두드레기 나는 사람이 셔이. 뭐 잘못 먹엉 남신가? 두드레기라고 몸

에 둥글락 둥글락 뻘경헌 거 나. 두드레기, 거 무사 나신고? 두드레기 나낫저마는 이제 그런 거 나는 거 몰라, 몰라. 안 봐낫어.(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있어. 뭐 잘못 먹어서 나고 있나? 두드러기라고 몸에 둥글둥글 빨간 거 나. 두드러기, 거 왜 나는가? 두드러기 났었단만 이제 그런 거 나는 거 몰라, 몰라. 안 봤었어.)

113027 @ 경기?(경기?)

113027 #1 정기라고이. 경기? 정기가 그거. 저 아이덜 거 아무나 안 헌다게. 정기. 경 헹 침 주민 좋나게 침 맞아사. 정긴.(경기라고. 경기? 경기가 그거. 저 아이들 거 아무나 안 해. 경기. 그렇게 해서 침 주면 좋아. 침 맞아야. 경긴.)

113027 @ 깜짝깜짝 추물락 추물락?(깜짝깜짝 멈칫 멈칫?)

113027 #1 그거 정기라고 헌다. 추물락 추물락허멍 허는 거.(그거 경기라고 해. 멈칫 멈칫하면서 하는 거)

113027 @ 추물락 추물락 놀라는 거예?(멈칫 멈칫 놀라는 거요?)

113027 #1 음, 정기 침 맞아사 좋넨 헌다. 이젠.(음, 경기 침 맞아야 좋다고 한다. 이젠.)

113027 @ 잘 울고.(잘 울고.)

113027 #1 울곡게. 거 추물락 추물락.(울고. 거 멈칫 멈칫.)

113027 @ 여기에도 침 맞히는 할무니네 잇어수과?(여기에도 침 맞히는 할머니네 있었습니까?)

113027 #1 옛날덜은 셔난디 이젠 엇어.(옛날들은 있었는데 이젠 없어.)

113027 @ 여러 명 잇어수과?(여러 명 있었습니까?)

113027 #1 죽어부럿저게.(죽어버렸지.)

113027 @ 월령에?(월령에?)

113027 #1 월령 하르방 양 서장이라고 침 잘 놔낫저. 아프민 침 노민 좋아. 그디 강이 이젠 뭐 침ᄁᆞ지 노느냐게. 주사 강 확 마자불주.(월령 할아버지 양 서장이라고 침 잘 놓았었어. 아프면 침 놓으면 좋아. 거기 가서 이젠 뭐 침까지 놓느냐. 주사 가서 확 맞아버리지.)

113027 @ 양 서장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셧수과?(양 서장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까?)

113027 #1 늙엉 돌아갓저. 양 서장이라고이. 침 노는 사람이여게.(늙어서 돌아갔지. 양 서장이라고. 침 놓는 사람이야.)

113027 @ 오래되엇수과? 십 년 넘언?(오래되었습니까? 십 년 넘었어?)

113027 #1 아이고, 십년이 뭣고게? 막 저, 게난 엿날 침 놓는 사람이난 양 가고 성은, 서장이라고 그 저 무싱거 침 노는 사람ᄀᆞ라 양 서장이라고 헤낫져. 그 사름, 아팡 그디 강 침노민 좋앙게. 어떵사 헹 놓는지. 으씩허게 놔.(아이고, 십 년이 뭐냐? 막 저, 그러니까 옛날 침 놓는 사람이니까 양가고 성은, 서장이라고 그 저 무엇 침 놓는 사람보고 양 서장이라고 했었지. 그 사람, 아파서 거기 가서 침 놓으면 좋아. 어떻게야 해서 놓는지. '으씩'하게 놔.)

113027 @ 자손은 안 허고예?(자손은 안 하고요?)

113027 #1 안 헌다. 그쟈 아덜이 이제 실 걸, 이제? 늙엉 죽엇구나게. 첨, 승협이라고 양*협이라고 거 양 서장 아덜이여.(안 한다. 그저 아들이 이제 있을 걸, 이제? 늙어서 죽었구나. 참, 승협이라고 양*협이라고 거 양 서장 아들이야.)

113027 @ 그 아덜도 죽어불언?(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113027 #1 죽엇저게. 늙언, 늙언. 경 오래 사는 것가? 사람 늙어 가민 죽는 거여게.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주게.(죽었지. 늙어서, 늙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거냐? 사람 늙어 가면 죽는 거야.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지.)

113028 @ 화상 입으민? 그거 봐봇수과?(화상 입으면? 그거 봐봤습니까?)

113028 #1 화상은 거. 화상은게 몸에 뭐 저 불을 '팍'하게끔 혜영 허나.(화상은 거. 화상은 몸에 뭐 저 불을 '팍'하게끔 해서 하나.)

113028 @ 불에, 물에, 뜨거운 물에.(불에, 물에, 뜨거운 물에.)

113028 #1 응. 뜨거운 물을 허나 뜨거운 불을 허나 화상 입넨 헌다 그것에이. 표적나민 아팟당.(아. 뜨거운 물을 하나 뜨거운 불을 하나 화상 입는다고 한다. 그것에 표적나면 아팠다가.)

113028 @ 그런 거에 뭐 부치는 거 봐봇수과? 화상 난 사람덜 뭐?(그런 거에 뭐 붙이는 거 봐봤습니까? 화상 난 사람들 뭐?)

113028 #1 몰라게. 어떵 헤난고? 그거 무싱것에 이 물에나 더운 물에나 허민이 그때 디여근에 벳겨진 것ᄀᆞ라 화상이옌 허주게.(몰라. 어떻게 했었는가? 그거 무엇거에 물에나 더운 물에나 하면 그때 데여서 벗겨진 것보고 화상이라고 하지.)

113028 @ 큰 뭔 아이덜안티나 이런 거 엇어낫부다예?(큰 뭐는 아이들한테나 이런 거 없었나보네요?)

113028 #1 뭣 우린 안 헤나고. 그거 헤영.(뭐 우린 안 했었고. 그거 해서.)

113029 @ 동상? 동상? 겨울에.(동상? 동상? 겨울에.)

113029 #1. 아, 그거 무시것고? 그거 잊어불어젓저. 추웡 걸리는 거. 추웡 걸리는 거 뭣이엔 허느니? 것ᄀᆞ라, 것ᄀᆞ라 동상이옌 헌다게.(아, 그거 뭐니? 거 잊어버렸네. 추워서 걸리는 거 뭐라고 하느냐? 것보고, 것보고 동상이라고 헌다.)

113030 @ 감기?(감기?)

113030 #1 감긴 그것 또 그 무싱것고? 또 얼엉.(감긴 그것 또 그 무엇이니? 또 얼어서.)

113031 @ 고뿔이옌 헙니까?('고뿔'이라고 합니까?)

113030 #1 고뿔이옌도 허고 감기옌도 허곡. 잘 알암저이. 하하하,(고뿔이라고도 하고 감기라고도 하고. 잘 알고 있네. 하하하,)

113031 @ 기침?(기침?)

113031 #1 기침은 헤헤 허는 나오는 거 지침이고. 감기 걸려 가민 지침 나와.(기침은 헤헤 하는 나오는 거 기침이고. 감기 걸려 가면 기침 나와.)

113032 @ 딸꾹질?(딸꾹질?)

113032 #1 딸꾹질 학학 허는 거고.(딸꾹질 '학학' 하는 거고.)

113032 @ 딸국질.(딸꾹질.)

113032 #1 헤클락헤클락 허는.(헤클락헤클락하는.)

113032 @ 이것도 딸꾹질이옌 헨마씨?(이것도 딸꾹질이라고 했어요?)

113032 #1 톨국질헌다게. 딸꾹질벳긔 더 골을 말 엇다게. 건.(딸꾹질한다, 딸꾹질밖에 더 말할 말 없어. 건.)

113033 @ 코피.(코피.)

113033 #1 응게. 코피도 막 피곤허민 나는 수도 잇고게.(그래. 코피도 아주 피곤하면 나는 수도 있고.)

113034 @ 제주도 말로 아는 거 이시민예? 가래?(제주도 말로 아는 거 있으면요? 가래?)

113034 #1 욜로 나오는 거고 칵허게.(요리로 나오는 거고 '칵'하게.)

113035 @ 가래톳?(가래톳?)

113035 #1 톱은 뭣고? 톱은 몰르켜. 건 안 들어봣저. 톱은?('톱'은 뭐인가? '톱'은 모르겠어. 건 안 들어봤어. '톱'은?)

113036 @ 설사는?(설사는?)

113036 #1 설산 설새고이. 막 홀트는 거.(설산 설사고. 막 홅는 거.)

113037 @ 이질?(이질?)

113037 #1 응. 이질도 그냥 설새 비슷헌 거여게. 이질이.(응. 이질도 그냥 설사 비슷한 거야. 이질이.)

113038 @ 곽란?(곽란?)

113038 #1 건 안 들어봣저.(건 안 들어봤어.)

113039 @ 체했을 때?(체했을 때?)

113039 #1 건 몰르켜. 뭣산디.(건 모르겠어. 뭐인지,)

113039 @ 체? 체?(체? 체?)

113039 #1 첸 이디 저 뭐 거러진 거. 건 내는 사람신디 강 내어사. 이디 얼른 크게 곧젠허민 꽝을 거러지나 뭐 거러진 거, 거 체옌 헌다. 건 내여줘사. 내리는 사름 내려와도 뒈주마는 이레 요꼬지만 내려주민 내려가주마는 내리지 못허민 어떵어떵 내리는 사름도 셔낫어. 체. 체.(첸 여기 저 뭐 걸어진 거. 건 내는 사람에게 가서 내어야. 여기 얼른 크게 말하려고 하면 뼈를 걸어지나 뭐 걸어진 거, 거 체라고 한다. 건 내려줘야. 내려주는 사람 내려도 되지만 이리 요까지만 내려주면 내려가지만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어떻게 내리는 사람도 있었었어. 체. 체.)

113040 @ 영 손에 베이, 뭐에 베어버려가지고, 칼에 영 베어불언.(이렇게 손에 베, 뭐 베어버려가지고 칼에 이렇게 베어버려서.)

113040 #1 건 어떵허여? 그건 베어불민 그디 상처 나지. 헐리 난 거(건 어떡해? 그건 베어버리면 거기 상처 나지. 상처 난 거.)

113040 @ 헐리?(상처?)

113040 #1 헐리 난 거, 하하하하.(상처 난 거, 하하하하.)

113040 @ 베일 데는 ᄇᆞ를 게 엇이민 어떵헤신고예? 그냥 놔둬?(베일 데는 바를 게 없으면 어떻게 했나요? 그냥 놔둬?)

113040 #1 어떵허여게. 이디 영 그챠져렌게. 그챠져렌이. 뭐 칼로 먹당 끊어졋젠 허주기.(어떡해. 여기 이렇게 끊어졌다고. 끊어졌다고. 뭐 칼로 먹다가 끊어졌다고 하지.)

113040 @ 헝겁데기라도 영?(헝겊이라도 이렇게?)

113040 #1 게. 그디게. 뭐 피 괄괄 나가민이. 영 묶어 주곡 헤여사주기게. 피 나는 거 내불엉 되느냐? 끈어져불엉.(그래. 거기. 뭐 피 콸콸 나가면. 이렇게 묶어 주고 해야지. 피 나는 거 내버리면 되느냐? 끊어져버려서.)

113041 @ 모기 물린 땐?(모기 물린 땐?)

113041 #1 모기도 하낫저게.(모기도 많았었지.)

113041 @ 모기 물린 땐 춤 ᄇᆞᆯ라?(모기 물린 땐 침 발라?)

113041 #1 게. 춤 ᄇᆞᆯ라낫어. 모기 물리민 ᄀᆞ려와. 긁으멍 춤 ᄇᆞᆯ라. 할망덜. 아이구, 그 헤끄만 헌 거 물어불민 ᄀᆞ라와낫저.(그럼. 침 발랐었어. 모기 물리면 가려워. 긁으면서 침 발라. 할머니들. 아이고, 그 조그만 한 거 물려버리면 가려웠었지.)

113042 @ 뱀 물릴 땐?(뱀 물릴 땐?)

113042 #1 무시거? 베염? 야야 겁난다야. 물려보진 안 헷저마는 어디 드르 뎅기당 베염 문다. 멩심허라이.(무엇? 뱀? 야야 겁난다. 물려보진 안 했지만 어디 들 다니다가 뱀 문다. 명심하거라.)

113042 @ 뭐 베염 물린 사람한티 뭐 ᄇᆞᆯ르고 피 뽑고 이런 건.(뭐 뱀 물린 사람한테 뭐 바르고 피 뽑고 이런 건.)

113042 #1 몰르켜. 어떵헹 물려보진 안 허난 모른디 베염 물리민 얼먹주기게. 지독허여. 베염.(모르겠어. 어떻게 해서 물려보진 안 하니까 모르는데 뱀 물리면 언 걸먹지. 지독해. 뱀.)

113042 @ 우리 어머니.(우리 어머니.)

113042 #1 물려난?(물려났어?)

113042 @ 오전에 양엣간 영 허젠 시월 달에? 이거 몃 달 전에.(오전에 '양엣간' 이렇게 하려고 시월 달에? 이거 몇 달 전에.)

113042 #1 물련?(물렸어?)

113042 @ 예게.(예.)

113042 #1 아이고야, 어떵 헤니?(아이고, 어떻게 하더냐?)

113042 @ 여기 손이 영 뒌.(여기 손이 이렇게 됐어.)

113042 #1 아이고, 경헌다게. 거게.(아이고, 그렇게 한다. 그거.)

113042 @ 택시 탄 가까운 병원 간, 뭐 헨.(택시 타서 가까운 병원 가서, 뭐 했어.)

113042 #1 맞아. 병원더레 독 빼야지게.(맞아. 병원으로 독 빼야지.)

113042 @ 이만큼 메독이.(이만큼 매독이.)

113042 #1 경헐 거라. 베염 독허여.(그렇게 할 거야. 뱀 독해.)

113042 @ '쏘악'허는 그것이예/('쏘악'하는 그것이요.)

113042 #1 아이구 쏘악허민게 세로 찌르는 셍이라 베염이. 아이고, 그거 오죽 겁나는 것가게?(아이고, '쏘악'하면 혀로 찌르는 모양이야 뱀이. 아이고, 그거 얼마나 겁나는 것이냐?)

113042 @ 막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쏙쏙쏙쏙' 아프덴예?(마구 그것 때문에 마구 이제 '쏙쏙쏙쏙' 아프다고요?)

113042 #1 무사 아니고게? 얼마나 독헌 것고게? 우린 물려보진 안헤도 어디 드르 고사리 끊으레 가도 베염 문다. 멩심 허라. 멩심 허라.(왜 아니야? 얼마나 독한 것이냐? 우린 물려보진 않아도 어디 들 고사리 끊으러 가도 뱀 문다. 명심 하라, 명심 하라.)

113043 @ 주넹이도 신발 신으난 꽉 쏘아불곡.(지네도 신발 신으니까 꽉 쏘아버리고)

113042 #1 주넹이도 물리민 아픈다. 우린 주넹이도 안 물어보고, 베염도 안 물어봣주마는 그 무는 것이 주넹이, 베염게. 사람신디.(지네도 물리면 아프다. 우린 지네도 안 물어보고, 뱀도 안 물려봤지만 무는 것이 지네, 뱀. 사람한테.)

113043 @ 벌도 쏘일 때.(벌도 쏘일 때.)

113042 #1 벌도 쏘민 아픈다게. 벌도 돌아뎅기는 거난.(벌도 쏘면 아프다. 벌도 돌아다니는 거니까.)

113042 @ 오줌 싸민 지넹이 물민?(오줌 싸면 지네 물면?)

113042 #1 하하, 주넹이 물엉 오줌 쌍 헌덴 헌다마는 물어노민 아파. 주넹이나 베염이나. 벌도 쒜믄 아프고.(하하, 지네 물어서 오줌 싸서 한다고 한다만 물어 놓으면 아파. 지네나 뱀이나 벌도 쏘이면 아프고.)

113044 @ 옻 오른 땐? 옻이라고 나무가?(옻 오른 땐? 옻이라고 나무가?)

113044 #1 아, 옻나무가 잇나. 우린 아니 올라부난 몰라도. 옻올르는 나무가 셔이. 거 문직앗당 옻올랑이 들음만 헤낫저. 우린 몰라.(아, 옻나무가 있어. 우린 아니 올라버리니깐 몰라도. 옻오르는 나무가 있어. 거 만졌다가 옻올라서 듣기만 했었지. 우린 몰라.)

113045 @ 멍든 때 어떵 헷수과? 막 멍이 맞앙은에 멍이 막 시퍼렁허게 들어. 몸에.(멍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멍이, 맞아서 멍이 막 새파랗게 들어. 몸에.)

113045 #1 어떵허여게. 거 좋아사 좋주게. 뭐 때리불민 멍은 들주게. 거멍케이. 맞아놓민게.(어떡해. 거 좋아야 좋지. 뭐 때려버리면 멍은 들지. 까맣게. 맞아놓으면.)

113045 @ 소고기로도 부치고.(소고기로도 붙이고.)

113045 #1 몰라. 우린 맞아보지 아녀난 몰라이. 원. 아방신디 강 맞아보진 안헷저게. 멍든 거. 떠려불민 거멍이사 허지. 멍들언. 우리 맞은 사람덜 경 멍들고 헷일

실 거라이.(몰라. 우린 맞아보지 않으니까 몰라. 원 남편에게 가서 맞아보지 안했지. 멍든 거. 때려버리면 거멓기야 하지. 멍들어서. 우리 맞은 사람들 그렇게 멍들고 했을 거야.)

113044 @ 말을 더듬을 때 '어 더더더더' 말을 더듬는.(말을 더듬을 때 '어 더더더더' 말을 더듬는.)

113045 #1 아, 더듬는 사람도 셔이. 얼른, 이실 거라. 우리ᄀᆞ찌 ᄏᆞᆯ이 못ᄀᆞᆯ앙 '어허' 허멍이 졸바로 못 ᄀᆞᆯ앙 더듬엉이.(아, 더듬는 사람도 있어. 어른 있을 거야. 우리같이 깨끗이 못 말해서 '어허' 하면서 바로 못 말해서 더듬어서.)

113047 @ 허리 삐었을 때?(허리 삐었을 때?)

113047 #1 허리 삔 땐 어떵 허느니? 꼼짝 못헐 거여. 우린 안 삐어봣저마는 허리 삐민이.(허리 삔 땐 어떻게 하느냐? 꼼짝 못할 거야. 우린 안 삐어봤지만 허리 삐면.)

113047 @ 발목 삐엿을 때?(발목 삐었을 때?)

113047 #1 발목이나 허리나 삐는 수가 잇어.(발목이나 허리나 삐는 수가 있어.)

113047 @ 삐민 누구안티 옛날엔 강 부탁할 사름 엇어신가?(삐면 누구한테 옛날에는 가서 부탁할 사람 없었는가?)

113047 #1 몰라이. 허리 삘 때 원. 몰라 원. 우린 허리도 안 삐여나고.(몰라. 허리 삘 때 전혀. 몰라 전혀. 우린 허리도 안 삐었었고)

113049 @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113049 #1 아이고, 물에 들당 물 들엉 막, 막 훈다기멍 내쳐낫저게. 귀에 물드는 수가 싯나. 물에 들 때.(아이고, 물에 들다가 물 들어서 마구, 마구 흔들면서 내쳤었지. 귀에 물드는 수가 있어. 물에 들 때.)

113049 @ 물에 들 때 쑥 그런 거 ᄲᆞᆺ앙 영 막고 헤낫수과?(물에 들 때 쑥 그런 거 빻아서 이렇게 막고 했었습니까?)

113049 #1 막음도 허주기게이.(막기도 하지.)

113049 @ 뭘로 막앗수과?(뭐로 막았습니까?)

113049 #1 아니, 뭣으로 막아? 속 허여근에 속 막아사 좋주게. 물에 들당 가끔 물이 들어가는 수가 셔. 게민 훈다기멍 내쳐사.(아니, 무엇으로 막아? 쑥 해서 쑥 막아야 좋지. 물에 들다가 가끔 물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러면 흔들면서 내쳐야.)

113049 @ 나중에 껌도 헤낫수과? 껌.(나중에 껌도 했었습니까? 껌.)

113049 #1 껌도 헤근에 막아낫저게. 우리도 물에 들어나난 그런 건 헤낫저.(껌도 해서 막았었지. 우리도 물에 들었었으니까 그런 건 했었지.)

113049 @ 그것벳긔 방법이 엇어?(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113049 #1 게. 하여튼 물이 다, 물 다 들어가진 안 혜영 들어가도 못허게 미릇 방법으로, 건 단도리 헤줘사게.(그래. 하여튼 물이 다, 물 다 들어가진 안 해서 들어가도 못하게 미리 방법으로, 건 단속 해줘야.)

113049 @ 그믄 해녀 헤난 사람은 귀가 안 좋을 수가 많다예?(그러면 해녀 했었던 사람은 귀가 안 좋을 수가 많네요?)

113049 #1 귀가 ᄒᆞ꼼 막을 수도 잇곡게. 그런 거 들어강이.(귀가 조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들어가서.)

113049 @ 어떤 사람은 막 고름도 나곡 막?(어떤 사람은 막 고름도 나고 막?)

113049 #1 게. 그런 거 들어강 곪앙게. 귀에 속에가. 그 물 빼지 못허영 곪지. 그런 것ᄁᆞ지는 안 허난 물엔 들어낫저.(그럼. 그런 거 들어가서 곪아서. 귀에 속에가. 그 물 빼지 못해서 곪지. 그런 것까지는 안 하니까 물엔 들었었지.)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그 살멍 죽을 뻔 헌 일은 엇어수과? 바당에 강은에 죽을 뻔. 죽을 뻔 헌 얘기, 아파가지고 또 저디 다쳐서 뭐.(그 살면서 죽을 뻔 한 일은 없었습니까? 바다에 가서 죽을 뻔. 죽을 뻔 한 얘기, 아파가지고 또 저기 다쳐서 뭐.)

114001 #4 나? 아파난 거? 엇다. 바당에 강 거 멩장 걸릴 때, 멩장 걸릴 때.(나? 아팠던 거? 없어. 바다에 가서 거 맹장 걸릴 때, 맹장 걸릴 때.)

114001 @ 바당에서 멩장 걸려난예?(바다에서 맹장 걸렸어요?)

114001 #1 뚠 건 바당에 강 뭣엔 헌 거 엇어. 저디 비양도 가젠 허난 배예? 다쳔 허리 ᄒᆞ꼼 다쳐난 벵완에 ᄒᆞ꼼 입원허고 아무것도 엇다.(딴 건 바다에 가서 뭐라고 한 거 없어. 저기 비양도 가려고 하니까 배요? 다쳐서 허리 조금 다쳐서 병원에 조금 입원하고 아무 것도 없어.)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0

발행인 박찬식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